

박사학위논문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허호준

2010년 2월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장원석

허호준

이 논문을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허호준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0년 2월

State-Making and Civilian Killings during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Cold War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Jeju 4·3 Uprising and Greek
Civil War-

Ho-Joon Huh
(Supervised by professor Won-Seok J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olitical Science

201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Keun-Hyeong Kang, Prof. of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 | |
|--|-----------|
| 국문초록 | v |
| 영문초록 | viii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 9 |
| 1. 그리스내전의 연구 추이 | 9 |
| 2. 제주4.3사건의 연구 추이 | 14 |
| 제3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17 |
| 1.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 17 |
| 2. 논문의 구성 | 19 |
| 제2장 이론적 배경 | 21 |
| 제1절 냉전체제의 형성과 정치폭력 | 21 |
| 1. 케난(George F. Kennan)의 봉쇄정책 구상과 냉전 형성 | 21 |
| 2. 콘테-모건(Earl Conteh-Morgan)의 집단정치폭력 | 27 |
| 제2절 국가건설과 정치폭력 | 29 |
| 1. 1. 킬리(Charles Tilly)의 국가건설과 동원이론 | 29 |
| 2. 거(Ted R. Gurr)의 정치폭력론 | 33 |
| 3. 파농(Frantz Fanon)의 식민지 폭력투쟁론 | 35 |
| 제3절 민간인 학살 분석 | 37 |
| 1. 호로위츠(Irving L. Horowitz)의 국가기구에 의한 제노사이드 | 37 |
| 2. 쿠퍼(Leo Kuper)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제노사이드 | 40 |
| 3. 발렌티노(Benjamin A. Valentino)의 대게릴라전에 의한 ‘대량학살’ | 42 |
| 제3장 냉전체제의 형성과 미국의 봉쇄정책 | 49 |
| 제1절 냉전체제 구축과 미국 | 49 |
| 1. 유럽과 그리스 | 50 |
| 1) 미-소의 유럽정책과 냉전의 대두 | 50 |
| 2) 트루먼 독트린과 냉전의 공식화 | 52 |
| 3) 미국의 그리스 정책 | 59 |

| | |
|--------------------------------------|------------|
| 2. 동아시아와 남한 | 62 |
| 1)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 62 |
| 2) 미국의 남한정책과 냉전의 확산 | 65 |
| 3) 열강의 제주도 인식과 미국의 제주도 정책 | 71 |
| 제2절 미국의 대소봉쇄전략 실행 | 85 |
| 1. 그리스 | 85 |
| 1) 정치개입 | 85 |
| 2) 군사개입 | 95 |
| 2. 남한 | 103 |
| 1) 정치개입 | 103 |
| 2) 제주도에서의 군사개입 | 109 |
| 제3절 소결 | 128 |
| 제4장 냉전체제 형성기 국가건설과 정치폭력 | 134 |
| 제1절 그리스와 남한의 국가건설과정 | 135 |
| 1. 그리스 | 135 |
| 1) 근대 그리스의 역사적 배경 | 135 |
| 2) 독일의 그리스 점령과 그리스의 민족해방투쟁 | 140 |
| 3) 탈점령 이후 그리스의 국가건설과정 | 150 |
| 2. 남한 | 157 |
| 1) 남한의 국가건설과정 | 157 |
| 2) 제주도의 자치기구 건설운동과 5·10선거 | 165 |
| 제2절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정치폭력 | 173 |
| 1. 그리스 | 173 |
| 1) 독일 점령 시기 정치폭력의 기원과 구조 | 173 |
| 2) 해방과 1944년 12월 봉기 | 181 |
| 3) 바르키자협정과 백색테러 | 186 |
| 2. 남한 | 190 |
| 1) 미군정기 국가건설과정의 정치폭력 | 191 |
| 2)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한계상황 | 196 |
| 3) 해방공간 제주도의 정치폭력 | 205 |
| 제3절 소결 | 211 |

| | |
|---|-----|
| 제5장 군사적 동원과정과 민간인 학살 | 218 |
| 제1절 군사적 동원과정 | 218 |
| 1. 그리스 | 218 |
| 1) 제1국면(1946. 3-1947. 5): 내전의 발발과 우익의 테러 | 219 |
| 2) 제2국면(1947. 5-1947. 12): 민주군대의 공세와 미군의 그리스 지원 | 225 |
| 2. 제주 | 231 |
| 1) 제1국면(1948. 4-1948. 5): 미군정의 초기 제주4·3무장투쟁 대응 | 231 |
| 2) 제2국면(1948. 5-1948. 8): 미군정 주도의 진압작전 | 237 |
| 제2절 초토화작전의 전개 | 241 |
| 1. 그리스 | 241 |
| 1) 제1국면(1948. 1-1948. 10): 정부군의 대응과 무능 | 242 |
| 2) 제2국면(1948. 10-1949. 10): 민주군대의 전술변화와 정부군의 총공세 .. | 250 |
| 2. 제주 | 259 |
| 1) 제1국면(1948. 8-1948. 12): 초토화작전과 민간인 학살 | 259 |
| 2) 제2국면(1949. 1-1954. 9): 마지막 군사적 동원과 절멸 | 275 |
| 제3절 소결 | 286 |
| 제6장 결론 | 292 |
| 참고문헌 | 298 |



표 목차

| | |
|---|-----|
| <표 3-1> 두 사건에서 냉전체제 형성과 미국의 개입양상의 일치점 | 131 |
| <표 3-2> 두 사건에서 냉전체제 형성과 미국의 개입양상의 차이점 | 133 |
| <표 4-1> 국제적십자사 자료에 근거한 사망자수 | 143 |
| <표 4-2> 유럽 국가들의 협력자 처벌 수준 | 151 |
| <표 4-3> 제주도 5.10선거 후보자의 소속 정당 및 득표수, 선거구별 투표율 | 172 |
| <표 4-4> 938-1960년 제주도의 인구변동 | 196 |
| <표 4-5> 1944년 4월과 1946년 11월 남한의 지역별 산업시설수 | 198 |
| <표 4-6> 1946년 12월 31일 현재 남한의 임차별 농가수 | 200 |
| <표 4-7> 제주도내 지주수와 소작인수 및 그 경지면적 | 201 |
| <표 4-8> 두 사건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정치폭력의 일치점 | 215 |
| <표 4-9> 두 사건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정치폭력의 차이점 | 217 |
| <표 5-1> 두 사건에서 군사적 동원과 민간인 학살의 일치점 | 289 |
| <표 5-2> 두 사건에서 군사적 동원과정과 민간인 학살의 차이점 | 291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킬리의 국가건설 기본모형 | 31 |
| <그림 2-2> 킬리의 동원모형 | 32 |
| <그림 2-3> 발렌티노의 대량학살 분류 | 43 |
| <그림 2-4> 정부군과 반정부진영, 민간인의 3각 관계 | 46 |
| <그림 2-5> 국가건설과 정치폭력, 민간인 학살의 관계도식 | 48 |
| <그림 4-1> 1947년 초 제주도 군정중대와 제주도내 정치세력의 역학구도 | 210 |

지도 목차

| | |
|---|-----|
| <지도 4-1> 1832-1947년 그리스 국가의 확장 | 138 |
| <지도 4-2> 독일, 이태리, 불가리아의 그리스 분할 점령 | 142 |
| <지도 5-1> 1947년 6월 그리스의 상황 | 226 |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의 목적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은 공간적, 내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논리와 구조 속에서 민간인 학살을 야기한 사건이었음을 밝히는데 있다. 또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에 가까운 2만5천~3만여명이 희생된 이유를 국제적 맥락에서 규명하는데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체제 형성기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국가건설이었다. 종전 이후 세계는 이전과 다른 국제질서를 요구하였고, 국가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은 미-소의 대결 구도 속에서 미국의 대소봉쇄전략이 구현된 사건들이었다.

20세기 그리스와 남한은 제국주의 침탈 이후 유사한 역사적 경로를 걸어왔다. 그리스는 독일의 침탈을, 한국은 일본의 침탈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해방 후 양 국가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확대를 가져왔다.

1944년 10월 해방을 맞은 그리스와 1945년 8월 해방된 한국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양국은 국가건설과정에서 외세의 지원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였다. 냉전체제 형성기 그리스와 제주도에서는 미국의 개입과 함께 정부군에 의한 대계털라전이 전개돼 민간인 학살을 초래하였다.

그리스내전은 대체적으로 독일의 점령 시기인 1943년 시작돼 1949년 끝난 것으로 간주하지만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내전은 1946년 3월 일어나 1949년 10월 종결되었고 내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10만-15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스내전은 트루먼 독트린의 선언과 함께 냉전의 공식화를,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봉쇄전략을 가져왔다.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응한 전 세계적인 봉쇄정책으로 나타난 트루먼 독트린은 이후 미국의 냉전정책과 제3세계 정책의 모델이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트루먼은 보좌관들에게 “한국은 극동의 그리스”라며 “우리가 충분히 강력하면, 우리가 그리스에서 했던 것과 같이 그들(공산주의자)에게 맞선다면, 그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의 기조 하에 동아시아에서 ‘반공의 보루’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에서 반공-우익정권의 수립을 원하였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우익세력을 지원하였다.

그리스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진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제주도를 비롯한 남한 각지에서는 좌·우익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가 되었다. 제주4·3사건이 일어나자 주한미군은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로 비유하고 주목하였다.

제주도는 19세기 말부터 전략적 요충지로서 열강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은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라고 인식한 주한미군의 시각은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미국 관리들이 국무부에 보낸 문서들도 제주도를 소련의 전초기지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국 관리들은 제주4·3사건을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로 간주하고, 공산주의자들의 거점인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제주도민들은 국가건설과정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제주4·3사건 또한 냉전체제 형성기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미국의 개입과 남한 정부의 대게릴라 전략으로 민간인 대량학살을 야기하였다. 이는 사건 이후 제주인들의 정치이념을 형성하고 고착화시키는데 지대한 요인이 되었다.

내전 또는 내전적 상황에서 게릴라들은 ‘게릴라전’(guerrilla warfare)이나 ‘비정규전’(irregular warfare)의 형태로 무장투쟁을 일으키며, 이에 맞서 정부군은 ‘대게릴라전’이나 ‘대비정규전’으로 대응한다. 게릴라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충돌의 가장 일상적인 형태가 되어왔고, 대량학살 사태의 추진동력이 되었다. 게릴라들에 대한 잠재적 협력과 지지 가능성으로 인해 민간인들은 정부군에 의한 대규모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게릴라전은 박해와 테러, 강제소개로 이루어지는 대게릴라 전략과 민간인 대량학살간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낸다.

제주4·3사건 당시 초토화작전 시기 연대장이었던 송요찬은 훗날 대게릴라 전략과 관련해 마오쩌둥의 ‘유격전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배수작전’(排水作戰)과 함께 ‘독약 풀어내기’ 전략도 언급하였다.

그리스에서는 미군의 자문에 따른 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한 강제소개가 이루어졌다. 그리스 정부군은 강제소개 정책을 통해 산간지역을 무인지대나 자유발포지대로 만들었고 국가간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네이팜탄 등 미군의 지원을 받아 각종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개되지 못한 그리스인들은 정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하

였으며, 많은 민간인들은 좌익이나 좌익 동조자, 혐의자라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민간인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는 오히려 민간인들을 게릴라 근거지인 산간지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스에서의 계엄령 선포는 정보검열과 이동제한 등 무제한적인 시민권의 박탈을 가져왔다. 그리스내전에서 게릴라들을 토벌했던 정부군과 우익단체의 주류는 점령 당시 추축국을 상대로 민족해방투쟁세력을 탄압했던 친독협력부대와 우익단체 출신들이었다.

제주도에서의 대게릴라전은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의 도구로서 남한을 반공보루로 내세우려는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함께 미군의 개입, 그리고 외부세계와의 격리가 가능했던 ‘섬’이라는 특수성이 합쳐져 민간인 대량학살이 증폭되었다.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진압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모두 일본군 지원병이거나 장교 출신이었다. 일본군은 중-일 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 중국의 동북지방을 비롯해 만주, 동남아시아에서 현지 지역민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초토화작전을 사용한 전력이 있다. 제주도 토벌작전의 특징은 대게릴라전에서 나타나는 철저한 섬멸전이었다. 제주도는 ‘폭력의 시험무대’였으며, 이는 민간인 학살로 귀결되었다.

제노사이드를 “국가기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호로위츠의 정의처럼, 양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국가기구에 의해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으면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동조자 또는 혐의자 등의 이름으로 학살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일어난 4·3사건과 그리스라는 국가적 차원의 내전은 공간적,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그리스내전과 제주4·3사건은 양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양 지역에서는 사건 이후 수십년 동안 좌파와 우파가 공식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은 사라졌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그리스에서는 게릴라측에 가담하였던 그리스인들은 박해를 받거나 주류 사회의 진입이 차단되었고, 반공-우익 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국은 내전 개입 이후 1974년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그리스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왜곡시켰고 이의 피해는 그리스인들에게 돌아갔다. 제주4·3사건의 부정적 유산은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들 사건이 남긴 유산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식민·점령 시기보다 더욱 가공할 공포를 체험을 통해 체득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내면화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Abstract

State-Making and Civilian Killings during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Cold War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Jeju 4·3 Uprising and Greek Civil War-

This thesis tries to find that Jeju 4·3 Uprising and Greek Civil War which occurred in the process of state-making during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cold war had brought about the civilian killings in the similar logic and structure in spite of the differences of space and contents. And this also is to identify the cause of casualty toll of 25,000-30,000 Jeju islanders, approximately 10% of the total population at that time,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main problem of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during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cold war was the state-making. After the war, the World demanded the different international order before the war. Jeju 4·3 Uprising and Greek Civil War which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the state-making were the events that America's containment policy against the Soviet Union came true.

In 20th century, Greece and South Korea has traced similar historical paths after the invasion of the imperialism. Greece had experienced the invasion by Nazi Germany and Korea by Japanese imperialism. These unfortunate experiences had brought the depth and enlargement of the politico-social conflicts in these countries.

Greece which was liberated in October 1944 and Korea which was liberated in August 1945 were exposed to 'the revolutionary situation' from the bottom. And these two countries overcame the crises during the state-making with backing of the outsiders. During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cold war, there were anti-guerrilla warfare by the government forces in Greece and Jeju island and resulted in civilian killings.

It is generally regarded the Greek civil war had begun from 1943 during the occupation of Nazi Germany and lasted to 1949, but the all-out civil war covered from March 1946 to October 1949. By the direct influence of the civil

war, it is estimated that 100,000–150,000 Greeks were killed. After the civil war, the Greeks who had joined to the guerrilla forces were persecuted by the government or prevented from entering the main society. And the anti-communist and right wing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Greece.

The Greek civil war had brought about the period of the formulation of the cold war with the declaration of the Truman doctrine, and the containment strategy as the method. Truman doctrine had become the model of the cold war policy and the third world policy of America. After the Korean war broke out, President Truman to his aidvier that "Korea is the Greece of the Far East" and "If we are tough enough now, if we stand up to them like we did in Greece, they won't take any steps".

America wanted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communist and right wing government in South Korea for making 'the bulwark of anti-communist' on the basis of the Truman doctrine in East Asia. For this, America vigorously supported the right wing groups.

In the similar period which was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k civil war, some areas including Jeju island in South Korea became 'the battlefield of the ideology' between left and right wing. U.S. army forces in Korea paid attention to Jeju and they thought Jeju island as 'Greece of the Orient' when the Jeju 4·3 Uprising broke out.

Jeju 4·3 Uprising which broke out during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MGIK) also resulted in civilian mass killings by the anti-guerrilla warfare of the government and American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the state-making. This became the main factor to form and consolidate the political ideology of Jeju islanders.

Jeju island was paid attention by the Powers as the strategic pla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his recognition reached to the process of Jeju 4·3 Uprising.

The viewpoint of the U.S. army forces in Korea which regarded Jeju island as Greece of the Orient showed this recognition. The documents that American officials in South Korea sent to the state department showed also Jeju island as the advanced base of the Soviet Union.

American officials regarded Jeju 4·3 Uprising as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communism'. So, they recognized that they should root out the

communists in the stronghold of the communists of Jeju island. As a result of this recognition, Jeju islanders were the subject of the exclusion in the process of the state-making.

The guerrillas bring about the armed struggle as the forms of the guerrilla warfare or the irregular warfare in the civil war, and the government forces counterattack as the forms of the anti-guerrilla warfare or anti-irregular warfare. The guerrilla warfare has been the most common form of the armed conflict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became the driving force of the mass killings.

Civilians can be target of the massive social engineering by the government forces because of the potential coope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the support to the guerrillas. Thus, the guerrilla warfare create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ivilian mass killings and anti-guerrilla warfare which has persecution, terror and forced relocations.

USFIK G-2 Reports stated that 9th Regiment adopted the 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

Mr. Song, Yo Chan who was the 9th regimental commander during the scorched-earth operation in Jeju 4·3 Uprising had stated even the 'pouring the poison in the pond' with 'draining the water' which is one of the principles of the guerrilla warfare of Mao Tsedong in 1960s.

There was forced relocations of the villagers who lived in mountain areas by the advice of American advisors in Greece. Greek government forces made mountain areas as 'the free populated areas' or 'free fire zones' by the strategy of the forced relocations and fired various weapons including Napalm bombs which are used international war with the backing of American forces.

In this process, the Greeks who could not relocated destined to meet the killings and many civilians were executed in charges of leftists, their sympathies and suspects. But, the persecution of the government forces had driven the civilians to the mountain areas of the guerrilla's base. The martial law in Greece had brought the dispossession of unlimited civil rights with information censorship and movement restrictions from the civilians. And the most of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 forces and right wing organizations were mostly former collaborators and right wing armed groups who had fought against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forces for independent.

The anti-guerrilla warfare in Jeju island was the main factor of civilian mass killings because of the policy of Rhee, Syngman government who wanted to establish the bulwark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n and American intervention, and peculiarity of the island which was able to isolate from the outside.

Most of the commanders who had commanded in the operations during Jeju 4·3 Uprising were former NCOs and officers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Japanese imperial army had ever adopted the scorched-earth operations during the Japanese-Chinese war and the Pacific war. The characteristic of the mopping-up operations in Jeju island was the strategy of annihilation. Jeju island was the test stage of the violence and its result was the civilian mass killings.

As Irving L. Horowitz defined Genocide as "a structural and systematic destruction of innocent people by a state bureaucratic apparatus", civilians in Greece and Jeju island were slaughtered in the name of the communists, their sympathizers and suspects.

Thus, it strongly suggests that Jeju 4·3 Uprising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not the local context in spite of the spacial and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Jeju 4·3 Uprising which occurred in local level and Greek civil war which occurred in national level.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세기 그리스와 남한은 제국주의 침탈 이후 유사한 역사적 경로를 걸어왔다. 그리스는 독일의 침탈을, 한국은 일본의 침탈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해방 후 양 국가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확대를 가져왔다. 냉전체제 형성기의 그리스와 남한에서는 국가건설과정에서 좌·우익 세력이 충돌하였고, 미국의 적극 개입과 함께 반공-우익정권을 수립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리스와 남한/제주도에서는 정부군에 의한 대계털라전이 전개돼 민간인 학살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촉발된 제주4·3사건¹⁾과 그리스내전²⁾은 공간적, 내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논리와 구조 속에서 민간인 학살을 야기한 사건이었음을 규명하는데 있다. 둘째,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에 가까운 2만5천-3만여명이 희생된³⁾ 이유를 국제적 맥락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1944년 10월 해방을 맞은 그리스와 1945년 8월 해방된 한국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양국은 외세의 지원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였다. 특히 그리스와 제주도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정부-우익세력의 폭력은 유사한 것이었다. 양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대계털라전을 명분으로 한 정부군의 폭력에 노출됐으며, 마찬가지로 좌익 계털라들에게도 일정부분 노출되었다.

- 1)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0. 1. 12 법률 제6117호, 개정 2007. 1. 24 법률 제8264호, 일부 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제2조 1항.
- 2) 내전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정부가 가담한 가운데 한 국가 내에서 보편적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무력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칼리바스는 내전을 “교전상태의 시작과 함께 일반적 권위를 필요로 하는 집단들끼리의 인지도된 주권체(recognized sovereignty entity) 내에서의 무장전투”로 정의한다. 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17; 스몰과 싱어는 내전을 “(1) 국가 내의 군사작전 (2) 민족 정부의 적극적 참가 (3) 양 진영의 효과적 저항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무력충돌”이라고 정의한다. Melvin Small and David J. Singer, *Resort to Arms: International and Civil War, 1816-1980* (Berkeley Hills, C.A.: Sage, 1982), p.210.
-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동위원회, 2003), pp.366-367, 536-537.

1940년대의 그리스는 전쟁과 점령, 내전과 학살로 점철됐으며, 재건과 발전은 힘든 일이었다고, 심리적 상처는 치유하기에는 너무 깊었다.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및 군사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예방적·패권적 팽창을 추구하게 되었다.⁵⁾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 대륙의 남동부에 위치한 그리스는 소련의 지중해 진출을 막아야 하는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리스내전은 트루먼 독트린의 선언과 함께 냉전의 공식화를,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봉쇄전략을 가져왔다. 이러한 봉쇄전략은 미국식의 가치와 정치제도를 공유하고 선호하는 국가들을 미국의 동반자로 간주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현실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를 지원하게 되었다.⁶⁾ 트루먼 독트린은 이후 미국의 냉전정책과 제3세계 정책의 모델이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트루먼은 보좌관들에게 “한국은 극동의 그리스”라며 “우리가 충분히 강력하면, 우리가 그리스에서 했던 것과 같이 그들(공산주의자들)에게 맞선다면, 그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⁷⁾

그리스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진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제주도를 비롯한 남한 각지에서는 좌·우익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가 되었다.

제주4·3사건이 일어나자 주한미군은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로 비유하고 주목하였다.⁸⁾ 외신 또한 1948년 5·10선거를 전후한 시점의 남한의 정치사회적 사태의 진전을 그리스내전과 비교하였고,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전개과정이 유사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미국 의회도 남한과 그리스 상황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보였다.⁹⁾

4) Theodore A. Coulombis, John O. Iatrides, eds., *Greek-American Relations: A Critical Review* (New York: Pella, 1980), p. 24.

5) 권용립, “미국의 외교정책”,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2001), p.464.

6)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구대열 옮김,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 미국의 대한 정책, 1941-1950』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50.

7)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A Study in Counterrevolu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p.307.

8) *Subj: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 John Weckerling to CG. USAFIK, 7 June 1948.

9) 대소봉쇄정책의 입안자인 케난(Geroge F. Kennan)은 남한과 그리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보았는가. 미국 의회는 남한과 그리스의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케난은 1949년 6월 대한원조법안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한국에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건의하고 있는지와 그리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관계에 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였다.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들 간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그리스 역시 우리는 미군을 보내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결코 그리스에 미군을 주둔시킨 적이 없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과 같은 미군 철수 문제가 없다. 우리는 주로 원조 프로그램과 현지 국민들의 무장을 통해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상황이 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Far East Part 2, Selected Executive Session Hearings of the Committee, 1943-50*, Vol. VIII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은 분명 유사점이 있다.¹⁰⁾ 필자는 제주4·3사건을 다음과 같이 본다. (1)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소의 대결 구도와 냉전체제 형성기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던 국제적 사건이었다. (2) 국가건설과정에서 반공-우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초래한 사건이었다. (3) 게릴라전의 형식을 띤 내전적 상황이었으나 정부군과 유격대의 양 세력은 군사력의 측면에서 완전 불균등 관계였다.¹¹⁾ (4) 정부군의 군사작전 전개 과정에서 ‘제주도민=공산주의자’라는 가정 아래 국가폭력이 일어났다.

그리스내전 또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소의 대결구도를 상정하고 냉전체제 형성기 미국의 개입이 있었던 국제적 사건이었다. (2) 국가건설과정에서 반공-우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3) 독일 점령 시기 저항운동을 벌였던 좌익저항세력 대 외세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 및 우익단체 연합세력간의 대등한 군사력의 대결구도를 유지했던 ‘내전’이었다. (4) 정부군의 진압작전 전개과정에서 ‘비우익 그리스인=공산주의자’라는 가정 아래 민간인에 대한 국가폭력이 일어났고, 좌익에 의한 민간인 폭력도 발생하였다.

제주도 주둔 미군 고문관들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의 투쟁’이었다.¹²⁾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의 기초 하에 동아시아에서 ‘반공의 보루’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에서 반공-우익정권의 수립을 원하였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우익 세력을 지원하였다.¹³⁾

pp.101-102.

10) 존슨(Charlmers Johnson)은 제주43사건과 체코슬로바키아 사건의 유사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한국이나 체코슬로바키아, 기타 동유럽 국가들에는 ‘해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이 1905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해 식민지화하고 착취했듯이, 1938년 뮌헨협정 이후 나치도 체코슬로바키아를 분할점령·강탈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양 국가는 승전국의 식민지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프라하에서 쿠데타를 시도하던 1948년 남한의 우익세력은 제주도에서 살육을 자행했으며, 많이 알려진 체코슬로바키아 사건에 견줘 제주도 학살사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사건과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제주43사건에서 이승만 정부의 진압이 동티모르에서의 인도네시아아 군대나 보스니아 코소보에서의 세르비아인들의 그것과도 유사하다고 말하였다. Charlmers Johnson,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0), pp.97-100.

11) 제주43위원회에 신고접수된 현황을 보면,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는 78.1% 대 12.6%의 비율이며, 군경, 우익단체원의 피해자수는 759명이다. ‘토벌대’에 의한 피해자는 78.1%(1만955명), ‘무장대’에 의한 피해자는 12.6%(1764명), 기타 0.3%(43명), 공란처리 9%(1266) 등으로 정부군과 유격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8대 2의 비율이었다.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p.371, 373-376.

12) Charles L. Wesolowsky(1948년 제주도 주둔 제11연대 대대 및 제9연대 고문관) 인터뷰, 2001년 10월 22-23일.

13) 벤 플리트는 남한과 유사점이 많은 그리스를 거쳐 미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그리스내전에서 같이 활동하였던 닥트 중령을 데려와 지리산 게릴라를 토벌한 백선엽 장군의 ‘백야전투사령부’ 고문단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김일평, “김일평 교수 회고록(1)-미국 유학 50년 비화”, 『월간조선』, 2003년 4월호, p.536; 벤 플리트는 제주도에도 인연이 깊다. 그는 1951년 5월 미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이승만과 함께 제주도의 육군 제1훈련소를 방문해 훈련모습을 참관하기도 했고 1953년 퇴역한 뒤에는 한미재단 이사장으로 제주도의 목장건설에 관심을 보였다.

전후 유럽의 이념대결의 장이 그리스였다면 동아시아의 이념대결의 장은 남한이었다.¹⁴⁾ 그러나 그리스가 좌·우익간의 폭력적 충돌로 민간인 학살과 사회 붕괴 위기에 직면했던데 비해 이념대결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남한의 제주도는 ‘폭력적’ 민중 저항 이후 정부군의 일방적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¹⁵⁾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식민과 점령체제의 붕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변동은 새로운 독립국가의 창출을 가져왔다. 패전, 침략위협, 식민지 쟁탈전 등과 같은 국제적 열국체계(international states system)내의 상황전개는 혁명적 위기의 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¹⁶⁾ 2차 세계대전 종전 및 식민국가기구의 붕괴와 함께 나타난 혁명적 근대 국가건설 움직임의 분출은 이러한 식민통치 및 점령통치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다.¹⁷⁾

하프(Babara Harff)가 “국가적 격변은 정치공동체의 격변을 가져오는데……탈식민지 국가나 혁명 직후의 사회가 체제건설 과정에서 경쟁하는 집단들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부적 폭력에 돌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¹⁸⁾ 경쟁자들이 폭력에 돌입하는 것은 배타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기구의 확립과정이며 국가건설과정의 한 유형이다. 영토내 주권의 독점적 구축과정에서 도전세력에 대한 공격은 일종의 국내 평정과정이며, 그 집단이 외부와 연계된 주권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인식될 때 탄압은 가혹하다. 그러나 평정과정에서 동족을 국가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국민이 아닌 존재로 의제화(議題化)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구축과정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¹⁹⁾

내전 또는 내전적 상황에서 게릴라들은 ‘게릴라전’(guerrilla warfare)이나 ‘비정규

14) 아시아에서 남한이 미-소의 이념대결의 장이라는 주장은 트루먼과 국무성 고위관리들에 의해 언급된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6년 7월 16일 폴리(Edwin W. Pauley)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한의 상황에 관한 폴리의 1946년 6월 22일자 서한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본인은 귀하가 [남한이] 아시아에서 우리의 전체 성공이 달려있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하였다. 또 3부조정위원회(SWNCC)에 제출된 한국문제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미국은 필연적으로 공산화가 될 여건 때문에 남한에서 철수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은 극동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미국의 위신’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내외적인 공산주의 압력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에 의존하는 소국가들에게도 좌절을 줄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President Truman to Ambassador Edwin W. Pauley, July 16, 1946, *FRUS* 1946, Vol. VIII, p.713, SWNCC 176/30, Report by Ad Hoc Committee on Korea, August 4, 1947, *FRUS* 1947, Vol. VI, pp.738-741.

15) 메릴은 “미국의 점령에 대해 이러한 폭력적 민중저항은 전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John R. Merrill, "The American Occupation of Korea", 서대숙 외, 『한국현대사와 미군정』 (강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1), pp. 53-54.

16)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21-23.

17) 박명림, “한국의 국가형성, 1945-48: 시각과 해석”,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1995), p.199.

18) Barbara Harff, “제노사이드의 발생원인”,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Genocide and the Modern Age* (Conn.: Greenwood Press, 1987)/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제주: 각, 2005), pp.92-93.

19) 김종성·박옥임, “국가체제형성기의 민간인 학살과 국가폭력 -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제9집(2003), p.170.

전'(irregular warfare)의 형태로 무장투쟁을 일으키며, 이에 맞서 정부군은 '대게릴라전'이나 '대비정규전'으로 대응한다. 게릴라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충돌의 가장 일상적인 형태가 되어왔고,²⁰⁾ 대량학살 사태의 추진동력이 되었다.²¹⁾

내전은 보통 지역적 현안과 상황에 기인하지만, 일단 시작되기만 하면 국제적 과정이 충돌을 영속화시키거나 전쟁의 강도를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²⁾

연구자들은 이러한 내전을 "지옥의 가장 깊고 가장 극악무도한 지옥"이며 "종종 가장 유혈적이고, 가장 고통에 찬 전쟁 형태"라고 말한다.²³⁾ 특히 '이데올로기적' 또는 '혁명적' 내전은 폭력의 최고 수준으로 간주되었다.²⁴⁾

게릴라전은 정치적 목적을 정치적 방법으로 얻을 수 없을 때 정치적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²⁵⁾ 게릴라들에 대한 잠재적 협력과 지지 가능성으로 인해 민간인들은 정부군에 의한 대규모 사회공작(social engineering)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게릴라전은 박해와 테러, 강제소개로 이루어지는 대게릴라 전략과 민간인 대량학살간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낸다.²⁶⁾ 제주4·3사건 당시 초토화 작전 시기 연대장이었던 송요찬은 훗날 대게릴라 전략과 관련해 마오쩌둥의 유격전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배수작전'(排水作戰)과 함께 '독약 풀어내기' 전략도 언급하였다.²⁷⁾

한편, 2차 세계대전의 처참함을 목격한 유엔 총회는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지원과 장치에 반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이며, 문명세계의 비난을 받는다"고 선언한 1946년 12월 11일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추가 분석과 검토를 통해 1948년 12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56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20) Irving Louis Horowitz, *Foundations of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1972), p.282;

21) Benjamin A. Valentino,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Twentieth Centur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장원석·허호준 옮김,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 제주대 출판부, 2006), p.151.

22) 희생자를 1천명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44년부터 1997년까지 104건의 내전이 있었으며 1816년부터 1997년까지는 213건의 내전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Ann Hironaka, *Neverending W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ak States, and the Perpetuation of Civil War*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p.2-3

23) Arno J. Mayer, *The Furies: Violence and Terror in the French and Russian Revolu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p.207, 323.

24) Stanley G. Payne, *The Franco Regime, 1936-1975*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p.209.

25) Irving Louis Horowitz, *Foundations of Political Sociology*, p.282.

26) Polymeris Voglis, "Becoming Communist: Political Prisoners as a Subject during the Greek Civil War," Philip Carabott & Thanasis D. Sfikas, eds., *The Greek Civil War: Essays on a Conflict of Exceptionalism and Silences* (Hampshire: Ashgate, 2004), p.141; Benjamin A. Valentino, Paul Huth and Dylan Balch-Lindsay, "Draining the Sea: Mass Killing and Guerrilla Warfar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Spring 2004), pp.367, 383-384.

27) "Notes on Anti-guerrilla Warfare", by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Song, Yo-Chan(1916-), *The Orlando W. Ward Papers*, U.S. Army Military History Research Collection, Carlisle, Pa, USA. 송요찬의 대게릴라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이 수기는 필자가 처음 발굴한 것이다.

‘제노사이드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통과시켰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제주4·3사건은 냉전체제 형성기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미국의 개입과 남한 정부의 대게릴라 전략으로 민간인 대량학살을 야기하였다. 이는 사건 이후 제주인들의 정치이념을 형성하고 고착화시키는데 지대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스내전은 대체적으로 독일의 점령 시기인 1943년 시작돼 1949년 끝난 것으로 간주하지만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내전은 1946년 3월 일어나 1949년 10월 종결되었다. 각종 자료들은 내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10만-15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게릴라측에 가담했던 그리스인들은 박해를 받거나 주류 사회의 진입이 차단됐고, 그리스에는 반공-우익 정부가 수립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규명돼야 할 것이다. 1) 제주4·3사건을 내전 또는 내전적 상황의 한 유형으로서 게릴라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2) 제주도라는 지역적 차원의 공간과 그리스라는 국가적 차원의 공간 비교가 가능한가? 3) 남한과 그리스에서 국가건설과정의 정치갈등은 민간인 대량학살에 영향을 미쳤는가? 4)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에서 미국의 개입 강도는 어떠했는가?

첫째,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이에 따른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사과가 이뤄졌으나, 제주4·3사건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기점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한 공식 역사가 바뀌기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²⁹⁾ 제주4·3사건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폭동’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³⁰⁾ 그러나, 제주4·3사건을 내전의 한 형태로서 대게릴라

28) Irving Louis Horowitz, *Taking Lives: Genocide and State Power*, 4th 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7), pp.13-14; 전체 19개 조항으로 이뤄진 제노사이드협약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의 정의로서, 협약 제2조에 규정돼 있다. 나치의 야만행위의 영향으로 나온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은 “제노사이드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민족적,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자행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고 언급된다.

- (a)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 (b)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
- (c)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계산된 삶의 조건을 집단에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
- (d) 집단의 출산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지닌 수단을 과하는 행위
- (e) 강제적으로 어린이를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옮기는 행위

<http://www.un.org/millennium/law/iv-1.htm> (검색일: 2008. 11. 3).

29) 양정심, 『제주4·3항쟁 -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서울: 선인, 2007), p.13.

30) 제주4·3위원회는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2006년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위령제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됐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 대통령의 위령제 행사 참석은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제주4·3사건을 ‘폭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4·3사건은 사건을 주동하고 개입한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하였다. 이 장관은 “2003년 당시 국방부는 4·3사건이 무장폭동이라는 입장이었고, 수정을 요청한 (4·3관련 단체)쪽은 무

전이라는 군사작전의 개념에 입각해 민간인 대량학살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드물다.³¹⁾ 물론 이러한 접근법은 유격대와 정부군간의 절대적 군사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4월 3일 무장투쟁을 일으킨 주도세력은 ‘제주도 인민유격대’였으며³²⁾ 정부군과 유격대의 충돌과정에서 주민들이 표적이 된 것은 전형적인 대게릴라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도는 해방 이전 좌·우파간의 격렬한 대립이 없었던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 제주도에는 소수의 친일파 관리들을 제외하고는 줄곧 사회주의운동세력이 청년운동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이마저도 해방이 될 무렵에는 일제의 징병과 공출 등 태평양전쟁 말기 탄압정책이 강력해지면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방 뒤 일본에서 공부하거나 노동에 종사했던 청년들이 귀향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청년들은 이들과 함께 자치기구 건설운동을 전개하였다. 제주도의 공동체에 대해 미군정과 뒤이은 서북청년회와 극우파 도지사인 유해진의 부임 등 외부세력의 진주는 좌·우파간의 대립이 아닌 제주도 공동체 대 외부세력의 갈등구도를 형성하였다.³³⁾ 이러한 갈등이 중층적으로 심화·확대되면서 무장투쟁으로 폭발했다고 할 수 있다. 유격대는 게릴라전에서 사용되는 매복과 기습작전을 사용하였으며, 정부군은 대게릴라전에 입각해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무용은 제주4·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정부군은 전통적인 대게릴라전의 전략과 전술, 작전개념을 채택하고 활용한 것으로 보았다.³⁴⁾

장봉기로 표기해달라고 하였다”며 “(합의가 어려워) 양쪽의 입장은 그대로 둔 채 소요사태로 (절충해) 표기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겨레』, 2003. 11. 1; 2006. 4. 4; 2008. 10. 7.

31) 이는 제주4·3사건을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민들의 봉기의 명분이나 민간인 대량학살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김무용은 정부군의 토벌작전에 따른 군사전략으로서 민간인 대량학살을 고찰하였다. 김무용, “제주4·3 토벌작전의 민간인 희생화 전략과 대량학살”,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8호 (제주: 각, 2008), pp.165-204.

32) 본 논문에서는 ‘무장대’라는 호칭 대신에 ‘제주도 인민유격대’ 또는 ‘유격대’라는 호칭을 사용하겠다. 무장(武裝)은 ① 전투를 할 때에 하는 몸차림. 또, 전투를 할 때와 같이 하는 차림새 ② 전투를 할 목적으로 장비함. 또, 그 장비를 말한다. ‘무장대’(武裝隊)라 함은 통상적으로 ‘무장’(武裝)을 갖춘 세력을 말하나, 이는 제주4·3사건 당시 게릴라 활동을 했던 사람은 물론 정부군의 토벌을 피해 다닌 사람들도 포함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무장대의 범주’에 “무장대·유격대·자위대·인민군·폭도·공비·괴한 등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다. 이들 무장대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비무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무장 유격대’(armed guerrilla)와 ‘비무장 유격대’(unarmed guerrilla)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유격대’로 통칭하였다.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7), p.1316;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371.

33) 이러한 전통적인 ‘제주도 공동체 대 외부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1901년의 이세수란 등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에서도 찾을 수 있다.

34) 공식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남로당과 제주도민과의 관계 등 무장투쟁 주도세력에 대한 연구도 제주4·3사건을 ‘내전적 상황’으로 보고 접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양정심, 『제주도 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양정심, 『제주4·3항쟁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장윤식,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내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민간인들에 대한 강제수용은 내전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특징이며, 노약자, 특히 아동에 대한 학살은 어떤 상황이든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연구도 있다. 김은희, 『제주4·3 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허영선, 『제주4·3시기 아동학살 연구-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6.

필자는 이 논문에서 제주4·3사건을 내전론적 시간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내전론적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섬지역으로서의 제주도의 특수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적 사건에 있어 특수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은 일맥상통한다. 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차원의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소통하며, 지역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의 연구와 상호 공통점이 발견된다. 더욱이 제주도는 섬 지역으로서 자치적 성향이 강하였다.³⁵⁾ 또 당시 주한미군과 외신들은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을 여러차례 비교해 언급하였다.³⁶⁾ 이는 지역과 국가라는 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³⁷⁾

셋째, 그리스와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적 분열은 폭력적 충돌, 특히 군사적 충돌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간인 학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국가내의 분열은 계급투쟁으로 발전하거나 대중운동과 결부된 투쟁 형태로 변모한다. 국가의 개입은 ‘내전’이 일어날 경우 국가 당국자와 내전을 일으킨 반정부조직 사이에는 폭력적인 대결로 나타났다.³⁸⁾ 국가건설은 필연적으로 권위와 권력에 대한 새로운 정통성의 창출을 가져오며,³⁹⁾ 이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세력과의 충돌로 정치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국가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이들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지 않고서는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넷째, 냉전 시기 충돌은 미-소가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추동했으며, 군사적 개입은 한 이데올로기에서 타 이데올로기로의 전환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확보를 위한 투쟁은 충돌집단에 의해 대대적인 폭력으로 특징지어졌다.⁴⁰⁾

제주도와 그리스에서 미국의 개입은 소련의 개입에 맞선 이데올로기적 고려에 의

35)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344-348;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제주: 각, 2008), pp.404-409.

36) UP통신 서울특파원 James Roper 기사, 『조선일보』 1948. 5. 11; 『서울신문』 1948. 5. 11.

37) 미군 기관지 *Stars and Stripes* (Pacific)는 같은 날 같은 면에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 신문은 1948년 4월 26일 서울발 UP 기사를 통해 “국방경비대가 제주읍을 포위하는 동안 경찰이 폭동 혐의자들의 주택을 급습해 6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좌익계열의 소요에 대한 정부의 최초의 대응”이라고 보도한 바로 옆에 그리스내전과 관련해 아테네발 AP 기사에서 “남중부 그리스에서 공산계열의 게릴라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리스군이 아르토티나를 장악하고 1천명 이상을 해방시켰다”고 보도하고 있다.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8. 4. 26.

38)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1991), pp.218-219.

39) Hendrick Spruyt, "War, Trade, and State Formation," in Carles Boix and Susan C. Stoke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212.

40) Earl Conteh-Morgan, *Collective Political Violence: An Introduction to the Theories and Cases of Violent Conflicts* (New York: Routledge, 2004), pp.31-32.

해 이루어졌다.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에서 외세의 지원은 개입의 정도만 다를 뿐 논리와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난 미국의 패권적 규정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과 그리스의 내전적 상황 또는 내전의 발생 시기는 식민지배와 점령통치에서 벗어난 전후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 시기이며, 국가건설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을 보여주는 역사공간이다.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미국은 그리스내전의 경험을 한국전쟁에 적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그리스내전과 한국전쟁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⁴¹⁾ 그리스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강력한 반공주의자’로 구성된 1263명의 군인을 파견하였다. 이들 가운데 장교들은 대부분 그리스내전에 참전했던 군인들로, 이들은 미국제 무기와 미군 고문관들과 작전을 벌였던 경험이 있었다. 그들이 한국에서 맞닥뜨린 산악지형과 혹독한 겨울의 추위는 그리스내전 시기의 환경과 너무나 유사하였다.⁴²⁾ 또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인 벤 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은 ‘주그리스 미 합동군사고문기획단’(JUSMAPG) 단장으로 그리스 정부군의 대게릴라전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대게릴라전 전문가였다.

내전의 기원과 전개과정, 내전 이후의 역사적 행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내전과 남한의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비교연구는 없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에 대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 논의 자체를 비판하거나 심도있는 분석을 행하기보다는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1. 그리스내전의 연구 추이

그리스내전과 관련한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와 함

41) 내전이 끝난 뒤 그리스 정부는 한국전쟁에 내전의 경험자들을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파병하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 정교회 신부 할바차키스는 내전의 상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군의 한국전쟁 참가는 그들이 내전에서의 게릴라전에 참가했던 경험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그리스인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했으며, 당시 피난민에게 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 『송연이야기』(서울: 안티쿠스, 2009) 출간에 맞춰 2009년 6월 방한한 바 있다. 그는 “한국과 그리스는 공통점이 많아요. 그리스도 한국처럼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를 당했고 내전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Konstantinos Halbatzakis 전화 인터뷰, 2008. 6. 22; 『한겨레』, 2009. 6. 20.

42) Stanley Sandler, *The Korean War: No Victor, No Vanquished*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9), p.162.

게 냉전체제의 서막을 알린 사건으로 그리스 안팎에서 다양하게 이뤄져왔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에는 점령 통치 시기 군사작전 경험자들의 회고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67년 4월 21일 파파도풀로스(George Papadopoulos) 대령이 주도하는 군장교들의 쿠데타 이후 지속되던 반공군사정권이 1974년 와해되고⁴³⁾ 카라만리스(Konstantinos Karamanlis)가 총리에 취임해 민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그리스내전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부터 내전의 배경, 전개과정, 내전과 미국의 관계 연구라는 3가지 범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거시적 연구에서 미시적 연구로 연구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심화되면서 내전이 개인에 미친 생활사, 정치범, 협력자 처벌, 강제이주 등으로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첫째, 그리스내전의 배경과 관련해 독일 점령하의 그리스 사회와 민족해방운동 분야는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1941년부터 1944년까지의 독일 점령 하의 그리스 사회는 초토화되었고, 그리스인들과 그리스에 있던 수많은 민간인과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 오스만제국의 통치 하에서 치열한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그리스인들은 점령 초기부터 저항단체를 만들었으며, 그리스인들의 반독일 정서 속에 민족해방전선(EAM)과 민족인민해방군(ELAS)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마조워(Mark Mazower)는 증언과 점령 시기 그리스 신문, 독일군 자료를 활용해 그리스내 유대인들의 학살, 선택과 타협, 절망으로 점철된 점령 시기의 생활을 기록하고 해방 이후 좌파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체계적인 탄압을 규명하고 있다.⁴⁴⁾

둘째, 내전에 대한 실체적 접근으로서의 진상과 친독협력자 처리문제, 저항운동의 한 축이었던 그리스공산당(KKE)과 EAM, 산간지역의 마을 공동체, 외국의 개입에 대한 연구가 있다. 여기에는 내전에 직접 참가했던 영국군 장교들의 기록도 포함된다. 독일군 점령 당시 그리스 게릴라 지원 연합군 군사사절단장을 역임한 우드하우스(C.M. Woodhouse)는 그리스내전에서 게릴라들의 투쟁을 3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1) 점령 시기 민족해방전선은 국가를 장악하고, 왕정을 전복하려하였다. (2) 독일군이 철수한 1944년 이들은 영국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3) 1946년 이후에는 미국이 영국군을 대체했으며, 유엔이 진상조사 사절단을 파견하고 재래전이 게릴라전술로 바뀌었다고 언급한다. 그는 군사사절단장 출신으로서 자료 접근에 대한 용이성과

43) *The New Encyclopædia Britannica*, Vol. 20, 15th ed. (Chicago: Encyclopædia Britannica, 2007), p.202.

44)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The Greek Agony, 1941-44* (New York: Pella, 1983);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The Experience of the Occupation, 1941-1944*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Lars Bærentzen, ed., *British Reports on Greece 1943-1944*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1982); H. F. Meyer, *Missing in Greece: Destinies in the Greek Freedom Fight, 1941-1944* (London: Minerva, 1995).

경험자들과의 인터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이 정책에 대한 불일치로 분열됨으로써 일어난 내부의 불신과 미군의 지원으로 정부를 전복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의 저술은 영국군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였다.⁴⁵⁾ 클로즈(David H. Close)와 게롤리마토스(André Gerolymatos)는 그리스내전을 국내적 맥락과 국제적 맥락의 양자적으로 접근하면서 내전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설명하거나 미-소의 최초의 대리전으로서, 그리스내전을 냉전시대 최초의 열전으로 언급하고, 이러한 내전의 경험이 베트남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⁴⁶⁾ 내전의 진상에는 영국과 미국의 문서와 게릴라 활동에 가담했던 인사들의 증언 또는 공문서 공개를 통해 그리스공산당과 게릴라조직의 역할, 이들의 전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코스올라스(D. George Kosoulas)는 그리스공산당의 역사를 통해 내전을 다루고 있다.⁴⁷⁾

1980년대 이후에는 거시적 연구에서 미시적 연구로, 그리고 비교사적 연구로 확대되었다. 연구자들은 그리스의 정치·경제적 상황, 지방의 강제이주, 내전의 마을사적 접근, 사회주의 정책, 영국과 인근 공산국가들의 대그리스 정책, 공무원 숙청 등의 문제를 고찰하기도 하였다.⁴⁸⁾ 마조위가 편집한 『전쟁이 끝난 뒤』(*AFTER THE WAR WAS OVER*)는 논문집으로, 1940-1950년대의 그리스의 사회사를 반영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책에서 점령과 내전이 어떻게 가족과 법률, 국가에 영향

45)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War and Aftermath*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47); C.M. Woodhouse, *Apple of Discord: A Survey of Recent Greek Politics in Their International Setting* (London: Hutchinson, 1948);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London: Faber and Faber, 1966);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Chicago: Ivan R. Dee, 1976).

46)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London: Longman, 1995);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The Greek Civil War and the Origins of Soviet-American Rivalry, 1943-1949* (New York: Basic Books, 2004).

47) D. George Kosoulas, *Revolution and Defeat: The Story of the Greek Communist Par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Haris Vlavianos, *Greece, 1941-49: From Resistance to Civil War - The Strategy of the Greek Communist Par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1).

48) 1984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그리스내전과 관련한 여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Lars Bærentzen, John O. Iatrides and Ole L. Smith,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Copenhagen: Museum Tusulanum Press, 1987)로 나타났다. 이 책에 실린 논문은 다음과 같다. Keth Legg, "Musical Chairs in Athens: Analyzing Political Instability 1946-1953"; Christos Hadziiossif, "Economic Stabilization and Political Unrest: Greece 1944-1947"; Procopis Papastratis, "The Purge of the Greek Civil Service on the Eve of the Civil War"; Angeliki E. Laiou, "Population Movements in the Greek Countryside during the Civil War"; Stanley Aschenbrenner, "The Civil War from the Perspective of a Messenian Village"; Lars Baerentzen, "The 'Paidomazoma' and the Queen's Camps"; Ole L. Smith, "Self-Defence and Communist Policy 1945-1947"; Heinz Richter, "The Second Plenum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KE and the Decision for Civil War: A Reappraisal"; Hagen Fleischer, "The 'Third Factor': The Struggle for an Independent Socialist Policy during the Greek Civil War"; Nigel Clive, "British Policy Alternatives 1945-1946"; John O. Iatrides, "Perceptions of Soviet Involvement in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Robert Frazier, "The Bevin-Marshall Dispute of August-November 1947 concerning the Withdrawal of British Troops from Greece"; Elisabeth Barker, 'Yugoslav Policy towards Greece 1947-1949'; Elisabeth Barker, 'The Yugoslavs and the Greek Civil War 1946-1949'; Jože Pirjevec. "The Tito-Stalin Split and the End of the Civil War in Greece"

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 그리스의 정치적 극단화 시기에 그리스 민중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으로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겪었는지와 함께 지방사, 민족주의와 인종문제, 저항시기와 교도소에서의 아동과 여성문제에서부터 국가의 농민 계급의 이용, 화해와 비교연구에 이르기까지 그전에 무시됐던 주제들에 대해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⁴⁹⁾

또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부분의 연구를 정치사적 또는 국제사적 맥락과 연결지어 비교연구를 통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⁵⁰⁾ 내전과 관련한 정치범들의 투옥과 이들에 대한 교도소의 가혹행위, 이에 따른 인간의 고통을 드러낸 연구들도 이루어졌다.⁵¹⁾

셋째, 그리스내전에서 정부군의 승리는 결정적으로 트루먼 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었으며, 이는 냉전의 서막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었

49) Mark Mazower, ed., *After the War was Over* (Princeton &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에 실린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Mark Mazower, "Three Forms of Political Justice: Greece, 1944-1945"; Eleni Haidia, "The Punishment of Collaborators in Northern Greece, 1945-1946"; Procopis Papastratis, "Purging the University after Liberation"; Polymeris Voglis, "Between Negation and Self-Negation: Political Prisoners in Greece, 1945-1950"; Mando Dalianis and Mark Mazower, "Children in Turmoil during the Civil War: Today's Adults"; Tassoula Vervenioti, "Left-Wing Women between Politics and Family"; Riki van Boeschoten, "The Impossible Return: Coping with Separa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Memory in the Wake of the Civil War"; Stathis N. Kalyvas, "Red Terror: Leftist Violence during the Occupation"; John Sakkas, "The Civil War in Evrytania"; Lee Sarafis, "The Policing of Deskati, 1942-1946"; Anastasia Karakasidou, "Protocol and Pageantry: Celebrating the Nation in Northern Greece"; Bea Lewkowicz, "'After the War We Were All Together': Jewish Memories of Postwar Thessalonik"; Xanthippi Kotzageorgi-Zymari, "Memories of the Bulgarian Occupation of Eastern Macedonia: Three Generations" Susanne-Sophia Spiliotis, "'An Affair of Politics, Not Justice': The Merten Trial(1957-1959) and Greek-German Relations"

50) Philip Carabott & Thanasis D. Sfikas, eds., *The Greek Civil War: Essays on a Conflict of Exceptionalism and Silences* (Hampshire: Ashgate, 2004)는 이러한 비교연구의 폭을 확장한 15편의 논문을 싣고 있다.

Philip Carabott and Thanasis D. Sfikas, "Fifty Years On"; Martin Conway, "The Greek Civil War: Greek Exceptionalism or Mirror of a European Civil War?"; Philip B. Minehan, "What was the Problem in Greece? A Comparative and Contextual View of the National Problems in the Spanish, Yugoslav and Greek Civil Wars of 1936-49"; Ioanna Papatheanasiou, "The Cominform and the Greek Civil War, 1947-49"; Thanasis D. Sfikas, "A Prime Minister for All Time: Themistoklis Sofoulis from Premiership to Opposition to Premiership, 1945-49"; Nicolas Manitakis, "Struggling from Abroad: Greek Communist Activities in France during the Greek Civil War"; Athanasios Lykogiannis, "Getting Greece 'Working Again': The London Agreement of January 1946"; Polymeris Voglis, "Becoming Communist: Political Prisoners as a Subject during the Greek Civil War"; Vasilios N. Makrides, "Orthodoxy in the Service of Anticommunism: The Religious Organization Zoë during the Greek Civil War"; Basil C. Gounaris, "Social Dimensions of Anticommunism in Northern Greece, 1945-50"; Philip Carabott, "The Everyday Lives and Silences of a National Army Soldier and His Wife during the Greek Civil War"; Maria Nikolopoulou, "Pyramid 67: A Liminal Testimony on the Greek Civil War"; David Ricks, "The Shadow of the Greek Civil War in the Poetry of Takis Sinopoulos"; Liana Theodorantou, "Writing Silences: Manolis Anagnostakis and the Greek Civil War"; David H. Close, "The Road to Reconciliation? The Greek Civil War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the 1980s"

51) Polymeris Voglis, *Becoming a Subject: Political Prisoners during the Greek Civil War* (New York & Oxford: Berghahn Books, 2002).

다. 위트너(Lawrence S. Wittner)의 연구는 개인 문서와 미국과 영국, 그리스의 각종 공문서를 통해 그리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부분을 포함한 그리스 사회 전 영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을 세밀하게 파헤쳤다.⁵²⁾ 또한 그리스내전과 미국의 개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그리스가 게릴라전의 사용, 선전활동, 테러전술 등을 포함한 그리스에서의 새로운 전쟁 유형의 마당이 되었고, 미국 관리들은 그리스의 개입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며, 베트남에서의 깊숙한 개입에 대한 모델이 되었으며, 내전 이후 그리스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미국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⁵³⁾ 이밖에 나흐마니(Amikam Nachmani)는 최초의 유엔 감시단인 유엔발칸문제특별위원회(UNSCOB)의 활동을 다루면서 내전이 국제화되지 않았더라면, 충돌이 보다 빨리 끝나고 희생자가 적었을 것이라고 말한다.⁵⁴⁾

이와 같이 그리스내전의 연구는 내전의 배경이 되는 점령 시기 KKE의 발전과정과 저항운동, 해방 이후 내전의 전개과정과 대미관계에 대한 심층적이고 거시적 접근이 이뤄졌다. 그리스내전과 관련한 일부 연구가 비교연구의 틀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의 비교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그리스내전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송광성의 논문 2편이 있다. 그는 미국의 그리스 개입정책은 그리스내 반혁명세력을 지원해 친미파로 만들고, 민족해방과 사회개혁을 추진하던 혁명세력과 민중을 탄압하였다고 분석하였다.⁵⁵⁾ 그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은 그리스 정부군이 혁명군대와 싸워 이겼으며, 미국은 그리스 전쟁을 모델로 삼아 그리스에서 얻은 경험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글은 그리스내전을 ‘그리스 민주군대=혁명세력’, ‘정부군=반혁명세력’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였다. 1952

같은 연구자의 또다른 논문은 그리스내전을 1940년 독일의 침략으로 시작된 긴 전쟁이며, 베트남전쟁도 1945년부터 1954년까지는 프랑스와 싸운 긴 전쟁으로 보았다.⁵⁶⁾ 그는 이 논문을 통해 두 나라의 전쟁은 정통성을 가진 정부에 소수의 무장집단이 도전한 내란이나 국내전이 아니라, 외세 침략자와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국제

52)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A Study in Counterrevolu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53) Theodore A. Coulombis and John O. Iatrides, eds., *Greek American Relations: A Critical Review* (New York: Pella, 1980); Yiannis P. Roubatis, *Tangled Webs: The U.S. in Greece 1947-1967* (New York: Pella, 1987); Howard Jones, *A New Kind of War: America's Global Strategy and the Truman Doctrine in Gree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54) Amikam Nachmani,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the Greek Civil War: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the Balkans, 1947-1952* (New York: Praeger, 1990).

55) 송광성, “그리스와 미국의 전쟁: 냉전정책의 선언”, 『정책과학연구』 제10권(단국대, 2000), pp.1-23.

56) 송광성, “그리스와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싸운 전쟁: 독립과 혁명을 위한 긴 전쟁”, 『인문사회과학연구』 제7권(한서대, 2003), pp.43-71.

전이였으며, 전쟁의 원인도 외세의 침략이었고, 전쟁의 성격도 그리스와 베트남 인민들의 민족독립전쟁이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내전은 내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개입이 있었지만 이에 앞서 국가건설과정에서 정부군과 게릴라가 각자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군사적 충돌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2. 제주4·3사건의 연구 추이

1945년 8월의 해방과 함께 시작된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은 이념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충돌에 이어 유혈 충돌로 확대되면서 폭력이 증폭되었다.

1945-1950년 남한 곳곳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제주4·3사건은 유엔이 제정한 ‘제노사이드협약’의 맥락 속에서 논의할 수 있을 만큼 학살의 규모와 유형, 정부조직 및 준군사단체들의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방 전후의 한국 현대사에서 제주4·3사건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유일하게 저지시켰으며, 남한만의 국가건설을 원초적으로 부정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투쟁의 대가는 가혹했고 반공국가에 의해 강요된 침묵과 금기의 시간도 길었다.

제주4·3사건 연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학문적 접근에 앞서 이의 연구를 추동한 문화예술인, 학생·시민활동가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선구적인 것이었다.⁵⁷⁾ 이 사건 연구의 가장 큰 흐름은 그리스내전에서 실체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뤄진 이러한 4·3연구는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와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위한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4·3 진상규명은 사실상 4·3운동과 연구 모두를 포괄하며 여전히 4·3연구의 중심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전 연구서의 형태로 쓰이지 않은 모든 관련자료들은 전통주의적 시각으로서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연구의 대상도 아니며, ‘4·3=폭동’이며 ‘희생자=폭도’라는 등식을 강요하였다.⁵⁸⁾ 반면 무장투쟁 참여자가 인터

57) 증언채록을 통해 북촌리 학살사건을 재구성한 현기영의 『순이삼촌』 (서울: 역사비평사, 1978)은 43 논의의 물꼬를 텃으며, 그는 이 책으로 인해 계엄당국에 연행돼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 제주대 총학생회는 1986년 4월 3일 학생회관 1층에 처음으로 43 분향소를 설치하였다가 학교측의 철거 요구로 수시간 만에 학생회 사무실내로 옮기기도 하였다. 다음 해인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직전 4월 3일의 제주대 총여학생회가 붙인 43 대자보는 대학은 물론 제주 사회의 43운동의 전환점이었다. 이 사건으로 송영란 총여학생회장과 김병현 사회과학대 학생회 홍보부장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4월 18일 풀려났다. 미디어제주, 『제주민주화운동사-타는 목마름으로』 (제주: 미디어제주, 2007), pp.47-48, 112-132.

58) 김점곤, 『한국전쟁과 남로당 전략』 (서울: 박영사, 1973); 고문승, 『박헌영과 43사건』 (제주: 신아문화사, 1991).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특히 정부의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43 관련 책은 1980년대 이전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서울: 동연연구소, 2002).

뷰 등을 통해 쓴 책은 '4·3=해방운동=반미자주화투쟁'으로 보고 있다.⁵⁹⁾

국내외를 통틀어 제주4·3사건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첫 시도는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한 메릴(John R. Merrill)이었다. 제주4·3사건의 발발 원인을 제주도의 분리주의적 전통, 제주도민들의 누적된 불만, 5·10선거 때까지 제주도의 정치화된 분위기로 분석한 그는 제주4·3사건을 남로당 중앙당 지도부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구조를 다시 강요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산계열 주도의 민족주의 운동이 벌인 저항으로 분석하였다.⁶⁰⁾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학계의 연구는 제주4·3사건 발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원인, 전개과정의 사실들, 영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민중항쟁 전통→우익의 테러→4·3무장투쟁→5·10선거 저지→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통일운동'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박명림은 제주4·3사건을 국가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산물로 보고 권력의 형성과정, 주제, 행사 방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무겁고 복합적인 주제임을 전제하면서 국가형성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폭력의 독점, 정당성을 다투는 세력들의 체계적인 배제과정, 아울러 영토 내의 인민들에 대한 국민적 통합, 국민형성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⁶¹⁾ 제주4·3사건 발발 50주년을 맞아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펴낸 『제주4·3연구』는 정치학, 역사학, 법학, 의학, 문학, 인류학 등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⁶²⁾

진상규명 차원에서 사건의 전개를 기록한 제민일보사의 『4·3은 말한다』는 국내외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4·3특별법 제정에 기여를 하였다.⁶³⁾ 2000년대 들어 제주4·3연구소가 주한미군보고서와 제주도와 관련된 미국무부 문서를 찾아내 번역한 것은 제주4·3사건과 미국의 관계를 밝히는데 역할을 하였다.⁶⁴⁾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초토화작전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⁶⁵⁾ 박찬식은 제주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과

59) 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대판: 문우사, 1963).

60) John R.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1980).

61)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제주43과 한국현대사",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9), p.445.

62)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 1999)에 실린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43의 담론정치"; 김순태, "제주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김인덕, "1920년대 후반 제일제주인의 민족해방운동"; 김종민, "43 이후 50년";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연구: 제주43과 한국현대사"; 서중석,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임대식, "제주43항쟁과 우익청년단"; 정해구, "제주43항쟁과 미군정 정책"; 황상익, "의학사 측면에서 본 43".

63) '43은 말한다'는 1990년 6월 2일부터 1999년 8월 28일까지 45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연재물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된 1954년 9월 21일까지를 10기로 나눠 제주43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전5권 (서울: 전예원, 1994-1998).

64)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 제주도의회, 2000);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 II-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제주: 각, 2001).

형무소 재소자 문제, 북한의 4·3 인식으로까지 4·3연구의 폭을 확대하였다.⁶⁶⁾ 그는 당시 제주 민중의 지향점은 주변부에 처해 있는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제주도에 끼친 세계냉전체제, 한반도 중앙권력의 물리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두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⁷⁾ 이처럼 4·3연구는 발발의 기원과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담론에서 벗어나 개인 및 집단 의식, 아동 학살과 유격대 문제 등 미시적 접근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4·3 전개과정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4·3연구의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가 있다. 1980년대 말의 4·3 위령제와 2000년대의 4·3위령제는 확연히 다르다. 전자의 위령제가 준공식적 행사로서 희생자 유족들이 자발적 참여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후자의 위령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식적 행사로 치러졌지만 수년 동안 행사가 이어지면서 비슷한 절차, 비슷한 순서로 박제화되었다. 위령의례 등 제주4·3사건 관련 행사들을 통해 기억이 어떻게 의례에 투영되어있는가를 고찰하고, 한국사 속에서 제주4·3사건을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다.⁶⁸⁾ 서중석은 “제주4·3은 한반도의 축도였다”고 단언하고, “수만명이 죽게 된 것은 그만큼 국제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집단학살(Genocide)이 많았다는 증거”라고 말하였다.⁶⁹⁾ 담론의 하나로서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이론에 접목시켜 제주4·3사건을 ‘제노사이드’로 보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연구의 흐름이다. 권귀숙은 제주4·3사건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량학살 사건으로서 희생자의 다수가 비무장 민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살 담론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⁷⁰⁾ 최호근은 유엔의 제노사이드협약을 통해 제주4·3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희생자 가운데는 어떤 이유로도 그들에 대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는, 10세 이하와 61세 이상의 주민이 10%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의 참사가 대부분의 다른 제노사이드들과 달리 동일한 민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집단을 파괴하는 방법 면에서 원거리 강제 이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인 학살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되새겨 볼 때, 이 희생자 비율은 숫

65)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66) 박찬식, “북한의 ‘제주43사건’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2005); 박찬식, “제주43사건 관련 목포형무소 재소자 연구: 행방불명자 규명을 중심으로”,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제30집(2007).

67)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제주: 각, 2008), pp.492-493.

68)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전남대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3집 제2호(2003); 고성만, 『제주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현해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69) 서중석,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9), pp.123, 143.

70) 권귀숙, 『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4·3사건의 본질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집단학살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⁷¹⁾ 김상기는 제주4·3사건의 폭력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폭력 전조 단계로 이데올로기, 조직화, 타자화, 동질화 메커니즘을, 폭력 실행 단계로 고립화, 상호보복화, 광기화, 절멸화 메커니즘을, 그리고 폭력 처리 단계로 부정화와 정당화 메커니즘을 도출하고 있다.⁷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4·3사건 연구는 제주4·3사건 발발의 원인과 전개과정, 정치·사회적 결과 등 거시적 접근에서 무장투쟁 주체세력, 피난민, 아동문제 등 미시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로의 접근, 기억담론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제3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탈식민·탈점령에 따른 국가건설과정에서 혁명적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러한 혁명적 요구가 분출되고, 조직화하는 세력들은 식민지 또는 점령 시기 저항운동을 벌였던 세력들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건설 주도세력들은 경쟁자와 도전자들을 공격하고 배제한다. 이에 맞서 도전세력들은 대체적으로 게릴라전의 형태로 격렬한 저항을 하며, 정부는 대게릴라전을 통해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내전 또는 게릴라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그 이후의 동남아에서의 게릴라전과 콜롬비아·과테말라 등 중남미에서의 게릴라전 등 세계적으로 내전은 게릴라전의 요소도 내포했고, 충돌과정의 최대의 희생자는 민간인들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스내전과 제주4·3사건에서 있었던 민간인 강제이주(소개)와 정부군의 토벌작전이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리스와 제주도에서의 군사적 동원과정을 살펴보고, 양 지역에서 진행된 대게릴라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있어서 일치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밀이 제시한 비교의 ‘일치법’과 ‘차이법’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

71) 최호근, 『제노사이드-학살과 은폐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5), pp.385-386.

72) 김상기, 『폭력 메커니즘과 기독교 담론윤리 구성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연세대 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다.⁷³⁾ 비교사는 비교적 적은 수의 사례를 갖는 사회현상에 대해 시간 차원을 고려하면서 심도있게 맥락적 배경을 고찰하여 공통적인 인과유형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⁷⁴⁾ 일치법은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사례가 존재할 때 각 사례들이 갖고 있는 공통 요인이나 변수가, 설명하려는 사회현상의 원인이나 그 원인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공유 요소가 두가지 이상일 경우, 어느 요소가 주어진 사회현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보다 중요한 원인인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차이법은 일치법과는 반대로 한편으로는 유사한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인과구조와 결과를 갖는 사례들에 대한 비교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치법의 분석상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한정된 경험적 상황에만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⁷⁵⁾

그리스내전의 연구자료 가운데 1차 자료로는 미국 국무부가 생성한 문서와 미국 의회 청문회 자료, 그리스내전에 참가한 군인들의 회고록 등을 활용했으며, 각종 그리스내전 관련 논문과 연구서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스내전은 세계적인 여론의 주목을 받은 만큼 당시 한반도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졌을 뿐 아니라⁷⁶⁾ 미군이 일본 도쿄에서 발행하는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지 같은 미군 신문에서도 보도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당시 남북한에서도 많은 외국 언론의 기고문들이 번역돼 실렸다. 따라서 당시 국내에 소개된 번역물을 포함한 연구 성과물, 각종 신문들도 이번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 가운데 일부는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즈(National Archives)에 있는 북한군 노획문서에서 발굴된 것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이 자료들을 복사해 소장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연구자료는 당시 신문과 잡지, 각종 개인과 단체의 기록을 참조하였다. 이와 함께 미군정의 각종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주한미군 정보참모부(G-2)의 정보보고서, 방첩대(CIC)문서, 남조선과도정부 활동보고서, 주한미군정청 문서, 주한미군사고문단 문서, 극동군사령부 문서, 국무성 문서, 주한미군사, 미군정청 관보 등이

73) John Stuart Mill, *A System of Logic*/차종천 옮김, '비교의 두방법',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서울: 열음사, 1990), pp.217-221.

74) 김용학·임현진, 『비교사회학-쟁점, 방법 및 실제』(서울: 나남출판, 2000), p.182.

75) 위의 책, pp.183-188.

76) 그리스내전과 관련해 북한에서 나온 것을 보면, Henry Bassis, A. Biniaris, *L'armée démocratique grecque* (Paris: France d'Abord, 1947)/호빠씨스, 아빠니아리스 공저, 야우웨렌꼬 露文譯, 『희랍민주군』(파리: 프랑스 다보르출판소, 1947)(모스끄바: 소련 무력성 군사출판소, 1948); 북한노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강연자료 제13집 『전후의 회랍』, 1948; 그-쥘꼬마 述, “회랍 빨찌산지역에서”, 순간통신사, 『旬間通信』 No. 26, 1949. 7월 상순호; 황진식, “회랍의 최근 정세”, 『旬間通信』 No. 27, 1949. 7월 중순호; 희랍공산당 총비서 니코파하리아지스, “찌뜨 도베는 인민 민주 회랍의 배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로동신문사, 『근로자』 제18호(평양: 로동신문사, 1949). 이들 자료는 모두 북한군 노획문서에 있는 자료로 미국 내셔널아카이브즈에 있는 문서군 RG 242에 소장돼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복사해 보관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편집실, “회랍의 게리라전선”,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제5권 제6호(서울: 가톨릭청년사, 1947. 9).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 문서는 미국 내셔널아카이브즈와 맥아더기념관, 미육군 군사연구소 등에 소장돼 있으며, 이들 국내외 자료는 기록자의 관점과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인식에 한계를 갖고 있지만 1차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분석한 문서 가운데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로서 초토화작전 시기 진압군 지휘관이었던 송요찬의 대게릴라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문서도 있다. 그동안 제주4·3사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미국 신문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등 아시아권 신문, 『닛뽀타임즈』(*Nippon Times*) 등 일본의 각종 신문,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제주4·3사건 관련 자료, 당시 미군정장관과 미국 상원의원의 회고록, 미국 의회 청문회 자료 등도 발굴해 활용하였다. 특히 정부군 주요 지휘관들의 회고록과 증언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당시 제주도 주둔 미군 고문관들의 증언과 4·3 경험자들의 구술증언도 본 연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나슨(Kurt Jonassohn)과 초크(Frank Chalk)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야만의 역사는 학교 교과서에서는 결코 소개되지 않았다. 좋은 내용은 기록되었으나 나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과거의 대학살은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공식 때문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⁷⁷⁾ 구술증언은 “밑으로부터의(from the bottom up)역사, 대항역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구술사가 대항 담론(counter-discourse)이 될 수 있는 근거”라는 윤태림의 주장처럼,⁷⁸⁾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본 논문의 전개에 필요한 이론을 정리하겠다. 제1절에서는 본 논문의 배경적 요인으로서 냉전체제의 형성과 정치폭력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소의 이념적 대립 속에 냉전체제 형성의 이론적 토대가 된 케난의 봉쇄정책 구상과 정치폭력과 관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국가건설과 정치폭력을 통해 탈식민·탈점령 체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룰 것이고, 제3절에서는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는 원인과 메카니즘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전개에 필요한 바 국가기구에 의한 제노사이드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제노사이드, 대게릴라전으로 나타나는 군사작전 과정에서의 ‘대

77) Kurt Jonassohn, Frank Chalk, “제노사이드의 유형과 인권의제”,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p.45.

78) 윤태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Vol 24, No. 1(1994), p.290.

량학살'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논문의 전개는 3개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두 사건의 성격상 다변적 요인이 있으며 복합적 현상이 존재한다. 지나친 단순화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측면은 시기적으로 혼재돼 있어 두 사건의 통시적인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냉전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봉쇄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제1절에서는 유럽과 그리스, 동아시아와 남한,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냉전 적용과 미국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고찰하겠다. 제2절에서는 그리스와 남한, 제주도에서 미국의 대소봉쇄전략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실행되었는지 검토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제3절에서는 소결로서 냉전체제의 형성과 미국의 역할, 두 국가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에 대한 일치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냉전체제 형성기 그리스와 남한의 국가건설과정과 이 과정에서의 정치폭력을 검토할 것이다. 제1절에서는 그리스와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을, 제2절에서는 그리스와 남한의 국가건설과정과 정치폭력의 연관성을 다루겠다. 제3절에서는 그리스와 남한/제주도에서의 국가건설과정과 정치폭력의 양상에 대한 일치점과 차이점을 검토한다.

제5장은 그리스와 제주에서의 본격적인 군사적 동원과정과 민간인 학살을 다룸으로써 민간인 학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전면적인 군사적 동원과정의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눠 그리스와 제주에서의 정부군의 토벌작전의 양상과 군사적 동원의 전개과정, 당시 참전자 및 경험자들의 구술을 통해 민간인 학살을 고찰하겠다. 제3절에서는 그리스내전과 제주4·3사건에서의 민간인 학살이 대게릴라전이라는 군사작전의 형태 속에서 일어났음을 일치점과 차이점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해 제주4·3사건에서의 민간인 대량학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대결 구도로 전개된 냉전체제 형성기 국가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두 사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일한 논리와 구조 하에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발발로 양 지역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은 사라졌다.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수행한다는 국가안보의 명분은 국가 기구의 명백한 범죄행위조차 정당화시키고 민간인 학살의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였다.¹⁾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양극 질서의 출현을 가져온 냉전체제의 형성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틀 속에서 국제질서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이었다.

이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체제의 초기 나타난 탈식민·탈점령 국가들의 국가건설과정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립을 놓고 민족해방세력과 친식민·친점령 지배세력간에 정치갈등을 불러오며, 정치갈등의 심화와 확대는 정치폭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폭력은 내전 또는 혁명적 상황으로 확대되고 이는 민간인 학살로 귀결된다는 가정 아래 이론화 작업을 시도한다.

제1절 냉전체제의 형성과 정치폭력

1. 케난(George F. Kennan)의 봉쇄정책 구상과 냉전 형성

냉전의 형성은 유럽에서 전시 알타와 포츠담회담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²⁾ 냉전의 주전장은 1940년대 후반 유럽에서 1950년 초반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로 확산되었다.³⁾ 이처럼 한 지역에서의 사태 발전이 다른

1) 박명림, “전쟁과 인민: 통합과 분화와 학살”,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제16호(2000), p.139.

2) John Baylis &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p.91.

3) 하영선, “냉전체제·제3세계·한국”, 김진균 외 지음, 『제3세계와 한국의 사회학: 현대한국사회론』 (서울: 돌베개, 1986), p.44. 개디스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 지녔던 압도적인 권위, 그들이 세력권을 획정할 때 가졌던 정확성,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정당화할 때 가졌던 보편주의적 이데올로기들에도 불구하고, 1949년 말까지는 냉전이 주로 유럽에서의 갈등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말한다.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박진영 옮김,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서울: 사회평론, 2002), p.102.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와 밀접히 연계되어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전후 냉전체제 형성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⁴⁾ 이러한 틀 속에서 현대 국제질서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이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이전과는 다른 세계체제적 사고를 갖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고립주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개입주의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⁵⁾

미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경제적, 심리적 수단의 봉쇄를 했으며, 때로는 군사 개입에 초점을 맞췄다.⁶⁾ 미국의 관리들은 “미국의 안전은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미국만이 국제체제 개혁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⁷⁾

냉전시기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인 대소봉쇄정책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미국의 소련관계 전문가였던 케난을 빼놓을 수 없다.⁸⁾ 그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봉쇄(containment)라는 개념으로 정립한 전략가이며, 미국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전통적 시각에서 미국 외교이념의 이론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⁹⁾

미국은 애초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소련과의 협력을 구상하였다. 종전 이후 미국의 군사정책을 공식화하기 위한 첫번째 결과물인 1945년 9월 19일 3부조정부위원회(SWNCC)가 ‘미국 군사정책의 공식화를 위한 기초’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 시기에 “세계 평화의 유지는 영국, 소련, 미국간의 상호 협력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¹⁰⁾

그러나 1946년 2월 9일 스탈린의 연설에서 표출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불양

4) Ito Takayuki, "The Genesis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 over Poland 1941-1944", Yonosuke Nagai and Akira Iriye, eds.,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7), p.147.

5) 이삼성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서울: 한길사, 2001), p.217.

6)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 함께, 2005), p.115.

7)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pp.1-2.

8) 1904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태어난 케난은 1925년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하고 국무부에 들어가 직업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독일과 발틱해 국가들에서 근무했고, 국무부에서 유망청년으로 뽑혀 소련에 관한 특별 훈련을 받았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포함해 러시아 문학에도 깊이 빠졌고, 언어도 배웠다. 미국이 소련을 인정한 1933년 볼리트(William C. Bullitt) 대사 등 초대 대사관팀과 함께 모스크바로 가 1937년까지 근무하였다. 1944년부터 1946년 4월까지 다시 소련 주재 미국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였다. *New York Herald Tribune*, Nov 25, 1951; 2005년 3월 17일 101세의 나이로 사망한 케난의 일대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nytimes.com/2005/03/18/politics/18kennan.html>을 참조할 것.

9) 이삼성,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p.217.

10) SWNCC 282, "Basis for the Formulation of a U.S. Military Policy, September 19, 1945", Thomas H. Etzold & John L. Gaddis, eds., *Containment: Documents of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40.

립성에 관한 연설은 미국의 대소정책을 이러한 분위기에서 ‘봉쇄적 분위기’로 전
화시켰다.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은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현대의 독점 자본
주의에 토대를 둔 세계의 경제적·정치적 세력의 대두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
로서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계 경제의 자본주의 체제는 일반적인 위
기와 군사적 충돌을 본질적으로 감추고 있으며,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은 매끄럽
고 심지어 진보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기와 전쟁의 파국을 통해 발생하
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결과는 자본주의 세계가 두 개의 적
대 진영으로 나뉘고 그들 간에 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러한 스탈린이 연설에 미국 관리들이 경악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 소련은 세
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정보가 나왔다. 미국은 스탈
린의 연설과 소련의 이러한 행동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¹²⁾ 이
에 따라 당시 소련 주재 미국대사관의 대리 대사였던 케난에게 이를 파악해 보
고하도록 요청하였다.

1946년 2월 22일 케난이 국무장관 번스(James F. Byrnes)에게 보낸 8천여자로
구성된 유명한 ‘긴 전문’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케난은 이 보고서에서 소련의 전
후 대외인식의 특성과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미국의 대응방안
을 찾았다. 케난은 소련의 선전기구를 통한 소련의 진후 대외인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¹³⁾

- a. 소련은 여전히 적대적인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결국
에는 항구적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다. 1927년 스탈린이 미국 노동자 대
표들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제적 혁명의 지속적 발전의 경로
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중심이 출현할 것이다: 사회주의
로 나아가는 국가들을 끌어당기는 사회주의 중심, 그리고 자본주의로 경
도되는 국가들을 끌어당기는 자본주의 중심.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이들 두 개의 중심 간의 전투는 세계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운명을

11) "Election Speech by Premier Stalin on Capitalism and Communism in the Postwar World",
February 9, 1946, Arthur M. Schlesinger, Jr., ed., *The Dynamics of World Power: A Documentary
History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73*, Vol. II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73), pp.191-192.

12)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Boston: Little Brown, 1967), pp.292-293.

13) Moscow Embassy Telegram #511: "The Long Telegram", February 22, 1946, Thomas H. Etzold
& John L. Gaddis, eds., *Containment: Documents of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pp.51-52.

결정할 것이다.”

b. 자본주의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내부 갈등으로 포위된다. 이들 갈등은 평화적인 타협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들 가운데 최대국은 영국과 미국간의 갈등이다.

c. 자본주의의 내부 갈등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쟁은 두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두 자본주의 국가간의 내부 자본주의 전쟁, 사회주의 세계에 대한 개입전쟁. 자본주의의 내부 갈등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현명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후자 쪽으로 기운다.

케난은 소련의 적대감이 러시아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소련 지도부의 세계정세에 대한 ‘신경과민적 견해’(neurotic view)의 기저에는 전통적이고 본능적인 러시아의 불안감(sense of insecurity)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련은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서구와 접촉하게 되면서 보다 경쟁적이고, 보다 강력하고 보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를 두려워하였다고 분석하였다.¹⁴⁾

이러한 전문을 보낸 그의 결론은 ‘악성 기생충’(malignant parasite)과 같은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의 건강과 활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¹⁵⁾

1. 우리의 첫 단계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운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 촉발되거나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용기, 초연함, 객관성, 그리고 결의를 가지고 이를 연구해야 한다. 2. 우리 대중은 소련 상황의 실체를 교육받아야 한다. 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은 이를 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주로 필연적으로 경험과 정보가 풍부한 정부가 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의 실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히스테리컬한 반소주의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무지한 자보다 끔찍하거나 위험한 것은 없다. 3. 많은 것들이 우리 자체의 사회의 건강과 활력에 달려 있다. 세계 공산주의는 병든 세포에서만 기생하는 악성

14) *Ibid.*, p.53.

15) *Ibid.*, pp.62-63.

기생충과 같다. 이것이 국내 정책과 대외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트루먼의 특별고문 클리포드(Clark M. Clifford)는 “미국 외교관이 워싱턴에 보내 온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라고 격찬했고,¹⁶⁾ 해군 장관 포레스탈(James Forrestal)은 케난의 전문을 고위급 장교들에게 읽도록 했으며, 국무부는 칭찬의 메시지를 보냈다.¹⁷⁾ “선봉적 인기를 끈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의 전문은 그의 “경력과 삶을 바꿔놓았다”¹⁸⁾

케난의 제안이 현실화된 것은 그가 ‘긴 전문’을 보낸지 7개월이 지난 1946년 9월 나온 클리포드 비밀보고서 이후다. 워싱턴주 변호사이면서 해군 보좌관으로서 트루먼의 특별고문인 클리포드의 보고서는 케난의 보고서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케난의 ‘긴 전문’의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다.¹⁹⁾ 클리포드 보고서는 최고의 국가 안보의 문제로서 미국은 소련을 ‘저지’(resist)하기 위한 통합정책과 일관된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²⁰⁾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소 관계’라고 규정한 클리포드 보고서는 “소련 지도자들은 국가를 궁극적으로 소련에 의한 세계 지배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한 그들의 목표와 정책은 미국민의 이상과 직접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 평화와 번영이 소련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과 우호의 반대 방향에 있다는 점을 스탈린과 그의 동료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²¹⁾ 보고서는 이어 “소련은 전략적 지역에 침투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소련 정부의 에이전트들이 타국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궁극적 고립과 파괴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곳에서든지 활동하고 있다”며 사활적 요충지에 대한 소련의 공격을 억제하는 방법은 협상이 아니라 군사력이며, 이를 위해 소련의 어떠한 공격도 저지할 수 있고, 패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²²⁾

16) Clark Clifford, *Counsel to the President: A Memoir* (New York: Random House, 1991), p.102.

17)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pp.294-295; Walter Millis, ed., *The Forrestal Diarie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1), pp.135-140.

18)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p.294.

19) "Report to President Truman by Clark M. Clifford, Special Counsel to the President, on United States-Soviet Relations", September 1946, Arthur Schlesinger, Jr. & Walter LaFeber, eds, *The Dynamics of World Power: A Documentary History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73*, Vol. II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73), p.268.

20) Clark Clifford, *Counsel to the President: A Memoir*, p.124.

21) "Report to President Truman by Clark M. Clifford, Special Counsel to the President, on United States-Soviet Relations", September 1946, Arthur Schlesinger, Jr. & Walter LaFeber, eds., *The Dynamics of World Power*", p.269.

22) *Ibid.*, pp.273, 300-301.

케난의 ‘긴 전문’에 이어 나온 클리포드의 비밀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케난이 1947년 7월 ‘Mr. X’라는 이름으로 『포린 어페어즈』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소련 행동의 원천”이라는 논문에서 ‘붕쇄’라는 용어로 공식화되었다.²³⁾

소련 외교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와 같은 개개 공격적 지도자들의 외교보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소련 외교는 대항세력에 대해 보다 민감하고, 대항세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되면 외교전선의 개별 부문에 비교적 쉽게 양보하며, 따라서 힘의 논리와 표현이 보다 이성적이다. 또 다른 한편, 소련의 적대세력으로서는 단 한번의 승리로 인해 이를 쉽게 패퇴시키고 좌절시킬 수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소 정책의 주요 요인은 소련의 팽창 경향에 맞서 장기적이고 인내심을 갖되 단호하며 조심성 있는 붕쇄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²⁴⁾

이처럼 케난의 논문 “소련 행동의 원천”은 제1의 적으로 생각하는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인내심을 갖되 단호하며 조심성 있는 붕쇄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의 적극적이고도 강경한 입장은 미-소관계의 개선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소련의 위협이 나타나면 어디에서든지 ‘불변의 대항력’(unalterable counter-force)으로 대응함으로써 세계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²⁵⁾ 케난의 이론은 그와 같은 당시 미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케난의 1946년 ‘긴 전문’과 1947년의 논문 “소련 행동의 원천”을 통해 소련 공산주의의 세계적 편재(遍在)를 강조하고 이를 붕쇄하는 정책을 세계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의 붕쇄이론의 역할은 무차별적 개입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있었다.²⁶⁾ 냉전정책의 시발이 되는 ‘트루먼 독트린’은 이상의 준비 단계를 거쳐 나온 것이다. 그가 제안한 미국의 강경한 붕

23) George F.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25, No. 4(July 1947), pp.566-582. 이 논문은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 expande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107-128에 재수록되었다.

24)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 p.119.

25) “정치적 분야에서는, 소련은 파트너가 아니라 라이벌로 계속 간주해야 한다. 소련의 정책은 구체적인 평화애호와 안정 추구 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의 항구적인 행복한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실제 믿음도 반영하지 않으며, 오히려 라이벌의 모든 영향력과 힘을 파괴하고 약화시키려고 신중하고도 집요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예상해야 한다.……이는 소련이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의 이익을 침식하는 징조를 보인다면 미국은 단호한 붕쇄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불변의 대항력으로 소련과의 대결을 계획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한 것이다.” *Ibid.*, p.126.

26) 이삼성,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pp.220-221.

쇄정책은 이후 전개된 미-소 냉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2. 콘테-모건(Earl Conteh-Morgan)의 집단정치폭력

20세기를 혁명의 세기²⁷⁾이자 전쟁과 혁명의 공통분모인 폭력의 세기로 인식한²⁸⁾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폭력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서는 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켜야 한다.²⁹⁾ 즉 하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서, 다른 하나는 부재한다. 폭력은 권력이 위태로운 곳에서 나타나지만, 방임하면 그것은 권력의 소멸로 끝난다고 말한다.³⁰⁾ 권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당화(justification)가 아니라 정당성(legitimacy)이다. 그런데 폭력은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³¹⁾ 권력을 폭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대가는 크다. 이는 패배자가 지불하는 대가는 말할 것도 없고, 승자도 자신의 권력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폭력의 대립물은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주장한다.³³⁾ 그녀는 폭력과 폭력의 경쟁에서 정부의 우월성은 항상 절대적이지만 형편없이 무장했는데도 훌륭하게 조직화된 강력한 적대자와 대면할 경우 폭력 수단의 우월성이 어떻게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게릴라전의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³⁴⁾ 그리스내전과 제주4·3사건에서도 정부의 거대한 우월성은 절대적이었지만, 무장력이 빈약하면서도 잘 조직화된 적대세력과 만났을 때 폭력 수단의 우월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27) Han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enguin)/홍원표 옮김, 『혁명론』 (서울: 한길사, 2004), p.81.

28) Hannah Arendt, *On Violence*/김정한 옮김, 『폭력의 세기』 (서울: 이후, 1999), p.24.

29) Hannah Arendt, 『혁명론』, p.83.

30) Hannah Arendt, 『폭력의 세기』, p.90.

31) *Ibid.*, pp.84-85.

32) *Ibid.*, p.87.

33) 그녀는 폭력의 대립어가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임을 규명하기에 앞서 유사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였다. 그녀는 권력(power), 강성(strength), 위력(force), 권위(authority), 폭력(violence)을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권력은 행동하지 않고 제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조응한다. 권력은 결코 개인의 고유 특성이 아니다. 집단에 속하는 것이며 집단이 함께 보유하는 한에서만 존속한다. 둘째, 강성은 독자적인, 개인적인 존재자(entity)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리킨다. 강성은 한 대상이나 인물에 내재하는 고유 특성으로서 그 대상이나 인물의 특징에 속하며, 다른 사물이나 인물과 관련하여 증명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다. 셋째, 위력은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넷째, 권위는 인격이다. 권위를 보증하는 것은 복종하도록 요청 받는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승인이다. 따라서 강제나 설득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섯째, 폭력은 도구적 특징을 통해 구별된다. 현상학적으로 폭력은 강성과 가깝다. 왜냐하면 이는 폭력의 도구들이 마지막 발전 단계에서 선천적인 강성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선천적인 강성을 배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설계되고 사용되기 때문이다. *Ibid.*, pp.73-77.

34) *Ibid.*, pp.79, 83.

콘테-모건은 집단정치폭력의 유형을 (1) 탈식민지 해방투쟁 (2) 초강대국 제국 건설 또는 냉전적 충돌 (3) 국가 건설 충돌 (4) 탈냉전 충돌의 4가지 유형으로 대별한다.³⁵⁾

첫째, 탈식민지 해방투쟁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폭력적 충돌의 유형으로 게릴라전, 억압 행동, 반란진압 작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친 폭동과 폭력 충돌은 이러한 반식민지전쟁의 특성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82개의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1946-1954)와 알제리(1954-1962)의 민족해방투쟁을 포함해 14개국에서 조직적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둘째, 냉전적 충돌은 미-소가 자신들이 후견하는 집단들에 의한 '대리전'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념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소의 상호 적대감은 주로 게릴라전에 기초한 저항도 충돌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의 결과는 상호 적대집단들에 의한 민간인 착취는 물론 대규모 난민의 발생과 폭력을 가져왔다. 그리스내전은 트루먼 독트린의 기원이 된 사건으로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했으며, 제주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의 봉쇄를 명분으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또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냉전적 충돌에서 보이는 대규모의 난민 발생과 학살을 가져왔다. 냉전적 충돌은 미-소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대의명분으로 추동하였다. 세계 각지에서는 미-소의 이념적 대립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가건설에서 충돌의 확대와 심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에도 민족해방의 기쁨을 맛보기전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냉전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양 진영은 신생독립국가들의 상대 진영으로의 월경을 막고 동시에 자기진영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³⁶⁾ 지지세력과 저항세력 간에 폭력이 동원되었다. 일부 국가는 독립 이후 미-소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면서 내전으로 충돌의 방향이 바뀌었다.

셋째, 국가건설 충돌은 탈식민지 해방 이후 정치 엘리트들간에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경쟁하면서 일어난다. 이러한 내부적 투쟁은 때때로 이념적 극단화와 외세의 개입으로 복잡해지고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콘테-모건은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폭력적 충돌은 국가건설과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건설과정에서 충돌은 국가의 경

35) Earl Conteh-Morgan, *Collective Political Violence*, pp.29-36.

36) 하경근, 『제3세계정치론』 (서울: 한길, 1982), p.34.

계나 정치권의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가나 정치권의 목표와 정책을 재설정하는데 있어서 불일치 할 때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 국가의 목표와 정책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따라서 냉전 시기와 탈냉전에 관계없이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국가건설 충돌은 내부의 충돌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미-소의 대립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탈냉전 충돌은 미-소와의 후견관계가 갑자기 중단돼 외부의 지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또는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정권의 갑작스런 해체 때 일어난다.

콘테-모건의 주장에 따르면 4·3무장투쟁은 탈식민지 해방 공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가나 정치권의 목표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리스내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할 명분으로서 미국과 당시 남한 지배세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민중의 불만을 억누르면서 확대되었다. 그리스내전은 냉전적 충돌에서처럼 미-소의 이념적 대립이 소련의 팽창주의 저지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표출되면서 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군의 철수와 동시에 국가건설을 둘러싸고 정치집단간에 유혈 충돌로 확대돼 일어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콘테-모건이 언급한 바와 같이 “충돌은 탈식민지 해방투쟁에서 냉전, 국가건설 또는 탈냉전 투쟁으로 변형되었다.”³⁷⁾

제2절 국가건설과 정치폭력

1. 톨리(Charles Tilly)의 국가건설과 동원이론

정치폭력과 학살은 국가건설을 둘러싸고 정치세력 간의 폭력 행사가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였다.³⁸⁾ 이러한 국가건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16세기 초 유럽에서 출현한 중앙집권적 시민통치 형태를 일컫는데³⁹⁾, 베버(Max Weber)는 국가를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적 힘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인간 공동체이며,……국가는 폭력사용권한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된다”고 정의한

37) Earl Conteh-Morgan, *Collective Political Violence*, p.45.

38)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 p.246.

39) George A. Kourvetaris, *Political Sociology: Structure and Process*/박형신·정현주 옮김, 『정치사회학』 (서울: 일신사, 1998), p.118.

다.40) 베버의 국가 정의에 따르면 국가건설과정은 폭력의 독점, 정당성을 다투는 세력의 배제과정을 의미한다.

틸리는 국가건설을 “국가가 소유권 주장을 한 영토 내에서 경쟁자들과 도전자들을 공격하고 제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41) 그는 서유럽에서의 국가형성은 죽음, 고통, 권리의 상실 및 의지와 관계없는 토지, 재화 또는 노동의 양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영토적 공고화, 중앙집권화, 정부 도구의 차별과 강제수단의 독점화 등은 국가형성 과정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전쟁은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는 전쟁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가를 치렀던 이유는 국가형성 과정이 지방분권화, 농업구조 중심에서 영토 통제와 함께 준자율적 권위체(semiautonomous authorities)들을 제거하거나 종속시키는 과정이며, 농촌공동체의 운영 자원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강한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각 국면마다 폭력적 저항을 해 왔고, 이는 권력자들에게 위협적이었다고 틸리는 말한다. 틸리는 “조세 반란, 식량 폭동, 징병 반대운동, 그리고 국가형성 시기의 시위들은 사람들을 국가의 효율적인 통제 안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상당한 정도의 강제(amount of coercion)를 평가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하였다.42) 틸리는 자원 수탈의 변수로서 자본(capital)과 강제(coercion)를 들고 있다.43)

틸리는 서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통치자들은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4가지 관련 활동에 개입한다고 말한다. (1) 통치자들이 치외법권적 경쟁자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쟁수행(war making)을 중앙집권화 한다. (2) 통치자들은 국가건설(state making)에 개입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의 통치를 위해 경쟁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3) 통치자는 자신들의 지속된 통치를 지지하는 개인들을 방호(protect)한다. (4) 수탈은 재산의 철저한 절도, 조세제도의 발전, 또는 공적 채무의 발행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가건설과정에서 국민들의 대규모적 동원을 필요로 하고, 궁극적으로 민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한다.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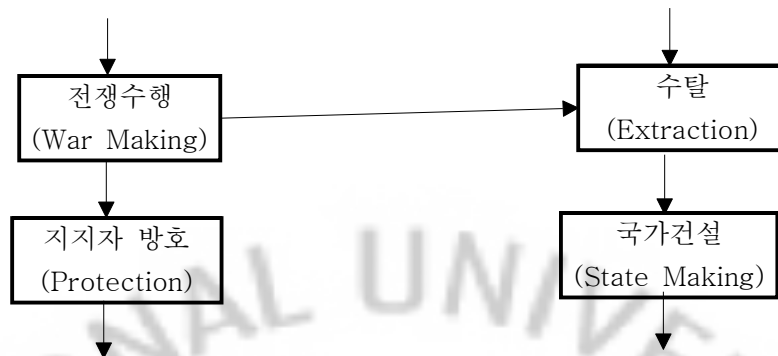
40) Max Weber, trans. H. H. Gerth & C. W.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78.

41)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Oxford: Basil Blackwell, 1990)/이향순 옮김,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강압, 자본과 유럽국가의 발전』(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4), p.156.

42)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p.42, 71, 77.

43) Charles Tilly,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강압, 자본과 유럽국가의 발전』, pp.27-32.

44) Cameron G. Thies, "Public Violence and State Building in Central America", *Comparative*



<그림 2-1> 톨리의 국가건설 기본모형⁴⁵⁾

그러나 그는 이러한 국가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를 2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하고, 전후의 국가건설과정은 서구의 식민지들이 공식적인 독립국가로 탈바꿈 하였다는 점에서 전쟁 전의 국가형성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미-소는 여타의 모든 국가들 위에 군림했으며, 특히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기지와 군사원조계획, 세계적 정보시설들의 연결망을 확장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예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무장해제된 일본의 군사력을 미국의 군사력으로 대체하고 남한의 군사력을 재편성하고 원조하였다고 언급한다.⁴⁶⁾ 유럽의 국가형성이 수백년에 걸친 자본주의 발전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반면 제3세계의 국가형성은 대체적으로 탈식민지 과정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시기가 짧았다.⁴⁷⁾

집단행동 이론을 개발한 톨리의 동원모델은 지배계급에 억압받는 민중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도전세력으로 조직되고 집단행동을 전개하게 되는가

Political Studies, Vol. 39, No. 10(2006), pp.1264-1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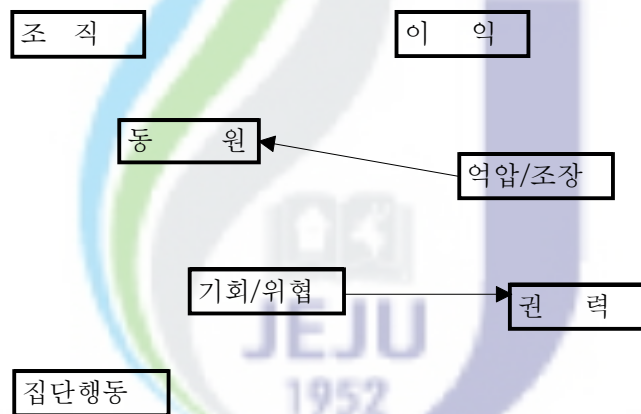
45)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Peter Evans, D. Rueschemeyer &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183.

46) Charles Tilly,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강압, 자본과 유럽국가의 발전』, pp.326-329.

47) 박찬표는 국가형성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국가권력의 형성과정으로서 국가형성을 정의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공적 권력을 독점한 조직이나 집단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국가권력의 물질·제도적 구체화로서의 국가기구의 수립을 의미한다. 즉 국가권력의 물질화된 구체적 표현으로서의 국가기구 내지 제도의 수립과정 및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운영하는 국가운영자들의 충원과정이다. 셋째, 정치사회 즉 국가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의 장과 경쟁의 규칙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는 시민사회로부터 국가권력의 위임을 정당화하는 절차 및 제도의 형성과정, 즉 시민사회의 제집단과 세력이 국가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 및 매개의 형성과정을 의미한다.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 제도화』 (서울: 고려대 출판부, 1997), p.13.

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그는 동원자원이나 정치적 절차로 알려진 집단행동을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1) 행위자의 이익 (2) 한 집단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첫 단계로서의 조직 (3) 동원 (4) 집단 이익의 실현에 기여 또는 비기여를 포함하는 기회 (5) 집단행동. 마지막 요소는 앞의 4가지 요소의 결합에 종속적이거나 이에 따른 결과이다.⁴⁸⁾

여기서 이익은 다른 주민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주민들이 갖게 되는 이익/불이익이며, 조직은 개인들간의 공통적인 정체성과 이들을 통일시키는 구조의 정도이다. 동원은 경쟁자의 집단적 통제 하에 있는 자원의 범위를 말하고, 집단행동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쟁자의 공동행동의 정도이거나 과정으로서 공동행동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집단의 집단행동의 범위는 (1) 공유된 이익의 범위(타집단과의 상호행동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에 대해 있을수도 있는 이익/불이익) (2) 조직의 응집력(구성원들 사이의 공통된 일체성과 구조통합성의 정도) (3) 동원화(집단통제하에 있는 자원의 양)와 함수관계에 있다.⁴⁹⁾



<그림 2-2> 톨리의 동원모형⁵⁰⁾

톨리의 동원모델에 따라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을 대입하면 (1) 외세 또는 극우단체의 억압에 대한 공동의 이익/불이익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정체의식 형성 (2) 개인들간의 공통의 정체성과 이들을 통일시키기 위한 조직의 형성 (3) 각종 인적, 물적 자원과 외세 또는 극우단체에 대한 반발의 역작용으로서의 충성심의 동원 (4)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거나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집단행동(총파업,

48) Earl Contech-Morgan, *Collective Political Violence*, p.163.

49)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양길현 외 공역, 『동원에서 혁명으로』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116.

50) *Ibid.*, p.78.

무장투쟁 등)의 전개로 나타난다.

“폭력은 집단행동을 만든다”⁵¹⁾는 톨리는 “권력의 지렛대를 장악·유지·재편하고자 하는 인간은 그들의 싸움의 방편으로 지속적으로 집단폭력을 행사해왔다. 피억압자는 정의의 이름으로, 특권층은 질서의 이름으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자들은 두려움의 이름으로(두려워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민중의 직접행동에 수반되는 폭력을 설명하였다.⁵²⁾

그는 집단폭력의 특징으로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강압적인 정부의 대리인들이 깊게 연루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의 분화가 발생하며 진압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은 대부분 물건에 손상만을 입히는 반면 억압세력들은 대개 살상을 맡는다고 본다.⁵³⁾

2. 거(Ted R. Gurr)의 정치폭력론

폭력은 인간적 공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행사되었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다.⁵⁴⁾ 자신의 존재가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 ‘능멸·위협’받거나 존재의 지속 자체를 심각하게 공략 받게 되면 더욱 폭력화된다.⁵⁵⁾ 정치갈등은 비정치적 주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정부의 정책, 정책결정과정, 정치엘리트 등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비폭력적 방법이나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단적 정치행위이다. 정치갈등의 구체적인 발현은 정치시위, 소요, 폭동, 정치적 파업, 지역적 반란, 혁명, 정치적 암살, 군사 쿠데타 등의 정치현상으로 나타난다.⁵⁶⁾ 박재환은 갈등의 심화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필요로 하고, 전쟁 발발 이전에 어느 정도 용납되었던 집단 내의 분열은 적대집단의 격퇴라는 공통된 목표로 수렴되고 평화론자의 위치는 격하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적대집단은 이해되고 포용될 대상이 아니라 타도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적의 의견에 근접하는 발상은 물론 집단의 공식적인 이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견해도 용납될 수 없다.⁵⁷⁾ 제주4·3사건에서도 여러 유력인사와 단체들이 정부에 타협적,

51) *Ibid.*, p.254.

52) Charles Tilly, "Collective Violence in European Perspective", Hugh Davis Graham and Ted Robert Gurr, eds., *The History of Violence in America* (New York: Bantam, 1969), p.4.

53) Charles Tilly, 『동원에서 혁명으로』, pp.238-239.

54) 홍원표,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기리는 혁명송”, Hannah Arendt, 『혁명론』, p.26.

55) 박중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해방 후 권력과 민중의 충돌』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1), p.132.

56) 신명순, 『제3세계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3), p.344.

57)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서울: 나남, 1992), p.389; 코저는 갈등을 “가치 및 희소한 지위, 권력, 재화에 대한 요구를 둘러싼 투쟁,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고 해치며, 또한 제거하는 것이 적대자들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투쟁”으로 규정하였다. Lewis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Free Press, 1956)/박재환 옮김,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1980), p.12.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폭력 중지 등을 호소하였으나 그러한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러한 정치갈등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은 폭력의 사용이다.⁵⁸⁾

정치폭력이라고 할 때, 폭력은 사회의 제집단, 계층의 저항에 대하여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로 볼 수 있다.⁵⁹⁾ 정치폭력은 기존의 경제적·계급적 질서를 폭력을 근간으로 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폭력성과 이에 대항해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폭력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현실적인 형태로 보면 국가폭력(제도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저항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⁶⁰⁾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매개요인이 된다. 이는 사회성원들의 동의 여부가 폭력과 저항의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⁶¹⁾

좌절-공격이론가들은 정치적 폭력이나 저항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회심리학적 설명으로서 혁명을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상태에 의해서 유발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적 행동의 하나로 파악한다.⁶²⁾ 거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폭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 정치적 공동체 내부에서 정치 체제, 그 체제의 행위자들 - 체제의 집권자들은 물론 경쟁적 정치 집단들을 포함한 - 혹은 그 체제의 정책들에 대한 모든 집합적 공격(collective attacks)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폭력의 실제적 사용 또는 위협적 사용이라는 일반적 속성(common property)을 갖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폭력을 통해서 성취된 근본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으로 정의되는 혁명을 포괄한

58) 신명순, 『제3세계정치론』, p.339.

59)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서울: 함께 읽는 책, 2002), p.24. 일찍이 안청시는 정치폭력을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주도된 구조적 혹은 물리적 강제력의 명시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정치폭력을 첫째, 폭력 또는 기타의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에 대한 공포심을 자아낼 수 있는 대규모 조직의 존재나 그 동원 및 조달행위, 둘째, 물리적 강제력의 수단을 실제 혹은 잠재적으로 행사하겠다는 협박 행위, 셋째, 물리적 강제력의 실제적 행사행위 등의 전략적 요인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인의 상호결합으로 보고 있다. 안청시, “정치폭력의 개념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1977), p.222.

60)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 pp.134-135.

61) Hannah Arendt, *Crises of the Re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김동식 옮김, 『공화국의 위기』 (서울: 두레, 1997), p.175.

62) Theda Skocpol, "Explaining Revolutions: In Quest of a Social Structural Approach", Lewis A. Coser and Otto N. Larsen, eds., *The Uses of Controversy in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6)/김진균·정근식 역, “혁명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 김용진 외 편역, 『비교정치론 강의 2-제3세계의 정치변동과 정치경제』 (서울: 한울, 1992), pp.84-86.

다. 또한 게릴라전, 쿠데타, 반란 및 폭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치적 폭력은 정치적 질서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정당이나 제도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무력’(force)을 의미하기도 한다.⁶³⁾

거는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이 불화, 무질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결국은 정치적 폭력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⁶⁴⁾ 상대적 박탈이란 인간의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일치로,⁶⁵⁾ 이를 경험하는 집단들에 대해 중앙권위체가 징벌을 가할 경우 이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거는 정부와 그 반대자간의 강압자원의 균형에 대해 “내전의 가능성은 정부의 강압적 통제에 대한 반대자의 비율이 동등하게 될 때 증가한다”고 말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균형이 정부에 유리하게 전개되면 분산된 형태의 반란행동만 일어나지만, 반대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정부는 반대자에게 불모로 잡히는 경향이 있다.⁶⁶⁾ 제주4·3사건은 무장투쟁 초기 유격대의 공세 이후 정부군의 토벌이 주도권을 쥐면서 분산된 형태의 전투로 나타난 반면 그리스내전에서는 게릴라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정부가 불모로 잡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3. 파농(Frantz Fanon)의 식민지 폭력투쟁론

제3세계 해방운동에 영향을 끼친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 파농은 탈식민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농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Les damnés de la terre*) 첫 문장에서 “민족해방, 민족 부흥, 인민에의 국가 반환, 연방 등등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 아니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붙이든, 탈식민화는 언제나 폭력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였다.⁶⁷⁾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은 어떠한 식민지 지배자들도 식민지를 자발적으로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피식민지 백성들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탈식민지화는 또한 한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

63) Ted R.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p.3-4.

64) *Ibid.*, pp.37-46.

65) *Ibid.*, p.21.

66) *Ibid.*, pp.235-236.

67) Franz Fanon, *Les damnés de la terre*/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서울: 그린비, 2007), pp.55-57.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립을 위한 폭력은 식민통치로 상실된 자아를 되찾는 근원적인 문제와 연결된다.⁶⁸⁾ 파농은 소렐(Georges Sorel)⁶⁹⁾보다 더 구체적으로 폭력의 합리화 논리를 발전시켰다. 파농에게 개인은 철저히 무감각해지거나,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무자비한 폭력 이외에 자신을 방어할 다른 수단을 갖지 못하는 존재이다. 파농은 이런 폭력을 거부하는 대신에 조직화시켜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파농은 폭력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⁷⁰⁾ 파농은 식민지 민중들을 질식시키는 상황에 맞서기 위해선 식민지 민중들의 폭력만이 가능하며, 이러한 긍정적, 창조적 폭력은 식민지 민중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⁷¹⁾ 이러한 투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농민이다.

식민지 나라에서 유일하게 혁명적인 세력은 농민이다. 그들은 잃을게 없고 얻을 건 전부이기 때문이다. 굶주리는 농민은 계급 체계의 외부에 있으며, 폭력만이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착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깨달은 계층이다. 피착취자는 해방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폭력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⁷²⁾

파농에 따르면 테러는 대항테러를 부르고, 폭력은 대항폭력을 부른다. 원주민이 대항폭력의 방법을 선택한 순간부터 경찰의 보복은 자동적으로 시작되고, 이는 또한 민족주의자들의 보복을 부른다. 파농은 무장투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

68)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p.96.

69) 사회주의 사상가이면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소렐의 사상적 핵심은 퇴락해가는 부르주아 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할 노동자계급에게 걸맞은 새로운 혁명이념, 즉 생산현장에서의 직접행동에 의해 성취될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다. 소렐은 ‘무력’(force)과 ‘폭력’(violence)을 구분하는데 무력은 기성 지배체제가 자행하는 제도적 강압이나 강자의 약자에 대한 물리적 강제와 같은 억압의 폭력이라고 보았으며, 폭력은 지배체제에 대한 탈법적 항거나 생존을 위한 저항과 같은 해방의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무력이 소수 지배자의 통치질서를 강제하는 힘이라면, 폭력은 기존 질서의 파괴를 지향하는 힘이다. 소렐은 프롤레타리아 폭력의 발현을 총파업에서 찾았다. 그는 “총파업이란 사회주의의 모든 것이 담긴 신화, 즉 현대 사회에 맞서서 사회주의가 벌이는 전쟁의 다양한 표현들에 부합하는 모든 감정을 본능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 이미지들의 총화”이며 “파업은 프롤레타리아에게서 그들이 가진 가장 숭고하고 가장 심원하며 가장 역동적인 감정을 일깨웠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소렐은 프롤레타리아 폭력을 ‘멋지고 영웅적’인 것이며, 문명의 원초적 이해에 봉사하는 한편 세계를 야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Georges Sorel, *Réflexions sur la violence* (Paris: Seuil, 1990)/이용재 옮김, 『폭력에 대한 성찰』 (과주: 나남, 2007), pp.138, 181-182; 이용재, ‘조르주 소렐과 《폭력에 대한 성찰》’, *Ibid.*, pp.408-409.

70) Alice Cherki, ‘2002년판 서문’, Franz Fanon,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pp.14-15.

71) *Ibid.*, pp.116-117.

72) *Ibid.*, p.82.

이 있는데, 이 시점은 대체적으로 식민지 민중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억압이 자행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⁷³⁾ 따라서 파농의 폭력투쟁론은 식민지 세력 또는 지배권력이 힘없고 무고한 민중에게 폭행을 자행하고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남이 부당하게 해치고 억압하면 폭력을 써서라도 이에 항거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한다. 파농의 폭력투쟁론은 제주와 그리스에서 지배권력이 자행한 폭행과 고문 등 불법행위로 억압받는 민중들이 생존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인 데 대한 설명을 시도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제3절 민간인 학살 분석

1. 호로위츠(Irving L. Horowitz)의 국가기구에 의한 제노사이드

20세기는 창생과 파괴 사이를 방황한 시대였다.⁷⁴⁾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을 기초한 램킨(Raphael Lemkin)⁷⁵⁾은 제노사이드를 “집단 자체를 절멸시키려는 목적 아

73) *Ibid.*, p.113.

74) Irving Louis Horowitz, “제노사이드와 사회이론의 구축: 집단적 희생의 배타성에 관한 고찰”,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Genocide and the Modern Ag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7)/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제주: 각, 2005), p.137.

75) 램킨(Raphael Lemkin:1900-1959)은 폴란드 영토였던 현재의 벨로루시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폴란드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나중에는 공공 검사로서 법조계에서 일하였다. 그는 법학을 전공하면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오토만제국의 공격과 반유대주의 학살과 같은 집단표적화된 폭력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들 사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는 위협에 처한 집단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33년 초가 되자 램킨은 유럽에서 열린 여러 국제포럼에서 아르메니아인 절멸과 이스탄불 재판을 토대로 발전했던 법률적 보호제도를 개발하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려던 그의 시도는 실패한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후 램킨은 폴란드의 산림지대로 피신해 6개월 동안 살았으며, 그 뒤 리투아니아와 발틱해를 거쳐 스웨덴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독일의 잔학상을 폭로하기 위해 그는 나치의 많은 문서들을 가져왔다. 그는 스톡홀름대학에서 연구하고 출판을 계속하지만, 미국 듀크대학의 초청을 수락해 1941년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자신의 출판물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하자 보다 체계적이고 집단표적화된 범죄 및 처벌문제에 대한 법률적 명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진력하였다. 망명 폴란드 정부를 대신해 램킨은 1943년 독일의 범죄 처벌과 관련한 법률 초안을 만들었다. 홀로코스트로 친인척을 잃은 그는 처음으로 'lidobojstwo'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인민'이라는 폴란드어 'lud'와 '살인'이라는 뜻의 'zabojstwo'라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그는 1944년 출판된 저서 『점령 유럽의 추축국 통치』(*Axis Rule in Occupied Europe*)에서 폴란드 용어 'ludobojstwo'를 'genocide'라는 신조어로 바꿨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 램킨은 제노사이드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국제협약을 학계와 정치계에 초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 뒤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준비하는 Robert H. Jackson을 중심으로 한 미국팀을 지원하는데 임명받았고, 'genocide'라는 용어를 기소 과정에서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뉘른베르크에 체류하는 동안 램킨은 자신의 가족 가운데 49명이 홀로코스트로 희생됐고, 자신의 형인 Elias와 형수 Liza만이 생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치 지도부에 대한 배심원의 판결문 작성 최종 기일이 다가오자 유엔은 1946년 제노사이드 문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램킨은 초안 작성을 맡았다. 초안은 사실 그가 지난 15년 동안

래 민족 집단들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파괴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의 통합적 계획”으로 정의하였다.⁷⁶⁾ 호로위츠는 제노사이드 연구의 최상의 방법을 제노사이드의 가해자나 희생자의 정신의학적 분석이나 전기물의 분석 보다는 국가권력과 사회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⁷⁷⁾ 따라서 국가권력과 사회제도의 연구는 호로위츠의 제노사이드 연구의 중심 과제다. 제노사이드 연구에 있어 호로위츠의 인식은 제노사이드가 국가가 인가했거나 국가기구가 범죄여부와 관계없이 한 집단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국가의 직접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관료기구의 승인으로 이뤄지면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한다. 제노사이드는 지배계급이나 민족집단 내에서의 일종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반영하는 특별한 유형의 대량 파괴이기 때문에 사적보복행위(vigilantism)와 다르며, 폭정학살(tyrannicide)과도 다르다고 주장한다.⁷⁸⁾ 이런 면에서 그는 제노사이드를 국가가 자신의 이념과 사회모델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간주하였다.⁷⁹⁾

그는 법률적 정의와 역사학적 분류 이외에 구조주의적 측면에서 2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제노사이드는 민족 집단, 주로 소수민족을 없애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시도이며 둘째, 시민들에 의한 순응과 참여를 확실히 하기 위

준비한 것이었다. 1948년 12월 9일 유엔이 ‘제노사이드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을 승인하면서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램킨은 협약이 채택된 뒤에도 쉬지 않고 국제사회와 국가들에 적어도 제노사이드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추가 채택하도록 촉구하였다. 제노사이드를 없애기 위한 그의 엄청난 결의를 통해 수많은 상과 수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랐으며, 1959년 뉴욕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후손도 없이 가난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퀸즈 마운트 헤브류(Queen's Mount Hebrew) 공동묘지에 묻혔고, 그의 묘비에는 ‘제노사이드협약의 아버지’라고 새겨져 있다. The International Research and Documentation Centre for War Crimes Trials(ICWC) at the Philipps University in Marburg, *The Genocide Conven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its 60th Anniversary*, 4-6 December 2008, Marburg, Germany, 'Raphael Lemkin, Father of the Genocide Convention', pp.4-5. <http://www.genocide-convention2008.de/Genocide-Conference-Reader.pdf> (검색일 2009. 4. 19); Christian Schmidt-Hauer, "Genocide in 20th Century",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3호 (제주: 각, 2003), pp.52-67.

76) Raphael Lemkin,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Laws of Occupation, Analysis of Government, Proposals for Redress*, 2nd ed. Introduction to the Second Edition by William A. Schabas (New Jersey: The Lawbook Exchange. Ltd. 2008), p.79.

77) Irving Louis Horowitz, *Taking Lives: Genocide and State Power*, 4th 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7), p.3.

78) Irving Louis Horowitz, *Taking Lives: Genocide and State Power*, p.12.

79) Kurt Jonassohn, Frank Chalk, “제노사이드의 유형과 인권의제”,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pp.48-49; 호로위츠는 사회유형을 8가지로 구분한다. ① 제노사이드적 사회(genocidal societies) ② 추방 또는 감금 사회(deportation or incarceration societies) ③ 고문 사회(torture societies) ④ 혼돈 사회(harrassment societies) ⑤ 전통적 수치 사회(traditional shame societies) ⑥ 유죄 사회(guilt societies) ⑦ 관용체제(tolerant systems) ⑧ 허용 사회(permissive societies). 이 가운데 제노사이드적 사회는 국가가 독단적으로 일탈 또는 반대 행위를 이유로 사람들의 목숨을 체계적으로 앗아가는 유일한 지배 형태이다. Irving Louis Horowitz, *Taking Lives: Genocide and State Power*, pp.152-153.

한 근본적인 정책으로서의 기능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노사이드를 “국가관료기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⁸⁰⁾ 이러한 제노사이드는 미래의 생존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많은 수가 희생되는 특정 주민의 절대적 파괴를 의미한다.⁸¹⁾ 호로위츠가 제노사이드를 국가가 이념이나 사회모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구에 의한 정책이라고 정의하는 바와 같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에서 좌익배제를 통한 반공·우익 정부의 수립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민이나 비우익 그리스인을 좌익으로 간주하면서 국가기구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제노사이드나 집단학살은 정치적 목적 하에서 특정의 집단을 겨냥해왔다. 제노사이드의 발생원인에 주목한 하프(Babara Haff)는 근대국가 형성 이후 국가의 역할과 그 국가구조 속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는 엘리트 지배에 주목하고, 국가가 제노사이드의 주범이라고 인식한다. 그는 제노사이드를 “집단이나 시민의 학살을 목표로 하는 공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제노사이드의 주체는 국가관리 - 군인, 경찰, 나치 행동대 등 - 들이지만 국가권력과 덜 직접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제노사이드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식적 선택의 결과이며 가장 극단적인 정책이다.⁸²⁾

그는 제노사이드의 발생원인을 3가지로 분류한다. (1) 정치공동체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국가적 격변 속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나 혁명 직후의 사회는 체제건설 과정에서 경쟁하는 집단들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내부적 폭력에 돌입한다. (2) 극심한 내부 균열의 존재이다. 하프는 경쟁하는 집단 사이에 내부적 일체감이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극화는 종교, 가치, 전통, 이데올로기 등의 차이에 의해 심화된다고 보았다. (3) 살인정권에 대한 외부세계의 견제의 결핍이나 지원이다.⁸³⁾ 학자들은 사회적 균열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집단간의 갈등 가능성을 고조시키며 억압받는 집단들에 의한 반란을 촉발하는 한편, 적들의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거나 도덕적 책임의 규범을 침해함으로써 제노사이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⁸⁴⁾

80) *Ibid.*, pp.20-21.

81) Irving Louis Horowitz, “제노사이드와 사회이론의 구축: 집단적 희생의 배타성에 관한 고찰”,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p.139.

82) Barbara Harff, “제노사이드의 발생원인”, *Ibid.*, pp.93-94.

83) *Ibid.*, pp.92-93.

84) Benjamin A. Valentino,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20th Centur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장원석·허호준 옮김,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 제주대 출판

호로위츠는 전쟁과 제노사이드를 구분하는데 전쟁이 외부 침입에 대한 국가의 방어인 반면 제노사이드는 국가가 그에 속한 국민들에 대한 자해행위 (self-inflicted wound)라고 주장하였다. 제노사이드를 국가테러의 진전된 형태로 간주하는 그는 제노사이드를 위협적이라고 인식되는 동일한 국가 내부의 표적집단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한 사회 내부의 엘리트들이 미리 계획한 무력의 사용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오랜 내적 억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근대 제노사이드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다.⁸⁵⁾

2. 쿠퍼(Leo Kuper)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제노사이드

정권의 형태와 관계없이 20세기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던 제노사이드의 근원은 권력 독점을 위한 투쟁이었다. 국제적 지배, 권력의 분배, 지배 주체의 문제는 모든 정치체제의 관심사이며, 심각한 인종적, 종교적 균열을 보였던 사회에서는 갈등의 결정적 원인이었다.⁸⁶⁾

제노사이드 비교연구의 개척자 쿠퍼는 제노사이드를 “대량학살의 형태를 취하면서 공공연한 의도로 자행되는 한 집단에 대한 범죄”이며 “주로 정부의 범죄”라고 언급한다.⁸⁷⁾ 그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가해자의 동기를 (1) 종교적, 인종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제노사이드 (2) 식민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계획된 제노사이드 (3)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거나 완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제노사이드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⁸⁸⁾ 쿠퍼 또한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이 보호받는 집단으로부터 정치집단을 제외시킨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개념 정의에 배제된 두 개의 집단, 즉 정치적 대량학살과 경제적 계급을 처형하기 위한 시도의 희생자들을 거론하였다.⁸⁹⁾ 스탈린 체제 하의 수천만명에 이르는 농민, 당 엘리트, 소수인종에 대한 처형,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학살,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 정부가 저지른 수백만명에 이르는 민중학살 등을 사례로 들었다.⁹⁰⁾ 제노사이드를 유발하는 주범은 새로운

부, 2006), p.39.

85) Irving Louis Horowitz, *Taking Lives: Genocide and State Power*, pp.35-36.

86) Roger Smith, “인간의 파괴와 정치: 제노사이드의 시대로서 20세기”,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p.72.

87) Leo Kuper,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p.96, 113.

88) *Ibid.*, pp.11-18.

89) *Ibid.*, pp.138-160.

90) *Ibid.*, pp.57-59, 154-160.

이데올로기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는 신생국가 혹은 신생정권이다. 전통사회와 신생정권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한 사회의 다원적 성격은 가해자와 희생자를 규정하는 사회적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⁹¹⁾

제노사이드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데올로기가 20세기 최악의 제노사이드에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페인(Helen Fein)은 민족국가 등장 이후의 제노사이드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국가는 지배집단의 도구로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학살을 자행한다. 둘째, 국가는 자신의 영토팽창과 발전을 방해하는 원주민을 제거하기 위해 학살을 자행한다. 셋째, 국가는 반역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학살을 자행한다.⁹²⁾ 그의 분석은 경제적 집단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 있지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학살을 제노사이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스미스(Roger Smith)는 20세기 들어 희생자 대다수는 정체성을 이유로 제노사이드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강자가 보기에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다고 말한다. “제노사이드는 단순한 걱정의 표현이라기보다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라고 규정한 스미스는 보복, 정복, 이익, 권력, 정화 또는 구원 등과 같은 가해자의 동기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질서, 정의, 인류애 등을 보완하는 새로운 천지창조의 시도”라고 보는 그는 구원을 모색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망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설명하였다.⁹³⁾ 그는 희생자들의 3가지 특징을 역사적, 상황적,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도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비인간적 존재로 규정됨으로써 산발적 혹은 지속적, 선별적 혹은 무차별적 제노사이드 공격에 노출되었고 살아남은 경우에도 가해자 이상으로 죄의식에 시달렸다고 보았다.⁹⁴⁾

91) Frank Chalk, Kurt Jonassohn, “제노사이드의 유형과 인권의제”,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p.52.

92) Helen Fein, *Accounting for Genocide*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p.7-8.

93) Roger Smith, “인간의 파괴와 정치: 제노사이드의 시대로서 20세기”,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pp.68, 74.

94) *Ibid.*, pp.80-81;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량학살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다. 남미의 과테말라에서 우파 독재정권이 사용한 ‘합법적’ 국가폭력의 주요 수단은 반공 조작이었다. 1954년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Jacob Arbenz Guzmán) 대통령을 축출하고 미국의 후원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아르마스(Castillo Armas)대령은 반공법을 제정하고 ‘공산주의자’는 6개월까지 재판 없이 임의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산당 당원수가 4천여명이었던 데 비해 정부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체포한 사람은 7만2천여명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과테말라 군대의 대게릴라 소탕작전은 정치적 폭력행사로써, 게릴라와 그들의 활동을 돕는 민간인은 물론 게릴라 출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제거 대상에 포함시켰다. 광재성, “중미의 정치변동-정치적 폭력에 대한 기원을 중심으로”, 서울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이베로아메리카연구』 8 (1997); 권문술, “과테말라의 정치와 사회”, 한국외대 중남미문제연구소, 『중남미문제연구』 9 (1992).

쿠퍼는 주권국가가 제노사이드의 주요 무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래식 폭격과 원자폭탄 투하 등의 행위도 제노사이드적 행위로 간주한다.⁹⁵⁾ 대량학살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가장 중요한 형태 가운데 희생자들의 비인간화가 있다. 쿠퍼의 말을 빌면, ‘비인간화’란 “희생자들을 동물이나 대상물의 수준, 또는 완전한 도구적 역할로 강등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⁹⁶⁾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위해 희생자들을 비인간화하는 것은 제노사이드의 발생원인이 된다. 제주 4·3사건과 그리스내전에서 의 학살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에 비우호적 또는 비협조적, 심지어 소극적 협조세력까지도 ‘비인간화’한 데 기인하였다.

3. 발렌티노(Benjamin A. Valentino)의 대계털라전에 의한 ‘대량학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6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적으로 228건의 무력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가운데 165건이 내전이였다.⁹⁷⁾ 현대 내전의 가장 비극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간인들이 희생자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⁹⁸⁾

발렌티노는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상의 ‘제노사이드’라는 용어의 맹점을 피하기 위해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대량학살을 ‘대규모의 비전투원들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이라고 정의하고,⁹⁹⁾ ‘대량학살’이라는 이름

95) Leo Kuper,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p.46.

96) *Ibid.*,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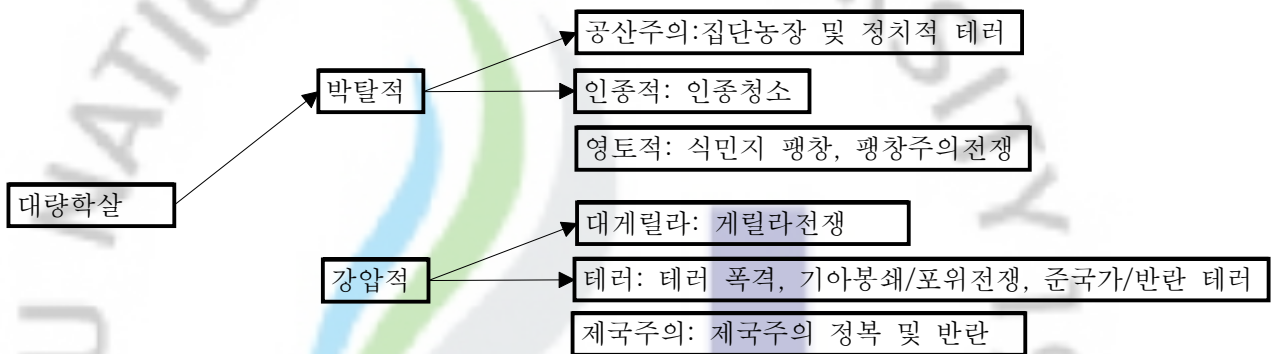
97) Lotta Harbom & Peter Wallensteen, "Armed Conflict and Its International Dimensions, 1946-2004",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2, No. 5(2005), pp.623, 627.

98) Thomas David Mason, *Caught in the Crossfire: Revolution, Repression, and the Rational Peasa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4), p.17;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무장전투로 92만1천여명이 사망했고 이들 가운데 내전 희생자는 90%(82만명)이며, 희생자의 90%는 민간인 희생자들이었다. 아프리카에서의 내전 희생자는 특히 높아 1980년대에만 200만-300만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또다른 추정치는 정부의 제노사이드나 폴리타사이드로 150만-170만명이 희생되었음을 보여준다. Kalevi J. Holsti, *The State, War, and the State of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37; 수단, 에티오피아, 앙골라, 모잠비크, 우간다 내전은 10만명(앙골라)에서 100만명(우간다)까지의 사망자를 냈으며, 이들 대부분은 민간인들이었다. 1994년의 르완다 충돌은 1년도 안된 기간에 80만명 이상이 사망자를 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내전 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Human Rights Watch, *Slaughter Among Neighbors: The Political Origins of Communal Viol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pp.13-32; 크메르 루즈가 1975년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잡을 때 그들은 적으로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절멸작전을 전개해 전체 인구 600만명 가운데 100만명을 학살하였다. 부룬디에서는 1972년 한해에만 후투족과 투치족의 충돌로 10만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됐으나 군인 사망자는 1천여명에 불과하였다. 이라크는 쿠르드(Kurdish) 분리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1961년부터 1970년 사이 10만여명의 민간인들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 희생자는 5천명에 지나지 않았다. 1946-1948년에 인도에서는 힌두와 무슬림간의 상호 폭력으로 80만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수단 내전에서는 50만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됐으나 군대의 희생자는 6천여명에 불과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리트리아(Eritrean) 분리주의자들의 반란에서 50만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냈다. Thomas David Mason, *Caught in the Crossfire*, pp.17-18.

99) Benjamin A. Valentino,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pp.25-27.

을 붙이기 위해서는 첫째, 의도적이어야 하며, 둘째, 대규모적이어야 하고,¹⁰⁰⁾ 셋째, 비전투원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전투원(noncombatant)은 조직화된 군사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며 적군이나 적의 재산에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전쟁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비무장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¹⁰¹⁾

발렌티노는 대량학살의 유형을 박탈적 대량학살과 강압적 대량학살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박탈적 대량학살의 하위유형으로 공산주의 대량학살, 인종적 대량학살, 영토적 대량학살로 분류하였다. 또 강압적 대량학살의 하위유형으로는 대게릴라전 대량학살, 테러로서의 대량학살, 제국주의적 대량학살로 나누고 있다.



<그림 2-3> 발렌티노의 대량학살 분류¹⁰²⁾

발렌티노는 강압적 대량학살은 전투원들이 재래식 군사기술을 동원해 적을 물리칠 수 없는 대규모 무장 충돌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군부 및 정치

100) ① 의도성: 자연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 전사 민간인들에 대한 비의도적인 살해와 구별되는 것으로, 죽음이 민간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에서 기인한다면, 그리고 가해자들이 이들 정책으로 인해 광범위한 죽음이 초래되리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 이는 의도적이다. ② 대규모 숫자: 5년을 전후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적어도 5만명 정도의 의도적 죽음으로 단 순하게 규정한다. 이는 자의적인 것이지만, 이를 통해 2만-3만명이 사망한 사건들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Ibid.*, pp.28-34.

101) 발렌티노는 “식량이나 기타 살상과는 관계없는 보급품을 제공하거나, 무장세력을 옹호하는 비폭력적 정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전투원들과 연계된다고 해서 비전투원이 전투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전투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가담하는 개인들은 - 그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 학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Ibid.*, p.33;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민간인들은 보호돼야 한다. Dieter Fleck, ed., *The Handbook of 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209-288; 칼리마스는 무장집단의 상근 조직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 따라서 비상근자의 모든 형태와 협력자들을 포함해 민간인들로 간주한다. 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pp.19, 415.

102) Benjamin A. Valentino,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pp.132-164,

지도자들은 적군에게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승리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¹⁰³⁾

대게릴라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고문이나 공개처형과 같은 행위를 포함해 게릴라들이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¹⁰⁴⁾ 민간인들은 게릴라와 정부군 양쪽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폭력의 강도는 정부군의 대항 게릴라전에 의한 것이 훨씬 강력하였다. 대게릴라전의 군사교리는 게릴라전의 대항전략으로 고대부터 발전해왔으며, 억압(repression)과 강압(coercion)에 기초해 있다.¹⁰⁵⁾

게릴라 토벌작전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나 러시아, 미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군이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항일 게릴라 세력을 토벌할 때 채택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군사력이 성장하면서 섬멸전략(strategy of annihilation)을 채택했으며, 초기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시작됐고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전면적으로 이뤄졌다.¹⁰⁶⁾ 이 전략은 적대국의 군사력의 파괴는 물론 기존 적대국 정부의 완전한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웨이글리(Russell F. Weigley)는 “섬멸전략이 미국의 전쟁 방식의 특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⁰⁷⁾

에스프레이(Robert B. Asprey)는 유럽 국가들의 식민화 과정이 군사적 우위, 상업적 착취, 그리고 정치적 실패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미국의 과정은 군사적 우위와 대량학살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유럽인들은 피정복자를 쥐어짤 데 반해, 미국인들은 피정복자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¹⁰⁸⁾

이러한 게릴라전은 국내에서는 ‘유격전’으로 번역된다. 정부 수립 시기 정일권·예관수가 1948년 8월 국방경비대의 교육자료로 펴낸 『공산군의 유격전법과 경비와 토벌』에는 ‘유격전’의 정의를 “열세한 세력과 무기를 가지고 우세한 병력 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혁명성을 가진 전쟁 형성의 일단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103) *Ibid.*, pp.150-151.

104) *Ibid.*, pp.345-346.

105) Robert B. Asprey, *War in the Shadows: The Guerrilla in History*, revised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94), p.81.

106) Mark E. Grotelueschen, *Doctrine Under Trial: American Artillery Employment in World War I* (Connecticut: Greenwood Press, 2000), p.145; Carter Malkasian, *A History of Modern Wars of Attrition* (Connecticut: Praeger Publishers, 2002), p.14.

107) Russell F. Weigley,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p.xiv.

108) Robert B. Asprey, *War in the Shadows: The Guerrilla in History*, p.113.

은 유격전을 “정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며 제주4·3사건을 정치적 측면이 강한 유격전으로 언급하고 있다.¹⁰⁹⁾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게릴라전’을 “전략적으로 약한 쪽이 선택된 형태, 시간, 장소에서 전술적 공세를 취하는 진행 형태”라고 정의한다.¹¹⁰⁾ 적의 ‘능력만이 아니라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¹¹¹⁾ 게릴라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 충돌의 가장 일상적인 형태가 되어왔다.¹¹²⁾

이러한 게릴라전에 대해 발렌티노 등은 3가지 측면에서 여타 형태의 전투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첫째, 게릴라전은 주로 비정규적, 소규모적이며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부대에 의존하고 둘째, 정규전을 피하고 치고 빠지기식의 공격, 암살, 폭탄 테러, 사보타주와 기타 적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작전에 초점을 맞추며 셋째, 게릴라전에서는 전선(front lines)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게릴라 전술과 대량학살간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낸다. 세 번째 특징은 대량학살을 가져오는 동인으로서, 게릴라 부대들은 종종 직접적으로 식량, 은신처, 보급품, 정보는 물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적 위장’(human camouflage)의 형태로 지방민들에게 의존한다.¹¹³⁾ 연구자들은 ‘민간인 지지’ 없이는 반란군의 운동이 생존할 수 없고, 정부군도 이들의 지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으며,¹¹⁴⁾ ‘민간인’ 또는 ‘대중 지지’는 승리의 필수조건이라고 본다.¹¹⁵⁾ 마오쩌둥(毛澤東)은 게릴라에서 ‘인민의 협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릴라전과 인민의 관계는 무엇인가? 정치적 목표가 없이는, 정치적 목

109) 정일권·예관수 공편, 『공산군의 유격전법과 경비와 토벌』(서울: 병학연구사, 1948), pp.16-18; 경찰교양협조회가 펴낸 책자에도 유격전을 “일체(一切) 혁명성을 띤 전쟁의 필요한 조성(組成)부분으로서 더구나 광대한 영토에서 작전하는 민족해방전쟁에 있어서 광범한 민중성을 가진 유격전쟁의 발전은 필요한 것이며 또 필연적인 것”이라며 “피압박 민족 혹은 인민과 그들을 압박하는 자 사이의 모순이 발전해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불가피적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적화전술: 조국을 쪼먹는 그들의 흉계』(서울: 경찰교양협조회, 1949), p.1

110) Samuel P. Huntington, "Introduction", Franklin M. Osanka, ed.,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41-1961* (New York: The Free Press, 1962), p.xvi.

111) Ivan Arreguin-Toft,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26(1) (Summer 2001), p.103.

112) Irving Louis Horowitz, *Foundations of Political Sociology*, p.282.

113) Benjamin A. Valentino, Paul Huth and Dylan Balch-Lindsay, "Mass Killing: Guerrilla Warfar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 (Spring 2004), pp.383-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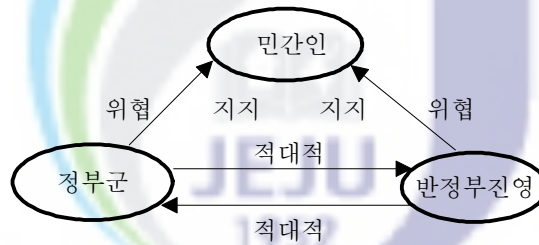
114) Bard E. O'Neil, *Insurgency and Terrorism: Inside Modern Revolutionary Warfare* (Washington: Brassey's, 1990), pp.70-89; Timothy P. Wickham-Crawley, *Guerrillas and Revolution in Latin America: A Comparative Study of Insurgents and Regimes since 195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8.

115) Roger Trinquier, *Modern Warfare: A French View of Counterinsurgency* (New York: Praeger, 1964), p.8.

적이 인민의 열망과 그들의 동정, 협조, 지원을 얻지 못한다면, 게릴라전은 반드시 실패한다.……게릴라전은 기본적으로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의 동정과 협조와 분리된다면 게릴라전은 존재하지도 활발하지도 않는다.……전자(인민)를 물에 비유할 수 있다면, 후자(게릴라)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떻게 양자가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민을 적으로 만드는 규율이 없는 부대일 뿐이며,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살 수 없는 규율이 없는 부대이다.¹¹⁶⁾

마오쩌둥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게릴라전은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인민의 협력과 지원을 얻지 못하면 게릴라전은 실패한다고 단언하고, 이들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치 행위자들은 민간인들을 경쟁세력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같은 비독점적 협력보다는 독점적이지만 완전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¹¹⁷⁾ 이 때문에 정부군과 반란군은 민간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그림 2-4> 정부군과 반정부진영, 민간인의 3각 관계

정부의 토벌작전은 진압을 위해 군사적 방법을 포함한 활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민간인, 반란군, 외부 행위자(외부 세력)를 처리해야 할 3대 표적 집단으로 삼는다.¹¹⁸⁾ 프랑스의 대게릴라전 이론가이자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서 대게

116) Mao Tse-tung, *On Guerrilla Warfare*. trans. Samuel B. Griffith (New York: Praeger, 1961), pp.43-44, 92-93.

117) Nathan Leites and Charles Wolf Jr., *Rebellion and Authority: An Analytic Essay on Insurgent Conflicts* (Chicago: Markham, 1970), p.10; Richard Stubb, *Hearts and Minds in Guerrilla Warfare: The Malayan Emergency, 1948-1960*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2.

118)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Counter guerrilla Operations Handbook* (Conn.: The Lyons Press, 2004), pp.1.4-1.5.

릴라전에 참전하기도 했던 트린퀴어(Roger Trinqui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게릴라들에게 거의 날마다 식량을 보급하는 자는 바로 주민들이다…… 게릴라들에게 가끔 탄약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게릴라들에게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보호한다……군대의 이동은 주민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게릴라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질 모든 위협에 대해 사전에 연락을 받는다. 때때로 주민의 집은 게릴라가 위협에 처하였을 때 피할 수 있는 은신처이다……그러나, 지형과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또한 게릴라들의 약점이기도 하다. 보다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기반인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게릴라를 굴복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¹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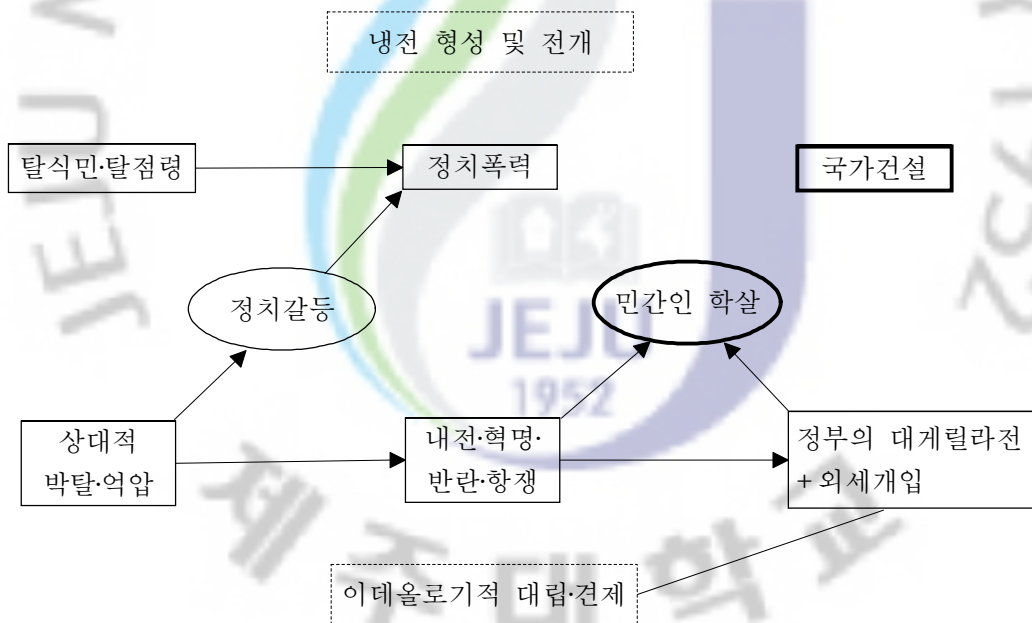
이처럼 지방민의 지지가 게릴라들의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취약점일 수 있다. 게릴라들과는 달리 민간인들은 기동성이 없고, 은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게릴라전의 표적이 된다.¹²⁰⁾

그러나 국가는 반란집단에 의한 대량학살보다 실제적으로 더 쉽게 정부에 의한 대량학살을 만드는 동인과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다. 첫째, 국가의 군사조직은 일반적으로 반란군에 비해 더 크고 더 잘 무장됐기 때문에 폭력에 훨씬 능력을 갖고 있다. 둘째, 국가는 반란군보다 자체의 민간인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훨씬 큰 자원에 헌신할 수 있다. 게릴라들은 군사적으로 우세한 정부군과의 전투에 직접 노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지대나 인구집중지역의 위치방어를 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반란군에 대한 민간인들의 지지를 철회하도록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선택적 테러의 형태를 취하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게릴라들을 지지한다고 의심되는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도록 고안된 절멸정책으로 변한다.¹²¹⁾

119) 이러한 주장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트린퀴어가 민간인들에게 대한 폭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Roger Trinquier, *Modern Warfare: A French View of Counterinsurgency*, pp.44, 63-64, 92-93.

120) 다운즈는 국가가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폭력을 행사하는데는 2가지 요인이 있다고 전제한다. 첫째, 민간인 희생화(civilian victimization)는 승리에 대한 자포자기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소모전으로 인해 자기 진영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가는 민간인들을 표적화 함으로써 전쟁을 지속하며 사상자를 줄이고 적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도록 위협해 승리하려고 한다. 둘째, 교전국가들이 정복하려는 영토에 비전투원이 살고 있을 때 민간인 희생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훗날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반란은 물론 후방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5열 분자들을 제거하는 전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Alexander B. Downes, "Desperate Times, Desperate Measures: The Causes of Civilian Victimization in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4(Spring 2006), p.154.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에 대한 지배권력의 강제 수단 사용은 탈리의 동원모형에서 나오는 민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한다고 느끼거나 침해당하면 그러한 침해행위에 대해 민간인들이 일체성을 갖게 되고 이는 조직의 응집력으로 나타난다. 또 상황이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집단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민간인들의 분노 표출과 동일하며, 파동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지배권력이 약자인 민중에 대해 전면적인 억압을 자행할 때 민중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찾기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체제 형성기 신생 독립국가에 자국의 이념을 이식시키려 한 미-소의 개입으로 인해 내전이나 혁명적 상황이 증폭되었고, 대게릴라전 정책으로 대규모의 난민 발생과 민간인 학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민간인 학살의 논의 전개와 더불어 정치적 제노사이드와 대게릴라전에서의 대량학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국가건설과 정치폭력, 민간인 학살의 관계도식

121) Benjamin A Valentino, Paul Huth and Dylan Balch-Lindsay, "Mass Killing and Guerrilla Warfar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Spring 2004), pp.384-385.

제3장 냉전체제의 형성과 미국의 봉쇄정책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었던 독일, 이태리,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서방국가 및 소련간의 동맹관계는 종전 직후 붕괴되고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양세력을 중심으로 세계정치의 구조가 재편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틀 속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였다.¹⁾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가운데 최고의 부를 가진 나라가 됐고, 핵무기의 독점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²⁾ 일부 연구자들은 전후 초기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량학살과 억압이 증대되었다고 말한다.³⁾

냉전시기 대소봉쇄정책을 구상하고 실현에 옮긴 케난이 보기에는 공산주의는 ‘악성 기생충’과 같은 것이었다.⁴⁾ 이어 대통령 특별고문 클라크의 1946년 9월 비밀보고서는 사활적 요충지에 대한 소련의 공격을 억제하는 방법은 협상이 군사력이며, 이를 위해 소련의 어떠한 공격도 저지할 수 있고, 패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⁵⁾

이러한 미국 관리들의 대소련관은 소련의 팽창에 맞선 봉쇄정책의 실현으로 나타났다. 냉전의 군사적 고착화 및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지구화는 미국 대외정책을 패권추구 및 개입주의로 한 단계 강화시켰다.⁶⁾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의 재편성과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긴장관계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국제정치 체제는 협조보다는 대결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였다.⁷⁾ 나이(Joseph S. Nye, Jr.)는 냉전의 초기 국면을 1단계 점진적 개시기(1945-1947년), 2단계 냉전 선언기(1947-1949년), 3단계 냉전 고조기(1950-1962년)의 3단계로 나눈다.⁸⁾ 필자는 한국

1) 하영선, “냉전체제-제3세계-한국”, 김진균 외 지음, 『제3세계와 한국의 사회학: 현대한국사회론』 (서울: 돌베개, 1986), p.38.

2) 윤충로, “미국의 지배전략과 베트남의 분단”, 한국산업사회학회, 『미국의 세계패권』, 2003년 비판사회학대회(제6회) 자료집, pp.110-111.

3) Mark Mazower, Review Essay: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p.1172.

4) Moscow Embassy Telegram #511: "The Long Telegram," February 22, 1946, Thomas H. Ertzold & John L. Gaddis, eds., *Containment: Documents of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pp.62-63.

5) "Report to President Truman by Clark M. Clifford, Special Counsel to the President, on United States-Soviet Relations", September 1946, Arthur Schlesinger, Jr. & Walter LaFeber, eds, *The Dynamics of World Power*", pp.300-301.

6) 권용립, “미국의 외교정책”,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2001), p.464.

7) 하영선, 앞의 책, p.39.

8) 나이는 전후 미국의 전략적 변화와 냉전을 촉발시킨 계기를 6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폴란드와 동유럽의 문제다. 동유럽은 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은 소련이 종전 뒤 폴란드에

전쟁 이전 시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나타난 냉전체제의 형성기로 본다.

본 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대외정책을 전환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소봉쇄정책을 구사하였으며, 그리스와 남한/제주도는 이러한 대소봉쇄정책의 전면에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냉전체제 형성기의 미국의 역할과 그리스와 남한/제주에서의 미국의 개입을 살펴보고, 트루먼이 제주4·3사건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실을 알았음을 고찰할 것이다.

제1절 냉전체제 구축과 미국

1. 유럽과 그리스

1) 미-소의 유럽정책과 냉전의 대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트루먼 독트린 이후 변혁세력에 대한 탄압은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이는 미국의 해외원조 프로그램의 주요 표적이 되어왔는데 이들 자금은 대부분 선무활동, 평정 프로그램, 현지 경찰 지원, 특히 현지 군대의 군사원조에 들어갔다.⁹⁾

미국 정부 지도자들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이 가까워질 무렵 미국이 소련의 팽창

서의 자유선거 실시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고 믿었다. 둘째, 1945년 5월 대외원조프로그램의 갑작스런 중단도 미-소간의 경제적 긴장관계를 높였다. 소련은 이러한 행위들을 적대적 목적을 지닌 경제적 지렛대로 해석하였다. 셋째, 독일문제였다. 알타회담(1945. 2. 4-11)에서 미국과 소련은 독일이 보상비로 2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가운데 100억달러는 소련이 갖는 것이었다. 양국은 나중에 협의할 것이라는데 동의했지만, 지불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자세한 내용은 알타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넷째,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이다. 소련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야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고, 만주와 일본 북부 지역의 4개 섬을 확보하였다. 소련은 극동의 상황을 동유럽의 상황과 비교하였다. 동유럽은 미국이 자유선거와 영향력 행사를 원했지만 소련군이 먼저 도착했던 곳이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소련이 자신들의 팽창에 압력을 가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간주하였다. 다섯째, 원자폭탄 문제로, 미국만이 이의 제조방법을 알고 있었다. 여섯째, 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영향력이 있었던 동부 지중해와 중동의 국가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소련은 1946년 3월 이란 북부 지방에서 소련군의 철수를 거부하였다. 미국은 유엔에서 이란을 지지하였다. 소련은 남쪽으로 인접한 터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은 그리스내전에서 승리할 것처럼 보였다. 서방은 소련이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4th ed. (New York: Longman, 2003), pp.118-121.

9) Richard J. Barnet, *Intervention & Revolution*, p.20.

주의 경향을 봉쇄해야 한다고 믿었다. 봉쇄정책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제어하는 수단인 하나로서 미국의 군사력에의 지속적인 의존을 필요로 했는데, 이는 전투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의 차원이었다.¹⁰⁾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던 소련은 당시 미국과 대결할 수준의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가지지 못하였다.¹¹⁾ 소련은 1940년대 그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탈린 하에서 소련이 팽창적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케난은 “소련 지도자들은 국경선 너머로 자신들의 무력으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과정은 마르크스 독트린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소모시킨 전쟁의 황폐화로부터 회복에 대한 소련 자체의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련 독재자 자신의 알려진 기질과도 맞지 않는다”¹²⁾며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였다.

독일로부터 엄청난 피해의 악몽을 갖고 있던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의 재무장과 무력도발의 재발 방지를 원하였다. 스탈린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독일이 한세대도 지나지 않아 나치 치하에서 재무장하고 소련을 침공하는 한편 소련사회를 철저히 파괴한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던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소련에 대한 공격의 발판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동유럽 주변부를 통제하기로 결정하였다.¹³⁾

그러나 동유럽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트루먼 행정부 관리들은 소련이 동유럽에서 친소정부를 수립해 가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다. 미국은 소련이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동유럽에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미국이 보기에 소련은 ‘일방적으로’ 친소정권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 미국은 그것을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선거와 연립정부의 수립으로 이해했고, 소련은 ‘우호적인’ 그리고

10) Russell F. Weigley,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 p.366.

11) 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의 비교는 다음을 참조할 것. Melvin P. Leffler,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pp.2-3.

12) David Horowitz, "Introduction", David Horowitz, ed., *Containment and Revolution* (Boston: Beacon Press, 1967), p.11.

13) Melvyn P. Leffler, "Inside Enemy Archives: The Cold War Reopened", *Foreign Affairs* 75, No. 4 (July-August 1996), p.125.

14) John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8th rev.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80), pp.18-19.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권의 창출로 이해하였다.¹⁵⁾

소련은 마샬플랜이 동유럽 국가들을 동요시키고 독일의 부흥을 위한 계획이라고 간주하였다. 독일의 부흥은 스탈린에게 소련의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스탈린은 미국, 영국 등 서방 전승국과의 연합을 통해 독일을 견제함으로써 전후 독일의 위협을 방지하고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으로부터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1947년 10월 코민포름을 창설하고,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반대세력을 억눌렀으며 헝가리에서의 반소 움직임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1948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 쿠데타를 고무하고, 6월에는 베를린 봉쇄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역으로 미국과 영국의 위기감을 증대시켰으며, 결국 나토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인 유럽의 분열을 공고화하였다.¹⁶⁾

미국이 볼 때 소련이 이란을 장악하면 페르시아만의 석유지대를 장악할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의 수에즈 운하'로 묘사돼온 나라를 통해 중동과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신생 독립국가들의 정치적 발전에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소련이 유럽을 발판으로 중앙의 터키를 거쳐 아시아로 팽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다.¹⁷⁾

유럽에서의 초기 냉전은 미국과 소련을 분리해서 그 중 어느 한쪽의 정책만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유럽에서 전개되었던 것은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뿐 아니라 유럽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작용의 체계였다.¹⁸⁾

독일문제에 관한 서방국들의 태도변화와 미국의 마샬플랜은 유럽에서 스탈린에게 커다란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소련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독일을 견제해 독일의 향후 소련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으로부터 전환하게 되었다. 이것은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의 불안한 협조에서 본격적인 갈등과 대결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2) 트루먼 독트린과 냉전의 공식화

그리스 정부는 1946년 12월 게릴라들의 활동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

15) *Ibid.*, p.19; Clark M. Clifford, *Council to the President: A Memoir* (New York: Random House, 1991), p.126.

16) Melvyn P. Leffler, "Inside Enemy Archives: The Cold War Reopened", pp.132-133.

17) Joseph Marion Jones, "Curbing Communist Expansion: The Truman Doctrine", Thomas G. Paterson,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2nd ed (Lexington: Heath and Company, 1974), p.134.

18) *Ibid.*, pp.100-101.

장이사회에서 자국의 케릴라들이 '외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유엔은 그리스 정부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유엔이 임명한 위원단의 미국 대표는 『루이스빌큐리어-저널』 (*Louisville Courier-Journal*)과 『루이스빌타임즈』 (*Louisville Times*) 편집인 겸 발행인인 에스릿지(Mark Ethridge)였다. 이어 그리스의 경제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트루먼은 그리스에 미국 경제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포터(Paul Porter)가 미국 경제사절단장으로 선출돼 1947년 1월 18일 그리스에 도착하였다. 포터는 자문 이외에도 트루먼에게 해외원조가 그리스를 파국의 구렁텅이, 즉 공산주의의 통제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주그리스 주재 미국대사 맥비(Lincoln MacVeagh)와 함께 한 위원회처럼 활동하였다. 그리스에 대한 원조는 그리스의 내정 간섭과 함께 이뤄져 할 것이라는 데 미국 관리들의 생각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¹⁹⁾

2월 3일 맥비는 “영국이 그리스로부터 군대를, 혹은 적어도 상당수의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소문을 보고하면서 그리스 원조를 즉각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국 물가관리국장 출신인 포터와 유엔조사위원단 미국 대표 에스릿지, 그리고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 맥비는 1947년 2월 11일 “이곳(그리스)의 경제 악화가 곧 전국적 규모의 혁명을 야기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공산주의에 떨어지면 전 근동과 북아프리카의 일부분도 소련의 영향력 아래 넘겨주는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²⁰⁾ 엿새 뒤인 2월 17일에는 에스릿지가 그리스를 ‘수주일 내 (소련의) 손안에 곧 떨어질 썩은 자두’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고,²¹⁾ 2월 19일에는 포터가 국무부에 “이는 사실이며, 우리의 전면적 노력이 없으면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희망할 수 없다”는 전문을 보냈다.²²⁾

맥비도 1947년 2월 19일 포터, 에스릿지와 대화를 나눈 뒤 일치된 의견을 다음날 국무부에 보고서를 전송하였다. 맥비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적, 재정적 요소들만을 고려한다면 그리스의 현 상황에서 완전 붕괴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19) Harry S. Truman,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Vol. II (Garden City: Doubleday, 1956), p.99; Howard Jones, *A New Kind of War*, pp.29-30; Richard Barnet, *Intervention & Revolution*, p.98; Joseph Marion Jones, "Curbing Communist Expansion: The Truman Doctrine", Thomas G. Paterson,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p.139.

20)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February 11, 1947, *FRUS* 1947, Vol. V, p.17.

21)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on the Commission of Investigation (Ethri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February 17, 1947, *FRUS* 1947, Vol. V, p.24.

22) The Chief of the American Economic Mission to Greece (Porter)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47, Vol. V, p.26.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과 군병력들의 사기 악화는 물론 불충분한 수입과 점증하는 게릴라들의 활동에 대한 두려움, 정부에 대한 확신의 결여, 국제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이용 등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는 훨씬 급속한 결말의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²³⁾ 이들은 그리스의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그리스 정부는 위협스럽게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리스 정부는 좌익 게릴라 활동으로 손상됐고, 대중적 지지 또한 부패와 비효율, 경제적 혼란으로 인기가 없다”고 언급하였다.²⁴⁾ 이들이 본 그리스의 상황은 경제적, 심리적, 군사적으로 몇주일 안에 공포와 완전 붕괴의 위협에 직면하고, 붕괴되면 무장 공산도당들이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었다.²⁵⁾

국무차관 애치슨은 2월 21일 “맥비, 포터, 에스릿지의 보고서들이 모두 그리스가 독립을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며 “그리스에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전복돼 극좌의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잡을 개연성이 있다. 미국과 영국의 충분한 지원이 없어 그리스가 소련의 지배에 무조건 항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 근동과 중동,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고 보고하였다.²⁶⁾

그리스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관리들의 일관된 인식은 그리스가 소련의 수중에 떨어지면 차례로 근·중동, 북부 아프리카가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도미노 이론의 가정이었다.

2월 21일 오후 영국대사관의 1등 서기관 시첼(Herbert M. Sichel)은 비공식적으로 국무부 근동·아프리카 담당 국장 헨더슨(Loy Henderson)에게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2건의 문서를 전달하였다. 헨더슨은 마살이 주말을 맞아 자리를 비우자 애치슨에게 이 문서를 갖고 갔고, 애치슨은 곧바로 헨더슨과 유럽국장 히커슨(Hickerson)에게 그날 저녁 참모들과 영국의 요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날 저녁 애치슨은 마살과 트루먼에게 진화로 보고하였다.²⁷⁾

23)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February 20 1947, *FRUS* 1947, Vol. V, pp.28-29.

24) Daniel Yergin, *Shattered Peac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8), p.279.

25) Joseph Marion Jones, *The Fifteen Weeks: February 21-June 5, 1947* (New York-Chicago-Burlingame: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5), p.131.

26) Memorandum by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Ache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February 21, 1947, *FRUS* 1947, Vol. V, pp.29-31;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WW Norton, 1969), p.217.

27)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pp.217-218; The British Embassy to the Department of State, *FRUS* 1947, Vol. V, pp.32-3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ear Eastern and African (Henderson), February 21, 1947, *Ibid.*, pp.43-44; Harry S. Truman,

주말 내내 국무부와 군사 관리들은 비망록 작성에 매달렸다.²⁸⁾ 24일 오전 마샬은 국무부에 들러 영국의 각서와 애치슨의 비망록을 읽고 영국 대사와 면담한 뒤 트루먼과 회의하였다. 확고한 지지를 받은 애치슨과 헨더슨은 그날 오후 의회의 활동을 위한 건의문을 준비하였다. 2월 26일에는 국무장관 마샬, 육군장관 패터슨, 해군장관 포레스탈은 신속하게 건의문을 승인하였다. 국무부는 건의문에서 “그리스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그리스의 붕괴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에 모든 가능한 원조를, 터키에는 이보다 다소 적은 원조를 확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즉각 인준하였다.²⁹⁾

트루먼 행정부의 그리스-터키 지원결정은 의회의 승인과 더불어 원조재원 조달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다.³⁰⁾ 1947년 2월 27일 브릿지스(Styles Bridges), 반덴버그(Arthur Vandenberg), 바클리(Alben Barkley), 콘넬리(Tom Connally) 상원의원과 마틴(Joseph Martin), 이튼(Charles Eaton), 블룸(Sol Bloom), 레이번(Sam Rayburn) 하원의원은 행정부의 격려연설을 듣기 위해 백악관으로 초대되었다. 트루먼은 이들에게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우리가 이들 정부(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³¹⁾ 애치슨은 “동부 지중해의 상황은 침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썩은 사과가 상자 속의 사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리스의 부패는 이란에 영향을 미치고, 동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Years of Trial and Hope, pp.99-100; Joseph Jones, *The Fifteen Weeks*, p.132.

28) Joseph Jones, *The Fifteen Weeks*, p.129.

29) Minutes of a Meeting of the Secretaries of State, War, and Navy, February 26, 1947, *FRUS* 1947, Vol. V, p.57;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President Truman, February 26, 1947, *Ibid.*, p.58; Memorandum by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Acheson)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ear Eastern and African Affairs (Henderson), February 27, 1947, *Ibid.*, p.63; Joseph Jones, *The Fifteen Weeks*, pp.137-138.

30) 국무장관 마샬은 1947년 2월 27일 트루먼에게 타버(Taber) 하원의원과 면담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냈다.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위기가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터키에서도 어느정도 일어나고 있다. 이 위기는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그리스에서의 우리의 관심은 결코 인도주의적이거나 우호적인 충동이 아니다. 그리스가 내전으로 귀착된다면, 소련 통제 하의 공산국가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대체적인 개연성이 있다.……소련의 지배는 이에 따라 중동을 넘어 인도 국경까지 이를 수도 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에 이와 관련한 영향이 과대평가될 수 없다. 소련의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 일련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최초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우가 아니다.” State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ated. *FRUS* 1947, Vol. V, pp.60-62.

31)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103; Tom Connally, *My Name Is Tom Connally*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54), p.318; 타버는 이날 회의에 초대받았으나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가 오후에 백악관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Joseph Jones, *The Fifteen Weeks*, p.138.

호두를 불 속에서 꺼내기의 문제가 아니다.……세계의 3분의 2 지역이 공산주의 자들에 의해 조종되느냐의 문제다”³²⁾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말을 들은 의원들은 감명을 받았으며, 어떤 조치가 필요하든지간에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³³⁾

2월 28일 미국 주재 그리스 대리대사 파울 에코노무-고우라스(Paul Economou-Gouras)가 국무부에서 헨더슨을 만났다. 헨더슨은 에코노무-고우라스에게 미국의 경제·군사원조 계획을 설명하고, 그리스 정부가 서명해 미국 정부에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원조요청서를 그에게 보여줬다. 국무부가 작성한 원조요청서 초안³⁴⁾은 2차 세계대전 시기 그리스가 황폐화돼 미국의 원조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⁵⁾ 마샬은 또 맥비에게 원조요청서 사본을 보내면서 “국무부에 (원조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그리스 정부가 승인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훈령을 보냈다. 마샬은 이어 “의회 지지와 우호적인 미국의 대중 여론은 효율적인 미국의 감독 아래 활용되는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요구 내용의 공개를 보류하고, 우리가 먼저 이를 알리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를 극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며 대중과 의회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³⁶⁾

3월 3일이 되자 그리스 정부는 미국의 안을 받아들여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워싱턴에 탄원서 형식의 원조요청서를 그대로 보냈다. 다음날 마샬은 트루먼 행정부가 그리스 정부의 호소를 받아들여 추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21일의 영국의 비망록에 관한 언급을 피하기 위해 마샬은 그리스의 원조를 갈망하는 호소를 인용했고, 그는 그 문서를 그날 공개하였다.³⁷⁾

32)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p.219.

33) Harry S. Truman,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pp.103-104; Joseph Jones, *The Fifteen Weeks*, pp.141-142.

34) 초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돼 있다. “3차례의 침략과 오랜 적군의 점령은 물론 전쟁에 따른 소요를 겪으면서 그리스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 인구의 격감과 쇠약, 경제 파괴로 인해, 추가적이고도 즉각적인 원조가 불행스럽게도 지극히 중요하게 되었다.……적군의 철수 이후 그리스인들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생존 수단들은 이제 고갈돼서 오늘날 그리스는 최소한의 연명에 기본적인 소비재조차 수입할 자금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인들은 재건의 문제를 대처하는데 진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 정부와 인민은 호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미국민들에게 재정적, 경제적, 전문가 지원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Greece, February 28, 1947, *FRUS* 1947, Vol. V, p.70.

35) 에치슨의 회고록에는 “그리스는 친척들과 의사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했었던 위독자 명단에 있는 반의식 상태의 환자의 입장이었다. 3월 3일, 친절한 친구의 지원과 그들의 박약한 손의 안내로 그리스 정부는 원조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고 돼 있다.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p.221.

36)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Greece, February 28, 1947, *FRUS* 1947, Vol. V, pp.69-71.

3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Greece, March 4, 1947, *FRUS* 1947, Vol. V, p.87.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에서 전후 미국 대외정책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 연설을 하였다. 트루먼은 “미국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재정적, 경제적 원조를 위한 긴급 탄원서를 받았다”며 그리스의 경제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수천여명의 무장 테러활동으로 그리스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리스가 무장 소수세력에 떨어진다면 이웃인 터키가 받는 영향도 즉각적이고 심각할 것이다. 혼란과 무질서가 전 중동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고 설명하고 “소수 무장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 시도되는 굴종에 저항하는 자유 인민들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³⁸⁾ 트루먼의 연설에 대한 의회의 초기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이날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있었던 트루먼의 연설요지는 안정된 세계질서 속에서만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수 무장세력이나 외부세력에 의해 시도되는 정복을 막기 위한 힘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트루먼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가 평화구축의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하였다.³⁹⁾

그러나 트루먼의 의회 연설 이후 일부에서는 트루먼을 세계를 영향권의 범위로 분열시키려고 시도한다고 비난했으며, 일부에서는 공격적이라고, 일부에서는 무절제하고 반동적이라고 비난하였다.⁴⁰⁾ 그러나 3개월 뒤 상원에서 67대 23, 하원에서 287대 107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1947년 5월 22일 트루먼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 확대와 관련해 “미국은 유엔의 목표와 목적에 일조하고 있다”는 수사를 동원하면서 법안에 서명하였다.⁴¹⁾

봉쇄정책 채택 이전의 환경에서, 미국이 봉쇄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국제적 양극체제의 발전 이외에도 서유럽 경제의 불안정이었다. 프랑스에는 1946년까지 약간의 회복세가 있었으나 여전히 생필품이 매우 부족하였고, 도시 인구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철강제품의 생산도 여전히 전쟁 이전의 수준을 밑돌고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독일의 상황이었다. 한 예로, 담배가 당시 유행되는 교환단위로 화폐를 대신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식량 보급품은 연합군이 목표한 1인당 1일 1550칼로리에 훨씬 못 미쳤

38) <http://www.trumanlibrary.org/publicpapers/index.php?pid=2189&st=&st1=> (검색일 2009. 10. 8).

39) 트루먼은 1947년 3월 22일 트루먼 독트린 인준안 서명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평화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상하 양원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는 미국이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Statement by the President Upon Signing Bill Endorsing the Truman Doctrine, May 22, 1947, <http://www.trumanlibrary.org/publicpapers/index.php?pid=2145&st=&st1=> (검색일 2009. 10. 7).

40) 트루먼의 연설에 따른 국내외의 찬반논란에 대해서는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p.79-94를 참조할 것.

41) <http://www.trumanlibrary.org/publicpapers/index.php?pid=2145&st=&st1=> (검색일 2009. 10. 8).

고, 1947년 1월경의 독일 산업 생산은 1936년 수준의 31%에 불과하였다.⁴²⁾ 이차 유럽 서유럽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은 1947년 6월 전후의 혼란한 유럽경제가 공산주의 침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마셜플랜을 수립하였다.⁴³⁾ 마셜플랜이 발표되자 스탈린은 처음에 소련과 동유럽 동맹국들이 이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유럽의 필요의 본질과 정도를 결정할 파리 회의에 몰로토프와 상당 규모의 경제 전문가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그 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주재 소련대사 노비코프(Nikolai Novikov)는 “미국의 소련에 대한 지원은 순수한 것일리가 없다”며 “궁극적으로 마셜플랜은 미국의 정책적 도구로서 서유럽 블록을 형성하는 것에 귀착된다는 점이 조심스런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이 계획이 동반하는 모든 희망들은 연막 역할을 하는 선동적인 공식 선전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다.⁴⁴⁾ 이후 소련은 이 계획에 불참하였다.

트루먼 독트린은 이미 대량 원조의 길을 열어 주었고, 마셜은 케난과 정책기획국을 중심으로 원조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의 일반적 목표는 서유럽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1947년에 미국은 유럽의 대미 수출량의 7배에 달하는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었다. 유럽은 미국 수입상품에 대한 지불을 위해 달러가 필요하였고, 미국은 지속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 유럽 시장을 활성화시켜야만 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련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군대를 건전한 경제 기반 위에서 구축해야만 하였던 것이다.⁴⁵⁾

공식적인 조약 협상은 1949년 4월 4일 미국과 11개 국가가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끝이 났다. 이 조약의 핵심은 제5조로, “유럽이나 북미의 1개 이상의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⁴⁶⁾

케난의 전략은 미국이 군사비용을 증대시키거나 미국인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소련의 팽창에 저항하는 토착세력의 육성을 통해 국제적 안정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해 준다고 보았다. 미군사력의 무조건적인 투입을 공약하지 않고 소

42) John W.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pp.36-37.

43) George Kennan, *Memoirs 1925-1950*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7), pp.325-353.

44) John L Gaddis,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p.83.

45) George Kennan, *Memoirs 1925-1950*, pp.325-356.

46) 북대서양조약기구에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등 12개 국가로 시작되었다가 2년 뒤 그리스와 터키, 1955년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 1982년에 스페인이 가입하였다. Schuyler Foerster, "Alliance Commitments and Strategies", in Schuyler Foerster and Edward N. Wright, eds., *American Defense Policy*, 6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p.188.

련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트루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쳤다.⁴⁷⁾ 미국의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개입은 영국이 수행했던 전통적인 세력균형자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었으며, 트루먼 독트린은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한다는 특수한 정책결정으로 제한되기보다는 개입을 위한 세계전략 차원의 정책이었다.⁴⁸⁾ 이처럼 트루먼 독트린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립주의 정책을 끝내고 전후 세계적 차원의 개입주의를 천명한 것으로서, 같은 해 6월 마샬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로 구체화됐으며, 7월에는 이를 정식화하고 트루먼 독트린의 근간이 되는 케난의 봉쇄정책이 발표되면서 향후 40여년 동안 미국 외교정책의 기초로 발전하였다.

트루먼 독트린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세계정책인 냉전정책의 공식적 선언이기도 하였으며, 냉전정책의 핵심은 반공정책이었다. 마조위는 반공주의가 국내의 적들을 외부세계의 적들이 동맹자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사고가 적어도 자유세계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대량학살을 용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냉전은 세계를 분열시킨 미-소 진영간, 그리고 미-소 진영 내의 상호적대감과 편협적 의구심을 창출하는데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⁴⁹⁾

3) 미국의 그리스 정책

유엔구제부흥기구(UNRRA)와 영-미 등의 7억달러에 이르는 직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1945-1946년의 그리스의 생존은 불투명하였다. UNRRA는 1947년 3월 31일 완료될 예정이었으며 그리스의 생존에 필요한 보급품의 유입은 점차 지연되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났고, 최소한도의 수입 필수품조차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1947년 2월이 되자 물가 인상과 더불어 임금 요구와 사회적 불만도 급속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한 예로 그리스내 모든 생필품의 도매가격을 달러 지수로 환산한 결과 1939년이 100이라면 1946년 중반에는 348로 치솟았다. 이 시기 영국은 161이었다. 1950년대의 물가 급등은 부분적으로 전시 경제로 촉발된 세계적인 물가와 금융 인플레이션 때문이지만, 모리행위와 사재기 등은 그리스의 경

47) 오재완,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의 국내정치적 역할: 1945-1948』,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p.164; James I. Matray,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p.13.

48) 위의 논문, pp.159-160; 1945-1946년 백악관 해군 부보좌관으로 근무했고, 1946-1950년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근무한 클리포드(Clark M. Clifford)는 “미국은 당시 소련의 통제에 들어간 지역보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한 통제를 막는데 관심을 쏟았다”며 “소련은 자신들이 진주할 수 있는 모든 취약한 지역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Oral History Interview with Clark M. Clifford, March 16, 1972, <http://www.trumanlibrary.org/oralhist/cliford6.htm> (검색일 2009. 10. 9)

49) Mark Mazower, Review Essay: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p.1172.

제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리스내 소매가격은 전전(戰前) 30%였으나 1946년에는 100%로 올랐고, 아테네의 물가지수는 1945년 19.0에서 1946년에는 145.2로 폭등하였다. 1947년 초 경제적으로 그리스를 유지시키는 능력은 1944년 말 독일군이 철수할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으로의 수출도 단절되었다. 이태리의 침공에 이은 독일의 침공, 3년6개월에 걸친 나치 독일의 점령, 점령 말기 철수하는 독일군의 초토화작전은 그리스를 철저히 파괴하고, 해체시켰다.⁵⁰⁾

그리스의 사회 불안은 1946년 9월이 되자 널리 퍼져서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살다리스(Constantine Tsaldaris) 정부에 환멸을 느끼게 하였다. 정권은 국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좌익과 중도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집중하였다.⁵¹⁾ 그리스 정부는 1946년 여러차례에 걸쳐 미국에 재정원조 확충을 요청하였다. 총리 살다리스는 미국무장관 번즈에게 10월과 12월 그리스의 재정 원조와 군사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⁵²⁾ 그러나 트루먼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이 인기없는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그리스 정부가 왕당파만이 아니라 모든 반공 인사들의 대표를 추가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살다리스 정부에 대한 국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루먼 행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사회혁명이 우익 정부보다 미국의 세계적 이익에 더욱 위험하다고 간주하였다.

근동과 중동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미 나타났다. 그리스는 그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제적 파탄, 정치적 취약성, 사회적 갈등은 냉전 시기 미국 정부로 하여금 개입주의 정책을 취하도록 내몰았다. 국무부의 내부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 안보에 대한 그리스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직까지 소련의 헤게모니에 떨어지지 않은 발칸의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에 있다. 그리스와 터키는 경제적, 전략적으로 사활적 중요성이 걸린 동부 지중해에 대한 소련 지배의 유일한 장애물이다.”⁵³⁾

50) Joseph Marion Jones, "Curbing Communist Expansion: The Truman Doctrine", Thomas G. Paterson,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pp.137-139; Jon V. Kofas, *Intervention and Underdevelopment: Greece During the Cold War* (University Park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9), pp.54-55.

51) Jon V. Kofas, *Intervention and Underdevelopment: Greece During the Cold War*, p.63.

52) Joseph Marion Jones, "Curbing Communist Expansion: The Truman Doctrine", Thomas G. Paterson,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pp.138-139

53) *FRUS* 1946, Vol. VII, pp.240-244.

미국은 1940년대 후반 중동을 동-서를 연결하는 해로, 육로, 공로의 고속도로로서 이 지역의 거대한 자원의 소유, 풍부한 잠재적 농업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미국은 중동에서 소련의 열망이 채워진다면 미국의 이익뿐 아니라 소련과의 일반적인 입장에서조차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이 지역에서의 소련의 팽창을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⁵⁴⁾

영국과 미국의 관리들은 그리스에서의 영국의 철수와 관련한 몇차례의 의견교환을 통해 미국이 중동과 지중해 지역을 담당해야 하며, 특히 그리스와 터키는 전략적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 국가들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가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의 유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적 무장충돌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려해야 한다. 동부 지중해와 중동은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다”며 “동부 지중해와 중동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다”고 보았다.⁵⁵⁾

1947년 4월 하순 국무장관 번스와 영국 외무장관 베빈(Ernest Bevin)은 소련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에서 권력을 잡아서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이는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는 직접적으로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것이었다.⁵⁶⁾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및 CIA의 대표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고 1948년 1월 6일 작성한 NSC 5는 1947년 11월경 작성된 ‘미국백서’(The American Paper)를 인용하고 있다.⁵⁷⁾ NSC 5는 “그리스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통합을 파괴하려는 소련의 시도를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전 동부 지중해와 중동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그리스가 소련의 지배 아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최상의 방법으로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그와 같은 군사력의 사용이 그리스가 직간접적인 공격의 희생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하다면 미국은 그리스나 지중해 어느 지역에

54)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undated, *FRUS* 1947, Vol. V, pp.511-514.

55)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October 16, 1947, *FRUS* 1947, Vol. V, pp.563-564.

56)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04.

57) 미국백서는 “동부 지중해와 중동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 동부 지중해와 중동의 안보는 소련이 이태리, 그리스, 터키, 이란 가운데 어느 한 국가라도 통제를 장악하는데 성공한다면 위태로울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The American Paper*,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undated, *FRUS* 1947, Vol. V, p.575.

든지 군대를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⁵⁸⁾ 이어 1948년 2월 12일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NSC 5/2 정책을 채택하였다. NSC 5/2는 “동부 지중해와 중동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취약한 토대에 의존하고 있고, 통탄할만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확고한 지원이 없으면 그리스는 무한정 소련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민들은 알고 있으며, 그리스가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회의는 “미국은 그리스가 외부의 무력 공격이나 소련이 지배하는 그리스 내부의 공산주의 운동을 통한 소련의 지배하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정치, 경제,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⁵⁹⁾

전후 미국의 그리스 정책은 미-소의 대결구도 속에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입안되었으며, 냉전의 공식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그리스는 미국의 봉쇄정책의 최초의 적용 무대였고,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2. 동아시아와 남한

1)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상황적 차이는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소련이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동북아를 수십 년 동안 지배해 왔던 제국이 파괴되었고, 중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국민당 정부를 약화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새롭고 격화된 내전을 발발시켰다. 또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은 유럽 식민정권들의 권위를 손상시켜 인도 대륙과 동남아시아의 독립 운동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⁶⁰⁾

트루먼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종전 이후의 국제관계에 있어 주요 요소로 간주하

58) NSC 5: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Greece,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uncil (Souers)*, January 6, 1948, *FRUS* 1948, Vol. IV, pp.2-5.

59)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President Truman, NSC 5/2, February 12, 1948, *FRUS* 1948, Vol. IV, pp.46-51. 1947년 9월 5일 육군장관 로얄(Kenneth C. Royall)과 해군장관 포레스탈(James Forrestal)은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극단적인 역효과는 확실하다. 우호적인 세력의 지배 아래 없다면, 소련은 중동에 있게 될 것이다.……경제적 복지와 군사적 잠재력이 있는 중동의 석유 생산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접근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며 우려하였다. The Secretary of War (Royall) and the Secretary of the Navy (Forrestal) to the Secretary of State, 5 September 1947, *FRUS* 1947, Vol. V, p.328.

60) John L Gaddis,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pp.103, 105.

였다. 그는 전후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던 신생국가들이 미국식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 모델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식민지역에 대한 트루먼의 정책은 미국의 민주적 원칙에 대해 이들 정부의 관심도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⁶¹⁾

미국은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이 남긴 힘의 공백을 메우기를 희망하고 전후 중국을 아시아 전략의 주요 기지로 간주해 국민당이 공산당에 대해 발동한 내전을 적극 지원하였다.⁶²⁾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트루먼은 중국에서 국민당군의 지속적인 후퇴에 관한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⁶³⁾ 그러나 1949년 국민당은 중국공산당에 패해 타이완으로 물러났다.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권력을 장악하자 이데올로기적 이유와 함께 미국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중국을 소련의 세력권에 자진하여 편입시켰다.⁶⁴⁾ 이로 인해 미-소의 갈등과 긴장은 점차 높아졌고, 자연스레 일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유럽에서 진행된 미-소 냉전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전세계적인 범위로 확산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스투크(William W. Stueck, Jr.)에 따르면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소가 상충적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면서 냉전은 시작되었던 것이다.⁶⁵⁾ 극동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미국의 일본점령정책도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일정책의 전개에 따라 변화되었다.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의 기본적 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6일자 '항복 후 미국의 초기 일본정책'(SWNCC 150/4)과 그 후 11월 3일 합동참모본부(JCS)에서 정식 지령으로 보낸 '일본 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 초기 기본지령'(JCS 1380/15)에 명시되어 있다. SWNCC 150/4는 일본과 관련한 미국의 초기 정책의 최종 목적을 첫째, 일본이 다시 미국에 위협이 되거나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둘째,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며 유엔 헌장의 이상과 원칙이 반영된 미국의 목적을 지지할 평화롭고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⁶⁶⁾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완전한 무장해제 및 비군사화

61) James I. Matray,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pp.49-50.

62) 아키라 이리에, “알타체제의 붕괴와 냉전의 출현”, 부르스 커밍스 외, 『분단전후의 현대사』 (서울: 일월서각, 1983), pp.82-85.

63) William W. Stueck, Jr.,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p.41.

64) John L Gaddis,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p.104.

65) William W. Stueck, Jr.,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y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서은경 역, 『한국전쟁과 미국외교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5), p.14.

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CS 1380/15는 미국의 점령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기본지령은 SWNCC 150/4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점령의 기본 목적을 일본이 “다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안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1948년부터 일본을 아시아 지역의 핵심 동맹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전환은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으로 있던 케난이 1948년 2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검토해 작성한 PPS 23에 근거하고 있었다.⁶⁸⁾ 케난은 PPS 23에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중국과의 관계 청산과 행동의 자유 회복, 둘째, 소련의 군사적 공격 및 공산주의 침투와 지배로부터 일본의 안보 보장과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시 중요한 세력이 되도록 국가의 잠재력을 허용하기 위한 정책 고안, 셋째, 필리핀의 지속적인 내정 독립과 미국 안보의 보루로서 필리핀 군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리핀과의 관계 형성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들 3가지 정책 가운데 일본과 관련한 목적을 위해 즉각적 주의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의 핵심정책이 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⁶⁹⁾ 이어 1949년 6월 NSC 49에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적 평가가 반영돼 있다. NSC 49는 일본이 극동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북태평양의 무역 항로, 일본해·동중국해·황해의 입·출구, 상하이-우송 지역을 포

66) ‘항복 후 미국의 초기 일본 정책’(The 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은 일본 국회도서관 인터넷 자료에 원문 이미지와 함께 실려 있다. The 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SWNCC 150/4), 6 September 1945.

<http://www.ndl.go.jp/constitution/shiryu/01/022/022tx.html> (검색일 2009. 9. 10).

67) ‘일본 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 초기 기본 지령’(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원문은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문 이미지와 함께 실려 있다. 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JCS 1380/15), 3 November 1945.

<http://www.ndl.go.jp/constitution/e/shiryu/01/036/036tx.html> (검색일 2009. 9. 10).

68) “우리가 아시아 민족들에 대해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세력으로서의 우리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우리의 정치 철학과 삶의 유형은 아시아의 인민 대중에게 거의 적용할 수 없다.……우리는 전세계 부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6.3%에 불과하다. 이런 불균형은 특히 우리와 아시아 민족들 간에 엄청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부러움과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시기의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해를 주지 않고 불균형의 입장을 유지토록 할 관계의 유형을 고안하는 것이다.……우리는 다가오는 시기에 극동 지역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이 주로 군사적, 경제적이 될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태평양과 극동 세계의 어느 부분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지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며, 이들 지역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거나 의지할 수 있는 수준에 남도록 우리의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연구를 통해 일본과 필리핀이 그러한 태평양 안보 체제의 기초가 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PPS 23: Review of Current Trends U.S. Foreign Policy, February 24, 1948, FRUS 1948, Vol I (Part 2), pp.509-529.

69) George Kennan, *Memoirs 1925-1950*, pp.374-375.

함한 아시아 북부 지역의 항만과 관련한 지리적 위치 때문이며, 일본이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서태평양,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미국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군사적 관점에서 극동에서의 소련과 관련해 최소한으로 궁극적인 미국의 입장은 최소한 현 수준의 아시아 연안 도서지역의 장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⁷⁰⁾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무장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는 정책에서 봉쇄정책을 위해 재무장화와 경제 복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역코스 정책’으로의 전환은 아시아에서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⁷¹⁾

1949년 6월 16일 대한경제원조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미국 의회 하원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한 국무차관 웹은 “극동에서의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같다”고 말하였다.⁷²⁾ 웹은 이어 6월 28일에는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극동에서 세계적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책 조치’는 “공산주의에 대한 최대의 효과적인 무기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⁷³⁾

2) 미국의 남한정책과 냉전의 확산

해방 직후 남한의 상황은 미국 관리의 눈에 ‘점화하기만 하면 즉각 폭발할 것 같은 화약통’(powder keg)이었다.⁷⁴⁾ 냉전 구조를 예상한 국내 대결은 해방 직후 이미 존재하였다.⁷⁵⁾

세계적 냉전이 찾아오기 전 이미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인해 냉전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이는 해방 이후 이념투쟁으로 본격화되었다.⁷⁶⁾ 한국 내의 좌우, 남북간의 국내 냉전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 상호간에 직접 테러를 교환할 만큼 악화되어 미-소간의 국제냉전의 전개보다 훨씬 더 빠른 속

70) NSC 49: *Strategic Evaluation of the United States Security Needs in Japan*, 9 June 1949, FRUS 1949, Vol. VII (Part 2), p.774.

71)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 함께, 20005), p.116.

72) U.S. House of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Far East Part 2, Selected Executive Session Hearings of the Committee, 1943-50*, Vol. VIII, pp.21-22.

73)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Economic Assistance to China and Korea: 1949-1950: Hearings held in executive session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81st Congress* (이하 *Economic Assistance to China and Korea:1949-1950*), p.115.

74) Political Adviso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5 September, 1945, FRUS 1945, Vol. VI, pp.1049-1953.

75) Okonogi Masao, "The Domestic Roots of the Korean War", Yonosuke Nagai and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299.

76) 스투크는 한국인들이 냉전의 첫 번째 격전지가 되는데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1945년 미-소가 한반도 분할을 결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여론은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William W. Stueck, Jr.,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p.15.

도로 심화되어 갔다.⁷⁷⁾ 미-소 냉전으로 인해 한반도의 분열과 저항은 빨리 찾아왔다.⁷⁸⁾

커밍스(Bruce Cumings)는 미국의 대한정책 목표는 처음부터 반공주의적 동기를 갖고 있었으나 그 동기는 직접 대결이 아니라 적을 다변적 제약 속에 묶어두는 것이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한 봉쇄와 대결정책의 노선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⁷⁹⁾ 실제로 맥아더의 한 참모는 “주한미군정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⁸⁰⁾

1945년 9월 남한에 수립된 미군정은 세가지 목표 달성에 주력하였다. 첫째,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항복을 받고 둘째, 한반도에 친미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지속시키며 셋째, 소련이나 공산주의의 영향력의 태평양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군정은 한국인들의 독립국가 수립의 열망과는 거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⁸¹⁾

더욱이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을 기점으로 미국의 결정적 외교정책의 변화는 미군정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미군정 역시 냉전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남한에 주둔중인 미군정의 향후 정책이 반공노선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⁸²⁾ 트루먼 대통령의 전쟁배상금에 관한 개인 특사로 특별임무를 띠고 극동을 순방중이던 폴리(Edwin W. Pauley)는 194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트루먼에게 남한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주목과 고려를 받지 못한다고 믿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조선은 작은 나라이고, 미국의 전체 군사력이 극히 일부분의 책임만을 맡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의 성공 전체가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입니다. 조선은 민주적인 경쟁력 있는 체제가 실패한 봉건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채택될 수 있는지의 여부나 다른 체제 즉 공산

77)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서울: 나남출판, 1996), p.164.

78)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박행웅·이종삼 옮김,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한울, 2000), p.229.

79)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Separate Regimes, 1945-194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xx, xxiv.

80)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King's Crown Press, 1951), p.52.

81) 진덕규, 『한국 현대정치사 서설』 (서울: 지식산업사, 2000), pp.109-110; 스톡은 미국 점령군의 목적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가능한 한 상대방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는데 있었다고 유사하게 분석하였다.

William W. Stueck, Jr.,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p.14.

82)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서울: 박영사, 1992), p.151.

주의가 보다 강력해질지의 여부를 시험할 장소입니다.⁸³⁾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던 미국의 대한정책 목표 또한 트루먼 독트린의 기본방침을 적용한 대소봉쇄였다. 1946년 9월 대통령 고문 클리포드는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봉쇄전략을 건의하였다. 그는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위협을 받거나 위협에 처한 모든 민주국가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미국은 재건되고 민주적인 일본과 통일독립 한국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미국은 소련의 침투와 궁극적인 지배를 막으려 한다면……공들이고 사려 깊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⁸⁴⁾

트루먼이 의회 연설에서 “소수 무장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 시도되는 굴종에 저항하는 자유 인민들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트루먼 독트린은 외부의 압력이나 무장세력의 봉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지 개입할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더욱이 한반도는 미-소 점령군이 직접 맞닥뜨린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었다.

미 행정부는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그리스와 터키로 원조 프로그램을 제한했으나 이미 남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원조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었다. 애치슨은 의회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경계선이 러시아와 우리들 사이 (한국에) 확실히 그려져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미국의 힘과 권위가 이미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⁸⁵⁾ 트루먼의 의회 연설 1주일 뒤 『뉴욕타임즈』는 사실을 통해 “워싱턴, 아테네, 이스탄불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작은 국가의 미래가 그리스나 터키, 남동부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세계평화에 중요하다. 바로 한국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다음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국무장관 대리 애치슨에게 한국에 대해 질의하자 그는 행정부가 4억-5억달러 규모의 한반도 원조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⁸⁶⁾

1946년 12월 27일 미국, 소련, 영국 3국의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전후 처리문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협정은 미-소 타협의 산물이며 알타회담 이후 미-소 협조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었

83) Ambassador Edwin W. Pauley to President Truman, June 22, 1946, *FRUS* 1946, Vol. VIII, pp.706-709.

84) Clark Clifford, "American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Report to the President, September 1946, Arthur Krock, *Memoirs*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68), p.479.

85) Barton J. Bernstein,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War", Michael J. Lacey, ed., *The Truman Presiden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413.

86) William W. Stueck, Jr.,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pp.64-65.

다.⁸⁷⁾ 그러나 모스크바 협정의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논쟁이 폭발하면서 원만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미국은 이 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서 자국에 ‘우호적인’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봉쇄정책이 미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되면서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1947년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겼다. 이 평가에서 남한은 중국, 일본과 함께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어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지난 2년 동안 이데올로기 전쟁을 수행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미국의 명예와 세계의 안전에 크게 해롭다. 이 전투를 포기한다면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⁸⁸⁾ 이 보고서는 남한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소련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미국의 위엄’을 해치는 일이며,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었다. 남한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냉전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38선 이남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인간, 즉 이승만에 대한 약속에 사로잡혔으며⁸⁹⁾ 미국의 정책은 소련의 한반도 지배를 저지하는 동시에 남한의 공산화를 초래할 혁명세력의 확산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안으로서 미군 철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한과 이승만 정권을 봉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전략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⁹⁰⁾ 이승만 또한 이러한 미국의 의지에 부응해 트루먼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독트린을 지지하면서 “한국은 그리스와 비슷한 전략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미 점령지역에 과도 독립정부의 즉각적인 수립은 공산주의 진출에 대한 보루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⁹¹⁾

전후 미국의 군부는 전시의 병력 규모를 급격하게 줄였으며, 추가 감축에 대한 압력을 의회로부터 받고 있었다. 트루먼은 이에 따라 안전하게 군대를 철수하면

87)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서울: 나남, 1988), p.179.

88) 미국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따른 원조순서를 따질 때 조선은 15위(영국 1위, 프랑스 2위, 독일 3위, 그리스 10위, 일본 13위, 중국 14위, 필리핀 16위)였고, 원조의 긴급성에서는 조선이 5위(그리스 1위, 터키 2위), 미국의 안보에 대한 각국의 중요성과 원조의 긴급성을 종합하면 조선은 13위(영국 1위, 프랑스 2위, 독일 3위, 일본 8위, 중국 14위, 필리핀 15위)였다. *JCS 1769/1: United States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pril 29, 1947, Thomas H.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Containment: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pp.71-84.

89) Lisle A. Rose, *Roots of Tragedy: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uggle for Asia 1945-1953*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6), p.133.

90) 오재완, 앞의 논문, p.163.

91) 이승만이 트루먼에게 보내는 서한, 1948년 3월 13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1, p.193.

서 약속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도록 국무부와 국방부에 지시하였고,⁹²⁾ 결국 1948년 9월부터 1949년 6월까지 모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시켰다.⁹³⁾ 트루먼 행정부는 미군철수가 완료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대한경제원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1949년 6월 7일 트루먼이 한국에 대한경제원조의 제공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낸 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이를 통한 미국의 남한정책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공화국이 실행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실제적 가치가 북한의 인민들에게 부과된 공산주의의 이행에 맞서는 실험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립적, 안정적 경제를 향한 공화국의 생존과 진전은……공산주의 선전에 포위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의 인민들에게 공산주의 선전을 저지하고 거부하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천과 완고함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은 그들에게 확산된 공산주의 진영의 장악을 저지하는 북아시아의 인민들에게 횃불로 설 것입니다.⁹⁴⁾

이승만 정권은 해방 이후 미국의 남한정책의 결과로서 미국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단절된 적은 없었다.⁹⁵⁾ 이에 따라 미국은 이승만 정권이 농민들에게 변영의 수단을 가져다주면 농민들은 공산주의 선동가들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⁹⁶⁾ 이제 한국의 경제 안정과 발전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마샬플랜으로 유럽을 부흥시

92) Harry S. Truman,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p.325.

93) 국방부와 국무부의 논쟁 끝에 1948년 4월 트루먼은 미국이 남한에 군대와 기지를 유지할 전략적 이익이 없다는 국가안보회의의 평가를 수용하였다. NSC 8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보고서다. NSC 8에 나타난 미국의 대한정책 목표를 보면 첫째, 외국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UN 회원국이 되도록 하며 가능한 빨리 통일, 자치, 주권 국가를 수립하고 둘째, 수립된 민족 정부가 조선인민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대표하도록 보장하며 셋째, 독립 민주 국가의 기본적 토대로서 건전한 경제, 교육 체제를 갖추도록 조선인민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미국 정부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NSC 8: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FRUS* 1948, Vol. VI, pp.1164, 1168.

94)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ransmitting a recommendation that the Congress authorize the Continuation of Economic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50", June 7, 1949, U.S. House of Representatives, U.S. House of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Far East Part 2, Selected Executive Session Hearings of the Committee, 1943-50*, Vol. VIII, p.387.

95)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xxvi.

96) Harry S. Truman,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p.330.

켜 소련 봉쇄에 나섰던 것처럼 남한에서도 경제원조를 통해 유사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더욱이 마셜플랜을 담당했던 경제협조처(ECA)가 한국에 대한 대한경제원조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국무차관 웹은 1949년 6월 1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열린 대한경제원조법안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한국정책과 계획에 대해 “(트루먼) 대통령이 규정한 세계의 목적을 위한 진보를 성취하는데 있어 극동의 전체적인 노력의 대단히 중요하고도 통합적인 부분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극동에서 이러한 목표를 위한 우리의 진전이 꼭 한결 같지만은 않다”며 “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기회를 허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⁹⁷⁾ 웹은 이어 6월 28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한 청문회에도 참석해 경제원조 프로그램은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미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⁹⁸⁾ 웹은 “한국 정부는 경제가 없이는 내부의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한국인들의 꿈과 복지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 견지에서 한국정부에 정치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그리고 기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⁹⁾ 웹은 상원의원 펄퍼(Pepper)의 한국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서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국가에서 발견되는 조건들과 다르게 (한국은) 유엔과 관련한 서방 자유국가들의 총체적인 지도에 따라 공개적으로 수립된 대표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유엔에 도전해 비밀리에 세워져 유지되는 정권과 맞대면하고 있습니다. 생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세계적 의무와 일치하는 자유의 이 전초기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아시아 인민들은 민주주의 원칙의 실질적인 우월성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도록 안정적인 경제를 얻도록 한국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동아시아의 수

97) "Korea Aid Act of 1949", June 16, 1949, U.S. House of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Far East Part 2, Selected Executive Session Hearings of the Committee, 1943-50*, Vol. VIII, pp.24-25.

98)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Economic Assistance to China and Korea: 1949-1950*, p.118.

99) *Ibid.*, p.119.

백만 인민들에게 미국이 구축한 민주주의와 원칙에 대한 현재의 신념을 갖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일본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의 공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명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것이라는 울부짖음을 들을 것입니다.¹⁰⁰⁾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실제적 가치의 실험무대’가 된 한국의 경제적 안정은 ‘아시아 인민들에게 공산주의 선전을 저지하고 거부하도록 고무’시켜 ‘햇불’로 우뚝 서도록 한다는 미국의 남한정책은 미군 철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마샬플랜과 같이 경제원조를 통해 소련을 봉쇄하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일환이었다. 미국이 ‘자유의 전초기지’를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인들에게 미국의 신념을 갖도록 할 것이었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미군정에 의한 반공정책이 남한사회에 적용되었으며,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는 미군정에게 반공정책을 공공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을 동시에 부여하였고, 미군정으로는 좌익세력을 탄압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였다.¹⁰¹⁾ 미국의 남한정책은 남한에 반공의 보루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것이다.¹⁰²⁾

3) 열강의 제주도 인식과 미국의 제주도 정책

해방 이후 냉전 시기 미국의 제주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강들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중심에 있는 제주도는 동중국해의 입·출구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19세기 말부터 외세의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과 인식을 살펴보고 미국의 제주도 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러시아의 제주도 인식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주도를 주목한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이었다. 『뉴욕타임즈』는 1885년 1월 “러시아가 제주도를 해군기지로 점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¹⁰³⁾ 이 해는 러시아와 일본의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해였다.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와 동아시아의 세력

100) *Ibid.*, pp.120-121.

101)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p.153.

102) 송광성, 『미군점령4년사』 (서울: 평민사, 1993), p.12.

103) *New York Times*, 1885. 1. 20.

관계는 1885년 3월 12일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에서 언급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발행하는 이 신문은 “러시아가 조선의 제주도를 장악해 군함 정박소로 만들겠다는 소문이 있다”며 “러시아의 『오-스치』 지는 지난 1월 말 머릿기사에서 러시아가 제주도를 장악하면 조선의 수도인 경성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러시아가 태평양에 위력을 떨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언급하였다.¹⁰⁴⁾

1885년 8월 14일자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신비에 가린 붉은 전사 - 제주도 근해에서 미확인 함대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나가사키에 갔던 영국 군함 사령관이 ‘최근 제주도의 남쪽 항구를 지나면서 3명의 붉은 전사가 체류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러시아 동인도 함대의 꾸준한 증강과 바로 인근의 제주도에 수척의 선박의 출현은 중국과 일본 당국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그들은 러시아가 제주도 점령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¹⁰⁵⁾

1900년 4월에는 “러-일 우호협정을 맺고 러시아가 제주도의 항구를 획득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조선은 어떠한 강대국에도 제주도를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보도도 나왔다.¹⁰⁶⁾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이어 태평양전쟁이 끝나자 러시아는 다시 제주도를 주목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원하는 남진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1945년 9월에 기록한 소련 외무부 문서고의 문서는 소련의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중요시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들에 나타난 소련의 주요 관심사는 조선의 영토와 관련해 3개의 중요한 전략지역 - 제주도와 부산, 인천 - 을 장악하는데 있었다. 문서들 가운데 ‘전 일본 식민지 및 위임 영토의 문제에 관한 수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1) 조선. 38선 북부 지대의 소련군에 의한 조선 점령은 조선의 나머지 지대에 대한 미국의 점령과 동일한 시기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중국의 점령지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는 뤼순항의 소-중 군사·해군기지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는데 있어 중국의 이익

104) 『大阪毎日新聞』, 1885. 3. 12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 『자료집-일본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1878~1910년』 (제주: 동청, 2006), p.8에서 재인용).

105) *Washington Post*, 1885. 8. 14.

106) *New York Times*, 1900. 4. 7.

을 자극할 수 있다. 점령 정부의 결론에 따라, 아마도 2년 뒤, 조선은 4대국의 신탁통치 영토가 돼야 한다. 더불어 3개의 전략 지역 - 부산, 제주도, 인천 - 의 할양이 이뤄져야 하며, 이 지역은 소련군사령부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 조선에의 전략 지역에 대한 소련에의 할양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태평양에서 전략 지역을 할양받고자 하는 미국의 희망사항을 이용해 그들의 입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조선내 이들 전략지역을 소련에 주는 제안이 반대에 부딪히면 이들 지역에 대한 공동 소-중 통제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타이완 및 평후 군도. 중국으로의 반환을 지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류큐. 점령시기의 종료시점에 4대국에 의한 공동 국제 신탁통치 체제나 중국 단독에 의한 국제 신탁 체제를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확실히, 미국은 류큐에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4) 보닌, 볼카노, 마리아나스, 캐롤라이나스, 마셜아일랜드. 점령 시기의 종료 시점에 국제 신탁통치 체제를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에 대한 소련의 제안에 대해 미국의 동의 조건 하에 전략지역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¹⁰⁷⁾

이 문서에서 소련은 전략지역인 제주도를 중국의 점령지대로 두거나 소련에 할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조선에 관한 소련의 제안은 또다른 문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소련 정부는, 치명적인 오랜 일본의 조선 통치를 가능한 한 빨리 청산하기 위한 열망과 조선인민들에 의한 완전한 주권과 민족 독립을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열망에 따라, 조선이 적당한 과정을 거쳐 자유롭고 독립될 것이라고 연합국들이 결의한 1943년 12월 1일 3대국의 카이로선언과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적국들로부터 취한 영토에 대한 국제 신탁통치의 수립 가능성을 상정한 유엔헌장 B항 제77조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한다.

107) Author(s) not indicated, "Notes on the Question of Former Japanese Colonies and Mandated Territories," September 1945, AVP RF, Fond 043I, Opis 1, Delo 52, Papka 8, l. 40-43(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rking Paper No. 8, Washington, D.C., November 1993, p.14에서 재인용).

1) 연합국에 의한 조선 영토의 군사점령 시기가 종결되면, 조선은 소련, 미국, 영국, 중국의 4대 연합국에 의해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

3) 조선에 대한 4대국의 신탁통치 조건을 결정하는 협정에 따라 UN헌장 제82조를 고려해 전략 지역 - 부산, 제주도, 인천- 의 할양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과 공동으로 사용중인 뤼순의 소련 군사·해군기지에 대한 접근과 신뢰할 수 있는 해양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들 지역은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소련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특별 군사 통제에 종속되어야 한다.¹⁰⁸⁾

이 보고서들은 한반도 영토에 관한 소련의 최대 관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들 3개 섬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1945년 9월 소련의 목적이 일종의 조선에 대한 공동행정기구를 통해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이 되자, 소련 정부는 부산, 인천, 제주도의 통제에 의한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의 계획을 포기하였다. 공동 점령 초기 몇주 동안 한반도에 대한 미-소 관계는 너무나 적대적이어서 미국이 자국의 점령지대에 있는 이들 3개 주요 지역의 통제권 양도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¹⁰⁹⁾

(2) 일본의 제주도 인식

일본은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였다. 1885년 3월 12일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은 제주도의 위치에 대해 “일본, 중국의 근해를 견제함에 있어서는 강력한 장소인 만큼, 러시아가 제주도를 점령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동양에서 세력을 현저히 증가시켜 조선은 물론 일본, 중국에도 심각한 문제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¹¹⁰⁾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현에서 발행되었던 『진제이닛뽀』(鎮西日報)도 『오사카마이니치신문』과 비슷한 시기인 1885년 4월 15일 “러시아가 욕심을 가지고 연

108) Author(s) not indicated, "Proposal on Korea", September 1945, AVP RF, Fond 0431I, Opis 1, Delo 52, Papka8, 1. 44-45(*Ibid.*, p.15에서 재인용).

109) Author(s) not indicated, "An Understanding on the Question of a Provisional Policy for the Laperuz, Sangarsky and Korean Straits," September 1945, AVP RF, Fond 0431I, Opis 1, Delo 52, Papka 8, 11. 47-48(*Ibid.*, p.17에서 재인용).

110) 『大阪毎日新聞』, 1885. 3. 12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 『자료집-일본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1878~1910년』, p.8에서 재인용).

안을 측량한다고 전해지는 조선 제주도는 일본, 중국, 조선 3국 사이에 있어 군사적, 상업적으로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진제이닛뽀』는 이어 1885년 5월 1일자 사설을 통해 “러시아가 제주도 점령과 관련한 답판을 풍설이라고 막연히 듣고 넘길 수 없다”며 러시아가 제주도를 점령할 경우 일본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¹¹²⁾ 신문은 이 사설에서 “지도를 보면 제주도는 전라남도 남해에 있다. 거문도도 그 가까이에 있다. 사실 일본과 조선 사이의 요충지여서 사할린해(海)와 헤이룽장(黑龍江)에서 일본해(海)를 거쳐 남하하는 전함을 막는데 중요한 곳이다……러시아가 제주도를 얻게 되면 남진의 주요 항구를 얻는 것이다”고 일본의 입장에서 본 전략적 가치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본 언론의 입장은 해방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미 일본은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있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군사기지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제주도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이 시기 일본 군함 류쵸(龍驤)함은 제주도 근해를 측량하였다.¹¹³⁾ 일본의 언론들은 러시아가 제주도를 점령하면 일본인들은 결코 대안(對岸)의 불처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¹¹⁴⁾ 19세기 말 동아시아 국가들의 힘의 역학관계를 인식하고 있던 일본은 러시아가 제주도를 장악할 경우 일본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1894년 7월에는 홍콩의 『스텐다드』(Standard)지가 “일본이 제주도 재점령을 염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쓰시마와 교환하고 싶어한다”는 보도가 나왔는가 하면 1895년 5월에는 “러시아가 제주도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¹¹⁵⁾ 러시아와 일본은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장기간 계속되었다.

러-일전쟁 당시에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가 세삼 인정받았다. 러-일전쟁 당시 도쿄 제독이 이끄는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가 쓰시마를 경유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러시아 함대 제독 로제스트벤스키(Rojestvensky)는 1905년 5월 27일 제주도를 거쳐 쓰시마로 향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5시30분 제주도 북쪽에서 정찰활동을 벌이던 일본해군의 정찰정들은 러시아 함대가 쓰시마 방면으로 향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도고는 쓰시마

111) 『鎭西日報』, 1985. 4. 15 (위의 책, p.10에서 재인용).

112) 『鎭西日報』, 1985. 4. 15 (위의 책, p.13에서 재인용).

113) 『大阪毎日新聞』, 1885. 5. 6 (위의 책, p.15에서 재인용).

114) 『大阪朝日新聞』, 1885. 6. 16 (위의 책, p.16에서 재인용).

115) *New York Times*, 1894. 7. 14; 1895. 5. 17.

북쪽 방향에서 다가오는 러시아 함대를 공격해 13척을 침몰시키고 6척을 나포하는 전과를 올렸다.¹¹⁶⁾ 이 사건은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일본과 러시아가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¹¹⁷⁾

일본의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은 일본이 제국주의로 발돋움하던 중-일전쟁 시기 더욱 커졌다. 이미 19세기부터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던 일본은 중-일전쟁 이전인 1931년 3월 제주도 서남부 모슬포 알뜨르에 60만㎡ 규모의 제주도 항공기지(일명 오무라비행장) 건설에 들어가 5년여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가 끝난 시점은 일본이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을 계기로 중-일 전쟁을 일으켜 전면전으로 전개되던 시기였다. 일본 해군은 1937년 8월부터 나가사키현의 오무라 항공기지에서 출격해 중국의 난징과 상하이 등지를 폭격하고 귀환 중간지점으로 제주도를 경유하였다. 이해 11월 일본이 상하이 부근을 점령해 비행장을 확보하자 오무라 해군항공대는 중국으로 근거지를 옮겼으나 이 사이 제주에서 난징을 공습한 횟수는 36회, 연 600기 투하폭탄량은 300t에 이르렀다.¹¹⁸⁾ 이후 1944년 중반 일본은 대륙으로부터 물자 수송을 위해 조선(대한)해협의 항로 확보를 모색하게 되었고, 중국 대륙에서 발진하는 미군의 B29기가 일본 규슈 북부를 공습할 경우 제주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944년 5-6월경 모슬포에 레이다기지를 개설하였다.¹¹⁹⁾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패전이 가시화되자 일본大本영은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9곳의 미군 상륙 예상거점 가운데 8곳은 일본 본토였으며, 나머지 한 곳이 제주도였다.¹²⁰⁾ 일본군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할 때까지 제

116) *New York Times*, 1905. 5. 30; 1905. 5. 31; 1905. 6. 10.

117) 1910년 8월 21일에는 영국 해군의 최대의 순양함 가운데 하나인 9800톤급 베드포드(Bedford)호가 중국의 웨이하이를 출항해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 제주도 연안에서 짙은 안개로 좌초해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순양함은 1900-1903년 영국 해군이 건조한 최대 규모의 순양함이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이 함정의 선장 피츠허버트(Fitzherbert)는 좌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다. *New York Times*, 1910. 8. 22; 1910. 8. 23; 1910. 11. 17.

118) 이는 당시 일본에서 출격해 중국을 공습하고 일본으로 귀환하는 왕복비행을 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4호 (제주: 각, 2004), pp.224-225. 츠카사키의 논문은 그동안 국내 연구지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던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 보관된 『기밀작성일지』를 활용하였다.

119) 1944년 6월 16일부터 1945년 1월 6일까지 단기(單機) 공습을 빼고 중국기지에서 10차례의 B29기의 규슈 공습이 행해졌으며, 일본 육군은 모슬포에 설치된 전과경계기를 통해 7차례나 B29기의 비행을 포착하였다. 특히 1944년 6월 16일에는 육군 비행 제4전대가 규슈 공습에 나선 B29기 7대를 격추(확실 4대, 불확실 3대)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는 제주도의 전과경계기를 통해 B29기의 공습 사실을 발견해 보고했기 때문에 제주도 경계대장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육군대신으로부터 군도와 금일봉을 받았다. 츠카사키 마사유키, 위의 논문, pp.226-227.

120) 츠카사키 마사유키, 위의 논문, p.231.

주도에 비행장과 고사포 진지, 갯도진지 등을 구축하였으며, 조선인 징병자를 포함해 6만5천여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¹²¹⁾ 일제 강점기 일본은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해 군사기지화하였고, 이를 침략전쟁에 활용하였다.

(3) 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대만의 제주도 인식

오스트레일리아는 제주도의 위치를 주목하고 미국의 전략적 신탁통치를 주장한 국가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오스트레일리아는 “제주도가 일본과 대부분의 중국 해안 사이의 공군기지로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였다.¹²²⁾ 일본의 극동사령부에 참여한 오스트레일리아는 1949년 7월 일본의 평화조약 내용과 관련한 토론에서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보닌, 류큐와 함께 제주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신탁통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¹²³⁾ 이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일본이 아닌 미국의 태평양의 일부 섬들에 대한 신탁통치를 통해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고,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10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약칭 UNTCOK)의 필리핀 대표로 온 필리핀 상원의원 아란즈(Melecio Arranz)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소련과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마닐라 크로니클』(*Manila Chronicle*)지는 1948년 2월 15일자에서 “어제 주말(2월 14일) 아란즈 상원의원은 필리핀 타운홀 컨퍼런스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유엔이 ‘러시아가 만든 도로 장애물을 폭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원자폭탄을 사용해서라도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이고 현실성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이어 “아란즈가 ‘UNTCOK의 반대는 남쪽을 침투하며 궁극적으로는 극동을 지배하고 나머지 세계를 위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를 강점하기 위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¹²⁴⁾ 아란즈는 또 2월 26일 마닐라 라디오방송인 KZFM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군사적인 이유는 명백하다. 남조선은 군사 전문가들이 서태평양의 지브롤터와 같은 잠재력 있는 곳으로 간주해 온 전략적 요충지인 제

121) 허호준,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72(2006), pp.37-70.

122) References PCPS D/13, Australia National Archives.

123) Memorandum by Mr. Marshall Green,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July 29, 1949, *FRUS* 1949, Vol. VII (Part 2), p.821.

124) *Manila Chronicle*, 1948. 2. 15 (Dispatch No. 192, *Subj: Comment of the Philippines Media on UNTCOK*, Feb 24, 1948에서 재인용).

주도를 가지고 있다. 기지에 유용한 연안 지역과 고도로 발달된 수송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였다.¹²⁵⁾

중국 공산당에 쫓겨 대만으로 건너간 장제스 정권도 중국의 본토 공격을 위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1949년 8월 이승만-장제스 회담에 앞서 중국(대만)-한국의 해·공군 기지 협정과 관련한 회의에서 중국 외무차관 출신이며 상하이시장을 역임한 우(K.C. Wu)가 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임병직, 해군제독 손원일과 회담하면서 제주도 공군기지 시설을 중국(대만)에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이 그것이다. 그는 “중국(대만)이 제주도에서 산둥반도와 룡하이 철로의 종착지를 공격할 목적으로 3개의 폭격단을 설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의 해군 안보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임병직이 이승만에게 이 문제를 갖고 가져 즉각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제주도를 공군기지로 위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중국의 내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중국측 대표와 한국측 대표들의 회의는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¹²⁶⁾

(4) 미국의 제주도 정책

1885년 8월 14일자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제주도는 중국, 일본, 조선 사이에 있는 1급의 중요성을 지닌 전략적 위치에 있다”며 “제주도는 상하이에서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외세의 훌륭한 함대 기항지가 될 것이다. 조선 정부는 제주도를 방어할 위치에 있지 않다. 러시아가 일단 제주도를 점령하면 현재 일본 소유의 쓰시마도 필연적으로 비슷한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¹²⁷⁾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인식은 러시아, 일본, 미국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은 당시 고립주의적 외교노선으로 인해 제주도를 주목하지 않았으나 제주도가 중국과 일본, 조선 사이에 있는 ‘1급의 중요성을 지닌 전략적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 주재 미국 공사 알렌(Horace N. Allen)은 1901년 제주도에서 ‘이재수란’이 일어나자 국무부에 “프랑스 포함 2척과 일본 군함 1척이 제주도로 급파돼 외세의 개입을 야기할 개연성을 불러일으켰다”며 “제주도는 좋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

125) Dispatch No. 242, *Subj: Transmitting Copies of Two Speeches of Senator Melecio Aranz, the Philippine Delegate to the Korean Commission, American Embassy in Manila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 4, 1948.*

126) 주한미대사관 관리가 9월 12일 한국 외무장관과 대화를 하던중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외무장관은 이를 부인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19, 1949, FRUS 1949, Vol. VII (Part 2), pp.1080-1082.*

127) *Washington Post*, 1885. 8. 14.

다”고 보고하였다.¹²⁸⁾ 그는 1905년 1월에는 “일본 선박이 제주도에 다수의 사람들을 상륙시키고 보급품을 내려놓았으며 요새를 구축 중에 있다”고 국무부에 보고하였다.¹²⁹⁾ 외교관리나 언론이 보기에 제주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대하였다.

미국이 제주도에 대해 ‘느슨한’ 관심을 표명하다 적극적 관심으로 바꾼 것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도달하였을 때부터였다. 일본은 식량과 주요 원자재를 해상 교통로에 의존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해상봉쇄에 취약했으며, 미국의 전략가들은 해상봉쇄와 공습으로 일본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¹³⁰⁾ 미군은 1944년 9월이 되자 제주도 주변 해역에 대한 봉쇄에 나섰다. 1945년 4월에는 미해군 잠수함 타이란트(Tirante)가 한림면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에 정박중이던 탄약지원함 주산마루(4000t급)와 호위함 노미, 제31해방함을 동시에 침몰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1945년 4월부터는 공중폭격으로 바뀌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미군기들의 공습으로 수많은 선박들이 침몰하였고, 제주도에 직접 소이탄을 떨어뜨리거나 기총소사를 하였다.¹³¹⁾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은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관련한 제24군단 군사실(軍史室)의 기록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군은 수륙양용 공격의 목표로서 제주도의 가능성을 고려했고, 1945년 초 만주와 북부 조선, 일본으로부터 부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 주변에는 여러개의 비행장으로 활용하기 충분한 평지가 있었다. 지도를 얼핏 보더라도 섬이 지극히 전략적 위치(extremely strategic location)에 있음을 알게 된다.¹³²⁾

128)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7, 1901", Scott S. Burnett, ed.,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III, The Period of Diminishing Influence, 1896-1905*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2), pp.268-269.

129) *New York Times*, 1905. 1. 7.

130) John R. Skates, *The Invasion of Japan: Alternative to the bomb*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4), p.43.

131) 1945년 5월 7일에는 추자도 부근 바다에서 고휘마루(晷和丸)가 미군기의 공습으로 침몰해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피난가던 제주도민들과 징병자 등 257명이 몰사하였다. 해방을 바로 앞둔 8월 1일 남원면 위미리에서는 밭에서 일을 하던 부녀자 3명이 미군기의 기총소사로 희생되었고, 마을에서 가까운 지귀도에서 자리돔을 잡던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허호준,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pp.39-44.

132) *HUSAFIK* 1, p.531.

1946년 10월에는 국내 신문에서도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문제가 거론되었다. 뉴욕발 AP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국내 신문들은 “조선 제주도는 장차 서부태평양지구에 있어서의 ‘지브롤터’화 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가 금일과 같은 장거리 폭격 시기에 있어서 그 군사적 중요성을 띄우고 있음은 이 기지로부터 동양 각 요지에 이르는 거리를 일별하면 능히 해득할 수 있는 것이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최초 도양(渡洋)폭격을 한 것도 제주도로부터 결행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¹³³⁾ 이와 관련해 미군정청은 “미국이 제주도에 상설 군사기지를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관계가 없는 사건들을 짜맞춰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며 군사기지화 소문을 일축하였다. 미군정청은 이어 “신문 특파원들의 제주도에 대한 예정된 여행을 통해 그러한 기지가 건설중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¹³⁴⁾ 같은 달 방문한 국내 신문 특파원들은 제주도 군정 당국자의 말을 빌어 “제주도를 동양의 지브롤터라고 하고 미국이 요새화한다는 설이 있으나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일본은 전쟁시대 이 도를 중요시하였는지 모르나 우리는 이 도에 대해서 아무런 의도도 없다”고 보도하였다.¹³⁵⁾

제주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논쟁은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미-소가 직접적으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놓고 논쟁이 붙은 것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안이 유엔에서 논의되던 1947년 11월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엔 대표에 따르면, 소련은 남한문제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소련 대표 그로미코(Gromyko)는 “미국의 제안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이며, 조선을 2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분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제주도에 기지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 덜레스(Dulles)는 “소련 대표의 발언은 공동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루한 토론의 전형”이라며 “미국은 군대를 철수할 확고하고 절대적인 의지가 있으며, 남한에 기지나 군사를 주둔시킬 의도가 없다”고 반박하였다.¹³⁶⁾ 미국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133) 『한성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1946. 10. 22.

134) Hq. USMGIK, *Subj: Report of trip to the Province of Cheju during the period 4-6 December 1946*, 9 Dec 1946, Arthur N. Feraru, Assistant Chief, Opinion Sampling Sectio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35) 『독립신보』, 1946. 12. 18.

136) UN1083 Assembly 140. Korea, Australian Delegation, United Nations Assembly to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5th Nov, 1947. Australia National Archives. 미-소의 대표들이 유엔에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놓고 설전을 벌인 자료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1948년 3월 28일에는 이승만이 남한을 방문한 미육군차관 드레이퍼(Draper)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열망할 수 있으며, 열망한다면 향후 한국정부는 그와 같은 기지 건설을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¹³⁷⁾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문제는 해방 이후 각종 소문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 등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19세기 말부터 전략적 요충지로서 열강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며, 해방 이후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미-소의 간접 대결의 장으로서 미국의 냉전정책의 시험대가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 인식은 미국의 제주도에 대한 대응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산주의 저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1949년 6월 대한원조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청문회에서 제주도 사건을 놓고 나오기도 하였다. 1949년 6월 2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이었던 존슨(Edgar A.J. Johnson)은 풀턴(Fulton)의원의 “남한군의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쟁시기(태평양전쟁: 인용자) 일본은 제주도에 6개 사단을 주둔시켰고, 이들 일본군은 섬의 중앙에 있는 산간지역 동굴에 상당 정도의 보급품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잘 보급 받았다. 그 중심으로부터 공산 습격자들은 차례차례 마을을 습격하였다. 이들을 저지하는 것이 한국군 최초의 테스트였다. 나는 1949년 3월 제주도에 있었으며, 작전은 실질적으로 끝났다. 한국군은 점점 더 주변을 타이트하게 조여갔다. 한국군은 이 작전에 개입할 당시 전투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직접적으로 몇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것은 1948년 여름에 있었다. 그리고 작전은 1949년 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말하였다.¹³⁸⁾ 존슨은 “상당수의 오도된 마을주민들이 공산주의 대의명분을 따르도록 하는데 설득된 제주는 전체적인 과정이 달랐다. 일반사면이 공포되었고, 그 결과 반군 지도자들 가운데 소수만이 투옥됐고, 대다수는 정부편으로 넘어왔다”¹³⁹⁾고 말하였다. 존슨의 발언에는 제주도에서의 미군의 직간접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암시적이기만 한 채 한국 내부에서 정부군과 ‘반군’과의 싸움으로

137)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30, 1948, *FRUS* 1948, Vol. VI, p.1163; 1969년 9월에는 국무총리 정일권이 “남한은 예견되는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언제든지, 어느 곳이나’ 남한에 미국의 군사력 이동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뉴욕타임즈』 채핀(Emrson Chapi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오키나와에서 이동할 수 있는 어떠한 부대라도 제주도에 활용 가능한 시설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New York Times*, 1969. 9. 28.

138) U.S. House of Representatives, *United States Policy in the Far East Part 2, Selected Executive Session Hearings of the Committee, 1943-50*, Vol. VIII, pp.170-171.

139) *Ibid.*, p.172.

만 인식토록 하였다.

제24군단 사령관 하지의 경제고문관 번스(Arthur C. Bunce)는 “하지가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주의자는 공산주의자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하지는 G-2(정보참모부)와 CIC(방첩대)를 통해 많은 ‘주관적 편견’을 ‘정보’로 만들어 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⁴⁰⁾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던 주한미군사령관 하지가 좌익의 근거지로 평가한 제주도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연대장 출신 김익렬은 자신의 유고에서 “소련이 4월 유엔에서 2차 대전 후 미-소 양군의 점령지역 내에서 소련 점령지역의 주민들은 평화롭기만 한 반면 미군 점령하에 있는 지역에서는 국민에 대한 미군의 약탈이 심하다. 미군정의 폭정에 대해 주민들이 각지에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제주도의 폭동사건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군정장관 딘 소장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폭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소련 공산주의 선전을 봉쇄하기 위하여 제주도 폭동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지어야 된다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⁴¹⁾ 이 시기 미국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제주도 사태를 단일 기사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나 소련의 동향을 같은 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련과의 연계성을 암시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1948년 5월 3일자 사설을 통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소련은 조선을 흡수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련의 의도는 (한반도) 북쪽에 수립한 괴뢰 정부의 최근 움직임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는 현재 미국 점령 지역까지도 포함해 소련 장악 하의 (남북한) 단일국가를 선포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는 내전으로 가는 길이다. 이미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선거 저지를 위해 살인적인 게릴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의 사설은 제주도 사건을 한국전쟁의 한 기원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뉴스』(*Washington News*)지도 5월 5일자에서 “스탈린은 이제 유엔 감독하의 선거를 사보타주하기 위한 노력에 유격전을 더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테러방법을 비난하였다.¹⁴²⁾ 이러한 보도는 제주도를 미-소의 직접 대결의 장으로서 인식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통계국장 아더 페터슨(Arthur G. Peterson)의

140)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Chief, Division of Japanese & Korean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24 Feb 1947.

141) 김익렬,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서울: 전예원, 1994), pp.307-308.

142) Outgoing Telegram, Department of State, Article of *Washington News*, 5 May 1948.

말을 빌면, 1948년 5월의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내전이 진행되고 있었다.¹⁴³⁾ 주한 미군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강력한 (선거저지)시도를 했으며, 분명히 다른 지방과 북한으로부터 많은 수의 훈련된 선동가와 다량의 무기, 탄약을 들여왔다”며 “이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공산주의 라디오방송에서는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로 취급할 것”이라고 보았다.¹⁴⁴⁾ 제주도 상황의 그리스내전 비교는 제주도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대소봉쇄정책의 연장선에서 제주도 사건에 대처하겠다는 의미였다.¹⁴⁵⁾

제주도에서 실시된 5·10선거가 실패하자 주한미군은 5월 중순경 미 보병 제6사단 제20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하였다. 5·10선거가 실패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했으며, 미군정 시기 미군 대령이 직접 진압군 사령관으로 파견된 것도 유일하였다. 그만큼 제주도 사건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유엔총회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통성 확보에 노력을 경주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브라운 대령의 파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6월 23일 치러질 예정이던 제주도 선거는 무기연기되었다. “반란의 원인은 전혀 모르며 나의 임무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 뿐”¹⁴⁶⁾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제주도에 부임했던 브라운은 1948년 7월 초 제주도를 떠나면서 자신의 직속상관인 미보병 제6사단장 워드(Orlando Ward) 소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제주도가 공산주의자들의 거점으로 조직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다.¹⁴⁷⁾

이러한 당시 남한에 있던 미국무부 관리들과 주한미군의 인식은 제주도를 대소봉쇄정책의 도구로 만드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브라운 대령의 후임자인 웨슬로스키 중위도 “나의 판단은 반란을 진압하고, 선동자를 섬멸하며 민간정부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섬멸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군 장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다.¹⁴⁸⁾

143)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May 1948, p.1.

144) *Subj: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 John Weckerling to CG. USAFIK, 7 June 1948.

145) 필자가 인터뷰를 한 1948년 초토화작전 시기 9연대 고문관이었던 피쉬그룬드는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을 소련계 한인으로 기억한다고 말하였다. Harold S. Fischgrund (1948년 제주도 주둔 9연대 고문관-미국 버지니아주) 인터뷰. 2001년 10월 18일.

146) 『조선중앙일보』, 1948. 6. 8;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3, June 1948, p.160.

147) 로스웰 브라운 대령이 제6사단장 올랜도 워드 소장에게 보내는 서한. 1948년 7월 2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9, p.37.

148) 웨슬로스키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48년 6월경부터 8월 18일까지 제주도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처음 최경록 연대장의 제11연대 부고문관겸 대대 고문관으로 부임하였다가 뒤에 제9연대(연대장 송

4·3무장투쟁 이전부터 제주도의 5·10선거 성공을 위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군정장관 딘 소장¹⁴⁹⁾은 이 시기 브라운 대령의 보고서를 토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과 경비대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하였다.¹⁵⁰⁾ 브라운 대령이 보고서를 통해 제출한 건의 사항은 첫째, 최소한 1년 동안 경비대 1개 연대를 주둔 시킬 것 둘째, 제주도 경찰을 효율적이고 훈련된 경찰로 재조직할 것 셋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미국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 이는 (1) 공산주의 해악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것 (2) 미국식이 제주도의 미래와 건전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희망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줄 것 (3)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에 효과적인 역선전을 할 것 등이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제주도 행정기관을 부패와 비효율성이 없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

미국의 제주도 정책은 공산주의의 ‘해악’을 적극 입증하고, 경제발전이 농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등을 돌리게 한다고 말하는 바와 같이 미국식 프로그램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무초는 1949년 4월 9일 국무부에 보낸 문서를 통해 “제주도가 남한에 혼란을 퍼뜨리고 테러를 가하기 위한 소련의 주요한 노력의 장소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통제를 받은 라디오 방송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선전의 본질로부터 분명해진다. 이것은 본토의 전남과 경남에서 지속적이고도 유사한 작전으로 지속되었다. 대한민국 후방지역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소요와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소비에트 요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제주도에 침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¹⁵¹⁾ 무초는 제주4·3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된 1949년 10월 13일 국무부에 “제주도 작전이 너무나 파괴적일 정도로 성공해 ‘반도’들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섬’에서 어떠한 회복도 할 수 없음을 보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보고하였다.¹⁵²⁾ 국방장관 신성모는 10월 하순 이승만

요찬) 고문관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1950년 본토로 귀국하였다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1960년대에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149) 딘은 1946년 10월 30일 제3대 군정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극동사령부로 발령받은 뒤 전날인 10월 2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딘은 1899년 8월 1일 일리노이주 카알라일에서 출생하였고 1922년 5월 11일 캘리포니아대학 졸업과 동시에 보명 소위로 임관하였다.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7. 10. 30.

150) *Subj: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Rothwell H. Brown, Col. to CG. USAMGIK, 1 July 1948.

151) 특별대사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년 4월 9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1, p.79.

152)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 13, 1949, *FRUS* 1949, Vol. VII, pp.1086-1097.

에게 “한국군은 미군의 한 날개로서 공산주의에 맞서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미국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동양의 작전 및 전초기지인 한국의 전략적, 기술적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얻을 수 있도록 원조를 요청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¹⁵³⁾

미국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소련이 남한 테러의 전초기지로서 제주도를 채택하고, 소비에트 요원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반공 보루를 세우려는 미국의 정책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었다.

위의 논의를 통해 미국의 제주도 정책은 남한정책의 파생적 산물이 아니라 남한정책의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남한정책의 정점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있었으며, 이에 처절하게 반대했던 제주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남한에서의 정책의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였다. 따라서 미국의 제주도 정책은 ‘공산주의 저지’와 ‘소련 봉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2절 미국의 대소봉쇄전략 실행

1. 그리스

1) 정치개입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이뤄진 미국의 개입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친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그리스 정치 지도자들을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달래면서 깊숙하게 개입하였다. 그리스의 정치권은 인민당 세력은 펠로폰네스 반도에서 가장 강하였고 자유당은 북부, 특히 소아시아로부터 이주해 온 피난민들에게 세력이 강하였다.¹⁵⁴⁾ 1946년 가을이 되자 미국은 그리스가 내전의 상태에 떨어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미국은 그리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리스와 미국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살다리스 정부의 정책은 북부지방의 게릴라 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살다리스 정부는 비공산주의 공화파에 대해서도 탄

153) Memorandum for President Syngman Rhee, *Subj: Status of Korean Forces*, Shin Sung M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OK to Syngman Rhee, 22 Oct. 1949.

154) 휴 세튼 왓슨(Hugh Seton Watson) 씀, 안종목 역, ‘希臘의 近情’(『맨체스터 가디언』 지 번역),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17.

압을 가했으나 경제가 더욱 악화되면서 영국과 미국의 요구로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회 내 8개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가 1947년 1월 24일 출범하였고, 인민당원이며 그리스은행 총재였던 막시모스(Dimitrios Maximos)가 총리에 취임하였다. 살다리스는 부총리겸 외무장관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¹⁵⁵⁾ 내각에는 반대파의 대표인 베니젤로스(Sophocles Venizelos),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eou), 카넬로포울로스(Panagiotes Kanellopoulos)와 인민당의 고나타스(Stylianos Gonatas), 알렉산드리스(Apostolos Alexandris), 제르바스(Napoleon Zervas)가 들어갔다. 막시모스 정부는 사실상 이전 정부인 살다리스 정부의 정책을 추종하였으며, 테러와 탄압이 몰아닥쳤다. EAM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은 박해를 받고 섬으로 유배되었다. 경찰은 반대파들을 대량 검거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EAM과 공산당 지지자들을 체포했으며, 극우단체인 X 조직원들이 작성한 검거 인물 명부에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또는 좌파계열의 신문들을 구독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돼 있었다. EAM 중앙위원회는 그리스에서 1주일 사이에 1만5천여명의 민주인사들이 체포돼 유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은 희랍 인민의 고난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문명화 전세계 앞에 항의하며 당신들의 도덕적 지지를 요청한다. 희랍의 현상태는 문명에 대한 치욕이다. 왜그러냐 하면 그리스의 현상태는 인류 역사상 어느 암흑한 시기보다 일층 야만적이고 야수적이기 때문이다”(원문 그대로: 인용자)는 전문을 소련과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 유엔 안보이사회, 국제직업연맹에 보냈다.¹⁵⁶⁾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에 앞서 미국은 철저하게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SWNCC 대외정책 홍보소위원회는 1947년 2월 28일 회의에서 “미국이 소극적 정치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근동국 부국장 제르니간(John D. Jernegan)은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미국 관리들은 “그리스 지도자들에게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치 조직을 개선시키고, 장래에 더 많은 수단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행정가들은 “미국이 빌려준 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리스 국가의 모든 자원을 사실상 효과적으로 통제할” 계획이었다.¹⁵⁷⁾

155) 조세프 S. 류섹(Joseph S. Roueck), ‘希臘의 政治情勢’(Government and Politics Abroad 1947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87.

156) 북조선노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강연자료 제13집, 『戰後의 希臘』 (평양: 북조선노동당 중앙본부, 1948), pp.27-28, 32-33. 이 글은 『세계정치와 경제』 제8호에서 번역한 것이다.

157)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98.

민주주의의 수호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 계획은 기묘한 것이었다. 미국이 보기에 그리스나 터키 정권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존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민주적이고 부패하고 반동적인 그리스 정부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놓고 반대 주장이 국무부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 정부는 부패하고, 반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극단적인 방법에 만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터키도 진전은 있지만 아직 완전한 민주 자치정부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트루먼 독트린의 적용 논리는 지극히 공격받기 쉬웠다”고 밝혔다.¹⁵⁸⁾

그리스에 대한 미국의 통제 필요성은 미국 관리들 사이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리스 주재 미국대사 맥비는 3월 4일 워싱턴에 자신과 에스리지, 포터가 미국의 원조가 특정 경제정책과 관련한 “그리스 정부의 수용과 이행이 확실한 필요조건이 돼야 한다면 합의하였다”며 “미국의 목적이 ‘그리스내전’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민주주의 원칙하에 건전한 경제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는 기본적으로 반동정부의 권력을 유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가 취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¹⁵⁹⁾

포터는 애치슨에게 개인적으로 4월 22일 “그리스 문제에 대한 미국의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한 그리스 모험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¹⁶⁰⁾ 맥비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그리스 공공정책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명령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주요 직책에서 통제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적응력을 감독하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그리스에 파견해야 한다.……우리는 건전한 정책이 채택돼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치슨은 여기서 더 나아가 4월 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그리스의 정부의 핵심적인 주요 부처에 미국인들을 배치하고, 이들이 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리스에 대해 “이것을 해서는 안돼!”라고 말할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발언하였다.¹⁶¹⁾ 미국 여론을 계속해서 조성해온 국무부 관리들은 살다리스에게 “현 시점에서 보이면 국무부를 당혹스럽게 할 것”¹⁶²⁾이기 때문에 교외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그리스 정부가 표명하는 그들 자신에 대한 감사서한을

158) Joseph Jones, *The Fifteen Weeks*, pp.185-86.

159)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gh)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4, 1947, *FRUS* 1947, Vol. V, pp.89-90.

160)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99.

161)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Legislative Origins of the Truman Doctrine* (Washington: U.S.G.P.O, 1973), p.82.

162)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100.

작성토록 하였다. 미국은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원조 요청을 빌어 트루먼 독트린을 작성했고, 1947년 5월 22일 의회의 승인이 나자 그리스 원조를 위한 협정문을 작성하였다. 모두 12개항으로 된 협정문 가운데 핵심 항목은 제4항으로, 그리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사절단장은, 그리스 정부의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 협정 하에서 때때로 제공할 특정 원조의 조건과 상황을 결정할 것이다. 단장의 지시 아래, 사절단은 그러한 자문 원조를 제공하고, 그리스 정부가 미국이 그리스에 제공하는 모든 원조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 자체의 자원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¹⁶³⁾

이 협정문은 사절단장이 그리스 원조와 관련해 그리스 정부 대표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입의 길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리스내의 국내 재건 수단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은 그리스 정부에 있지만 미국은 원조자금의 사용과 원조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¹⁶⁴⁾

이 와중에 국왕 게오르기 2세가 56세를 일기로 1947년 4월 1일 심장마비로 서거하였다.¹⁶⁵⁾ 서거 이후 곧바로 그의 동생 파울이 국왕으로 즉위하였다.¹⁶⁶⁾

1947년 6월 8일 그리스 총리 막시모스와 그리스 주재 미국대사 맥비는 아테네에서 그리스에 원조를 제공하는 협정문에 서명하고,¹⁶⁷⁾ 6월 15일에는 그리스 외무장관 살다리스는 “미국의 원조 확대를 관리하고, 그리스 정부의 사용을 감독하고, 그리스 정부에 자문할” 그리스 사절단을 창설하는 내용의 위의 협정문이 들어간 문서에 서명하였다. 6월 20일에는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 맥비와 그리스 부총리겸 외무장관 살다리스가 협정문에 서명하였다.¹⁶⁸⁾

163)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Greece, May 31, 1947, *FRUS* 1947, Vol. V, p.186.

164) Memorandum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President Truman, May 23, 1947, *FRUS* 1947, Vol. V, p.175.

165) 1935년 국민투표로 복위한 그는 다시 1946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복위했는데, 그의 통치로 인해 북부 지방에서 게릴라부대에 의한 주요 도로의 봉쇄를 초래했으며 공개적으로 왕정제를 반대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테러 위협을 가하였다. 조세프 S. 루섹(Joseph S. Roueck), ‘希臘의 政治情勢’(Government and Politics Abroad 1947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87.

166)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7. 4. 3; 1947. 4. 4.

167) *FRUS* 1947, Vol. V, p.214.

168) Yiannis P. Roubatis, *Tangled Webs: The U.S. in Greece 1947-1967* (New York: Pella, 1987), p.33; Editorial Note, *FRUS* 1947, Vol. V, p.204.

백악관 참모들은 그리스에 파견할 주그리스 미국 원조사절단(AMAG) 단장을 물색하기 위해 포레스탈, 패터슨, 마샬, 애치슨, 해리만, 스나이더, 앤더슨의 견해를 구한 끝에 6월 10일 네브라스카 주지사 출신의 그리스월드(Dwight P. Griswold)가 사절단장에 임명되었다. 트루먼은 1947년 7월 3일 그리스월드와의 면담에서 그리스로 떠나기에 앞서 국무장관 마샬 등과의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는 AMAG의 정치적, 전략적 측면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¹⁶⁹⁾ 이에 따라 1947년 7월 9일 그리스월드의 요청에 따라 그리스월드와 국무장관, 전쟁장관, 해군장관, 재무장관, 재무차관 폴리(Ed. H. Foley), 상공장관 대리 포스터(William C. Foster), 주그리스미국사절단 부단장 코크란(Robert L. Cochran) 주지사, 국무부 차관 로베트(Robert A. Lovett), 국무부 근동·아프리카 담당 국장 헨더슨(Loy W. Henderson), 국무부 근동·아프리카 담당 부국장 빌라드(Henry S. Villard), 국무부 특별정치담당 국장 러스크(Dean Rusk), 국무부 그리스-터키 원조 조정관 맥기(George C. McGhee) 등 13명이 참가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그리스월드와 AMAG의 그리스 내정 개입, 유엔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이 논의되었다. 그리스월드는 자신의 즉각적인 임무가 그리스 정부를 변화시키거나 재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헨더슨은 전적으로 그리스월드의 발언에 동의하고, “사절단이 특정관리들의 방해나 협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리들은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다른 관리들이나 그리스인들의 적개심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장관은 그리스에서의 모든 활동이 정밀 조사를 받게 되고 어떤 경우든지 여러 경로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헨더슨의 발언에 동의하였다. 러스크도 “우리가 그리스에서의 우리 활동에 대한 유엔의 감시를 허용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록은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였다.¹⁷⁰⁾

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고문단은 그리스내전에 적극 개입하되 제국주의적 개입이라는 비난과 그리스인들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피해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틀 뒤 마샬은 그리스월드에게 그리스에 대한 정보와 일종의 지침서가 담긴 문서를 보냈다. 그는 이 문서에서 “우리는 그리스 정부의 구성원들이 확고하게

169) Memorandum by the Coordinator for Aid to Greece and Trukey (McGhee) to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Lovett), July 7, 1947, *FRUS* 1947, Vol. V, p.212.

170) Memorandum of the conversation, by the Deputy Director of the Office of Near Eastern and African Affairs (Villard), July 9, 1947, *FRUS* 1947, Vol. V, pp.215-216.

그리스에 대한 충성심으로 통일되고, 공산주의 통제로 떨어지거나 소련의 지배로부터 국가를 지키는데 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를 열망한다”며 “이상적으로, 정부 구성원들은 좌파, 중도, 우파에서 나와야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양보해 버리거나 거래하려고 하는 등 너무 좌파로 치우쳐서는 안되며, 반대로 비공산주의자들과의 협력을 거절할 너무 우파로 치우쳐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월드와 맥비가 미국사절단의 효용성이 ‘그리스 정부의 재편’을 통해 강화된다면, ‘신중한 제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재편을 가져오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이러한 ‘신중한 제안’이 “그리스에서의 우리의 활동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보고, 기회가 주어지면 미국이 그리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유엔에서 비난을 주저하지 않을 유엔의 구성원들과 관련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¹⁷¹⁾

그리스월드는 AMAG와 함께 1947년 7월 15일 아테네에 도착하였다. 9월 말이 되자 206명의 미국인 요원들이 배치됐으며, 1년 뒤에는 1216명으로 늘어났다. 거의 절반은 미국인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군인들이었다.¹⁷²⁾ 독일군 점령 당시 그리스 게릴라를 지원하기 위한 연합국 군사사절단장이었던 우드하우스에 따르면 “그들은(미국인들: 인용자) 민족적 특성에 관계없이 미국식 방법을 주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¹⁷³⁾

미국의 그리스 내정 개입은 미국의 군사장비가 도착한 직후인 1947년 늦여름부터 영향을 끼쳤다. AMAG는 좌파신문인 『리조스파스티스』의 폐간을 요구했고, 파업권을 폐지했으며, 모든 정부 관리들 가운데 공산주의 동조자이거나 공산주의자로 간주된 사람들에 대한 숙청을 요구하였다.¹⁷⁴⁾

미국의 그리스 정치개입은 직접적으로 정권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순수 중도 정부에 반대한 미국 관리들은 압도적인 인민당 내각도 대중 여론을 불러모으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겼다. 맥비는 1947년 7월 28일 중도-우익 연립이 “인민당 단독의 일방 통치보다 대체적으로 여론을 만족시키기에는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전문을 보냈다. 그는 연립정부가 보안을 회복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⁷⁵⁾ 그리스월드도 8월 5일 “모든 공정한 미국 관찰자들은 여

171) The Secretary of State to Governor Dwight P. Griswold, at Washington, July 11, 1947, *FRUS* 1947, Vol. V, pp.219-224.

172)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104;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186.

173)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 235.

174) Richard J. Barnet, *Intervention & Revolution*, p.148.

175)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8, 1947, *FRUS* 1947,

기서 정부의 정치적 성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어떠한 그리스 정부도 공산주의자들을 허용해서는 안되지만……변화가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국은 개입이라는 비난을 회피한다는 생각을 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대한 그러한 비난은 어떤 경우에도 이뤄질 것이다. 단지 문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의 여부”라고 밝혔다.¹⁷⁶⁾ 그리스월드리는 국무부에 그리스 정치권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면서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비난을 살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⁷⁷⁾ 8월 20일 맥비는 국무부에 “전술적이며, 신중하게 조종된다면 개입에 대한 비난의 두려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미국의 원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우리가 정부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의 권위를 활용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였다.¹⁷⁸⁾

그러나 그리스 외무장관 살다리스는 자신의 지도 아래 순수한 인민당 내각의 수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그는 7월 22일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연립정부를 통한 그리스 현상황에 대한 대처는 논의를 해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너무 많아 결정하거나 조치를 취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의회 다수당 지도자로서 200명 이상의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연립정부를 해소해서는 안되며 다수당에 기초한 1당 내각의 재수립을 해서는 안되는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¹⁷⁹⁾ 8월 7일 워싱턴에서 국무장관 마샬과의 면담에서도 그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확대는 연립정부 자체가 강력한 정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취약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그리스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강력한 정부이며, 의회의 350석 가운데 210석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자로서 필요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마샬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¹⁸⁰⁾ 한편, 그리스 내각의 자유당 소속 파판드레우, 카넬로포울로스, 베니젤로스는 8월 23일 총리 막시모스에게 내각 개편과 제르바스의 해임을

Vol V, p.264.

176) Governor Dwight P. Griswold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5, 1947, *FRUS* 1947, Vol V, p.280.

177) Governor Dwight P. Griswold to the Coordinator for Aid to Greece and Turkey (McGhee), undated, *FRUS* 1947, Vol V, pp.295-296.

178)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20, 1947, *FRUS* 1947, Vol V, p.303.

179)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ssistance Chief of the Division of Near Eastern Affairs (Jernegan), July 22, 1947, *FRUS* 1947, Vol V, pp.253-254.

180)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7, 1947, *FRUS* 1947, Vol V, pp.284-286.

요구했으나 살다리스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곧바로 사임하였다. 막시모스도 이날 국왕을 만나 사임함에 따라 막시모스 정부는 붕괴됐고,¹⁸¹⁾ 인민당의 살다리스와 자유당의 소포울리스(Themistocles Sophoulis)가 이의 계승을 놓고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다. 8월 25일 맥비는 양당 대표를 자신의 관저로 불렀지만 그들에게 ‘공동 정부’를 수립하라는 확신을 할 수 없었다.¹⁸²⁾ 같은 날 그리스월드 는 인민당의 스테파노포울로스에게 미국 대중 여론의 나쁜 인식과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인민당 정부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건넸다. 다음날 저녁 살다리스는 맥비를 찾아가 “이것은 당신들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을 의미하느냐”고 따졌고, 맥비는 그를 진정시킨 뒤 ‘허용할 수 없는 것’(inadmissible)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inadvisable)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¹⁸³⁾ 맥비로부터 이러한 양보를 얻어낸 살다리스는 순수한 인민당 내각 구성을 추진하였다.

그리스 내정 개입에 대한 접근방식을 놓고 그리스월드와 맥비 간에 입장 차이를 노출하는 가운데 국무부 근동·아프리카 국장인 헨더슨이 그리스의 정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9월 1일 직접 아테네로 갔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맥비와 함께 그리스 정치 지도자들과의 일련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살다리스와의 면담에서 “그리스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효율적인 정부 수립에 실패한다면, 의회와 미국민은 그리스에 대한 에너지와 자원의 추가 원조 확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살다리스는 “정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러한 주장에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9월 3일 국왕을 만나 “그리스에서의 계속된 일당(인민당)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원조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며 위기 타개를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회담을 요청하였다. 국왕은 그러한 제안에 동의했고, 국왕의 요구에 따라 맥비는 그에게 중도-우익 연립정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주었다.¹⁸⁴⁾

1947년 9월 7일, 자유당-인민당 연립정부가 출범해 소포울리스가 총리에, 살다리스는 부총리겸 외무장관을 맡았다. 3일 뒤 마샬은 “그리스의 역사적 양대 정당

181)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23, 1947, *FRUS* 1947, Vol V, pp.309-310; 아테네발 AP 보도,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7. 8. 25.

182)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25, 1947, *FRUS* 1947, Vol V, pp.311-313.

183)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27, 1947, *FRUS* 1947, Vol V, pp.318-319.

184)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2, 1947, *FRUS* 1947, Vol V, pp.323-325.

간의 연립에 기초한 정부를 가져온 그리스 정치 지도자들의 최근 협의에 감사드린다”며 “민족통합정부는 그리스 국가의 복지를 위해 당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 활동하기로 한 열망을 보여준다”고 환영하였다.¹⁸⁵⁾ 그러나 장관들은 철저히 소속 정당의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앉혔다. 한 예로 내무부와 공안부간의 분권을 보면, 인민당의 극우파 마브로미칼리스가 장악한 내무부는 주지사를 임명하고, 자유당의 랜디스가 장악한 공안부는 아테네시의 경찰과 시 외곽의 헌병대를 장악하는 식이었다.¹⁸⁶⁾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킨 인민당-자유당 연립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 9월 29일 그리스월드는 소포울리스에게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연립정부가 붕괴하면 이는 그리스의 파국이며, 또한 미사절단의 파국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 관리들은 사임하겠다는 소포울리스의 위협을 저지했고, 자유당 장관들을 물러나게 하려는 살다리스의 시도를 막았다.¹⁸⁷⁾ 소포울리스는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치적 장식품’, ‘포위된 자유당원’, 즉 우익정권을 위한 명목상의 대표로 전략하였다.¹⁸⁸⁾

그러나 맥비가 인민당 지도부를 선호한 데 반해 그리스월드는 자유당 지도부를 선호하면서 이들의 불화는 커져갔다. 1947년 10월 ‘그리스내 최고 권력자’라는 제목으로 AMAG 단장 그리스월드에 대한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자 국무장관 대리 로베트는 “기사에 나타나고 있는 인상을 개선하고 유사한 오해의 재발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⁸⁹⁾ 이에 대해 그리스월드는 “AMAG나 미국 정부로서는 AMAG가 큰 힘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그리스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세계여론에 보여주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국무부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전문들은 AMAG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에 개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대응하였다.¹⁹⁰⁾ 그리스월드

185)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9, 1947, *FRUS* 1947, Vol V, pp.332-333;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Greece, September 10, 1947, *FRUS* 1947, Vol V, p.334.

186) 휴 세튼 왓슨(Hugh Seton Watson) 씀, 안종목 역, ‘希臘의 近情’(『맨체스터 가디언』 지 번역),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17.

187) Governor Dwight P. Griswold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30, 1947, *FRUS* 1947, Vol V, pp.355-356.

188)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189.

189)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Mission for Aid to Greece, October 17, 1947, *FRUS* 1947, Vol. V, pp.370-371.

190) Governor Dwight P. Griswold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24, 1947, *FRUS* 1947, Vol. V, pp.378-379.

의 전문에 분노한 마샬은 11월 4일 “국무부가 사실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리스 내정의 특정 부문에 개입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이 가능한 한 신중하게 행사되고, 모든 수단에 대한 신용과 책임이 그리스 정부와 그리스인들에게 있다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¹⁾

그리스 내정 개입에 대한 AMAG와 그리스 주재 미국대사관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부는 영향력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1947년 10월 23일 그리스월드에게 그리스 정부와의 협의에 있어서 ‘고차원적 정책 결정’은 대사에게 주도록 하는 새로운 훈령을 보냈다.¹⁹²⁾

그러나 그리스월드는 완강히 반대하면서 사임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국무부는 방침을 바꿔, 그리스월드에게 책임 소재를 가린 초기 지침을 수용할 것임을 확신시켜줬다. 반면, 맥비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리스본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옮겼다. 1948년 5월 그리스-터키 원조 프로그램 조정관인 맥기는 국무차관 로베트에게 AMAG가 “정부 관련 행정기구와 군사작전은 물론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과 관련해 고문 기능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미국 원조의 이용과 관련한 사절단의 결정은 사실상 그리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⁹³⁾ AMAG의 한 단원은 “사절단은 상당할 정도로 그리스의 초정부(super-government)가 되었다. 미국인들은 그리스의 모든 정부 관련 업무에 개입하였다”고 회상하였다. 소포울리스가 취임한 직후 AMAG 관리들은 그에게 AMAG 프로그램이 그리스 정부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는 대국민 연설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소포울리스가 동의하자 그리스월드는 “사절단은……총리가 행할 광범위한 라디오 연설문을 작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⁹⁴⁾ 한편, 맥비에 이어 그리스월드는 사임했고, 1948년 7월 인디아 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사업가 그래디(Henry F. Grady)로 교체되었다.

그리스의 군사적, 경제적 실패는 소포울리스의 연립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1947년 9월 미국의 요구로 연립정부를 구성한 뒤 1949년 6월 24일 소포울리스가 88세의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그리스 정부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1944년 12월 사건부터 1949년 6월 자유당 지도자인 전 그리스은행 총재 디오메데스(Alexander

191)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Mission for Aid to Greece, November 4, 1947, *FRUS* 1947, Vol. V, p.398.

192) Statement of Department's Position on Organization of American Activities in Greece, October 23, 1947, *FRUS* 1947, Vol. V, pp.393-395.

193) Memorandum by the Coordinator for Aid to Greece and Turkey (McGhee) to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Lovett), May 19, 1948, *FRUS* 1948, Vol. IV, p.88.

194)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117.

Diomedes) 내각 수립 때까지 17개나 되는 정부가 등장하였다가 사라질 정도로 그리스의 정치권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이들 모든 내각은 인민당과 자유당에 의해 구성되었고, 파판드레우), 베니젤로스, 카넬로포울로스, 마르케지네스(Spyros Markezines)의 소수정당이 간헐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우익은 국가 기구를 강력하게 장악하였다. 1949년 우익들은 행정부와 군대의 최고위직들을 독점하였다. 북부 지방의 안톤 사우스 테러 조직, 남부의 X 집단, 그리고 기타 조직들은 여전히 지방에서 자유롭게 활보했고, 그리스 정부군과 함께 미국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무장하였다.¹⁹⁵⁾

2) 군사개입

그리스에서 고문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그리스 미국 군사고문단’(USAGG)은 1947년 5월 24일 아테네에 도착하고, 이후 각종 군수장비가 그리스에 반입되었다.¹⁹⁶⁾ USAGG는 지휘계통상 AMAG에 소속되었다. USAGG의 주요 활동은 그리스 정부군에 필요한 장비구매와 이의 운용 및 유지방법을 자문하는 것이었다. 한편 영국은 아테네에 군사대표단을 유지하고 북부 살로니카 항구에 경비대대를 존속시켰다.¹⁹⁷⁾ 같은 해 그리스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잉여재산차관으로 AT-6 훈련기 35척, 상륙정 19척, 소해정 19척, 항공기 엔진 14개, 정찰정 1척, 상륙정 잔교 1개를 구입하였다.¹⁹⁸⁾

AMAG에 대한 미군사고문단 월간 역사보고서는 8월 2일 군수물자, 차량, 식량 등을 실은 USAGG의 첫 선박이 피래우스에 도착해 보급을 시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선박을 시작으로 8월에만 10척의 선박이 보급품과 군수장비를 수송하였다.¹⁹⁹⁾ 그해 말까지 4천만달러 상당의 적재량 17만4천톤의 보급품이 미국의 원조 계획에 따라 그리스로 선적되었다. 맥기는 CBS 라디오에서 “그리스 군대는 우리의 탄약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우리 보급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였다.²⁰⁰⁾ 그리스 정부군은 총기와 화약, 항공기는 물론 식량, 지휘의 모든 부분을

195) L.S. Stavrian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52), pp.196-198.

196)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p.224, 387; Howard Jones, *A New Kind of War*, p.94.

197) Paul F. Braim, *The Will to Win: The Life of General James A. Van Fleet*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1)/육군교육사령부 자료지원처 번역실 옮김, 『승리의 신념: 밴 플리트 장군 일대기』 (서울: 봉명, 2002), p.223.

198) Memorandum by Mr. William O. Baxter of the Division of Near Eastern Affairs to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Acheson), April 2 1947, *FRUS* 1947, Vol. V, p.135.

199) Editorial note, *FRUS* 1947, Vol. V, p.321.

200) U.S. Army Historical Division, "Brief History USAGG, Procurement, 24 May 47-31 Aug 49",

미국의 원조로 충당하고 있었다.²⁰¹⁾

AMAG의 그리스 활동은 그리스 정부군의 무장만이 아니라 이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의미하였다.²⁰²⁾ 육군부는 광범위한 고문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승인했지만 법안에 의해 USAGG의 권한을 보급활동으로만 제한하였다. 트루먼 행정부는 직접적인 미군의 개입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리스 참모부, 그리스 군과 헌병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건의는 USAGG가 맡았다. 미군사고문관들의 실전 참여를 제한한 것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미군사고문관들이 전투나 작전중인 지휘부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USAGG 단장 리브세이(William Livesay) 장군은 20명의 미군 장교들이 야전에 나갈 때 그들에게 “부대에 들어가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전투원의 견지에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라. 무기를 갖고 다니지 말라. 작전의 한 가운데 있다면, 귀관들의 행동은 귀관들에게 다소간, 전적으로 달려있다.……귀관들은 무기를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은폐하고, 귀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되 전투에 개입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²⁰³⁾

미국의 개입에 따른 초기 효과는 극우테러단체인 X를 강화시킨 것이었다. 그리스 정부군이 펠로폰네스에서 게릴라 부대와 싸우는 동안 일부 군 지휘관들은 미군의 장비를 X의 조직들에 넘겼고 그들에게 누가 공산주의자인지를 결정할 심판권과 처리권을 주었다.²⁰⁴⁾ 그 이후 상황이 바뀔에 따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점차 원조계획을 통해 그리스 정부가 우세한 입장에 놓일 때까지 미군의 군사적 수행을 확대하였다.

그리스 정부군의 주요 조직인 그리스장교 신성동맹(IDEA)의 창설자 가운데 한 명인 카라야이안니스(Karayiannis) 장군에 따르면, IDEA는 정부 수립에 있어 ‘밀실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 IDEA 회원들은(그리스 정부군의 현역 장교들)은 미국대사관의 무관보 언더폰트(Underpont) 소령과 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²⁰⁵⁾ 이와

pp.9-15, Army General Staff Records; U.S. Department of State, Second Report to Congress on Assistance to Greece and Turkey, p.9; McGhee, "Report on Greece," address broadcast on October 15, 1947, Box 1, Jones papers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231에서 재인용).

201) 켈턴 레이놀드 씀, 전성철 역, ‘內亂에서 吶吟하는 希臘人民들’(『콜리어-스』(Collier's)지 1948년 9월 21호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05.

202)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p.141.

203) Howard Jones, *A New Kind of War*, pp.127-128.

204) Richard J. Barnet, *Intervention & Revolution*, p.149.

동시에 미국은 지방의 평정을 확고히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무장 민병대²⁰⁶⁾의 창설도 지원하였다. 1947년이 되자 그와 같은 조직들은 많이 나타났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1947년 가을이 되자 그리스 정부는 국민방위군(NDC)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 방위대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그리스 정부가 특별 민병대의 해산을 전제로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병대나 준군사단체들은 지방민들을 테러하거나 즉결처형하는 등 가혹하게 처리하였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테러나 대규모 체포, 주민 소개 등의 사용을 항의했으나 내전이 오래 계속되자 많은 미국인들은 공산주의 파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가혹 수단을 정당화하였다.²⁰⁷⁾ 국무장관 마샬은 1947년 7월 11일 그리스월드에게 “파괴운동과 싸우는 노력에 있어 그리스 정부가 특정 분자들의 편에서 강력한 수단을 채택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인물들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물론 과잉은 안되겠지만 강경하고 단호한 수단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게릴라들과 그 지지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는데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²⁰⁸⁾

미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리스월드는 1947년 9월 15일 국무부에 그리스의 군사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게릴라들이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었고, 이들은 독일군과의 저항 운동의 경험을 통해 뛰어난 전술을 사용하였다. 그리스월드는 이 보고서에서 “전면적인 게릴라전 상황에 대한 검토 결과는 AMAG가 그리스에 도착한 이후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 관리들은 무엇인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리스 정부군이 방어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발견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게릴라 상황을 청산하고, 미국의 이익에 점증하는 위협성을 지닌 불안을 방지하는 것이 AMAG의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며 “영국이 작전 자문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지가 없으면 미국 정부가 125-200명의 장교들을 그리스 정부군 참모부와 전술부대를 자문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파견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²⁰⁹⁾

205) Yiannis P. Roubatis, *Tangled Webs*, p.62.

206) 렌슈(Hellmuth Rentsch)는 민병대를 주민들로 편성한 자체방위체제로, 국가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잠정적인 비상수단으로 향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Hellmuth Rentsch, *Partisanenkampf: Erfahrungen und Lehren* (Frankfurt: Bernard & Graefe Verlag für Wehrwesen, 1961)/민병둔 역, 『공산유격전과 대유격전』 (서울: 육군대학, 1968), p.135.

207) Yiannis P. Roubatis, *Tangled Webs*, pp.49-51.

208) The Secretary of State to Governor Dwight P. Griswold, at Washington, July 11, 1947, *FRUS* 1947, Vol. V, p.221.

209) Governor Dwight P. Griswold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 15, 1947, *FRUS* 1947, Vol. V, p.339.

그리스월드의 건의는 곧바로 국무부의 관심을 끌었고, 챔벌린(S.J. Chamberlin) 소장이 그리스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육군의 특사로 임명되었다. 1947년 9월 29일 챔벌린은 그리스에 도착해 그리스의 군사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 뒤 10월 14일 귀국하였다.²¹⁰⁾ 그리스월드는 10월 9일에도 국무부에 “미군의 작전 자문은 공격을 촉진하고 게릴라들의 활동을 신속하게 중지시키는데 핵심”이라는 전문을 보내는 등²¹¹⁾ 계속해서 미군사관들의 작전자문을 본국에 요청하였다. 사실,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 당시 군사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던 것과는 달리 수개월이 지나자 그리스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 움직임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었다. 챔벌린은 10월 8일에는 아테네에서, 그리고 귀국한 뒤인 10월 20일에는 육군참모총장 아이젠하워에게 “현 상황 하에서 그리스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은 군사적 위협이며, 이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그리스에 합동군사기획참모(Joint Military Planning Staff)를 창설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합동군사기획참모는 명목상 그리스 주재 미국대사에 소속되지만 직접 워싱턴의 합참에 보고하는 체제였다. 이와 함께 그는 지휘구조상의 최고위직부터 사단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정부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 관찰자’ 그룹의 설립도 건의하였다. 그는 또 그리스에 파견되는 군 장교들이 USAGG 소속으로 AMAG의 통제 하에 속할 것이라는 그리스월드의 제안과 관련해 “USAGG는 정부의 집행부처 외곽에서 활동하는 독립기관인 AMAG에 속하기 때문에 작전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 기획 및 작전에 관해 그리스 정부군에 대한 자문은 대사의 현지 통제 하의 미군 지도부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군사기관이 필요하며,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내 미국 정부의 수석 대표에게 귀속되지만 모든 문제는 합참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²¹²⁾

마셜은 1947년 9월 8일 런던 주재 미대사관에 “상황이 급박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전문을 보냈고 1947년 말에는 게릴라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미 중앙정보국이 그리스에서 패배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입게 될 깊은 심리적 충격과 함께 미국은 중동의 석유자원(세계 비축량의 40%)의 손실 가능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성 보고를 하였다.²¹³⁾ AMAG가 그리스

210) Yiannis P. Roubatis, *Tangled Webs*, p.58.

211) Governor Dwight P. Griswold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9, 1947, *FRUS* 1947, Vol. V, p.361.

212) Memorandum by the Acting Chief of the Division of Greek, Turkish and Iranian Affairs (Jernegen)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ear Eastern and African Affairs (Henderson), October 27, 1947, *FRUS* 1947, Vol. V pp.383-384.

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그리스 정부군에 군사 보급품과 장비를 전달하고 있었지만, 1947년 게릴라들에 대한 하계 및 추계 공세가 실패하자 원조 프로그램의 일부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 ‘작전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스에 미 군사고문관들을 파견해 게릴라들에 대한 그리스 정부군의 효용성을 증강시키려고 하였다.²¹⁴⁾

첼벌린 장군이 건의하고 육군참모총장 아이젠하워가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 군대에 현재의 보급품 및 장비제공, 이의 사용에 대한 훈련과 함께 그리스 군대에 대한 작전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국가안보회의는 10월 27일 그와 같은 고문 및 기획단의 설립에 동의하였다.²¹⁵⁾ 그러나 국가안보회의는 ‘주그리스 미 합동군사고문 및 기획단’(Joint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and Planning Group·약칭 JUSMAPG)이 AMAG에 소속될 것이며 고문 및 기획단은 군사 작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참과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²¹⁶⁾ 1947년 12월 31일 JUSMAPG가 창설되었다.²¹⁷⁾ JUSMAPG는 초기에 장교 99명과 병사 80명으로 결성되었고, 고문과는 그리스 육군, 각 사단 사령부, 그리스 왕실공군 및 해군에 배치되었다.²¹⁸⁾

1947-1948년의 겨울은 그리스 게릴라들의 공세가 강화된 반면 정부군의 대응이 빈약하거나 실패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고, 이에 따라 미군의 적극 개입에 대한 당위성이 미국 내에서 나타났다. 국무부의 헨더슨은 1948년 1월 “소련이나 그 위성국에 의한 그리스의 정복을 막기 위한 우리의 결의가 강하지 못하면 그리스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전 동부 지중해와 중동을 잃게 되거나 그리스의 이웃이 우리의 결의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너무 멀리 나갈 것이다. 이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스에 군대를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이 전투부대 파견까지도 이 시점에서는 고려하였던 것이다. 헨더슨에 따르면 “그리스는 새로운 영토와 새로운 기지를 얻기 위한 국제공산주의의 결의와 같은 공격을 저지하려는 서강의 결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스는 전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시험관(test tube)”이었다.²¹⁹⁾

213)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232.

214) Yiannis P. Roubatis, *Tangled Webs*, p.55.

215) Memorandum by Admiral Sidney W. Souers,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ctober 30, 1947, *FRUS* 1947, Vol. V, pp.391-392.

216) Yiannis P. Roubatis, *Tangled Webs*, p.60.

217) Editorial Note, *FRUS* 1947, Vol. V, p.480.

218)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224.

미육군 참모차장 아놀드(A. V. Arnold) 소장도 그리스 북부지방인 트라키아에 미군 2개 사단을 보내면 내전 종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놀드와 국무부의 로베트는 케난과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케난과 로베트는 불가리아와 관련해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그리스 북부 국경선을 봉쇄하기 위해 유엔의 일원으로서 미군부대를 파견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지만,²²⁰⁾ 미군 전투부대의 파견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1947년 8월 유엔 미국 대표 델레스는 북부 국경선 폐쇄를 목적으로 한 미군 전투부대의 배치에 반대하였다.²²¹⁾ 그리스월드도 1947년 10월 미군 전투부대의 사용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는 “공산주의 패배는 독일, 프랑스, 기타 지역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군사 작전 문제만이 아니다. 그리스에서는 군사적 전선과 경제적 전선이 둘다 똑같이 중요하다. 어느 한 전선의 실패는 공산주의를 가져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전쟁이 국내 문제로 지속되는 한 심지어 그리스 도적(게릴라: 인용자)들에 대한 미군 장교 1명이나 사병 1명을 사용하는 것조차 반대한다”면서 “현재 상황 아래서 병참 관련 작전 자문 제공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²²²⁾ 1947년 12월 11일 로베트는 영국 주재 미국대사관에 “(국무부는) 미국과 영국 군사사절단간에 가능한 한 최대로 밀접한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이러한 협력은 공식적으로 첫째, 미국의 우월적인 역할 둘째, 미-영 군사사절단장이 때때로 개별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때는 영국과는 독립적으로 그리스 정부에 자문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궁극적 자유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²²³⁾

1948년 1월 초 미육군참모총장 아이젠하워는 마샬에게 JUSMAPG 단장에 적절

219) 헨더슨은 전투부대의 파견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 미국이 그리스의 독립 유지를 위한 약속 이행에 대한 정책 부재 상태에서의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기관과 대표들이 직면한 어려움 둘째,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들이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이 그리스를 장악하려는 욕심보다 그리스를 구하겠다고는 결의가 부족하다는 의심으로 인한 그리스인들의 사기 저하 셋째, 그리스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이 소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여러 국가들의 정서였다.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ear Eastern and African Affairs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9, 1948, *FRUS* 1948, Vol. IV, pp.9-12.

220)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cting Chief of the Division of Greek, Turkish and Iranian Affairs (Jernegan), December 26, 1947, *FRUS* 1947, Vol. V, p.466.

221)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p.236.

222) Governor Dwight P. Griswold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9, 1947, *FRUS* 1947, Vol. V, pp.361-363; 1948년 5월 이러한 견해들을 반영한 NSC 5/3은 “미국은 현재 상징적 무력(token forces)이나 군사 작전용으로 그리스에 군대를 보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NSC 5/3: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Use of US Military Power in Greece*,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uncil (Souers), May 25, 1948, *FRUS* 1948, Vol. IV, p.95.

223)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the United Kingdom, December 11, 1947, *FRUS* 1947, Vol. V, p.452.

한 후보 5명을 추천하고 마샬은 이 가운데 벤 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을 선택하였다.²²⁴⁾ 트루먼의 재가를 받은 마샬은 1월 26일 그리스월드에게 벤 플리트의 임명 소식을 통보하였다. 그는 “그리스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미국이 군 책임자에 보다 인상적인 인물을 필요로 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그를 중장 후보로 지명해 가능한 한 빨리 파견하겠다”고 밝혔다.²²⁵⁾ 마샬은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관과 AMAG에 2월 5일 벤 플리트를 “육군부에 의해 JUSMAPG 단장겸 USAGG 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는 벤 플리트의 임명이 “그리스 군사 상황의 최근의 발전 결과”라며 “리브세이는 병참 지원 문제에 집중하고, 벤 플리트는 전술 상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브세이는 다음날인 2월 6일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당혹스럽게 하고 그리스에서 비효율적으로 만들 그리스인들의 심리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해 귀국을 결정하였다.²²⁶⁾

JUSMAPG와 영국군사사절단은 1948년 초 그리스 정부군의 지휘체계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참모들이 예하 지휘관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최고국방위원회(SNDC)는 때때로 영-미 군사 관료들의 자문을 무시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4일 미국과 영국 대사관, AMAG 대표들은 그리스 각료들을 만나 다음과 같은 협력을 요구하는 각서를 건네주었다. 첫째, AMAG 대표와 영-미 군사사절단 대표가 최고국방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것 둘째, 신임 중요인사들은 참모부에 넘길 것 셋째, 내각은 현재의 참모부에 무조건 지지를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즉각 교체할 것 넷째, 정부는 영-미 군사 자문이 신속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대사, AMAG 대표, 총리 회담에서 취할 조치를 언급하도록 하는 ‘신사협정’을 수용할 것 등이었다.²²⁷⁾ 이러한 제안들은 그리스 내각에 의해 신속하게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벤 플리트와 영국군사사절단장 롤린스(Rawlins) 소장은 최고국방위원회에 고문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이를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영국 군사사절단은 훈련을, 미국 군사사절단은 작전

224) 미국 정부대표로 영국 엘리자베스 공주와 그리스 필립 왕자의 결혼식에 참가하였던 마샬은 그리스의 프레데리카(Frederika) 왕비와 만났다. 그녀는 당시 미국의 그리스 군사원조 프로그램 책임자를 지칭하며, “미국은 우리에게 보급장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반군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 군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군입니다”고 말하였다. 마샬은 귀국한 뒤 면담 결과를 트루먼에게 보고하고, 트루먼은 전투경험이 많은 장군을 그리스에 보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고, 마샬은 벤 플리트를 지명하였다.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p.216-217.

225) 마샬은 벤 플리트 소장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뛰어난 공격적 전투 군단 지휘관 가운데 한명’으로 평가했으며, 우드하우스는 그를 ‘정력적이며 두려움을 모르는 군인’이라고 평가하였다.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236.

226)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Mission for Aid to Greece, January 26, 1948, *FRUS* 1948, Vol. IV, pp.36-37.

227)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p.214-242.

자문과 그리스 군대에 대한 보급을 담당하였다.²²⁸⁾

JUSMAPG는 내전의 모든 측면을 자문하였다. 이들은 작전 및 행정 계획을 작성했으며, 그리스 참모부와 이러한 계획들을 조율하고 그들의 계획 집행을 지원하였다. 미군은 또 그리스 군사학교, 훈련소에 고문관들을 상주시켰고, 각 군단과 사단에서 미군의 전술, 훈련, 행정 교리를 도입토록 하였다. 벤 플리트는 이에 대해 “나는 정말 워싱턴으로부터 그리스 정부군을 지휘할 아무런 명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 그렇게 하였다”²²⁹⁾고 말할 정도로 미군 고문관들은 그리스내전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미군 장교들은 전투나 그리스 군대를 지휘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미국 정부의 발언은 그들의 중요성을 일부러 축소한 것이었다. 1948년 초가 되자 250명 이상의 미군 장교들이 벤 플리트의 지휘 아래 그리스 정부군의 사단급 부대에서 전술 작전을 자문하였다.²³⁰⁾

전투지역에서 그리스 군대와 동행한 미군 장교들은 그곳에서 현장 자문을 하였고, 극소수지만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미군 장교 3명이 그리스내전에서 희생되었다. 1948년 1월 22일에는 미군 항공기가 카르페니시 부근에서 격추됐고, 그리스내전의 최초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조종사의 사체는 수족이 절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리스 게릴라들은 이 사건을 그리스내전에 미국의 직접 개입 증거로 간주하였다. 미군 당국이 항공기가 무장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 항공기는 그리스 정부군을 위한 정찰에 가담하였다. 지상과 공중에서 미국의 지원은 점차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당시 창설된 CIA도 그리스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게릴라들이 영국과 같이 미국 사절단을 비전투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²³¹⁾ 내전 시기 미국의 관심은 그리스 주재 미대사관의 랜킨이 밝혔듯이 “그리스에서 공산주의 반란과 이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었다.²³²⁾

미국이 그리스에서 게릴라들을 진압하기 위해 지원한 방식은 훗날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미국의 향후 개입의 전형이 되었다.²³³⁾

228)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p.166.

229) Andrew J. Birtle, *U.S. Army Counterinsurgency and Contingency Operations Doctrine 1942-1976*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2006), p.47.

230) Richard J. Barnet, *Intervention & Revolution*, p.148.

231)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pp.260-261.

232) Rankin to Secretary of State, May 15, 1948, 868.00/5-1548, SD records(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134에서 재인용).

233) Zachary Karabell, *Architects of Intervention* (Louisiana: Louisiana University Press, 1999), pp.18-19.

2. 남한

1) 정치개입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소봉쇄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전략적 지위 확보에 초점이 모아졌다. 미국은 남한내 좌익세력을 ‘공산주의자’, 곧 친소세력으로 동일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에 따라 남한의 정치권에 개입하게 되었다.²³⁴⁾

미국이 기존의 정치체제가 존재하였던 그리스에서의 개입 방식과 해방된 남한에서의 개입 방식은 달랐다. 미군정은 남한에서 미군정 이외에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외에 밝히고, 미군은 해방 직후 조선에서 군정통치라는 직접 통치방식을 채택하였다.²³⁵⁾ 따라서 국가기구가 없는 남한에서의 미군의 개입은 사실상 국가건설을 주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위해 미군정은 일제 때 형성된 식민관료기구의 존속과 경찰조직의 재건에 나섰다. 해방 직전 남북한을 합쳐 1만여명이던 조선인 경찰관은 해방 후 불과 3개월만인 1945년 11월 중순에 남한에서만 1만5천명으로 급증했으며, 10월 항쟁 후인 1946년 말에는 2만5천명으로, 정부 수립 직전에는 4만5천여명에 이르렀다. 1946년 말까지 군정 경찰 간부의 분포를 보면 경위급 이상의 간부 1157명 가운데 82%인 949명이 총독부 경찰 출신들이다.²³⁶⁾ 일제하 남북한 전체의 경찰정원이 2만3700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38도선 이남 지역의 경찰력을 이처럼 보강한 것은 일제 때 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경찰력을 충원했음을 의미하였다.²³⁷⁾ 경찰은 군정당국의 통치와 우익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위한 도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중들의 군정당국에 대한 혐오감도 증폭되었다.²³⁸⁾ 미군정은 이러한 관료기구의 존속과 경찰기구의 재건 및 확

234) 임현진·백운선, “한국에서의 국가자율성-도구적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7), p.228.

235) 군정은 협의의 의미로 교전국의 일방의 군대가 타방의 육지상의 지역에 진주하여 피점령국의 권력을 배제하고 자국 고유의 권력을 수립·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로는 군사적·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행정작용 이외에 입법, 사법의 작용까지 전부를 행사하는 경우의 점령지역의 통치를 의미한다. J.W. Bishop, Jr., "Military Law",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10 (New York: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74), p.316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p.71에서 재인용).

236)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pp.112-113, 115.

237)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 반공체제 수립과 자유민주주의 제도화, 1945-45』,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pp.111-112.

238) Gregory Henderson,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p.229.

대를 통해 알라비(Hamza Alavi)가 말하는 ‘과대성장된 국가기구’를 강화시켰다.²³⁹⁾

미군정은 우익 주도의 정계개편과 정부 구성을 남한의 정치구도로 상정하고, 한민당, 임시정부, 이승만 세력의 통합을 정부 구상 실현의 전제로 하였다.²⁴⁰⁾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임정법통론에 입각한 정부수립 운동으로 연결시켰다. 반탁투쟁은 중경 임정 추대운동이었고, 신탁반대운동이었으며, 반소-반공투쟁이었다.²⁴¹⁾ 3상회의 결정이 알려진 뒤 임정 주도로 결성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는 1945년 12월 31일 전국 총파업을 결의하고, ‘국자 1, 2호’ 포고문을 발표해 정권 접수를 선언하였다. 임정 내무부장 신익희는 국자 제1호와 제2호 포고문에서 “현재 전국 행정청 소속의 경찰기구 및 한인 직원은 전부 본정부 지휘하에 예속케 함”을 선포하였다.²⁴²⁾

이에 당황한 미군정은 “김구의 사이비 임정(pseudo-provisional government)이 경찰 장악을 통해 ‘쿠데타’를 기도하였다”며 “라디오방송을 통해 포고를 발표할 계획이 미 당국에 의해 발각돼 실패하였다”고 김구 진영을 비난하였다.²⁴³⁾ 반탁의 움직임을 주도해가던 임정은 1946년 1월 4일 모든 세력의 대표로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고 과도정권을 수립한 뒤 다시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해 정권을 수립하자는 비상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파세력은 ‘비상국민회의 결성준비위원회’를 만들고 2월 1일 자주적 과도정부수립을 목표로 ‘비상국민회의’가 개최돼 ‘최고정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미군정의 정치개입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인 신탁통치안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산돼 거부되면서 ‘친미-반소’의 단독정부 구상으로 옮겨졌다.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는 모스크바 협정이 조선독립을 위한 국제현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우

239) 알라비는 식민지사회에서는 식민지 고유의 사회적 계급들 모두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군부와 관료제도를 통해 국가기구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식민지의 상부구조는 ‘과대성장’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료제도와 군부구성원들은 독립 이전에는 식민세력의 도구로서 민주주의운동을 탄압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 그러나 독립 뒤 탈식민지사회에 접어들면서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했던 정당들은 정통성과 정치권력을 물려받게 되지만 이들의 권력은 점차 쇠퇴하고 이에 따라 군사-관료 과두체제의 권력이 확대되어왔으며, 이는 후자에 의한 권력 ‘탈취’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말한다. Hamza Alavi,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Pakistan and Bangladesh", 1972/임영일·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서울: 까치, 1985), pp.346, 348-349.

240) 정용욱,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서울: 중심, 2003), p.43.

241)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서울: 역사비평사, 1991), p.306.

242) 위의 책, p.312.

24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7, 8 Jan 194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2, 2 Jan 1946.

과의 반탁운동을 묵인·조장하였다. 미군정은 친미 여론을 유도해 대중적 지지를 얻는 우파세력을 형성·결집시키려고 했고, 이는 1946년 2월 14일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이하 민주의원)의 창설로 나타났다.²⁴⁴⁾ 민주 의원은 고문 자격으로 총사령관에게 봉사하고 협력하게 되어 있었다.²⁴⁵⁾

한편 반탁에서 찬탁으로 선회한 좌파세력은 찬탁노선을 지지하는 좌익세력들을 규합해 2월 15일 민주주의 민족전선(약칭 민전)을 결성하였다.²⁴⁶⁾ 이로써 모스크바 3상회의 이래 해방정국은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민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우익계 반탁진영과 민전을 중심으로 한 좌익계 찬탁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²⁴⁷⁾

탁치 논쟁 당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논쟁은 미-소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는 형식으로 표출됐으며, 남한내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이 좌우대립 구도로 바뀌자 미군정은 자신의 점령목적에 국내의 정치적 대립 구도와 일체화, 단순화시켜서 미군정에 대한 반대세력을 모두 몰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²⁴⁸⁾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8일의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 이어 1947년 5월 22일부터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협의대상 단체 명부 작성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10월 18일 공식 결렬되었다.²⁴⁹⁾ 트루먼 독트린이 선언된 뒤 재개된

244) 최상용,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서울: 나남출판, 1998), p.211.

245) 위의 책, p.213.

246) 민전은 정당이라기보다는 조선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을 비롯한 좌파정당과 노동단체인 전평, 농민단체인 전농, 청년단체인 청년동맹과 부녀동맹, 문화단체 등을 망라한 좌파세력의 통일전선이었다. 민전 결성식은 서울 종로구 YMCA 건물에서 거행됐으며, 중앙에는 태극기가, 양 옆으로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국기가 게양되었다. 건물에는 2천명 이상의 남녀로 빈틈없이 들어찬 가운데 진행되었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23, 19 February 1946.

247) 송남현, 『해방3년사』 1, pp.261-29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23, 19 February 1946.

248)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pp.198-199; 그러나 오재완은 탁치논쟁에 대해 미-소관계, 점령군과 남한정치세력간의 관계, 남한정치세력들간의 관계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남한의 정치세력들을 찬탁세력과 반탁세력으로 양극화시켜 좌우대립을 격화시켰고, 반탁우익세력과 미군정간의 갈등과 대립을 고조시켰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미군정이 남한의 정치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급속히 상실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의 소련 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약하다는 약점을 노출시켰다고 분석하였다. 오재완, 앞의 논문, p.94.

249) 미-소 공동위원회는 6월 11일 공동성명 11호 발표를 통해 협의에 참여할 정당·사회단체들을 신청받은 결과 이남에서 425개 단체, 정파별로는 우익 193개(45%), 중도 우익 31개(8%), 중도 16개(4%), 중도좌파 10개(2%), 좌익 80개(19%), 기타(비좌익) 95개(22%)였으며, 이북에서는 3개 정당과 35개 사회단체가 신청했으며, 정치성향은 좌익이었다. 소련은 전체 463개 단체 가운데 317개 단체를 제외한 146개 단체를 협의대상으로 삼았으나 반탁투쟁위원회(약칭 반탁투위) 가입 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의 배제를 요청하였다. 소련은 구체적으로 한민당을 포함해 8개 정당을 거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마셜-몰로토프 간 서신교환에 의해서만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권한이 있다며 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을 예고했었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93, 26 June 1946; No. 94, 3 July 1946.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소간 냉전 기류로 인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인상을 국내외에 보여주고, 조선문제를 공식적으로 매듭지으려는 의도에서였다.²⁵⁰⁾ 이런 가운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해방정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각자 독자적인 정부수립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규식은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을 추진했고 이승만은 단독정부수립운동에 나섰으며 김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세워 반탁자주독립노선으로 나아갔다.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 휴회 뒤 중간과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²⁵¹⁾

한편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휴회 이후 미국은 온건파 중심의 좌우합작을 통해 보다 대의적인 정치적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조선인에 대한 행정권 이양계획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국이 좌우합작을 추진한 것은 첫째, 온건우파세력을 결집시켜 공산주의자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친미적 입장에서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는 ‘중간파’를 형성하여, 이를 미-소 공동위원회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²⁵²⁾

미-소 공동위원회 개막에 앞서 국무부는 극좌와 극우파를 제외한 협의대표기구의 구성을 지시하였다.²⁵³⁾ 하지가 추진한 중간파 정책의 핵심은 민족통일전선 형성을 통해 독자적인 길을 걷거나 친소세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을 미국의 정치적 구상과 활동계획 속에 묶어 두는 것이었다.²⁵⁴⁾

미군정의 지원 아래 좌우합작위원회는 10월 4일 합작 7원칙과 7가지 요망사항을 합의해 10월 7일 발표하였으나²⁵⁵⁾ 남로당과 사회노동당의 합당에 실패한 여운형이 1946년 12월 4일 정계은퇴를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²⁵⁶⁾ 그러나 미군정은 좌우합작의 성과를 바탕으로 10월 12일 법령 제118호를 발표해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의 설립을 확정지었다.²⁵⁷⁾ 이에 앞서 군정장관 러치(Arthur L. Lerch)²⁵⁸⁾는 1946년 6월 29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에게 “군정이 조선인들의

250)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서울: 박영사, 1992), p.154.

251) 정용옥은 미국이 중간파에 접근한 이유에 대해 ① 일방적으로 소련에 치우지 않았다 ② 방지하면 소련에 우호적인 세력이 돼 정치적 균형과 지지기반의 상실에 일조하게 된다 ③ 이들의 개혁 지향적이고 자유주의적 성격을 잘 이용하면 일정한 한도 안에서 개량주의적 개혁을 실시할 수 있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고 밝혔다. 정용옥,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p.251.

252) 위의 책, p.240.

253) 정용옥,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p.123.

254) 위의 책, p.134.

255)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57, 17 October 1946.

256)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65, 12 December 1946.

25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57, 17 October 1946.

258) 1946년 1월 4일 주한미군정장관으로 부임한 러치는 같은해 9월 11일 심장질환으로 제34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단독정부가 아닌 입법기구의 설립”을 건의하였다.²⁵⁹⁾ 이에 대해 하지는 “이 제안이 조선인을 위한 자주독립조선의 장래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조선 주민과 각 정당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남조선주민의 복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바이다.……나는 이 제안이 조선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또 입법기관을 설치할 일 단계라고 확신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²⁶⁰⁾ 입법위원의 주요 기능은 군정장관이 심의권과 거부권을 갖고 있는 군정정책과 군정행정을 위한 조선인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입법위원이 단독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에게 행정 책임을 부여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좌파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미국의 선동책략이라고 비난하였다.²⁶¹⁾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가 입법위원 설치만을 위한 활동으로 선전했으며, ‘10월 항쟁’이 삼남지방을 휩쓴 10월 21일부터 동월 31일까지 10일 만에 민선 입법위원 4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완료하였다. 전체 90석 가운데 45석은 임명직이고 나머지 45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 1946년 10월 하순은 9월의 총파업과 봉기가 끝나갈 무렵으로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은 수감중이거나 수배중이어서 우익만의 선거가 되었다.²⁶²⁾

이 선거는 좌익세력의 전면적인 선거 거부와 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심지어 많은 한국인들은 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지조차 거의 모르고 있었다.²⁶³⁾ 당선된 45명의 민선의원들의 소속 단체를 보면 한민당 15명,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4명, 우익 지향의 무소속 12명, 한독당 2명과 제주도 인민위원회 소속 2명이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 소속을 빼면 우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²⁶⁴⁾ 우익의 압도적 우세라는 입법위원 선거결과는 선거 직전 미군정의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과 좌익측의 선거 불참이 상대적으로 우익측의 득세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²⁶⁵⁾

여운형이 입법위원을 반대하며²⁶⁶⁾ 정계 은퇴를 선언하자 좌우합작위원회는 김규식 중심의 중도파 단체가 되었다. 김규식은 하지가 서울과 강원의 재선거를 받

숨졌다.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7. 9. 11.

25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68, 2 July 1946.

260) 『동아일보』, 1946. 7. 10.

261) Incoming Telegram, Rangdon to Secretary of State, July 14, 1946.

262) 전상인, 『고개숙인 수정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2001), p.132.

263) 송남현, 『해방3년사 II, 1945-1948』 (서울: 까치, 1985), p.391.

264)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60, 7 November 1946.

265)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서울: 박영사, 1992), p.239.

266) 『독립신보』, 1946. 11. 24.

아들이자 관선의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명단은 하지의 정치고문관인 버치(Leonard Bertsch) 중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고, ‘하지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다.²⁶⁷⁾ 그러나 입법의원 설치를 통해 통치 기반을 확대·강화하려는 미군정의 의도는 현실적으로는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미군정 내 우익 세력의 기반만 강화시켰다.²⁶⁸⁾ 1946년 12월 12일 과도입법의회가 구성되고, 1947년 5월 17일 법령 제161호에 따라 같은 해 6월 3일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남조선과도정부는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이 추진되면서 단독정부 수립 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조정을 꾀하였다.²⁶⁹⁾

미군정이 남한의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할 당시 미국은 남한사회를 이념투쟁의 장으로 간주하였다. 1947년 8월 4일 3부조정위원회에 제출된 한국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과론적인 정치적 영향은 극동과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며, 현재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안팎으로 공산주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는 소국가들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²⁷⁰⁾ 9월 9일에는 국무부 동유럽국 부국장 스티븐스(Francis B. Stevens)가 정책기획국장 케난과 동북아국 부국장 엘리슨(John M. Allison)에게 보낸 ‘조선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동구와 서구간의, 공산주의와 서구 정치개념간의 이데올로기 투쟁에 있어서 개별적 정치활동은 즉각적인 지역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조선은 소련군과 미군이 직접 접촉하고 있으며 조선의 행정을 양분하는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가로 건설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은 결과적으로 영향력과 힘을 위한 동-서간의 투쟁과 아시아인들의 민족주의적 목표를 지원하는 미국인들의 성실성 양자를 지켜보는 세계의 상징이다”라고 말하였다.²⁷¹⁾ 한반도는 미·소 군정이 직접 맞닿아 있는 세계 유일 국가로서 동-서 투쟁의 장이었으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미군정은 남한의 정치에 개입하였다.

267) 군사실문서철, 상자번호 84, “군사실 사관 로빈슨과 버치의 면담”, 1947. 3. 7 (정용욱,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p.161에서 재인용).

268) 위의 책, p.165.

269)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p.279.

270) SWNCC 176/30: Report by the Ad Hoc Committee on Korea, 4 August 1947, *FRUS* 1947, Vol. VI, p.738.

271) Memorandum by the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Eastern European Affairs (Stevens), September 9, 1947, *FRUS* 1947, Vol. VI, pp.784-785.

2) 제주도에서의 군사개입

1948년 3월 제주도에서는 경찰에 의해 1948년 3월 6일 조천중학원 2년생 김용철, 14일에 대정면 영락리 출신 양은하가 고문치사 당하고, 3월 말에 한림면 금릉리 출신 박행구가 총살당하는 등 3건의 고문치사 및 총살사건이 잇따랐다. 김용철의 고문치사 소식을 전해들은 조천중학원생들은 조천지서 앞에 몰려가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열다가 또다시 붙잡혀 들어가기도 하였다.²⁷²⁾ 김용철 고문치사사건은 중앙 미군정청과 선거감시를 위해 남한에 온 UNTCOK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미군정청 사법부 소속 민간인 변호사 매기(Thomas Magee)가 진상조사를 위해 3월 22일 제주에 파견됐고,²⁷³⁾ 4월 15일에는 UNTCOK의 프랑스 대표 마네(Manet)가 딘 군정장관에게 사건의 경과를 묻기도 하였다.²⁷⁴⁾

1947년 3월 1일의 제28주년 3·1절 제주도 기념대회 이후 제주도민에 대한 대량검거와 극우파인 한독당 농림부장 출신 유해진의 제주도지사의 극단적 우익 편향정책, 남로당의 위기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인민유격대는 “탄압이면 항쟁이다”며 단선·단정 반대와 통일국가 수립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²⁷⁵⁾ 11개 지서 및 우익단체 간부의 집과 사무실을 공격하면서 4·3무장투쟁을 단행하였다.²⁷⁶⁾

하지 중장이 4월 2일 산하 지휘관들에게 성공적인 선거 실시가 미사절단의 핵심적인(essential) 성과라고 강조하고, 군정장관이 선거의 감시 및 집행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전문²⁷⁷⁾을 보낸 다음날 무장봉기가 감행된 것이었다.

4월 초·중순 제주도 인민유격대의 공세에 이어 4월 말에 이르자 미군정의 강력한 토벌작전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진압작전도 경찰에서 경비대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4·3무장봉기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미군정은 군정장관 딘 소장이 제주도 작전을 명령한 4월 16일부터 직접 제주도 현지를 방문한 4월 29일에 이

272) 김민주(제일동포·당시 조천중학원생) 구술채록. 2007. 8. 1.

273) John W. Connelly Jr., Major, USAMGIK to CO. 2nd Platoon, Company F, 20th Regiment, Pass to: CCAO, Chejudo, undated, RG 338, NARA, USA.

274) U.N. Document, A/AC.19/SR.4, 17 April 1948, RG 338, NARA.

275) 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대판: 문우사, 1967), pp.84-85; 김민주는 당시 제주도 인민유격대가 발표한 2건의 봉기 명분을 담은 호소문과 경고문 성격의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 당시 무장투쟁에 가담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구술채록.

276)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169.

277) Inclosure No. 1, Telegram, Hodge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April 2, 1948. Despatch No. 85,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9, 1948.

르기까지 제주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4월 15일 UNTCOK 회의에 참석해 제주도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²⁷⁸⁾을 들은 딘 소장은 UNTCOK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주도의 무장봉기세력을 제거해 5·10선거를 성공시키기 위해 다음날인 4월 16일 오후 6시 해안경비대와 국방경비대에 제주도 합동작전을 구두명령하였다.²⁷⁹⁾ 합동작전은 4월 19일 시작하고 해안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경비대 1개 대대를 4월 20일까지 제주도에 파견돼 전투를 준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5연대 2대대가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하였다.²⁸⁰⁾ 또 제3여단 고문관 드로이스(Clarence D. DeReus) 대위가 고문관으로 작전에 참가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제주도로 파견된 경비대 대대에는 기관총과 카빈, 탄약을 보급하였다.

이어 딘 소장은 4월 18일 연락용 비행기 L-5 2대를 보내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의 작전통제 하에 두었으며,²⁸¹⁾ 4월 20일 ‘제주도의 파괴분자를 섬멸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제주도의 군·경도 맨스필드 중령의 작전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기에 앞서 유격대 지도부와 접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항복할 기회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하지 중장은 미 보병 제6사단장에게 전문을 보내 이 작전과 관련해 모든 가능한 지원을 맨스필드 중령에게 하도록 하는 한편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군부대는 개입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²⁸²⁾ 미군정은 개입하지 않는 대신 경비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진압작전을 벌일 준비를 마친 끝에 경비대는 4월 23일 경찰과 함께 작전에 들어갔다.²⁸³⁾ 미군정의 계획에 따라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4월 22일 회담을 제의하는 내용의 전단을 L-5를 이용해 한라산 일대에 뿌렸으나 대답이 없자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다.²⁸⁴⁾ 이날은 바로 딘 소장이 선거방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재판 등 엄

278)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Report of Daily UNTCOK Activities for Thursday, 15 April*, John Weckerling, 16 April 1948, RG 338, NARA.

279) MGDIS 92 170917Z, MESSAGE, prepared by Terrill E. Price, Advisor to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USAMGIK to CG, 11th Medium Port, Pass to: Captain Clarence D. DeReus, Advisor, 3rd Brigade, Korean Constabulary, Info: CG. 6th Div, 17 April 1948, RG 338, NARA.

280) Hq. 24th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21, 24 April 1948, Box No. 16, RG 338, NARA.

281) *Subj: Cheju-Do Operations*, William F. Dean, Major General, Military Governor to Chief Civil Affairs Officer, 5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18 April 1948, RG 338, NARA.

282) CG. XXIV Corps to CG. 6th Inf. Div, Co. 59th MG (Chejudo), Undated, RG 338, NARA.

283) 경찰은 4월 23일 밤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경비대가 (제주)읍의 특정지역을 차단한 사이 좌익인사들이 있는 주택을 급습해 60명을 검거하였다.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918, 24 April 194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19, 27 April 1948;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도 4월 23일부터 경찰은 도내의 치안만을 담당하고, 반동분자의 소탕은 국방경비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48. 5. 6.

벌지침을 경무부장과 사법부장에게 통보한 날이었다.²⁸⁵⁾ 유격대쪽에서 회담제의
에 대한 답변이 오자 김익렬 중령은 맨스필드 중령과 드로이스 대위로부터 협상
지침을 받고²⁸⁶⁾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벌였다.²⁸⁷⁾

미군 제24군단 작전참모부 슈(M. W. Schewe)중령은 직속상관인 작전참모 타이
첸(A.C. Tychen) 대령의 지시에 따라 4월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유격대의 진압
과 주민 장악에 대한 맨스필드 중령의 계획을 확인하였다.²⁸⁸⁾ 슈 중령이 방문할
당시 제주도에는 미 보병 제6사단 제20연대 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제주도 주둔
제20연대 분견대장 가이스트(Geist) 소령,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갖고 있는 경비
대 제5연대 고문관 드로이스 대위가 있었다. 이날 하지 중장은 한국인들은 공산
주의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5·10선거에 매진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선거실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²⁸⁹⁾

하지 중장은 같은 날 브라운 대령을 통해 맨스필드 중령에게 첫째, 국방경비대
가 즉시 역할을 할 것 둘째, 모든 시민소요를 중지시킬 것 셋째, 게릴라 활동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비대와 경찰 사이에 명확한 관계설정을 할 것 넷째,
미군은 개입하지 말 것 등 4개항의 지침을 전달하였다.²⁹⁰⁾

슈 중령은 제주도 상황에 대해 1948년 4월 28일 이전의 작전은 상황을 정당화

284) 『독립신문』, 1948. 4. 30; 『서울신문』, 1948. 5. 3; 『조선일보』, 1948. 5. 3.

285) 딘 소장은 지령을 통해 “선거역원 또는 입후보자를 공격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자유롭고 질
서있는 선거를 방해하는 자를 속히 처벌하기 위해 각 검찰관과 심판관은 수색과 재판을 제일우선순위로
하며 현행법규에 의해 여사한 사건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경무부 각 기관과 밀접하게 협조하라”고 하였
다. 『서울신문』, 1948. 4. 29.

286) 지침 내용은 1. 제9연대장 김익렬이 평화회담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행사에서 미군정장관 딘 장군을 대
리한다. 폭도들의 살인, 방화 등 범법자에 대한 재판에서 극형을 면할 수 있는 사면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친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서면으로 조인된 모
든 약속의 이행은 미군정장관 딘 장군이 책임진다. 2. 요구조건은 즉시 전투중지, 무장해제, 범법자의 자
수와 범법행위의 장소, 일자, 범행자 명단의 작성 제출이었다. 김익렬,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p.317.

287) 김달삼은 김익렬에게 1. 단정반대 2. 제주도민의 절대자유 보장 3. 경찰의 무장해제 4. 제주도내 관청
고급관리를 전면적으로 경질할 것 5. 관청 고급관리의 수회자(收賄者)를 엄중 처단할 것(수십장되는 명부
를 제출하였다) 6. 도의 청년단체원의 산간부락 출입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김익렬은 이러한 제
안에 반대하였고, 결국 경비대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적고 있다. 『국제신문』, 1948. 8. 6; 8. 7;
8. 8. 한편 김익렬은 예편 뒤 쓴 유고에서는 1. 전투행위 즉각 중지 2. 무장해제 3. 범법자 명단 제출의 3
개항을 요구하였고, 김달삼은 1. 민족반역자, 악질경찰, 서북청년단의 추방 2. 제주도민의 경찰이 편성될
때까지 군대가 치안을 맡고 현재의 경찰 해체 3. 의거 참여자를 전원 불문에 부치고 안전과 자유의 보장
등 3개 항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회담에서 김익렬의 요구사항 1, 2조건과 김달삼의 요구사항 1, 2조건에
합의했고, 범법자 문제에 대해서도 김익렬이 도의 및 해외 탈출을 배려하겠다는 선에서 합의하였다고 적
고 있다. 김익렬, 앞의 책, pp.326-329.

288) *Subj: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do Island. Lt. Col. Schewe, G-3 to Col. A. C. Tychen, A/C
of G-3, 29 April, 1948, RG 338, NARA, USA(이하 Schewe Report).*

289) 『동아일보』, 1948. 4. 28; 『서울신문』, 1948. 4. 28.

290) Schewe Report.

할 만큼 공격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의 관심과 슈 중령의 시찰 뒤 평가는 강경진압을 재촉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음날에는 딘 소장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딘 소장의 제주도 방문에는 미보병 제6사단장 워드 소장 등 주한미군 수뇌부와 『뉴욕헤럴드트리뷴』의 특파원 레이몬드(Allen Raymond), 『타임』(Time)과 『라이프』(Life)지 사진기자 마이던스(Carl Mydans)가 동행하였다. 당시 AP와 UP가 대부분 서울에서 기사를 작성했던 데 견줘 이들 두명의 특파원은 제주4·3사건 초기 제주도를 방문한 몇 안 되는 외신기자들이었다. 레이몬드는 ‘경찰의 야만성이 제주도 내전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내전의 주요 원인은 경찰의 야만성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2명의 신부²⁹¹⁾들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다. 그들은 (태평양)전쟁 시기 본토에서 일본인들에 의한 투옥생활을 제외하면 각각 12년, 14년 동안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 “모든 이런 소요는 소련의 방식과 맞는다. 그러나, 경찰은 좌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스위니 신부는 오늘 제주도를 방문중인 미국 특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들 경찰관들 가운데 한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당신은 자연적으로 반란군이 될 것이다. 누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스위니 신부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은 극소수라고 말하였다. 극소수 - 이들은 또한 지하에서 일본인들에 맞서 투쟁하였다 - 는 산간지대에 반란군들과 함께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이들 신부들은 본토에서 들어온 경찰청장을 포함한 제주도의 경찰력이 “일제시대 경찰력에 비해 더 나쁘다”고 말하였다. 신부들은 또한 미국 당국이 현지 경찰에 심문을 위해 경찰 유치장에 있는 수감자 폭행을 중지하도록 자문했지만 방문중인 미군 장교들이 등을 돌리기만 하면 폭행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였다.²⁹²⁾

신부들은 제주도의 공산주의자가 극소수이며,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면 누구든지 반발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딘 소장과 인터뷰를 한 레이몬드 특파원의 같은 기사를 보면 딘 소장의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딘 소장은

291)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Austin Sweeney 신부와 에이레 도네갈 출신의 Patrick Dawson 신부가 그들이다.

292) *New York Herald Tribune*, 1948. 4. 29.

“경찰의 야만성과 우익 경찰도당의 테러가 실제 제주도 투쟁의 원인이지만, 공산당의 역할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를 무질서 상태로 만들려고 정부에 대항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위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게릴라들을 체포하기 위해 경비대를 파견하고 경찰에 손을 떼라고 명령하였다”고 레이몬드에게 말하였다.²⁹³⁾ 딘의 시각은 우익이나 경찰의 테러 보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 하였던 것이다. 딘 소장의 방문은 경비대의 출동에서부터 작전명령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직접 확인하고, 진상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레이몬드의 기사에 따르면 딘과 워드는 연락기를 이용해 산간 요새지를 시찰했는데 그곳은 경비대가 마을들을 포위하고 심문을 위해 18살 이상의 모든 남성들을 체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²⁹⁴⁾ 슈 중령이 28일 연락기를 이용해 제주도 경비대의 작전 동향을 파악한 데 이어 29일에는 미군정 책임자인 딘과 미 보병 제6사단장 워드가 직접 경비대의 작전을 확인한 것이다. 군정장관 딘과 사단장 워드 등 주한미군 수뇌부가 함께 제주도를 시찰한 것은 처음이었다. 미군은 이날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던 미군 장교 부인 4명과 아동 3명을 ‘탈출’시켰다.²⁹⁵⁾

이들의 제주도 방문 뒤 군정경찰은 제주도 사태를 ‘전면적인 유격전’으로 보고 진압을 강화하였다. 5월 2일 미군 연락기는 유격대의 활동을 관찰했으며, 경찰 응원대는 제주도 사태를 ‘전면적인 유격전’으로 간주해 진압을 강화해 나갔다.²⁹⁶⁾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정이 제주도 소요가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공산주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²⁹⁷⁾

『뉴욕타임즈』는 같은 날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거등록사무소를 공격해 9명의 경찰을 포함한 49명이 지난 2주 동안 희생되었다”고 보도했고,²⁹⁸⁾ 『로스엔젤레스타임즈』도 같은 날 “제주도 폭동은 미국 점령지역인 남한에서 유엔 감시 하에 치르는 5·1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움직임과

293) *Ibid.*

294) *Ibid.*

295)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23, 1 May 1948, RG 338, NARA.

296) 서울의 한 외신기자는 5월 2일 다음과 같이 제주도의 상황을 보고 하였다. “잘 조직된 게릴라가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제주도의 한 마을을 공격해 3시간 동안 장악한 뒤 토벌대에 쫓겨났다. 미육군의 초계기가 섬 상공을 비행한 뒤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3개 마을이 게릴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공격은 최근의 폭동을 일으키고 지서 공격을 중단한 공산분자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지난주 제주에 급파된 응원경찰은 오늘의 공격을 전면적인 유격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폭동들이 여자 4명을 포함해 적어도 7명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q. 7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105, 5 May 1948.

297) *Washington Post*, 1948. 4. 24.

298) *New York Times*, 1948. 4. 24.

일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²⁹⁹⁾

5·10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4월 29일에 이어 5월 5일 다시 제주도에 내려온 군정장관 딘이 김익렬 연대장을 박진경 연대장으로 교체하였다. 5·10선거를 앞둔 지극히 중요한 시기에 그의 두차례의 제주도 방문은 제주도 사건이 안고 있는 폭발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날 서울로 올라간 딘 군정장관은 서울에서 제주도 사태를 “5·10선거에 반대하는 북조선 공산군 간자(間者)에 의한 사주로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였다.³⁰⁰⁾ 미국의 제주도에서의 대소봉쇄정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워싱턴포스트』도 “딘 소장이 제주도 시찰을 마친 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 상륙해 선거반대 테러 과정에서 게릴라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³⁰¹⁾

미국은 선거에 불만을 가진 우익인사들이 5·10선거를 저지하려는 공산주의자들과 합류하는 바람에 남한내 사회적 긴장과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선거 자체의 실시여부에 의문을 가졌다. 『시카고 트리뷴』의 심몬스(Walter Simmons) 기자는 “소련이 장악하는 북한 라디오 방송은 매일 유권자들에게 ‘희생을 치르더라도’(선거에)참가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지방과 제주도에서 수백여명의 살인행위에 뒤이어 나타난 것이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최근의 보고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학살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전하였다.³⁰²⁾

미군정은 미국인 관리들에게 투표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³⁰³⁾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군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였다. 미

299) *Los Angeles Times*, 1948. 4. 24.

300) 『우리신문』, 1948. 5. 8.

301) *Washington Post*, 1948. 5. 7; 제주도 사건과 관련이 많은 딘 소장은 한국전쟁 발발 뒤인 1950년 8월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북한에서 심문을 받을 때 1948년 군정장관으로 있을 때 제주도에 군과 경찰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심문관들은 제주도에 딘 소장과 대게릴라 지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는 “내가 군정장관으로 있을 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경비대와 경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으로 산간에 있는 도적들과 싸우기보다는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 감찰 기간에 민간인 여성이 즉결처분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고, 나는 법무장교를 내려보냈다. 그는 몇몇 경찰을 기소했고, 그들은 각각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시기 나는 제주도에 경비대, 경찰 지휘관 및 민정장관과 함께 피의 혼란을 중지시키기 위해 그들이 발표한 명령을 확인하러 제주도에 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선거는 완전히 망가졌고, 투표함은 도난 당했으며, 유권자들은 위협받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제주도의 선거무효를 선언했고 재선거를 명령하였다. 한국인들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제주도는 남한 정부의 계속된 문제거리였다”고 말하였다. William F. Dean, *General Dean's Story*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4), pp.142, 147-148.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있던 탓인지 딘의 회고록에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생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302) *Chicago Tribune*, 1948. 5. 7.

303) Inclosure No. 1, Despatch No. 85, Telegram,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Hodge, CG. USAFIK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Joseph E.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9 April 1948.*

군들은 제주도에서 선거현장 감시는 물론 선거 실시를 위한 투표함 수송 및 점검 등에도 참여했는가 하면 직접 투표장에서 투표 현장을 감시하기도 하였다.³⁰⁴⁾

미군정이 5·10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는 응원경찰대 파견, 서청단원의 증파, 현지 주둔군 9연대장의 교체, 경비대 병력 증강, 향보단 조직 배치, 군정수뇌부 현지 시찰·독려, 미군의 투표함 수송 및 미군기의 계속적인 정찰 등 선거 실시를 위해 치안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나 제주도 선거는 실패로 끝났다. 군정장관 딘은 하지 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분명하였다”고 밝힐 정도로 제주도 소요를 예의주시하였다.³⁰⁵⁾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5월 12일 5·10선거 결과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의 파괴적 선동과 살인, 선거반대공작에도 불구하고 미증유의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³⁰⁶⁾ 같은 날 미국무장관 마셜도 한국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에서 거행된 선거 투표를 성적이 좋아 조선인의 결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³⁰⁷⁾ UNTCOK도 “선거가 훌륭하게 치러졌다”³⁰⁸⁾면서 남한 단독선거가 남한 국민들의 자유의사를 표현했고 원활하고 조직적, 능률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³⁰⁹⁾

그러나 그날 극동사령부는 제주도 사태 진압을 위해 구축함 크레이그(Craig)호를 제주도에 급파하고³¹⁰⁾ 일주일 이상 제주에서 3마일 떨어진 연안에 머물면서 정찰활동을 벌였다.³¹¹⁾ 미 극동사령부 해군사령관은 크레이그호 함장에게 필요시 제주도 군정중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³¹²⁾ 극동사령부는 이어 전

304) Inclosure No. 46, Report of General Observation of MG Election Observation Teams, Cheju Island,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f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on 10 May 1948,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nited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이하 MG Report), W. F. Dean to Hodge, *Subj: Report of the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10 July 1948.

305) MG Report, p.43.

306) 『경향신문』, 1948. 5. 30; 『조선일보』, 1948. 5. 30.

307) 『동아일보』, 1948. 5. 14.

308)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UNTCOK's Daily Activities, Tuesday, 11 May, John Weckerling to Hodge*, 12 May 1949, RG 338, NARA.

309) UNTCOK 공보 제59호 발표(1948년 5월 12일). 『경향신문』, 1948. 5. 12: “1948년 5월 10일의 선거투표 결과는 조선총인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인의 유효한 자유의사의 표현이며 그들의 자유의사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관한 결론’,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앞의 보고서, p.135.

310)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No. 2105, 13 MaY 1948.

311)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No. 2111, 20 May 1948.

312) 미극동군사령부 해군사령관이 구축함 크레이그호 함장에게, 작전명령, 1948년 5월 12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0, pp.143-144.

투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제주도 작전에 전투기 사용까지도 고려하였다.³¹³⁾ 같은 날 통위부 고문관 프라이어스(Terrill E. Price) 대령은 제9연대 고문관 리치(James Leach)대위에게 무전통신문을 보내 스탠리(Stanley) 중령이 첫 비행기에 제주도로 급파될 것이라고 밝혔다.³¹⁴⁾ 5·10선거의 실패로 미군정이 총체적인 대응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의 유격대를 진압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지고, 진압의 주도권은 경찰에서 경비대로 완전히 넘어갔다.

온건한 정책을 폈던 김익렬 중령 대신 5월 6일 제9연대장으로 부임한 박진경 중령은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진압의지를 다졌다.³¹⁵⁾ 박진경 연대장은 매일 한 사람이 한 명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강경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³¹⁶⁾ 그러나 강경진압에 반발한 9연대 소속 하사관 11명을 포함한 사병 41명이 5월 20일 모슬포에서 부대를 탈영해 유격대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경비대와 미군정에 충격을 줬다.³¹⁷⁾ 9연대는 이 사건 직후 무장해제 되었다. 미군정은 9연대의 존폐문제를 검토한 끝에 9연대를 해체하고 잔여병력을 11연대에 흡수시켰다.³¹⁸⁾ 이에 따라 박 연대장은 9연대장에서 11연대장으로 이동발령하였다.³¹⁹⁾

이어 국회선거위원회가 던 소장에게 제주도 선거의 무효를 건의한 5월 19일에는 철도관구 경찰관 350명과 제6, 8관구 경찰관 100명 등 모두 450명이 전투응원대로 제주도 소요 진압을 위해 제주도에 파견되었다.³²⁰⁾

이와 동시에 미 보병 제6사단 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이 5월 중·하순께 제주도 사태의 진압을 위해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부임하였다. 미군 제6사단장 워드 소장은 브라운 대령에게 “제주도 문제가 경찰의 증오심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인식하며, 이런 소요들은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체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극 요인들을 제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³²¹⁾

313) 위의 작전명령서.

314) Radiogram, Col. Terrill E. Price,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American Advisor, 9th Regiment, Korean Constabulary, 12 May 1948.

315) 김익렬은 “박 연대장은 연대장 취임식 자리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독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고 적고 있다. 김익렬, 실록유고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p.245; 제9연대 출신의 한 병사도 “박 연대장은 취임식에서 ‘제주도는 동서 길이 200리의 작은 섬이다. 동에서 서로 이잡듯 소탕전을 벌이면 불과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폭도진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연설하던 것이 기억난다”고 밝혔다. 김태집의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3, p.109.

316)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손선호 하사의 진술, 『서울신문』, 1948. 8. 15.

31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3, p.106.

318) 애초 주한미군사령부 G-2는 “얼핏 생각하면 연대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연대내 공산분자들이 탈영함으로써 병사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잔류 병사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1, 28 May 1948.

31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3, pp.106-107.

320) 『서울신문』, 1948. 5. 21.

이와 함께 하지 중장은 제주도 59군정중대와 제주도 지구 미군 방첩대(CIC)에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브라운 대령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³²²⁾ 브라운 대령의 제주도 진주는 5·10선거의 실패로 ‘위신’에 타격을 입은 제주도 사태를 무력진압하고, 재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에 매진하겠다는 미군정의 의사표시였다.

제주도에 파견된 브라운 대령은 ‘평정계획’을 진행하였다.³²³⁾ 그의 평정작전은 제주도를 빗질하듯 짝씩이하는 전략으로서, 중산간마을의 주민들을 모두 유격대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작은 마을을 고립시키고 주민들을 심사하는 작전’³²⁴⁾을 택한 브라운 대령은 5월 22일 첫째, 경찰은 해안마을을 보호하며, 무기를 소지한 폭도를 체포하는 한편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거나 공포 분위기 조성 행위를 중단한다. 둘째, 경비대는 제주도에 조직된 인민해방군을 진압한다. 셋째, 경찰이나 경비대에 체포된 포로조사를 위한 심문소를 세운다 넷째, 민간 행정기구 관리들은 경찰과 경비대의 보호를 받고, 행정기관의 기능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³²⁵⁾

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선무작전의 하나로 제주비상경비사령관 최천과의 회담을 통해 1948년도 하곡수집 철폐 계획 등도 발표하였다.³²⁶⁾ 이런 사실은 군정장관 딘 소장을 대리한 브라운 대령 명의로 6월 2일 제주도 전지역에 공중살포되었다.³²⁷⁾

브라운 대령은 이날 제주도 정세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5·10선거 때는 성적이 좋지 못하였는데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6월 23일 재선거시에는 자유롭게 자기네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될 것이다. 여하간 사태는 6월 23일까지는 진정

321) 미 보병 제6사단장 워드 소장이 제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 대령에게, 서한. 1948년 5월 19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8, pp.56-57; 이에 따라 미군정청 특별감찰실의 해임 건의와 유격대의 암살계획에도 자리를 지켰던 유해진은 브라운 대령이 부임한 뒤 미군정에 의해 해임되었다. 이와 관련해 공보원은 1948년 6월 3일 ‘호의’를 발행해 1948년 6월 19일 5천여부를 비행기로 살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에 있는 지도적 시민의 추천에 의해 재조선 미군정장관 윌리엄 F. 딘 소장은 임관호를 제주도지사로 임명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새도지사를 지지할 것이며 속속(速速)히 이 섬을 평화롭게 또 번창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제주: 각, 2002), p.482.

322) CG. USAFIK to 59th MG Group, Chejudo, Undated, RG 338, NARA.

323)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324)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31 May 194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41, 28 May 1948.

325) Inclosure. *Subj: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Col. Rothwell H. Brown to CG. USAMGIK, 1 July 1948, W. F. Dean, Maj. Gen. to Edgar A. Noel, Major, CCAO, 59th MG Company, 17 July 1948.

326) 『경향신문』, 1948. 6. 3.

327) “군정장관 딘 소장은 제주도 사람들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서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보리 수집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p.481.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³²⁸⁾ 이는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부임한 이유를 밝혀주는 발언으로 미군정의 5·10선거의 실패를 6·23 재선거에서 씻어보려는 의도였다.

브라운 대령 휘하 참모로는 선임장교인 포티어스(Portius) 소령을 비롯해 제임스 리치(James Leach) 대위, 몽고메리(Montgomery) 중위와 2-3명의 장교들이 있었다.³²⁹⁾ 이 가운데 포티어스 소령과 리치 대위는 제9연대에서 근무했고, 작전 참모이기도 한 리치 대위는 대부분의 작전지역에 진입하였다.³³⁰⁾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민들의 80%가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두려움 때문에 이들과 연계돼 있다고 인식하였다.³³¹⁾

미군과 경비대의 정보요원들은 5월 23일 현재 구금돼 있는 432명의 혐의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³³²⁾ 11연대의 소탕작전이 계속되면서 6월 2일에는 구금자가 596명으로 늘어났다.³³³⁾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검거된 주민만 5천여명에 이르렀다.³³⁴⁾ 신문에는 주민들이 경비대와 경찰이 나타나면 산 속으로 숨어들었다가 그들이 가버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해야 했던 주민들의 ‘생존’을 건 도피생활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농림기임에도 들판에서 볼 수 없는 촌민을 만나려 일행은 부득이 마을로 들어갈 수 밖에는 없었다. 철갑 군대무장을 빌려 입은 일행의 모양을 무엇일지 인정하였는지 길에 서있던 마을사람들은 피하는 듯 집안으로 들어간다. 순박하여야 할 그들의 표정이 왜 이다지도 공포와 회의의 빛에 말없이 어두우나. 이 마을 역시 한번 산으로 올라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다. 간신히 일행의 신분 목적을 알린 다음 더듬더듬 대답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다시 부락으로 돌아왔지만 옷을 벗고 밤잠을 잔 적이 없었다. 눈

328) 『현대일보』, 1948. 6. 3.

329) Ltr, Charles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t, 16 Sept. 1996; 브라운 대령은 부임 초기 제주경찰청장과의 회의에서 경찰이 제주도민들을 다루는데 신중하게 처신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웨솔로스키는 칸막이가 쳐진 열방에서 브라운 대령과 경찰청장간의 대화를 들어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330)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331) Despatch No. 199, Inclosure No. 1, Memorandum for CG, USAFIK, Subj: Visit on Cheju Do, Coulter to Hodge, 15 June, 1948, *Subj: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Joseph E. Jacobs, U.S. Political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 1948.

33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41, 28 May 1948.

33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42, 4 June 1948.

334) *Subj: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Rothwell H. Brown, Col. to CG, USAMGIK, 1 July 1948.

앞에다 거두어드릴 곡식을 두고도 무서워서 밭에 갈 수 없고 산사람이 오면 또 언제 산으로 올라가게 하게 될는지!……국방경비대나 경찰이 주둔하면 그들은 양민이 되고 산사람이 내려오면 또한 그들 자신도 산사람이 되는 것이다.³³⁵⁾

‘생존’이 최대의 목적인 주민들은 군·경이나 유격대의 마을 진입에 따라 친정부 주민이 되거나 ‘공산주의자’들의 동조자로 바뀌었다.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는 브라운 대령의 말과는 달리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해결은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육지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기는 하나 딸자식을 섬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도민들은 누구나 다 일가이며 친척이다. 오랜 피에 매어있는 그들 혈족의 생활전통은 한사람의 이해가 곧 전도민의 그것이 되는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봉건세력이 발달되지 못한 이곳에는 착취층이 없다……그러나 33만 전도민이 총칼앞에 제가슴을 내어밀었다는 데에서 문제는 커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진정시키고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에는 당국자의 현명한 시책이 필요하다.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 광란을 통하여서 제주도의 참다운 인식을 하여야 되며 민심을 유리한 사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이다.³³⁶⁾

6·23재선거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을 누비며 경비대의 현황보고를 받으며 작전을 독려하였다.³³⁷⁾ 상공에는

335) 『조선중앙일보』, 1948. 6. 10.

336) 『조선중앙일보』, 1948. 6. 13.

337) 제주도 신문 기자단은 1948년 6월 22일 ‘제주도 치안 최고 사령관’ 브라운 대령과 제주도내 치안 사태를 시찰하였다. 브라운은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여러분이 친히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통과한 길은 약 1개월 전에는 위험해서 통행치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도내 도로, 전선은 모두 복구되고 있으며 얼마쯤 치안도 회복되었다고 본다. 그네들은 지금 해산 상태에 있으며 대중적 행동을 못하고 있고 각지마다 군경민 삼자 일체가 되어 치안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현대일보』, 1948. 7. 3; 1948년 6월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집 앞 굴 속에 숨었다가 모두 9명이 붙잡힐 때 함께 붙잡힌 강서수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밤에 숨었다가 밝아갈 때 붙잡혔는데, 나와서 보니 경찰관들이 죽 포위를 했더라고. 모자를 보니까 졸병들이 아니고 높은 놈들 같았어. 미국놈들 하고. 굴에서 나오니까 우리에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동쪽을 향해 었드리라고 해. 사복을 입은 미국사람들은 키가 큰 놈들이었는데 세명인가 네명인가 돼. 따로 한 차를 탔으니까. 미국놈들이 ‘빨갱이’ ‘빨갱이’하고 한국말을 하면서 총을 갖고 쏘는 시늉을 하는 거야. 미국놈이 지시하면서 (경찰관들이) 같이들 막 모여들어. 우리는 경찰차에 타고 자기네(미국인)는 자기네 차에 타서 같이 제주시로 넘어갔지.”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2002), p.207.

미군 정찰기가 날고, 제1선에는 전투를 지휘하는 미군의 지프가 질주하고 있으며, 해양에는 근해를 경계하는 미군함의 검은 연기가 끊임 없이 작전을 벌였다.³³⁸⁾ 그러나, 미군정은 6·23재선거를 치를 상황을 만들지 못하자 6월 10일 행정명령 제22호를 공포하고 제주도의 재선거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결국 브라운 대령도 6월 23일로 연기된 재선거를 성공시키지 못했으며, ‘점령기간내 핵심적인 성과’라던 선거가 두 번씩이나 실패하였다.

6월 15일에는 군정장관 대리 콜터(John B. Coulter) 소장이 소요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사흘 뒤인 6월 19일에는 9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암살사건이 일어났다.³³⁹⁾ ‘한국의 부대장 및 야전지휘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물의 한명으로 평가’³⁴⁰⁾받던 박진경 암살사건은 미군정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 딘 군정장관뿐 아니라 로버츠 준장과 그의 참모들이 대거 제주도에 내려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경비대원들은 무장해제되었다.³⁴¹⁾ 이와 함께 한국군내 최초의 숙군작업까지 실시되었는가 하면 토벌작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유격대와 정부군 사이에 놓인 민간인들의 피해는 급격히 늘어났다.³⁴²⁾

한편 김익렬 중령은 “제주도의 모든 군사행동은 당시 최고작전회의 참모인 드 로이스 대위의 지휘였다”고 말해 경비대와 경찰의 작전이 모두 미군의 통제를 받았음을 밝혔다.³⁴³⁾

로버츠 준장³⁴⁴⁾의 명령으로 제11연대 제3대대 고문관으로 제주도에 부임한 웨슬로스키 중위는 작전고문관도 맡았다. 대대 고문관의 역할은 대대장들에게 부대가 행동을 개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거나 만들 때 대대장들에게 자문하는 것이었다. 웨슬로스키는 11연대와 함께 여러차례 제주도를 관통해 소탕작전을 벌였으며, 한라산 뒷세오름까지도 작전을 나갔다. 훈련장소를 발견하고 탄약과 무기를

338) 『조선중앙일보』, 1948. 6. 6.

339) 박진경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으로 제주도에 근무하였다. *New York Times*, 1948. 6. 19; 그는 제주도를 잘 알고 있어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박진경 연대장의 대령 진급에 대해 장창국의 『육사졸업생』 (서울: 중앙일보사, 1984), p.124에는 1948년 6월 1일 딘 장군이 직접 제주도에 가서 박 중령을 대령으로 진급시키고 계급장을 달아주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시 제주도에 있던 웨슬로스키는 대령 진급식 날 암살사건이 일어났다고 증언하였다.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리치는 박진경과 밤중에 전화하고 난 뒤 11연대 사령부에서 암살당하였다고 말하였다. James Leach 인터뷰, http://dwb.beaufortgazette.com/local_news/military/story/5443010p-4914264c.html (검색일 2008. 11. 20).

34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63, 18 June 1948.

341)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3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p.441; 백선엽, 『실록 지리산』, p.119.

343) 『국제신문』, 1948. 8. 14.

344) 윌리엄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은 1948년 5월 20일 프라이어스(Terrill Price) 대령 후임으로 통위부 고문관으로 부임하였다.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육군성장관 로얄(Kenneth C. Royall)에게 보내는 보고서. 제목: 국방경비대 역사, 1949년 2월 7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8, p.103.

은닉하였다는 정보보고에 따라 작전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한번은 남쪽지역에서 한라산을 향해 소탕을 벌이는 작전이 있었다. 이 작전은 2-3주 정도 걸렸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³⁴⁵⁾ 그리스에서 험한 지형으로 인해 노새를 이용해 물자를 보급하였던 것처럼, 제주도에서도 지형적 여건 때문에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소를 이용해 물자보급을 하면서 작전을 벌였다.

또 전체 부대원 15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해안경비대 소속 소해정(YMS) 2척이 있었는데 섬 전체에 대한 수색활동에 활용했으며, 해로를 통해 마을에 들어가 경찰활동을 벌이고 귀환하였다. 그는 “마을을 진입해본 적이 있다. 우리는 대형을 갖추고 마을을 통과해 행진하였다. 이 소해정들은 부대원들의 당일 작전에 이용되기도 했고, 섬의 오지까지 힘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한다.³⁴⁶⁾ 또한 연락용 비행기 L-5도 미군 고문관의 지휘하에 두고 제주도 전역을 비행하면서 경찰과 물자수송을 하였다.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졌다. 이는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에 따른 것이었다.³⁴⁷⁾ 이 협정에 따라 8월 26일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설치됐고, 단장에 로버츠 준장이 임명되었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인 1949년 6월 30일까지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의 육군과 해안경비대, 국립경찰로 구성되는 보안군의 조직과 행정, 장비, 훈련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³⁴⁸⁾ 군사고문단의 역할은 강력하였다. 하

345) 웨솔로스키는 경비대의 출현이 유격대에 노출되었다고 확신하였다.

346) Ltr,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 March 6, 1996 및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웨솔로스키는 제주도 근무를 마치고 1948년 7월 제11연대와 수원으로 이동해 로버츠 준장에게 신고했고, 로버츠는 그에게 제주도 상황을 질문한 뒤 곧바로 다시 제주도 제9연대 고문관으로 내려보냈다. 그는 LST에 차량들을 싣고 제주도에 도착하자 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였다고 말하였다. Charles L.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 16 Sept. 1996 및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347) 협정 제1조는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군대의 한국 철퇴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돼 있다. 제2조는 “미군 철수의 완료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 파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서울: 동위원회, 1981), pp.34-36;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48, Vol. VI, pp.1282-1283.

348)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목적은 한국의 보안군이 다음과 같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1)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유지 (2) 공격에 대비한 38선(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선)의 방어 (3) 남한내 파괴분자들의 진압과 섬멸 (4) 남한으로의 게릴라 침투의 저지와 게릴라전의 격퇴 및 진압 (5) 사람, 상품과 물건의 한국 밀수출입, 해적 저지에 대비한 한국 해안의 보호 등이다. 주한미군사고문단 요원들은 ‘고

우스만은 정부수립 후부터 자신을 포함해 이승만과 국방장관, 육군총참모장, 로버츠 고문단장 등 6명이 상시 참여하는 군사안전위원회가 매주 열렸다고 말했다.³⁴⁹⁾ 이에 앞서 딘 소장은 1948년 8월 8일 제주도 민정장관 노엘(Edgar Noel) 소령에게 “한국인들의 눈에는 8월 15일부로 주한미육군사령부는 주한미육군사령부의 민정단으로 남게 된다. 군정단은 민정단 산하의 파견대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건물과 차량 등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적용된다”며 “모든 공식 서류와 엄밀한 군 통신은 지정된 군정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그는 이어 “따라서 귀관은 공식적인 59군정중대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지만 민정단 파견대의 민정장관”이라고 덧붙였다.³⁵⁰⁾

1948년 9월 15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철수와 10월 19일의 여순사건 발생은 신생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에서의 초토화작전³⁵¹⁾을 결행하도록 하였다. 여순사건은 그해 가을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곤혹스런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불안감을 던져주게 되었다.³⁵²⁾ 여순사건은 또한 제주도에 있어서의 대게릴라 작전의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본토에서의 게릴라와의 전투에서 정부 쪽 손실이 커지게 되자 반공태세가 강화되었던 것이다.³⁵³⁾

송요찬의 포고문 발표와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제주도 인민유격대는 10월 24일 선전포고와 함께 호소문을 발표하고,³⁵⁴⁾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9연대의 초토화작전은 사실상 10월 하순에 시작되었다.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G-3) 고문관 웨스트(West)는 10월 22일 낮 12시 50분 제주도 주둔 9연대 고문관 버제스(F. V. Burgess) 대위에게 무전을 보내 “정찰을 시작하고 본토로부터의 반란군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낼 것”을 지시하였다.³⁵⁵⁾ 이어 오후 2시에는 정보주임에게 전화로 메시지를

문관' 용어가 지적하듯 상세한 지시를 하지 않고, 한국의 보안군에게 단지 광범하고, 일반적인 지도만을 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휘하지 않고 자문한다고 돼 있으나 이들의 영향력은 결정적이었다. *Advisor's Handbook*,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Despatch No. 679, *Subj: Transmitting copies of KMAG Advisor's Handbook*, American Embassy to the Foreign Service of the USA, Oct 28, 1949.

349)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국 대위』 (서울: 한국문원, 1995), p.164.

350) W.F. Dean, Maj. Gen to Egar Noel, 8, August 1948, Box 68, RG 338, NARA.

351) 초토화작전은 일본군이 만주에서 의병운동을 진압할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의병의 근거지가 되는 산간 소마을을 불태워 평지의 일본군 지배 하에 있는 마을로 집단 이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1930년대의 만주에 있어서의 집단마을과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취한 전략촌의 원형이 되는 전술이었다. 藤原 彰/엄수현 역, 『일본군사사』 (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p.138.

352)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p.130.

353) *Ibid.*, pp.122-123.

354) 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p.166.

남겨 “여순사건과 관련한 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형태의 제주도 상륙을 감시하고 모든 사람을 체포하도록” 지시하였다.³⁵⁶⁾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는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 8척이 경찰에 들어갔다.³⁵⁷⁾

주한미군사령관 쿨터는 맥아더에게 전문을 보내고 “한국정부는 육군과 해안경비대, 국립경찰의 파괴분자들을 뿌리뽑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신병을 모집해 훈련과 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 수뇌부가 한국군내의 숙군을 먼저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의 여파는 숙군작업으로 이어졌다. 관동군 헌병 오장출신의 김창룡이 주도해 1949년 봄까지 반년 정도에 걸쳐 진행된 숙군작업에서는 약 5천명 정도의 장교와 사병들이 숙청되었다. 이 숫자는 여순사건 당시 전군의 10%에 이르는 숫자였다. 그 가운데는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³⁵⁸⁾

로버츠 준장은 10월 28일 참모총장 채병덕 대령에게 전문을 보내 “해안경비대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 잔당들이 제주도와 남해안의 작은 섬으로 피신하는 징후가 있다”며 “경찰과 경계를 강화해 문제가 될 대규모 집결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³⁵⁹⁾

여순사건이 진압되자 수개월 동안 소요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 수뇌부와 정부는 자연스럽게 제주도 인민유격대 세력의 제거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미국은 미군이 철수하면 동해안을 따라 게릴라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이를 이끄는 그룹은 제주도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그룹일 것이라고 보았다.³⁶⁰⁾

제주에서 무차별 학살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한미대사 무초는 11월 3일 국무성에 보낸 전문을 통해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을 섬멸하는데 있어 정부의 눈에 보이는 무능력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하다”며 한국군의 ‘능력’을 우려하였다.³⁶¹⁾ 이

355) Radio 32, Message, West, Advisor, G-3 to Capt. Burgess, Chejudo, 1250 22 Oct 1948.

356) Radio 36, Message to Chejudo, 1400 22 Oct 1948.

357) *Subj: Yosu Report No. 68, Received 221055 Oct 1948*, Chief of 8th District Police, 22 Oct 1948; 9연대의 한 장교는 “성산포에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산쪽에 합세하려고 배를 타고 온다는 첩보가 있어서 연대에서는 나보고 가라고 해서 우리 소대가 출동을 했고, 배가 들어온다는 (송요찬)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캘리버-50 기관총 등 모든 화기로 집중사격을 한 결과 접근하던 배가 방향을 돌려 성산포에서 서귀포쪽으로 사라졌는데 나중에 그곳에 가보니 우리 해군배인데 사방에 탄흔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대장에게 “죄송하다. 우리배였다”고 보고했고, 연대장은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준교 증언, 2001. 2. 13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서울: 동위원회), 미간행).

358)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p.116.

359) 로버츠 준장이 참모총장 채병덕 대령에게 보내는 전문, 1948년 10월 28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8, p.95.

360) Hq. USAFIK, JOINT WEEKA No. 34, 21 Aug 1948.

361) Despatch No. 180,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Nov 3, 1949.

는 남한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 사태의 진압을 위해 더욱 강경한 진압작전을 전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로버츠 준장은 송요찬 연대장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CIA의 활동도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³⁶²⁾ 송 연대장은 하지 중장에게 보낸 추천서를 통해 “10월 10일부터 임무를 수행한 정찰 조종사 에릭슨(Fred M. Erricson) 중위가 반란군의 집결지, 사령부, 정부군과 반군간의 전투상황을 제9연대에 넘겨줘 진압할 수 있게 하였다”고 감사를 표시하였다.³⁶³⁾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12월 20일 제주도민 대량학살을 불러온 송요찬의 작전을 격찬하고, 이런 사실을 언론과 대통령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군 수뇌부의 제주도 사태에 대한 인식은 군·경·우익단체에 의한 대량학살을 합리화시켰을 뿐 아니라 더욱 조장하였다.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 준장은 다음날 로버츠 준장에게 회신을 보내고 송요찬 중령과 미고문관이 적대적인 제주도에서 어렵고 힘든 임무를 수행하는데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천하겠다고 화답하였다.³⁶⁴⁾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는 12월 12일 찬성 48대 반대 6표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는 한편 미-소 양군 철수 및 통일 달성 임무를 위해 향후 1년 동안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³⁶⁵⁾

남한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제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유엔의 정부 승인 이후 초토화작전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1949년 1월 소련 잠수함이 제주도 연안에 나타났다는 외신들의 대대적인 보도는 미국을 자극하였다. 『워싱턴포스트』는 1월 9일자에서 ‘소련 잠수함에서 제주 공격신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1월 8일 3척의 소련 잠수함들이 4일 전 남한 연안에 나타났으며, 제주읍을 공격하라고 게릴라들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하였다. 이를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척의 잠수함이 오후에 삼양마을 연안에 나타났고, 1척은 밤에 한림리

362)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제24군단 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8년 11월 8일; 11월 15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8, pp.72-73.

363) 송요찬 연대장이 제24군단 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장 경유, 제목: 에릭슨(Fred M. Erricson) 중위에 대한 추천, 1948년 12월 6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0, p.206.

364)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 준장이 로버츠 준장에게, 서한, 1948년 12월 21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0, pp.206-207.

365) 『서울신문』, 1948. 12. 14.

연안에 나타났다. 제주도 경찰이 연안에서 소련기를 확실히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삼양마을 연안의 잠수함들이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발포는 하지 않았으며, 산간 내륙에 포와 기관총들을 은닉한 1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게릴라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려고 했으며 상륙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잠수함들은 연안으로부터의 경찰의 강력한 사격에도 불구하고 4시간 동안 삼양마을 연안에 머물렀다고 내무부 비상경비본부는 말하였다. 한림리 연안의 잠수함은 다음달 오전까지 떠나지 않았다.

같은 날 『뉴욕타임즈』도 이를 보도하였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1월 8일자에서 “남한 정부 소식통은 오늘(1월 7일) UP에 3척의 소련 잠수함이 1월 4일 제주도 연안에 나타나 공산 게릴라들에게 즉각 도청 소재지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개시하라고 신호를 보냈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이어 “남한 비상경비 전술부 대변인은 200여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첫 번째 잠수함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뒤 작전에 들어갔다고 말하였다”고까지 보도하였다.³⁶⁶⁾

남한의 관련부서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소련 잠수함은 소총 사격을 할 정도로 가까운 제주해안까지 접근했을까. UP는 적게는 4시간, 길게는 하루밤을 제주 연안에서 보냈다는 소련 잠수함에 대해 제주연안에서 경찰활동을 벌이는 미 함정이나 남한의 경비함정은 접근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나 소련 잠수함의 출현은 곧 소련군의 출현이며, 이는 소련의 직접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UP의 보도는 제주도를 미-소의 직접 대결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세계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계의 언론들은 소련 잠수함의 출현설에 대해 마치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자세하게 보도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³⁶⁷⁾ 그러나 이러한 보도들은 제주도를 소련의 팽창의 전초기로서, 미국의 대소봉쇄를 위한 전진기로서 간주하도록 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3월에도 나왔다. INS 통신은 국방장관 이범석이 “정부군이 체포한 포로들 가운데는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은 소련에서 훈련받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있다”며 “러시아제 기관총도 노획하였다”고 말하였다.

366) *South China Morning Post* 1949. 1. 8.

367) “반란군(rebel forces)이 본토와 북한으로부터 병참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으나 이들 보고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한국 해군에 의한 지속적인 경찰활동과 경찰 비행, 해안마을에서의 경찰의 치밀한 감시는 외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May 1949.

3월 16일에는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서 소련계 기관총과 탄약을 반란군들로부터 노획하였다”고 밝히고, “소련이 훈련받은 게릴라 지도자들을 소련이 점령한 한국의 북부지역으로부터 제주도로 몰래 들여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³⁶⁸⁾ 소련계 기관총은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 이러한 제주도 사태와 북한, 소련을 연계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미국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었다. 그는 1월 이후 소련 잠수함들이 제주도 연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나 내무장관 신성모는 “소련 잠수함들이 제주도 연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³⁶⁹⁾

하지 중장의 전 정치고문이자 이승만의 개인 고문격인 굿펠로우 대령은 1948년 말 이승만에게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장관 애치슨과의 대화를 통해 게릴라들이 속히 제거돼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나약한 정책은 워싱턴의 지지를 상실하고, 위협에 잘 대처하는 것만이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³⁷⁰⁾ 이승만은 1949년 2월 2일 굿펠로우의 서한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제주도에 대규모 경찰과 군 응원대를 파견해 공산 테러리스트들을 조만간 체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³⁷¹⁾

이 시기 남한에 들어온 유엔한국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약칭 UNCOK)의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1949년 2월 5일부터 23일까지의 남한에서의 활동을 본국에 보고하면서 “남한에서의 미국의 관심은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다. 군사적 견지에서 보면, 남한은 미국이나 잠재적 적국에 가치가 없다. 군사 훈련과 경제원조는 반공 정권을 육성하는 세계적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하였다.³⁷²⁾ 남한의 가치는 없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강하고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반공정권 육성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주한미사절단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는 3월 10일 군사고문단장 로버츠에게 제주도 상황과 관련해 서한을 보내 “제주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

368) *New York Times*, 1949. 3. 17.

369) 서울발 INS보도,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9. 3. 17.

370) Goodfellow Papers, Box 1, draft of letter to Rhee, no date but late 1948 (Bruce Cumings,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Chejudo Uprising,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April 3, 1948, Chejudo Rebellion, Tokyo, March 14, 1998, p.11에서 재인용).

371) Letr, Syngman Rhee, President to Col. Goodfellow, Feb 2, 1949.

372) Departmental Despatch No. 23/1949, Australian Mission in Japan to Australia, *Subj: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25th February 1949*. Series No. A 1838, Australia National Archives.

해있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다음날 로버츠는 드럼라이트에게 회신을 보내 “한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제주도의 게릴라와 군사작전 등에 대해 강력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³⁷³⁾ 이는 제주도 사태 진압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문관에게 매우 협조적인’ 사령관 유재홍 대령은 하버러(Walter J. Haberer) 중령의 자문을 받아들이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³⁷⁴⁾ 드럼라이트는 제주도 상황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으나, 유격대의 활동이 적극적인지 아니면 진압군의 진압정책이 무차별적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³⁷⁵⁾

제주도 소탕작전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무초는 4월 4일 이승만을 만나 “한국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만연한 게릴라 도당을 제거하고 보안군(진압군)을 훈련시킴으로써 남한에서의 입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진압을 고무하였다.³⁷⁶⁾ 미국은 남한내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제주도의 5·10 재선거를 성공시키고, 남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6월 30일의 예정된 주한미군의 철수가 끝난 뒤에도 남한에 공산주의 방벽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무초는 이승만이 1949년 4월 9일 제주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인 4월 11일 그를 만나자 “제주도 방문 결과를 알려주게 된 데 대해 매우 흥분하였다”며 “군의 작전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섬멸될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국무부에 보고하였다.³⁷⁷⁾

재선거가 성공했으나 제주도의 유격대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은 5월 22일 맥아더에게 서한을 보내 “제주도 등지를 소탕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며 무기 지원을 요청하였다.³⁷⁸⁾ 이처럼 공산주의 척결을 명분으로 한 학살은 5·10 재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고, 미국의 관심도 단절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개입과 관련해 트루먼은 제주에서 일어난 학살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4·3관련 미국문서들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제주4·3사건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트루

373) 주한미군사령관 로버츠 준장이 드럼라이트에게, 제목: 제주도 상황, 1949년 3월 11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0, pp.64-66.

37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375) Despatch No. 142, *Subj: Political Summary for Feb, 1949*,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Miss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14, 1949.

376) Despatch No. 200, Inclosure No. 1, Conversation Memorandum, April 4, 1949, *Subj: Transmitting a Memorandum of Conversation on Military Aid to Korea and Withdrawal of United States Troops*, American Mission in Korea to the State Department, April 5, 1949.

377)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 President Rhee's Cheju-do Visit and Military Aid, Participants: President Rhee, Muccio*, 11 April 1949.

378) Letr, Syngman Rhee to General MacArthur, May 22, 1949.

먼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학살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미 합참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로 한국과 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트루먼에게 한국의 안보관련 3가지 문제를 제출하였다. 트루먼은 상원의원 콘넬리(Tom Connally)와 이들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콘넬리는 회고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한 내부의 공산반란 문제였고, 두 번째는 국경선 침범문제였으며 세 번째는 북한과의 전쟁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고록에서 “내부 반란의 내부 반란의 가능성과 관련해 몇 명의 알려진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서 암살되었다”면서 제주도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덧붙였다. 콘넬리와 트루먼의 대화에는 “이승만 정부의 한 각료는 ‘경찰에 의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고문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 또한 “제주도에서의 공산반란으로 1만5천여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살육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³⁷⁹⁾ 상원의원과의 대화에서 제주에서만 1만5천여명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세가 아닌 상황에서 1만5천여명이 ‘살육’된 것은 지극히 드문 사례였다. 이들의 ‘살육’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 이외에는 찾을 수 없다. 미국은 개입을 통해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저지하고,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였다고 믿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3절 소결

1. 두 사건에서 냉전체제와 미국의 역할의 일치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은 미-소의 대립구도 속에 나타난 미국의 패권적 규정력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근동과 중동에서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주목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소봉쇄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논리 위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동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해로, 육로, 공로의 고속도로로서 중동과 지중해 지역의 막대한 가치를 인식하였고, 그리스는 이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독일의 그리스 점령은 그리스를 폐허로 만들었을 뿐

379) Tom Connally, *My Name is Tom Connally*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54), p.343. 트루먼이 제주도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회고록이 유일하다.

아니라 전후 좌·우익의 격렬한 충돌의 장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리스의 경제적 파탄, 정치적 취약성, 사회적 갈등은 전후 세계적인 냉전체제 구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케난의 봉쇄정책 구상과 애치슨의 “썩은 사과 하나가 다른 사과를 썩게 한다”는 비유는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관리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가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의 유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적 무장충돌로 전화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려해야 한다. 동부 지중해와 중동은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분석하고, “동부 지중해와 중동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다”고 보았다.

1947년 3월 12일의 트루먼 독트린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냉전정책의 공식적 선언이기도 하였으며, 냉전정책의 핵심은 반공정책이었다. 미국의 그리스 정책은 처음부터 그리스에 대한 내정 개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신중하게 준비되었다.

유럽에서 진행된 미-소 냉전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전세계적인 범위로 확산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극동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미국의 일본점령정책도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일정책의 전개에 따라 변화되었다. 세계적 냉전이 고착화되고 중국혁명이 성공하면서 1948년부터 미국 대일점령정책은 종전의 비무장화의 목표에서 벗어나 일본의 산업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미국은 NSC 49를 통해 일본열도가 주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극동에서 미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반공보루를 남한에 구축하려 했고, 미군정의 정책은 소련의 한반도 지배를 저지하는 동시에 남한의 공산화를 초래할 혁명세력의 확산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³⁸⁰⁾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다음날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트루먼 독트린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한국은 그리스와 비슷한 전략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미 점령지역에 과도 독립정부의 즉각적인 수립은 공산주의 진출에 대한 보루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트루먼이 1949년 6월 7일 남한에 대한 경제원조의 제공과 관련해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한국은 북부 아시아인들에게 공산주의의 저항의 횃불로 상징될 것”이라고 역설한 것은 미국의 남한정책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봉

380) Lisle A. Rose, *Roots of Tragedy: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uggle for Asia 1945-1953*, pp.104-105.

쇄정책의 남한 적용이었다.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의 그리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은 용의주도하게 이뤄졌다. AMAG 단장으로 임명된 그리스월드는 그리스에 부임하기에 앞서 1947년 7월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리스의 내정 개입에 대한 사실상의 동의와 함께 이러한 개입은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피하도록”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국무장관 마샬은 그리스의 각료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상적으로는 정부 구성원들이 좌익, 중도, 우익 정당에서 나와야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양보하거나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는 너무 좌익에 치우치거나 그리스의 선의를 위해 비공산주의자들과의 협력을 거부할 우익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말함으로써 AMAG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미 미국은 AMAG를 그리스에 파견할 때부터 그리스 정부의 우익 강화 및 좌익 배제의 정책을 추구했던 것이다.

주한미군정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직접 대결하고 있던 한반도에서 미국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통해 미국의 대외정책을 남한에 적용하였다. 트루먼의 개인특사 자격으로 극동을 방문했던 폴리의 눈에 남한은 ‘이데올로기의 전쟁터’, ‘공산주의가 강력해 질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미국의 남한정책의 목표는 반공의 보루로서 친미 반공 정권의 수립에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군사고문단의 형태로 남한에 잔류하였다. 그리스에서 게릴라전이 벌어지는 곳곳에서 USAGG의 고문관들이 현장에 나가고, 이어 JUSMAPG 소속 고문관들이 현장에 나가 작전을 지도하고 자문하였으며 미군 비행기가 민주군대에 의해 격추되기도 하였다. 남한에서 미군정 시기 미군들은 고문관의 이름으로 연대와 대대 단위까지 파견되었고, 이들은 국방경비대의 조직과 훈련을 책임졌다. 제주4·3사건 당시 미군 고문관들은 직접 작전 현장에 뛰어들어 경비대와 함께 작전을 벌였고, 미군 대령이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부임해 경비대와 경찰의 작전을 지휘하였다.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초토화작전 시기에도 고문관으로 제주도에 주둔하면서 각종 작전 자문을 하였고 미군이 연락기를 직접 조종해 한국군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해방 공간 남한과 그리스 상황의 비교에 주목한 곳은 미국 의회였다. 미국 의회는 1949년 6월 대한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회청문회에서 국무부 관리들은 그리스와 남한에서의 미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은 같으며, 미국의 정책이 남한이나 그리스에서 실질적으로 같다고 말하였다.³⁸¹⁾

미국은 그리스와 남한에서 내전과 제주4·3사건이 끝난 뒤에도 반공-우익 정권을 지지했으며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결과 양 국가에서는 국가의 미국 의존도가 고착화되고 심화되었다.

<표 3-1> 두 사건에서 냉전체제 형성과 미국의 역할의 일치점

| | 비교 요소 | 그리스 | 남한/제주 |
|----------|--|---------------|---------------|
| 냉전체제의 구축 | A: 냉전체제 초기 구축의 특성 a1: 미-소의 대결구도 a2: 미국의 패권적 규정력 a3: 미국의 대소봉쇄정책 | A: a1, a2, a3 | A: a1, a2, a3 |
| 미국의 역할 | B: 미국의 역할 b1: 사절단 운영 b2: 내정 및 무력충돌 과정에서의 직간접 개입 b3: 반공-우익 정권의 지지 및 유지 | B: b1, b2, c3 | B: a1, b2, c3 |
| 결과 | C: 국가의 미국 의존도 고착화 및 심화 | C | C |

2. 두 사건에서 냉전체제와 미국의 역할의 차이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소의 대립 속에서 형성된 냉전체제의 구축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로부터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소련은 전후 독일의 재무장과 무력도발의 재발을 막기를 원하였고, 소련에 대한 공격 전진기지로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유럽을 영향권 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미국은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으며 소련의 팽창주의를 봉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전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도에서 유럽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롯지 의원이 1949년 6월 대한원조법안 청문회에서 그리스와 남한의 전략적 가치와 관련해 “남유럽의 반도로서 그리스의 중요성과 아시아 동부 연안의 반도로서 남한의 중요성 간에 전략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울드릿지(Wooldrige) 제독은 “그렇다. 그리스가 군사적으로 남한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³⁸¹⁾ 국무부 관리들은 남한과 그리스를 비교하면서 그리스에 보다 더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었다.

냉전의 대립 구도 또한 그리스와 남한은 달랐다. 그리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381) U.S. House of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Far East Part 2, Selected Executive Session Hearings of the Committee, 1943-50*, Vol. VIII, pp.80-81.

382) *Ibid.*, pp.186.

것은 미국이었다. 소련이 그리스 게릴라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미국은 전면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함께 개입하였다. 반면 한반도는 미-소가 남북한을 분할 점령해 군정을 실시한 지역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대결하는 구도를 보였다. 미-소는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자신의 진영에서 상대방의 이데올로기를 배제하였으며, 남북의 주도적인 정치세력들이 이러한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리스는 미국이 전후 실시한 최초의 봉쇄정책의 적용무대였으나 미국의 남한에 대한 관심도는 그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개입 양상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사전 치밀한 조율 끝에 그리스 정부의 물질적, 기술적 원조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 트루먼 독트린 발표를 발표하고 1947년 5월 22일 의회에서 통과되자 그리스 원조를 위한 협정문을 작성하였다. 이 협정문에서 미국은 사절단장이 그리스 정부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원조 조건과 상황을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원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스의 국내 재건 수단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은 그리스 정부에 있지만 미국은 미국의 원조자금의 사용과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종전 이후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 제24군단이 남한에 파견되는 임무를 띠고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하였으며, 곧바로 군정청을 설치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직접 통치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9월 28일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해체에 이어 미 제59군정중대가 11월 11일부터 군정통치에 들어갔다. 미국은 전후 초기 그리스에서 간접 개입을, 남한에서는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취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군사 개입은 소극적 개입에서 그리스내전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수록 적극적 개입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USAGG의 활동에 비해 보다 강력한 체제를 갖춘 군사고문단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1947년 12월 31일 JUSMAPG를 창설하였다. JUSMAPG는 그리스 정부군의 작전현장에 동행해 대게릴라전에 대한 작전 자문을 하였으며 그리스 국방위원회에도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영국군 사사절단도 공동으로 국방위원회에 참가하였으며 그리스 정부군의 훈련을 담당하였다.

4·3무장투쟁이 발발하자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 합동작전을 명령하고 제주도 미군정중대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 대대급까지 배치된 미군

고문관들은 직접 작전 현장에 투입돼 경비대와 같이 작전을 벌였으며 훈련에서부터 작전까지 모두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상황이 악화되자 미군정은 무장투쟁의 조기 진압과 5·10선거 이후 연기된 6·23 재선거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 미육군 보병 연대장을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 대게릴라전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미군은 남한 정부 수립 이후에도 작전 자문 등을 통해 꾸준히 제주4·3사건의 진압에 개입하였다. 미국은 제주도에서 미군정 통치 시기의 직접 개입에서 정부 수립 이후에는 간접 개입으로 그리스와는 역코스의 군사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은 그리스에서의 소극적 개입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제주도에서의 적극적 개입에서 소극적 개입으로의 정책 전환과는 관계없이 일어났다.

<표 3-2> 두 사건에서 냉전체제 형성과 미국의 역할의 차이점

| | 비교 요소 | 그리스 | 남한/제주도 |
|--------------|----------------|-------------------------------|-------------------------|
| 냉전체제의 구축 | 미국의 유럽·동아시아 정책 | 냉전 초기 유럽 중심의 미국 정책 | 냉전 초기 상대적 동아시아 경시의 미국정책 |
| | 미-소의 대립구도 | 미-소의 간접 대립 | 미-소의 직접 대립 |
| | 미국의 전략적 고려 | 미국의 전략적 중시 | 상대적 비(非)중시 |
| | 관심도 | 봉쇄정책의 최초 적용무대로서 상대적 높은 관심 | 이념투쟁의 장으로서 상대적 낮은 관심 |
| 미국의 개 입양상 | 개입수준 | 트루먼 독트린 이후 개입 초기부터 경제적·군사적 개입 | 미군정의 직접 통치 |
| | 작전참여의 수준 | 대규모의 군수물자 지원과 영-미군 고문관의 작전개입 | 미군 고문관의 직·간접 작전 개입 |

제4장 냉전체제 형성기 국가건설과 정치폭력

이 장에서는 그리스와 남한의 국가건설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폭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치 독일 점령 당시 좌익 게릴라들이 주도한 민족해방투쟁은 그리스인들의 절대적 호응을 얻었으나 친독협력정부(매국정부)¹⁾와 친독무장단체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양 지역에서의 국가건설은 수많은 인명의 살상을 가져왔다. 종전 이후 대부분의 탈식민지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들 탈식민지 국가의 통치구조를 증강시키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 국가건설과정이 “한 영토 안에서 경쟁자와 도전자들을 공격하고 제압하는 과정”이라는 킬리의 주장과 같이, 해방 뒤 그리스는 국가건설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좌·우익간의 유혈충돌이 일어났고 영국과 미국의 개입으로 그리스는 좌익을 탄압하면서 1946년 3월 31일 해방 이후 첫 총선을 통해 반공-우익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좌·우익의 상호 정치폭력이 발생하였고 특히 우익의 백색테러는 좌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좌익 동조자나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기도 하였다.

미국은 미군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남한을 직접 통치했고, 반공-우익정부의 수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은 좌·우익의 갈등이 정치폭력으로 확대·심화되는 과정이었다. 제주에서의 정치폭력은 우익의 좌익 탄압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백색테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억압이 쌓이면서 4·3무장투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의 실행 하에서 이뤄진 폭력적 국가건설은 내전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신생 정부들은 외세의 지원을 업고

1) 이용우는 ‘협력’(collaboration)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협력자란 용어의 탄생은 1940년 10월 비시 정부의 페탱(Pétain)이 히틀러와 회담을 가진 뒤 행한 대 국민성명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기 적국/점령국에 대한 협력’이란 뜻의 특정한 역사용어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협력자란 용어는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이란 뜻의 ‘부역자’(附逆者)란 용어로 바뀌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페탱이 라디오 방송의 대국민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협력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선언은 이후 ‘협력’(collaboration)이란 용어의 의미 자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때까지 가치중립적 의미만을 지녔던 ‘협력’이 적에 대한 ‘부역’이란 의미를 띠게 된 것으로서, 이후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점령국에 대한 협력을, 특수하게는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나라들에서 점령당국에 대한 협력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우,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서울: 역사비평사, 2008), pp.12, 31.

2) Ann Hironaka, *Neverending Wars*, p.59.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폭력은 기존 국가의 권력 확보나 팽창 수단으로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수단이었다.³⁾

그러나 폭력이 민중들을 질식시키는 시점에서는 민중들의 저항폭력이 나타나며, 이는 피억압 민중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농은 민중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억압이 자행되는 시점에 무장투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⁴⁾ 거에 따르면 정치 폭력은 “정치체제, 그 체제의 행위자들, 또는 그 체제의 정책들에 대한 모든 집합적 공격을 의미”하였으며, “폭력을 통해서 성취된 사회정치적 변동으로 정의되는 혁명이나 게릴라전, 쿠데타, 반란 및 폭동”을 포함한다.⁵⁾

이 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탈점령·탈식민지 체제의 그리스와 남한의 국가건설과 정치폭력이 어떻게 심화·확대되면서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1절 그리스와 남한의 국가건설과정

1. 그리스

1) 근대 그리스의 역사적 배경

그리스는 유럽의 동남부, 발칸반도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리스의 동쪽은 에게해, 서쪽은 이오니아해가 있다. 또한 그리스는 가장 큰 크레타섬을 포함해 6천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유인도는 227개이다.⁶⁾ 본토의 60%가 험한 산악지대와 암반지대로 이루어진 그리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전국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물자원도 부족한 형편이다.⁷⁾

3) Mark Mazower, Review Essay: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p.1164.

4) Franz Fanon,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p.113.

5) Ted R. Gurr, *Why Men Rebel*, pp.3-4.

6) <http://www.visitgreece.gr/pages.php?langID=2&pageID=254> (검색일 2009. 9. 20).

7) 그리스는 대부분의 지형이 거칠고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 지방과 산간지역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영향력 밖에 있었고, 이러한 지역은 외세의 점령에 반대하거나 내전 시기 게릴라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London: Longman, 1995), p.6;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London: Faber and Faber, 1966), pp.20-21; L.S. Stavriaons, *Greece: Americann Dilemma and Opportunity*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52), p.24.

고대 찬란했던 민주정을 꽃피웠던 그리스는 1453년 오스만제국에 강제 합병된 뒤 400년 가까이 식민지배를 받았으며,⁸⁾ 16-17세기의 ‘암흑의 시대’를 겪고⁹⁾ 1821년 3월부터 11년에 걸쳐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치열한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¹⁰⁾ 1830년 2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그리스 문제와 관련한 런던의정서를 체결해 그리스를 완전한 독립국가로 보장하고, 1830년 3월 25일 그리스는 독립되었다.¹¹⁾ 그러나, 그리스는 오스만제국 시기에 물려받은 분파주의, 토착민세력과 해방 이후 유입된 피난민간의 분열이 심하게 나타났다.¹²⁾

그리스는 강대국들의 도움으로 1875년 북부지방을 확보하고, 크레타섬을 합병한 데 이어 1913년에는 마케도니아와 서부 트라키아를 합병하는 등 19세기 후반부터 1947년 파리협약을 통해 현재의 국경을 확정하기까지 주변의 섬과 지역들을 차례로 통합하였다.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니그로가 오토만 제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제1차 발칸전쟁이 1912년 10월 절정에 이르러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리스는 북부 에게해의 주요 항구인 살로니카(테살로니키)를 장악하였고, 1913년 2월에는 그리스 군대가 에피루스의 주도인 이오안니나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불가리아는 자국의 희생이 헛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전의 동맹이었던 그리스, 세르비아와 등을 돌렸다. 1913년 6-7월의 제2차 발칸전쟁으로 인해 불가리아는 그리스와 세르비아에 의한 마케도니아의 획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카레스트조약(1913. 8)을 체결하였다. 발칸전쟁으로 인해 그리스의 면적은 70% 정도 증가하였고, 인구는 280만명에서 48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들 편입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순수 그리스인들은 아니었다. 실제로 살로니카에서 최대의 인구 구성원은 1492년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 후손들인 세파딕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였다. 베니젤로스의 지도력 아래 그리스인들은 대사고(Great Idea)를 통해 실지회복운동의 열망을 가졌다.¹³⁾

8) 오스만제국은 그리스의 섬들을 차례로 점령했는데, 로데스(Rhodes)는 1522년, 히오스(Chios)와 낙소스(Naxos)는 1566년, 시프러스(Cyprus)는 1571년, 크레타는 1689년에 점령하였다.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10;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23.

9)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15.

10) Anthone C. Colovas, *A Quick History of Modern Greece* (Baltimore: Publish America, 2007), pp.24-38,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p.7-45.

11)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p.25-26; Anthone C. Colovas, *A Quick History of Modern Greece*, p.35.

12)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The Greek Civil War and the Origins of Soviet-American Rivalry, 1943-1949* (New York: Basis Books, 2004), p.23.

13) *The New Encyclopædia Britannica*, Vol. 20, 15th ed. (Chicago: Encyclopædia Britannica, 2007).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은 그리스내전을 야기하고 그리스의 정치지형을 변형시켰다. 1차 세계대전(1914-1918)은 그리스의 장래에 대한 총리 베니젤로스(Elevtherios Venizelos)¹⁴⁾와 국왕 콘스탄틴(Constantine)¹⁵⁾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가적 분열(National Schism)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⁶⁾ 두 진영간의 분열은 1916년 10월 베니젤로스가 살로니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1917년 6월에는 협상국(영국·프랑스·러시아)들이 국왕 콘스탄틴을 추방하고 베니젤로스를 공식적으로 통합 그리스의 총리직을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는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베니젤로스는 협상국 편에서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고, 1919년 5월 그리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소아시아의 주요 항구 도시 스미르나(Smyrna·이즈마르)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베니젤로스는 1920년 11월 선거에서 패배해 추방됐던 국왕 콘스탄틴은 국민투표 끝에 복위하였다. 이와 함께 소아시아의 군사적 상황도 악화돼 1922년 8-9월 터키군이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군대를 패퇴시켰다. 스미르나의 많은 지역이 불에 탔고, 수많은 그리스인과 그리스 피난민들이 살해되었으며 수십만명의 그리스 피난민들이 그리스로 탈출하였다.¹⁷⁾ 베니젤로스가 성공적으로 전개했던 실지회복운동은 그리스-터키 전쟁(1919-1922)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상 끝났다.¹⁸⁾ 이 전쟁으

p.200.

14) 크레타 출신의 정치가 베니젤로스(1864. 8-1936. 3)는 그리스 혁명가이자 정치인으로 1910-1915년, 1917-1920년, 1924년, 1928-32년, 1933년 등 여러차례에 걸쳐 총리를 역임하였다. 하루 16-18시간을 일한 그는 금욕적이고, 정열적이며, 설득력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근대 그리스의 창설자’(maker of the modern Greece), ‘그리스의 노현인’(wise old man)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리스의 해양 위치를 인정해 서구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려한 베니젤로스는 그리스와 디아스포라 이산자들의 희망과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의 모델에 기초해 국가를 근대화하려는 계획을 지속하기를 원했으며, 소아시아 서부지역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그리스 영토 안으로 이주시키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콘스탄틴 국왕은 이러한 정책이 펠로폰네스와 스테리아 엘라다로 구성된 구영토의 정치, 사회 구조에 위협하다며 거부하였다. 더구나 카이저 빌헬름 2세(Kaiser Wilhelm II)의 동생과 결혼한 콘스탄틴은 독일군의 효용성과 정치제도를 선호해 베니젤로스와의 갈등을 빚었다.

Paschalis M. Kitromilides, ed., *Eleftherios Venizelos: Trials of Statesmanship*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 p.178; J. W. Duffield, *The New York Times*, October 30, 1920, *Time*, Feb 18, 1924,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717746-1,00.html>; *Eleuthérios Venizélos*,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625420/Eleutherios-Venizelos> (검색일 2009. 8. 16).

15) 국왕 콘스탄틴(1868. 8-1923. 1)은 게오르기 1세의 뒤를 이어 1913년 3월 국왕에 즉위하였다. 중립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친독일적 태도로 서방연합국과 반대세력들에 의해 1917년 폐위됐다가 1920년 복위하였다. 1922년 9월 다시 퇴위하였고 맏아들 게오르기 2세가 왕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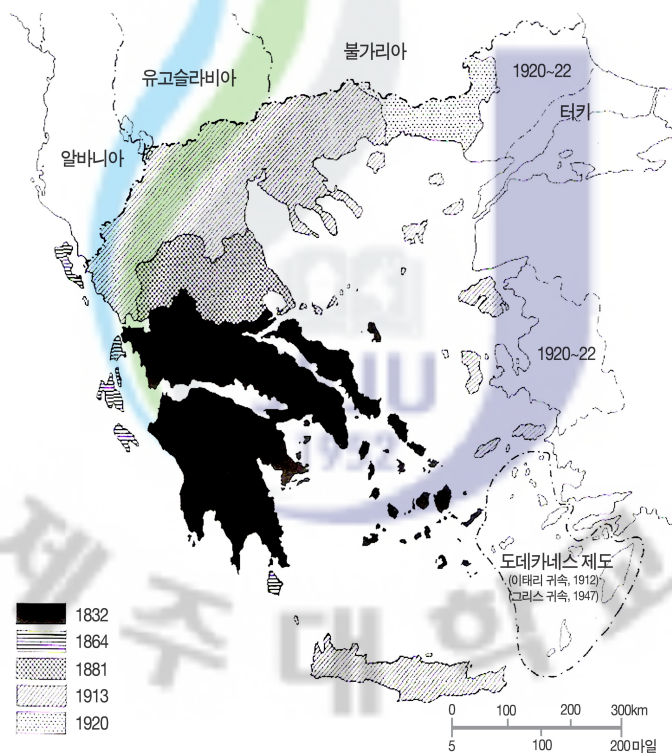
16) 베니젤로스는 영국과 프랑스가 승리하는 것은 물론 지중해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갖고 있는데다 그리스인들의 지리적 분포로 인해 그리스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고 삼국협상진영과의 동맹을 지지하였다. 반면 국왕 콘스탄틴은 그리스가 중립국으로 남기를 원하였다.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3.

17) *The New Encyclopædia Britannica*, Vol. 20, p.201.

18)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25.

로 인해 신생 터키공화국과 그리스 간에 로잔조약(1923. 7)이 체결돼 ‘소아시아 카타스트로피’(Aisa Minor Catastrophe)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인구교환이 일어났다. 이는 국가적 분열을 촉진하면서 그리스의 사회 구조를 뒤바꿔놓았다. 종교를 기준으로 한 이 조약에 따라 110만여명의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로 들어왔고, 그리스에 있던 38만여명의 무슬림들이 터키로 강제추방되었으며 10만여명의 그리스 피난민들이 러시아와 불가리아에서 들어왔다. 전쟁과 인구의 강제이동, 추방으로 인해 피난민들은 차별과 냉대를 당했으며 이는 국가적 분열의 심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 되었다.¹⁹⁾ 1923년 이후 그리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난민이었으며, 이들은 카타스트로피로 재산을 잃고, 부유한 상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에서 빈농이나 노동자로 신분의 수직하락을 경험하게 되었다.²⁰⁾

<지도 4-1> 1832-1947년 그리스 국가의 확장²¹⁾



19) *The New Encyclopædia Britannica*, Vol. 20, p.201;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p.100-101.

20)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4-5.

21)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42.

그리스는 ‘소아시아 카타스트로피’ 이후 10여년 동안 쿠데타와 왕정제의 폐지, 1924-1935년의 단기 공화국의 수립 등으로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²²⁾ 이후 총리 데메르트지스(Constantine Demertzis)가 1936년 4월 13일 사망하자 국왕은 정당 지도자들과 상의도 없이 부총리겸 인민당 지도자였던 메타사스(Ioannis Metaxas)를 총리에 임명하였다.²³⁾ 그는 1936년 4월 25일 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독재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는 1936년 총선에서 자유당과 인민당이 각각 143석과 142석으로 거의 동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공산당이 15석을 얻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려 한다며 게오르기 2세 국왕을 설득해 1938년 9월 30일 국회를 해산시켰다.²⁴⁾ 메타사스는 검열, 비밀경찰, 재판없는 투옥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독재권력을 공고히 하였다.²⁵⁾ 메타사스는 이에 앞서 노동계의 소요와 총파업으로 위협받자²⁶⁾ 8월 4일 국왕을 설득해 의회 해산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권도 중지시킨 이른바 ‘8·4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 정권은 농업과 노동에 기초한 전제적 ‘반공 그리스 국가’였다.²⁷⁾ 메타사스는 공산혁명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전국적으로 400여명의 반대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총파업을 분쇄해 국가기간 사업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였다.²⁸⁾

22) 그리스는 1924년 국민투표에서 왕정제를 폐지하고 독립전쟁 기념일인 1924년 3월 25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26년 1월 판갈로스(Theodoros Pangalos)장군이 독재권력을 장악해 4월 대통령이 됐으며, 이듬해 8월에는 콘딜리스(Kondylis)장군이 주도한 쿠데타로 축출되고, 1928년에는 베니젤로스가 총리로 복권하였다가 1932년 금융위기로 사임하는 등 불안한 정정이 계속되었다. 1935년 3월의 쿠데타 미수 이후 같은 해 10월 왕정제를 복원하든지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은 살다리스가 사임하자 그의 자리를 물려받은 콘딜리스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11월 3일 왕정제 복귀와 공화국 폐지를 선포하고, 국왕 게오르기 2세가 그리스로 돌아왔다.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p.25-27;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28;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p.105-113.

23)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29.

24)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40. 메타사스 정권 때 중단된 의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0년 뒤인 1946년에야 회복되었다.

25)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29.

26) *The New Encyclopædia Britannica*, Vol. 20, p.201

27) 메타사스는 1936년 9월 18일 특별법(*Idionym Law*)의 ‘정신’을 발전시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대한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에 관한 ‘비상법 117’을 선포하였다. 비상법 117은 “글이나 말로, 또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현존하는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경향을 가진 이론, 사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제도의 개발이나 이행,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3개월 동안의 징역형과 함께 6개월부터 2년 동안의 유형에 처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또 1938년 2월 11일 공포된 ‘비상법 1075’로 보완되었는데, ‘참회 선언’과 추방된 사람들에 대한 수용소 설치, 충성증명서 등 3가지 주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충성증명서’는 개인의 사회적 신념과 관련한 공안장관의 증명서로, 공무원이 되고 자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Ioannis Metaxas, *To Prosopiko tou Imerologio*, P. Vranas(Vol. 4, 1933-1941), p.553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28에서 재인용); Polymeris Voglis, *Becoming a Subject: Political Prisoners during the Greek Civil War*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2002), pp.39-40.

28)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31.

메타사스 정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보안대(General Security)와 특수보안대(Special Security)로 구성된 정치경찰이었다. 정권은 공산주의자들과 좌익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로 시작했고, 작은 마을이나 구두담이, 신문가판대나 카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였다.²⁹⁾ 메타사스에게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심각한 위협인 KKE도 불법화하였다.³⁰⁾ 메타사스 독재정치 4년 동안에 4만5천여명이 ‘참회선언’을 했는데 이는 당시 그리스공산당 조직원 1만5천-1만7천여명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였다.³¹⁾ 이러한 메타사스 독재정권의 억압적 방법은 좌익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대상으로 하였다.³²⁾ 1941년 1월 29일 메타사스가 병으로 급서하자 국왕에 의해 후임 총리에 은행가 출신의 코리지스가 임명되었다. 메타사스 집권 시기의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되거나 형을 받았던 그리스인들을 좌파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독일의 그리스 점령과 그리스의 민족해방투쟁

나치 독일의 그리스 침공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점령과 같이 그리스의 전통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처럼, 그리스에서도 야만적인 점령은 기존의 권력 소유자들을 손상시키고 폭력을 통한 정치로 진입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세력에 길을 내주었다.³³⁾ 독일은 1941년 4월 6일 전쟁을 선포하고, 3개 장갑사단과 2개 사단을 동원해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³⁴⁾ 독일의 공세를 맞은 혼란 속에서 총리 코리지스가 4월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메타사스 정권의 반대파였던 소우데로스(Emmanouil

29)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42-43.

30) 반공정책은 그리스 정치의 핵심이었다. 1926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판갈로스의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포와 추방을 전개한 데 이어 1928년 총리에 복귀한 베니젤로스는 이듬해 특별법을 제정해 공산주의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베니젤로스 정부 때에도 1만 1천여명을 체포해 2130여명을 기소하였다.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4;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p.106-107;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29.

31) D. George Kousoulas, *Revolution and Defeat: The Story of the Greek Communist Party* (London, 1965), p.130. 게롤리마토스는 1940년 독일의 침공 직전, 선전장관 니콜루디스(Theologos Nikoloudis)는 5만7천여명이 반성문(참회선언)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공산당원 숫자는 1만4천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의 주장은 무차별적인 체포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선전장관의 발표는 경찰의 과도한 열정과 단지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된 개인들이었다고 덧붙였다.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29.

32)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48.

33) Richard J. Barnet, *Intervention & Revolution* (New York and Scarborough: A Mentor Book, 1968), p.130.

34)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42.

Tsoulderos)가 승계하였다. 독일군의 공세에 알바니아의 그리스 제1군 사령관 솔라코글루(George Tsolakoglou)는 4월 20일 독일군 사령관 디트리히(Dietrich) 장군과 에피루스의 보토나시(Votonasi)에서 조건부 항복에 서명했고, 이틀 뒤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혹한 2번째 합의문서에 서명해야 했으며, 그 다음에는 살로니카에서 강요 속에 이태리 장군 Ferrero와 독일군 장군 요들(Jodl)과 3번째이자 최종 협정에 서명해야 하였다.³⁵⁾ 이에 따라 30만여명의 그리스군 병사가 포로가 되거나 무장해제되었다.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 그리스에 파견됐던 영국군 5만600여명은 4월 23일 그리스 본토에서 탈출했으며, 독일군은 4월 27일 아테네에 진주하였다.³⁶⁾ 그리스 군대가 본토에서 독일군에게 항복하기 직전, 국왕과 정부는 1만여명의 그리스 군과 함께 크레타로 후퇴하였다.³⁷⁾

독일군은 2만2천여명의 병력과 항공기 716대를 동원해 5월 20일 크레타 공습을 개시해 21일 크레타의 서단에 있는 비행장을 함락하였다. 크레타 방어에 나선 그리스군과 영국군은 격렬하게 저항을 하였으나 27일에는 이집트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6월 1일 철수가 끝난 뒤 그리스는 완전히 독일군의 수중에 들어갔다.³⁸⁾ 국왕 게오르기 2세와 정부도 이집트로 옮겨 망명정부를 세웠으나 그리스인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독일군이 그리스를 점령한 이후 그리스는 3개국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독일은 주로 아테네와 피레우스, 살로니카, 그리고 몇몇 섬들을 포함한 전략지역을 장악한 반면, 그리스의 상당부분은 이태리의 관할로 넘겼다. 불가리아에게는 동부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에게해 지역) 점령을 허용하였다. 이 지역에는 세라이(Serrai), 드라마(Drama), 카발라(Cavalla), 로도페(Rhodope) 지방이 있었다. 전통적인 그리스의 적대국가인 불가리아는 자국민들을 점령지역에 정착시켰고, 그리스 언어 사용을 처벌하는 한편 20만여명의 그리스인들을 추방하였다.³⁹⁾

불가리아는 에게해가 불가리아의 정주공간(living space)으로 필요하고, 특히 해

35)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61.

36)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44;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38;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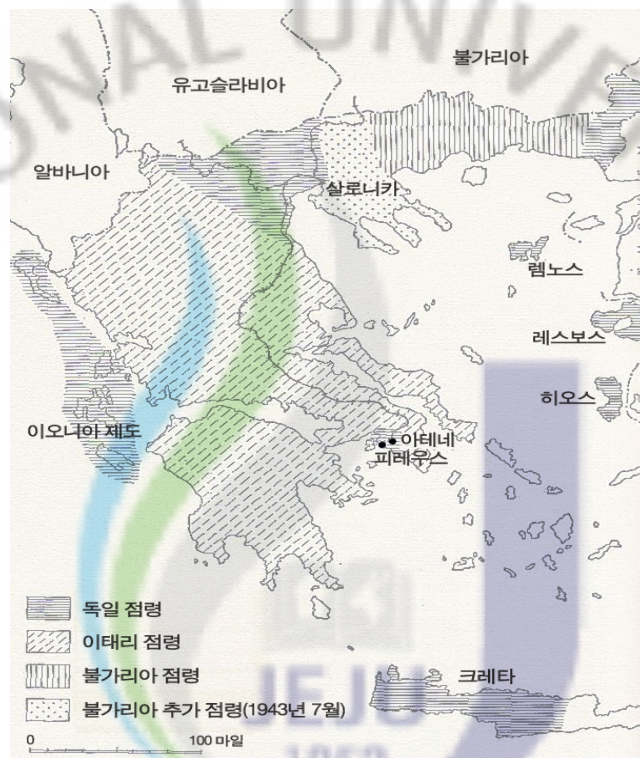
37)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119.

38) 2주 동안의 치열한 전투로 독일군은 4천여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된 것을 포함해 6천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항공기 220대가 파괴되었다. 영국군은 이 시기 크레타에서 항공기 46대를 잃었고, 전체 그리스에서의 사상자는 3만여명이 넘었다. 영국군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군의 저항은 훗날 독일군의 소련 침공을 지연시켰다. 실제로, 크레타에 대한 독일군의 점령은 애초 나홀로 계획했으나 12일이 걸렸다. 이로 인해 독일군의 러시아 공격은 1941년 5월 15일에서 6월 22일로 지연되었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p.44-46.

39)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121;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61.

안은 대외무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 관리들이 불가리아 관리들로 교체됐으며,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트라키아 등지로 이주하였다. 그리스 교회와 학교들이 폐쇄되고 불가리아 언어가 공식언어로 채택되었으며, 아나톨리아 이주민들과 1922-1923년 인구 교환 뒤 그리스에 정착하였던 모든 그리스인들이 트라키아에서 추방되었거나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⁴⁰⁾

<지도 4-2> 독일, 이태리, 불가리아의 그리스 분할 점령⁴¹⁾



독일의 점령으로 야기된 가장 큰 파국적인 문제는 1941-1942년 겨울 그리스에 몰아닥친 대기근이었다.⁴²⁾ 대기근은 점령이 빚은 그리스의 가장 어두운 유산이며 추축국에 맞서 일어난 대규모 저항운동의 기폭제 구실을 하였다. 독일은 그리스를 점령하자마자 모든 식량과 과일을 징발하였으며, 식량생산은 독일 점령 이후 전시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⁴³⁾ 1941년 10월이 되자 그리스에 기아가 찾아와 1인

40) Raphael Lemkin,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pp.187-189.

41)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48.

42) 점령 하의 그리스의 경제에 관한 자세한 글은 Stavros B. Thomadakis, "Black Markets, Inflation, and Force in the Economy of Occupied Greece", John O. Iatrides, ed., *Greece in the 1940s: A Nation in Crisis* (Hanover, N.H.: University of New England Press, 1981), pp.61-80.

43) Raphael Lemkin, *Axis Rule in Occupied Greece*, p.190.

당 200그램의 일반 식량 배급량은 96그램으로 떨어졌다. 4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기로 한 계획은 현실화되지 못했고, 식량 배급량은 11월과 12월이 되자 더욱 떨어졌다. 1941년 12월 아테네에서만 하루 300여명이 기아로 숨졌다. 1941-1942년 겨울 농업자원의 강탈 등 독일군의 정책으로 발생한 대기근으로 그리스 전역에서 10만여명 이상이 사망하였다.⁴⁴⁾ 아테네와 피래우스에서는 매일 차량을 이용해 시체를 치워야 하였다.⁴⁵⁾ 대기근은 점령 시기 이른바 ‘정치범’으로 투옥된 그리스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하였다. 1941-1942년의 겨울에는 정치 유형자들이 식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아나피(Anafi)섬의 정치범 18명과 아기오스 에프스트라티오스(Aigios Efstratios)섬에 수감된 33명이 아사하였다.⁴⁶⁾

독일군은 그리스에서 징발한 식량을 북부 아프리카의 롬멜이 이끄는 군대에 보급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 농민들로부터 공출한 곡식을 갖고 간다는 사실은 사보타주 행위를 더욱 고무시켰다. 독일군 병사들은 또 식량을 고향으로 보내고, 필요분을 초과하는 식량은 비싼 값으로 팔기도 하였다. 점령 직후부터 식량생산은 독일의 전시경제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1942년 5월에는 그리스의 모든 우유가 독일에서 치즈와 버터를 만들기 위해 징발되었다.⁴⁷⁾

<표 4-1> 국제적십자사 자료에 근거한 그리스내 사망자수⁴⁸⁾

| 지역 | 1941.9-41.11 | 1941.12-42.1 | 1942.3-42.5 | 1942.6-42.7 |
|----------------|--------------|--------------|-------------|-------------|
| 아테네 및 주변 지역 | 8,896 | 20,244 | 13,620 | 8,849 |
| 중부 그리스 및 에우보에아 | 696 | 1,789 | 1,700 | 1,145 |
| 펠로폰네스 | 1,461 | 2,956 | 2,410 | 2,402 |
| 테살리 | 534 | 1,347 | 1,504 | 1,236 |
| 마케도니아 | 1,195 | 2,771 | 2,246 | 2,399 |
| 에피루스 | 189 | 313 | 286 | 275 |
| 크레타 | 382 | 458 | 354 | 333 |
| 섬지역 | 1,373 | 3,640 | 2,788 | 1,487 |

산간지역의 물이 귀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우물 물을 길어가기 위해 독일군과 물건을 교환해야 하였다. 예를 들어 남부 그리스에 있는 ‘마구라’라는 마을은 4면

44)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p.70-71;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121.

45) L.S. Star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65.

46) Polymeris Voglis, *Becoming a Subject*, p.43.

47) Raphael Lemkin, *Axis Rule in Occupied Greece: Laws of Occupation, Analysis of Government Proposals for Redress*, p.190.

48)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71.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농촌으로 650여명의 농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마을 부근의 독일군은 마을을 전선으로 포위한 채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의 유일한 우물 물을 지키며 한 깡통의 물에 계란 2개를 쥐야 겨우 물을 길어갈 수 있게 하였다. 주민들은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을 독일군에게 모두 바쳐야 했고, 집에서 기르던 닭들도 하나씩 잡아먹다 없어지자 결국 어린이들이 아사하였다.⁴⁹⁾ 이 마을의 스피로스 니카스라는 주민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말한다.

참말이지 이번 전쟁(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까지는 모다 괜찮었습니다. 전쟁중 나는 알바니아에 출정하여 이태리군과 싸웠습니다. 그때 나에겐 생후 2개월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서 집에 돌아오자 어린 것은 굶어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이것은 내 집안의 일만이 아니고 ‘마구라’에서만도 20여명의 어린 것들이 굶어죽었습니다. ‘마네스’ 같은 곳에선 약 5만5천명의 아이들이 굶어죽었고요.⁵⁰⁾(원어 번역문 그대로: 인용자)

점령 그리스를 황폐화시킨 또다른 요인은 인플레이션이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그리스의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켜 그리스의 재정활동을 파괴하였다.⁵¹⁾ 화폐 유통량은 1938년 1월 1일 67억2100만 드라크마에서 1942년 8월 15일에는 1100억 드라크마로 급증하였다. 가격 통제가 시행되었으나 화폐가치가 완전 붕괴하고 암시장이 이를 대체하였다.⁵²⁾ 1941년 12월, 아테네에서는 기아로 하루 300여명이 죽어가고 있었으며, 1인당 연간 빵 소비량은 1939년 179kg에서 1942년 40kg으로 22% 수준으로 떨어졌다.⁵³⁾ 굶주린 그리스인들은 개와 고양이, 쥐까지도 생존을 위해 잡아먹지 않으면 안되었다.⁵⁴⁾

독일 점령당국은 공화파의 정치활동에는 온건한 태도를 보인 반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KKE 총서기 자카리아디스⁵⁵⁾는 독일의 점

49) 켄턴 레이놀드 슘, 전성철 역, “내란에 신음하는 희랍인민들”(『콜리어-스』 1948년 9월 21일호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02.

50) 위의 글, p.101.

51)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65.

52) Raphael Lemkin, *Axis Rule in Occupied Greece: Laws of Occupation, Analysis of Government Proposals for Redress*, p.191.

53)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124.

54)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57.

55) 자카리아디스(Nikos Zachariadis)는 1902년 흑해에 있는 소아시아의 니코메디아(Nicomedia)에서 비교적

령 이후 다카우 강제수용소로 끌려갔고, 기타 주요 인사들도 추방되거나 투옥되었다. 그러나 메타사스 정권 하에서 강력한 탄압을 받아온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독일의 침략 이후 곧바로 들불처럼 일어났다.

자카리아디스가 끌려가자 시안토스⁵⁶⁾가 1941년 11월 KKE 총서기 대리를 맡아, 그의 지도 아래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는 KKE 중앙위원회를 개혁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⁵⁷⁾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1941년 7월 아테네에서 노동자민족해방전선(EEM)이 창설되고, 살로니카에서도 유사한 단체가 창설되었다.⁵⁸⁾ 이러한 과정을 거쳐 KKE, 사회주의당(SKE), 농민당(AKE), 인민민주주의연맹(ELD)이 1941년 9월 27일 민족해방전선(EAM)을 창설하였다.⁵⁹⁾ EAM은 점령 시기 저항조직 가운데 최대이며,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었으며,⁶⁰⁾ 이의 창설은 점령 시기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⁶¹⁾ 점령 시기 민족해방투쟁을 주도한 EAM의 초기 선전활동은 대중적 지지를 끌어들이고 협력자들을 격리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⁶²⁾ 1942년 2월 KKE는 로우멜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스인이다. 192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산청년조직의 서기가 됐고, 흑해에서 선박 노동자로 일하였다. 카타스트로피 이후 소아시아를 떠난 그는 1923년 중반 짧은 기간 소련에 정착해 극동노동자 공산대학에 다녔고, 소련 공산당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가족들과 합류하기 위해 1924년 5월 처음으로 그리스의 살로니카에 온 그는 살로니카 당조직의 유력 인사가 되었다. 1926년에는 마케도니아 국가를 지지할 혐의로 기소되었다.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1929년 다시 소련으로 간 그는 레닌대학을 다녔고, 1931년 코민테른의 명령으로 당에 들어와 1934년 KKE 총서기가 되었다. 1936년 메타사스가 정권을 잡기 전인 그해 1월 의회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8·4정권 탄생 직후 투옥되었다. 독일군은 코르푸의 교도소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다카우 강제수용소로 이송했고, 연합국군에 의해 해방돼 1945년 5월 그리스로 돌아왔다. 내전 이후 그는 1956년 KKE 지도부에 의해 반역자로 탄핵을 받고 당에서 축출되었다. D. George Kousoulas, *Revolution and Defeat*, p.289;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13.

56) 1890년 테살리 출생의 시안토스는 청년시절 담배 노동자로 일했고, 1911-1920년 군에서 하사관 생활을 했으며, 27년부터 그리스공산당 정치국원이 되었다. 그는 이론이 빈약하고, 1929-1931년 좌파 파벌주의로의 일탈 혐의로 모스크바로부터 검열을 받는 지옥을 당하기도 했지만 당에서는 온화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다. *Ibid.*, p.70; 그는 1947년 5월 20일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그의 죽음은 KKE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는 알바니아와 불가리아가 KKE의 임시정부 수립 요청을 거절했으나 케릴라 사령관 마르코스는 임시정부 수립을 선호하였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p.144-145.

57)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49.

58)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21.

59) EAM의 목표는 민족해방과 그리스의 완전 독립 쟁취, 해방 뒤 인민 주권에 근거한 제헌의회 선거를 할 임시정부 수립, 인민의 의지에 반한 반동적 행위 중단을 위한 EAM의 권리 및 정부 수립 결정권한의 수용 등이다.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110; 맥닐은 EAM의 창설에 공산당, 통일사회주의당, 공화당, 인민민주주의연맹, 사회주의당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맥닐은 이들 정당 가운데 시리모코스(Elias Tsirimokos)의 인민민주주의연맹과 그리스 노동계의 힘을 받았던 사회주의당만이 공산주의자들과 성격이 달랐다고 말하였다.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War and Aftermath* (London: Victor Gollancz Ltd, 1947), p.62.

60) L.S. Star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65.

61)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50.

62) 1942년 9월에 비밀리에 발행된 'EAM은 무엇이며, 이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아와 질병, 결핍으로부터의 인민 보호 2. 점령 세력 및 협력자들에 대한 수동적, 적극적인

에서 게릴라전을 조직하기로 하고, 제마스(Andréas Tzemas)가 책임을 맡았다. 1942년 봄이 되자 EAM은 중부 그리스 전역에 걸쳐 지역 지도자들과 조직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1942년 4월 10일 EAM은 게릴라 부대를 창설하기로 하는 계획을 선포하고,⁶³⁾ 5월 20일에는 아리스 벨로우키오티스(Aris Velouchiotis)⁶⁴⁾가 15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ELAS 부대를 창설하였다.⁶⁵⁾ ELAS는 그리스 국가 이름인 ‘Ellas’와 동음이의어로서, 이름 자체가 조직의 강력한 선전 도구가 되었다. EAM/ELAS는 자신들의 조직을 민족적 자부심과 그리스 역사와 동일시하는데 목표를 둔 애국적이고 단순한 슬로건으로 선전활동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⁶⁶⁾ EAM/ELAS는 점령 시기 독일군의 대대적인 게릴라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코린트만에서 유고슬라비아 국경선에 이르는 광대한 산악지역과 핀두스 산맥의 서부 기슭에서 그리스의 동부해안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해⁶⁷⁾ 해방구를 만들었고 ‘자유 그리스’(Free Greece)를 구축하였다. 1943년 12월 1일 ELAS 최고사령부는 일종의 법령인 ‘자치정부와 인민정의를 위한 명령’과 함께 자유 그리스에서 동일한 행정체계를 수립하였다.⁶⁸⁾ 추축국 군대는 산악 통로

저항. 인민의 사기 양양. 모든 형태의 협력 반대 3. 그리스 노동력과 물자로 점령당국의 전쟁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령당국에 대한 일상적 마비 4.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하면서 무장투쟁과 최종적인 무장봉기를 위한 적극적 저항 5. 점령당국이 최종적으로 추방되었을 때 첫째, 민족해방투쟁 지도자들, 전투 및 승리 시기에 투쟁을 지도할 당과 단체들로 구성되는 정부 수립 둘째, 출판, 언론, 결사의 자유를 위한 즉각적 재수립 및 일반 사면 셋째, 대중정부 수립을 위한 즉각적 제헌의회 선거 요구 등이다.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p.78; 이 유인물은 근대 그리스의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며 교육자 가운데 한명인 글레노스(Demetrios Glenos)가 작성하였다. 그는 메타사스 독재정권 시기 공산당에 가입했다가 체포돼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로 인해 그는 건강을 해쳐 1943년 숨졌다. 이 유인물은 18세기 그리스 혁명가 페라이오스(Regas Ferraïos)가 발간한 “노예와 감옥에서 40년을 사는 것보다 1시간의 자유가 더 낫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p.65-66.

63)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p.64.

64) 아리스의 본명은 클라라스(Thanasis Klaras)이다. 그의 가명은 그가 태어난, 전쟁의 신 아리스(Ares 또는 Ares)의 고향인 벨로우키(Velouchi)산에서 유래하였다. 그는 포병 대령 출신이며, 게릴라로서 뛰어난 명성을 얻었다. Dominique Eudes, *Les Kapetanios*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 1970)/John Howe, translated from the French, *The Kapetanios: Partisans and Civil War in Greece, 1943-1949* (London: NLB, 1972), p.6.

65)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113; ELAS 중앙위원회 정치장교가 된 Hadzis에 따르면, KKE는 고위 그리스 장교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소진한 뒤 무장부대의 창설로 나아갔다. 1942년 2월 2일, EAM은 산간지대에서 자체 부대를 조직함으로써 점령군에 맞선 무장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폴리도로스(I. Polydoros), 제마스(Tzemas), 하드지스(Hadzis)가 동의하고, 그 뒤 이들 부대가 EAM 하의 민족인민해방군이 될 것을 시안토스가 승인하였다.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p.73. 255.

66) 지휘체계는 ‘3인 위원회’ 방식이었다. 이 위원회는 군사 지휘관, 행정 장교, EAM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3인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일종의 군사위원회 성격인 EAM 대표가 군사 지휘관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가졌다. 군사 지휘관은 작전, 기획, 보안을, 행정 장교는 보급, 무기 및 탄약 획득, 식량 징발 등을 담당했으며, EAM 대표는 정치권력을 갖는 인물이었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52.

67)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265.

등 전략지대와 주요 교량 부근의 도시에만 머물러 있었다. 영국군 특수전처 소속 장교인 스티븐스(J. M. Stevens)는 “그리스는 오늘날 두 개의 분단국가 - 점령 국가와 비점령 국가 - 가 형성돼 있다”⁶⁹⁾고까지 말할 정도로, 1944년 중반이 되자 펠로폰네스의 많은 지역도 ‘국가안의 국가’(state within a state)가 되었다. 민족민주그리스연맹(EDES)과 같은 경쟁 저항단체와 조직들만이 극소수 지역에서 EAM/ELAS의 권위에 도전할 뿐 EAM/ELAS가 장악하였다.⁷⁰⁾

EAM/ELAS는 이미 독일 점령 시기 민족해방투쟁과 함께 각종 제도와 기구의 신설·정비 등을 통해 국가건설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EAM/ELAS는 ‘자유 그리스’에서 새로운 제도와 관련 법령을 만들었고, 마을주민들은 선출직 제도에 참여하였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위원회, 식량위원회, 학교위원회, 교회위원회 등을 선출하였다. 이들 위원회들은 지방 토지개혁의 필요성, 마을목장의 보호, 방목권과 식량분배와 같은 현안을 처리하였다. 인민법정을 운영해 마을의 법률적 분쟁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게 하였다.⁷¹⁾

공화파 우익 저항단체인 EDES는 1941년 9월 9일 일단의 베니젤리스트파 장교들에 의해 그리스 서북부 지대의 에피루스 산간지대에서 창설되었다.⁷²⁾ 창설 요원들과 대부분의 대원들은 1930년대 퇴역한 장교와 사병들이 중심이 되었다.⁷³⁾

이와 함께 1941년 이후 활동하면서, 살로니카 북부 지방에는 소규모 게릴라부대를 조직한 민족그리스해방조직(PAO)이 있었고, 로우멜리 지역에는 게릴라 부대를 양성한 민족사회주의해방조직(EKKA)이 있었다. 이 단체의 정치 지도자는 공화파인 카르탈리스(Kartalis)였고, 군 지휘관은 사로스(Psaros) 장군이였다.⁷⁴⁾

68) L.S. Star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83.

69) Lars Baerentzen, ed., *British Reports on Greece: 1943-1949* (Copenhagen: Museum Tusulanum Press, 1982), pp.2-3.

70)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265.

71)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p.269-275; 해방과 사회정의, 경제발전, 민주 참여, 양성평등의 EAM의 프로그램은 많은 지역에서 호응을 얻었다. 또 EAM의 사회봉사에 의사와 교육자, 지식인과 작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여성해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77; William H. McNeill, *Greek Dilemma*, pp.63-64.

72) EDES의 창설 목표는 5가지다. 첫째, 종전 이후 사회민주정권의 수립 둘째, 게오르기 2세의 반역과 그의 독재행위에 대한 탄핵 및 ‘84정권’ 참여자에 대한 처벌 요구 셋째, 국가의 모든 반민주 인사들에 대한 숙청 및 경찰과 헌병의 해체 넷째, 단체 상호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균등 수립 다섯째, 자유선거에서 민족에 의한 EDES의 목표 승인 추구 등이다. 그러나 EDES는 이러한 정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실패하였다.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p.105-106.

73) 이 단체의 명목상의 대표는 플라스티라스(Nikolaos Plastiras) 장군이였지만, 고나타스(Gonatas) 장군과 제르바스(Napoleon Zervas) 대령이 이끈 위원회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스의 저항단체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각 정파에 따라 입장은 크게 달랐다. 플라스티라스 장군은 1922년의 정부 붕괴를 지지한 구공화파 장교이며, 1935년 쿠데타 미수사건의 주동자였다.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p.73-74, 255;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21.

74)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59.

EDES와 EKKA는 그리스의 중부 및 서부 지방에서 활동했으나 전국적으로 조지를 확대시키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지 못한 채 영국군의 돈과 무기에 상당부분 의존하였다.⁷⁵⁾

한편, 독일은 그리스를 점령한 뒤 메타사스와 관리들, 특히 친독협력파 관리들을 동원해 통치하였다. 1941년 6월부터 1942년 12월까지 솔라코글루 친독협력정부는 경찰과 보안위원회를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메타사스식 소탕작전을 지속하려 하였다.⁷⁶⁾ 이어 1942년 12월부터 1943년 4월까지 두 번째 친독협력정부 총리로 코스테토폴로스(Constantine Logothetopoulos)는 의대 교수 출신이었다. 이어 1943년 4월 6일부터 점령이 끝날 때까지 협력정부 총리로 있던 랄리스(Ioannis Rallis)는 보안부대를 창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친독협력정부의 3대 총리가 되었다.⁷⁷⁾ 랄리스가 보안부대를 창설한 이유는 메타사스 정권을 대표하거나 초기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했던 마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사업가, 국가 관리 등과 같은 지역의 명망가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⁷⁸⁾ 랄리스는 1944년 초 독일군의 지원으로 보안부대를 충원하기 위해 강력한 모집운동을 벌였다.⁷⁹⁾ 보안부대들은 펠로폰네스의 도시에서 수비임무를 맡고, 대게릴라 작전에 투입되면서 남부 그리스에서 민족해방세력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1943-1944년 겨울 4개의 새로운 대대들이 창설돼 중부 그리스에서 활동했고, 반공 비정규군도 마케도니아에서 독일군의 작전에 참가하였다.⁸⁰⁾

영국군 마이어스(E. C. Myers) 대령이 이끄는 최초의 영국군 부대가 '할링임무단'(Harling 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EAM/ELAS가 장악한 스트롬니(Stromni) 부근에 1942년 10월 초 낙하산으로 투입돼 11월 25일 ELAS와 EDES의 지원을 받아 아테네에서 동쪽으로 90마일 정도 떨어진 고르고포타모스(Gorgopotamos)강의 철교를 성공적으로 폭파하였다.⁸¹⁾ 이 폭파사건은 전국의 저항활동에 상당한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그 뒤 게릴라는 급속히 성장하고 공산계열의 지도력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⁸²⁾ 이 사건 이후 영국은 그리스의 게릴라 능력을 인식하고

75) Polymeris Voglis, *Becoming a Subject*, p.46.

76)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63.

77)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41;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63.

78)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96.

79)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92.

80)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p.172, 308.

81)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p.54-57;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138.

82)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135.

보다 많은 영국군이 낙하산을 이용해 그리스에 투입됐으며, 이는 나중에 영국군 사사절단으로 통합되었다.⁸³⁾ 마이어스 대령은 그리스 케릴라에 대한 최초 보고서에서 EAM을 ‘그리스를 해방하기 위해 조직된 진정한 단체’로 묘사하였다.⁸⁴⁾ 사실 독일군과 그리스 친독협력정부는 끊임없이 EAM과 싸웠으며 영국의 처질정부와 그리스 망명정부도 EAM에 반대하고 경쟁 저항조직들을 선호하였다.⁸⁵⁾

독일은 1944년 9월 초가 되자 그리스 남부지방과 에게해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만나작전’(Manna Operation)으로 알려진 연합국의 그리스 해방 계획에 따라 해방군은 영국의 제2낙하산여단과 제23장갑여단, 200-300여명의 영-미 특공대, 자유 그리스 상륙군으로 구성되었다. 자유 그리스 상륙군은 그리스 산악여단(리미니여단)과 에게해 제도에 있었던 신성부대(Sacred Band)로 알려진 소규모 특공대였다.⁸⁶⁾ 11월 1일 독일군이 살로니카 북쪽과 플로리나에서 철수했고, 10일 뒤 그리스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이에 앞서 점령 시기인 1943-1944년 겨울, EAM은 파판드레우⁸⁷⁾와 전전(戰前) 정치계에서 진보적 인사들을 접촉해 ‘자유 그리스’의 임시정부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파판드레우는 거부한 반면 구 자유당의 좌파 출신 인사들과 스킴로스(Alexander Svolos)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를 수용하였다.⁸⁸⁾

이에 따라 1944년 3월 10일 EAM/ELAS는 자유 그리스에서 임시정부 성격의 민족해방정치위원회(PEEA)를 공식 수립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EAM 소속만이 아니라 헌법 전문가인 스킴로스와 안겔로포울로스(Angelos Angelopoulos), 메타삭스 정권 시절인 1938년 쿠데타를 주도했던 유일한 고위 장교 출신인 만다카스(Emmanouil Mandakas), 왕당파이면서 친독협력부대인 EKKA에서 탈출해 합류한 바키르티지스(Euripides Bakirtzis)가 포함되었다.⁸⁹⁾ 1944년 여름이 되자 강력한 군대, 효율적인 행정 및 사법조직, 그리스 전역의 모든 부분을 대표하는 민족의회 구성 등 EAM은 자유 그리스에서 완전한 국가기구를 만들었다.⁹⁰⁾ PEEA는

83)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57.

84) "Political Aspects of the Greek Resistance Movement," FO 371/37201 74220 R 2050(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p.79-80에서 재인용).

85)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84.

86)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87.

87) 파판드레우는 Venizelos의 추종자로, 1915년 그를 대신해 주지사를 역임했고, 1920년대 2개 행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1930-1932년 베니젤로스 행정부에서 교육부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35년 베니젤로스가 최종 은퇴한 뒤 그는 자유당에서 나와 민주사회당을 만들었다. 그는 전시 저항운동에 참여해 이태리 당국에 의해 투옥되기도 했고, EAM의 공격으로 그리스를 떠났으며, 공산당이 독재정권을 구축하려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08.

88)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291.

89)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88.

그리스 망명정부의 상대역으로, EAM/ELAS가 산간지대에 세운 대안정부⁹¹⁾이며 임시정부였다. 따라서 이 시기 사실상 그리스에는 PEEA 외에 망명정부와 협력 정부를 합쳐 3개의 정부가 있었다.

3) 탈점령 이후 그리스의 국가건설과정

1944년 10월 12일 아테네가 해방되고 10월 18일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éou) 망명정부 총리가 영국군과 함께 아테네에 입성하였다. 파판드레우는 아테네에 들어오자마자 EAM이 아테네의 모든 부문을 장악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파판드레우가 활용할 수 있는 무장력은 처음에 3천여명도 안되는 아테네시 경찰로 구성됐으며, 이들 가운데 4분 1은 EAM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 앞에서 도착연설을 통해 EAM에 양보를 하였다. 그는 EAM/ELAS의 슬로건인 ‘인민 통치’(laokratia)를 주장하고, EAM의 적대세력인 친독협력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약속하였다.⁹²⁾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EAM/ELAS는 ELAS의 파견대를 아테네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파판드레우는 아테네의 모든 막사 수용시설이 영국군이거나 자유 그리스군이 사용하게 된다는 구실로 거절하였다.⁹³⁾ 1944년 10월 25일에는 아티카 지역 사령관으로 스피리오토포울리스(Spiliotopoulos) 장군 대신 자유그리스군 사령관 카트소타스(Katsotas)으로 대치됐고, 10월 30일에는 EAM의 자위대 성격인 EP(민족시민방위대)의 무장해제를 포고하였다.⁹⁴⁾ 또한 친독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24명의 주요 친독협력자들이 기소되었으나 국가기구나 보안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인물은 없었다.⁹⁵⁾ 1945년 2월 바르키자협정

90)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84.

91)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73.

92)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116, 118-120, 127-128; ‘인민통치’(laokratia)와 ‘민주통치’(democratia)는 둘다 인민의 통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나치 치하의 그리스인들은 ‘laokratia’를 외쳤다. ‘democratia’는 고어이며, 구질서 즉 완전한 민주주의가 주어지지 않았던 전전(戰前) 의회제도를 의미하였다. 반면 ‘laokratia’는 미래에 대한 희망, 새롭고 보다 의미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 제도보다는 인민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laokratia’는 점령 그리스의 새로운 지적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64.

93)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93.

94) EP는 지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EAM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자위대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독일군이 철수하기 전 EAM이 통제하는 일부 지역에서 수주일 동안 작전을 벌였으며, 나중에는 EAM의 민간 경찰로서 규모가 증대되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무장해제 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수단이 없어 EP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였다. *Ibid.*, pp.92-93.

95) 그러나 유럽의 여타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협력행위에 대해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다음의 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협력자들에 대한 유럽 국가의 처벌을 보여준다.

에 따라 그해 봄에는 그리스 정부가 국가기구로부터 친독협력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였다.⁹⁶⁾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친독협력자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친독협력정부 총리였던 탈리스는 재판을 기다리다가 숨졌으며, 극소수의 협력자들은 징역형을 받았다. 심지어 그리스군은 보안대대 대령이었던 파파돈고나스(Papadongonas)를 그가 죽은 뒤 소장으로 승진시켰다가 1945년 8월 22일 정부에 의해 취소되기도 하였다.⁹⁷⁾ 점령 시기 아테네 경찰국장 에바르트(Angelus Evart)는 영국의 도움으로 해방 이후에도 다른 여러 협력자들처럼 그 직책에 있었고, 협력정부 하에서 일했던 수천여명의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⁹⁸⁾ 1945년 9월의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공식 집계를 보면, 1만 7232명이 수용됐는데 이 가운데 1만여명 이상이 좌익인사이고 1246명만이 친독 협력자로 분류되었다.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1945년 말이 되자 4만8956명의 EAM 지지자들이 수감되었다. 나플리온(Nafplion) 교도소는 재소자 460명 가운데 4명만이 협력자이고 407명은 좌익이었다.⁹⁹⁾

추축국 점령 당시 기아와 통화제도의 파괴를 경험한 그리스와 연합국 당국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충분한 식량 제공과 새로운 화폐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어려운 문제였다.¹⁰⁰⁾ 해방 이후에도 그리스의 식량부족은 계속되었다. 그리

<표 4-2> 유럽 국가들의 협력자 처벌 수준

| | 기소 | 유죄 | 사형판결 | 처형 | 해방뒤 즉결처형 |
|------|---------|--------|---------|-----|----------|
| 벨기에 | 346,000 | 53,172 | 2,895 | 242 | 12 |
| 네덜란드 | 150,000 | 60,000 | 285* | 40 | 22 |
| 덴마크 | 20,000 | 12,877 | 76 | 46 | |
| 노르웨이 | | | 30 | 25 | |
| 프랑스 | 124,751 | 73,501 | 6,763** | 770 | 4,167 |

* 이들 가운데 160명은 종신형으로 감형. ** 이들 가운데 3,190명은 부재중판결

Procopis Papastratis, "The Purge of the Greek Civil Service on the Eve of the Civil War", Lars Bærentzen, John O. Iatrides and Ole L. Smith,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pp.42, 47.

96) 법률 제6조는 친독협력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에 관한 조항이고, 법률 제26조(1945년 3월 24일)는 구체적으로 점령 시기 적군과 협력하였던 공무원들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Procopis Papastratis, "The Purge of the Greek Civil Service on the Eve of the Civil War", Lars Bærentzen, John O. Iatrides and Ole L. Smith,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p.41.

97)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253.

98) Frank Smothers, William H. McNeill, and Elizabeth Darbishire McNeill, *Report on the Greeks: Findings of a Twentieth Century Fund Team which surveyed conditions in Greece in 1947*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48), pp.34-35.

99) Mark Mazower, "Three Forms of Political Justice: Greece, 1944-1945", Mark Mazower, ed., *After the War was Over*, p.38.

100) Christos Hadziiossif, "Economic Stabilization and Political Unrest: Greece 1944-1947", Lars Bærentzen, John O. Iatrides and Ole L. Smith,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p.25.

스는 식량을 수입하면서도 물가는 앙등하고 재고품은 팔리지 않는 기현상을 빚었다. 이는 아테네시 이외의 교통기관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져 상인이 소량의 물자를 매각해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저장하기 때문이었다. 전후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은 일부 생산업자와 결탁한 대규모 수입상인들이었다.¹⁰¹⁾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민들에게 ‘생존’이 최우선 관심사였으며,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를 떠나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이상(理想)’이었다.¹⁰²⁾ 1944년 독일 점령 하의 그리스에서 한 영국군 장교는 “그 누구도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자유로운 적은 없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¹⁰³⁾ 독일의 그리스 점령 시기 그리스 빨치산 연합군 군사사절단장 우드하우스는 그리스 한 농민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1942년 산간 마을에 살고 있었다.……그는 우선적으로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그들은 당시 산꼭대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옳았다) 좌익 저항운동에 가담하였다.……공산주의자가 아니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운동에 우연히 가담하였다.……그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다. 그가 산간지대에 살았다면, 우선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평지대에 살았다면, 보안대대와 협력기관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¹⁰⁴⁾

파판드레우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영국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영국군이 해방군에서 점령군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년 6개월 동안의 점령 기간에 연합국은 저항단체의 전사들을 나치 치하 유럽의 ‘자유의 선구자’로 찬양했으나 1944년 12월이 되자 저항단체는 그리스 정부와 영국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로 바뀌었다.¹⁰⁵⁾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리스의 국내 분열은 발칸의 어떤 국가보다도 심해 해방 이후 6개월 사이에 3개의 정부와 61명의 각료가 바뀌었다. 이처럼 혼란스런

101) 휴 세튼 왓슨(Hugh Seton Watson) 씀, 안종목 역, ‘希臘의 近政’,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14. 이 글은 휴 세튼 왓슨이 영국신문 맨체스터 가디언에 쓴 것을 번역해 실은 것이다.

102) 켈턴 레이놀드 씀, 전성철 역, ‘내란에 신음하는 희랍인민들’(『몰리어스』 1948년 9월 21일호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03.

103) "Woodhouse report on the situation in Greece, January to May 44 (5 July 1944)", PRO, FO 371/43689/R10469(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p.116에서 재인용).

104) C.M. Woodhouse, *Apple of Discord*, pp.58-59.

105)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101.

그리스의 정당들은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세력에 좌우되며 정강이나 정책, 이데올로기는 부수적인 문제였다.¹⁰⁶⁾

1944년 12월 EAM/ELAS의 봉기로 시작된 2차 내전은 영국군의 개입으로 1945년 2월 ELAS의 무장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바르키자협정으로 종결되었다. ELAS의 무장해제가 이뤄진지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우익은 모든 그리스 정부 기구를 장악하였으며, 좌익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받은 우익에 의한 산발적인 테러는 1946년 3월 실시된 선거 때까지 우익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 폭력적 반공주의와 반 슬라브 선전활동과 결합돼 일어났다.¹⁰⁷⁾

1945년 11월 19일 영국 외무장관 베빈은 그리스 섭정 다마스키노스에게 연합국 감시하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진의하였다.¹⁰⁸⁾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도 그리스의 질서 회복 수단으로서 연합국 감시하의 선거를 고려하였다. 심지어 1944년 12월 이후 맥비는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다. 그리스 사회가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는 가운데 해방 이후 최초의 총선거가 1946년 3월로 결정되었다. 이 시기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연합국이 감시하는 선거를 안정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미 국무장관 번즈는 “그리스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보다 나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대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투표에 앞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생각하였다. 베빈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였고, 선거일을 1946년 3월 31일로 확정해 선거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¹⁰⁹⁾ 선거 실시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 그리스의 정치세력들은 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우익은 국민투표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기권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고, 반면 중도파와 좌파는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였다.

1945년 11월 13일 영국 외무부 차관 맥닐(Hector McNeil)이 아테네에 도착으로 소포울리스 하의 공화-중도파 정부가 수립됐는데, 이 정부는 법과 질서의 회복, 1946년 3월 31일의 선거 실시와 함께 1948년까지 헌법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의 연기를 처리해야 하는 관리정부였다. 좌파가 처음에는 소포울리스 정부를 지지한 반면 맥닐은 이 정부의 존재이유를 경제 혼란을 해결하고 내전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영국은 소포울리스 정부의 실패는 우파의 전복과 KKE와

106) 조세프 S. 류섹(Josep S. Roueck), 『希臘의 政治政勢』(Government and Politics Abroad 1947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p.82, 85.

107) Frank Smothers, William H. McNeill & Elizabeth D. McNeill, *Report on the Greeks*, p.28.

108)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162.

109)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pp.38-39.

의 무장충돌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파인 인민당은 즉각 정부를 그리스 인민에 대한 '독재' 또는 '폭정'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익은 좌파에 대한 박해를 계속하였고, 군·경, 헌병, 국가기구 등을 동원해 법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소포울리스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례대표제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우파의 항의와 함께 1946년 1월 17일 인민당 지도자 살다리스와 유명 자유당 인사 소포클레스 베니젤로스는 자유당과 인민당이 연합할 수 있도록 섭정 다마스키노스 주교에게 탄원하였다. 다마스키노스는 소포울리스에게 다수대표제 선거 계획과 양당의 공동 후보 지명을 제안하였다. 소포울리스는 그와 같이 할 경우 자유당과 인민당간의 차이가 퇴색하고 공산주의와 왕당파가 장악한 반공산주의간의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소포울리스는 의회에서 어느정도 의석을 가진 좌파 정당의 출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 우익과 영국의 환심을 거의 얻지 못하였다. 소포울리스는 3월 7일 EAM과 자유당간 50:50 비율로 선거구 연합과 2개월 동안의 선거 연기를 요구한 KKE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카리아디스의 유사한 제안도 거부하였다.¹¹⁰⁾

KKE를 포함한 좌파정당들은 선거 참여 전제조건으로 선거명부의 완전 개정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당시 그리스 선거명부는 전전에 만들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점령 시기 다른 곳으로 이주해 오류가 많았다. 또 1945년 6월 9일 제정된 선거법도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신분증이나 거주 증명서 등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익이 장악한 군·경, 헌병, 관료들로부터 받아야 했기 때문에 비왕당파 성향의 시민들은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시민들은 어렵게 성공적으로 절차를 끝마치면 선거증이나 보증서를 받았지만 이는 극우조직인 'X' 같은 조직이 발급한 것이었다.¹¹¹⁾

EAM은 정부가 왕당파로 하여금 투표함을 독점하게 하기 위해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¹²⁾ KKE 총서기 시안토스는 12월 23일 아테네의 한 경기장에서 7만여명의 그리스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영국은 그리스를 포기하고 그리스인들의 손에 맡기는 한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좌파정당들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시안토스는 점령 시기와 12월 봉기 이후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완전사면과 저항운동의 인정

110) Thanasis D. Sfikas, "A Prime Minister for All Time: Themistoklis Sofoulis from Premiership to Opposition to Premiership, 1945-49", Philip Carabott & Thanasis D. Sfikas, eds., *The Greek Civil War*, pp.77-78.

111)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p.163-164.

112) 조세프 S. 류섹(Joseph S. Roueck), '希臘의 政治政勢'(Government and Politics Abroad 1947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82.

을 요구하였으며, 사회주의당 부총재인 시리모코스(Elias I. Tsirimokos)도 저항 운동의 인정은 그리스의 부흥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¹³⁾

아테네에서 선거준비를 하는 동안 지방에서는 경찰과 헌병의 묵인 아래 우익들이 테러행위를 자행하자 각료 11명은 정상적인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선거 연기를 요구하고 사임하였다. 외무장관 소피아노풀로스(Sophianopoulos)가 1946년 1월 “광범위한 사면을 하지 않고 국가기구에 의한 테러가 중단되지 않으면 자유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사임하였다. 그리스 부총리 카판다레스(Yeoryios Kaphandares)는 3월 9일 다가오는 선거는 ‘코미디’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없이 1944년 12월 봉기에 무력 개입을 한 영국 정부에 있으며 좌익의 패배는 우익에게 위험한 테러 정권을 수립할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고 비난하며 사임하였다. 그는 “영국이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오늘날 그리스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야만과 폭력의 일방적 정권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영국의회의 80여명의 의원들은 자유선거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리스 정부에 좌익을 포함토록 하는 한편 국가기구에서의 친독협력자 숙청, 정치범에 대한 사면, 선거명부의 수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3월 23일 『뉴욕헤럴드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도 “총선 연기를 주장하는 그리스 정치권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그리스 정부 각료의 사임과 영-미 의회 및 언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베빈은 2월 20일 영국의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3월 31일의 선거 실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출신의 1200명으로 구성된 ‘연합국 그리스선거감시위원단’(AMFOGE)이 투표 절차를 감시하기 위해 2월 도착하였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미국인들이었다. 이들은 240개반으로 나뉘어 투표소의 절반을 방문했고 선거명부를 확인하였으며, 선거일 선거절차를 감시하였다.¹¹⁴⁾ 해방 이후 친독협력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는 우익과 친독협력세력들이 득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투표 참가율이 49%에 그친 1946년 3월 31일의 총선거는 인민당

113) *New York Times*, 1945. 12. 24.

114)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p.164-169; Thanasis D. Sfikas, "A Prime Minister for All Time: Themistoklis Sofoulis from Premiership to Opposition to Premiership, 1945-49", Philip Carabott & Thanasis D. Sfikas, eds., *The Greek Civil War*, pp.77-78. 미국은 국무부 전차관보 그래디(Henry F. Grady)를 단장으로 600명을 과건해 100개의 감시반을 구성하였다. *New York Times*, 1945. 12. 26; AMFOGE의 선발대는 11월 말에 아테네에 도착하였다. William Hardy McNeill, *The Greek Dilemma*, p.189.

등 우익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 결과 우익이 354석 가운데 231석을 차지하였다.¹¹⁵⁾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3명은 독일 점령 시기 친독협력부대 지휘관 출신이며, 장관 1명은 친독협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¹¹⁶⁾

AMFOGE는 “선거절차는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하였고, 결과는 진실되며 그리스인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선거가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 좌익의 심각한 위협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¹¹⁷⁾

그러나 공정선거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많은 불법과 의혹이 제기된 엉터리 선거였다는 비판을 받았다.¹¹⁸⁾ AMFOGE는 그리스 상황에 대해 무지했고, 유권자들에 대한 위협을 막을 수도 없었다.¹¹⁹⁾ 선거인 등록 조작과 유권자 위협이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일부 선거인 명부는 10년이나 오래된 것이어서 선거인 등록이 어려웠으며, 1940년 이전 인구조사시기에 거주했던 선거구에서 투표하도록 돼 있었다. 관행적인 등록 절차도 복잡하였다.¹²⁰⁾ 정치인들은 우익집단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몇몇 정치인들은 저격되었다. AMFOGE는 유권자의 29%가 무효이거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1946년 9월의 국민투표 이전에 선거인 명부의 개편과 새로운 인구조사를 건의하였다.¹²¹⁾

좌파의 선거 보이코트는 우익들에게 전후 정부 구성을 장악하기 위한 주도권을 넘기고, 그리스 사회에서 EAM의 영향력을 파괴하는 반면, KKE는 정치적으로 주변부화 됨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좌파로서는,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탈점령 이후 최초의 선거를 통한 그리

115) William Hardy McNeill, *The Greek Dilemma*, p.193; Frank Smothers, William Hardy McNeill, and Elizabeth Darbishire McNeill, *Report On the Greeks*, p.29; David H. Close,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Right, 1945-1950", John O. Iatrides and Linda Wrigley, eds., *Greece at the crossroads: The Civil War and Its Legacy* (Pen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5), p.136.

116)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189-190.

117)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p.193; Frank Smothers, William Hardy McNeill, and Elizabeth Darbishire McNeill, *Report On the Greeks*, p.29; 선거에 참가한 정당은 인민당(왕당파), 민족정치연맹(파판드레우, 베니젤로스, 카넬로폴로스), 민족해방(고나타스), 자유당(소포울리스), 군소 왕당파 정당들이며, 선거에 불참한 정당은 EAM 진영(공산당, 사회주의당, 농업당, 급진공화당, 민주연맹), ELD 사회주의당(스볼로스), 공화좌파연맹(소피아노폴로스), 진보공화당(카판다레스), EAM 외부의 농업당(밀로나스) 등이었다.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p.168-169.

118) 북조선노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강연자료 제13집, 『戰後의希臘』(“세계정치와 경제 제8호에 서) (평양: 북조선노동당중앙본부, 1948), p.6.

119) William H. McNeill, *Greek Dilemma*, pp.189-193;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p.169-171.

120)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p.163-164; *FRUS* 1945, Vol. VIII, pp.126, 156-157.

121)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174-175.

스의 국가건설과정은 좌파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처벌 등 좌파 배제의 과정이었으며, 결과는 반공-우익 국가건설이었다.¹²²⁾

2. 남한

1) 남한의 국가건설과정

냉전체제 형성기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은 미국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한반도의 국제적 관리라는 측면을 중시해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구상하였다.¹²³⁾ 이러한 구상은 유엔현장의 신탁통치 대상지역을 규정한 제12장 제77조 제1항 (나)항에 근거한 것으로서,¹²⁴⁾ 이 구상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 4개국 신탁통치로 변하게 되었다.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상회의가 열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처리와 관련해 사전에 소련에 4개국에 의한 조선의 신탁통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선의 통합행정’이라는 특별비망록을 전달하였다.¹²⁵⁾ 그러나 소련은 신탁통치에 선행하는 통일행정부의 설치를 거부하고, 미국의 제안을 검토한 뒤 ‘선 정부수립, 후 신탁통치’를 대안으로 제출하는 한편 신탁통치 기간은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출해¹²⁶⁾ 12월 28일 3상회의에서 타결되었다.¹²⁷⁾ 한반도의

122) Polymeris Voglis, *Becoming a Subject*, p.5.

123) 국무부 관리들은 알타회담에 대비해 1944년 봄 태평양전쟁위원회가 준비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선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서는 한반도의 점령에 있어 연합국들의 참여와 민간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련이 태평양전쟁에 참전할 경우 4개국 신탁통치를 제의하였다. 루즈벨트는 이어 1945년 2월 알타에서 스탈린과 회담, 조선 문제를 제기하고 3개국 신탁통치를 제의했으며,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경험을 지적하면서 조선에서 신탁통치를 20년 내지 30년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Briefing Book Paper, "Inter-Allied Consultation-Korea", n.d., *FRUS-Malta and Yalta*, pp.358-361 (James Matray,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p.42에서 재인용); William W. Stueck, Jr.,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pp.36-37.

124) 유엔헌장 제12장(국제신탁제도) 제77조

1. 신탁제도 적용은 신탁협정에 의해 이 제도 밑에 다음과 같이 각 종류의 영토로 분별한다.
(가) 현재 위임통치하의 영토
(나) 제2차 세계대전 결과로 인하여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영토
(다) 관리책임을 부한 국가가 자원하여 차 제도 하에 놓여있는 영토
2. 상기 종류중 어떤 영토든지 장차 신탁제도 하에 놓으려는 그 조건에 관하여는 차후 타당한 규정의 사정
으로 협정한다. <http://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12.shtml> (검색일 2009. 8. 20).

125) 미국이 제안한 비망록의 주요 내용은 ① 교통·통신·체신·교역·산업 등 일체의 현안을 취급할 남북간 통일행정부의 조속한 수립 ②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 등이었다. 신탁통치안의 주요내용은 ① 4개국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수행해 조선이 독립할 때까지 5년간 신탁통치를 하며,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탁통치 하에서 행정을 담당할 국제민간행정기구로 1명의 고등관무관과 4개국을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FRUS 1945*, Vol. II, pp.641-643.

126) *Handbook of Far Eastern Conference Discussion*, H-13~15(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pp.147-148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정용욱은 미국의 제안은 비정치적·행정 실무적 문제를 우선시키고, 국제적인 해결방식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주도권과 우세를 보장받으려 한 반면, 소련은 해방 이후 조선

임시민주정부 수립과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결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이듬해 1월 16일 소련측 스티코프 중장과 미국측 전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을 양측 대표로 3주일 동안 예비회담이 열린 데 이어 3월 20일 개최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협의 대상 정당·사회단체’ 선정문제로 논란을 겪다가 5월 8일 무기한 휴회되었다. 이승만은 6월 3일 이른바 ‘정읍발언’을 통해 “무기휴회된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남한: 인용자)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²⁸⁾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미-소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의 남과 북이 미국과 소련의 이해를 반영해 서로 다른 체제로 고착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¹²⁹⁾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유엔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다시 나타났다. 트루먼 대통령의 개인특사로 극동을 순방중이던 폴리는 1946년 6월 22일 트루먼에게 소련에 조선의 상황에 대한 모스크바 협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유엔 또는 4대국에 회부할 것’을 건의하였다.¹³⁰⁾

맥아더 장군은 1947년 1월 22일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로 남한의 상황이 심각함을 제기하고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을 본국 정부에 제기하였다.¹³¹⁾

내 정세나 좌우세력관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정부수립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주도권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127) 3상회의에서 체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창설 ② 미·소군 사령부 대표로 공동위원회 조직 및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 ③ 공동위원회는 조선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 협정 작성. "Communique on the Moscow Conference of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Soviet Unio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Soviet News,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Question(Documents)* (London: Farleigh Press, 1950), pp.7-8; 북조선민전 중앙위원회 서기국 편, 1947, 『소미공동위원회에 관한 제반 자료집』 (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음,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3 (서울: 돌베개, 1986), p.37);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어느 혁명가의 수기』 (서울: 사계절, 1987), pp.96-97.

128) 『서울신문』, 1946. 6. 4.

129) 신용중, 『미·소의 대한반도정책, 1943-1948』,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 p.159.

130) Ambassador Edwin W. Pauley to President Truman, June 22, 1946, *FRUS* 1946, Vol. VIII, pp.706-709.

131) 조선문제 해결을 위한 맥아더의 4대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 ② 현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결방안 건의 목적을 지닌 비관계국들을 포함하는 위원회 조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천 ③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조선과 관련있는 한 모스크바 협정의 제 3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견지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정부 간의 추가 회담 ④ 독립국가로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소 대표간의 최고위급 회담 등이다.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Vincent)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27, 1947, *FRUS* 1947, Vol. VI, pp.601-603.

이처럼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한 재고 요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였다. 1947년 2월 워싱턴에서는 조선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에게 정책건의를 하기 위해 구성된 ‘조선문제에 관한 부처간 특별위원회’가 미국의 정책방향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특별위원회는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와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한 대안을 분석한 뒤 정책을 건의하였다.¹³²⁾ 이 위원회는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를 전제로 한 대안으로 첫째, 현 정책과 계획의 유지 둘째, 남한 단독정부 인정 셋째, 한반도 문제의 4대국 또는 유엔 이관 넷째, 남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하였다.¹³³⁾ 이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음을 의미하였다.

4월 11일 미국 국무장관 마샬은 소련 외상 몰로토프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 협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샬은 조선에서 소련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2단계 조치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미-소가 조선의 독립을 해결하기 위해 여론의 자유에 대한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공동위원회 재소집에 동의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위원단의 활동과 관련해 미-소 정부에 의해 날짜가 1947년 여름으로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마샬은 “모스크바 협정 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필요한 단계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유엔을 통한 단독정부 수립 의지를 내비쳤다.¹³⁴⁾ 이에 부응해 하지는 서울에서 마샬의 서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소련이 모스크바 협정에 따른 계획을 거부하면 우리는 우리 지역(남한: 인용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안정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고 마샬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였다.¹³⁵⁾

1947년 5월 22일 재개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7월 말 협의대상 문제로 휴회돼 결렬되는 것이 확실해지자 유엔으로의 조선문제 이관이 ‘현실적 방안’으로 적극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 방향은 1947년 8월 4일

132) Memorandum by the Special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Korea, February 2, 1947, *FRUS* 1947, Vol. VI, pp.608-618.

133) 특별위원회는 고려사항 가운데 ‘현 정책과 계획의 유지’에 대해 조선인들이 날마다 군정과 조선에 있는 미국인, 미국 자체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반감이 이미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폭동과 소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비효율적인 계획에만 매달리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4대국 또는 유엔 이관’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면 궁극적으로는 유엔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bid.*

134) 모스크바 AP보도,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7. 4. 13.

135) 서울발 UP 보도,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7. 4. 14.

의 SWNCC 176/30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문서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하고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모스크바 협정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처리를 폐기하고 ‘한반도의 소비에트화’를 막기 위해 미국 자체의 계획에 따라 유엔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해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것이다.¹³⁶⁾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무장관 대리 로베트(Robert A. Lovett)는 1947년 8월 26일 소련측에 미·영·중·소 4대국 회담을 제안하였다. 로베트의 제안은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1947년 9월 8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이 문제에 관한 4대국 회담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였다.¹³⁷⁾ 영국과 중국은 미국의 제안을 수락했으나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9월 4일 미국 국무장관 마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 제안들이 남북한에 독립된 임시 입법기구의 수립을 예상하는 한 조선의 분단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¹³⁸⁾ 그러나 소련의 거부가 예상된 상태에서 로베트의 제안은 조선 독립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유엔이 한반도 문제를 관장하게 되면 소련에 ‘세계 여론’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신탁통치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하거나 소련의 대응을 알림으로써 남한내 정부수립 명분을 축적할 수 있었다.¹³⁹⁾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자 미국은 9월 17일 한반도 문제를 유엔 2차 총회 회기의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한 것은 미-소 공동위원회 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며 한반도 문제를 미국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였다.¹⁴⁰⁾

유엔총회는 9월 23일 열린 제90, 91차 회의에서 소련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측 상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제1위원회(정치위원회)에 넘겨 심의해 보고토록 결정하였다.¹⁴¹⁾ 소련과 미국 대표가 논쟁 끝에 1947년 11월 14일 열린 총회에서 수정된 미국측 안을 채택하게 되었다.¹⁴²⁾

136) SWNCC 178/30, Report by the Ad Hoc Committee on Korea, 4 August, 1947, *FRUS* 1947, Vol. VI, pp.738-741.

137)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the Soviet Union, August 26, 1947, *FRUS* 1947, Vol. VI, pp.771-774.

138) The Soviet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olotov)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4, 1947, *FRUS* 1947, Vol. VI, pp.779-781.

139) 전상인, 『고개숙인 수정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2001), p.136.

140) 결렬 상태나 다름없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는 10월 18일 제62차 본회의에서 미국이 공동위원회 업무의 중단을 제의했고, 소련 대표들은 10월 21일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김득중, 『제헌국회의 구성과정과 성격』,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p.9.

141) 유엔조선위원단 지음, 임명삼 옮김, 『UN조선위원단 보고서』 (서울: 들베개, 1984), p.16.

유엔의 한반도 문제 결의안은 임시위원단에 한국민 대표 선출과 협의 권한을 새로 부여한 것 이외에는 미국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이었다. 이 결의안의 채택은 남한지역만의 국가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UNTCOK는 남한 단독선거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끝에¹⁴³⁾ 2월 6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의 유엔 소총회 상정을 결정하였다.¹⁴⁴⁾ 유엔 소총회는 미국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설득한 결과 2월 26일 남한 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선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¹⁴⁵⁾ 결의안 통과에 따라 UNTCOK는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월 28일 인도와 캐나다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비공식회의를 열고 5월 9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¹⁴⁶⁾ 선거일은 애초 유엔 결의안에 따라 3월 31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했으나 첫째, UNTCOK의 선거법 승인 자체에 따른 미군정과 관련 미국 기관의 준비 차질¹⁴⁷⁾, 둘째, 국회선거위원회의 선거준비 기간의 절대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일 연기 요청¹⁴⁸⁾, 셋째,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의 선거법 승인 지연에 따른 선거의 기술적 준비 지연¹⁴⁹⁾이 문제가 돼 5월 9일로 연기됐고, 이어 4월 2일에는 하지가 선거일을 5월 10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UNTCOK는 다음날 제31차 회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5월 10일로 선거일이 확정되었다.

미군정은 5·10선거 기간을 미군의 남한 점령기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간주

142)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1948년 3월 31일까지 비밀투표와 성인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대표들은 국회를 조직해 조선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제외한다. 남북 양 지역에서 선출될 대표의 수는 인구에 비례할 것이며, 위원단의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유엔조선위원단 『UN조선위원단 보고서』, pp.21-25.

143) 필리핀과 중국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즉각 실시하자는 미국의 입장에 적극 지지한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인도, 엘살바도르는 경찰제도의 선변경 등 조건부 지지, 프랑스는 소극적 지지, 시리아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신문』, 1948. 2. 5; 『서울신문』, 1948. 2. 6; 『조선일보』, 1948. 2. 7; 『서울신문』, 1948. 2. 7.

144) 『경향신문』, 1948. 2. 8.

145) 유엔 소총회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전국선거를 추진시키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제안을 31대 2(기권 11)로 가결시켰다. 반대 2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로서 이들 나라는 전국선거가 남부지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유엔총회의 조선 전국선거 실시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동아일보』, 1948. 2. 28.

146) 유엔조선위원단, 『UN조선위원단 보고서』, p.82.

147) Inclosure No. 23, Memorandum by the U.S. Liaison Officer of the Principal Factors Motivating a Change in the Election Date,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f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on 10 May 1948,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이하 MG Report).

148) Inclosure No. 24, Letr,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o Chairman, UNTCOK, UNTCOK Document A/AC.19/58, Subj: Change of Election Date, 25 March 1948, MG Report.

149) Inclosure No. 25, Letr, CG. USAFIK, to Chairman, UNTCOK, UNTCOK Document A/AC.19/58/ADD.2, Subj: Change of Election Date, 29 March 1948, MG Report.

하였다.¹⁵⁰⁾ 하지는 투표율이 낮으면 남한 정부는 압도적인 국제적 승인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 총선을 보이콧하려는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¹⁵¹⁾ 좌익의 선거반대와 대부분의 우익 및 중도파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5·10선거는 미군정과 이승만 계열에 의해 주도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되었다. 이들은 선거의 ‘자유분위기’¹⁵²⁾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우익청년단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¹⁵³⁾

주한미군사령관 하지가 4월 2일 산하 지휘관들에게 전문을 보내 공산주의자와 기타 선거반대세력에 의한 선거 저지 시도를 경고하였다. 이에 같은 날 조병옥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첫째, 공산주의자들의 방해 둘째, 선거를 반대하는 일부 우익 셋째,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위협, 매수, 지주와 소작농 등의 관계로 압력을 받는 정당이나 개인 등이 자유분위기를 파괴하는 요인들이라고 지적하였다.¹⁵⁴⁾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군정장관 딘의 명령으로 설치된 ‘향보단’조직이었다.¹⁵⁵⁾ 군정장관 딘은 치안유지 지원을 명목으로 향보단을 승인하는 한편 경찰이나 정치단체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4월 20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포고를 통해 향보단의 기능을 정의하였다.¹⁵⁶⁾

150)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1948년 4월 2일 산하 지휘관들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조선인들이 공정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이번 노력이 성공하는 것은 미사절단의 핵심적인 성과”라며 “군정장관은 미국의 선거감시 집행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Inclosure No. 1, Despatch No. 85, Telegram,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Hodge, CG, USAFIK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2 April 1948, Joseph E.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9 April 1948.*

151) James I. Matray,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p.180.

152) UNTCOK의 선거준비와 감시활동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선거 실시를 위한 ‘자유분위기’ 조성과 이에 따른 UNTCOK의 결정이었으며, 유엔 소총회 결의도 남한 단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유엔 소총회 의장 루이스 파디라 너보는 3월 1일 UNTCOK 의장 메논에게 보낸 서한에서 “UNTCOK가 감시할 선거는 언론, 출판, 집회 등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인정, 존중되는 자유분위기 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소총회는 재조선 미국당국이 동 사항의 성취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대표의 보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조선위원단 보고서, p.81; 이를 위해 메논은 3월 17일 ‘자유분위기’ 조성을 위해 ① 법률문제 ② 법집행 문제 ③ 정보의 자유 문제 ④ 정치적 압력 문제 등 UNTCOK의 건의사항이 담긴 서한을 하지 중장에게 보냈다. MG Report, pp.16-17.

153) 이승만은 진정한 자유선거가 실시되면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나머지 선거의 승리를 조작하기 위해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의존하였다. James I. Matray,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p.166.

154) Inclosure No. 18, Address delivered through Seoul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Subj: The atmosphere of freedom of the police, by Dr. P. O. Chough, Director, Dept. of Police, 2 April 48, MG Report.*

155) 정치고문관 제이콥스도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대처하고 선거준비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고 비상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할 정도로 향보단은 선거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Airgram, *Subj: Political Summary for period April 1st through April 30th, 1948, Jacobs to Department of State, May 11, 1948.*

156) 민정장관 안재홍이 건의하고 군정장관 딘이 인준해 4월 20일 전국의 도지사 및 그 고문관들에게 보낸 향보단의 기능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948년 5월 10일 선거일에 이르는 기간과 선거당일에 법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 폭동 살인 방화나 또는 기타 태업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치안을 유지함에 있어서 경찰을 원조하고 각자의 도시 부락을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관할 도시

미군정은 향보단이 선거 실시 과정에서 가장 조용하게 영향을 미쳤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향보단원들이 과잉행위가 보고되기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¹⁵⁷⁾ 향보단의 활동에 비판이 목소리가 높아가자 1948년 5월 22일 군정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조선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이 해산하였다.¹⁵⁸⁾

국회선거위원회는 4월 9일 마감된 선거등록 결과 등록율은 모두 805만5798명이 등록하여 91.7%라고 4월 14일 발표하였다. 제주도는 64.9%로 최하위의 등록률을 기록하였다.¹⁵⁹⁾

이러한 선거등록 결과에 대해 하지는 4월 13일 성명을 내고 “전유권자의 90% 이상이 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그들은 5월 10일 시행될 총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가졌다. 이것은 조선정부를 형성함에 있어서 조선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기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적 총선거에 투표하고자 하는 전조선국민의 압도적 표시라고 본다.……이러한 조선국민의 압도적인 투표등록성과는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였을 것이라는 것도 자타가 모두 다 공인하는 바”라고 발표하였다.¹⁶⁰⁾

미군정의 엄중한 경계 속에 치러진 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전체 200명(선거 당시는 제주도에 할당된 2명을 제외한 198명이었다)의 42.5%에

부락의 남주민을 소집할 권한을 시장, 군수, 면장 그리고 구(區), 동(洞), 가(街)에 이르는 지방 조선인 정부요원에게 수여함. 소집받은 주민은 북부중에 있어서는 지방경찰당국과 필요에 의해 협조를 각기 지방행정당국 지휘하에 있어야 한다. 이에 복무하기 위해 소집된 주민은 보수없이 종사할 것이고, 또 이 애국적 복무에 보수를 주기 위해 주민에게서 기부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2. 청년단체나 정치단체는 단체로서 이 의무를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에 복무하기 위해 소집된 인원은 이에 복무하기 때문에 투표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제목: 법과 질서유지에 관한 건, 남조선과도정부, 1948년 4월 20일, RG 338, NARA.

157) 5월 17일 대검찰청장 이인은 향보단의 탈선과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총선거를 전후하여 향보단의 역할은 큰 바 있었는데 일부에는 체포·구타 등으로 인하여 탈선을 하는 일이 없지 않다.” 『경향신문』, 1948. 5. 18; 또 다음날에는 경무부장 조병옥도 “불행히도 몇몇 사람들의 무지각한 행위로서 인권을 유린하여 사회에 누를 끼치고 향보다 자신의 명예를 손상케 함은 천만유감된 일이다. 원래 향보단은 경찰의 협조기관이다. 경찰권을 독립적으로 직접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혀 향보단원들의 폐해를 인정하였다. 『경향신문』, 1948. 5. 19; 『동아일보』, 1948. 5. 19.

158) MG Report, pp.46-47; 이와 함께 곤봉과 완장 등 향보단원들이 갖고 있던 무기를 해당 지방 경찰당국에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신문』, 1948. 5. 26; 『경향신문』, 1948. 5. 26.

15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09, 15 April 1948.

160) 『동아일보』, 1948. 4. 14; 『경향신문』, 1948. 4. 14; 그러나 당시 한국여론협회가 4월 12일 서울에서 통행인 1262명을 대상으로 한 5·10선거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인 등록을 한 응답자는 934명, 등록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328명이며, ‘등록하였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91%인 850명이 ‘등록을 강요당하였다’고 대답했으며, 9%인 84명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조선일보』, 1948. 4. 15; 이에 대해 공보부 공보국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12일 한국여론협회에서는 어떠한 공중 아래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여론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그 공중성을 인정치 않는 동시에 공보부로서는 공안상을 방임할 수 없음은 물론 대중을 상대로 하면서 공중성 없는 행동은 언론 자유의 한계 이외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제등록 91%, 자발등록 9%라는 충격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과도정부의 공식 반응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48. 4. 16.

해당하는 8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촉국민회 54명, 한민당 29명이 당선되었다. 이밖에 조선민족청년단 6명, 독촉농민총동맹 2명이며, 기타 정당과 단체는 각 1명씩 당선되었다.¹⁶¹⁾

그러나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한민당 관련 경험이 있는 당선자는 12명이며, 청년단체 활동 경험자로는 대동청년단 13명, 민족청년단 8명, 대한독립청년단 2명, 서북청년단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이승만·한민당 계열로 보기 힘든 인물을 빼면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26명이 이승만·한민당과 성격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세력에 대비되는 순수한 무소속 당선자는 50여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¹⁶²⁾ 이로써 5·10선거로 남한의 국가건설을 위한 정치작업은 끝났다.

하지는 “조선에서 거행된 자유로운 보통선거에 의한 최초의 민주주의적 총선거가 성공리에 완료되었다”고 말하였다.¹⁶³⁾ 정치고문관 제이콥스도 5월 12일 국무성에 자신의 참모의 시찰보고서를 인용해 투표시설과 주민들의 반응, 자유롭고 평화스런 선거분위기가 있었고, 선거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럽다고 보고하였다.¹⁶⁴⁾

마셜도 5월 12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산당 소수파의 방해 내지 사보타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남조선에서 거행된 선거 투표율은 호성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행정을 지향하는 조선인의 결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격찬하였다.¹⁶⁵⁾

그러나 이처럼 미군정과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자유분위기가 존재하였다’는 5·10선거 당일에만 45명이 희생됐고, 6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거사무소 40곳이 습격받을 정도로 ‘유혈의 분위기’가 있었다.¹⁶⁶⁾ 중국의 『대공보』는 5·10선거가 자유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졌으며, 마치 국장일(國葬日)로 보였다고 묘사하였다.¹⁶⁷⁾

1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서울: 동회, 1968), pp.863-865;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May 1948, p.142.

162) 김득중, 앞의 논문, p.83.

163) 『경향신문』, 1948. 5. 13, 『조선일보』, 1948. 5. 13.

164) Despatch No. 124, Enclosure, Memorandum on Elections (Vice Consul David E. Mark),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 Observation of Elections in South Korea*, May 12, 1948.

165) 『동아일보』, 1948. 5. 14.

166) 이에 대해 정치고문관 제이콥스는 선거 당일 35명(경찰관 5명, 공산주의자 16명, 우익 14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했으나 이 정도의 폭력행위는 인구 2천만명을 고려할 때 중요하지가 않다며 평가절하 하였다. Despatch No. 124, *Subj: Observation on Elections in South Korea*,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12, 1948.

16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6, 2 July, 1948.

우익진영의 김구 또한 “인민들은 경찰과 향보단에 의한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 선거에 등록, 투표할 것을 강요당하였다”고 말하고 “인민들이 자유로웠다면 단독 선거에 반대했을 것”이라며 5·10선거의 강제성을 주장하였다.¹⁶⁸⁾ 이런 선거 모습에 대한 한 외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은 희랍사태의 완전한 재연이다. 양국에서의 공산당 전술은 동일한 것이며 희랍에서 발생한 전투는 조선에서도 발생할지 모른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근사하다. 양국은 다 산악이 많은 반도이다……그러나 서방 연합국은 정치적 이유로 동지(同地)에 민주주의 거점을 두려고 하여 금전, 선전과 무기기증으로 투쟁하였다.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서방 연합국은 조선과 희랍에서 자유선거를 지지하였다……미국당국은 경찰이 특히 소란한 제주도에서 수인(囚人)을 구타함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경찰은 관인(寬仁)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들이 복종함은 곤란시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경찰에 대한 증오감을 선동시키기가 용이하다. 이는 희랍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희랍에는 거야(拒野)하고 난폭한 경찰 부대가 있었다. 아테네에서는 1944년 12월 3일에 경찰이 좌익 시위군중에 발포하였다.¹⁶⁹⁾

서울의 UP 특파원 로퍼(James Roper)가 남한의 사태를 그리스내전과 비교하면서 1947년 3·1사건 이후 일련의 제주도 사건을 그리스의 1944년 12월 3일 발포 사건과 비교할 정도로 5·10 선거의 혼란 상황이 존재하였다.

2) 제주도의 자치기구 건설운동과 5·10선거

한반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 점령하기로 규정된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맥아더는 남한에 진주할 부대를 선발하고 점령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38도선 이남의 점령군으로 결정된 일본 오키나와 주둔 제24군단(군단장 하지 중장)¹⁷⁰⁾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자마자 미국 태

168)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18 May 1948, p.143.

169) 서울 UP 특파원 로퍼(James Roper)의 5·10선거 논평 기사. 『조선일보』, 1948. 5. 11; 『서울신문』, 1948. 5. 11.

170) 미군 제24군단의 주요 임무는 ① 38도선 이남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일본군 및 민간인을 철수시키는 것 ②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이를 위해 또한 일제통치와 조선정부 수립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미군정을 수립하는 것 ③ 조선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점령함으로써 다른 세력이 조선 상황을 배타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미국이 독립된 조선정부 수립에 관여하기 위한 것 등을 들고 있고, 이 가

평양방면 육군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9월 7일자 포고 제1호에 따라 9월 17일 '제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이하 미군정청)을 수립하였다.¹⁷¹⁾

미군의 제주도 최초 진주는 제24군단의 인천 상륙이 있는지 꼭 20일이 지난 9월 28일이었다.¹⁷²⁾ 항만과 비행장을 통해 같은날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접수작전은 본토와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은 전세가 기울어가자 연합군의 일본 본토 공격에 대비해 제주도를 본토 사수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 병력을 집결시키고, 제주도 곳곳에 중무장한 요새를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제24군단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¹⁷³⁾ 이들은 철저한 사전계획 아래 무장해제에 착수하였다.¹⁷⁴⁾

미 제59군정중대(사령관 Thurman A. Stout 소령)와 전술부대인 미보병 6사단 20연대 L중대는 11월 9일 제주에 들어와 11일 자정부터 본격적인 군정에 들어갔다.¹⁷⁵⁾

제59군정중대가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이미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섬 내의 유일한 당이며 목적과 내용을 지닌 유일한 정부'¹⁷⁶⁾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해방 직후 제주도에서는 좌·우익간의 투쟁 등 정치적 갈등이 격렬하지 않았으며, 민족해방운동세력이 정당성과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¹⁷⁷⁾ 이는 사회주

운데 세 번째 임무를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기본적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HUSAFIK 1, pp.31-33. 박찬표는 여기서 '다른 세력'이라 함은 ① 북의 소련 ② 남한내 변혁세력의 존재라며, 미점령군의 남한 점령은 변혁세력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적·지리적 공간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미군의 남한 군사점령은 일본군 무장해제라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소련의 남한점령을 저지하고, 일제 패망 후 좌파세력의 현지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아래 전개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제도화』 (서울: 고려대 출판부, 1997), pp.30-31.

171) HUSAFIK 1, pp.32, 39; 미육군 태평양방면 총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전문은 점령군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FRUS 1945, Vol. VI, pp.1043-1044.

172) 이날 오전 8시 미 보병 제7사단 무장해제팀(팀장 G. F. Powell 대령·제24군단 군수참모)이 LSM 2척을 이용해 제주항에 도착했고, 뒤이어 1시간 뒤인 오전 9시에는 제24군단의 항복접수팀(팀장 Roy A. Green 대령·제184연대장)이 C47 수송기 2대를 이용해 제주비행장에 도착하였다.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25, 28 September 1945.

173) "오키나와와 비슷한 크기로, 대단히 요새화된 제주도의 무장해제 문제는 미군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HUSAFIK 1, pp.526-531 참조.

174) 미군에 의한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호준,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72(2006), pp.37-70.

175) *Subj: Unit History*, Thurman A. Stout, Senior Military Govt. Officer of 5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to the Adjutant General, Washington, 23 January 1946;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64, 6 Nov. 1945; No. 68, 10 Nov. 1945; No. 70, 12 Nov. 1945.

176)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King's Crown Press, 1951), p.185.

177) 존슨은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하지 장군이 시인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지향이 아니라 사회주의 지향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Charlmers Johnson, *Blowback*, p.99.

의 1세대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저명한 운동가였던 김명식, 김문준과 무정부의 자 고순흠 등의 영향이 컸다. 1930년대에는 제주농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사건’(1931)과 구좌읍 세화리를 중심으로 제주 동부지역 해녀들이 봉기한 해녀투쟁(1932) 등 일제 식민지 통치에 맞서는 조직적인 투쟁이 전개될 정도로 민족해방 투쟁의 전성시대를 맞았다. 일제하 제주도 야체이카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익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혁우동맹사건, 야체이카사건 등 1930년대는 제주 민족해방투쟁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제주도 야체이카는 민중계몽을 하던 각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중문면 중심의 부정호세불납운동, 대정면의 3·1절 만세 시위사건, 구좌면의 해녀사건 등을 주도했습니다. 1930년대의 항일운동의 의의는 결과적으로 운동에 있어서 오류도 있었지만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 항일투쟁을 전개한 시기입니다. 가령 해녀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생존권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개된 정치투쟁입니다. 당시엔 해녀조합, 산림회, 농회, 수산회 등 많은 관제조합이 있었는데 일본인 도사가 모든 조합장과 경찰서장을 겸직한 상태에서 혜택은 없이 조합비만 거둬가는 등 수탈이 심했습니다. 이런 때에 해녀사건이나 불납동맹은 일제에 대한 정면 항쟁인 것입니다.¹⁷⁸⁾

이러한 일제하 제주도 민족해방운동의 경험은 해방후 제주도에서의 자치운동에 그대로 연결되었다.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건준)의 결성은 상향식 과정을 거쳤다. 서귀면 건준이 8월 20일 결성되고¹⁷⁹⁾, 제주읍은 9월 7일, 대정면¹⁸⁰⁾은 9월 6-7일경에 결성된 후 9월 10일 도 건준이 제주농업학교에서 결성되었다. 9월 22일에는 건준이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인민위원회가 제주농업학교에서 각 읍·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었다.¹⁸¹⁾

한편, 이 시기까지도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았던 일본군들은 제주도의 치안상황

178) 『제주신문』, 1989. 9. 28.

179) 조남수, 『43진상』 (제주: 관광제주, 1988), p.10.

180) 대정면 건준은 리 건준이 먼저 결성되었다. 당시 대정면 건준 선전부장을 지낸 이운방은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건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마을유지, 청년들이 모여서 조직하였다”고 말하였다. 제주43연구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조직과 활동”, 『43장정』 5 (제주: 나라출판, 1992), p.11.

181)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일제의 잔재세력과 국제파시스트 주구를 청산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정책 노선을 채택하였다. 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p.16.

을 일본군 제17방면군 사령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일본군은 9월 21일자 전보문에서 “1945년 9월 15일 제주민중대회와 관련해 도내 각지에서 건준의 이름 아래 민중조직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일본군 및 일본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있지만, 조선인 관공리에 대한 폭행사건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⁸²⁾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은 제주도민들의 보안대 결성과 기행렬 등을 금지하였다.¹⁸³⁾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9월 말까지 짧은 기간에 각 면·리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확산하였다. 이 시기 인민위원회는 좌·우익의 정치적 갈등 없이 각 마을의 구장(이장)이나 유력자 등이 인민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¹⁸⁴⁾ 인민위원회의 결성과 해체과정을 목격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귀포에서도 사실 해방돼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인민위원회지. 어느 부락이든지 부락 이장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어. 구장이 인민위원회 간판 부처서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살아갔어. 그 뒤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질서가 잡혀가니까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을 모두 잡아갔지. 그 사람들은 잡혀가서 2-3일씩 고통을 당했어.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표도 내고 했지.¹⁸⁵⁾

인민위원회는 치안대와 보안대 등의 이름으로 치안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도로정비, 시내청소,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벌이거나¹⁸⁶⁾ 순찰을 돌고 양담배, 양과자를 배척하는 모임을 갖기도 하는 등 공익적 활동과 조직 확산을 통해 인민위원회는 빠른 속도로 통치력을 장악해 나갔다.¹⁸⁷⁾

제주에서는 1945년 9월 말 ‘민중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통일적이고 강력한’ 청년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진보적 청년들과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중심이 돼 건준 청년동맹(위원장 문재진)을 결성해 급속히 각 면·리 단위까지 지부를

182)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 電報綴, 소화 20. 9. 21. 전보문 0543,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

183)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 電報綴, 소화 20. 9. 23. 전보문 0597.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

184) 제주시 아라동 양경찬도 구장이었던 부친이 마을 인민위원장을 맡았다가 위험해가자 그만뒀으며, 인민위원회도 폐쇄되었다고 말하였다. 양경찬, “우리나인 고생만 헛거라”,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서울: 역사비평, 2002), p.158; 성산면 시흥리 민보단장과 성산면장을 지낸 강인옥은 “당시 시흥 인민위원장은 좌익계통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1946년 5월까지도 정규 이장처럼 마을행정을 맡아왔다”고 증언하였다. 제민일보사, 『43은 말한다』 1 (서울: 전예원, 1994), p.69.

185) 고창욱(1924년생) 구술채록, 2005. 10. 22.

186) 제주43연구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조직과 활동’, 『43장정』 5, pp.14-16.

187) 43채록기행 “손 내놓으랴 허영 손이 관짝허게 고무민 빨갱이라고…: 대정읍 구역리”, 제주43연구소, 『43장정』 1 (제주: 동연구소, 1990), p.68.

창설하면서 각종 단체들이 이 조직에 흡수통합되었다. 이어 그해 12월 전국청년 단체총동맹이 결성됨에 따라 가맹단체인 제주청년동맹으로 이름을 바꿨다.¹⁸⁸⁾

제주청년동맹은 강력한 조직력을 갖고 인민위원회와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탁치논쟁으로 대립하면서 미군정의 탄압을 받았다. 이어 미군정과의 대립 속에 조직 개편과 함께 1947년 1월 12일 민청 제주도위원회(위원장 김택수)가 결성되었다. 민청은 중앙보다 1년이나 늦은 1947년 2월 23일 결성된 제주도 민전의 강력한 우군으로써의 기능과 함께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는 선봉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민청은 읍·면·리 단위까지 편성될 정도로 광범위한 조직체를 갖고 활동하다가 미군정의 탄압으로 나중에는 민애청 제주도위원회(위원장 강대석)로 개편되었다.¹⁸⁹⁾

이와 함께 제주도에 우파청년단체가 나타난 시점은 탁치논쟁으로 전국적으로 우파청년단체의 조직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제주도지부’(위원장 김충희)가 발족됐고, 뒤따라 ‘광복청년회 제주도지회’(단장 김인선)도 창립되었다가 1947년 대동청년단(단장 김인선)으로 합쳐졌다. 이밖에 조선민족청년단(약칭 족청) 제주지부가 있었으며, 이 단체는 1948년 말 대동청년단과 함께 대한청년단(약칭 한청)으로 흡수통합되었다. 당시 제주에는 우파정당으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제주도본부(본부장 박우상)와 한독당 제주도당부(위원장 김근시)가 있었으나 당세는 미미하였다.¹⁹⁰⁾ 1946년 초가 되자 탁치논쟁이 제주도까지 불어닥쳤다. 제주도의 좌파세력에게는 중앙에서 신탁통치 지지운동의 지시가 내려왔다.¹⁹¹⁾

반면, 일부 마을 청년들은 신탁통치 반대를 외치면서 행진하다가 경찰의 저지로 해산되기도 하였다. 중앙 미군정청에서 파견된 공보부 미국인 관리는 1946년 12

188) 제주청년동맹의 사무실은 처음에는 관덕정을 사용했으나 나중에는 제주도 인민위원회와 같이 일제 강점기 때 기무라여관이었던 건물을 사용하였다. 청년동맹의 활동취지는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종 각계를 총망라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확립하고 단결로서 일체의 장애물을 용감히 배제하고 노동자, 농민, 일반 근로대중의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야 말 것”이었다. 애월면 청년동맹 기관지 『신광』 창간호(1946년 4월), p.36.

189) 해방 직후 제주지역의 청년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제주43연구소, “8·15 직후 제주지역의 진보적 청년운동”, 『43장정』 5, pp.24-43.

190) 제민일보사, 『43은 말한다』 1 (서울: 전예원, 1994), pp.148-149.

191) 1947년 남로당 대정면책을 지낸 이운방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바뀐 이유를 당시는 납득하기 곤란하였다고 말하였다. 중앙에서 내려온 신탁지지 근거는 ① 신탁통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위임통치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그것은 후견원조를 말하는 것이다 ② 우리 민족은 장기간에 걸친 행정운영상의 공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분간의 선진 후견국가군의 원조를 필요로 한다 ③ 후견을 받아들이면 소·미·영·중의 선진 후견 4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④ 후견국 집단은 민주주의적이다. 왜냐하면 4개 후견국 중에는 우리의 우방이며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소련이 절대적 지배적인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견을 의미하는 신탁통치제는 오히려 자진해서 호의적으로 수락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운방 증언,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합시다』 2 (서울: 한울, 1989), p.243.

월 현재 경찰과 미군, 도민 모두를 포함해 제주도에는 어떠한 충돌이나 폭동도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인민위원회 대표들이 앞으로 폭동은 없을 것이라고 경찰에게 약속하고, 경찰은 인민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어떠한 사태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¹⁹²⁾ 1946년 12월 한 국내 일간지의 제주도 인민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미군정의 평가와 유사하다.

세간에서 제주는 좌익 일색이며 ‘인위’의 천하라는 말이 있으나 제주의 인위는 ‘건준’이래 양심적인 반일제 투쟁의 선봉이었던 지도층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한독, 독촉국민회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이 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하고 있다.¹⁹³⁾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6년 10월 항쟁에 참여하지 않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등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¹⁹⁴⁾ 입법의원 선거에서 이들의 당선은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과 중앙의 통제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있었거나 그들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10선거는 제주도 현대사의 분기점이 되었다. 5·10선거의 실패 이후 제주도는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배제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947년의 ‘3·1사건’을 기점으로 미군정의 제주도 정책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과의 ‘비우호적인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적대적 관계’로 들어가며 5·10선거의 실패로 제주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UNTCOK 위원으로 1948년 4월 9-10일 싱(인도)과 빌라바(필리핀), 사무차장

192) Arthur N. Feraru, Assistant Chief, Opinion Sampling Sectio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SMGIK, *Subj: Report of trip to the Province of Cheju during the period 4-6 December 1946*, 9 Dec, 1946, p.2.

193) 『동아일보』, 1946. 12. 21.

194) 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했던 이운방은 “10월 인민항쟁 당시 제주도민은 호열자(콜레라 환자)와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어서 이를 외면한 무조건적인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입법의원 선거는 철저히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지. 그러나 선거에 참여한 것은 이 기회를 역이용하여 우익의 진출을 못하게 하고 선거를 무효화함과 동시에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일대 데모스트레이션을 전개하기 위한 거야”라고 증언하였다. 이운방 증언,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 p.21; 입법의원 선거에 좌익세력이 참여해 당선된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였다. 45명의 선출직 과도입법의원을 뽑는 이 선거에서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구좌면 인민위원장 문도배와 조천면 인민위원회 문예부장 김시탁 등 2명의 좌익인사가 당선된 것이다. 이들은 곧바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의원 사퇴를 선언하였다. 과도입법의원에 당선된 문도배와 김시탁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에서는 입법의원에 대하여 10월 22일에 갑자기 발표하고 25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반 도민은 이 기관이 인민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반동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하고 있는 북조선과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투표가 거의 거부되었던 것이다.……제주도내의 인위가 거의 8할의 인구를 통일하고 있으며……”라고 밝혔다.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158; 『독립신보』, 1946. 12. 15.

밀너와 함께 제주도 시찰에 나선 마네(프랑스)의 보고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강제로 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많은 증거들을 입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¹⁹⁵⁾ 문제화하지는 않았다. 미군 연락장교인 웨커링 준장은 하지에게 “밀너와 싱이 제주도에서 본 모든 것은 유권자들의 선거인 등록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동의한 것”이라며 “감시반은 확실히 ‘강제적인 선거인 등록’에 관한 어떠한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¹⁹⁶⁾

이 선거에서 남제주군에서는 오용국이 당선됐으나 북제주군 갑 선거구는 43%의 투표율을, 을 선거구는 46.5%의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과반수에 미달하였다. 미군정은 투표함 직접 호송, 투표소 직접 감시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선거위원회 위원장 노진설은 선거법 제44조¹⁹⁷⁾에 따라 5월 19일 군정장관 딘에게 제주도 북제주군 갑과 을 선거구의 선거무효를 건의하였다.¹⁹⁸⁾ UNTCOK 조차 “선거가 훌륭하게 치러졌다”¹⁹⁹⁾고 한 가운데 군정장관 딘은 제주도의 선거에 대해 “이들 선거구는 파괴분자들의 활동과 폭력행위 때문에 인민의 진정한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무효를 선언하였다.²⁰⁰⁾ 미군정은 제주도의 선거 거부가 남한의 전체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²⁰¹⁾이라고 전망하면

195) Spec. Report 118,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Group 1 on Cheju Do 9-10 April*(Source: Manet 11 April), John Weckerling to Hodge, 12 April 1948, RG 338, NARA.

196) Spec. Report 121,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UN Observation of Registration*, 12 April 1948, RG 338, NARA.

197)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5호 ‘국회의원 선거법’의 제44조는 “군정장관은 좌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국회선거위원회와 협의해 선거일 후 2주일 이내에 그 선거구의 선거의 무효를 선포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선거구와 전투표구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때
1. 어느 투표구의 투표함이 위법으로 개합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
1. 선거가 선거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의 위협,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 증거가 명확한 때

선거인의 집단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에 의하여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때나 또는 어느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명하여 함”이라고 돼 있다.

198) Inclosure No. 54, MG Report; 선거 무효의 가장 큰 원인은 투표율 미달이지만 당시 제주도의 노병열과 차명택은 선거 무효 건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가하고 있다. ① 투표에 참가한 주민의 300여가구 이상이 불에 탔다. ② 선거관련 업무에 종사한 6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③ 후보자 9명의 가족들이 사상자를 냈다. ④ 1800명 이상의 유권자가 납치되었다. ⑤ 많은 유권자들의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⑥ 대부분의 선거관리위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주하였다. *Subj: Petition on Chejudo election*, No ByeongRyul, Cha MyeongTaek, Chejudo to CG. Hodge, Gen. Dean and UNTCOK, 26 May 1948, Box No. 4, RG 338, NARA.

199)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UNTCOK's Daily Activities, Tuesday, 11 May*, John Weckerling to Hodge, 12 May 1949, RG 338, NARA; 당시 국내 일간지도 “제주도와 같이 계엄상태하에서 선거위원의 반수 이상이 피신납치되어 수라장을 이루면서도 도민의 선거열의는 미동도 하지 않고 70%의 투표를 완료하였다 한다”고 보도해 실상과는 다른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 1948. 5. 12.

200) Inclosure No. 54A, Letr, Maj Gen W.F. Dean, Military Governor, USAMGIK, to Chairman, National Election Committee, 24 May 1948, MG Report.

서도 제주도의 선거무효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선거 반대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던 제주도 3개 선거구에 출마한 13명의 신상과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3> 제주도 5·10선거 후보자의 소속 정당 및 득표수, 선거구별 투표율

| 선거구 | 후보자 | 나이 | 정당 | 득표수 | 등록 유권자수 | 투표자수(투표율) |
|---------|-----|----|-----|--------|---------|---------------|
| 북제주군 갑① | 김충희 | 59 | 독촉 | 2,147 | 27,650 | 11,912(43%) |
| | 문대유 | 41 | 독촉 | 1,693 | | |
| | 양귀진 | 41 | 독촉 | 3,647 | | |
| | 김시학 | 70 | 무소속 | 3,479 | | |
| 북제주군 을② | 박창희 | 53 | 독촉 | 3,190 | 20,917 | 9,724(46.5%) |
| | 김덕준 | 34 | 대청 | 691 | | |
| | 임창현 | 64 | 독촉 | | | |
| | 양병직 | 40 | 대청 | 3,774 | | |
| | 현주선 | 44 | 독촉 | | | |
| | 김인선 | 27 | 대청 | | | |
| 남제주군③ | 오용국 | 44 | 무소속 | 12,888 | 37,040 | 32,062(86.6%) |
| | 양기하 | 34 | 무소속 | | | |
| | 강성건 | 34 | 대청 | | | |

출처: ①, ②는 Despatch No. 118, *Subj: List of Korean Election Candidates,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8 1948; Letr, Ro Chin Sul, Chairman,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o Maj Gen W.F. Dean, Military Governor, *Subj: Invalidation of the Elections made in some Electoral Districts of Che Choo Do*, 19 May 1948, MG Report, Inclosure No. 54.

③ Despatch No. 159, *Subj: Final Registration and Voting figures for Korean Election*,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8, 1948.

유엔에서 소련대표는 제주도의 5·10선거를 거론하며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소련 대표는 제주도 문제를 거론하였다. 소련 대표 말리크(Y.A. Malik)는 1948년 12월 8일 정치위원회에서 ‘유엔기구 위원단의 외투 아래 남한에서의 선거 부정’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한의 선거는 경찰의 테러 상황뿐 아니라 허위로 실시되었다. 5월 11일 국회선거위원회는 등록 유권자의 92%가, 특히 유권자 70%가 참가한 제주도를 포함해 남한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가 5월 10일 전혀 투표를 못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미군 사령부는 6월 23일 이들 선거구에 대한 선거를 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70%라는 수치는 명백히 위

201) Despatch No. 387,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25 May 25 1948.

조된 것이었다. 이로 미뤄 유권자들의 전체 투표 참여율 또한 위조된 것이다.²⁰²⁾

제주도 주둔 정부군의 초토화작전 시기 유엔에서는 소련 대표가 제주도의 5·10선거를 거론하면서 남한내 선거를 비난하였던 것이다. 제주도의 상황은 6월 23일의 재선거도 소요사태가 가라앉지 않음으로써 무기한 연기된 뒤 다음해인 1949년 5월 10일 치러졌다. 제주도민의 자발적·비자발적 불참으로 인한 5·10선거 실패는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남한내 주도적인 정치세력에 의한 배제의 기원이 되었다.

제2절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정치폭력

1. 그리스

1) 독일 점령 시기 정치폭력의 기원과 구조

점령 시기 그리스에서 좌·우익 저항단체간의 갈등은 해방 이후 내전과 그리스 사회의 분열을 가져왔다. 독일군과 이태리군은 EAM/ELAS를 분쇄하기 위해 친독협력부대나 조직을 지원해 이들 부대나 조직으로 하여금 EAM/ELAS와 전투를 벌이도록 조장하였다. ELAS는 1942년 12월부터 이태리군과 맞서 저항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43년 3월 서부 마케도니아의 나우스사(Naoussa)와 테살리의 카르디스트사(Kardistsa)를 장악했는데, 카르디스트사는 8개월 동안이나 점령하는 등 활발한 저항활동을 전개하였다.²⁰³⁾

산간지대에 있던 게릴라 조직들 가운데 테살리에 조직된 해방투쟁사령부(AAA)가 있었다. 이 조직은 공화파 정치인인 파판드레우가 이끌었고, AAA 게릴라 조직의 군 지휘관은 공화파 사라피스(Stefanos Sarafis) 대령으로 정규군 장교 출신이었다.²⁰⁴⁾ ELAS는 1943년 3월 자신들과 합류하지 않은 부대는 모두 반역자라

202) "Falsification of elections in Southern Korea under the cloak of the U.N.O. Commission", Speech by the U.S.S.R. Delegate Y.A. Malik in the Political Committee on December 8, 1948, Soviet News,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Question(Documents)*, p.71.

203)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135.

204) 사라피스는 제1차 대전 당시 그리스가 연합군 편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투옥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소아시아에서 전투를 벌였고, 이어 왕당파 시절 추방돼 투옥됐으며, 공화국 하에서 주

고 선언한 가운데 사라피스가 이태리군과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AA를 공격하였다. AAA 조직원들은 탈출하거나 일부는 ELAS측에 가담하였고, 일부는 체포돼 총살되었다. 그러나 사라피스는 로우멜리의 아리스 벨로우키오티스가 있는 사령부로 연행된 뒤 ELAS의 요구에 따라 군 지휘관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AM/ELAS는 1943년 5월 제마스를 EAM 대표로, 아리스 벨로우키오티스는 케릴라 지휘관으로, 사라피스 대령은 군사전략을 책임진 지휘관으로서 3두 체제로 1943년 5월 총사령부를 창설하였다.²⁰⁵⁾

5월에 접어들자 에피루스와 테살리에서 영국군 스티븐스(J. M. Stevens) 중령이 ‘선언하지 않은 전쟁상태’라고 언급한 교전행위가 ELAS와 EDES 간에 일어났다.²⁰⁶⁾ 이와 함께 ELAS는 1943년 3월 중부 및 서부 마케도니아 지역의 민족그리스해방조직(PAO)을 공격해 그해 12월 사실상 해체시켰다.

그리스내 저항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이들을 통합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영국군사사절단은 6월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이 선호한 EDES, EKKA와 함께 EAM/ELAS에 카이로 주재 영국특수전처의 명령을 받는 합동총사령부(Joint GHQ)를 세울 것을 설득하였다. 이는 7월 4일 ‘민족도당협정’으로 공식화돼 합동총사령부가 트리칼라(Trikkala) 서쪽 핀두스 산맥에 있는 페르토울리(Pertouli) 부근에 설치되었다.²⁰⁷⁾ 합동총사령부는 케릴라 조직간의 무력충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카이로에서 합동총사령부의 6인 대표와 그리스 망명정부, 영국 대사 리퍼(Reginald Leeper)간에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회담을 가졌으나 오히려 EAM/ELAS와 EDES, EKKA 간에 긴장만 높아졌다.²⁰⁸⁾ 회의 결과 EAM/ELAS는 영국 정부가 그리스 인민에 대한 피후견 국왕을 강제할 계획이라고 의심하고, 영국이 자신들을 궤멸시키기 위해 무모한 방법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²⁰⁹⁾ 우드하우스에 따르면, EAM/ELAS는 카이로회담에서 해방 이후 국민투표 이전에는 국왕이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사라피스는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조직들의 공동전선 구축이 공동협력의 기본 조

요 군 직책을 맡기도 했다. 1935년 봉기 미수로 추방됐었으나, 1940년 사면돼 귀국을 허락받았다. 공화파 동조자들과 함께 많은 장교들처럼 그는 군에 복무하지 못했다. 1942년 후반 아테네에 잠시 있다가, 북부 핀두스 산맥으로 들어가 AAA에 합류하였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58.

205)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59;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01

206) Lars Baerentzen, ed., *British Reports on Greece 1943-44*, p.28.

207)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 103-104;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 64.

208) EAM/ELAS 대표는 Siantos, Tzemas, Roussos, Despotopoulos이며, EDES 대표는 Pyromaglou, EKKA는 Kartalis이다.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 104.

209)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 105.

건이라고 여러차례 선언하였다.²¹⁰⁾

그러나 카이로회담의 실패로 야기된 정치적 교착상태는 내전의 징조였다. EAM/ELAS 지도부는 경쟁 조직들을 중립화시키거나 제거하면서 그리스내 점령 지역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 나갔다. 1943년 9월 20일 KKE는 EDES가 매국정부 및 독일과 협력하고 있다며 제르바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EAM/ELAS는 EDES와 EKKA에 국왕의 귀국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민족도당협정에 서명한 이후 EDES는 EAM/ELAS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태 진전과 함께 팔리스 친독협력정부는 9월 마지막 주에 영국 장교의 서명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공개하였다. 이 서한은 영국과 그리스 망명 관리들이 보안대대의 조직을 승인했다는 것이었다. 영국군사절단장 우드하우스는 BBC를 통해 이를 즉각 부인했으나 영국 외무부는 2주 동안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침묵은 팔리스의 음모를 믿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부인했을 때는 이미 폭력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긴장은 계속해서 확대되었고 10월 2일 EDES는 출판물을 통해 EAM/ELAS 소속의 비공산주의 자들에게 EAM/ELAS가 제르바스를 공격해 조직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지도부를 거부할 것을 호소하였다. 다음날인 10월 3일 EAM/ELAS는 이태리군의 소화기 2천-4천정을 노획하였고, EDES와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²¹¹⁾

EAM/ELAS는 1943년 10월 9일 EDES를 해체하기 위한 공격명령을 내리고, EDES의 통제 하에 있는 동부 에피루스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²¹²⁾ 이는 1943년 봄에 시작되었던 비교적 소규모 충돌과는 차원이 다른 사실상의 1차 내전이었으며, 같은해 7월 체결한 민족도당협정의 무효화를 의미하였다. 이날 EDES의 유인물은 ELAS가 EDES를 공격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²¹³⁾

ELAS는 10월 15일 테살리의 산간지대에 있던 7천여명의 이태리군을 무장해제 시켰으며, 20문의 산악포와 기타 장비들을 노획하였다.²¹⁴⁾ ELAS가 강력한 화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자 일부 친독협력부대들은 ELAS에 저항

210) Lars Baerentzen, ed., *British Reports on Greece 1943-44*, p.51.

211)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p.171-172.

212)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06.

213)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p.175-176.

214) 오벨런스는 1차 내전의 시작을 10월 12일, ELAS가 테살리 산간지대의 EDES에 대한 작전을 개시한 때로 보고 있다. 이태리군의 무기를 노획한 제16사단(테살리)은 핀투스 산맥을 넘어 에피루스의 EDES를 타격하기 위해 진출하였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p.67.

없이 항복한 뒤 영국군의 감시 아래 억류되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항복을 거부함으로써 공격을 받았으며, 양쪽은 이로 인해 심각한 희생자를 내기도 하였다. 특히 1943년 9-10월 칼라마타(Kalamata), 멜리갈라(Meligala), 피르고스(Pyrgos), 서남부 펠로폰네스의 미스트라(Mistra)에서 심하였다. 9월 10일 칼라마타가, 9월 15일 멜리갈라가 저항단체의 손에 들어갔고, 피르고스의 친독협력부대가 무너졌다. 피르고스에서는 600명, 멜리갈라에서는 1600명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9월 17일에는 칼라마타에서 친독협력자들에 의해 1500여명이 학살되고 수천채의 집이 방화된 데 대한 보복으로 EAM/ELAS가 메세니아(Messenia)의 주지사와 검사, 헌병사령관을 살해하였다.²¹⁵⁾ 1943년 10월 1주일 동안 지속된 EAM/ELAS의 공세로 일부 소규모 저항단체들이 심하게 타격을 입어 EDES는 에피루스와 로우멜리, 중부 그리스의 산간지대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EAM/ELAS의 신문과 유인물들은 EDES 지도자 제르바스를 반역자이자 그리스의 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아테네의 건물 벽에는 “제르바스에게 죽음을”이라는 글귀가 붙었고, EAM/ELAS는 EDES를 게쉴타포, 독일군, 칼리스의 보안대대와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맞서 EDES는 EAM/ELAS를 독재라고 맞받아쳤다.²¹⁶⁾

이런 가운데 10월 11일 크리아브리세(Krya Vryse)에서는 50명의 협력부대 군인들이 희생됐고 400여명이 붙잡혔다. 코욱코스(Koukkos)에서는 10월 17-18일 130명의 협력부대 군인들이 사망하고 77명이 붙잡혔다. 11월 3일 킬키스(Kilkis)에서는 9천여명 규모의 협력부대와 6천여명 규모의 ELAS가 전투를 벌여 대부분의 친독협력부대 군인들이 죽거나 체포되었다. 사망자 가운데는 바트작(Kitsa Batzak)과 단고올라스(Dangoulas)도 있었다. 니그리타(Nigrita)에서도 11월 12-13일 500여명의 협력부대 군인들이 사망하고 120명이 붙잡혔다.²¹⁷⁾

세르비아 근처에서는 영국군의 승인 아래 그때까지 피했었던 미칼 아가스(Michal Agas)의 추종세력들이 11월 24-25일 공격을 받아 120명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전투에서 ELAS는 상당량의 무기와 탄약을 노획했으며,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남겨둔 무기와 탄약들도 획득하였다. 무기 가운데는 100문에 이르는 야포도 있었다. 이는 그때까지 겪었던 절대적인 무기 부족을 메꿀 수 있었고, 새로운 지원자들을 무장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군의 점령은 EAM과 우익 저항조직

215)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358.

216)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177.

217) ‘살로니카의 야수’로 알려진 단고올라스는 문맹 운전자였으며, 경찰 간부 조차 그를 ‘도시의 치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89-91, 117.

들 간에 그리스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양극화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 계속된 독일군의 저항단체에 대한 공세로 인해 합동총사령부는 카르페니시(Karpenisi) 지역으로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²¹⁸⁾

이 시기 제르바스는 일부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독일군의 ELAS에 대한 공세가 끝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평화협상을 벌일 준비를 하였고 1943년 12월 23일 협상을 시작하였다. 양 진영의 대표와 연합국군사사절단은 14차례의 협상 끝에 1944년 2월 29일 오전 에피루스의 플라카에서 정전 및 양 진영의 현상유지, 향후 협력 등에 관해 플라카협정을 체결하였다. 플라카협정은 양측이 서로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고, 양측의 포로와 인질을 석방하는 한편 ‘실제 전쟁의 필요성에 따라’ 연합국군사사절단이 게릴라 조직들에게 전쟁물자를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다.²¹⁹⁾ 그러나 플라카협정은 군사적 정전만 이끌어냈을 뿐 양 진영의 경계선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남겼으며,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다.²²⁰⁾

아테네와 피레우스에서는 우익-왕당파와 EAM/ELAS 간의 시가전이 독일군의 철수 때까지 계속되었다. EAM/ELAS는 독일군복으로 위장한 채 보안대대나 X와 같은 극우단체 주요 간부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수행하였다.²²¹⁾ 1944년 상반기에 EAM/ELAS의 암살부대인 인민투쟁보호조직(OPLA)은 보안대대 조직에 적극적이었던 에우보에아 주지사와 파트라스의 부지사, 노동장관을 암살하고, 4명의 주지사를 납치하였다. 독일의 기록에 따르면, 1944년 6월 한달 동안 날마다 5-10명이 EAM에 의해 암살되었다.²²²⁾

EAM/ELAS는 독일군이 철수하는 동안 그들의 철수대열을 공격하고 산간지대에서 서서히 내려왔다. 독일군의 철수 직전인 1944년 9월이 되자 EAM/ELAS는 크레타와 코르푸 등 일부 섬 지역과 EDES가 장악한 서부 에피루스, 타 저항단체들이 장악한 동부 및 서부 마케도니아의 2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 일부 대도시에도 EAM이 조직되었다.²²³⁾ 9월 23일에는 EAM이 관영 라디오 방송국을 장악하고, EAM/ELAS가 곧 그리스를 해방할 것

218) Eda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64.

219)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105;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p.91.

220)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06;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88.

221)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341.

222) *Ibid.*, pp.341-349;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150.

223)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97.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그리스에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영국군과 저항단체들에 의한 통합작전을 보장하고 그리스 해방 절차와 권위를 정하기 위해 영국은 사라피스와 제르바스를 이태리의 카세르타에 초청하였다.²²⁴⁾ 9월 26일 EAM/ELAS 대표와 망명정부, 영국 간에 이태리 카세르타에서 협정을 체결하였다. 카세르타의 연합국군 사령부에서 지중해 전구(戰區)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윌슨(H. Maitland Wilson)이 주재한 회담에서 윌슨과 영국대표 맥밀란(H. G. MacMillan)을 포함해 그리스 망명정부 총리 파판드레우와 사라피스, 제르바스가 모든 저항조직들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영국군의 지휘 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카세르타협정에 서명하였다.²²⁵⁾ 카세르타협정 체결 소식이 그리스 국내에 알려지면서 EAM/ELAS는 망명정부를 인정하고, 영국군의 그리스 진주에 동의해야 하였다.

우익진영의 최전선에는 독일군에 의해 무장한 극우조직 'X'가 있었으며, 이들은 독일군 철수 전에도 아크로폴리스 아래 있는 고대 신전 테세이온 근처에 기지가 있었다.

친독협력정부 총리 팔리스의 공식 지원을 받은 보안대대는 게릴라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조직됐으며, 그리스 장교 휘하의 극단적 반공 그리스인들이었다. 보안대대의 작전은 처음에 펠로폰네스와 아티카에 한정됐으나 ELAS에 맞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나중에는 병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작전지역을 중부 그리스로 넓혔다.²²⁶⁾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의 친독협력부대들은 그리스 친독협력정부가 아닌 독일군에 의해 직접 창설돼 무차별적인 테러를 일삼았다. 보안대대가 중부 그리스와 펠로폰네스에서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동안 북부지방의 반공보조부대들은 더욱 큰 피해를 불렀다. ELAS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의 자금을 지원받은 이들 '죽음의 부대'들의 임무는 지방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해 완전한 공포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²²⁷⁾ 1943년 10월 보안대대가 아테네에서 처음 작전

224)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122;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p.123.

22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게릴라 부대들은 그리스 민족통합정부의 명령 아래 둔다. 둘째,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내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된 스코비 장군의 명령 아래 이들 부대들을 둔다. 셋째, 그리스 정부가 발표한 포고에 따라 그리스 게릴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수중에 법률을 취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휘 하의 부대에 의한 어떠한 시도도 금지한다. 넷째, 모든 그리스 게릴라 부대들은 과거의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공동 투쟁의 최상의 이익으로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민족연맹을 수립할 것을 선언한다. C.M. Woodhouse, *Apple of Discord*, pp.306-306.

226)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p.70-71.

227) ELAS의 근거지가 있었던 테살리에서는 현지 독일 보안경찰이 지원한 EASAD(반공행동 민족농업연합)이라는 단체가 1944년 봄 갑자기 나타나 길거리를 다니면서 통행인들을 살해하고 가게를 약탈하고, 고문하였다.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p.334-335.

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헌병대처럼 고위 나치 친위대 소속 경찰 지휘관의 지휘 아래 있었다. 이 지휘관은 저항단체와의 전투에서 주요 역할을 했고, 직접 히틀러(Heinrich Himmler)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보안대대원들은 국왕에 대한 지지가 전통적으로 강하고, EAM으로부터의 보호요구가 강한 스테리아 엘라다, 에우보에아, 펠로폰네스와 같은 그리스의 옛 영토에서 주로 모집됐다.²²⁸⁾ 1944년 들어 보안대대들은 독일군과 함께 연합국의 공격에 노출된 펠로폰네스와 에우보에아에서 대대적으로 저항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였다. 친독협력부대들은 대규모의 방화와 인질 처형을 자행하고, 무차별적인 약탈과 테러를 자행하였다.²²⁹⁾ 이들의 활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상은 보복에 시달리는 민간인들이었다. 마케도니아의 북쪽 지방에서는 독일군 방첩부대와 나치 친위대 경찰들이 저항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스의 우익 준군사단체들을 활용하였다. 악시오스(Axios)계곡의 살로니카 서쪽에 있는 기안니트사(Giannitsa)에서는 악명높은 반공주의자인 공화파 포울로스(George Poulos)가 1944년 9월 14일 하루에만 10살 이상의 모든 남성들을 나오도록 한 뒤 75명 이상을 학살하였다. 이 숫자는 밭에서 무차별 사격으로 희생된 주민들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었다.²³⁰⁾

한편, 점령 시기 독일군과 친독협력세력들의 저항운동세력과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은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독일군 11공수군단 사령관 수투덴트(Kurt Student) 장군은 크레타를 함락한 1941년 5월 하순 크레타섬 주민들이 저항하자 마을 방화와 모든 지역 남자의 절멸을 요구하는 ‘보복 작전’을 내렸다. 이로 인해 2천여 명의 그리스 민간인들이 학살됐고, 몇몇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마케도니아 스트리몬 삼각주에 있는 아노-케르질리온(Ano-Kerzilion)과 카토-케르질리온(Kato-Kerzilion)마을은 니그리타 지역의 게릴라들을 도와준 혐의로 1941년 10월 18일 독일군 제164보병사단 군인들에 의해 전소됐고, 202명이 학살되었다. 1941년 10월 25일에는 살로니카-에게해 지역 독일군사령관은 독일군 병사 2명이 희생된데 대한 보복으로 남자 96명을 처형하고 클레이스토(Kleisto), 키도니아(Kidonia), 암벨로피토(Ambelophito) 마을을 파괴하였다. 10월 24일에는 142명의 인질이 총살되었고, 프톨레마이스(Ptolemeis) 부근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다. 케드로스(André Kedros)는 1941년 10월 한달 동안 독일군이 488명의 인질을 처형하고, 164명을 체포하였다고 언급하였다.²³¹⁾

228)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89-91.

229)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p.341-349;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150.

230) *Ibid.*, pp.336-339.

독일군들이 자신들의 일기에서 밝히고 있는 가혹행위를 보면, 1943년 12월 4일 아이기온(Aigion)에서 50명의 인질이 총살됐으며, 12월 7일에는 25명의 인질이 기티온(Gythion)에서 처형되었다.²³²⁾ 같은 달, 칼라브리타(Kalavryta)에서는 저항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24개 마을을 방화하고, 3개 사원을 전소시키는 한편 696명을 처형하였다.²³³⁾ 독일 점령군은 독일군 병사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스인 50명을 총살할 것이라고 포고하였다.²³⁴⁾

1943년 10월 초 그리스 서북부 지방에서 잘밍거(Salminger)대령이 죽었을 때는 부근 마을에 있는 14명의 인질을 학살하고, 그가 죽은 지역의 군인들에 의해 무차별로 10명의 민간인들을 총살하였다.²³⁵⁾ 그러나 1944년 4월 27일 펠로폰네스 몰라오스에서 게릴라들의 매복 습격으로 독일군 크렌츠(Krentz) 장군과 장교 3명이 죽고, 수명이 부상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4월 30일 그리스 주둔 독일군 사령관 스파이델(Speidel) 장군이 공산주의 죄수들에 대한 처형을 명령해 1944년 5월 1일 200여명의 정치범들이 카이다리(Chaidari)수용소로부터 이송돼 처형되었다.²³⁶⁾ 또 몰라오스-스파르타간 도로 주변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와 100명의 게릴라 혐의자들도 처형하였다.²³⁷⁾

점령 시기 독일군의 가혹행위는 그리스내 유대인들의 절멸을 가져왔다. 1941년 무렵 살로니카시의 유대인 인구는 전체 26만여명 가운데 4만9천여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1만3천여명은 이태리 점령지역에, 5천-6천여명은 불가리아 점령지역인 트라키아에 거주하였다. 최초의 반유대계 정책은 1941년 4월 11일 모든 유대계 출판물의 발간을 중지하고 반유대주의적 『신유럽』(*Nea Evropi*)을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에 대한 ‘최종해결’(final solution)은 살로니카 유대인들의 문화생활, 문서고, 도서관 등에 대한 파괴로 시작되었고, 1942년 7월 13일 살로니

231)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p.173-174;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99.

232) Hugh H. Gardner, *Guerrilla and Counter guerrilla Warfare in Greece, 1941-1945*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the Military History, 1962), p.156.

233)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62.

234)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p.122, 125; 이에 대해 럼멜(Rummel)은 나치 점령 지역에서 게릴라들에 의해 사망할 경우 독일군 병사 1명당 부근의 민간인 100여명을 학살하고, 부상자 1명당 50명을 학살하였다고 주장한다. R. J. Rummel, "Democide: Nazi Genocide and Mass Murder Chapter 1", <http://www.hawaii.edu/powerkills/NAZIS.CHAP1.HTM> (검색일 2008. 6. 1). 또다른 연구자는 독일군이 점령한 다수 지역에서 사망한 독일군 병사 1명당 50-100명의 민간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표준관행이었다고 말한다. Martin Gilbert, *The Second World War: A Complete History* (New York: Henry Holt, 1989), pp.309-310.

235)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p.177-178.

236) Polymeris Voglis, *Becoming a Subject*, p.43.

237)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8.

카-에게해 지역 독일군사령관이 18살에서 45살에 이르는 모든 남성을 강제노동력으로 등록토록 하고, 2천여명의 청년은 그리스내 타지역으로 보냈다. 이들 청년들은 대부분 기아와 질병으로 숨졌다. 최종적으로 1941년 4월부터 1943년 8월까지 살로니카에 거주하는 5분의 1에 이르는 유대인 4만6천여명이 아우슈비츠로 추방되었다.²³⁸⁾ ELAS의 자체 기록만으로도 점령 기간에 1만500여명이 희생되었다. 독일군의 기록에 따르면 독일군은 1943년 5월 이후 8383명의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민간인들은 독일군의 보복 공격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 기간에 그리스인 2만1255명이 희생되고, 2만여명이 체포되었다. 또 1918명의 인질이 처형되었으며 1700여곳의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²³⁹⁾ 점령 시기 독일의 야만적인 정책으로 인해 전체 산림의 75%, 그리스 전체 건물의 23%에 이르는 40만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²⁴⁰⁾

2) 해방과 1944년 12월 봉기

1944년 10월 12일 독일군이 아테네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오전이 되자 수백개의 그리스기가 아테네 시민들의 집에 내걸렸다. 정오가 되면서 헌법광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종을 울리며 해방의 감격을 누렸다.²⁴¹⁾

그러나 혼돈 속에 찾아온 해방은 또다른 내전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점령 시기 독일군의 점령정책으로 인해 그리스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었고 경제적으로는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2차 내전의 징조는 해방된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1944년 12월 발포사건이었다. 12월 2일 EAM 출신 각료들이 ELAS의 강제해산 움직임에 항의해 파판드레우 내각에서 사퇴하였다.²⁴²⁾ 이날 파판드레우 정부는 PEEA 대표 7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ELAS 등 점령 당시 저항단체에 대한 동원해제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항의로 KKE는 12월 3일에는 시위를, 다음 날부터는 총파업을 감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²⁴³⁾

238) Richard Clogg, *A Concise History of Greece*, pp.125-126;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p.91-92.

239)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162.

240) Amikam Nachmani,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the Greek Civil War: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the Balkans, 1947-1952* (New York: Praeger, 1990), p.2.

241) Mark Mazower, *Inside Hitler's Greece*, p.360.

242) *Ibid.*, p.368.

243) 1944년 11월 20일 그리스 주둔 연합국군사령관인 스코비 중장은 아테네에서 제르바스와 사라피스를 만나 동원해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사라피스는 PEEA 대표들을 포함해 전(全) 정부가 동원해제 포고령에 서명하지 않으면 ELAS에 동원해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파판드레우는 내각에서 일련의 회의를 가졌으나 자신의 제안이 공산주의 동료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파판드레우는 포고령 작성에 PEEA 대표들을 초청하였다. 11월 28일 이 포고령은 내각에 제출돼 승

일요일인 1944년 12월 3일 수천여명이 그리스인들이 아테네의 중심지이며 그리스 정치의 심장부인 헌법광장으로 행진하였다. 행진대열에는 젊은 여성과 10대, 심지어 어린이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근교에서부터 모여들었고 일부는 트럭과 자동차를 타고 아테네 시내로 들어왔다. 심지어 피래우스에서도 아테네로 들어왔다. 이들은 추축국과 싸운 저항단체를 해산하고 새로운 군대로 대처하려는 그리스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아테네에 들어왔다.²⁴⁴⁾ 경찰은 아테네 시내의 중심부로 이어지는 모든 거리를 봉쇄했지만, 100여명 규모의 한 집단은 시그루 거리를 통과해 궁과 광장을 마주보는 그랜드 브레타뉴호텔 부근 헌법광장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경찰서로 향하였다. 시위대열이 시내 중심부로 모임면서 움직이자, 확성기를 든 사람이 그들을 선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 “파판드레우는 해야하라!” “개입을 중지하라!” “친독협력자를 기소하라!” “국왕은 해야하라!” “반역자에게 죽음을!”이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이용해 광장으로 연결된 도로를 차단했지만, 시위자 숫자만으로도 그들을 압도하였다. 그들이 든 현수막에는 영국군사령관 스코비 장군의 그리스 개입을 비난하고, ‘리퍼와 앞잡이 파판드레우’를 보안대대 등의 친독협력자들을 지원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²⁴⁵⁾

갑자기 누군가가 파판드레우가 있는 관사로 수류탄을 던져 행인 1명이 숨지고, 경찰 경비병 1명이 크게 다쳤다.²⁴⁶⁾ 이 광경을 지켜본 시위대들은 흥분해 아파트 건물 로비로 나아가려고 시도했으나 관사를 지키는 경비병들에 의해 해산되었다.²⁴⁷⁾ 오전 10시45분 무렵이 되자 시위대의 한 행렬이 헌법광장으로 들이닥쳤

인되었다. 기본사항은 4가지였다. 첫째, ELAS, ELAN, EDES는 12월 10일까지 동원해제할 것. ELAS 1개 여단과 EDES의 동수 부대는 제외. 둘째, 중동의 군사력은 그리스로 귀국 과정에서 동원해제할 것. 리미니여단과 신성대대는 제외. 셋째, 이들 동원해제된 조직원들은 무기를 반납할 것 넷째, 헌병과 EP는 현재 창설중인 국가경비대에 넘길 것 등이었다. 파판드레우는 PEEA의 초안 수용을 내각 동료들에게 설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PEEA 대표들이 이를 거부했고, 제브고스(Zevgos)가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주요 차이는 두가지로 첫째, 리미니여단과 신성대대의 동원해제 요구 둘째, 무기양도 삭제 등이었다. 파판드레우의 동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를 거부하였다. 이때부터 혁명이 결정되었다. 최초의 도전적 행위는 12월 1일 EP의 임무를 국가경비대에 넘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다. 같은 날 제브고스는 기관지 『리조스파스티스』에 협상시간이 지났고, 무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파판드레우는 이를 KKE가 국민을 내전으로 내몰고 있고, EP의 거부는 반역이라고 비난하였다. C.M. Woodhouse, *Apple of Discord*, pp.215-217.

244)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pp.137-140;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100.

245) Mary Henderson, *Xenia-A Memoir: Greece 1919-1949* (Leicestershire: Thrope, 1991) p.274; Wilfred Byford-Jones, *Greek Trilogy: Resistance, Liberation, Revolution* (London: Hutchinson, 1945), p.138.

246) Mary Henderson, *Xenia*, pp.275-276.

247)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103.

다. 그들은 8-10월 중대를 형성하고 일부는 영국, 그리스, 미국, 소련의 국기를 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붉은 잉크로 쓰인 구호가 적힌 깃발을 흔들었다.²⁴⁸⁾ 시위대와 경찰서 사이에는 20여명의 겹에 질린 경찰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친독협력자로 규정되었다. 해방 이후 그리스 정부는 보안기관들과 친독협력단체들을 숙청하는데 실패하였다. 정부는 숙청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이유로는 1944년 12월 3일 오전 아테네 중심부를 향해 전진하는 군중들을 막지 못하였다.²⁴⁹⁾ 시위대가 점점 가까이가오자 경찰의 두려움은 공포로 바뀌었고 시위대가 경찰이 설정한 비상선으로부터 100여야드 안까지 접근하자 갑자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경찰서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한쪽 무릎을 꿇고 사격하기 시작하였다. 조금 뒤 공황상태에 빠진 경찰들이 뒤따라 사격하였다. 30여분에 걸친 사격이 끝나자 시위대 가운데 12명이 숨졌다.²⁵⁰⁾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동료들의 시신을 끌고 오기 위해 광장으로 돌진했으며, 일부는 부상자들을 자신들의 몸으로 감쌌다. 사격이 끝나자, 곧바로 희생자에 대한 시위대의 분노가 폭발하고 반대로 경찰의 두려움이 나타났다. 바이포드 존스는 “수천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위협과 도전으로 소리쳤다. ……시위 참가자들은 비명과 소리를 지르며 서 있었고, 일부는 ‘나를 쏘라. 이 겁쟁이야. 이 파판드레우의 고용인들아’”라고 소리치며 울었다.²⁵¹⁾

정오가 되자 두 번째 시위대가 경찰의 비상선을 뚫었고, 인파는 광장을 가득 메웠다.²⁵²⁾ 경찰이 시위대를 저지하는데 실패하자 영국군 낙하산 중대가 광장의 시위군중들을 밀어내 해산시켰다.²⁵³⁾ 경찰은 계속해서 경찰 비상선 안에 머물렀고, 광장에서 사격을 가했던 사람은 사라졌다.²⁵⁴⁾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EAM 지

248) Wilfred Byford-Jones, *The Greek Trilogy*, p.138.

249)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104.

250) Wilfred Byford-Jones, *The Greek Trilogy*, p.139;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245.

251) Wilfred Byford-Jones, *The Greek Trilogy*, pp. 139-140.

252)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맥닐은 6만여명이 헌법광장을 채웠다고 언급한다.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p.141.

253)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106.

254)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pp.165-171; John O. Iatrides, *Revolt in Athens: The Greek Communist "Second Round," 1944-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pp.187-194; 12월 3일에 일어난 발포사건과 관련한 극도의 혼란스러움은 *Xenia*에 잘 나타나 있다. 헨더슨은 기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신들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도했다고 회고하였다. “한 미국 기사는 영국군 탱크들이 군중 속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탱크는 개입하지 않았다. 한 영국 기사는 경찰이 그리스들에게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그 기사는 그리스어를 몰랐다. 일부는 ‘파시스트’ 경찰이 발포했다고 하고, 또다른 사람들은 공격을 받은 ‘신경질적인’ 경찰이 발포하였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군중들이 무장을 하였고 먼저 발포하였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사격이 1시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했지만 어떤 이들은 30분, 또 어떤 이들은 15분이라고 기억하였다. 또

지자 수천여명이 임시 관을 실은 수대의 트럭이 앞장서는 긴 장례 행렬에 합류하면서 일단의 시위대들이 총격 사건에 대해 항의하였다. 정오가 되자 시위대들은 ‘살인자에게 죽음을!’, ‘희생자의 복수를!’ 이라고 외치면서 행진하다가 경찰과 EDES, X의 사격을 받았다. 이날 오후 ELAS 부대들은 아크로폴리스에 인접한 테세우스 사원 근처의 X 본부 쪽으로 진격하였다.²⁵⁵⁾ ELAS는 이 건물에 처음으로 박격포를 발사하는 등 격렬한 전투를 벌여 건물에 화염이 치솟았다. 오후가 되자 영국군이 질서를 회복했으나 40여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7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 이후 수시간 동안 ELAS 응원부대들은 아테네와 피레우스의 경찰서들을 포위하고, 아테네에서는 경찰서 24곳 가운데 21곳을 장악하였다.²⁵⁶⁾ 12월 3일 이후 ELAS는 새로 창설된 국가경비대 부대들을 무장해제하고, 4천여정의 총을 노획하였다.²⁵⁷⁾ 12월 3일의 발포사건에 이어 다음날부터 총파업이 단행돼 30일 동안 아테네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의 생계도 한계에 부딪혔다. 전기와 상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됐고, 전투기간에 극소수의 전화만이 가동되었다.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극장, 가게, 호텔,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 교통도 중단돼 빈곤한 사람들에게 절박한 식량, 의약품, 기타 생필품을 수송하는 배의 하역도 중단되었다. 파업은 아티카와 테살로니키로 확산되었다.²⁵⁸⁾ 12월 봉기 이후 6개월 동안은 그리스 경제가 전문가의 결핍과 책임있는 각료들의 정치 의지 부족 등으로 완전한 ‘자유방임’의 국면을 경험할 정도로 점령으로 야기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뚜렷하였다.²⁵⁹⁾ 1944년 12월 봉기 당시 15살로 아테네시의 콜로나키 지역 변화가에 살았던 도디스(Dione Dodis)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점령 시기 식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12월 봉기 기간에 진짜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지요. 며칠 동안은 외출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부근의 임시 야적장의 쓰레기통

어느 쪽이 목격했는지에 따라 사상자 수는 오르내렸다. EAM/ELAS는 22명이 죽고 수백명이 다쳤다고 했지만, 또다른 추정치는 11명이 죽고 60명이 다쳤다고 하였다.” Mary Henderson, *Xenia*, pp.272-273.

255) X는 1천여명의 조직원이 있고, 골수 반공주의자이며 왕당파인 그리바스(George Grivas)대령이 지휘하였다.

256)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p.107-109; William H. McNeill, *The Greek Dilemma*, p.143.

257)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41.

258)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167; 헨더슨은 12월 2일부터 총파업이 벌어졌다고 회고하였다. Mary Henderson, *Xenia*, p.270.

259) Christos Hadziiosif, "Economic Stabilization and Political Unreset: Greece 1944-1947", Lars Bærentzen, John O. Iatrides and Ole L. Smith,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1987), p.28.

이나 휴지통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우리는 주방의 의자들을 잘라서 빨감으로 사용했지요.²⁶⁰⁾

봉기 초기에는 ELAS는 영국군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경찰을 집중공격해 3천여명 가운데 600여명이 희생되었다. 그리스 주둔 연합국군최고사령관 스코비 장군은 봉기 이틀 뒤인 12월 5일 처칠로부터 “귀관은 지방 반란군들이 횡행하는 점령 도시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²⁶¹⁾ 7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영국군은 이날부터 탱크와 포, 항공기를 증강시켰으며, 나중에는 군함까지 동원하였다. ELAS의 무장은 이태리제와 독일제 경자동화 무기가 대부분으로 박격포와 중기관총, 2-3문의 야포를 제외하고는 중무기가 거의 없었고, 대원들의 나이는 평균 17세로 젊었다.²⁶²⁾ 그 이후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으나 영국군의 직접 개입으로 12월 봉기는 마무리 돼 갔다. 12월 18일부터 영국군은 지속적으로 과거 친독협력부대 출신들이 대거 포함된 국가경비대를 보조부대로 활용하면서 ELAS를 압박하였다. 1월 5일이 되자 수세에 몰린 대부분의 ELAS 부대원들은 아테네를 포기하였다. 영국군의 집계에 따르면 메트로폴리스 지역의 전투에서만 ELAS 조직원 2천-3천여명이 사망하고, 전투원과 지지자 7540명이 투옥되었다. 한편 그리스 우익 전투원들은 경찰 889명과 군인 2591명 등 3480명이 사망하고, 상당수가 체포되었다. 영국군은 21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실종되었다. 아테네 이외에서는 서부 마케도니아의 미칼 아가스의 조직원 500여명과 동부 마케도니아 안톤 사우스(Anton Tsaous)의 조직원 300-400명 등 800여명 이상의 EDES 조직원들도 희생되었다.²⁶³⁾

1947년 제주 3·1사건이 4·3무장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면, 1944년 12월 3일의 발포사건은 2차 내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해방 이후 귀국한 망명정부의 대우에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품었던 좌파는 12월 3일의 발포사건을 계기로 봉기와 총파업을 일으켰으나 영국군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뒤이어 체결된 바르키자협정 이후 ELAS에 대한 무장해제는 정부와 우익단체의 좌파 및 민중들에 대한 백색테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결국 3차 내전의 전조가 되었다.

260) Dione Dodis 인터뷰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164에서 재인용).

261)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p.134-135.

262) John L. Hondros, *Occupation and Resistance*, p.246; Mary Henderson, *Xenia*, pp.278-279.

263)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40.

3) 바르키자협정과 백색테러

12월 전투가 한창이던 1944년 12월 25일 처칠은 외무장관 이든(Anthony Eden)과 함께 파판드레우 정부, KKE, EAM/ELAS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담을 주재하기 위해 아테네로 가 12월 26-27일 그리스 외무부에서 회담을 열었으나 전투 종식을 위한 협상에 실패하였다. 이들은 국민투표로 국왕의 복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마스키노스 대주교를 섭정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더불어 플라스티라스 장군이 영국군의 지지 속에 총리가 되었다. 다마스키노스 섭정이 플라스티라스 장군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왕정제를 회복시키려는 것이었고, 그를 나중에 친독협력행위 혐의로 내쫓고 그리스 해군제독인 보울가리스를 후임 총리로 임명한 것도 같은 목적이었다.²⁶⁴⁾

ELAS가 영국군의 적극 대응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1945년 1월 13일 소련이 불가리아 공산주의 지도자 디미트로프(Georgi Dimitrov)를 통해 KKE와 EAM/ELAS에 평화적인 활동을 고수하라는 강력한 지령을 전달하였다.²⁶⁵⁾ 소련의 지원을 희망했던 이들은 소련의 태도에 실망하였다.²⁶⁶⁾

1945년 2월 2일 양쪽 대표와 영국 대표는 바르키자 마을에서 만났다. EAM 중앙위원회 정치 대표는 시안토스와 파르트살리디스이고, 시리모코스는 인민민주동맹(ELD)을 대표했으며 그리스 정부 대표로는 소피아노포울로스(Sophianopoulos), 랄리스(P. Rallis), 마크로포울로스(I. Makropoulos)가 참가하였다. 주요 안건은 ELAS의 무장해제와 해산, 인질의 석방, 국가의 향후 정권에 관한 국민투표와 총선거였다.²⁶⁷⁾ 아테네 부근 해안마을인 바르키자(Varkiza)에서의 협상과정에서 시안토스를 포함한 EAM 대표들은 정부 구성 참여 포기는 물론 지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밤샘 회의 끝에 2월 15일 체결한 협정

264) 죠세프 S. 류섹(Josep S. Roueck), '希臘의 政治政勢'(Government and Politics Abroad 1947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86.

265)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142-143.

266) 이러한 징조는 1944년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1944년 7월 25일 밤 포포프(Grigori Popov) 대령을 단장으로 한 소련군사절단의 갑작스런 그리스 방문에서 보인다. 소련군사절단은 KKE, EAM/ELAS와 회담을 가졌으나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드하우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갖고 오는 것을 소련사절단에 기대했던 ELAS는 포포프 대령이 황금인 무기와 탄약은 고사하고 보드카도 갖고 올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C.M. Woodhouse, *The Apple of Discord*, p.198; 처칠과 스탈린은 1944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발칸에서의 영국과 소련의 세력권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소련과 영국은 루마니아와 그리스에서 각각 90%의 우위를 점하기로 했으며, 소련은 불가리아에서 75%를,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에서는 각각 50%씩의 세력을 갖기로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1944년 12월 붕기 당시 영국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도 스탈린은 냉소적으로 처칠의 움직임을 인정하였다. Amikam Nachmani,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the Greek Civil War: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the Balkans, 1947-1952* (New York: Praeger, 1990), p.3.

267) 그리스정부와 EAM 대표 간에 체결한 8개항의 바르키자협정 내용은 C.M. Woodhouse, *Apple of Discord*, pp.308-310을 참조;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12.

에서 그들은 ELAS를 해산기로 합의하고, 일반 범죄 혐의가 인정된 이들은 사면에서 제외하는 안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ELAS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양보였다.²⁶⁸⁾

제브고스와 카라기오르기스(Kostas Karagiorgis) 등 2명의 EAM 중앙위원을 제외한 모든 중앙위원들이 바르키자협정을 받아들였다.²⁶⁹⁾

협정 이후 ELAS의 부대 해산이 이어졌으나 ELAS는 3만여명을 무장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무기를 은닉하였다.²⁷⁰⁾ 아리스 벨로우키오티스와 일부 ELAS 대원들을 제외하고는 ELAS의 주요 조직들은 별다른 충돌없이 무장해제하고 해산하였다.²⁷¹⁾

1944년 12월 봉기에서 좌파의 실패와 1945년 2월 바르키자협정 체결 이후 그리스의 우익 정치세력과 군·경, 준군사단체들은 영국의 지원으로 다시 결집하고, 점령 시기 EAM/ELAS로 모인 사회정치세력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자행하였다.²⁷²⁾ 바르키자협정 직후 경찰은 EAM/ELAS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고, 친독협력부대였던 보안대대들은 공개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을 위협하였다. 이와 함께 그리스 정부는 '1944년 12월 3일 반란' 참가자들을 국가 기구에서 숙청하는 법률 제25조(1945년 3월 22일)를 발표하였다. 이 법률은 좌익 박해에 대한 법률적 틀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4월 17일자 『런던타임즈』(*London Times*)는 "EAM 지지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ELAS 출신들은 구타와 체포, 날조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테네에 있는 수백명의 공사 직원들은 단순히 EAM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며 "바르키자협정은 '죽음의 편지'가 되었다"고 보도하였다.²⁷³⁾

268)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44.

269) 류섹은 바르키자협정을 맺게 된 이유에 대해 좌익측이 전투를 계속한다면 우익이 영국과 더욱 결탁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고, 우익측에서도 빨리 부르주아지와 노동진영이 점점 좌익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알고 전투를 중지함으로써 좌익세력의 증가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영국의 입장에서는 왕정제를 회복해 왕당파를 내세워 그리스에서의 이익을 보장하고 지중해를 거쳐 중동과 아시아에 이르는 해상로의 안전을 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조세프 S. 류섹(Joseph S. Roueck), '希臘의 政治情勢'(Government and Politics Abroad 1947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p.85-86.

270)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45.

271)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13.

272) Philip B. Minehan, "What was the Problem in Greece? A Comparative and Contextual View of the National Problems in the Spanish, Yugoslav and Greek Civil Wars of 1936-49", Philip Carabott & Thanasis D. Sfikas, *The Greek Civil War: Essays on a Conflict of Exceptionalism and Silences* (Hampshire: Ashgate, 2004), p.51.

273) Procopis Papastratis, "The Purge of the Greek Civil Service on the Eve of the Civil War", Lars Bærentzen, John O. Iatrides and Ole L. Smith,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p.42.

바르키자협정 체결 시기 정부-우익 무장단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체는 국가경비대였다. 국가경비대는 처음에는 극우테러조직인 X와 친독협력부대인 보안대대 출신자들을 포함한 열광적 반공주의자들로 구성됐으나, 12월 봉기 이후에는 군 예비군으로 소집된 민간인 징집자들이 증가하였다. 국가경비대는 12월 말이 되자 1만5천여명에 이르렀고, 1월 말에는 2만3천여명으로 늘었다. 국가경비대의 폭력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ELAS가 해산된 뒤 곧바로 나타난 우익단체들에 의해 계속되었고, 이들의 가혹행위는 좌익뿐 아니라 민간인들로 하여금 좌파로 기울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⁷⁴⁾

경찰 또한 강력한 반공주의자들이었다. 경찰은 종종 국가경비대와 협력해 정치적 편견을 갖거나 습관적으로 좌익 혐의자나 동조자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다.²⁷⁵⁾ 1945년 한해동안 거의 모든 시골 지역과 도시에서는 국가경비대 및 자위대와 함께 활동한 경찰은 KKE와 EAM/ELAS의 조직원들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사무실과 인쇄소를 파괴하고 신문 배포를 차단함으로써 합법적 조직을 심각할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은 반면 친정부 신문들은 암시장 등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되었다.²⁷⁶⁾ 1945년 6월 무기양도를 거부한 채 저항을 계속했던 아리스 벨로우키오티스는 아르타 근처에서 국가경비대와의 전투 끝에 사망하였다. 그는 사살된 뒤 효수대 트리칼라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되었다.²⁷⁷⁾

전후 유럽 전역의 교도소가 파시스트와 협력자로 넘쳐났지만, 그리스 수형인들의 대부분은 좌익저항단체 조직원들이었다. 그리스 주재 영국법률사절단에 따르면 1945년에만 8만건의 영장이 발부됐고 5만여명이 체포됐으며 1945년 10월 1일 현재 1만6700명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들 수형인 가운데 2896명은 협력자들이었고, 7077명은 일반형사범들이었으며 6027명은 12월 봉기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수형인의 절반 이상이 정치범으로 추정되었다. 『리조스파스티스』는 1945년 11월 14일 1만5009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다고 보도하였다.²⁷⁸⁾

바르키자협정 이후의 백색테러로 정부와 극우단체들의 탄압을 받는 좌익진영에

274)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53.

275) David H. Close,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Right, 1945-1950", John O. Iatrides and Linda Wrigley, ed., *Greece at the Crossroads*, pp.128-129.

276) Heinz Richter, 'The Varkiza Agreement and the Origins of the Civil War', in John O. Iatrides, ed., *Greece in the 1940s: A Nation in Crisis*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1), p.170.

277)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15.

278) Polymeris Voglis, "Becoming Communist: Political Prisoners as a Subject during the Greek Civil War", Philip Carabott & Thanasis D. Sfikas, *The Greek Civil War*, p.143.

대한 대중적 지지는 더욱 증가하였다. 1945년 5월 한 중소도시에서 나온 보고서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그리스인들의 정서를 보여준다.

플로리나에서……극우파는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일부 인사들은 극우파가 존경받는 온건파 인사들을 공격함으로써 이들이 대의명분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더 흥미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다.……[1944년 12월의] 내전 시기 보다 국가경비대의 진주 이후 더 많은 살인과 폭행, 테러체포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²⁷⁹⁾

반공 그리스 정부는 게릴라들에 대한 보다 강경정책을 선포하였고, 수많은 좌파 혐의자와 동조자들이 도시와 지방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강경정책은 ELAS 출신자들로 하여금 다시 게릴라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역할만 하였다. 한 헌병은 무차별적인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와 투옥으로 “투옥된 일반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돼 나온다”고 할 정도였다. ELAS 사령관 출신 사라피스는 1945년 6월 우드하우스와 가진 사적 대화에서 “백색테러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던 수만명의 직장인과 사무직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들어가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²⁸⁰⁾ 거가 말하는 바와 같이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폭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이러한 그리스에서의 백색테러 시기에 찾을 수 있다.²⁸¹⁾ EAM은 바르키자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1946년 3월 총선까지 백색테러로 인해 1289명이 살해(우익조직에 의한 살해 953명, 국가경비대에 의한 살해 250명, 헌병에 의한 살해 82명, 영국군에 의한 살해 4명 등)되었고, 668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EAM 사무실 677곳, 1만8767명의 재산이 파괴되었다고 기록하고

279) Petros Rousos, *E Megale Pentaetia* 2 vols (1978) II, p.392(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71에서 재인용).

280)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72.

281)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폭력으로 표출된 사례는 콜롬비아에서도 볼 수 있다. 1948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자유당내의 급진 개혁주의자이자 다가올 1950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도시 하층민의 지지를 받던 가이판이 암살되자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있던 부와 권력은 민중에게 정치경제적 차별과 지속적인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민중의 분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고따조’(보고타에서의 파괴적 도시폭동)를 유발시켜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이 사건은 1946년 보수당의 집권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당파적 투쟁에 기름을 부으면서, 콜롬비아 역사상 가장 장기적이고 폭력적인 ‘대폭력’(la Violencia: 1948~1958)의 서곡이었다. 차경미, “끝나지 않는 전쟁: 콜롬비아의 내전”,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원, 『비교문화연구』 제10권 제2호(2006); 조성권, “콜롬비아에서 정치폭력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양당주의, 후견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중남미문제연구소, 『중남미문제연구』 14 (1995). 대폭력시기의 희생자수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Gonzalo G. Sánchez, "The Violence: An Interpretative Synthesis", Charles Bergquist, ed, *Violence in Columbia: The Contemporary Crisis in Historical Perspective* (Wilmington, Delaware: S.R. Books, 1992), p.91.

있다.²⁸²⁾ 이처럼 백색테러는 EAM에 반감을 가진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군장교들의 비공식적 동맹자와 국가경비대, 경찰, 우익단체 등에 의해 자행되었다.

협정 체결 이후 백색테러와 체계적인 위협 속에서 영국의 총선 주장은 KKE에 영국과 그리스의 우익들이 모든 활용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억압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줬다.²⁸³⁾ 한편 다마스키노스는 1945년 11월 21일 섭정직을 사임하였고, 다마스키노스로부터 전날 위임을 받은 테미스토클레스 소포울리스는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²⁸⁴⁾

12월 봉기와 바르키자협정 이후 정부-우익의 연합세력이 전국적으로 자행한 공포정치와 백색테러는 질식상황의 그리스인들을 저항폭력의 상태로 몰고갔다. 그리스 정부와 군·경, 우익단체의 탄압이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총선거 직전인 1946년 3월 30-31일 야간에 ELAS는 올림푸스산 동쪽 기슭의 리토호로(Litohoro)라는 작은 마을을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인 3차 내전의 신호탄을 올렸다.

2. 남한

1) 미군정기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정치폭력

식민지배는 억압의 기제에 의해 강요된 체제이다. 따라서 탈식민지화는 폭력적 현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파농의 말을 빌면 “민족해방, 민족 부흥, 인민에의 국가 반환, 연방 등등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 아니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붙이든, 탈식민지화는 언제나 폭력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²⁸⁵⁾ 탈식민지는 또한 한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립을 위한 폭력은 식민통치로 상실된 자아를 되찾는 근원적인 문제와 연결되며²⁸⁶⁾ 식민지배의 붕괴는 식민지 민중의 혁명적 분출을 가져온다. 혁명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정부의 기능 및 정책에 있어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현존 정치제도의 파괴, 새집단의 정치적 동원, 그리고 새로운 정치제도의 창출을 의미한다.²⁸⁷⁾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종전 및 식민지배의 붕괴와 함께 나타난

282) David. H. Close, "The Reconstruction of a Right-Wing State", David H. Close ed., *The Greek Civil War, 1943-50: Studies of Polarization* (New York: Routledge, 1993), p.164.

283)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178-179.

284) *New York Times*, 1945. 11. 22.

285) Franz Fanon,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p.55.

286)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서울: 나남, 1992), p.96.

287) Samuel P. Huntington 지음/민준기-배성동 역, 『정치발전론』 (서울: 을유문화사, 1971), pp.326, 328.

근대국가수립 움직임의 분출은 당연한 것이었다. 일제 권력이 붕괴된 1945년 8월 15일부터 남한 단독정부가 들어선 1948년 8월 15일까지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의 정치 갈등의 핵심은 새로운 정부 수립에 있어 국가권력의 장악문제였으며, 일제의 식민지 권력의 붕괴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계기를 제공하였다.²⁸⁸⁾

미군정기 인민위원회의 결성과 이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 경찰기구의 확대에 따른 갈등의 폭발, 9월 총파업과 대구 10월 항쟁, 탁치논쟁과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은 해방공간 남한사회에서 정치적 갈등과 정치적 폭력의 분기점이었다.²⁸⁹⁾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이 발표되자 여운형과 안재홍을 중심으로 한 국내 세력은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제 강점기의 통치기능을 떠맡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수립하고 신속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해 나갔다.²⁹⁰⁾ 건준의 존립기간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된 9월 6일까지의 22일간이었다.²⁹¹⁾ 헌팅턴이 “혁명은 지방집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는 바와 같이²⁹²⁾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성립을 전후해 단기간에 남한 각 지방에서도 지방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강령으로 내세운 건준은 ‘해방 이후 최초의 대안국가(counter state)’였으며²⁹³⁾ 사실상의 정부(*de facto* government)였다.²⁹⁴⁾ 그러나 군정장관 아놀드는 10월 10일 인공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⁹⁵⁾

288) 최장집·정해구,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p.21.

289) 여기서는 일반적인 정치폭력의 현상으로서 첫째, 정치폭력은 물리적인 힘의 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내포한다. 둘째, 그러한 정치폭력은 내용에 있어서 정치성을 띠어야 하는 것으로 개념을 내릴 수 있다. 조성권, “콜롬비아에서 정치폭력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양당주의, 후견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 중남미문제연구소, 『중남미문제연구』 14(1995), p.47.

290) 김희재는 건준지부가 9월 6일 인민공화국의 출현과 함께 대개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지만 건준지부가 갖는 성격과 이후 인민위원회가 갖는 성격을 구분하였다. 건준지부(사:도를 범위로 하는)는 급진적 엘리트의 자주적 민족국가의 열의의 표현체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지방인민위원회(군:면을 그 범위로 하는)는 민중의 구체적인 꿈들이 표현된 조직체라고 하고 있다. 김희재, 『미군정기 민중의 꿈과 좌절-인민위원회 운동을 중심으로』, 부산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p.131.

291) 커밍스는 “건준은 조선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장기적 미국의 후원이나 미국의 환심을 산 다른 조선인들의 권력 장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표면상의 조선정부를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84; 김희재, 앞의 논문, pp.125-127.

292) Samuel P. Huntington, 『정치발전론』, p.355.

293) 최장집,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 1989), p.121; 건준의 결성에 대해 박명림은 그 람시(Antonio Gramsci)의 표현을 빌어 민족적 민중적 집합의지(national popular collective will)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블록’(historical bloc)이라고 말한다. 박명림, “한국의 국가형성, 1945-1948: 시각과 해석”,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1995), pp.197-198.

294)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54.

295) 아놀드는 “금일 내가 기자제군에게 발표하는 기사 재료는 각 신문 제1면에 특재할 것인바 이는 명령의 성질을 가진 요구”라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이 정부는 맥아더 원수의 포고와 하지 중장의 정령과 아놀드 소장의 행정령에 의하여 정당히 수립된 것이다. 아놀드 군정장관과 군정관들이 엄선하고 감독하는 조선인으로 조직된 정부로서 행정 각 방면에 있어서 절대의 지배력과 권위

이런 과정에서 인민위원회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은 1945년 서울에서 시작된 뒤 얼마없어 도 차원에서 전개되었다.²⁹⁶⁾ 그 뒤 인공의 중앙조직은 흐지부지되다가 일부가 1946년 2월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 G-2보고서는 1947년 4월에도 인민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민위원회의 유물인 껍데기 행정조직이 조선 전역에 남아있다. 이 조직은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남로당의 기본요구는 정부를 인민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⁹⁷⁾ 1946년 들어 2월 19일 미군정 법령 제55호 ‘정당등록법’을 공포해 실질적으로 좌익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나갔다.²⁹⁸⁾ 이에 대해 『조선인민보』는 “군정법령 제55호는 일제의 치안유지법보다 더 가혹하다”고 비판하였다.²⁹⁹⁾ 『주한미군사』도 “이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공동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남조선 공산주의자들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한 미군정의 필요 때문”이라고 밝혔다.³⁰⁰⁾

인민공화국의 부인은 지방인민위원회에 대한 미군정과 경찰의 물리적인 탄압을 동반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부인이었다.³⁰¹⁾

정치적 억압이 다양한 제도의 내적·외적 수단을 통해 행사되면 그에 대항한 억압이나 압제에 대항하는 노력이 나타나며, 이러한 억압과 대항의 충돌은 폭력적 양상으로 전개된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발전 또한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졌다.³⁰²⁾

해방 이후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에 대한 탄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은 친일경찰이었다. 해방 직후 일제 경찰에 복무했던 조선인들은 민족반역자라는 비난을 받다가 갑자기 미군정 하에서 좌파세력에 대한 탄압주체로 등장하였다. 남한의 경찰제도는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의 경찰과 수법이나 권한이 유사하였다. 임의 체포와 고문, 또는 이러한 위협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절차였다.³⁰³⁾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많은 일제 경찰 출신들이 자

를 가지었다”고 주장하였다. 『매일신보』, 1945. 10. 11.

29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350.

29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83, 13 April 1947.

298) 김희재, 앞의 글, p.182; 해방후 짧은 기간내에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출현하였는데 1945년 10월 24일 이전에 군정청에 등록된 정당은 54개였지만 1946년 3월에는 134개의 정당이 미군정법령 제55호에 따라 등록했고, 1년도 되기 전에 300개에 이르렀다. Gregory Henderson,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p.212.

299) 『조선인민보』, 1946. 2. 27.

300) HUSAFIK 2, p.32.

301)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p.135.

302) 하형주,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관한 연구: 1948~1997』,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p.3.

신들의 동포를 체포하고 고문한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은 1947년 중반까지 2만2천여명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남한 재소자 수의 2배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밝히고 있다.³⁰⁴⁾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러한 일제 경찰의 수법을 찬양하였다.³⁰⁵⁾ 그는 공산주의를 배제하는 데 있어서 가혹한 식민통치를 했던 일제 경찰의 방법을 옹호할 만큼 ‘공산주의’는 ‘절대악’으로 간주하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좌파에 대한 경찰의 고문행위를 옹호하였다.³⁰⁶⁾

한편 미군정에 의해 증원된 경찰은 인민위원회 중심의 자생적 권력기구들을 와해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주요 좌익단체들을 해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³⁰⁷⁾ 경찰은 또 5·10선거 실시과정에서 반대세력의 투쟁을 진압함으로써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³⁰⁸⁾

1947년 8월 12-14일 전라북도 상황을 보여주는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통계를 보면 좌익인사 850명이 8월 30일 현재 심문도 받지 않은 채 수감돼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10일 이내에 혐의가 없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뉴욕포스트』(*New York Post*) 특파원 비치(Keyes Beech)는 1947년 10월 15일 서울발 기사에서 “남한의 유치장은 좌파인사들에 대한 우익경찰의 ‘선언하지 않은 전쟁상태’로 인해 정치범들로 넘치고 있다.……미군 당국은 악명높은 야만적인 경찰의 방법을 통탄하고 있는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찰의 현재 행위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정치범들은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

303) Departmental Despatch No. 23/1949, Australian Mission in Japan to Australia, *Subj: United States Commission on Korea, 25th February 1949*, A 1838, Australia National Archives.

304) Gregory Henderson,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pp.226-227.

305) 그는 제주도에서의 진압작전이 한창 벌어지던 시점인 1949년 2월 5일 UNCOK 대표단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공산주의를 소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어떤 수단을 써서든 좌익을 배제하려 하였다. Departmental Despatch No. 1/1949, Australian Delegation to the UN Commission on Korea, *Subj: Summaries of Activities - 5th to 12th February, 1949*, 12th February 1949. A. 1838, Australia National Archives.

306) 내무부장관 김효석은 1949년 12월 11일 대구에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살인과 방화 등을 자행하다 체포된 공산주의자들을 심문하면서 고문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내무부차관 장경근도 “공산주의자들을 고문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고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오히려 고문을 권장하였다. A-438,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 20, 1949.

307) 미군정 경찰고문관 매글린 대령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이 훈련시킨 친일경찰을 계속 쓰는 일이 현명한 처사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로서의 자질을 천성적으로 갖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본인을 위해 훌륭히 업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경찰에서 몰아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말하였다. Mark Gayn 지음, 까치 편집부 옮김, 『해방과 미군정』 (서울: 까치, 1986), p.68.

308)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pp.117-124.

며 이에 대해 미국인 관리는 ‘그들이 말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고 보도하였다.³⁰⁹⁾ 주한미군사령부가 경찰의 야만적이고 악명높은 방법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이어서 경찰의 행위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키즈 비츠의 분석과 같이 당시 남한을 통치하였던 미군정은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과도정부는 남한에 정치범이 수천여명이 있다는 비난과 관련해 1947년 10월 31일 현재 1만7867명의 기결수 가운데 정치범은 1명도 없다고 밝혔다. 정치고문관 대리 랭던(William R. Langdon)은 1947년 10월 남한의 상황을 “사회는 점점 정치적으로 흥분돼 가고 반항적이며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한계상황”이라고 표현하였다.³¹⁰⁾

외곽에 있는 우익단체 또한 해방공간 정치폭력의 중심에 있었다. 신복룡은 외곽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적대세력을 제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의 동원 체제로 가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¹¹⁾ 이 가운데 규모나 정치테러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체는 서북청년회(약칭 서청)였다. 서청은 대한혁신청년회, 함북청년회, 황해청년부, 북선청년회, 양호단, 평안청년회 등의 단체가 1946년 11월 30일에 통합하면서 발족한 단체다.³¹²⁾ 서북청년회는 강령으로 (1) 조국의 완전자주독립 쟁취 (2) 균등사회의 건설 (3) 세계평화에의 공헌으로 정하였다.³¹³⁾ 이들의 활동계획은 (1) 38선 철폐운동 (2) 조선의 전 청년단체 통합 (3) 조선의 국제문제를 간섭하는 음모자 제거 (4) 반역적 친일세력 추방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상호 민족적 투쟁 (6)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관료주의 철폐 (7) 언론, 종교, 결사의 자유보호 (8) 국가경제의 안정화와 피난민 구조 (9) 국가수호를 위한 신체와 정신의 단련 등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 G-2보고서는 서청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빨갱이 사냥’(red hunt)에 매달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서청은 타 우익단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이승만의 의지대로 움직일 것”이라며 “서청은 좌익 혐의자들에 대한 테러통치를 계속할 것”이

309) Despatch No. 175, *Subj: Prison Population in South Korea*, W. R. Langdon, American Consulate General, Office of Political Adviser, Hqs, XXIV Corps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19, 1947.

310) *Ibid.*

311)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서울: 한울, 2001), p.185.

312) 『동아일보』, 1946. 11. 30;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서울: 금문사, 1973), p.706; 전두열, 『삶과 사랑, 자유의 초상-정암 전두열 자서전』 (서울: 예진문화, 2006), p.52.

313) 전두열, 『삶과 사랑, 자유의 초상-정암 전두열 자서전』, p.52.

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서청은 유용하다. 반탁 시위를 벌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으면 기꺼이 반탁 시위대를 조직할 것”이라며 미군정의 의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간주하였다.³¹⁴⁾

출범 당시 조직부장이었던 전두열은 “이 당시 대소사건에 피의 투쟁을 계속하면서 조직을 확대하여 갔다. 이리하여 전국적인 강대한 조직과 투쟁력을 겸비한 위력을 내외에 떨친 것은 1947년 3·1절 시위사건이다”고 회고하였다.³¹⁵⁾ 서청본부는 1947년 6월 10일 남한파견대 본부를 대전에 설치하고 총책임자에 임일을 임명하였다. 전두열은 이에 대해 “임일은 장군 칭호를 가지고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민족반역도당과 친일파들을 때려 부수는 일에 앞장섰으며, 서청원들의 용맹성은 초인간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³¹⁶⁾ 서청 간부의 발언처럼, 서청은 ‘초인간적인’ ‘용맹성’을 가지고 ‘피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조직을 확대시켰다.

해방 직후 국가건설을 둘러싸고 분열과 대립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터져 나온 탁치논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당과 사회단체 등의 논쟁수준에서 민족적 대립과 분열로 확대돼 정국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의된 신탁통치 논쟁³¹⁷⁾은 1948년 남한과 북한의 두 분단국가로 이어지는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³¹⁸⁾ 신탁통치에 대한 3상회의 결정은 사실 왜곡여부를 떠나 즉각적인 독립을 기대하던 조선인들에게는 충격적 소식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 G-2보고서조차 “‘신탁통치’라는 용어는 일본의 조선 점령 때 사용한 용어이며, 위임통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조선인들에게는 모욕적”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³¹⁹⁾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오보를 시작으로 전개된 반탁운동은 1946년 1월 중순 박헌영-존스톤 회견 왜곡 보도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성격이 재차 강조됐으며, 1월 하순 타스 통신이 3상회의 협상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수그러들었다.³²⁰⁾

1946년 내내 우익정파들은 젊은 깡패들로 구성된 사적 조직들을 가지고 있었으

314)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90, 1 June 1947.

315) 전두열, 『삶과 사랑, 자유의 초상-정암 전두열 자서전』, p.53.

316) 위의 책, p.56.

317) 탁치논쟁에 대한 분석은 이동현, 『한국신탁통치연구』 (서울: 평민사, 1990);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1946”, 박현재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서울: 한길사, 1989), pp.213-305;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pp.119-200.

318) 박명림은 두 분단국가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를 ① 1945년 8~9월 미-소의 분할 점령 ② 1946년 초의 신탁통치 균열 ③ 1946년 5월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보고 있다.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 1996), p.135.

31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0, 30 December 1945.

320) 신탁통치 파동의 전말에 대해서는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pp.153-20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II-기원과 원인』, pp.137-148.

며, 미군정은 좌익테러를 가혹하게 대응하면서도 우익조직들의 잔혹성에는 주목하지 않았다.³²¹⁾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은 1946년 5월 7일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5월 18일 『해방일보』의 발행정지 및 폐간을 시작으로 좌파계열의 신문도 잇따라 폐간되었다.³²²⁾

이처럼 좌익세력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노골화되자 좌파도 ‘정당방위의 역공세’라는 구호를 내걸고 ‘신전술’로 미군정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신전술’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1946년 일어난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이었다.³²³⁾ 그러나 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식량난의 가중에 따른 미군정의 식량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³²⁴⁾ ‘10월 항쟁’은 농민과 민중의 기대가 미군의 탄압과 우익의 테러에 의해 좌절되는 것에 반발해 지방인민위원회 및 농민조합 등 지방조직들에 의해 한꺼번에 분출된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반 민중은 절박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한 것이었다. 그 결과 ‘10월 항쟁’은 미군정과 우익세력에게 좌익 탄압의 구실을 제공했으며, 전평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³²⁵⁾

미군정은 남한에서 군정경찰과 우익단체의 좌파 탄압을 묵인·방조하는 가운데 일어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을 겪으면서 좌익에 대한 물리적 탄압의 강도를 더해갔다. 이와 함께 이승만의 조기 총선거 실시 주장과 김구의 단독정부수립 반대가 대립되면서 반탁운동을 통해 반탁운동을 통해 불안한 결속을 유지해 오던 우익진영은 분열되기 시작하였다.³²⁶⁾

2)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한계상황

해방 뒤 타지로 떠났던 제주도민들이 돌아오면서 나타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제주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³²⁷⁾ 1944년과 1946년

321) Joice Kolko &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New York: Harper & Row, 1972)/김주환 옮김,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김주환 엮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서울: 청사, 1989), p.41.

322) 『서울신문』, 1946. 5. 23. 주한미군사령부 G-2 보고서는 이들 신문을 ‘공산주의자들의 대변자(mouthpiece)’라며 “미군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미국의 노력을 해치려는 뻔뻔스럽고 사악한 선전활동을 해왔다”고 비난하였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52, 12 September 1946.

323)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개, 1984), pp.235-245;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58, 25 October 1946.

324) 허중, “1945~1946년 대구지역 좌파세력의 국가건설운동과 ‘10월 인민항쟁’”, 『대구사학』 제75집 (2004), pp.149-186.

325) 이우재, “미군정기 농민운동의 전개과정”, 이수인 엮음, 『한국현대정치사1』 (서울: 실천문화사, 1989), pp.299-306.

326) 『서울신문』, 1947. 11. 19; 『조선일보』, 1947. 11. 25; 『서울신문』, 1947. 12. 23.

인구 증가율은 서울(38.2%), 경남(37.4%), 제주(25.8%), 경북(24.1%) 등의 순으로 나타나,³²⁸⁾ 서울과 경남을 제외하면 제주도의 인구변동률은 최고 수준에 육박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38년 현재 가구당 1명 이상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진출하고 있었다.³²⁹⁾ 해방 이후 일본에 진출했던 제주 출신 노동자들이 제주도의 가족들에게 보내던 송금과 제주와 일본을 잇는 정기여객선의 중단으로 교역이 끊겼다.³³⁰⁾ 1930년 부산상공회의소가 펴낸 ‘제주도와 경제’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일본으로의 이민은 제주도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주도에서의 일본어 사용은 잘 퍼져 있다. 일본 문화가 조선 문화에 비해 더욱 잘 소개되었다.……제주도의 흥미로운 점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없는, 사회(두드러진)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민들간에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개념이 매우 강하다. 주민들의 소득은 주로 부분적으로는 농업과 어업, 소규모 공장과 이민에서 나온다.³³¹⁾

327) <표 4-4> 1938-1960년 제주도의 인구변동

| 연도 | 1938 ① | 1944 ② | 1946 ③ | 1947 ④ | 1948 ⑤ | 1949 ⑥ | 1950 ⑦ | 1960 ⑧ |
|----|---------|---------|---------|---------|---------|---------|---------|---------|
| 인구 | 203,651 | 219,548 | 276,148 | 275,899 | 282,000 | 254,589 | 254,596 | 281,720 |

출처:

- ①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경성: 조선인쇄주식회사, 1939), p.7, 이는 일본인과 기타 국적의 인구를 합한 수치로 순수 한국인은 202,241명이다.
- ②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조사, Despatch No 6, *Subj: The Economic Potential of An Independent Korea*, Arthur C. Bunce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6, 1947.
- ③ 『남조선(38도이남) 지역급 성별 현주 인구』,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생정국(1946년 9월), p.70.
- ④ 『경제연감』 (1947), IV-p.20 (제민일보사, 『4·3은 말한다』 1, p.43에서 재인용).
- ⑤ Inclosure No. 4, Total Population of South Korea as of 1 Apr 1948, 출처: 보건후생부
- ⑥ 대한민국 공보처 집계 1949년 5월 1일 현재, Despatch No. 715,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10, 1949.
- ⑦ 1950년 5월 말 현재 제주도청 서무과 조사. 1월 12일 현재로 약 4만7천명의 피난민을 추가하면 30만을 넘을 것임. 각 부락별 인구는 실지(實地)답사로 조사할 수 밖에 없음. 제주도의 평균 1세대의 식구는 4.7인(弱)임, *Eugene Irving Knez papers 1940s-1970s*, Anthropological Archives, Smithsonian Institution, USA.
- ⑧ 대한민국 국제조사결과 인구수 속보, 단기 4293년(1960) 12월 1일 현재, 내무부 통계국, American Embassy, Seoul to the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June 12, 1961.

328) 이 통계는 중앙경제위원회와 남조선과도정부 부처의 협조를 얻어 국무부 주한경제사절단이 작성한 것이다. Despatch No. 6, *Subj: The Economic Potential of an Independent Korea*, Arthur C. Bunce, Office of Advisor to the Commanding General, USAFIK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6th, 1947.

329)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경성: 조선인쇄주식회사, 1939), p.11.

330) 1938년 일본에 건너간 제주 출신 4만5950명이 우체국을 통해 제주도에 보낸 송금액만도 147만730원으로, 1인당 32.01원에 이른다.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경성: 조선인쇄주식회사, 1939), p.17.

331) 'Extracted from "Cheju Do and Its Economy", published by the Pusan Chamber of Commerce, in 1930, *Eugene Irving Knez papers 1940s-1970s*, Anthropological Archives, Smithsonian Institution, USA. 크네즈 문서는 미국 소미소니언박물관에 있는 자료로 필자가 처음 발굴한 것이다.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왕래가 빈번하고 주민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없으며 사회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제주도의 계급갈등이 다른 지방처럼 심각할 정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철수와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도내 산업시설의 파괴로 인해 제조업체의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다. 1944년 6월 현재 72곳에 이르던 제주도의 공장 가운데 1946년 11월 현재 가동중인 공장은 32곳에 불과해 감소율이 55.6%에 이르러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다.³³²⁾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였던 제주주정공장은 해방전 한때 매달 1000드럼의 주정을 생산할 수 있었으나 1946년 하반기에는 한달 240드럼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원료로 주정을 생산해냈지만 1946년 12월에는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였다.³³³⁾ 『독립신보』 김호진 특파원의 제주도 취재기는 당시의 제주도 상황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쌀과 자유를 달라! 이것이 정의의 인민의 부르짖음이 아닐까? 이 땅의 특수한 공장시설을 본다면 작년 6월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부 파괴당한 무수(無水)알코올공장, 조선에 유일한 통조림을 만드는 관힐(罐詰)공장, 전분(澱粉)공장, 조선의 수요량을 훨씬 초과 생산하는 옥도정기공장, 자

332) 해방 전후의 지방별 산업시설 감소율은 다음과 같다.

<표 4-5> 1944년 4월과 1946년 11월 남한의 지역별 산업시설수

| 도별 | 1944. 6 | 1946.11** | 감소율 |
|--------|---------|-----------|------|
| 남한 총계 | 9,323 | 5,249 | 43.7 |
| 서울 | 2,337 | 1,123 | 51.9 |
| 경기 | 1,159 | 698*** | 39.8 |
| 충북 | 222 | 137 | 38.3 |
| 충남 | 441 | 209 | 53.6 |
| 전북 | 679 | 437 | 37.6 |
| 전남 | | 581 | 44.1 |
| 경북 | 1,424 | 788 | 44.7 |
| 경남 | 1,618 | 1,032 | 36.2 |
| 강원**** | 331 | 212 | 36.0 |
| 제주 | 72 | 32 | 55.6 |

* 건설, 가스, 전기 수도 포함. 정부용으로 만드는 정부소유 회사 제외, 정부 독점회사 제외, ** 운영되지 않는 390개 회사 제외. *** 이 지역의 도시 1곳 반환이 끝나지 않음, **** 38선 이남에 위치한 지역만 나타냄. 군정청 통계국의 1944년 6월과 1946년 11월의 산업 및 노동조사, Selected Economic Statistics for South Korea, April 1947, Despatch No. 18, *Subj: Selected Economic Statistics for South Korea, No 4*, Arthur C. Bunce, Office of Advisor to the Commanding General, USAFIK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16, 1947.

333) *Ibid.*

개단추공장 등이 있으나 무수알코올공장이 지난 11월 해방 후 처음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제 공장은 좋은 계획은 있으나 기술 부족, 원료난으로 아직까지도 공장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목축부문을 보더라도 과거 왜놈병대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소 3만5,000, 말 3만, 돼지 4만, 면양 150두가 남아 있을 뿐, 일방 어업을 본다면 근해에 고래군이 출몰하고 있어도 자재 부족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고 제주도의 노동자들은 공장문을 열라고 외치고 있다.³³⁴⁾

공장문을 열고, 쌀과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해방 직후 제주의 현실이었다. 일본군의 철수와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도내 산업시설의 파괴, 귀환자의 급증 등으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1946년 11월 현재 실업자 비율은 제주도가 7.5%로 경남의 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³³⁵⁾

이로 인해 미 해군 구축함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을 이용해 제주와 일본을 오가며 밀무역을 하거나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밀항하다 조난을 당해 숨지거나 붙잡히는 사례도 나타났다.³³⁶⁾ 더욱이 1946년 발생한 콜레라의 기승과 보리농사의 흉작은 제주도민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³³⁷⁾ 그해 6월부터 8

334) 『독립신보』, 1946. 12. 19.

335)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377.

336) 1946년 8월 하순 제주도 연안에서 일본으로 불법 밀항하던 조선인 175명을 태운 선박 4척이 미 함정에 걸려졌는가 하면, 1947년 5월 20일경에는 함덕항을 출항해 일본으로 가던 밀항선이 쓰시마 부근에서 파도에 휩쓸려 승객 40여명 가운데 20여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319, 3 September 1946; 『제주신보』, 1947. 5. 24; Hq. 6th Inf Division, G-2 Periodic Report No. 323, 6 September 1946; Hq. 6th Inf Division, G-2 Periodic Report No. 461, 22 January 1946; 제주43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제주사람들의 일본 밀항은 계속되었다. 일본 경찰의 보고서는 “이들은 처음에는 아마구치현과 북규슈 사이의 고정된 항로를 따라 일본으로 밀입국했으나 일본 해상경찰의 보안이 강화되자 남규슈의 가고시마쪽으로 항로를 바꿨다. 특히 남한내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근 밀항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제주에서 일본 에히메현으로 밀항하다 일본에서 붙잡힌 제주 출신 289명의 이름과 직업, 나이, 성별, 주소, 밀항 이유 등이 기록돼 있다. *Subj: Certified Official Translation-Control of Illegal Entry into Ehime Prefecture, British Commonwealth Occupation Force, 25 Oct, 1948.* 1948 Series No. AWM 114, Control Symbol 423/10/42, Australian War Memorial, Canberra, Australia. 이 자료는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교 테사 모리스 스즈키(Tessa Morris-Suzuki) 교수가 필자와 제주43연구소에 기증한 것이다. 이 자료를 이용한 논문은 무라카미 나오키(村上尚子), “43 당시 일본 에히메로 건너간 사람들에 관한 영연방 일본점령군자료”,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7호 (제주: 각, 2007), pp.303-321 참조.

337)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을 지낸 존슨(Edgar A.J. Johnson)은 1946년 콜레라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제주주정공장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당시 그의 일행이 제주도에 도착하자 제주도 민정장관이 주정공장 바로 인근에서 콜레라가 갑자기 발생해 24시간 동안 200여명 이상이 사망하였다며 공장방문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예방접종을 받아 답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제주도 방문 이후 제주도가 자연환경과 동중국해에서의 훌륭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Edgar A.J. Johnson, *American Imperialism In the Image of Peer Gynt*

월까지 제주도 전역을 휩쓴 콜레라는 3개월 사이에 369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정도로 해방 이후 최악의 전염병이었다. 치사율 60% 이상³³⁸⁾을 보인 콜레라로 전국적으로 1946년 8월 27일까지 1만995명의 환자가 발생해 719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주도에서는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만 369명이나 되었다.³³⁹⁾

1946년 제주도의 보리 수확량은 8만3785석으로 해방 이전인 1943년의 20만4796석, 1944년의 26만8133석에 비해 각각 41%, 31%에 그치는 것이었고, 해방되던 해인 1945년의 18만7480석에 비해서도 44.7%에 불과하였다.³⁴⁰⁾

제주도와는 달리 토지개혁 문제는 해방 조선의 중요한 문제였다. 남조선과도정부 농무부가 1946년 12월 31일 현재 남한의 농지소유상황을 조사한 결과 213만 7288농가 가운데 43%는 소작농이고, 38%는 일부 소유, 일부 임대한 농민이며, 16% 정도만이 자작농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의 자작농 비율은 72.8%로 육지부의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반면 소작농은 6.3%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 직후 전국의 농민들은 토지소유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토지개혁을 통한 농지 소유를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는 열정이 분출되었으나 제주도의 농민들에게는 토지개혁이 해방 직후의 시급한 의제가 아니었다.

<표 4-6> 1946년 12월 31일 현재 남한의 임차별 농가수³⁴¹⁾

| 도별 | 자작농 | 50%이상 자작농 | 50%미만 자작농 | 소작농 | 기타 | 합계 |
|----|----------------|----------------|----------------|----------------|--------------|-----------|
| 서울 | 90(3.1%) | 157(5.4%) | 220(7.6%) | 2,361(81.9%) | 56(1.9%) | 2,884 |
| 경기 | 23,836(8.5%) | 38,478(13.8%) | 44,252(15.8%) | 160,725(57.4%) | 12,495(4.5%) | 279,786 |
| 충북 | 17,374(12.6%) | 24,901(18.1%) | 31,164(22.6%) | 63,096(45.8%) | 1,186(0.9%) | 137,721 |
| 충남 | 19,996(8.8%) | 33,388(14.7%) | 43,129(18.9%) | 126,431(55.5%) | 4,871(2.1%) | 227,815 |
| 전북 | 14,092(5.3%) | 29,089(10.8%) | 43,228(16.1%) | 156,236(58.2%) | 25,638(9.6%) | 268,283 |
| 전남 | 52,661(13.9%) | 69,099(18.3%) | 74,881(19.8%) | 163,992(43.4%) | 17,171(4.5%) | 377,804 |
| 경북 | 66,838(18.8%) | 79,322(22.3%) | 80,810(22.8%) | 123,734(34.9%) | 4,231(1.2%) | 354,935 |
| 경남 | 82,661(25.6%) | 80,177(24.8%) | 78,502(24.3%) | 81,366(25.2%) | -(0%) | 322,706 |
| 강원 | 28,823(23.4%) | 26,720(21.7%) | 23,976(19.5%) | 43,059(35.0%) | 356(0.3%) | 122,934 |
| 제주 | 30,900(72.8%) | 5,574(13.1%) | 3,114(7.3%) | 2,686(6.3%) | 146(0.3%) | 42,420 |
| 총계 | 337,271(15.8%) | 386,905(18.1%) | 423,276(19.8%) | 923,686(43.2%) | 66,150(3.1%) | 2,137,288 |

주: 1가구는 5인 가족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1), p.148.

338)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48, 15 August 1946.

33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56, 18 June 1946; No. 257, 19 June 1946; No. 261, 24 June 1946; No. 266, 29 June 1946; No. 270, 5 July 1946; No. 284, 22 July 1946; No. 298, 7 August 1946; No. 317, 30 August 1946.

340)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1948), p.4.

341) Despatch No. 39, *Subj: Land Reform in Korea*, Arthur C. Bunce, Office of Economic Advisor to the Commanding General, Hq. XXIV Corps to the Secretary of State, 23 February 1948.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제주지역에 계급갈등이 없었다는 지적은 해방 이후 농지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제주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주민들은 대부분 소규모 민유지를 소유한 자작농이었기 때문에 지주전호제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하향 평준의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섬이라는 조건에서 빚어진 독자적 정치·사회·경제구조를 오래도록 유지해왔기 때문에 문화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하였다.³⁴²⁾

1949년 말의 제주도청 농립과 조사는 자신의 농업을 영위하는 자작농을 지주로 분류하고, 그 외를 소작농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자작농은 전체 농가의 96%에 이르고 소작농의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³⁴³⁾

<표 4-7> 제주도내 지주수와 소작인수 및 그 경지면적
(1949년 말 제주도 농립과 조사)

| | | 지주(자작농) | 소작농 | 합계 |
|------|----------|---------|--------|---------|
| 호수 | | 43587호 | 2183호 | 45770호 |
| 인수 | 경지 5반보이상 | 127170인 | 4051인 | 131221인 |
| | 동 미만 | 70833인 | 6509인 | 77342인 |
| | 계 | 198003인 | 10560인 | 208563인 |
| 경지면적 | 답 | 7386반 | 669반 | 8055반 |
| | 전 | 366722반 | 16635반 | 383357반 |
| | 계 | 374108반 | 17304반 | 391412반 |

- * 지주는 대개 자신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작농으로 판단함
- * (1) 제주읍 전호수에 대한 농가의 백분율 - 81%(강)
- (2) 농가 전호수에 대한 자작농가의 백분율 - 96%
- 농가 전호수에 대한 소작농가의 백분율 - 4%
- (3) 전경지면적에 대한 지주(자작인) 소유 경지면적 - 96%
- 소작인 소유 경지면적 - 4%

해방 공간에서 남한의 경작면적과 생산량은 일제 강점기 때에 비해 크게 떨어져 해방된 지 2-3년이 지난 시기의 전국의 하곡 생산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일제 강점기 때보다 떨어졌다. 1948년도의 하곡 재배면적은 77만1268정보로 1940-1944년, 1932-34-36년의 평균에 비해 각각 66.9%, 76.1%에 불과했으며, 생산예상량은 62만8745t으로 1940-1944년의 평균 생산량, 1930-34-36년의 평균 생산량에 비해 각각 58%, 63%에 그쳤다.³⁴⁴⁾

342)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pp.219-220.

343) Eugene Irving Knez papers 1940s-1970s, Anthropological Archives, Smithsonian Institution, USA.

344) Despatch No. 213, Subj: Estimate of 1948 Summer-Grain Production in South Korea, Arthur C. Bunce, Office of Economic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14, July 1948.

미군정이 미곡관리체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1945년 10월 5일 ‘미곡의 자유시장에 관한 건’(일반고시 제1호)을 통해 미곡의 자유판매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정책은 식량재고의 고갈, 미곡의 감소, 해외동포의 귀환 등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³⁴⁵⁾과 기아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유발시켰다. 1945년 9월 한 달에 9.4엔이던 쌀값은 1946년 9월에는 2800엔으로 뛰어올랐다.³⁴⁶⁾ 식량난이 가중되자 1946년 2월에 이르러 미군정은 미곡의 자유판매제도를 취소하고 1인당 하루 3홉씩의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제주도 산업국장 임관호는 “장차 반입이 순조로우면 미곡 2홉, 잡곡 5작씩 비농가에 배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1947년 내내 미곡 2홉을 배급한 적은 없었다.³⁴⁷⁾ 이는 해방전 배급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³⁴⁸⁾

남조선과도정부 중앙식량행정처의 미국인 고문관이 제주도의 배급량 운영을 ‘혼란’ 또는 ‘무정부 상태’³⁴⁹⁾라고 비판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언론은 중앙식량행정처장 지용은의 말을 빌려 사실과는 정반대의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많은 조선인은 쌀이 조선사람의 주식이나 기타 음식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제주도 주민은 쌀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능히 살아갈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은 감자와 생선과 해초를 먹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식사로도 꽤 건강하다고 한다.³⁵⁰⁾

미군정 한국인 관리의 이와 같은 인식은 제주도민들에게 닥친 기아의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제주도민들을 빗대 근로정신과 자급자족심은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현상이라는 보도도 나왔다.³⁵¹⁾

345) 소매물가는 1945년 8월부터 1946년 12월 사이에 10배로 올랐으며, 도매물가는 28배나 뛰었다. Gregory Henderson,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pp.211-212.

34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204.

347) 『제주신보』, 1947. 2. 2; 3. 28; 4. 12; 6. 14; 7. 16; 8. 20; 12. 18.

348) Despatch No. 119, *Subj: Food Report for South Korea as of March 1948*, Arthur C. Bunce, Office of Economic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10 May 1948.

349) *Subj: Operation of Rationing Program in Cheju Do*, Peter J. Carroll, Administrative Assistant to Chee, Yong Eun, Director of National Food Administrator, Carroll V. Hill, Advisor, 3 January 1948,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Cheju Do Political Situation, 12 November 1947-28 February 1948", Conducted by Lawrence A. Nelson, Lt. Col., Special Investigator, Hq. USAMGIK (이하 Nelson Report).

350) 『대동신문』, 1946. 10. 31.

351) 『자유신문』, 1946. 12. 18.

귀한동포로 인하여 심한 식량난에 빠져 6두 1천원을 부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약 8만석의 보조가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근로정신과 자급자족심이 굳은 제주인이라 당국과 사회의 구제방책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하여도 서울같이 노상에 방황하는 사람이 그리 없음은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미곡 수집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경찰서에 연행,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값에 판매하는 양식을 제외하고는 식량을 제공받지 못하기도 하였다.³⁵²⁾ 그러나 제주도 현지 언론은 식량의 절대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였다.³⁵³⁾

불과 45일 만에 일약 배가의 폭등을 본 쌀값은 그렇지 않아도 생활면에 있어서 생지옥의 도탄에 신음하는 일반 소비층 대중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기아를 앞에 한 인민의 비참한 아우성 소리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보는 요즘 거리의 표정은 시시각각으로 도를 가하고 있음은 누구나 수궁하는 사실이거니와 이러한 사회상은 거리의 식당에서도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무산대중의 애용을 보고 있는 읍 후생식당을 엿보면 정각 수시간 전부터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취중(就中)(그 가운데서도 특히: 인용자)에 영아를 부둥켜안은 가여운 여인들이 찬바람에 쏠린 나머지 안색을 변하다시피 추위에 떨며, 그 귀한 일식(一食)을 구하려 엄한의 노상에 장사의 열을 짓고 있다. 이는 다만 식량난의 일개 반영일 뿐 아니라 건국을 감히 좀먹고 있는 모리배 오리배는 비대되고 선량한 인민대중과 소(小)관리는 도탄에 신음하는 현금의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겨울철 어린 아이를 안은 제주도 여인들은 추위에 떨며 한톨의 쌀이라도 구하기 위해 발버둥쳤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주지역의 하곡수집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더욱이 일제 강점기 때의 공출에 대한 기억은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었다. 공출은 면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의 분리, 더 나아가 해방 이

352) HUSAFIK 3, p.320.

353) 『제주신보』, 1947. 2. 16.

후까지도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남게 한 요소였다.³⁵⁴⁾

강제공출로 인해 제주도내 각 마을마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마을주민들간에 갈등이 야기됐고, 해방이 되자 일부 면장들은 마을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해방 이후까지 잔류했던 일본군 헌병대에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³⁵⁵⁾

이런 제주도민들에게 ‘공출’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일제 강점 시기의 공출을 기억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하곡수집은 강제공출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이 때문에 해방 뒤 하곡수집 과정에서 수집반원들과 주민들간에 종종 마찰이 발생하였다. 1947년 7월 하순에는 한림면 명월리에서 마을주민들이 하곡수집 거부 기미를 보이자 행정당국에서 우익청년단체원들을 동원하였다.³⁵⁶⁾ 이에 대해 제주도 민정장관 배로스(Russel D. Barros) 중령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사회단체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애국정신에 호소하여 수집에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다”³⁵⁷⁾고 밝혀 우익단체를 동원한 강압적 방법에 의한 곡물 수집의 길을 열어놓았다.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식량배급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유령 인구가 등장하였는가³⁵⁸⁾ 하면 호별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식량 배급을 중지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다.³⁵⁹⁾ 여기에 극우파 인사인 제주도지사 유해진은 주민들에게 식량배급표를 주지 않고 면장실에 보관토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임의대로 식량배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⁶⁰⁾

354) 해방 이전과 이후 공직생활을 한 남인희(1924년생·2005년 10월 20일 구술채록)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였다.

“공출 때문에 관에 대한 반발심이 컸어요. 해방돼서 절실히 느꼈는데 우리가 농촌지도사업을 하는데 전혀 먹혀들어가질 않아요. 그때 제주도의 주산물이 고구마여서, 농민들에게 고구마 증산기술을 가르쳐도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얘기해 봐도 농촌에서는 안받아 들여. 그것이 뭐냐 하면 반발심, 관에 대한 반발심이지. 왜 정시대 때 그렇게 (공출을) 해놓으니까 해방된 다음에 반발심이 상당히 심하더라고. 관에서 무슨 얘기하면 아주 반대해 버리고. 그것이 왜정 때는 관에서 강제로 하니깐 듣잖아. 안들으면 때리고 말이지. 그냥 막 뺏어오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한거지. 반발이 심했는데 그게 해방돼도 역시 관에 대해 반발이 상당히 심해서 말을 듣지 않았어.”

355) 허찬부(1924년생) 구술채록, 2006년 4월 29일.

356) 제민일보사, 『4·3은 말한다』 1, p.454.

357) 『제주신보』, 1947. 7. 30.

358) 제주읍이 조사를 벌인 결과 용담리에서만 200명이 적발되었다. 제주읍은 부정으로 식량을 배급받는 자가 적발되면 그 세대는 물론 당해 반의 전세대에 대한 배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신보』, 1947. 5. 8.

359) 1947년 9월 15일부로 부과된 호별세의 완납 기일이 9월말일 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세자가 1할 정도에 불과하니 급변 호별세 체납자에 한해서는 불일 배급될 10월분 식량 미배급은 물론 그 외 일반 배급을 일절 중지할 예정이다. 『제주신보』, 1947. 10. 22.

360) 중앙식량행정처 고문관 캐롤은 “식량을 배급받는 가족의 책임자는 가족 배급표를 받기 위해 각각의 배급기간에 면장실을 방문하고, 면장이나 면직원들은 구입을 승인한 곡물 양을 표에 적는다. 구입한 다음에는 표를 면장실로 반환하기 위해 배급받은 주민이 속한 구장(이장)에게 준다. 즉 배급표는 월별 공급량을 구입하기 위한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주민들에 대해 기존의 관리들에게 확실히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Subj: Operation of Rationing Program in Cheju Do*, Peter J. Carroll, Administrative Assistant to Chee, Yong Eun, Director of National Food Administrator,

주한미군사령부 G-2는 경찰이 가능한한 빨리 정의(justice)를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조직들이 제주경찰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여론이라고 보고했으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³⁶¹⁾

테드 거의 말과 같이, 해방 공간 제주도민들은 해방 이후 자치기구 건설과정에서 가졌던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정치적 폭력으로 표출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귀환자와 실업자의 증가, 제조업체의 폐쇄, 해방으로 인한 갑작스런 대외교역의 중단, 미군정의 미곡정책의 실패와 식량난, 제주도의 식량배급표에 대한 정치적 이용 등으로 빈사상태의 제주지역 경제상황은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제주도 민중들을 심리적인 공황상태로 몰아가면서 사회적 긴장감을 조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3) 해방공간 제주도의 정치폭력

제주도에서의 정치폭력은 3·1사건 이후 제주4·3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해방 이후 4·3무장투쟁이 일어나기까지 제주사회를 폭발적으로 흔들어놓은 정치적 갈등은 3·1사건과 이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우익 출신 도지사의 극단적 우익 편향정책으로 집약할 수 있다.

1945년 11월 미군정이 제주도에에서 실시된 이후 비교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던 미군정과 제주도민의 본격적 충돌은 1947년 3월 1일의 제28주년 3·1절 제주도 기념대회 때 시작되었다. 3·1절 기념대회 이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찰의 무차별 발포사건과 미군정의 시위대 해산 지원은 4·3무장투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발포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발포사건에 대한 미군정 경찰의 조사 결과는 사과와 책임자 문책보다는 정당성만을 강변함으로써 제주사회에는 팽팽한 긴장과 불안의 상태로 내몰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1947년 3월 10일부터는 민·관총파업이 시작되었다.³⁶²⁾ 제주도청에서는 박경훈 도지사와 김두현 총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100여명이 정식으로 청원(직원)대회를

Carroll V. Hill, Advisor, 3 January 1948, Nelson Report.

36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08, 13 Dec, 1947.

362) 박찬식은 3·1사건과 총파업에 대해 3·1집회 및 총파업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민족적이고 자치적인 정치 사회적 지향점을 대중들의 정서와 연결시키려고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3·1기념식에서 “3·1정신을 계승하고 발양할 것을 다짐하며, 외관 철폐, 외세의 간섭 배제, 미소공동위원회의 조속 개최, 조국의 신속한 통일독립의 전취” 등을 외쳤고, 3·10 민관 총파업 때에도 “감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발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무장옹원대를 즉시 철수하라! 미군 책임자는 사죄하라!”는 요구와 함께 “미소공동위원회는 즉시 재개하라! 조국의 분단 음모를 분쇄하자!”라는 내용의 적힌 유인물이 곳곳에 붙었던 것을 들었다.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p.221.

열어 3·1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³⁶³⁾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의원 회의에서도 강순 의원이 제주도의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 차단과 경찰의 무장해제 등을 요구하였다.³⁶⁴⁾ 미군정청 특별감찰실장 카스틸(James A. Casteel) 대령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이 8일 제주도를 방문해 당시 제주도 민정장관 스타우트 및 도지사 박경훈 등과 함께 총파업이 벌어진 날인 3월 10일 발포현장을 조사하고, 3·1절 기념대회 집행부를 불러 3·1사건의 경과를 듣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³⁶⁵⁾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G-2보고서는 “제주도는 전체 인구의 보고된 70%가 좌파정당들의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만한 일은 우익이든 좌익이든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완고할 정도로 믿을 경우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표라는 사실이다”고 밝혔다.³⁶⁶⁾ 또다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의 좌익에 관한 여러 보고서들은 제주도 인구의 60-80%가 좌익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에서 최근 좌익이 고무한 파업은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됨에 따라 정치 상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³⁶⁷⁾ 이처럼 미군정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제주도는 좌익의 근거지였다.

제주도 민정장관 스타우트 소령은 3·1사건과 관련해 총파업을 단행하고 군정당국에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파업할 원인이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요구조건은 3·1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답변하였다.³⁶⁸⁾ 스타우트가 기자와 만나 3·1절 사건과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날인 3월 12일부터 본토의 군정경찰이 대대적으로 제주에 파견되었다. 3월 14일에는 경무부장 조병옥의 제주

363) 제주도청 직원들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민주경찰 완전확립을 위하여 무장과 고문을 즉시 폐지할 것 ② 발포 책임자 및 발포 경관은 즉시 처벌할 것 ③ 경찰수뇌부는 인책 사임할 것 ④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을 보장할 것 ⑤ 3·1사건에 관련한 애국적 인사를 검속치 말 것 ⑥ 일본 경찰의 유업적 계승활동을 소탕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제주신보』, 1947. 3. 12.

364) 강순은 ① 민간인을 살해한 경찰을 차단할 것 ② 경찰은 무장해제할 것 ③ 경찰서장은 사임할 것 ④ 경찰은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 ⑤ 모든 일경 출신 경찰을 파면할 것 ⑥ 사상자 가족들에게 보상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82, 18 March 1947.

365) 『제주신보』, 1947. 3. 12.

366) “The Province of CHEJU DO is known as a Left Wing stronghold with a reported seventy percent of its population being sympathizers or affiliates with Left Wing parties. Notable is the fact that this strike (is) indication what can happen in a Korean community when the majority of the populace, either Right or Left, obdurately support what they believe to be just demands.”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16 March, 1947.

367) “Various reports of Leftists oh CHEJU Do state that they comprise from 60 to 80 percent of the population. The recent Leftist inspired strike on that island may have some effect on the political situation as many of the leaders were arrested.”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89, 26 March, 1947.

368) 『제주신보』, 1947. 3. 14.

도 방문에 맞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검거에 들어가 5일 만에 200여명을 검거하였다. 감찰청 발표에 따르면 3·1사건 이후 1947년 4월 10일 현재 총 검거자수가 500여명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258명이 석방됐으며 260여명이 군정재판에 회부되었다.³⁶⁹⁾ 제주도를 방문하였다가 돌아간 조병옥은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사건은 북조선 세력과 통모하고 미군정을 전복해 사회적 혼란을 유지하려는 책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³⁷⁰⁾ 조병옥은 3·1사건의 발발 원인을 ‘북조선 세력’과 ‘통모’한데서 찾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군 방첩대(CIC)는 제주도의 총파업을 남한 전역의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 있는 시금석일지도 모른다고 평가³⁷¹⁾하는 등 사건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정치적 시각으로만 접근하였다.

미군정은 3·1사건과 3·10총파업 이후 박경훈 도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1947년 4월 10일 한독당 농림부장 출신의 유해진을 도지사에 임명하였다. 극우파인 그의 임명은 경찰의 대량검거와 함께 3·1사건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민심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유해진은 1947년 4월 부임하면서 서청 단원 7명을 데리고 왔다. 서청 단원들은 이해 초부터 제주에 들어왔다. 서청의 행동은 ‘정복자’의 태도와 다름없었고 제주도민에 대한 가혹행위는 제주4·3사건 내내 자행되었다.³⁷²⁾

4·3무장봉기 이전 미군정청 특별감찰실 넬슨(Lawrence Nelson)중령을 반장으로 한 특별감찰반의 조사(1947년 11월 12~1948년 2월 28일)는 폭발 직전의 제주 사회상을 보여준다.³⁷³⁾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 존슨(Edgar A. Johnson)의 지시로 수행된 이 조사는 유해진의 극단적 우익 편향정책이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 스타우트의 후임인 제주도 민정장관 베로스 중령이 넬슨 중령에게 보낸 1947년 11월 21일 비망록은 제주도의 경제상향과 미

369) 『현대일보』, 1947. 3. 14; 『제주신보』, 1947. 3. 20; 『중외신보』, 1947. 3. 16; 『제주신보』, 1947. 4. 12.

370) 『독립신보』, 1947. 3. 21.

371) CIC Semi Monthly Report No. 7, 16 Mar 1947 to 31 Mar 1947, pp.3-4.

372) 제주4·3사건의 배경이 “제주도가 처해 있던 특수한 환경을 이용해 무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좌익 세력들의 집요한 공작이었다”고 주장하는 백선엽 조차도 서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는 “서북청년단에 대한 제주도민의 감정은 결코 고올 수가 없었다. 오랜 세월 그물망 같은 혈연·지연의 유대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 있어서 외지인일 수 밖에 없는 서북청년단은 애초 불편한 존재였다. 더욱이 ‘빨갱이들 때문에 고향에서 떠나왔으니 빨갱이 잡는 일이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며 친척이나 이웃사람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한 서청의 행동은 ‘정복자’의 태도와 다름없었다”고 말하였다. 백선엽, 『실록 지리산』 (서울: 고려원, 1992), pp.111, 113.

373)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Cheju Do Political Situation, 12 November 1947-28 February 1948", Conducted by Lawrence A. Nelson, Lt. Col., Special Investigator, Hq. USAMGIK.

군정 최고 수뇌부의 유 지사에 대한 신임과 그의 독단적 태도, 박경훈 전 제주도 지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등이 나타나 있다.

제주도의 정치상황과 관련해 말한다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한 많은 요소들이 있다. 본인이 1947년 4월 제주도에 부임한 이래 제주도의 농민들과 지식인들은 일본인들이 육지사람들보다 제주도 사람들을 심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제주도 사람들은 약간 다른 조선어를 구사한다. (방언). 제주인들의 신념 등 섬으로서의 제주 자체는 하나의 소국(小國)이나 다름없다.……그는 자신의 편과 가까운 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체의 회합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본인은 물론 제주도민들을 당혹하게 한다. 제주도의 우익의 테러행위는 증가했고, 지사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박 전지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매우 친미인사이다.……모든 상황을 요약하건데, 유 지사는 제주도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오늘까지 같은 태도로 임하고 있다. 그의 태도와 활동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재적이다.³⁷⁴⁾

베로스는 미군정 하의 제주도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이 일제 강점기 때보다 열악하며, 군정장관으로부터 조선인 지사의 부임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고, 유 지사의 정치적 편견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의 태도와 활동이 독재적이고 제주도민들을 당혹스럽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좌익단체(민전)의 대표로 있는 박경훈 전지사를 ‘매우’ 친미적이고 충고를 경청하는 인물로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주도 미군정청 법무관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의 제주도 정치상황에 대한 분석은 좌익동조자가 1년 사이에 늘어났다고 밝히고, 늘어난 이유와 경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유 지사는 한독당(원문은 Han Kock로 돼 있지만 한독의 오기로 보임: 인용자)이나 독축의 의견과 다른 인사를 좌익분자로 분류하는 극우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립적 계획이나 중립적 인사들을 혐오하거나 같이 일하지 않을 것이다.……경찰은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좌익을 동정하고 좌익 정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

374) Memorandum, Russel D. Barros, Lt. Col., CCAO to Lt. Col. Nelson(OSI), Nelson Report.

극우단체 테러리스트에 의한 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본인의 견해로는 이러한 것들이 사전 정치적 선언 없이 도민들을 좌익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는 현 정치상황이 비교적 조용하지만 중도 및 온건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이들 단체를 극좌로 빠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파괴활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³⁷⁵⁾

스티븐슨의 1947년 11월 15일 현재의 제주도의 정치상황에 대한 견해는 유해진의 극우 편향정책이 4개월 뒤에 일어난 4·3무장투쟁에 제주도민들을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티븐슨은 유해진이 한독당이나 독촉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좌익으로 분류하고, 경찰은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좌익으로 몰아가는데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중도 및 온건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 이들 단체가 극좌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경찰과 우익단체의 제주도민들에 대한 억압은 파농이 주장하는 “식민지 민중들을 질식시키는 상황”이었으며, 털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폭력은 집단행동을 만들었다.³⁷⁶⁾ 제주도 주둔 CIC도 유 지사가 매우 독단적이며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극좌로 분류하기 쉬운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³⁷⁷⁾ 넬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유 지사가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이념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해왔다. 그는 좌파를 지하로 몰고 갔으며, 결국 그들의 활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좌익세력의 숫자와 동조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유 지사의 경찰과 제주도 경찰에 대한 조사, 과밀 유치장에 대한 조사를 군정 최고책임자에게 건의하였다.³⁷⁸⁾

그러나 군정장관 딘 소장은 1948년 3월 23일 모든 건의를 받아들였으나, 유해진의 경찰만족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³⁷⁹⁾ 넬슨 중령이 제주도 현지 조사 시점이었던 1948년 2월 19일 현재 제주경찰서내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은 365명으로, 3.04x3.65m 정도의 한 방에 35명이 과잉수감된 사실을 목격했으

375) *Subj: Opinion of Political Situation in Cheju Do as of 15 November 1947*, Samuel J. Stevenson, Captain, Adjutant, 21 November 1947, Nelson Report.

376) Charles Tilly, 『동원에서 혁명으로』, p.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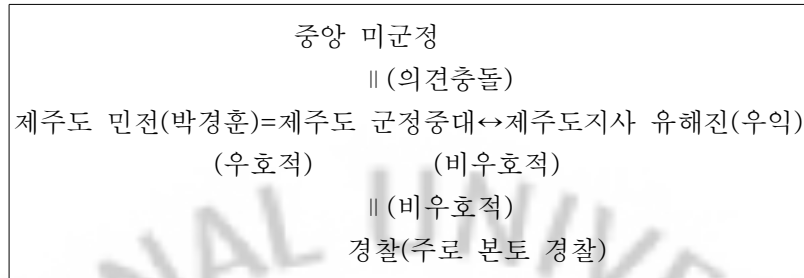
377) *Subj: Governor RYU, Hai Chin, Activities of.*, Henry C. Merritt, CIC to Lt. Col. Nelson(OSD), Nelson Report.

378) *Subj: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 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Lawrence A. Nelson, Lt. Col., Special Investigator to the Commanding General, USAMGIK, 11 March 1948, Nelson Report.

379) MGOCG 333.5, William F. Dean, Major General, March 23 1948, Nelson Report.

나, 유해진은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³⁸⁰⁾

<그림 4-1> 1947년 초 제주도 군정중대와 제주도내 정치세력의 역학구도



넬슨의 건의대로 군정장관 단이 유해진을 제주도 실정을 아는 인사로 교체했다 라면 제주도의 상황은 상당히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넬슨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유해진의 극우 편향 및 강화정책은 제주도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서 정치적 폭발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4·3무장봉기의 한 원인이 3·1사건과 그 이후 미군정의 진상규명 외면과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이라면, 또다른 한축은 유해진의 도정 수행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또 1948년 1월 22일 새벽 경찰이 남로당 조천지부 회의장소에 들이닥쳐 106명을 체포하고, 이날 오전에 63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³⁸¹⁾ 이에 앞서 1948년 1월 중순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조직부장 김생민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남로당의 조직체계가 노출되었다.³⁸²⁾ 체포된 제주도민들에 대한 테러와 고문 또한 존재하였다. 1948년 1월 30일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은 제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검거 및 고문설과 관련해 “진 러치 장관의 고문 엄금 포고령은 엄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며 “고문사실은 절대로 없다. 말단에 있어서의 약간의 미비는 면할 수 없으나 그러나 본관은 수차 부하에 고문엄금을 명하고 있다”³⁸³⁾고 했지만, 테러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경찰의 대규모 검거선풍, 좌익에 대한 우익의 테러, 도민들의 잇단 남로당 탈퇴 성명서 발표 등으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조직의 와해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남로당은 위기국면 속에서 ‘앉아서 죽느냐, 일어서 싸우느냐’는 양자택일의

380) *Subj: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 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Lawrence A. Nelson, Lt. Col., Special Investigator to the Commanding General, USAMGIK, 11 March 1948, Nelson Report.

38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14, 20 Dec, 1947.

382) 제주도43위원회,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154.

383) 『제주신보』, 1948. 2. 4.

기로에 섰으며, 당시 ‘단선·단정 반대’ 등의 남한의 정국상황과 맞물려 무장봉기의 명분은 쌓여갔다.

제3절 소결

1. 두 사건에서 국가건설과 정치폭력의 일치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리스와 남한은 점령통치와 식민지배를 경험하였다. 그리스의 근현대사는 고통과 역경으로 점철돼 있다. 15세기 중반 오스만제국에 점령된 뒤 400여년 동안의 암흑기를 보낸 그리스는 1821년부터 11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소아시아 카타스트로피의 결과 수십만 명의 피난민의 유입에 따른 토착민과의 갈등 등 오랜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어 그리스는 1차 세계대전 시기 콘스탄틴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베니젤로스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공화파간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되고, 이는 국가적 분열로 확대됐으며, 전간기 메탁사스 집권 시기의 독재정치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은 그리스 사회의 국가적 분열을 더욱 공고화하였다.

1941년 4월 그리스를 점령한 독일은 이태리, 불가리아와 함께 그리스를 분할하여 통치하였다. 나치 독일의 점령정책은 야만적이었으며, 그리스인들은 독일군의 초토화작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의 저항운동은 독일군의 점령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저항운동의 선두에는 그리스 좌파세력이 전면에 나섰다.

1941년 9월 27일 EAM이 창설되는데 이어 1942년 4월 KKE와 EAM이 ELAS를 창설하면서 ELAS는 그리스인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저항단체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EDES 등 왕당파 및 극우저항단체들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ELAS와 대립하고 분열하기 시작하였다. 극우저항단체들은 나중에 저항단체가 아니라 친독협력단체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의 점령통치시기에 그리스내 저항단체들끼리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왕당파 및 우익단체들은 친독협력자들과 함께 ELAS에 대한 공격을 벌였다. 그리스의 친독협력정부는 보안부대를 창설해 독일군과 합동으로 ELAS 조직원들과 그리스인들을 괴롭혔다. 친독협력정부와 우익협력단체들이 ELAS와 전투를 벌이고 ELAS에 협력하는 주민들을 테러한 반면 ELAS의 민족해방투쟁은 그리스인들로부터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의 일본 통치에 대한 저항도 끈질겼다. 일제의 식민지 파쇼체제의 강화는 군사력과 경찰력의 증강에서 시작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 후 곧바로 1개 사단이 증가된 조선주둔 일본군은 중-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23만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경찰력 또한 크게 늘어난 경찰관서의 경우 3·1운동 전의 1918년에는 751곳이었으나 1920년에는 2716곳으로 3배 이상 불어났고 경찰인원도 1918년 5400여명에서 1920년에는 1만84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만주사변 후에는 2948개 관서 2만229명으로 증가했고(1932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던 당시에는 3212개 관서 3만523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³⁸⁴⁾ 이에 맞서 민족해방운동은 식민지 시기 내내 국내와 국외에서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수립된 뒤 항저우(1932. 5), 진장(1935. 11), 자싱(1932. 5), 창사(1937. 11), 광저우(1938. 7), 류저우(1938. 10), 치장(1939. 3), 충칭(1940. 9)으로 이동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을 벌였다. 또한 이미 1920년부터 1925년까지 6년에 걸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서는 3929회의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다.³⁸⁵⁾ 이러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은 1930년대 들어 더욱 대규모화되고 격렬해져 16만여명에 이르는 항일무장부대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³⁸⁶⁾ 이에 대응해 일본군은 조선과 만주에서 초토화작전을 전개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되었다.

제주지역에서도 농업학교의 동맹휴학과 해녀들의 생존권 수호운동이면서 식민지 수탈정책에 저항했던 제주해녀항쟁³⁸⁷⁾ 등 조직적인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 강점기 침략정책에 맞서 싸운 세력은 사회주의운동세력이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제주에서도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운동세력이 저항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다.

점령 시기 친독협력부대들이 저항단체를 토벌하다 해방 뒤 국가경비대나 우익단체로 변신한 것처럼 조선에서는 일제의 경찰로 활동하면서 독립투사나 지식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친일경찰이 해방 뒤 군정경찰로 변신하였다.

독일군은 그리스에서 철수하면서 ELAS를 상대로 작전을 벌이며 그리스 전역에서 초토화작전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1944년 10월 독일군이 아테네에서 철수하자 이번에는 영국군이 그리스 망명정부와 함께 아테네로 들어왔다. 그러나 아테네에

384)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pp.26, 32.

385) 조선사연구회 엮음, 조성을 옮김, 『한국의 역사』 (서울: 한울, 1985), p.218.

38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34.

387) 박찬식, “제주해녀의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 동위원회, 1995), pp.76-94.

서는 EAM/ELAS로 대변되는 민족해방투쟁세력과 우익성향의 망명정부 간에 국가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 되었다. 국가 내 각종 정치집단간의 정권 획득을 위한 상호경쟁과정이기도 한 국가건설과정은 정치적 갈등의 핵심변수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³⁸⁸⁾

존슨(Charlmers Jonshon)은 “집단간에 결정적 분열을 일으키는 역동적 요소는 이데올로기”라며 “이데올로기가 없으면 청년범죄자 집단, 종파, 극단적 애국회와 같은 일탈적 하위문화집단들은 동맹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며 특정 집단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사체를 형성하도록 했던 체계의 긴장은 사회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였다.³⁸⁹⁾

그리스에서 영국은 주도적으로 1946년 3월 31일의 총선 때까지 반공-우익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총선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대표들로 구성된 연합국 그리스선거감시단이 선거감시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총선거 기간 내내 군·경, 우익조직들은 선거조작과 테러 등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의 좌파는 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선거불참을 선언하였고 유권자의 과반수도 참가하지 않은 채 우익만의 선거가 된 해방 이후 첫 총선에서 우익의 인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이 패망한 뒤 남한에는 점령군으로서 미군이 들어왔고 이들에 의한 군정통치가 시작되었다. 미군정은 국가건설과정에서 좌파를 배제한 채 반공-우익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남한 또한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선거 때까지 좌·우익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확대되었다. 좌익과 우익 진영의 갈등은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미군정의 식량정책의 실패가 이러한 갈등을 조장하였다. 신탁통치안이 미-소의 대립 속

388) 이데올로기는 물질, 정신적 자원의 동원을 활성화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며, 그 자체가 갈등을 촉발시키는 동인이 된다.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p.387.

389) Charlmers Johnson, *Revolutionary Change* (Boston: Little, Brown, Lefebvre, Georges, 1966), p.81.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기능에 대해 배슬러는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동원기능(rallying)이다. 이데올로기는 동지 사이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적을 표적으로 삼아 이 기능을 굳건히 한다. 이 기능은 개인을 한 집단의 보호자에 섞이게 하는 열정 및 그 집단이 아닌 모든 집단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도록 자극하는 열정을 각성시키는 것을 또한 목표로 삼는다. 둘째, 정당화기능(justifying)이다. 이 기능은, 정당화의 필요성은 동조자 무리에게서 커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것을 믿을 증거, 상대방이나 적의 믿음을 반박할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의 증거를 상대방 또는 적에게 아낌없이 보여줄 좋은 이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은폐기능(thinly disguising)이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견해에 의해서나 남의 견해에 의해서 이익 혹은 열정을 은폐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치적 활동에서 이데올로기적 은폐는 공공복지 또는 국민에 대한 헌신 뒤의 야심과 탐욕을 숨기는데 봉사한다. 넷째, 지정기능(naming)이 있다. 이데올로기는 가치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가치 위에 사회의 어떤 조직을 수립한다. 다섯째, 인식기능(perceiving)이 있다. 확실한 자료가 극히 적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행위자는 불가피하게 자료의 극단적인 단순화에 착수해야 한다. Jean Baechler, “권력과 이데올로기”, Maurice Cranston, ed, *Ideology and Politics*/이재석 옮김, 『이데올로기의 이해』 (서울: 민족문화사, 1985), pp.34-38.

에 무산되자 미국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좌익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유엔을 통한 미국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구상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1948년 5월 10일의 해방 이후 최초의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미군 점령시기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하게 하였다. 남한의 국가건설과정은 미군정 체제에서 이뤄졌으며 좌익 배제와 친미 반공 국가건설이 목표였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3일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기치로 내건 무장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총선거를 전후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탈식민·탈점령의 해방된 국가에서는 정치폭력이 나타났다. 정치·사회적 혼란, 경제적 정체현상이 만연돼 독립 초기의 부푼 기대혁명이 시간이 흐르면서 실망과 좌절감으로 바뀌게 되었다.³⁹⁰⁾

독일의 점령통치에서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한 EAM/ELAS는 그리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였으나 우익 성향의 망명정부가 영국군과 함께 아테네에 진주하면서 이들의 갈등과 대립은 폭발하였다. 친독협력정부와 독일군 및 협력정부와 함께 민족해방운동세력을 탄압하였던 우익무장조직들은 이들과 합류해 정치폭력이 확대되었다.

남한에서도 미군정 통치하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좌·우익간의 정치갈등은 폭력으로 확대되었고 좌·우익의 테러가 빈발하였다. 그러나 우익에 의한 백색테러는 좌익의 테러에 비해 미군정의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규모와 강도 면에서 비교할 바가 못되었다. 식민지 지배체제의 경찰력은 해방 이후 상당수가 미군정 경찰로 변신해 민중들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였고, 극우단체들의 좌익 또는 좌익 혐의자에 대한 테러는 ‘빨갱이 사냥’이라는 이름 아래 남한사회 도처에서 행해졌다. 남한에서는 또한 그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친일협력자들에 대한 처벌 움직임이 일다가 흐지부지되었다. 이러한 국가건설과 정치폭력의 결과는 외세의 개입에 의한 반공-우익 국가건설로 나타났다.

그리스에서는 12월 3일 아테네 헌법광장에서 좌파 주도로 열린 비폭력 시위행렬에 대한 경찰의 발포사건으로 희생자가 발생함으로써 내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12월 4일부터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12월 봉기 이후 그리스 정부와 극우단체들에 의한 EAM/ELAS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전개됐으며 이는 정치폭력으로 발전하였다.

1944년 12월 3일 그리스 아테네의 중심부 광장에서 비폭력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와 이에 뒤이은 총파업과 같이, 제주에서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주최로

390) 하경근, 『아프리카정치론』 (서울: 일조각, 1974), pp.77.

열린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제주도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어 3·10 민·관총파업이 일어났다. 3·1사건 이후 제주에서는 본토 경찰의 증파와 서북청년단의 진주 등으로 백색테러가 자행되고 극우파 도지사의 당파성을 띤 도정행위는 제주도민들을 좌익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주도에서의 백색테러는 1948년 4·3무장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스와 제주에서 파농의 주장처럼 “식민지 민중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억압이 자행되는 시기에 무장투쟁이 일어나며, 무장투쟁은 민중을 동원시키고 한쪽 방향을 취하도록 몰고간다.” 이러한 국가건설과정과 정치폭력의 일치점은 다음과 같다.

<표 4-8> 두 사건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정치폭력의 일치점

| | 비교 요소 | 그리스 | 남한/제주 |
|---------------------|--|-------------------|-------------------|
| 국가건설 이전의 점령·식민 체제 | A: 점령·식민체제의 특성 a1: 점령·식민 국가의 야만적 통치행위 a2: 점령·식민 체제 내의 치열한 저항운동 a3: 사회주의 운동세력의 정통성 확보 | A: a1, a2, a3 | A: a1, a2, a3 |
| 탈점령·탈 식민체제의 국가 건설과정 | B: 국가건설과정 b1: 점령·식민체제 저항운동세력간의 갈등 b2: 협력부대·협력단체의 국가과료기구 구성원 으로의 변신 b3: 국가건설과정에서 외세의 주도권 확보와 개입, 좌익 배제 b4: 외국의 총선 감시와 선거 공정성 의문 | B: b1, b2, b3, b4 | B: b1, b2, b3, b4 |
| 정치폭력 | C: 정치갈등과 정치폭력 c1: 친점령·식민조직 및 인물에 대한 불처벌 c2: 해방 직후의 좌·우익간 갈등의 심화·확대 c3: 비폭력 시위대에 대한 경찰발포와 총파업 c4: 우익에 의한 백색테러 | C: c1, c2, c3, c4 | C: c1, c2, c3, c4 |
| 결과 | D: 반공-우익 국가건설 | D | D |

2. 두 사건에서 국가건설과 정치폭력의 차이점

나치 독일은 그리스를 점령한 뒤 이태리, 불가리아와 분할 통치하였다. 그리스는 아테네와 피래우스를 포함해 이오니아제도 등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한 일부 지역은 독일이, 펠로폰네스와 중부의 상당부분은 이태리가, 살로니카 등 북부지역은 불가리아가 점령하는 복수국가에 의한 점령 지배를 받았으며 독일은 친독 협력정부를 수립해 간접통치방식을 취하였다. 반면 남한은 일본에 의한 35년 동안의 단독 지배를 받았으며,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지배하는 직접 통치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스의 민족해방운동단체들은 독일군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인 민족해방운동단체들 간에도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점령 시기 저항단체 간의 무력충돌과 이에 따른 심각한 인명손실은 해방 이후에도 저항단체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였다. 남한에서는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단체간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있었으나 저항단체간에 전면적이고 대규모적인 무력충돌은 없었다. 이는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무력투쟁이 조선이 아닌 만주와 중국 등지에서 일어나고 친일경찰과 친일관리들을 동원한 고도의 식민통치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의 민족해방운동단체들이 영국군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입수하고 대규모 조직을 만들고 저항활동을 벌였지만 식민지 조선의 저항단체들에게는 중화기가 없었다.

그리스에서는 점령시기 저항단체들의 저항운동이 '자유 그리스'라는 해방구인 산간지역을 근거지로 전개돼 독일군이나 이태리군의 접근이 어려웠고 강력한 조직력과 화력을 갖추기 저항운동을 전개했던 데 반해 조선에서는 게릴라전을 감행할 만큼의 화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독일군은 그리스에서 철수하면서 ELAS의 공격을 받아 그리스 곳곳에 대한 초토화작전을 전개하고 민간인 대량학살을 자행하였으나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뒤 갑작스럽게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조선인과 산발적인 충돌사건이 벌어졌으나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³⁹¹⁾

독일군의 철수 당시 그리스의 민족해방운동단체들이 자국의 영토 안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철수 뒤 곧바로 도시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으나 조선에는 해방 뒤 미군이 진주할 당시에 도 제주도도 포함해 일본군 37만5천여명이 있었다.³⁹²⁾ 제주도는 일본군 2228명이 최종적으로 제주에서 일본으로 떠난 1945년 11월 12일까지³⁹³⁾ 일본군과 미군, 제주도민이 공존하였다.

그리스에서는 해방을 전후한 시점에서 ELAS와 우익 저항단체들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났으며, 독일군의 철수 뒤 그리스 망명정부가 후견국인 영국군과 함께 아테네에 입성하고, 영국은 그리스의 정치와 경제에 깊숙하게 개입하였다. 반면

391) 제주에서는 청년들이 친일협력자를 구타한 혐의로 일본군 헌병대에 연행되거나 마을청년들과 일본군부대간의 사소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392) HUSAFIK 1, p.478. 1945년 9월 미군 제7사단 G-2와 주한미군사령부 G-2는 38선 이남의 남쪽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 병력은 제주도의 5만8320명을 포함해 모두 17만972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Hq. 7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3, 13 Sept 194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 14 Sept 1945.

39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4, 13 Nov. 1945;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0, 18 Nov. 1945.

남한은 해방 초기 미군정에 의한 직접 통치가 이뤄졌다.

총선 또한 그리스와 남한의 상황은 달랐다. 그리스에서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대표단으로 구성된 연합국 그리스 선거감시단이 선거과정을 감시했으나 남한에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UNTCOK에 의한 선거 감시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스와 제주도에서 일어난 경찰의 발포사건에 대한 대응도 차이를 보였다. 그리스에서는 1944년 12월 3일 발포사건 이후 EAM/ELAS가 전면적 시가전에 버금가는 전투에 들어가고 총파업을 전개하자 영국군이 직접 진압작전을 좌파와 우파간에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영국군도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1947년 3월 1일 발포사건 이후 민·관 총파업에 들어가자 군정 경찰이 물리력을 탄압을 강화하였다. 제주도민들은 육지부에서 파견된 군정경찰과 서청들의 가혹행위에 일방적으로 당하였다.

<표 4-9> 두 사건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정치폭력의 차이점

| | 비교 요소 | 그리스 | 남한/제주도 |
|---------------------|-------------------------|---|---------------------------|
| 국가 건설 이전의 점령·식민 체제 | 점령·식민 통치 국가의 단일·복수성 | 독일·이태리·불가리에 의한 분할 점령 | 일본에 의한 단일 지배 |
| | 통치유형 | 친독협력정부에 의한 간접통치 | 총독부 설치에 따른 직접 통치 |
| | 저항운동 | 국내에서의 강력한 저항운동 | 국외에서의 저항운동 |
| | 탈점령·탈식민 직전의 상황 | 점령국가의 측가 철수 및 철수 시 초토화작전 | 지배국가의 갑작스런 패망 및 상당기간 잔류 |
| 탈점령·탈식민 체제의 국가 건설과정 | 해방 당시의 상황 | 영국군의 진주에 뒤이은 좌·우익간 대립·분열 | 해방 직후 좌·우익의 주도권 다툼 |
| | 영-미의 진주 성격 | 후견국으로서 영국의 활동 | 점령군으로서 미군정의 직접 통치 |
| | 정부 수립 위한 총선 감시 | 영·미·프 대표에 의한 총선 감시(1946.3. 31) | 유엔에 의한 총선 감시(1948. 5. 10) |
| 정치 폭력 | 저항세력의 무장력 | 저항세력의 강고한 무장력 | 저항세력의 빈약한 무장 |
| | 점령·식민체제 하의 내부적 무력 충돌 유무 | 점령 시기 저항세력과 친독협력정부·조직간 무력충돌 발생 | 식민 지배 시기 조선인간의 무력충돌 비발생 |
| | 경찰발포사건에 대한 대응유형 | 내전 수준의 좌·우파간 전투와 영국군의 직접 진압작전 참가를 통한 사상자 발생 | 군정의 일방적 탄압 |

제5장 군사적 동원과정과 민간인 학살

‘반공주의’는 ‘폭력의 합법화’라는 정당성을 제공하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게릴라전에 관한 서구의 군사교리의 발전이었다. 군사교리의 발전은 2차 세계대전 시기와 그 이후의 경험을 토대로 이뤄졌고 미군 교관과 고문관들을 통해 여러 국가의 군과 경찰 간부들에게 확산되었다.¹⁾ 그리스내전과 제주4·3사건은 전후 미국의 반공주의를 시험하는 시험대였으며, 반공주의는 대량학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양 지역에서 정부군의 공세는 대게릴라전의 양상을 띠었다. 발렌티노는 전투원들이 재래식 군사기술을 동원해 적을 물리칠 수 없는 무장충돌에서 강압적 대량학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군부 및 정치 지도자들은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 이와 같은 무장충돌에서 민간인은 양쪽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며, 폭력의 강도는 정부군의 대게릴라전에 의한 것이 훨씬 강력하다. 호로위츠는 제노사이드를 국가가 자신의 이념과 사회모델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한 근본적인 정책이며, “국가기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³⁾ 양 지역에서 이는 반공주의를 통해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와 남한/제주도의 반공주의는 미국보다 더욱 강경한 반공주의를 만들어냈으며 사건의 전개과정과 함께 더욱 심화 확대되었다. 미국은 그리스와 남한/제주도에서 군사교리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개입하였다. 그리스와 제주도에서 나타난 민간인 학살의 구조는 유사하다. 이 장에서는 그리스내전과 제주4·3사건에서의 군사적 동원과정과 민간인 학살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군사적 동원과정

1. 그리스

1) Mark Mazower, Review Essay: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p.1172.

2) Benjamin A. Valentino,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pp.150-151.

3) Irving Louis Horowitz, *Taking Lives: Genocide and State Power*, pp.152-153.

1) 제1국면(1946. 3-1947. 5): 내전의 발발과 우익의 테러

해방 뒤 돌아온 그리스 망명정부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지역만 장악하였다. 이는 독일 점령 당시부터 치열한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였던 게릴라들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된 그리스의 좌·우익 갈등의 폭발은 귀국한 파판드레우 정부가 1944년 11-12월 접어들면서 민족해방투쟁을 주도한 좌익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1945년 2월의 바르키자협정은 ELAS의 무장해제와 해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그리스 좌파의 항복을 의미하였다. 협정 이후 그리스 정부와 극우단체들은 백색테러를 자행하였다. 특히 펠로폰네스와 스테리아 엘라다, 남부 테살리에서 백색테러가 만연하였고 그리스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⁴⁾ 바르키자협정 이후 나타난 정부-우익 연합세력의 백색테러는 킬리가 말한 바와 같이 집권층이 질서의 이름으로 집단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다.⁵⁾ 이제부터 정부와 우익 단체들의 백색테러에 대한 묵인과 조장을 살펴보겠다.

그리스 정부와 군·경, 우익단체에 의한 좌익세력 탄압이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총선거 직전인 1946년 3월 30-31일 야간을 틈타 ELAS는 올림푸스산 동쪽 기슭의 리토호로 마을을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다.⁶⁾ 1946년 3월 31일 KKE를 비롯한 그리스의 좌파와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불참해 유권자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한 우익 인민당의 살다리스는 이를 바탕으로 비상입법을 만들고, ELAS는 물론 좌파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검거에 들어갔다. 2개월 뒤인 1946년 5월, 정부는 주지사, 판사, 검찰로 구성된 보안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경찰이 위험인물로 분류한 인사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방은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좌익 지지자나 그들의 친구, 가족에게 적용되었다. 사라피스, 바키르트지스, 만다카스 장군과 그 외 30여명의 ELAS 출신 고위장교들은 에게해 제도로 추방되었다.⁷⁾ 1946년이 되자 4876명이 추방됐고, 1227명이 심사중에 있었다. 자킨토스(Zakynthos)섬의 헌병대

4)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with a new Introduction by Richard Clogg (Chicago: Ivan R. Dee, 2003), pp.144-145;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77.

5) Charles Tilly, "Collective Violence in European Perspective", p.4.

6) 차카리아디스는 4월 12일 테살로니키에서 연설을 통해 "리토호로 사건은 왕당파-파시스트와 영국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였다. Ole Smith, "Self-Defence and Communist Policy 1945-1947," Lars Baerentzen, John O. Iatrides, Ole L. Smith,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p.169.

7)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p.118-119

장은 지역 사령관으로부터 유·무죄에 관계없이 15명의 추방 대상자를 찾아내라는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⁸⁾ 그리스 주재 영국 대사는 1946년 6월 주민들이 보안 위원회나 군법회의에 소환이 불가피한 마을주민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입산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았다.⁹⁾

1946년 7월 초가 되자, 상황은 매우 악화됐으며, 우익의 보복으로 780명이 희생되고, 5677명이 부상은 입은 한편 2만8450명이 고문을 당하였다.¹⁰⁾ 1946년 7월 18일에는 인민당 정부가 체포된 ‘공산 반란군’은 물론 지지자나 동조자로 의심받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투옥과 처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공공질서와 안전과 관련한 비상수단에 관한 헌법 결의안 C’가 그것으로, 이는 그리스의 분리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 결의안 제11조에 따라 비상군사법원이 전국에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테살리, 에피루스,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등 북부지방에 설치된 뒤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당국을 비판하거나 좌익 게릴라들을 지원하는 주민들에게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였다. 도시와 농촌에 있던 자위대원들은 좌익 동조자들의 재산 약탈을 자행하였다.¹¹⁾ 이러한 자위대원들은 주민통제를 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민병대 또는 자경대 등의 형태를 띤 준군사단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준군사단체들은 대부분 우익청년조직 형태로 나타났다. 1946년 말이 되자 군사법원을 통해 116명이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됐고, 1947년에는 688명이 처형되었다. 1946년 9월에는 좌익 노조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비상입법이 활용되었다. 주지사나 정치인들은 경찰의 공세를 부추겼다.¹²⁾ 이와 동시에 국왕의 복귀를 위한 국민투표가 3월의 총선 때 보다 더욱 조작되고 위협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좌파와 공화파 유권자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구속돼 투표를 하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농촌 유권자들은 헌병이나 우익단체의 위협을 받았고 사실상 공개투표가 이뤄졌다. 살다리스 정부는 국민투표 문제를 ‘국가이익 대 슬라브 공산주의의 대결’로 간주하였다.¹³⁾ 1946년 9월 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8.8%가 국왕의 귀국에 찬성함에

8)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190-191.

9)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52), p.178.

10) André Gerolymatos, "Greek Democracy on Trial: From Insurgency to Civil War, 1943-1949", *Th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Center for Eurasian Studies*, Vol. 2, No. 3(Spring 2003), p.132.

11) Nicos C. Alivizatos, "The Executive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1944-1949", John O. Iatrides and Linda Wrigley, eds., *Greece at the crossroads: The Civil War and Its Legacy*, p.167.

12)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91.

13) David H. Close, "The reconstruction of a right-wing state", pp.166-167; Haris Vlavianos, *Greece, 1941-1949: From Resistance to Civil Wa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1), p.232.

따라 국왕 게오르기 2세는 1946년 9월 27일 그리스로 돌아왔다.¹⁴⁾ 이는 군대와 보안대대, 공공기관 등에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들 자리에 복귀한 왕당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피난민들이 입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든 또다른 세력은 우익도당들의 활동으로, 이들은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았으며 여러 지역에 깊숙하게 퍼졌다.¹⁵⁾ 호로위츠가 제노사이드를 “국가관료기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의 국가관료기구에 의한 주민 처벌은 정부군의 지역 통치 전략과 국가건설의 한 부분이며,¹⁶⁾ 활동은 군사적이고, 정치적 제도라 할 수 있다.¹⁷⁾ 1946년 10월 밤바쿠(Vamvacou)에서는 우익인사 9명이 살해된 데 대한 보복으로 우익도당이 37명의 좌익인사들을 처형하였으나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 인질들로 판명되었다. 1946년 12월 중부 마케도니아 스테파니나(Stephanina)에서도 한 헌병대원이 경기관총을 여성들에게 난사해 5명이 사망했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KKE는 1946년 6월 말이 되자 게릴라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 자위대를 무장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카리아디스는 7월에 정치국원이며 ELAS 사령관 출신인 마르코스(Markos Vapheadis)를 게릴라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7월 한달 동안에만 좌익 게릴라들의 공격으로 27명 이상의 군인이 희생되었다.¹⁸⁾ 좌익 게릴라들은 정부군과 우익단체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공격을 펼쳤으며, 북부 지방의 많은 주민들은 이들에게 동정적이었다. 1946년 9월 하순 마르코스는 북부 테살리의 게릴라 주력부대를 이끌었고, 이태리의 그리스 침략 기념일인 10월 28일에는 카페타노이

14) 9월 5일 발표된 투표 결과를 보면 169만1594명이 투표에 참가해 116만6512명이 찬성, 52만1269명이 반대, 3만1813표가 무표처리되었다. 그러나 투표 집계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었다. L.S. St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175.

15)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192.

16) 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p.107.

17) 대체적으로 정부군은 민병대와 청년단체를 보조기관으로 활용한다. 지방민병대나 농촌 자위대는 종종 게릴라 작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 조직은 게릴라로부터 농촌 민간인들을 격리하고 마을 관리들의 암살을 막는다. 둘째, 지역 자위대에 동원되는 민간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사실상 정부에 묶이게 된다. 셋째, 민병대들은 정규 군부대가 게릴라들에 대한 보다 직접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민병대 제도는 말레이와 태국, 페루는 물론 신인민군에 대한 필리핀 정부군에게 있어서 악명높은 성공적인 제도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민간수비대(Malayan Home Guard)가 최종적으로 중국인을 포함해 25만여명을 동원했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 정책 노력이 실패했으나 광범위하게 지방 방위대를 조직했고, 1974년 전쟁이 끝나자, 앙골라에만 3만여명의 민병대가 있었다. 태국에서는 민병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1982년이 되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게릴라들이 4천여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Anthony James Joes, *Resisting Rebellion: The History and Politics of Counterinsurgency* (Kentuc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4), pp.113-114.

18)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193-194.

(*Kapetanoi*), ELAS 참전 경험자들, 지역 지휘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총사령부를 만들었으며, 12월에는 그리스 민주군대(DSE)를 공식 창설하였다.¹⁹⁾ 8월 4천명이던 민주군대는 12월 들어 8천명으로 불어났다.²⁰⁾

그리스 정부군 지휘부는 계속되는 군사적 곤경으로 인해 준군사 부대나 준경찰 부대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야전에서 이들의 작전은 일련의 비적활동과 보복학살 사건으로 특징지어졌다.²¹⁾ 1946년 7월 그리스 정부군은 북부 지방에서 대게릴라 작전을 공식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나 필요한 모든 면에서 부족하였으며 특히 심리적 측면이 심하였다.²²⁾

정부군의 사실상 토벌작전은 10월 들어 이뤄졌다. 그리스 정부와 군 사령부는 1946년 10월 11일 작전 개시에 앞서 20일 동안에 게릴라는 ‘한번에 또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하였다. 이 토벌작전은 정부의 최초의 조직적인 준비된 공세였으나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정부와 군은 군인들로 하여금 토벌작전의 성공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게릴라부대 지도자에게 상금을 붙였다. 민주군대 지도자 가운데 한명인 마르코스에게 현상금 2천만 드라크마를 내걸었으나 토벌작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²³⁾ 이 시기 정부군은 많은 장교들이 2차 대전 때 사망했거나 ELSA 출신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던 반면 게릴라들은 대의명분과 독일군 점령 시기 게릴라전 경험이 있었으며 사기가 높았다.²⁴⁾

살다리스에 이어 막시모스 정부도 군대와 협력해 1947년에 마크로니소스(Makronisos)섬, 기우라(Gioura)섬, 트리케리(Trikeri)섬 등 3곳에 수용소를 설치하였다. 보조수용소들도 그 외 여러 섬들에 있었지만 이들 3개 섬의 수용소는 좌익이나 공산주의 혐의자들을 취급하였다. 1947년 한해에만 1만여명 이상의 좌익 혐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돼 본토는 물론 섬지역의 수용소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마크로니소스는 주로 ELAS에 복무했던 장교와 사병들을 수감하였고, 기

19) *Ibid.*, p.195. 오벨린스는 ELAS의 후신인 ‘그리스 민주군대’(DSE)가 1945년 12월 15일 발족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는 당시 불가리아 페트리치(Petrich)에서 KKE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유고슬라비아 대표 및 불가리아 참모부가 참가한 가운데 정치권 회담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 회의에서 그리스 정부군과 전투할 반란군대의 재편성 결정이 이뤄졌다. 유고슬라비아는 대규모 물자원조를 약속했고, 소련도 물자를 도와줄 것이라고 희망하였다. 처음에 DSE는 ‘공화국군’(Republican Army)로 알려졌으나, 1946년 12월 ‘민주군대’라는 명칭으로 공식 창설되었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21.

20)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p.41-41;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100-103.

21)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222.

22)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00.

23) 북조선노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강연자료 제13집, 『戰後の希臘』(평양: 북조선노동당 중앙본부, 1948), pp.13-14.

24) Lawrence S. Wittner, *The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p.224-225.

우라는 정치인들, 트리케리는 좌익 진영의 통제 아래 있었던 주민들을 수용하였다. 특히 기우라는 남성을, 트리케리는 여성을 수감했는데 수천여명의 소년과 젊은이들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에 위협적 존재라기보다는 이념적으로 좌익 동조자일 뿐이었다.²⁵⁾ 이 가운데 마크로니소스는 내전 시기 재소자들을 가장 야만적으로 다룬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1947-1950년 동안 1110명의 장교와 2만 7770명의 병사들이 마크로니소스에 수감됐는데 좌익은 이곳을 ‘신 다카우’(new Dachau)라고 불렀다.²⁶⁾ 이들은 수용소에서 고문과 무차별 폭행에 시달리고 날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공개비판을 해야만 하였다. 일부 재소자들은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고문하도록 강요받았다.²⁷⁾

박재환의 주장과 같이, 갈등의 심화는 정부-우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 발발 이전에 어느 정도 용납되었던 집단 내의 분열은 적대집단의 격퇴라는 공통된 목표로 수립되고, 이 상황에서 적대집단은 이해되고 포용될 대상이 아니라 타도될 대상으로 변하며 적의 의견과 비슷한 발상은 물론 집단의 공식 이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견해도 허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²⁸⁾

그리스 정부군은 1947년 4-10월 영국군 장교들의 도움을 받은 참모회의 이후 일련의 통합작전을 전개하였다. 4월 4일 핀두스 산맥에서 시작한 ‘춘계 공세’에 대해 그리스 정부 대표자들은 “이 공세의 실패는 정권의 존재 그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장담하였다.²⁹⁾ 춘계 공세에 나선 그리스 정부군은 1947년 4월 초에 6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군함과 비행기의 옹호 아래 총공세를 시작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의 원조 속에 그리스 정부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공격계획은 민주군대와 게릴라부대들을 완전 ‘궤멸’시킬 목적을 가졌다. 정부군은 총공격에 앞서 특별훈련과 숙청을 실시하고 고급장교들도 불성실하면 면직시키는 등 치밀한 준비를 세웠다.³⁰⁾

이들은 처음에는 북부 테살리의 민주군대를 소탕하고, 이어서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국경선을 따라 산간 요새에 있는 이들을 섬멸할 계획이었다. 정부군은

25)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215.

26)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204.

27) *Ibid.*, p.205.

28)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p.389.

29) 호 빠시스, 아 빠니아리스 공저, 야 우체렌코 로문역, 『희랍민주군』 (모스끄바: 쏘련 무력성 군사출판소, 1948), p.25. 이 책자는 미국 내셔널아카이브즈의 북한군 노획문서에 있는 것이다.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711, RG 242. 이 문서들은 미국에서 복사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30) 북조선노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강연자료 제13집, 『戰後の希臘』 (평양: 북조선노동당 중앙본부, 1948), pp.15-16.

초기 기습작전으로 그리스 민주군대 대원 수천여명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내게 했으며, 수천여명의 민간인 동조자들을 체포하는 한편 산간지역의 주민들을 대규모로 소개시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작전은 실패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게릴라 대응 전술이 없었으며, 사병들은 이를 습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전이 시작된 지 1개월만에 민주군대는 스테리아 엘라다의 산간지역 남쪽으로 대규모 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정부군을 당혹스럽게 하였다. 게릴라들은 테살리 북부의 산간지대에서 기습으로 대응하였으나 비와 눈, 추위는 이들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전투에 의한 사망자 숫자보다 '기상전'(weather war)이라고 불려야 할 정도로 악천후로 인한 사망자가 늘었다.³¹⁾

1947년 10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정부군은 수비태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민주군대는 다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아 정부군이 어렵게 게릴라들을 제거한 모든 지역에 다시 들어갔다.³²⁾ 총공세에 대한 장기준비와 영국과 미국의 무기와 장비의 공급에도 정부군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1947년은 그리스 정부군의 공세 속에서도 오히려 민주군대가 성장했으며, 적극적 공세를 펼친 시기였다. 그리스 민주군대는 청년들에게 대의명분을 강조하면서 대원을 모집하거나 강제로 모집하면서 규모가 1947년 3월 1만3천여명에서 4월 1만4250여명, 5월 1만8천여명, 7월 2만3천여명으로 성장해 그리스의 상당부분을 장악했고, 이러한 지역에는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그리스 전역에 정보 및 보급망이 다양한 규모로 이뤄진 공산주의 '세포'들에 기초해 세워져 1947년 중반에는 5만여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들을 통해 돈과 정보, 식량, 의료품 등이 보급되었다. 공공기관과 기타 일상생활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25만여명이 비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동조자들이었다.³³⁾

1947년 5월이 되자 영국 경찰사절단장 위컴(Wickham)은 그리스 공안장관 제르바스에게 “국가의 권위와 안보가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였다.³⁴⁾ 1946년과 1947년을 통틀어 미군이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공산세력은 그리스 장악 투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였다.” 마르크스가 지휘하는 민주군대는 그리스의 광활한 산악지역을 근거지로 활용했고, 장비가 가볍고 기동력이 뛰어났으며 정부군이 우세하면 대결을 피하였다. 이들은 정부군에 포위돼 위협 받을 때면 소

31) 아테네발 UP 보도,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7. 4. 16.

32)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216-217.

33)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p.225;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pp.131, 135, 142-43; C.M. Woodhouse, *Struggle for Greece*, p.208.

34)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09.

규모 단위로 분산돼 흩어졌다가 다른 곳에서 재편성하는 전술적 유연성까지 갖췄다. 이 때문에 이 시기 여러차례의 소규모 '소탕작전'을 벌인 그리스 정부군은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³⁵⁾

그리스 정부군은 민주군대의 공세에 속수무책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행된 정부의 공권력과 우익단체의 백색테러는 주민들을 민주군대가 있는 산으로 들어가도록 했는가 하면 민주군대에 대한 지지세력이 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제2국면(1947. 5-1947. 12): 민주군대의 공세와 미군의 그리스 지원

그리스의 우파는 트루먼 독트린을 자신들의 태도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리스 최대의 신문이면서 온건 왕당파 계열로 분류되는 『카티메리니』(*Kathimerini*)지조차도 “정부가 국민들을 ‘독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³⁶⁾

그리스 정부는 수천명의 무장 민간인들을 민간 경찰과 우익 자위대로 이용했고,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중무장 군사장비를 활용하였지만, 여전히 정부군은 비효율적이었고 사병들 또한 전투의지가 없었다. 반면 민주군대는 독일 점령 시기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했던 과거의 경력 때문에 그리스인들 사이에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좌익 혐의자나 동조자라는 이유로 탄압하면서 주민들은 게릴라부대에 합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 대사가 1947년 6월 본국 외무부에 보낸 전문은 “기본적으로 반공성향의 지역 주민들조차 정부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었으며,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게릴라측에 항복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³⁷⁾

이 시기 그리스 현지에서 미국 정부에 보낸 각종 보고서는 그리스의 상황을 지극히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1947년 7월에는 민주군대가 정부군의 경계선을 통과해 부대를 침투시켜 남쪽의 핀두스 산맥에 있는 이오안나(야이나)와 그레베나를 공격하였다. 마샬은 1947년 7월 16일 트루먼에게 각종 정보를 종합한 결과 그리스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샬은 이 보고서에서 “2500여명으로 추정되는 게릴라들이 7월 12일 새벽 아오우스(Aous)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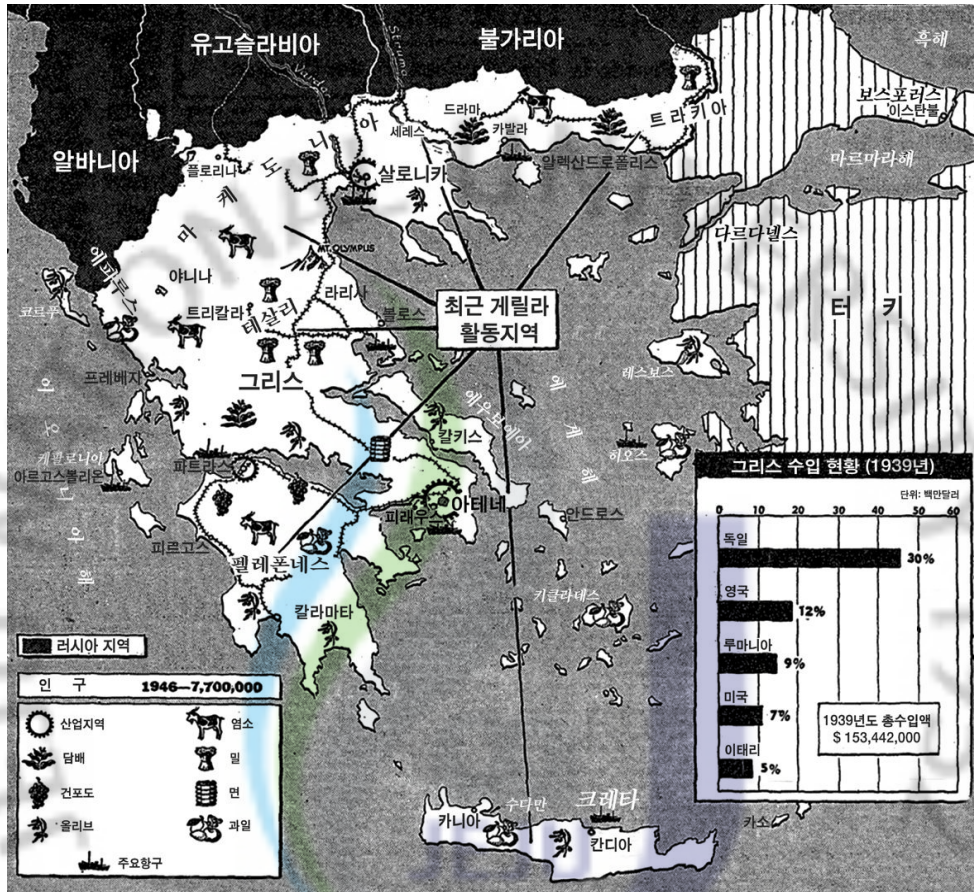
35)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p.225-226.

36) Frank Smothers, William H. MaNeill and Elizabeth D. McNeill, *Report on the Greeks*, pp.32-33.

37) "Greece Security Situation in the Peloponnese; Sir C. Norton to Mr. Bevin (26 June 1947)", PRO, FO 371/67006/R8651 (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p.122에서 재인용).

따라 알바니아로부터 국경선을 넘었다”며 “그리스의 상황이 지난 3일 동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코니트사 장악 소식을 알렸다.³⁸⁾

<그림 5-1> 1947년 6월 그리스의 상황³⁹⁾



이와 함께 살로니카의 유엔 발칸산하위원회 미국 대표인 밀러 중령의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무부가 1947년 7월 17일 작성한 보고서도 “그리스의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은 공개적으로 반란군들이 장악한 지역에 혁명정부를 수립할 목표를 선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⁴⁰⁾ 1947년 8월 하순에도 맥비는 그리스의 상황을 “악화되고 있고,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전문을 보냈다.⁴¹⁾

38)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President Truman, July 16, 1947. *FRUS* 1947, Vol. V, pp.237-238; 아테네발 AP 보도,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7. 7. 15.

39) *New York Times*, 1947. 6. 1.

40)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July 17, 1947, *FRUS* 1947, Vol. V, pp.238-242.

1947년 2월 그리스 공안장관이 된 제르바스 장군은 그리스내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극단적 탄압정책을 폈다. 그의 탄압과 테러는 이전의 모든 왕당파 정권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독일군의 점령 시기 우익 게릴라 조직인 EDES의 창설자이면서 지도자였던 그는 영국군의 지원을 받았다. 제르바스와 그의 추종세력들은 경찰과 우익단체들에 실제의 적이든, 가상의 적이든 무조건 좌파들에 대한 작전을 취할 것을 명령하였다. 거의 모든 좌파인사들은 물론 공산주의에 반대한 많은 평범한 자유주의자들조차도 ‘공산주의자’로 몰렸다. 보안위원회들은 이들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섬으로 유형을 보냈다.⁴²⁾ 제르바스는 1947년 7월 민주군대 총사령부가 모든 예비군들을 소집하고, 반란과 사보타주를 준비하도록 명령을 시달하였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체포에 들어가 아테네에서만 2500여명을 체포하고, 살로니카, 볼로스, 라리사, 카발라 등지에서 500여명을 체포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EAM의 총서기 파르트살리디스, 대부분의 EAM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리조스파스티스』 간부들이 포함돼 있었다. 1947년 8월 27일 막시모스가 사임하고 1947년 9월 7일 소포울리스가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런 가운데 1947년 8월 16일 민주군대 라디오방송은 ‘자유독립 공화국’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고, ‘해방구’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스 정부는 자수한 반란군들을 사면하고, 그리스 공군은 민주군대가 장악한 지역에 유인물을 살포하였다.⁴³⁾ 1947년 여름 민주군대는 지방, 특히 핀두스 산맥 지역과 북부 그리스 지역의 장악을 강화하고, 대원들을 모집하였다. 민주군대의 대대 규모는 200-250명까지 증가했고, 1947년 중반, 그리스 내에는 65-70개의 대대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프론티어 코너와 에피루스에 있었다. 정예부대로 편성된 20개 대대 5천여명이 프론티어 코너에 있었고, 24개 대대는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에, 나머지는 테살리와 펠로폰네스에 있었다. 그러나 탱크나 항공기는 없었고, 포도 60문 정도의 작은 대공포 밖에 없었다. 박격포와 중기관총은 1개 대대당 2기 정도만 보급될 정도로 언제나 빈약하였다.⁴⁴⁾

41) 맥비는 첫째, 게릴라들이 현재 그리스 정부구의 계속된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보다 광범한 지역에서 테러를 가하고 있다. 둘째, 도적(게릴라)들이 보다 규모가 많아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의 피난민들이 급속히 도시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다. 넷째, 위성국가들의 그리스 내부투쟁에의 개입 징후가 날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The Ambassador in Greece (MacVeagh)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47, Vol. V, pp.303-304.

42) Frank Smothers, William H. McNeill and Elizabeth D. McNeill, *Report on the Greeks*, pp.30-32.

43) 유인물을 읽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유인물의 내용을 토론하는 사람들은 처형돼 유인물 살포가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p.148-149.

44)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211-212.

그러나 1947년 9월 트라키아 지방의 정부 장악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를 뚫던 미국 대령 밀러(Alan Miller)는 “민간인과 군사적 사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밀러는 “통신 두절, 마을 방화, 시체 유기, 구호품 보급 실패, 정부군의 공격 실패에 대한 주민들의 절망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탄 열차는 지뢰와 게릴라들의 활동으로 15차례나 멈춰야 하였다.⁴⁵⁾ 1947년 9월 17일 그리스 최고국방위원회에서 소포울리스는 정부군 규모를 3만명 늘려 15만명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우익 자위대를 5만명의 국민방위군으로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리브세이와 챔벌린은 소포울리스의 건의를 강력 반대했지만 타협안으로 정부군을 1만명 증강하는 자금을 승인하였다. 10월에 이 자금은 국민방위군 2만1천명을 증강하는데 사용되었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군대의 지지기반 확대와 공격은 더욱 치열하게 이뤄졌다. 1947년 10월 살로니카 주재 미국 영사는 북부 그리스에서 사보타주가 60% 증가했고, 민주군대의 신병모집이 이전 달에 비해 35%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신병들은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훗날 민주군대의 20%를 점유하였다.⁴⁷⁾

1947년 중반이 되자 영국과 미국의 고문관들은 게릴라들에 대한 정규군의 작전이 단호하고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⁴⁸⁾ 그 이후 군 지휘관들은 경찰과 그 지역 자위대원들에게 권위를 가졌고, 경찰의 활동은 군대 신병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군당국의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대도시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조직을 파괴하는 역할과 지방에서의 게릴라들에 대한 민간인 정보망과 보급망에 관한 정보수집으로 점차 제한되었다. 자위대에게는 민간인 혐의자를 감시하고, 군의 관할 밖에 있는 마을 경비임무가 주어졌다.⁴⁹⁾ 이러한 자위대원들은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약탈과 폭력 행사의 주요 도구가 되었다.⁵⁰⁾

45) The Chargé in Greece (Keeley)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12, 1947, *FRUS* 1947, Vol. V, p.336.

46) Governor Dwight P. Griswold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ember 4, 1947, *FRUS* 1947, Vol. V, pp 396-398.

47)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51.

48) David H. Close, "The reconstruction of a right-wing state", David H. Close, ed., *The Greek Civil War*, pp.173-174.

49)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215-216.

50) 과테말라에서는 민병대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마을주민들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살인, 살해 위협, 강제 소개, 불법 구금을 포함한 폭력의 남용은 과테말라 민병대인 '자위자 위원회'(Voluntary Self-Defense committee)로 알려진 민간 자위정찰대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몬트 정부 하 1982년에 군의 대게릴라 전략으로 발전한 이 제도는 오지 마을들에 대한 군의 통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위정찰대원들은 10살 정도에서부터 70살 가량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또는 격주로 12-24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거리 감시와 마을로 들어가는 이방

1947년 가을, 민주군대는 소도시들을 공격하고 사보타주를 벌였다. 이들이 작전을 벌인 지역은 주로 코니트사와 알바니아 국경선 부근 델비나키온(Delvinakion), 유고슬라비아 국경선 부근 카이마크칼란(Kaimakchalan), 크로우시아(Kroussia), 베르미온(Vermion) 산악지대, 불가리아 인근 소우플리(Souphli) 지역 등이었다. 특히 그람모스 산악지대에서 알리아크몬(Aliakmon) 계곡에 이르는 지역은 민주군대가 장악하였다. 1947년 10월 지방 선거가 '자유 그리스'에서 실시돼 상당수의 마을에 민주군대의 행정조직망이 수립되었다.⁵¹⁾

1947년 12월 24일 그리스 민주군대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그리스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마르코스가 총리 겸 국방장관으로 임명됐으며 8명의 각료로 구성되고, 10개 항의 정강이 발표되었다. KKE 총서기 자카리아디스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지하에 남아 있었다.⁵²⁾ 다음날에는 마르코스가 코니트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⁵³⁾

내전이 길어지면서 정부군의 대게릴라전 정책도 변화가 왔다. 미군의 요구에 따라 그리스 게릴라들에 대한 강력한 대항수단이 채택되었는데 이들 대항수단 가운데 하나는 주민 소개였다.⁵⁴⁾ 소개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부와 중부 그리스 지역

인에 대한 조사, 지역 군 지휘관에 대한 정기적 보고, 게릴라 수색을 위해 산간 지역에 대한 소탕작전 수행, 나무 베기 및 군 부대나 초소로의 수송 등 군에서의 잡일은 물론 군부대가 파괴분자로 확인한 마을 주민 수백여명을 체포하고 살해하는 일도 강요받았다. 민간정찰제도의 악명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목적은 공식적으로는 게릴라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은 게릴라들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추정될 수 있었다. 전형적으로 민병대들은 지방(대체적으로 마을) 수준에서 형성되고, 지방의 남자(그리고 때때로 여자)로 구성되며, 그들의 활동은 지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Beatriz Manz, *Refugees of a Hidden War: The Aftermath of Counterinsurgency in Guatemala*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p.41, 101-102; Robert M. Carmack, "The Story of Santa Cruz Quiché", Robert M. Carmack, ed., *Harvest of Violence: The Maya Indians and the Guatemalan Crisi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8), p.63; Human Rights Watch/Americas, *Human Rights in Guatemala During President de León Carpio's First Year* (New York/Washington/Los Angeles/London: Human Rights Watch/Americas, 1994), p.3; Roger Trinquier, *Modern Warfare: A French View of Counterinsurgency*, p.34.

51)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57.

52) 10개 항은 ① 그리스 해방을 위한 대중 동원 ② 대중 정의의 수립 ③ 외국 자산과 중공업의 국유화 ④ 농업 개혁 ⑤ 그리스 인민의 화해 ⑥ 민주노선에 따른 국가 재편 ⑦ 유엔의 틀 안에서의 민주국가들과의 우호 관계 ⑧ 소수와 사이의 완전한 균등 인식 ⑨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군대의 창설 ⑩ 선거 실시 등이 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59.

53) 오벨런스는 이 두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데 대해 먼저 코니트사를 장악하고, 그곳에서 자유민주정부의 수립을 알릴 의도가 있었다고 했지만, 충분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연기됐고, 공격도 제시간에 이뤄질 수 없어 며칠 늦어졌다고 보았다. 그리스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을 전세계에 선언한 알바니아의 민주군대 라디오 방송은 첫 번째 목표가 우호적인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이라고 선언했으나 소련은 물론 이러한 단계를 밟도록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했던 발칸의 3개국도 인정하지 않았다. *Ibid.*, p.158;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218; Alex P. Schmid, *Soviet Military Intervention Since 1945 With Case Studies by Ellen Berends* (N.J.: Transactions Publishers, 1985)/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옮김, 『1945년 이후의 소련의 군사개입』 (서울: 동연구소, 1989), p.111.

54)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229.

에서 민주군대의 소탕에 큰 효과를 가져왔으나 그리스인들의 삶을 박탈하는 가혹하고 야만적인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난 뒤 그 지역을 ‘무인지대’(no man’s land)화 함으로써 전선(front line)을 분리하고 ‘후방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하였다. 게릴라를 지지하고 구원하는 주민들이 없으면 게릴라는 물이 없는 물고기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⁵⁵⁾

이러한 미군의 자문에 따른 소개정책은 대게릴라전에 민간인들을 게릴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이었으나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들이었다. 한 미국인 관리는 “그리스 군의 소개정책은 게릴라들로부터 식량과 정보를 빼앗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농민들은 피난민이 되기보다는 게릴라에 합류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⁵⁶⁾

1947년 말이 되자 30만여명의 그리스인들이 정부가 통제하는 도시나 그 주변으로 소개돼 비참한 상황 속에 놓였다. 이러한 소개정책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은 1949년 말이 되자 그리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인 70만여명에 이르렀으며 코린트만 북쪽의 산간지대 거주민들은 대부분 소개되었다. 훗날 게릴라들은 이러한 소개정책이 민주군대의 확장에 결정적인 제약을 가져왔다고 기록하였다.⁵⁷⁾

미국 군사장비의 유입도 민주군대의 진격을 중단시키지 못하였다. 게릴라 규모는 1947년 말 2만5천명 규모로 증가하였다.⁵⁸⁾ 오벨런스는 “1947년 말이 되자 게릴라 전술이 정부군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민주군대는 그리스의 5분의 4를 장악하였으며 정부 지지자들은 안전상 도시에서 너무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⁵⁹⁾ 그러나 1947년 이후 그리스 군대는 군인들을 보다 젊고, 훈련을 잘 받고, 건강한 청년들로 대체할 수 있었다. 반면, 그리스 민주군대는 나이든 탈영병과 징집 농민들에 의존해야 하였다.

1947년 12월 27일 정부는 ‘국가, 정권, 사회질서, 시민권의 보호를 위한 비상수단’을 발표한 강제법 509(Compulsory Law 509)를 만들었다. 이 법률은 모든 좌익정당과 단체를 금지하고, “공공연하게 정권이나 폭력적 수단으로 기존의 사회

55)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p.214-215.

56) Angeliki E. Laiou, "Population Movements in the Greek Countryside During the Civil War", Lars Bærentzen, John O. Iatrides and Ole L. Smith,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p.63; 벨로우스는 20세기 초의 필리핀-미국전쟁을 분석하면서 “필리핀에서 군사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맞닥뜨렸던 문제였다. 그들은 사격을 시작할 때까지 ‘물고기’가 누구였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중대한 과오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의 미군들처럼 필리핀인들은 과잉살육했으며,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적으로 간주되었다”고 말하였다. Alan Berlow, *Dead Season: A Story of Murder and Revenge* (New York: Vintage, 1996), p.180.

57)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11.

58)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51.

59) *Ibid.*, p.218.

체제를 전복하거나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각을 적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⁰⁾

미국무차관 대리 로베트는 1947년 12월 30일 AMAG 단장 그리스월드에게 정부군의 병력규모를 1만2천명 늘려 13만2천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승인하도록 지시하고, 국민방위군은 2만9천명을 증원해 5만여명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지시하였다.⁶¹⁾ 공산주의에 맞선 이데올로기의 전쟁에서 미국의 신념은 1947-1948년 그리스 정부가 도입하거나 재도입한 보안관련 법률과 일치하였다. 미국의 개입으로 그리스는 특별법(*Idionym Law*)의 새로운 도입, 건전 사회 견해 소유 증명서의 제도입, 공무원들의 충성 서약서의 도입 등 각종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였다. 미국인 관리들은 또 노동운동에 남아있는 좌익세력을 탄압하는데도 참가하였으며, 그리스 경찰과 군이 익숙한 방식대로 공산주의에 대한 작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였다.⁶²⁾

2. 제주

1) 제1국면(1948. 4-1948. 5): 미군정의 초기 제주4·3무장투쟁 대응

국방경비대의 대게릴라전의 시초는 정부 수립 이전에 일어난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전개된 것이 처음이었다.⁶³⁾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을 지낸 존 슌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첫 테스트는 제주도 사건”이라며 제주도에서의 대게릴라전을 언급하고 있다.⁶⁴⁾

폭력은 대항폭력을 부른다는 프란츠 파농의 주장과 같이, 제주도 인민유격대는 1948년 4월 3일 ‘탄압이면 항쟁이다’는 구호를 내걸고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제주도 인민유격대의 4·3무장투쟁은 해방 이후 제주도 사회에 팽배했던 관리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 귀환인구의 급증과 전국 최고의 실업률, 식량난, 콜레라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3·1사건 이후 좌익 탄압을 구실로 한 제주도민에 대한 경찰과 우익청년단체의 가혹행위, 남로당 조직의 노출, 미군정의 실정과 극우파 유희진 지사의 도정 실정 등이 중층적으로 쌓여 폭발한 것이다.

60) Polymeris Voglis, *Becoming Subject*, pp.81-82.

61)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Mission for Aid to Greece, December 30, 1947, *FRUS* 1947, Vol. V, pp.478-480.

62)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214-215.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45-1960』 (서울: 동위원회, 1988), p.47.

64)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Economic Assistance to China and Korea: 1949-1950*, p.167.

게릴라전을 시작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대의명분이다. 게릴라 운동은 일반적으로 결정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이 없이 시작하는데, 게릴라의 초기 유일한 자산은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대의명분과 정부가 아무런 신뢰를 줄 수 없다는 대의명분이다.⁶⁵⁾

4·3무장투쟁 주제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잇따른 고문치사 사건,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량 검거와 유해진 지사의 독재적 도정 수행은 오히려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또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⁶⁶⁾

제주4·3무장투쟁을 일으킨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1948년 8월 제주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제국주의의 직접 지휘로 되는 전고미문의 야만적인 테러와 학살, 그리고 파괴 약탈 속에서 신음하여 오던 제주도 인민들에게 미국인들과 그 주구들이 조국의 분할을 공고화하고 남조선을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단독선거 실시가 발표되자 인민들의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어찌 폭발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단호히 일어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제주도 인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총궐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4·3인민항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이며 이것이 제주도 인민군 즉, ‘산사람’들이 생기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⁶⁷⁾

김달삼은 테러와 학살, 5·10 선거 반대와 통일 독립을 4·3무장투쟁의 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인식은 남로당 중당당 간부이면서 김달삼의 장인인 강문석도 비슷하다. 그는 1950년 4월 제주4·3사건의 발발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7구국투쟁을 전후하여 제주도에서만 무려 1만여명이 검거되었으며 김용철 양은하 등 열렬한 애국청년들이 계속 학살되었다. 반도의 학살적 조건 하에서 인민들이 무장반격으로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무장봉기의 맹아는 이미 10월 인민항쟁에서 싹텄으며 2·

65) Irving Louis Horowitz, *Foundations of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1972), p.285.

66) 43무장투쟁 발발 시기 9연대장으로 있던 김익렬은 제주43사건의 발생 원인을 경찰에 의한 대량검거와 고문치사 사건 등을 들고 있다. 김익렬, “동족의 피로 물든 제주참전기”, 『국제신문』, 1948. 8. 6.

67)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중요문헌집』, 1948. 10. 30.

7구국투쟁에서는 각지에서 초보적인 형태가 나타나 있었다. “또다시 망국 노예가 되느냐”, “일어서서 원수와 싸워 이기느냐” 이 두 길만이 놓여 있는 긴박한 정세하에서 영웅적 제주도 인민들은 용감하게 후자의 길을 택하여 일어났다.⁶⁸⁾

제주도 인민유격대의 전략은 무장투쟁 초기부터 진압될 때까지 매복과 기습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인민유격대는 무기와 조직력, 전투경험 등 게릴라전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무장투쟁 이전 유격대가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지만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간부들 가운데는 일제 강점기 때 노동운동을 한 지도부들이 있었으나, 전투 경험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⁹⁾ 4월 3일 지서 습격에 나섰던 유격대 중대장 출신의 김아무개의 증언은 유격대의 빈약한 무장력과 기율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지서 습격을 하기 전에는 아무 훈련도 받지 않았지. 총도 단 두 자루뿐인데 왜놈들이 나갈 적에 파묻어둔 거였어. 이걸 파내서 사람들이 쫓겨 다녔던 총들이야.……그리고 닛뽀도(일본칼)가 몇 개 있고, 그 외에 쇠창도 몇 개 있고, 그날 밤이 되니까 야외에 집결했어.(4월 2일 밤: 인용자) 그 때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가니깐 내가 “왜 술을 먹느냐?”고 했지. 동료들이 “술 안 먹고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어.……조 편성을 해서 새로 1시(새벽 1시)에 행동개시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시간되니까 대정지서를 향해서 갔지.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앞에 섰던 사람이 소변을 보면서 뒤로 빠지고, 또 걷다가 뒤에 가던 사람이 소변보면서 뒤로 빠지고 하는 거라. 앞에 가는 사람이 오줌 싼다고 빠지고 하다보니까 맨 뒤에 선 사람이 맨 앞에 서게 된 거라.⁷⁰⁾

그의 증언은 4·3무장투쟁이 과연 치밀한 계획 속에 일어났는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할 정도로 당시 유격대의 허술한 조직과 장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무장투쟁 결정과정을 보면, 유격대가 실제로 무장투쟁 초기에는 장기 게릴라

68) 『로동신문』, 1950. 4. 3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p.358에서 재인용).

69) 안세훈, 조봉구, 현호경, 이신호 등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지도부는 일제 강점기 때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을 했으며, 학병 출신자는 이덕구 정도였다. 제주4·3사건 발발 초기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그의 이력서 상으로 1944년 일본 중앙대 전문부 법학과에 입학해 1945년 9월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70) 유격대 중대장의 증언, “내가 겪은 4·3”, 제주4·3연구소, 『4·3장정』 6 (제주: 나라출판, 1993).

전을 염두에 두고 무장투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통신 특파원 조덕송도 토벌대와 함께 대정면 지역의 유격대 본부를 찾아가 본 결과 “토벌군이 ‘대정면 인민군사령부’를 습격해서 압수하였다는 무기를 살펴봤더니, 곤봉, 구시대엽총, 일본도, 죽창, 철창 등이었다”며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무기, 이로써 최신 무기에 생명을 걸고 버티고 나서야 할 절대성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라고 분석하였다.⁷¹⁾

제주도 인민유격대는 제주4·3사건 발발 직전 제주도내 8개 읍·면에서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등 모두 320명이 편성되었다.⁷²⁾ 유격대는 소대 10명, 중대 20명, 대대 40명 등의 소단위 인원으로 부대 체계를 갖췄으나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이 매장한 상당량의 무기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무장투쟁 초기 이들의 무기는 빈약하였다.⁷³⁾ 이 시기 경비대는 유격대와 경찰의 충돌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 국방경비대 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되었고 초대 연대장에는 장창국 부위가 부임하였다.⁷⁴⁾ 미군정은 1946년 1월 15일 조선국방경비대를 발족시킨 뒤 1-4월 사이에 8개 도에 각각 1개 연대씩 조직한 데 이어 제주도에는 도 승격 이후 전국에서 가장 늦게 창설한 것이었다. 1947년 3월부터 제주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병활동을 벌여 1948년 1월이 되자 병력 규모가 400여명으로 늘어났다.⁷⁵⁾

경비대는 유격대의 투쟁 구호가 ‘단선·단정 반대’ 등 정치적 성격을 띠고, 초기 공격이 경찰에 그치지 않음을 지켰다. 9연대 창설 멤버로 모병활동을 벌였던 고남준(당시 9연대 2중대 분대장)은 “김익렬 연대장이 조회 때 ‘군은 가만히 있어라. 군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경찰만 상대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를 간혹하였다”고 말하였다.⁷⁶⁾

71) 조덕송, “流血의 濟州島”, 『新天地』, 1948년 7월호, p.91.

72) 문창송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혀진 4·3의 진상-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1995), p.11.

73) 위의 책, p.19.

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 해방과 건군』(서울: 동위원회, 1967), p.301.

75)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24, January 30, 1948. 장창국에 이어 육사 2기생으로 5연대 부연대장이었던 이치업 중령이 1947년 4월 9연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가 부임할 당시 9연대 병력은 1개 대대를 조금 넘는 규모에 지나지 않았고, 모병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당시 9연대가 “대부분 육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고뭉치들이 모인 연대”였다고 회고하였다. 이치업은 김익렬의 부탁을 받고 그를 부연대장으로 기용하였다고 말한다. 이치업, 『번개장군-이치업』(서울: 원민 Publishing House, 2001), pp.97-101; 국방경비대 사관학교(육사) 4기로 1947년 9월 10일 졸업한 황인성은 임관과 동시에 동기생 4명과 함께 9연대 소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5명의 동기생 가운데 서열에 따라 9연대 1소대장을 맡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병활동을 벌이다 1948년 1월 광주의 4연대 지불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육사에서는 일본군의 『보병조전』(步兵操典), 『작전요무령』(作戰要務令) 등을 사용하였고, 미군의 FM과 TM도 조금씩 번역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황인성, 『나의 짧은 한국 기행 - 회곡 황인성 회고록』(서울: 황씨중앙중친회, 2002), pp.91-100.

76) 고남준 증언, 1967. 4. 13,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답사료 126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

경비대의 이러한 인식은 비단 김익렬만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비사관학교 교장을 지낸 이치업에 따르면 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도 1947년 1월 13일 3기생 입교식 때 “조선국방경비대는 좌도 좋소, 우도 좋소. 한국군에서 사상적 배경을 문제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등단한 경무부장 조병옥은 후보생들에게 “방금 송호성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며 공산주의를 맹비난하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⁷⁷⁾

1947년 6월 30일부터 1948년 12월 28일까지 제주도에 있었던 강덕윤(9연대 1대대 1중대 3소대 이등상사)은 당시 작전개념에 대해 “김익렬 연대장이 있을 때는 교전을 한 적이 없고, 출동을 했으나 공비가 피해버려서 큰 싸움은 없었다. 당시 경비대는 중립을 지켰다. 연대장은 제주도민이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경비대는 좌도 우도 아니다. 합법적으로 앞으로 수립되는 정부에 충성한다는 개념이었다”고 말하였다.⁷⁸⁾

미군정이 국방경비대에 개입을 명령할 때까지 제주도 사태는 경찰과 민간인간의 문제였다.⁷⁹⁾ 4·3무장투쟁 이후 유격대가 적극성을 띠고, UNTCOK가 제주도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 합동작전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경비대는 해안경비대 함정편으로 1948년 5월 4일 수원에서 창설한 11연대 본부와 1개 대대를 5월 15일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11연대장 박진경은 9연대(실제 병력은 1개 대대 규모)와 5연대 2대대를 배속받아 3개 대대 규모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해안경비대는 JMS보다 톤수가 큰 YMS 김천·광주·개성·공주정을 출동시켰는데, 해안경비대의 함정이 전투에 참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들 함정들은 국방경비대와 경찰 병력, 군수품을 수송하고, 제주도 연안을 봉쇄해 ‘폭도’들의 해상탈출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⁸⁰⁾

건토벌작전사』(서울: 동연연구소, 2002), pp.288-292.

77) 이치업, 『번개장군-이치업』, pp.97-98.

78) 강덕윤 증언, 2002. 12.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p.252-254.

79) 백선엽, 『실록 지리산』(서울: 고려원, 1992), p.108; 그러나 제주도에 부임한 군인들의 눈에는 제주도는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섬이었다. 국방경비대 사관학교(육사) 5기로 1948년 4월 6일 졸업하자마자 제주도 9연대로 배치받고 4개월여 근무한 채명신은 “소대원들의 눈초리에서 공산당 소굴 한복판에 내 던져졌다”고 느꼈다. 그는 당시 경비대 장교들에게 제주도는 ‘공산당 소굴’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동기생 9명이 9연대로 발령받자, 통위부 인사참모 박진경 중령을 만나 제주도로 발령받게 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진경은 “인사비밀인데 내가 그곳 9연대장으로 가게 됐다”면서 “9연대 사병들이 모두 제주도 출신들 뿐이니 어떻게 그 폭동을 진압할 수 있겠나. 그래서 고심 끝에 내가 귀관들을 뽑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사방이 온통 붉게 물든 눈동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니 토벌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눈에 비친 제주도는 ‘좌익의 근거지’가 아니라 ‘빨갱이 소굴’이었다. 채명신, 『채명신 회고록-사선을 넘고 넘어』(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4), pp.49-50, 54, 70.

80) 제주도 토벌작전 기간에 출동한 함정은 PG 충무공, JMS 4척(단천, 태백산, 대구, 덕천호), YMS 13척(고원, 가야산, 길주, 강계, 김해, 공주, 강화, 개성, 김천, 광주, 강릉, 금강산, 가평호) 등 모두 18척이며, 출동횟수는 93회로 국방경비대원 5600여명, 경찰 2천여명과 식량, 병기 등을 수송했고, 투포함을 실어나르

합동작전에 따라 5연대 3대대 소속으로 제주도에 왔던 한 병사는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온 뒤 제주읍 비행장에서 천막을 치고 한달 이상 있어도 ‘공비’를 토벌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⁸¹⁾ 4월 24일에는 경비대가 제주읍을 포위한 가운데 경찰이 60명의 ‘폭도’ 혐의자들의 집을 급습해서 60명을 체포하였고 이 가운데 30명을 석방하였다.⁸²⁾

국방경비대의 활동이 G-2 보고서에 처음 나온 것은 1948년 4월 21일 밤 11시 경찰지서와 면사무소를 공격한 유격대를 해산시킨 것이지만,⁸³⁾ 미군 방첩대(CIC)는 “공산주의자들이 4월초 제주도에서 게릴라전을 시작하였다”면서 “유격대의 마을 공격은 대부분 5월 상반기까지 일어났으며, 이들은 낮에는 산에 숨었다가 밤에 마을을 공격한다”고 밝히고 있다.⁸⁴⁾ 유격대의 초기 공격은 경찰을 괴롭혔다. 『공비토벌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폭도는 한라산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정공전법을 피하여 유격전을 기도하였으며, 또한 도민은 폭도들과 혈연관계가 있는 자가 대부분이어서 폭도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자가 다수하므로 한라산 폭도 조기소탕에는 지장이 막대하였다.⁸⁵⁾

그러나 4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미군정은 제주도 사건의 해결에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4월 27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 슈 중령의 제주도 방문과 작전지역 시찰,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의 “제주도에서의 진압군의 성과에 한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발언⁸⁶⁾은 강경진압을 통한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와 남한내 공산주의 세력의 척결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부터 미군정은 제주도 사태를 게릴라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군·경은 제주도의 특성상 제주도민들이 유격대에 협조하고 있다는

는 임무를 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참고문헌은 언급돼 있지 않다.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187-188.

81) 유영국 증언, 1966. 4. 2,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자료 400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서울: 동연연구소, 2002), pp.306-311.

82) James Roper, AP 보도, *Stars and Stripes* (Pacific), 1948. 4. 26; 교토-UP 보도, *Nippon Times*, 1948. 4. 26.

83)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916, 22 April 1948.

84) “제971방첩대 지대의 1948년 활동보고”,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 동연연구소, 2000), p.294.

85)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서울: 육군본부 편찬, 1954), p.11.

86) *Subj: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do Island*, Lt. Col. Schewe, G-3 to Col. A. C. Tychen, A/C of G-3, 29 April, 1948, RG 338, NARA.

전제 아래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유격대에 대한 도민들의 ‘협조’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군의 정책은 얼마 뒤 ‘비민분리’를 목적으로 한 강제소개와 초토화작전으로 나타난다.

2) 제2국면(1948. 5-1948. 8): 미군정 주도의 진압작전

미군 점령 기간의 핵심 과제였던 5·10선거가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실패하자 미군정은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감행하게 된다. 군정장관의 합동작전 명령과 2차례에 걸친 제주방문,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의 현지 지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선거가 실패로 끝난 것은 미국의 위신에 상당한 상처를 냈으며, 이는 곧 강력한 토벌작전의 전개를 의미하였다.

김익렬 연대장의 후임으로 5월 6일 임명되고 5월 15일 취임한 박진경 연대장은 제주도의 지형을 잘 아는 만큼 적극적인 토벌작전을 벌였다.⁸⁷⁾ 9연대와 11연대 고문관 리치는 박진경이 11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김익렬이 모슬포 주둔 9연대에 있었고, 박진경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⁸⁸⁾

박진경의 작전개념에 대해 『대비정규전사』는 연대 병력을 대대 및 중대 단위로 한림, 성산포에 분산 배치해 경비와 소탕작전을 병행하기로 하고, 1차로 주민 자체방위로서 마을 주위에 돌담을 구축하는 방벽 건설과 자위대 조직을 통한 경비 강화 등 선무공작에 주력하고, 2차로 적극적인 ‘공비소탕작전’을 벌였다고 밝히고 있다.⁸⁹⁾ 그러나, 당시 토벌작전에 나섰던 병사들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 9연대 출신인 조팔만은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후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실시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⁹⁰⁾ 5연대에 편입돼 제주에 온 유영국도 “박진경이 공비토벌을 맹렬히 하였다”⁹¹⁾고 증언하고 있다. 6연대 2대대 소속에서 5연대 작전 지원을 위해

87) 박진경은 일본군 학병 출신으로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본군이 한라산에 구축한 진지의 구조 내용과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서울: 동원학회, 1988), p.54; 백선엽, 『실록 지리산』, p.118. 지리산 토벌작전에 참가했던 공국진은 퇴역후 회사에 들어간 뒤 한 제철회사의 히로다 상무라는 일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박진경과 학병 교육대 동기로 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공국진 지음, 『전곡 공국진 회고록 - 한 노병의 애환』(서울: 원민 Publishing House, 2001), p.457; 박진경은 주한미군 G-2가 당시 남한의 야전지휘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물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63, 18 June 1948. 그와 같이 근무했던 11연대 고문관 리는 “나는 박진경을 좋아하였다. 그는 영어를 알았던 교양 있고 교육을 받은 장교였으며,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였다. James Leach 인터뷰. 앞의 인터넷 사이트.

88) James Leach 인터뷰. 위의 인터넷 사이트.

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55.

90) 조팔만 증언, 2002. 10.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서울: 동원구소, 2002), pp.224-226.

91) 유영국 증언, 1966. 4. 2,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4005-1], 위의 책, pp.306-311.

제주도에 왔던 한 병사는 48년 5월 수색 및 마을경비를 실시했으나, 마을은 노인과 부녀자뿐이었으며 산간 마을은 ‘공비’들에 의한 사용과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부 소각시켰다고 말한다.⁹²⁾ 당시 토벌작전은 대게릴라전 전략으로서 테러와 강제소개정책⁹³⁾을 사용한 것이다. 박진경을 암살한 손선호는 박진경 연대장이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⁹⁴⁾ 백선엽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강경진압과 이에 대한 유격대의 대응은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의 학살을 가져왔다.⁹⁵⁾ 박진경 연대의 고문관 리치는 당시의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폭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에 대한 살해를 끝내기 위해서, 제주도 내륙의 반란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해안마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협받는 내륙인들(산간 주민들: 인용자)을 보호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박진경을 지원하였다. 나는 11연대를 산간으로 보내기 위해 박진경과 함께 일하였다. 우리는 소규모 캠프의 반란군들을 발견하였다. 내가 개인적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경비대는 사적재판(인민재판: 인용자)을 열고 그들 가운데 여러 명을 총살하였다.⁹⁶⁾

92) 권재수 증언, 1981. 2. 16,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6004-1], 위의 책, p.287.

93) 강제소개정책의 야만성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전쟁에서도 나타난다. 19세기 말 남아공과 필리핀, 쿠바에서도 강제소개정책을 채택하였다. Anthony James Joes, *Resisting Rebellion: The History and Politics of Counterinsurgency*, p.106; 보어전쟁(1899-1902)에서 영국군은 ‘경쟁지역’의 민간인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수용소를 설치했으며, 게릴라들로부터 식량과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12만-15만4천여명의 보어인과 아프리카 민간인들이 50여개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Thomas Pakenham, *The Boer War* (New York: Random House, 1979), p.549;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농장에서 쫓겨난 여성과 어린이로 위생조건이 열악한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보어인 2만8천여명이 강제수용소에서 죽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사망자의 3분의 2는 여성이었다. 또 80%에 이르는 희생자는 16살 미만의 아동으로, 이들은 홍역과 폐렴, 이질, 장티푸스 등의 질병으로 수용소 안에서 죽어갔다. Gregory Fremont-Barnes, *The Boer War 1899-1902*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p.81; Thomas Pakenham, *The Scramble for Africa: White Man's Conquest of the Dark Continent from 1876 to 1912* (New York: Avon Books, 1991), pp.576-579.

94) 손선호는 1948년 8월 12일 고등군법회의의 증인신문에서 “3천만을 위해서는 30만 제주도민을 다 희생시켜도 좋다. 민족상잔은 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실제 행동에 있어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한 박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며 동포를 구하고 성스러운 우리 국방경비대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박대령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대령이 내임하자 직접 공격명령을 내리고 만약 부락민이라도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살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민이 들로 일하러가다 경찰에 피살된 사실, 그 시체를 가지러 간 아들의 피살, 또 오라리라는 부락의 참상, 경찰의 사육으로 살인과 방화를 감행한 박근택의 무죄석방, 경비대원들의 전투중의 비행, 음식을 제공하고 안내까지 한 사람의 사살, 부락민을 체포해 가지고 폭도라고 하여 포로로 하는 사실 등등이 박대령 내임 후의 사태”라고 말하였다. 『한성일보』, 1948. 8. 14.

95) 백선엽은 제주4·3사건 당시 대다수의 희생자들이 “직접적인 토벌전의 결과로서라기보다는 밤낮으로 지배권이 바뀌는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숨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백선엽, 『실록 지리산』, p.118.

96) James Leach 인터뷰. 앞의 인터넷 사이트.

연대 작전 고문관 출신 리치의 이런 증언은 박진경 연대장 시절부터 주민들에 대한 수용소 설치와 강제소개가 이뤄지고, 즉결처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미군 고문관이 경비대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였음을 의미하였다.⁹⁷⁾ 이 시기부터 이미 제주도에서는 대계릴라전의 유형으로서 테러와 강제이주, 진압과정에서의 선택적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제주도 최고 사령관은 박진경 연대장이 아닌 미 보병 6사단 산하 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이었다. 브라운 대령은 부임 초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해 중지⁹⁸⁾, 행정기능의 회복, 하곡수집 철폐 등 선무공작⁹⁹⁾과 함께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작전계획을 밝혔다. 그가 밝힌 ‘중산간지역 고립작전’은 첫째, 경찰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도로로부터 4km까지 치안 확보 수행, 둘째, 국방경비대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휩쓸어버리는 작전 진행, 셋째, 해안경비대는 하루 두차례 제주도 일대 해안 순회 및 수송이다.¹⁰⁰⁾

브라운의 작전은 전형적인 대계릴라전으로서 해안봉쇄를 통한 고립화 작전, 토끼몰이식 빗질작전, 강제이주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브라운 대령의 고립작전 아래 11연대의 ‘비민분리’ 정책은 오히려 중산간 지역으로 피신했거나 미처 피신하지 못한 주민들을 ‘공산주의자’나 ‘폭도’ 체포함으로써 민간인들의 희생을 가져왔다. 정부군에 의한 무차별적 폭력은 이러한 소탕작전의 전개과정에서 종종 일어난다. 모든 대대가 동시에 공동목표로서 한라산 정상상을 향해 내륙으로 수색하는 작전을 통해¹⁰¹⁾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검거된 제주도민은 5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 작전으로 3천여명이 체포됐으며, 575명이 수용소에서 경비대와 미군으로 구성된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았다.¹⁰²⁾ 브라운 대령의 작전참모로

97) 박진경은 고문관 리치에게 “나는 주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이다”라고 쓴 쪽지를 주었고, 리치는 지금도 이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James Leach 인터뷰. 위의 인터넷 사이트.

98) 브라운 대령은 부임 초기 제주경찰청장과의 회의에서 경찰이 제주도민을 다루는데 신중하게 처신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강조하면서, 민간인들 가운데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섞여 있더라도 공산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죽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Letr, Charles L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t, 16 Sept, 1996;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99) Inclosure. *Subj: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Col. Rothwell H. Brown to CG. USAMGIK, 1 July 1948, W. F. Dean, Maj. Gen. to Edgar A. Noel, Major, CCAO, 59th MG Company, 17 July 1948; 브라운 대령 명의의 공중살포문,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p.481.

100) 『현대일보』, 1948. 6. 3.

101) Despatch No. 199, *Subj: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July 2 1948, American Political Advisor Joseph E. Jacobs to State Department.

102) Inclosure, Memorandum for CG. *Subj: Visit on Cheju Do*, Coulter to Hodge, 15 June, 1948, Despatch No. 199, *Subj: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Joseph E. Jacobs, U.S. Political Advisor to

대부분의 작전 지역에 진입했던¹⁰³⁾ 리치 대위는 “5월이 끝나가자 우리는 4천명을 심문하였다. 공산인민군이 3천-4천명이라고 추정했지만, 무장비율은 10%도 안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⁰⁴⁾ 3천-4천명 가운데 무장비율이 300-400여명도 되지 않았다는 그의 발언은 중산간 지역의 제주도민들을 게릴라 또는 게릴라 동조자로 간주해 무차별 검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릴라와 정부군의 사이에서 ‘생존’을 최대의 과제로 삼았던 과테말라, 그리스에 서의 지방민들처럼 제주도 중산간 주민들도 조덕송 특파원의 표현대로, “국방경비대나 경찰이 주둔하면 양민이 되고 산사람이 내려오면 또한 그들 자신도 산사람이 되었다.”¹⁰⁵⁾ 브라운 대령은 또한 제주도 전체 주민의 80%가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돼 있거나 강요에 의해 연계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무차별적인 수색 및 검거 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박진경 연대장은 대령 진급 축하연에 참석하고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중 이튿날인 6월 18일 새벽 부하들에게 피살되었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이세호도 박연대장의 진급 축하연에 참석하였다. “축하연에 참석했다가 돌아와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연대작전인 임부택씨가 뛰어와서 ‘연대장이 피살되었다’고 하면서 ‘제주와 한라산 중간에 부대를 배치하고 움직이는 놈은 다 잡아라’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에 따라 어승생악 앞에 병력을 배치했으나 아무도 잡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⁶⁾ 박진경 암살사건은 강경진압을 불러왔다.¹⁰⁷⁾

경비대 총사령부는 박진경의 후임 11연대장으로 6월 21일 최경록 중령¹⁰⁸⁾을, 부연대장으로 송요찬 소령을 임명하였다. 최경록은 제주도로 부임하면서 딘 소장으로부터 3가지 임무를 받았는데 첫째, 암살범의 조속 검거 둘째, 공비토벌보다 암살범 체포 주력 셋째, 민심 평정이 그것으로 “그사람(딘 소장)이 얼마나 박진경 연대장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¹⁰⁹⁾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 1948.

103)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104) James Leach 인터뷰. 앞의 인터넷 사이트.

105) 『조선중앙일보』, 1948. 6. 10, 『서울신문』, 1948. 6. 11.

106) 이세호 증언, 2001. 3. 12,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107) 김점곤(당시 통위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장, 북한담당과장)은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은 전국적으로 충격이 컸고, 군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제주도 사건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며 “박진경 대령이 죽자 군정장관 딘 장군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그 뒤에는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말하였다. 김점곤 증언, 2000. 10. 13, 2001. 3. 30, 2001. 10. 30,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8) 태평양전쟁 당시 실전경험이 풍부한 최경록은 일본군 지원병 1기 출신으로, 일본군 제78연대(서울)에서 하사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뒤 군조 때 일본 육사시험에 합격해 입교 대기 상태에 있다가 20사단에 동원돼 입교를 포기했으며, 남태평양의 뉴기니아에서 전투를 하다 중전이 돼 준위로 귀국하였다. 공국진, 『선곡 공국진 회상록 - 한 노병의 애환』, p.43; 『한성일보』, 1948. 6. 22; 『한국일보』, 2006. 10. 12.

109) 최경록 증언, 1966. 11. 21,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면답사료 4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대비정규전사』와 군사편찬연구소의 『4·3사건토벌작전사』는 똑같이 최경록이 “공비와 주민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작전으로 인하여 폐허화된 지역의 주민과, 공비들에게 가담한 주민을 선무공작을 통해 하산시켜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하였다”며 “이러한 조치로 주민들은 하나 둘씩 공비들과 분리되어 갔다”고 밝히고 있다.¹¹⁰⁾ 그러나 5연대 3대대로 편입된 뒤 제주에서 소탕작전에 참가했던 유영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총공격하는데 사람이 없었다. 한라산 6부 능선에 가니까 전부 제주읍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없었다. 동네에는 영감 정도 있고, 어디 왔느냐 하니까 경찰 때문에 못산다, 있으면 맞아죽고 그래서 피난왔다고 하더라. 아침 4시30분에 총공격해서 올라갔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해가 넘어갔다. 7월달인데 추워서 못견뎠다……다시 제주읍내로 내려왔다. 1차 공격은 끝났다. 그 후에 전과가 없었다.¹¹¹⁾

경비대는 최경록 연대장이 부임하던 날인 6월 21일을 포함해 22일, 25일, 26일 등 잇따라 수색작전을 전개해 253명의 ‘폭도’를 체포하였다. 특히 25일에는 176명의 ‘폭도’를 체포했으나 전리품은 돈과 식량뿐이었다.¹¹²⁾ 최경록은 진압작전 마지막 날인 7월 1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토벌을 4회 한 일이 있었는데 산사람들을 체포할 수는 없었다”고 말하였다.¹¹³⁾

무차별 수색 및 검거작전에서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생존을 위해 산 속으로 들어갔고, 이는 유격대의 장기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제2절 초토화작전의 전개

1. 그리스

3사건토벌작전사』, pp.372-375.

1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122.

111) 유영국 증언, 1966. 4. 2,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400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p.306-311.

112)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230.

113) 『조선일보』, 1948. 7. 29.

1) 제1국면(1948. 1-1948. 10): 정부군의 대응과 무능

1948년은 그리스 민주군대의 전성기였다. 민주군대는 이해 봄에 북부 국경선과 그리스의 중부 산맥을 따라 남쪽에 걸쳐 활동했으며, 레스보스, 사모스, 이카리아, 크레타섬에서도 활발하게 기세를 떨쳤다. 영국 경찰사절단은 이 시기 그리스 정부가 지방에 있는 경찰서의 3분의 1을 포기하였다고 밝혔으며, 미군은 민주군대가 지방 인구의 3분의 1, 그리고 표면상으로 그리스의 절반을 장악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¹⁴⁾ 마샬은 1948년 1월 12일 그리스 원조 미국사절단에 “게릴라 부대의 파괴와 국내 치안 확보가 성공적인 미국의 원조를 위한 사전 필요조치로서 지극히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고 말하였다.¹¹⁵⁾

그리스 정부는 1947년 4월부터 1948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게릴라 9천여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모두 2만284명이 사망, 체포, 탈영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민주군대의 병력은 2만1천여명으로 줄었다가 1948년 1-3월 대원 모집을 강화해 2만6천명으로 늘어났다.¹¹⁶⁾

1948년 초 스탈린과 티토의 분열은 그리스 민주군대의 패배를 재촉하는 전조였다. 1948년 2월, 스탈린은 티토를 모스크바로 소환했지만, 티토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질라스(Milovan Djilas), 카르델(Edvard Kardelj), 바카리치(Vladimir Bakaric)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 대표단에게 격분하였다. 스탈린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¹¹⁷⁾

그들(그리스 민주군대: 인용자)은 승리할 전망이 전혀 없다. 대영제국과 미국이 -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다 - 당신들에게 지중해에 있는 그들의 통신라인을 절단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르는 소리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해군이 없다. 그리스의 봉기는 가능한 한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뒤 티토와 스탈린의 관계는 사실상 끝났으며, 이는 그리스 민주군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48년 6월 코민포름에서 축출된 티토가 그

114)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09.

115)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Mission for Aid to Greece, January 12, 1948, *FRUS* 1948, IV, pp.26-27.

116)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65.

117)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pp.171, 182.

리스 게릴라들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지하거나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간의 국경선을 폐쇄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그리스 민주군대 내부에서 분열을 가져왔다. 마르코스는 스탈린의 의심스러운 선의보다는 티토의 무기가 더욱 소중하다고 여긴 반면 자카리아디스는 스탈린에 대한 충성이 유익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분열은 내전에서 패배를 의미하였다.

1948년 2월 7일 그리스에 도착한 JUSMAPG 단장 벤 플리트는 2월 26일 육군 부로 보낸 첫 번째 작전보고서에서 “어떠한 주요 작전도 작전기간 중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스 육군의 작전 활동은 소규모 게릴라 부대를 차단하고 공격하는 것에 한정되었다.……그들은 공세적이라기보다는 수세적인 태도가 습성화 되어 있고, 전장의 주도권은 그리스 육군이 아니라 게릴라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그리스 정부의 나태를 지적하였다.¹¹⁸⁾ 1948년 봄이 되자 그리스 정부군은 13만2천여명에 각종 포와 장갑차, 2개 비행편대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국민방위군 5만여명도 있었다.¹¹⁹⁾

그리스 정부군은 1948년 4월 15일 로우멜리 산맥의 남중부 지방에 대한 소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명의 작전’(Operation Dawn)으로 알려진 이 춘계 대공세는 2500여명의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 초기 그리스의 허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로우멜리 산맥의 2천km²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소탕하는 것이었다.¹²⁰⁾ 정부군 제1군단은 27개 보병대대, 16개 국가경비대 대대, 6개 헌병 대대, 2개 산악특수전 대대, 포 48문, 1개 장갑차 연대 등 2만여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로우멜리 지역을 완전 포위해 3-4개의 비상선을 설치했고, 주요 보병부대와 특수부대는 북, 서, 동쪽 방향에서 진격하였다. 이와 함께 남쪽으로는 탈출로를 차단하기 위해 그리스 해군을 동원해 코린트만을 봉쇄하고 공군도 동원한 결과 5월 7일 정부군이 승리하였다. 이 작전에서 정부군 145명이 희생됐고, 민주군대는 641명이 사망했으며 1368명이 체포되거나 항복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벤 플리트와 파파고스 장군이 참관하였다. 그러나 이는 추가 공세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정부군의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없었다.¹²¹⁾

그리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야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작전을 전개해 수많은 전복활동 혐의자들이 기소되거나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118) JUSMAPG Monthly Report, July 1948, Van Fleet Papers, Box 49, Folder 11(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p.234-235에서 재인용).

119)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Mission for Aid, December 30, 1947, *FRUS* Vol. V, pp.478-479;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p.166-167.

120) *Ibid.*, pp.167-169.

121) George Kousoulas, *Revolution and Defeat*, pp.255-258.

과정에서 무차별 검거와 체포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예를 들면, 민주군대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1948년 2월 7일 29명이 총살됐고, 2월 22일에는 19명이 총살되었다. 3월 1일에는 그리스 해군 60명이 전복음모로 체포됐으며, 13일에는 KKE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2명과 『리조스파스티스』 편집장을 포함한 공산주의자 14명이 국외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되었다. 경찰도 아테네, 피래우스, 살로니카의 공산주의 세포들을 와해시키고, 2월에는 남부 지방의 지하에서 활동중이던 세포 200여명을 체포하였다.¹²²⁾

1948년 5월 1일 OPLA 단원으로 모우트소기안니스(Stratis Moutsogiannis)에 의한 법무장관 라다스(Christos Ladas) 암살사건이 일어났다.¹²³⁾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계엄령이 실시되고, 공안이나 안보문제와 관련한 모든 민간당국의 권한이 군대로 넘어갔다. 국왕의 포고로 실시된 계엄령은 5월 1일 처음에는 아테네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가 10월 들어 전국으로 확대돼 1950년 2월 11일까지 계속되었다.¹²⁴⁾ 정부는 1944년 이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처형을 명령하였다. 집령 당시 저항활동을 벌였던 238명이 라다스 암살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5월 1-3일 총살되었다. 정부는 5월 중순 이전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총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하였다.

UP통신은 그리스 정부가 5월 5일 그리스 전역에서 1944년 12월 봉기와 관련된 ‘살인 혐의자’ 152명을 처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정부는 아테네에서 24명, 애기나(Aegina)섬에서 37명, 라미아에서 12명, 살로니카에서 23명을 처형했고, 나머지는 칼키스, 트리폴리스, 스파르타, 칼라마타에서 처형하였다고 밝혔다.¹²⁵⁾ 총리 소포울리스는 이미 확정된 모든 사형선고를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 소식통은 152명 이외에도 830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처형사건이 끝난 뒤인 5월 6일자 영국의 『맨체스터 가디언』(Manchester Guardian)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메이데이에 그리스 법무장관 크리스토스 라다스의 암살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무엇이든지, 보복의 수단으로 151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처형한 그리스의 결정은 수치와 낙담으로 가득찬다.¹²⁶⁾

122)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67.

123) 모우트소기안니스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아테네 지하조직을 폭로해 처형을 면하였다. Polymeris Voglis, *Becoming a Subject*, p.81.

124) Nicos C. Alivizatos, "The Executive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1944-1949", John O. Iatrides and Linda Wrigley, eds., *Greece at the crossroads*, p.167.

125) 아테네발, 교토-AP보도, *Nippon Times*, 1948. 5. 6.

6월 28일에도 6명이 라다스에 대한 살해혐의로 처형됐고, 공산주의자들과 좌익 활동가들에 대해 밀착 감시가 이뤄졌으며, 이들은 모두 징집되었다. 또 신뢰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마크로니소스섬에 수감돼 심사를 받아야 하였다. 1948년 5월 마크로니소스섬에는 1만5천여명이 수용돼 온갖 형태의 심문과 정치 교화가 이뤄지고 있었다.¹²⁷⁾

정부측이 체포한 수많은 민간인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단지 정부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에 남아있으면 정부군이나 우익단체의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청년들은 물론 반공산주의 청년들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산에 들어가 게릴라들과 합류하였으며, 정부의 공세에 맞섰다.¹²⁸⁾

라다스 암살사건 이후 좌익 동조자 및 혐의자들에 대한 정부의 처형은 영국과 미국이 항의할 정도로 심하였다.¹²⁹⁾ 이 때문에 그리스 정부의 조치에 대한 여론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리스 주재 외국 특파원들은 게릴라 지도자 마르코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는 현재 완전히 경찰국가화 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¹³⁰⁾

로우멜리 소탕작전을 벌인 정부군은 6월 초 민주군대의 후방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군대 근거지인 북부지방의 그람모스 산악지대에 대한 대규모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스 공군은 6월 20일 그람모스 산악지대의 민주군대 집결장소에 처음으

126) Dominique Eudes, *The Kapetanos: Partisans and Civil War in Greece, 1943-1949*,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John Howe (London: NLB, 1972), p.321.

127)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p.168-169.

128) 이러한 예는 과테말라 내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톨(David Stoll)은 게릴라들에 대한 지지는 대부분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충동이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한 정부의 탄압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David Stoll, *Between Two Armies: In the Ixil Towns of Guatemal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61-91; 실제로 1960-1996년 내전과 게릴라 진압작전의 반복으로 황폐화된 과테말라에서는 1970년대 말 정부가 폭력전술을 사용해 정치단체의 모든 도전을 무자비하게 탄압할수록, 더 많은 농민들은 게릴라에 가담하였다. 과테말라 반군에 대한 정부군의 대응은 게릴라 공격이 심각하게 됨에 따라 강화되었는데 1966년부터 1967년까지 정부는 반군을 섬멸하기 위한 폭력적 작전을 전개키로 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 작전은 과테말라 동부지방에 있는 게릴라의 농촌기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지방 민병대와 정부가 조직한 살인부대의 후원을 받은 정부군은 게릴라 지지 혐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살하였다.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절단된 시체들이 주민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공공장소에 내걸렸다. Michael McClintock, *The American Connection: State Terror and Popular Resistance in Guatemala*, Vol. 2 (London: Zed, 1985), pp.83-94; 5천-1만여명의 주민들이 작전과정에서 학살됐으나, 당시 활동중인 게릴라수는 수백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들은 대부분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 Jennifer Schirmer, *Guatemalan Military Project: A Violence Called Democrac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8), p.36.

12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Greece, August 6 1948, *FRUS* 1948, Vol. IV, pp.118-120.

130) 켈턴 레이놀드 씬, 전성철 역, ‘內亂에 呻吟하는 希臘人民들’(『몰리어스』 지 1948년 9월 21일호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04.

로 미국의 네이팜탄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 민주군대 라디오 방송은 “게릴라 지역의 평화적인 주민들에 대해 그리스월드와 밴플리트가 명령한 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로우멜리 작전 기간에 120명의 어린이들이 교살되거나 총검으로 난자당해 살해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미사절단은 심지어 네이팜탄 사용이 국제전에서조차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고, 특히 평화를 추구하는 마르코스 추종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행위로 비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까지 분석하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선전활동에 흔들리면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¹³¹⁾ 실제로 네이팜탄의 희생자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다.¹³²⁾

그리스 정부군의 포와 비행기 공습, 포격에도 불구하고 민주군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저항하였다. 6월 22일에는 정부군이 그람모스 가장자리까지 도달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으며, 6주 동안이나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민주군대도 증원군이 도착해 1만2천여명에 이르렀다.¹³³⁾ 정부군은 7월 말까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45일간의 전투 끝에 스몰리카 산맥의 주요 거점인 6천피트(해발 1828m) 높이의 클렙티스(Klephtis)산을 장악하였다. 정부군은 이 산을 장악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2만여개의 폭탄을 산 정상에 쏟아부었다. 국왕과 왕비 프레데리카, 파파고스 원수, 밴 플리트 장군과 기타 각료들이 후방 기지를 시찰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방문하였다.¹³⁴⁾

8월 5-6일에는 콜리오, 카르다리, 스테노 등 고산지대가 정부군에 잇따라 장악됐으며, 민주군대 근거지들이 차례차례 함락되었다. 17일에는 카메니크가 함락돼 정부군 9만여명이 그람모스산 정상에 있는 민주군대 9천여명을 둘러싼 형세를 취하였다. 19일 정부군은 최후의 공격에 들어갔으며, 완강한 저항을 하던 마르코스는 8월 20-21일 야간을 이용해 그람모스 북쪽의 슬림니차 지역을 공격해 퇴로를 열고 3천여명의 부상자와 많은 무기를 갖고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람모스 토벌작전에 따른 인명피해는 심각하였다. 정부측은 정부군이 801명 전사하고 5천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게릴라는 3128명이 사망했고 589명이 포로로 붙잡혔다고 밝힌 반면, 민주군대측은 정부군 5125명이 사망하고 1만6천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737명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주했고, 항공기 35대와 탱크 18대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³⁵⁾

131) Governor Dwight P. Griswold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16, 1948, *FRUS* 1948, IV, pp.107-108.

132) Dominique Eudes, *The Kapetanos: Partisans and Civil War in Greece, 1943-1949*, p.328.

133)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71.

134) Dominique Eudes, *The Kapetanos: Partisans and Civil War in Greece, 1943-1949*, pp.328-329.

135)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72; Dominique Eudes, *The Kapetanos:*

그러나 그 뒤에도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민주군대 부대들의 공격이 계속되었다. 8월 25일에는 일부 게릴라들이 트리칼라를 공격해 도시를 장악하였다가 퇴각하기도 하였다. 미군 고문관들은 그리스 정부군내에 개인 훈련이나 부대 훈련에 대한 통일된 체제가 없음을 인식하고 JUSMAPG가 미국식 방법과 교리를 교육시켰다. 모든 훈련과 계획이 바뀌거나 부활되고 강화되었다. 그리스 정부군은 8월 29일 비트시 산악지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으나 플로리나 근처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마르코스가 8월 24일 비트시 지역에 대한 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그람모스에서 탈출한 게릴라들이 합류하면서 민주군대 병력은 1만2500명으로 증원되었다. 정부군의 공세가 갑자기 약화된 틈을 타 민주군대는 기습공격을 가해 정부군이 5마일 정도 후퇴하였다. 민주군대의 전의는 여전히 강했고, 소규모의 대응공격도 계속하였다. 정부군은 이어 9월 6-16일 알바니아 국경선의 무르가나를 공격해 1500여명의 게릴라 가운데 259명의 사상자를 냈으나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였다. 그람모스 작전은 10월 중순이 돼서야 끝났다. 이처럼 그리스 정부군의 수적 우세와 화력의 압도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하자 그리스와 미국 정부는 당황하였다. 미국은 전체적인 전략적 상황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펠로폰네스에서는 공공질서가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³⁶⁾

1948년 정부군에 의한 소개는 곤경에 처한 그리스인들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한 취재기자는 “우리가 무서워 한 것은 내란 자체가 아닌 것이다. 내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난민들의 목불인견의 참상은 실로 최대의 불행사인 것이다”(원문 그대로: 인용자)라고 기록하였다. 그가 인터뷰한 그리스 후생장관 테오도에 네실라스는 “현재 정부가 구호하여야 할 피난민의 수효는 60만 내지 7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시적인 구호대책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오죽 ‘마르코스’군에 대한 최후적인 승리만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광산도 농촌도 인민군의 방해로서 생산을 계속치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원문 그대로: 인용자)라고 말하였다.¹³⁷⁾ 정부 각료의 이러한 발언은 내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소개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반란지구’를 답사한 프랑스의 씨몽 페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Partisans and Civil War in Greece, 1943-1949, p.329.

136)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p.174; Draft Report by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ovember 30, 1948, *FRUS* 1948, IV, p.206.

137) 켈턴 레이놀드 씀, 전성철 역, ‘內亂에 呻吟하는 希臘人民들’(『몰리어-스』 지 1948년 9월 21일호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06.

왕당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보복행위는 전지역의 주민들을 그들의 집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이다. 남자이고 여자이고 어린이고 늙은이고 또는 환자이고 제외는 없다.……의지할 곳을 잃고 대도시의 부근으로 쫓겨갔다. 그 곳에서는 그들은 일거리가 없이 헤매고, 주립과 바림을 받아 죽어가고 있다. 식량의 이삭은 썩어서 목이 붙어지고 폐허가 된 별판 가운데에 무덤과 같이 묵묵히 서있는 텅 빈 마을들을 나는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참으로 희랍의 참상은 여하한 상상도 맞일 수 없는 바이다. 체포, 중세기적인 고문, 섬으로의 유형 살육 폭행 구타 그리고 대량의 사형집행……나치스도 외국의 영토에서는 이보다 더 잔인하지 못했었다. 희랍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잔인의 규모를 그려낼 수 없다. 나는 단 한사람도 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아니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대개의 경우에 나는 그들에게 내가 물어 보고 싶은 말에 대한 이야기도 시켜볼 생각조차 못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그 이웃사람의 이야기들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도 일상적인 것이 되어 바리고 말았던 것이다.¹³⁸⁾ (원문 그대로: 인용자)

씨몽 떼리는 소개정책으로 인한 그리스인들의 비참함이 오히려 나치 독일 점령 때보다 더욱 가혹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소개정책을 통한 금지구역 설정은 정부군의 입장에서 보면 게릴라들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민간인들에게는 무차별적 폭력이 된다.

모든 주민은 한 지역에서 소개되고 재편되며 특별허가 없이는 재진입이 금지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당국은 반란군의 중요한 힘의 원천 - 주민 - 을 제거한다. 주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반란군들은 자신들의 보호막, 대원모집, 식량보급, 정보망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주민들로부터 격리된 반란군들은 단지 노출되며, 고도로 취약한 군사, 정치 파견대일 뿐이다. 더욱이 [정부의] 기동군은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 모두를 적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된다. 더 이상 그들은 무고한 인민들의 죽음이나 부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

138) 씨몽 떼리 씀, 송수련 역, 『叛亂地區 踏查記 - 希臘의 悲劇』,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10. 이 기사는 1948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쓴 것이다.

다.¹³⁹⁾

그리스에서의 소개정책은 이러한 대게릴라 전략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 주재 미국대사 그래디는 1948년 9월 국무부에 “국경선 지역의 산간에 있는 게릴라들을 소탕하면, 이들은 또다른 산간지역에 증원군이 도착한다”며 “전체적인 상황이 그람모스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개선되기 보다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⁴⁰⁾

1948년 9월 영국 경찰사절단은 “반란군들이 중단 없이 통신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서부와 중부 마케도니아의 저수지와 발전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한편 도로와 철도에 지뢰 부설, 열차 습격, 전신시설 파괴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본토의 어느 지역도 반란군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¹⁴¹⁾

1948년 후반 그리스와 영국, 미국 관찰자들은 그리스 정부군의 상황이 전에 없이 악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부분 병사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민주군대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군의 계속된 공세와 내전의 지속에 지쳐갔던 것이다. 또 민주군대 대원들의 보급품은 형편없이 궁색하였다. 상당수의 대원들이 이태리군복이나 독일군복을 입고 있었고, 전투중 얻은 영국군복이나 미군복을 입기도 하였다. 또 이들은 일부분만이 담요를 갖고 있었을 뿐이고 대원의 20% 정도만이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짜루키아(생가죽을 햇볕에 말려 지은 짚신 같은 신)를 신고 있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다. 이들의 식량은 빈약해 옥수수 빵이 주요 식량 구실을 하였다. 게릴라들과 현장을 답사한 취재기자는 “마르코스의 병사들이 정부군 무기의 4분의 1만 갖고 있더라도 오래전에 이들을 패배시켰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¹⁴²⁾

1948년 10월 11일 민주군대는 그리스 주재 BBC 특파원 매튜스(Kenneth Matthews)를 생포해 27일까지 억류하고 여러 곳을 둘러보도록 하였다. 그는 펠로폰네스에서 납치돼 파트라스 부근의 민주군대 사령부로 수십마일을 산길을 행진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400여개 마을 이상의 선출직 위원회들을 관리하면서,

139) John J. McCuen, *The Art of Counter-Revolutionary War* (Florida: Hailer Publishing, 2005), p.238.

140) The Ambassador in Athens (Grady)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8. 9. 29, FRUS 1948, IV, pp.152-153.

141)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p.217-218.

142) 씨몽 페리 씀, 송수련 역, ‘叛亂地區 踏査記 - 希臘의 悲劇’,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p.107-109.

통신, 보급, 민간 행정의 효율적인 체도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¹⁴³⁾ 매튜스는 우익 도당(자위대)들의 활동이 게릴라들의 세력 확장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게릴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군을 대리한 우익단체들의 과도하고 독단적이며 불공정한 행위들이 펠로폰네스의 ‘반란군’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확신하였다.¹⁴⁴⁾

벤 플리트는 10월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게릴라 지도부와 훈련, 사기가 훌륭하다고 밝힌 반면, 그리스 정부군은 ‘충분하게 먹고, 장비와 무기를 갖췄으나’ 훈련과 지휘, 협동심이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성취된 모든 것은 공습과 포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¹⁴⁵⁾

2) 제2국면(1948. 10-1949. 10): 민주군대의 전술변화와 정부군의 총공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마샬은 1948년 10월 그리스로 직접 가 사태를 파악한 뒤 그래디와의 대화에서 “그리스가 결핍한 것은, 특히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군사적 상황과 관련한 정치적 방법에 있어서, 지도력의 문제라는데 동의하였다”고 지적하였다.¹⁴⁶⁾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케난의 지휘 아래 육군부, 경제협조처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1948년 11월 작성한 ‘미국의 대그리스 원조’ 보고서는 그리스 정부군(승인받은 병력 14만7천명)의 작전이 게릴라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의 위협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민주군대 병력은 1948년 3월 2만6400여명에 이르렀으나 9월 1일 무렵에는 2만여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만4천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다시 2만4500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또 민주군대 구성원의 20%는 핵심 공산주의자, 30%는 지지자 및 편의에 따른 동조자, 50%는 강제 징집자로 추정하고, 민주군대의 정치교화와 위협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그리스 게릴라를 이용해 그리스를 장악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게릴라들의 견제를 인정하였다.¹⁴⁷⁾ 이처럼 게릴라들이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인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씨몽 페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143) Kenneth Matthews, *Memories of a Mountain War: Greece, 1944-1949* (New York: Longman, 1972), p.247;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255.

144) "Notes on Conversation with Mr. Kenneth Matthews on the 1st November, 1948," PRO, FO 371/72217/R1237 (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p.109에서 재인용).

145)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pp.244-245.

146)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18, 1948, *FRUS* 1948, Vol. IV, pp.161-162.

147) *PPS 44: Report on U.S. Aid to Greece, Report by the Policy Planning Staff on United States Aid to Greece*, November 24 1948, *FRUS* 1948, Vol. IV, pp.195-199.

반군은 인민의 지지와 원조가 없이는 단 일주일도 이어나가거나 지탱해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반군을 먹이기 위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나는 늙은 노파들과 열 살도 못되는 어린아이들이 밤중에 진흙 가운데에서 정부군의 바루 코 밑에서 게릴라들을 위한 식량을 실은 노새들의 캐라반을 끌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식량과 탄약은 주로 밤중에 험한 길을 통해서 나르고 있다. 그것은 거의 모두가 여자들과 농민의 어린아이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대부분은 자기들의 등에 짊어지고 때로는 정부군의 총화 밑에서 전선을 뚫고 나온다.¹⁴⁸⁾(원문 그대로: 인용자)

마오쩌둥이 유격전쟁에서 인민의 지지를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게릴라전의 성패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도덕적, 물질적 지원에 달려 있다. 이에 맞서 지역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게릴라 토벌작전을 벌이는 정부군의 강력한 압력에 직면하는데 정부군은 게릴라 활동을 지지하는 주민들에 대해 보복, 테러, 추방, 이동의 제한, 물건과 재산의 노획과 같은 응징 수단을 사용한다.¹⁴⁹⁾

정치 행위자들은 소수 민간인들의 헌신적 지지자들의 적극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다수의 민간인들이 수동적이지만 독점적인 협력을 추구한다.¹⁵⁰⁾ 그들은 민간인들을 자신들의 경쟁세력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같은 비독점적 협력보다는 독점적이지만 완전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¹⁵¹⁾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다.

벤 플리트의 대게릴라전에 대한 견해도 이와 유사하다. 그는 “게릴라전에서 정부는 적 동조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군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⁵²⁾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게릴라들을 조기에 진압하고 국가의 정통성 확립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민들의

148) 씨몽 페리 슘, 송수련 역, 『叛亂地區 踏査記 - 希臘의 悲劇』,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111.

149)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FM 31-21: Department of the Army Filed Manual. Guerrilla Warfare and Special Forces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9 September 1961), p.8.

150) 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p.104.

151) Richard Stubb, *Hearts and Minds in Guerrilla Warfare: The Malayan Emergency, 1948-1960*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2; Nathan Leites and Charles Wolf Jr., *Rebellion and Authority*, p.10.

152)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275.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또한 물리적, 심리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게릴라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게릴라들과 주민들간의 개인적, 물질 지원 및 정보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다.¹⁵³⁾ 따라서 대게릴라전 토벌작전에서 토벌부대에게는 민간인들의 지지만이 있을 뿐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희생은 커지게 된다.

그람모스의 민주군대 근거지에 대한 정부군의 총공세 시기 민주군대 사령관 마르코스와 KKE 총서기 자카리아디스 사이에는 심각한 전략적 충돌이 빚어졌다. 마르코스는 정부군의 포위망을 뚫고 북쪽으로 간 뒤 흩어져서 정부군을 괴롭히는 생각이었고, 자카리아디스는 그람모스에서의 마르코스 부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탈출 계획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자카리아디스는 민주군대가 비트시로 퇴각해 유고슬라비아 국경선을 맞대고 참호 파기를 희망하였다. 그람모스에서의 철수는 위치전에 대한 KKE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재검토하는 것을 필요로 하였고, 자카리아디스는 그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¹⁵⁴⁾

1948년 11월 이후 자카리아디스와 KKE 중앙위원회의 그의 지지자들은 마르코스를 추방하고, 재래전 전술에 따라 민주군대를 재편성했으며,¹⁵⁵⁾ 도시 중심지에 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그람모스와 비트시에서 위치방어태세를 취하였다.

게릴라전 전술에서 재래전 전술로의 변화는 결국 1949년 그리스 민주군대가 파괴국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정부군의 우세한 숫자와 화력으로 사실상 파괴된 지역에 경무장한 게릴라 부대를 집결시켰으나 이는 민주군대로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다.¹⁵⁶⁾

이 시기 정부군은 장갑차와 전차, 포병의 엄호 속에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에게 야만적인 행위를 가하였다. 정부군은 마을을 방화하고 살육하며 약탈하고 구타와 여자들을 희롱하는 한편 노인과 여자들을 끌고갔다.¹⁵⁷⁾ 이러한 대게릴라 토벌작전에서 민간인은 ‘인간’이 아니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소련 침공 때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의 최고사령부가 러시아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Untermenschen*)로 취급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¹⁵⁸⁾ ‘비인간화’는 시공을 초월해

153)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Counter guerrilla Operations Handbook* (Guilford, Conn.: The Lyons Press, 2004), pp.1.4-1.5.

154) Dominique Eudes, *The Kapetanos: Partisans and Civil War in Greece, 1943-1949*, p.329.

155) 자카리아디스는 1948년 11월 이후 실질적인 그리스 민주군대의 지도자로 나섰다. 민주군대 소식지 *Dheltion* (Bulletin)은 1949년 2월 8일 마르코스가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였다고 밝혔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p.262.

156) *Ibid.*, pp.179-181.

157) 씨몽 페리 쉼, 송수련 역, ‘叛亂地區 踏查記 -希臘의悲劇’,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pp.109-110.

일어났으며, 이는 대량학살의 기제가 되었다.

1948년 12월 들어 정부군의 공격이 활기를 띠면서 그리스의 패튼(George Patten)이라고 불린 1944년 산악여단 사령관 출신인 사칼로토스(Thrasylvoulos Tsakalotos)는 4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펠로폰네스에서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펠로폰네스와 아테네를 잇는 전화선 절단, 정보 및 식량 제공 혐의로 수천여명의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를 시작으로 전개된 작전은 게릴라들이 식량과 은신처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는 매서운 겨울을 이용했으며, 나무 은신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많은 나무들도 제거하였다. 2월 23일 무렵 펠로폰네스에 있던 게릴라 3500여명 가운데 1029명이 희생됐고, 1015명이 체포됐으며 748명은 투항하는 한편 나머지는 탈주하였다.¹⁵⁹⁾ 1948년 12월 1일, 1천여명 규모의 민주군대 여단이 세레스를 공격했지만 방어전을 편 정부군에 밀려 퇴각하였다. 고성능 폭발물과 소이탄, 네이팜탄을 사용하는 그리스 공군의 지원으로 게릴라 183명이 사망하고 206명이 포로가 되거나 항복하였다.

12월 11일에는 2천여명의 민주군대 1개 여단이 400여명 정도가 수비중이던 카르디트사를 공격해 압도하였다. 민주군대는 도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트리칼라-라리사간 도로의 교량을 파괴해 응원군의 도착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응원군이 도착하고 전투가 오래 지속되자 민주군대 여단 사령부는 부대 통제를 상실하고 많은 피해를 입은 채 퇴각하였다. 같은 시간에 이 보다 작은 규모의 민주군대 여단이 동쪽에서 카르디트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출발이 늦었으며 정부군의 매복에 걸려 철수해야 하였다. 12월 22일 야간에는 민주군대 3개 여단이 플로리나와 살로니카 간의 도로 주변에 있는 에데사와 나우스사를 포위하였다. 에데사는 저항이 완강했으나 나우스사는 3일 동안 장악하였다. 12월 28, 29일에는 민주군대가 비트시산맥에서 정부군에 성공적인 공격을 펼쳐 정부군을 퇴각시키고 마을과 작은 계곡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1949년 1월 11-12일에는 민주군대의 1개 여단이 다시 인구 1만1천여명이 거주하는 산업도시인 나우스사를 공격해 3일 동안 장악하였다. 이때는 정부군이 900명으로 늘었으나 민주군대는 도시를 장악하고 처형했으며 200여명의 여성을 포함해 500여명 이상을 납치하였다.¹⁶⁰⁾

그러나 그리스 정부군은 여전히 민주군대의 전술에 고전하였고, 미군은 이에 불

158) 히틀러는 슬라브민족(폴란드인, 세르비아인, 러시아인), 남유럽인, 기타 모든 비백색 인종을 인간 이하의 존재인 *Untermenschen* (subhuman)이라고 불렀다. Ted Gottfried, *Herods of the Holocaust* (Connecticut: Twenty-First Century Books, 2001), pp.13-14.

159)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18.

160)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83; Dominique Eudes, *The Kapetanos: Partisans and Civil War in Greece, 1943-1949*, pp.339-340.

평하였다. 1949년 1월 26일 JUSMAPG 부단장 로벤 켄키스 소장은 3차례의 게릴라 공격 시기 그리스 군 지휘부의 실패에 대해 그리스 참모부에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그리스 육군의 임무는 그리스내 게릴라들을 색출해서 소탕하고 국내 치안을 재확립하는 일이다. 지휘관들은 이런 기본 임무와 그 이면의 의미를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실제적으로 정부군 지휘관들은 항상 자신들의 무력과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 낫은 날씨, 지형, 불충분한 병력, 주요 지역에서의 심각한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도적들은 같은 기후, 같은 지형에서 우세하고, 잘 먹고, 잘 조직되고, 좋은 장비를 갖춘 정부군에 대적하여 계속해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밝혔다.¹⁶¹⁾

이에 앞서 마샬은 그리스 상황이 악화되면서 1948년 10월 그리스로 직접 간 뒤 미국과 그리스 관리들 사이에 1940-1941년 알바니아 전쟁의 영웅이었던 파파고스(Alexander Papagos) 장군에게 그리스의 군사 권위를 집중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마샬이 이에 동의하자 파파고스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파파고스는 정부군 병력을 14만7천명에서 25만여명으로 증원하고 군사결정권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¹⁶²⁾ 그러한 요구조건은 막대한 미국의 군사비 지출과 그리스 군대에 대한 JUSMAPG의 통제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1949년 1월 10일 해서야 미국 관리들과 파파고스간에 타협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그는 군단 지휘관들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그는 1948년 하계 작전 시기에 관찰자로 작전지역에 갔고, 군 지도부 및 벤 플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¹⁶³⁾

1948-1949년 겨울 그리스 육군의 신병들은 벤 플리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았다. 신병들은 각각 1만5천명으로 구성된 3개기 과정 훈련을 받은 뒤 전투사단에 배치되었다.¹⁶⁴⁾ 일부 지역에만 실시되던 계엄령은 1948년 10월 29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스 정부군은 계엄령을 통해 정보 검열권과

161) JUSMAPG History, Van Fleet Papers, Box 53, Folder 31(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p.279-280에서 재인용); Lawrence S. Wittner, *The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248.

162) 황진식은 미국이 그리스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2가지 계획을 실천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15만 명의 그리스 왕당파 군대를 확장해 25만명으로 만드는 것이며, 둘째는 발칸위원단의 이름으로 미군 위주로 광범한 외국군대로 직접 그리스 내전을 조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1948년 말까지 미국이 그리스에 공급한 무기 및 금액과 관련해 2억9800만달러와 군수물자 78만7천여t에 이른다고 말하였다. 군수품은 대포 및 구포 3890문, 소총류 12만7천여정, 비행기 140대를 비롯해 탄약, 탄약통, 포탄, 수류탄 등이다. 황진식, “희랍의 최근 정세”, 『旬刊通信』 (평양: 순간통신사, 1949), 1949, 7월 중순호, p.34.

163)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pp.247-248; D. George Kousoulas, *Revolution and Defeat*, pp.264-265.

164)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252.

민간인 이동 통제권, 지방 행정기관에 대한 군의 징발권과 대중 체포 권한을 갖게 되었다.¹⁶⁵⁾

파파고스는 2월 5일 국방위원회의 후신인 전쟁위원회에 “그리스 정부군의 규모가 불충분하였다”며 “정부군 규모를 25만명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확보해 최고사령관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¹⁶⁶⁾ 이어 그는 2월 25일 그리스 군 총사령관에 취임하였다.¹⁶⁷⁾ 국왕 파울은 파파고스에게 군사와 경제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주었다.¹⁶⁸⁾

이 시기 정부군의 작전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주군대를 추격하고 치안을 강화하면서 민간인들의 협조도 늘어났다. 1949년 2월 영국 무관의 보고서는 이를 보여준다. “민간인들의 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는 정보 수집에 있어 군과 헌병대에 민간인들이 제공하는 지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게릴라들의 귀순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군부대가 게릴라 지역을 점령한 며칠 동안 민간인들의 태도는 통명스럽고 의심스러웠으나 곧이어 정부군이 주둔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정보의 협조가 늘었다.”¹⁶⁹⁾

그러나 민주군대가 1948년 정부군의 공세로 입은 피해는 그리스 정부나 미국 관리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하였고, 내전에 지친 그리스인들로부터 고립돼갔다. 이 사이 26만5천명을 웃도는 그리스 정부군은 장악력을 방해받지 않고 명령한 파파고스에 의해 전장으로 투입되었다. 계엄령 하에서 작전을 벌인 군 및 경찰 보안군은 수천여명의 게릴라 동조자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정보원 의심자들을 강제 격리하였다.

파파고스가 총사령관에 취임한 뒤 최초의 큰 승리는 플로리나에서 있었다. 생포한 게릴라를 통해 정보를 얻은 새로운 군지도부는 도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공격을 준비하였다. 2월 11일 새벽 3천여명이 넘는 게릴라들이 플로리나를 기습해 북쪽 고지를 점령했으나 정부군은 공군의 전투기 지원을 받으면서 인근 지역의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반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게릴라 500여명이 사망하고 350명 이상이 붙잡혔다. 부대의 3분의 1이 파괴되자 민주군대 지휘부는 비트시 지역을 향해 산간지역으로 퇴각하였다.¹⁷⁰⁾

165)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16.

166)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p.248.

167)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p.187.

168)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p.259-260.

169) "Report from Military Attache on the Military Situation in the Peloponnese (visit: 18-21 February 1949)", PRO, FO 371/78357/R2293 (Stathis N. Kalyvas, *The Logice of Violence in Civil War*, p.122에서 재인용).

1949년 2월 펠로폰네스를 소탕한 사칼로토스는 펜조풀로스(Thomas Penzopoulos)에게 지역을 넘기고 카르페니시온을 점령한 뒤 남부 에피루스를 침투한 게릴라들을 추격하였다. 3월부터는 그리스의 동북부 지방을 관할하는 군단이 동부 마케도니아와 에브로스의 대규모 게릴라 부대들을 소탕하는 결정적인 공격을 시작했고, 게릴라들은 서부 마케도니아까지 쫓겨가 그곳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5, 6월에는 7만여명에 이르는 정부군이 코린트만 북쪽의 스테리아 엘라다의 산간지역을 소탕하였다. 이 전투에서 유력한 게릴라 지도자 디아만테스(Diamantes)가 사망했고, 그의 시체는 관영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¹⁷¹⁾ 1949년 5월 그리스 육군은 하루 평균 45명을 사살하고, 그 두 배에 달하는 병력을 생포하였다.¹⁷²⁾ 자카리아디스는 군사적 기술이나 재래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자원이나 인력이 없었으나 1949년 여름 자카리아디스는 게릴라 전술을 완전히 재래전으로 전환하였다.¹⁷³⁾

1948년 11월부터 급격하게 그리스 게릴라들에 대한 원조를 줄이던 티토가 1949년 7월 국경선을 폐쇄하자 자카리아디스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티토를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그가 그리스에서의 전투 종결을 위해 미국 및 영국의 요원과 만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¹⁷⁴⁾ 이러한 조처는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유능한 4천명의 게릴라들을 격리했고, 북부 그리스 게릴라들의 주요 집결지를 격리시켰다.¹⁷⁵⁾

민주군대는 2개월 동안 그리스에서의 공세 작전을 위한 마지막 거점으로써 비트시 산악지역 주변에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내전 이후 처음으로 그리스 군대는 40여마일에 걸친 광범한 전선을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위치전에 직면하였다.¹⁷⁶⁾ 이는 내전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전투였다.

그리스 육군본부는 7월 29일 비트시와 그람모스에 대한 최후의 공격작전인 ‘햇

170) D. George Kousoulas, *Revolution and Defeat*, pp.265-266; Dominique Eudes, *The Kapetanos: Partisans and Civil War in Greece, 1943-1949*, pp.343-344;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281.

171)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19.

172)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282.

173)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225.

174) JUSMAPG Weekly Report, 22 July 1949, Van Fleet Papers, Box 52, Folder 31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p.282-283에서 재인용); KKE 총서기 자카리아디스는 티토의 반역행위는 그리스 인민 민주주의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곤란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티토를 이용함으로써 발칸에서 자신들의 군사 기지를 확충하고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그리스를 고수하겠다는 영-미 제국주의자들의 결심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회람공산당 총비서 니코파하리아지스, “찌토(티토: 인용자)도배는 인민민주 회람의 배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근로자』 18호 (평양: 로동신문사, 1949), 1949. 9. 30. p.119.

175) Richard J. Barnet, *Intervention & Revolution*, pp.149-151; L.S. Stravriano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pp.201-202; D. George Kousoulas, *Revolution and Defeat*, p.271;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p.276.

176)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196.

불작전'을 준비하라고 전군에 지시하였다.¹⁷⁷⁾ 민주군대는 8천여명의 병력이 비트시 요새에 집중시켰고,¹⁷⁸⁾ 5천여명은 그람모스 산악지대를 따라 남쪽에 배치되었다. 3천여명은 주력부대 부근에 위치해 전체적으로 1만5천여명이 배치되었다. 정부군은 16만여명의 병력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었다. 1949년 8월 5일 그리스 정부군의 3개 사단은 비트시에 목표를 둔 대대적인 공격을 은폐하기 위해 그람모스의 민주군대에 대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1주일 동안 진전이 거의 없었다. 8월 10일 그리스 정부군의 또다른 3개 사단이 3개 방면에서 비트시의 민주군대를 기습하였다. 전투는 격렬했고, 민주군대는 산악지대에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정부군의 우세한 화력은 마침내 이들을 압도하였다. 벤 플리트는 8월 11-12일 전투지역을 둘러보면서 그리스 지휘관들에게 “적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가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며 계속해서 부대를 기동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비트시 산맥에서는 게릴라 7700여명을 소탕하기 위해 5만여명의 정부군 병력을 투입했다. 정부군은 2천여명 이상의 게릴라들을 사살하거나 체포했지만, 민주군대의 많은 부대원들이 알바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로 탈주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¹⁷⁹⁾

8월 25일, 그리스 정부군 제3군단이 공격을 개시했는데, 이번에는 포와 기관총, 로켓 등으로 무장한 51대의 비행기 지원을 받았으며, 고도의 정확성을 갖추고 네이팜탄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8월 27일, 그람모스 산악지대가 그리스 정부군에 넘어갔다. 그람모스에서는 4700여명을 소탕하기 위해 2만5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맹렬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정부군의 공격 숫자에는 국가방위군이 제외된 것이었다. 그람모스에서 그리스 전투기는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엿새 동안 826회 출격해 250톤의 폭탄과 로켓탄, 네이팜탄을 쏟아부었다. 유고슬라비아에 의해 국경선을 봉쇄당한 자키리아디스는 게릴라 2천-3천여명과 함께 8월 29-30일 야간을 이용해 알바니아 영토로 퇴각하였다. 9월에는 민주군대의 마지막 1천여명이 동부 마케도니아를 떠나 불가리아로 넘어갔다. 민주군대는 결사적으로 항전했으나 그람모스와 비트시를 방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부군에 투항하거나 북부 발칸국가들로 후퇴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장을 해제당하거나 억류되었다.¹⁸⁰⁾

1949년 10월 16일 민주군대 라디오 방송은 그리스의 파괴를 막기 위해 전투를

177)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290.

178) Howard Jones, *A New Kind of War*, p.217.

179)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1944-49*, pp.196-197; Howard Jones, *A New Kind of War*, pp.217-218; Paul F. Braim, 『승리의 신념』, p.295.

180)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pp.277-278, 284;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19.

입시 중단한다며 종전을 선언하였다. 애치슨은 10월 19일 내전이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고, 트루먼은 11월 28일 의회에서 그리스 정부의 승리를 선언하였다.¹⁸¹⁾

미국이 1949년 말까지 그리스에 지원한 군수물자는 수백대의 전투기 비행과 전함, 4130문의 박격포와 포, 8만9438발의 폭탄과 로켓탄, 15만9922정의 소총류, 770만발의 포와 박격포탄, 4억550만발의 탄약을 포함해 3억5360만달러에 이르렀다.¹⁸²⁾

자카리아디스는 소련과 알바니아, 불가리아 정부가 민주군대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음을 알고는 소규모 게릴라 습격을 계속했지만, 대규모 군사작전은 종결되었다. 1949년 10월 이후부터 1950년 사이 게릴라 활동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다.¹⁸³⁾ 소규모의 고립된 전투가 산발적으로 가을 내내 이뤄졌으나 그리스내전은 끝났다. 얼마 뒤 소련 선박들이 알바니아 항구로 들어왔고, 민주군대의 잔여 병력을 태웠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소련의 오지에서 여생을 보냈고, 극소수의 대원들은 1982년 그리스 정부가 사면을 발표한 뒤 돌아왔다.¹⁸⁴⁾

내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관찰자와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10만-15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⁸⁵⁾ 그러나 그리스내전 이후 그리스의 정치·

181)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p.285.

182) Lawrence S. Wittner, *The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253.

183)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p.219.

184)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228.

185) 대부분의 추정자료는 민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망자수는 나와 있지 않다.

① 오벨런스는 그리스 정부 발표를 인용해 1945년 6월부터 1949년 3월 사이 민주군대 사상자는 사망 2만8992명, 수감 1만3105명, 귀순 2만7931명이며, 부상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체 사망자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정부군은 사망 1만927명, 부상 2만3251명, 행방불명 3756명이며, 민주군대에 의한 민간인 처형 3156명, 지뢰 폭발 등으로 인한 사망 731명으로 분류하였다. Edgar O'Ballance, *The Greek Civil War*, p.192 ② 우드하우스는 내전 시기 인명 피해와 관련해 사망자의 경우 정부측은 7만명(장교 1천명과 사병 1만4천명 포함)이며, 게릴라측은 3만8천여명이 사망하고 4만여명이 체포되거나 귀순했고, 주로 좌익에 의한 처형자는 5천여명이라고 밝혔다. 또 난민은 75만여명이 발생하였고 아동 납치는 2만8천여명에 이르며, 가축 및 통신 등의 피해는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C.M. Woodhouse, *The Struggle for Greece*, pp.285-286 ③ 위트너는 전체적으로 15만8천여명이 사망하고 80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난민 가운데 10만여명은 인근 북부지방의 국가로 탈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밖에 부상자와 투옥된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위트너는 사망자수와 관련해 그리스 정부는 전투원 4만명(주로 게릴라), 미국 정부는 7만5천명, 영-미 관찰자들은 15만8천여명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희생자들이 기록이 없는 민간인들이어서 15만8천여명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pp.283, 401 ④ 클로즈는 1946-1950년 시기 좌익측 사망자는 2만여명이며, 수용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은 5만여명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부측 사망자는 군과 헌병 1만600명이고, 부상자는 3만1500명이며, 행방불명 5400명, 민간인 살해 3500명으로 추정하였다. 또 1947년 말까지 30만명이 소개됐고, 1949년 말이 되자 70만명이 소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Greek Civil War*, pp.219-220, 211 ⑤ 존스는 내전 시기 정부군 사망 또는 행방불명 1만3천여명, 부상자 2만6천여명이며, 게릴라측 사망 3만8천여명, 부상 7만6천여명, 지뢰나 처형으로 민간인 사망 5천여명, 아동 납치 2만8천여명, 난민 70만명으로 집계하였다. Howard Jones, *A New Kind of War: America's Global Strategy and the Truman Doctrine in*

경제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온 미국에 대한 그리스인들 사이에는 반미감정이 퍼졌으며,¹⁸⁶⁾ 그리스인들의 후유증은 크고 깊었다.¹⁸⁷⁾

2. 제주

1) 제1국면(1948. 8-1948. 12): 초토화작전과 민간인 학살

1948년 7월 하순 소강상태를 보이던 유격대의 활동은 정부 수립을 앞둔 8월이 되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 등 지도부가 8월 21일 황

Greece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220 ⑥ 조스는 정부군 사망자는 헌병을 포함해 사망 1만7천여명, 부상 4만여명이며, 게릴라쪽 사망 3만7천여명, 체포 2만여명이고, 게릴라에 의한 민간인 처형 4천여명, 게릴라에 의한 주택 방화 1만2천여채 및 철도역 파괴 98곳으로 추정하였다. Anthony James Joes, *America and guerrilla warfare*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0), p.180 ⑦ 코스올라스는 1946-1949년 사이 정부군은 헌병을 포함해 사망 1만6753명, 부상 4만398명, 행방불명 4788명이고, 게릴라에 의한 주택 방화 1만1788채, 철도역 파괴 98곳, 열차 탈선 96회, 민간인 처형 4123명, 교량, 터널, 철로 등 사보타주 1611회 등으로 집계하였다. D. George Kousoulas, *Revolution and Defeat*, p.270 ⑧ 게롤리마토스는 내전의 직접 결과로 15만8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가운데 그리스 정부군은 1만1천여명이 민주군대는 3만8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7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5만여명이 유형에 처해졌고, 아동 2만8천여명이 납치되거나 강제로 그리스를 떠났으며, 내전이 끝난 뒤 이들 가운데 1만344명만이 그리스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p.229-230 ⑨ 칼리바스는 나치 독일의 점령 기간 4만여명의 민간인들이 점령군이나 친독협력조직, 또는 보복작전이나 대량학살로 희생됐고, 좌익저항단체도 1만5천여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친독협력조직원 2천여명과 좌익 게릴라 4천여명도 희생됐으며, 1945-1946년에는 3천여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주로 우익 민병대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내전의 마지막 시기에는 정부군 1만5천여명과 게릴라 2만여명이 사망했고, 4천여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게릴라들에 의해 죽었으며, 정부는 5천여명의 좌익을 처형했는데 이들은 주로 생포된 게릴라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733만여명의 인구 가운데 10만 8천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숫자는 수만명의 부상자와 강제소개, 도망, 투옥, 기소된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700개 이상의 마을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p.249.

186) 그리스의 좌익 게릴라 집단인 혁명투쟁(Revolutionary Struggle)은 1975년 12월 아테네 주재 미국 CIA 지부장 웰치(Richard Welch)를 암살하였고, 그 뒤에도 3명의 미국 외교관들을 살해하였다. 웰치 암살사건은 1967-1974년 그리스를 철권통치했던 우익 군사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 것이었다. 1973년 11월 17일 철권통치에 맞서 아테네 폴리테크닉에서 학생봉기가 일어났으나 군부 독재정권은 탱크로 봉기를 진압해 수십명이 사망하였다. 사건 이후 이날은 그리스의 현대 민주주의 날로 간주되었고, 해마다 이날이 되면 수만명의 노조원과 좌파진영, 일반인들이 폴리테크닉에서 중무장된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한다. 이 행진을 통해 그리스의 노인들은 그리스 국내 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기회로 간주한다. Malcolm Brabant, "Analysis: Greek anti-Americanism", 2007. 1. 12, <http://news.bbc.co.uk/2/hi/europe/6255235.stm> (검색일 2008. 6. 12).

187) 다음은 내전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2002년 2월 8일에는 바이야스(Dimitris Vayias)가 펠로폰네스의 칼라마타에서 내전 시기 탈영 혐의로 53년만에 붙잡혔다가 석방되기도 하였다. 펠로폰네스 서남부 암벨로키피 출신인 그는 1946년 게릴라들의 무기를 은닉했다는 이웃의 신고로 그의 부친과 함께 체포돼 고문을 받았다. 부친이 1948년 사망한 뒤 그는 자신을 체포했던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 북부 그람모스 산악지대에서 민주군대와 전투하기 위해 정부군에 징집되었다가 1949년 5월 민주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부대를 이탈하였다. 그는 민주군대가 1949년 패배하자 모스크바로 탈출해 대학에서 전기기사로 생활했으며, 1988년 귀국한 뒤에는 칼라마타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퇴직하였다. Daniel Howden, "Greek deserter arrested-53 years later", 2002. 2. 13, <http://news.bbc.co.uk/2/hi/europe/1818256.stm> (검색일 2008. 6. 12).

해도 해주에서 열리는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를 빠져나갔지만 유격대는 군·경과의 전투 등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 주한미군 G-2보고서에 따르면 유격대는 소그룹으로 제주도 산간지대에 주둔하고 있으며 사령부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경찰과 경비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자주 이동하였으며, 유격대원들은 또한 상근 대원들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읍·면에서 소집되는 비상근 대원들로 임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다. 또 주민들은 임무 기간에는 훈련을 받고 습격에 참가하는 등 경험을 쌓았고 주민들의 동정적인 태도도 체계적인 지원에 한몫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⁸⁸⁾

경비대 총사령부는 7월 15일자로 경비대 (재편) 9연대를 부활시키면서 연대장에 기존 11연대 부연대장인 송요찬 소령을,¹⁸⁹⁾ 부연대장에는 기존 11연대 대대장인 서종철 대위를 각각 임명하였다.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편의 여행증명제도 부활(8월 13일)과 경찰의 제주도 해안선 봉쇄(8월 20일)¹⁹⁰⁾, 응원경찰대의 내도(8월 26, 30일)¹⁹¹⁾, 제5여단 참모장 오덕준 중령의 방문(8월 30일)¹⁹²⁾, 제7관구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내도(8월 31일)¹⁹³⁾의 기간을 거쳐 10월 5일 제주 출신 제주경찰감찰청장 김봉호가 평남 출신 경무부 공안과장 홍순봉으로 교체되었고,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창설돼 토벌작전이 구체화되었다.

9연대는 11연대의 ‘무대응’정책을 즉각적으로 무차별적인 공포통치로 대체하였다.¹⁹⁴⁾ 채명신의 말을 빌리면, “4·3사태의 제주도는 송 장군의 부대가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하면서부터 피비린내나는 전쟁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¹⁹⁵⁾ 채명신의 언급과 같이 제주도는 9연대의 초토화작전으로 ‘피비린내나는’ 학살의 땅으로 변하였다. 백선엽은 “토벌부대가 거처게 마련인 중산간 부락의 공비 가족이나 첩자들이 토벌부대의 움직임을 미리 공비들에게 통지했으며 원시림 속에 몸을 숨기면 지척에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9연대의 중산간 부락 소개는 이런 배경

188)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53, 20 Aug 1948.

189) 송요찬도 지원병 출신으로 1939년 12월 일등병이 되었고, 4여년 동안 지원병훈련소에서 조교생활을 하면서 군조(중사)까지 진급하였으며, 그 뒤 용산의 조선군사령부 예하 제23부대로 배치됐고, 1945년 1월 조장(상사)으로 진급하여 훈련장교 보좌관을 수행하였다. 양영조, “타이거장군 - 송요찬”, 『국방저널』 12월호(2000).

190)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편 여행증명제도는 7월 5일자로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것이다. 『동광신문』 1948. 8. 25, 『조선중앙일보』, 1948. 9. 1.

191) 『조선중앙일보』, 1948. 9. 1; 『동광신문』, 1948. 9. 2.

192) 『동아일보』, 1948. 9. 7.

193) 『서울신문』, 1948. 9. 7.

19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 1 1948.

195) 채명신, 『채명신 회고록-사선을 넘고 넘어』, p.71.

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잡혀온 ‘공비’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은 뒤 처형되거나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9연대 정보과 선임하사 이종록이 기억하는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남로당 도당 및 면당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즉결처형 (2) 농민회 간부, 부녀회 간부: 즉결처형 (3) 부역자: 목포형무소.¹⁹⁶⁾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사실 엄격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무고한 민간인들도 처리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이 선포한 제주도 지역에 대한 계엄령은 초토화작전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대통령령 제31호로 선포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은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合圍)지경으로 정하고 본령(本令)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고 돼 있다.¹⁹⁷⁾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계엄령의 선포는 시민권의 제한만이 아니라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11월 23일에는 계엄령 포고 제1호로 교통제한, 우편통신 신문 잡지 등 검열, 부락민 소개, 교육기관에 대한 제한, 청소 벌채 및 도로의 수리 보전 및 폭동에 관한 벌칙 등 7종목의 세칙이 발표되었다.¹⁹⁸⁾ 9연대 출신 장교와 하사관의 말을 종합하면 송요찬의 9연대는 모든 것을 없애는 초토화작전을 전개하였다. 초토화작전은 식량과 가축, 건물, 기타 작전지역내의 모든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전략으로, 저항을 응징하거나 저항하려는 적의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군이 퇴각할 때 적에 가치 있는 것을 아무 것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 채택된다.¹⁹⁹⁾

196) 이종록 증언, 2001. 4. 30.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197) 『관보』 제14호, 1948. 11. 17.

198) 『자유신문』, 1948. 11. 30.

199) 이러한 사례는 과테말라나 베트남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2년 3월 과테말라에서 정권을 잡은 몬트(Efraín Ríos Montt)가 적성지역으로 분류된 마을을 대상으로 초토화작전을 전개하였다. 과테말라군은 마을을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 녹색 마을로 분류하고, 녹색으로 분류된 마을은 게릴라로부터 자유로운 마을로 간주했으며, 그곳 주민들은 감시만 받을 뿐 대체적으로 자유로웠다. 빨간색으로 분류된 마을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제 하에 있다고 간주하고, 군은 어린이를 포함해 반란군과 주민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두 죽일 수 있었다. 이 작전으로 400개 이상의 원주민 토착마을이 사라졌는데, 이 정책은 베트남전에서 사용됐던 미국의 대게릴라 정책에 필적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0만명 이상이 국외 탈출 했으며, 수천명은 학살을 피해 산속으로 피신해야 하였다. 과테말라의 폭력은 게릴라들의 사회적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15만명 이상이 죽고, 5만명 이상이 행방불명된 과테말라 내전의 희생자들은 군부가 게릴라 통제 지역에 있다고 분류한 지역에 살았다는 죄 밖에 없는 무고한 원주민들이었다. Frank M. Afflitto & Paul Jesilow, *The Quiet Revolutionaries: Seeking Justice in Guatemala*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7), pp. 25, 29; 베트남전에서는 요새화된 마을이 건설되면, 주변 지역은 사실상 미군의 공격용 헬기와 야간에 전투폭격기의 무제한적이고 무차별 표적지대가 되었다. 따라서, 한 지역이 공식적으로 ‘자유발포지대’로 선언되면, 지상군이나 공군이 그곳에서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군으로 간주하였다. James William Gibson, *The Perfect War: Technowar in Vietnam*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2000), pp. 85, 135. 이러한 상황에 게릴라들은 간헐적인 공격을 취하고, 민간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을 하지만 적극적이지는 못한다. 따라서, 게릴라들은 소극적 위협과 민간인들의 소극적 지지만이 있고,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은 최대화가 된다.

9연대 군수참모였던 김정무는 “그 때에 초토화작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싹 쓸어 버린다는 말이였다. 그러니까 (중산간마을에)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산에 올라간 무장세력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분리시킨다는 것이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적이라는 작전개념이였다”고 말하였다.²⁰⁰⁾ 9연대 선임하사였던 윤태준도 “송요찬 연대장은 초토화작전을 폈다. 거처 가능한 곳을 없애라. 또는 불태워 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건 육지에서도 없었다. 초토화작전이 상부의 지시인지 또는 연대장 독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요찬 연대장과 함병선은 모두 일본군 출신으로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증언하였다.²⁰¹⁾ 이 계엄령은 같은 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43호로 해제되었다.²⁰²⁾

섬이라는 독특성으로 인한 해안봉쇄²⁰³⁾와 대게릴라전의 보편성은 9연대에서 구체화되었고, 철저하게 적용되었다. 경찰 또한 군과 보조를 같이 하였다. 만주에서 일제 경찰 출신인 홍순봉은 자신이 마을마다 성을 쌓아, 후방 차단과 함께 민간인 분리 정책을 경무부장 조병옥에게 제안했고, 이것이 채택돼 제주도에 부임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²⁰⁴⁾

9연대는 ‘공비들의 근거지를 없애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 분리한다는 ‘비민분리’ 개념 하에서 철저한 소개작전을 전개하였다.²⁰⁵⁾ 제9연대장 송요찬의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선포한 10월 17일 발표한 포고문²⁰⁶⁾은 제주도 내륙을 ‘적성지역’으로 간주한 것으로서 대게릴라전 전략으로 나타나는 ‘자유발포지대’(free fire zone)의

200) 김정무 증언,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293.

201) 윤태준 증언, 2001년 5월 2일, 제주43위원회, 『군 관계자 증언채록-1』,

202) 『관보』 제26호, 1948. 12. 31.

203) 제주43사건 당시 해안경비대 경비함정의 정장이었던 강기천은 “사태가 발생하자 목포군산인천진해부 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함정을 차출하여 폭도진압을 위해 투입하는 병력과 장비, 탄약, 식량 등의 군수물자 수송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때 인천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JMS 302호(통영호)도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고 제주도에 돌아올 때는 ‘폭동’ 때에 다친 민간인 부상자들과 ‘폭동’ 진압을 하다가 다친 군인이나 경찰 또는 서북청년단 단원들을 육지로 수송해 오기도 했고, 현지 주둔 육군 진압부대의 요청에 따라 서귀포에 있는 병력을 제주읍으로 이송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한의 적화 전략을 위해서는 친인이 공노할 그 어떤 만행도 자행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고위 장교 출신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강기천, 『강기천 회고록-나의 인생 여로』 (서울: 계몽사, 1996), pp.29-30.

204) 홍순봉 증언, 1967. 4. 1,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면담사료 122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특별작전사』, pp.347-350.

205) 백선엽, 『실록 지리산』, p.126.

206)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들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奉持)하여 차등(此等)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조선일보』, 1948. 10. 20.

설정이었으며, 일본군이 중국에서 사용한 ‘무주지대’(free populated zone)의 설정이었다.²⁰⁷⁾ 이러한 자유발포지대의 선언은 민간인만 섬멸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생존수단까지도 파괴하는 것이다.²⁰⁸⁾

9연대 출신 진봉택은 “포고문에 지시된 대로 해안 5km 이내로 내려오지 않은 중산간 마을은 공비들의 보급의 원천이고 정보수집, 은신처 역할을 함으로 불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안으로 오지 않고 한라산으로 올라간 인원이 많았다. 해안마을은 돌담을 축성하여 자체방위를 하였으며,……작전부대는 전단살포 등 선무공작을 해서 주민을 하산시키고 내려오지 않고 공비와 같이 있는 주민을 특별작전 때 불가피하게 희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비와 합류한 주민들 대부분 공비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해안으로 내려오지 못하였으며 해안에 내려와도 경찰의 감시대상이 되었다”고 말하였다.²⁰⁹⁾

그러나 이러한 포고문이 교통과 통신수단의 미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산 속으로 피난가거나 미처 피난가지 못해 ‘공비’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조직 지도원 겸 연락과장으로 있던 김생민은 경찰에 진향하기 전에 한라산에서 3천여명의 피난민을 관리하는 피난민수용소장을 하였다 고 할 정도로²¹⁰⁾ 산간지역으로 피신한 도민들이 많았다. 9연대에 있던 강덕윤은 “해안선 5마일 이내로 중산간 지역 주민은 전부 내려오라고 포고령을 내렸는데 행정계통을 통해서 하달이 잘 안되었다.……중산간 마을사람이 대부분 산쪽으로 올라가 토굴생활을 하였다. 해안선으로 내려온 사람은 적었다. 그리고 후에 폭도로 지명되었고 귀순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¹¹⁾ 포고령은 사실상 계엄령이나 마찬가지로 9연대에게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였고, 소개령은 당시의 통신수단의 미흡으로 일부 마을에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

송요찬의 이러한 포고문의 발효 시점은 14연대 1대대가 제주도 출병을 앞두고

207) 초토화작전 시기 제9연대 고문관으로 근무했던 피쉬그룬드 중위는 “한라산쪽으로 향하는 내륙지역을 깨끗이 하였다”면서 “해안도로는 주민들이 있는 곳이고, 내륙은 적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밝혀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문 발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피쉬그룬드는 송요찬의 포고문 발표 때 자신과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208) Judith Gail Gardam, *Non-combatant Immunity as a Norm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ordrecht, Boston and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57.

209) 진봉택 증언, 2002. 10.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p.224-226.

210) 김생민 증언, 2002. 12. 4, 위의 책, pp.241-245.

211) 강덕윤 증언, 2002. 12. 4, 위의 책, pp.252-254.

10월 19일 여순사건을 일으킨 시점과 비슷하다. 포고문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초토화작전 초기의 사건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48년 제주도민 대량학살을 몰고온 9연대장 송요찬의 대게릴라전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그는 14년 뒤인 1962년 1월 정부의 내각수반의 자격으로 미8군의 요청에 따라 ‘대게릴라전에 관한 수기’를 제공하였다.²¹²⁾ 이 글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일종의 체험담이지만 그가 당시 어떤 생각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게릴라전’이라는 제목으로 미8군 예하 각 부대에 보낸 이 문서에서 미8군사령부 참모장 러셀(Sam C. Russell) 소장은 송요찬 내각수반을 “남한에서 비상할 정도로 성공한 게릴라 전사였다”고 언급하고 “모든 지휘관들은 송 내각수반이 준비한 원고를 적극 검토하기를 희망하고, 이런 원칙들을 현행 게릴라전 훈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를 바란다”며 송요찬의 대게릴라전 원칙들을 익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요찬의 대게릴라 전술 또한 마오쩌둥의 유격전법과 비슷한 것이다.

공산 게릴라들은 물 속의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이 마르면, 연못 속의 물고기는 죽게 된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연못을 말리지 않거나, 물에 독약을 넣지 않은 채 물고기에 대한 중무장 작전을 벌이다면 그 작전은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추적자들이 물을 말리는 대신 헛되이 물고기를 추적하는데 지쳐버리면 그들은 결국 지쳐버리게 되고, 많은 사상자와 함께 게릴라들에 의해 역습을 받게 된다. 그들은 장비를 잃게 되고, 이것은 게릴라들의 재산이 될 것이다.

송요찬의 대게릴라전 원칙은 배수작전만이 아니라 ‘물에 독약 풀어넣기’라는 원칙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민분리’라는 명분으로 한 소개정책을 넘어 아예 무차별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연못 속의 물을 배수하거나 독약을 풀어 넣지 않고, 작전을 벌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수기에서 게릴라들이 정치적 조직이 약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앙정부에 불만족하거나 냉담한 곳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은신, 식량, 정보 수집을 위해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로 의존하는 게릴라들의 속성상 군사작전 진

212) "Notes on Anti-guerrilla Warfare", by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Song, Yo-Chan(1916-), *The Orlando W. Ward Papers*, U.S. Army Military History Research Collection, Carlisle, Pa, USA.

행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정치적 준비’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계엄령이 게릴라와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담기 위해 선포되어야 한다.

(2) 대첩보 활동은 엄격한 정부/군사적 통제 하에 나와야 한다. 우호적인 정보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을이나 지방에서 가능한 한 많은 민간인들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들 민간인들과의 비밀접촉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지역의 군사 정보망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3) 마을주민들과 지방민들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뤄져야 한다. 식량, 보호, 의약품은 필요한 만큼 공급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정부군이 자기들 편이라고 인식하고, 정부가 자신들의 복지와 매우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의 우리의 공개적인 작전과 선전활동간의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어야 한다.

송요찬이 언급한 계엄령이 게릴라와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안될 경우 학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군사작전과 함께 정치적 준비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와 정보망 활용, 선무작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1948년 10월 이후 제주도에서 벌어진 초토화작전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송요찬은 정보망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초기 작전 시기 공격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보망이 완전하게 작동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일반 정보망이 수립되면 효용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게릴라들이 야간에 마을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병사는 게릴라로 위장할 수 있고, 마을을 배회할 수도 있다”며 위장전술의 활용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전술은 9연대와 2연대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중산간 주민들에 대한 또다른 학살의 계기를 만들었다.

송요찬의 이러한 대게릴라전 원칙들은 제주도 사건과 지리산 토벌작전에서의 경험에 따른 것으로, 제주4·3사건은 대게릴라전 군사교리의 개발을 위한 시범무대였고 적용무대였다.

이러한 대게릴라전에서의 토벌작전은 철저한 진압(repression)과 강압(coercion)에 기초하였다.²¹³⁾ 미국-필리핀 전쟁(1899-1902) 시기에는 살인, 방화, 강제이주,

213) Robert B. Asprey, *War in the Shadows: The Guerrilla in History*, revised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4), p.81.

집단수용소 등의 정책을 폈다.²¹⁴⁾ 급진적 조치인 집단수용소 정책은 대게릴라 전략에서 효용성이 입증되기는 했지만, 이에 따른 주민의 고통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²¹⁵⁾ 미국-필리핀 전쟁은 간헐적으로 1916년까지 계속되기는 했지만, 1902년 여름에 대규모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미국은 4천명 이상의 사망자(그 후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과 수천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필리핀 게릴라 2만여명이 희생되고, 필리핀 민간인 사망자의 수는 20만명으로 추산되었다.²¹⁶⁾ 미국이 이 전쟁을 반란군을 진압하는 대게릴라전으로 간주하더라도 필리핀 민간인들에 대학살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²¹⁷⁾

에스프레이는 유럽 국가들의 식민화 과정이 군사적 우위, 상업적인 착취, 그리고 정치적 실패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미국의 과정은 군사적 우위와 대량학살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요컨대 유럽인들은 피정복자를 쥐어짠 데 반해, 미국인들은

214) 1901년 9월 하순 필리핀 사마르섬의 발랑기아에서 필리핀 게릴라들의 공격으로 54명의 미군이 희생되는 공격을 받은 뒤 미군은 이 전쟁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테러 통치(reign of terror)를 시작하였다. 스티미스 장군은 보복팀을 이끌고 부하들에게 “죽이고 불태워라. 죽이고 불태워라. 귀관들이 더 많이 죽일수록, 더 많이 불태울수록, 귀관들은 더욱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며 사마르를 참새들조차 살 수 없는 ‘황야’(howling wilderness)로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살해할 필리핀인들의 연령을 묻자 그는 “모든 것은 10살 이상이다”고 답변을 하였다. 바탄가스 작전의 지휘권은 벨(J. Franklin Bell) 준장에게 주어졌다. 그는 “이 곳 주민들에 대한 모든 관심과 호의는 본관이 사령관이 된 날로 중단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립은 용납되지 않는다. 미군에게 정보, 게릴라들에 항거하는 작전 안내, 또는 게릴라와 그들의 동조자들을 찾아내는 주민들만이 무죄임이 관명될 것이다. 죄수들은 미군 병사나 필리핀 충성파들을 살해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처형될 것이며, 모든 민간인들은 감시받는 지역으로 이동될 것이다. 주민들이 나를 잔인하다고 해도, 또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본관은 안다. 그렇지만 본관이 계획한대로 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였다. 1901년 12월 8일 그는 집단수용소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국-필리핀 전쟁에서 최대의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서 ‘보호지역’으로 주민들을 몰아넣는 것이었다. 바탄가스 주민들은 수비대가 배치된 안으로 이동하는데 2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수용소 주변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은 몰수되거나 파괴되었다. 그곳에서 발견되는 주민들은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반란군’으로 간주되었으며 모든 재산과 가옥은 파괴되고 방화되었다. 이 작전을 취재한 한 특파원은 “문명전쟁이 아니었다”고 시인하였다. 발랑기아에서만 초토화작전으로 10만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학살되었다. Daniel B. Schirmer, Stephen Rosskamm Shalom, *The Philippines Reader: A History of Colonialism, Neocolonialism, Dictatorship, and Resistance* (Boston, MA.: South End Press, 1987), pp.16-18; Anthony James Joes, *America and Guerrilla Warfare* (Lexington, Kentuc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0), p.119; Stanley Karnow, *In Our Image: America's Empire in the Philippines*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9), p.188.

215) Brian McAllister Linn, *The U.S. Army and Counterinsurgency in the Philippine War, 1899-1902*, pp.154-155.

216) Julian Go and Anne L. Foster, eds., *The American Colonial State in the Philippines: Global Perspectiv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3), p.233; Stanley Karnow, *In Our Image: America's Empire in the Philippines*, p.140; Melvin Page, Penny Sonnenberg and James Climent, eds., *Colonialism: An International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Encyclopedia* (C.A.: ABC-CLIO, 2003), p.469.

217)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세력이 아무리 폭력이란 이름의 구체적 물리력을 보유하더라도 이미지의 편차는 컸다.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해방 후 권력과 민중의 충돌』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1), p.45; 미국은 이 전쟁을 ‘필리핀 반란’이라고 하고, 필리핀 적들을 반란군, 또는 폭도라고 한 반면, 필리핀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운동에 맞서 미국이 정복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Stanley Karnow, *In Our Image: America's Empire in the Philippines*, p.140.

피정복자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²¹⁸⁾

제주도에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던 9연대 출신자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비토벌’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고 회상하였다. 그는 중산간 지역 주민들을 피난시키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을을 방화하였다.

도로에서 20리인가 30리 한라산 쪽으로 더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민간인들을 피난시키고 공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을 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중턱을 헤매면서 공비토벌 단계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먼저 마을 단위로 책임구역을 맡아서 주민들에 대한 선무공작으로 해변으로 전부 소개하라, 몇일간 여유를 주고서 그 사람들을 소개시킨 다음에 우리는 공비토벌을 하면서 불을 놓았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새벽 1시 아니면 2시 이 정도 되면 공비들이 마을에 들어와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중대단위 소대단위로 그 마을을 포위하고 있다가 한놈 두놈이 날이 새면 뛰는 것을 이것은 공비다 그래서 잡아넣고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불을 질렀다. 우리는 공비가 아닌가 싶어서 사격을 하다가 보면 말 아니면 소가 그대로 자빠진다 이것이다.²¹⁹⁾

마을에 불을 지르고 뛰어나가면 공비라며 잡아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공비가 아닌가 싶어서 사격을 한다는 것은 ‘공비’에 대한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전으로 말과 소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학살되었다. 마을에 불을 지르기 전에 선무공작으로 해안마을로 강제이주시키기도 했지만, 그러한 소개령을 몰랐던 민간인들은 정부군에게는 ‘공비’였고, 토벌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토벌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본토에서 파견된 정부군에게 제주도는 적지였으며, 유격대와 제주도민들은 이민족 또는 인간 이하의 존재(*Untermenshen*)였다. 이는 진압작전에 동원됐던 군인들의 회고에도 나타난다.

유영국은 “사람을 보면 전부 공비 같고 누가 공비인지 누가 공비가 아닌지 몰랐다. 곤란한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였다. 일본말로 하니까 다 통하였다. 일본말들을 잘하였다.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다”²²⁰⁾고 하기도 했고, 이

218) Robert B. Asprey, *War in the Shadows*, p.113.

219) 강종철 증언, 1966. 5. 20,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300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 사건토벌작전사』, pp.281-284.

220) 유영국 증언, 1966. 4. 2,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4005-1], 위의 책, pp.306-311.

종호도 “주민과 언어소통이 불가능하였다. 일본어로 통하는 편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형편이었다”고 말하였다.²²¹⁾ 제11연대 1대대 부중대장이었던 정영홍도 유격대와 교전은 없었지만 “제주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주민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²²²⁾ 1947년 4월 9연대장으로 제주도에 왔던 이치업도 “제주도 본토박이들은 우리 한국말을 쓰면서도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였다. 육지사람들이 방언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 제주도가 유배지라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였고……”라고 기억하였다.²²³⁾

일본어로 말해야 의사소통이 되고, 제주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제주도를 유배지라고 여겼던 이유라는 진압부대원들의 인식은 ‘동일민족’이라기보다는 ‘하위민족’, ‘이민족’ 또는 ‘점령지역’이나 ‘적지’로서 ‘제주도민=공산주의자 또는 그 동조자’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는 마조위가 말하는 ‘전쟁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창출된 비인간화(dehumanization)’였으며, 비인간화는 학살에 대한 도덕적 억제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다.²²⁴⁾ 쉬한(Neil Sheehan)은 베트남전쟁 당시 “사이공 장교들은 도살과 새디즘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들은 농민들을 일종의 하급종(subspecies)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간의 집을 파괴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반역적인 동물들을 절멸시키고 있었고, 그들의 소굴을 제거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²²⁵⁾ 미군이 20세기 초 게릴라들을 상대로 싸운 필리핀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마찬가지였고, 제주도에서 유사하였다.

1948년 12월 국무총리겸 국방장관 이범석이 국회에서 도로변 총림 벌채와 보감제의 실시 등의 발표²²⁶⁾는 대게릴라전에서의 ‘비민분리’라는 원칙에 ‘충실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군이 실시했던 전략으로서,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고, 도로 주변의 나무를 베어내 게릴라들의 급습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그리스에서도 사용된 것이다. 또한 ‘폭도에 대한 협력자의 철저한 처단을 단행한다’고 공포함으로써, ‘도민 다수가 폭도 동조자’라는 상황에서 ‘폭도 협력자에 대한 처단’은 도민 다수를 처단하겠다는 의사였다.

‘동조자’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인식되는 것일까. 6연대 2대대로 입대하였다가 1948년 7월 제주도에 온 9연대 병사는 “주민들은 공비들이 행방을 질문

221) 이종호 증언, 1981. 3. 19,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위의 책, pp.330-333.

222) 정영홍 증언, 2001. 2. 8,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223) 이치업, 『번개장군 - 이치업』, pp.99-103.

224) Mark Mazower, Review Essay: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p.1171.

225) Neil Sheehan, *A Bright Shining Lie: John Paul Vann and America in Vietnam* (New York: Random House, 1988), p.110.

226) 『국회속기록』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하면 무조건 ‘모르쿠다’(모르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였다. 주민들로부터 공비에 대한 정보획득이나 신고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공비들과 연관을 갖고 있어 공비들과 내통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병사들은 주민들이 게릴라들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폭도’에 대한 동조 내지는 협력으로 인식하였다.²²⁷⁾ 이 군인은 도로 양쪽의 나무를 벌채하는 것과 관련해 성산포에서 “연대 지시에 따라 해안을 연해서 산쪽으로 2km 대상으로 사계(射界) 축소²²⁸⁾를 실시해 공비로부터의 저격을 방지하였다”고 밝혔다.²²⁹⁾

정부군의 초토화작전에 맞서 유격대의 공세도 강화되었다. 11월 1일 오름마다 봉홧불을 올린 유격대는 매복과 기습작전으로 정부군에 타격을 줬으며,²³⁰⁾ 정부군의 공세는 그동안의 전투경험과 무기와 보급품의 지원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송요찬은 직접 연락기를 타고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였다. 송요찬의 경호를 담당했던 한 병사는 “고문관이 타고 다니는 L-19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때 송 연대장이 그것을 타고 수색을 하면서 밑에 뭔가 있으면 수류탄을 던지고 하였다”고 기억한다.²³¹⁾

1948년 11월 15일 토벌부대가 들이닥친 표선면 가시리에서는 30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이들 가운데 60대 노부부인 안만규·김인하는 손녀(3살)와 손자(1살)를 데리고 냇가 주변의 굴을 찾아 몸을 숨겼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새나가자 이를 알아 채 토벌부대가 굴 안으로 수류탄을 던져 모두 희생되었다.²³²⁾ 한 증언에 따

227) 이종호 증언, 1981. 3.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 작전사』, pp.330-333; 이러한 사례는 베트남전에서도 나타났다.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 군인들이 베트콩 가족들을 살해한 데 대해 한 미군은 “그들은 게릴라들의 친척이었고, 의심의 여지없이 베트콩에 동조적이었으며, 그들을 지원하였다. 그들은 비전투원의 신분이 아니다. 그것이 그들을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만든다”고 말하였다. 이 미군은 남베트남 장교들이 종종 위협하기 위해 이들을 죽이고 집을 파괴하며, 가족을 도살하기를 원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평정작전의 이론은 농민들을 베트콩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데려가는 것이었다. Neil Sheehan, *A Bright Shining Lie*, p.109.

228) 사격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격진지 앞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으로서, 도로 주변의 모든 장애물들을 없앴다. 이는 1949년 3월 이범석의 국회 증언에서도 나온다.

229) 이종호 증언, 1981. 3.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 작전사』, pp.330-333.

230) 피쉬그룬드는 11월 1일 오름마다 봉홧불을 올린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9연대 정보과 선임하사 이종록은 10월 말에 “야간에 연대 통신대 선임하사가 경찰 통신병하고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통화내용이 군경, ‘재산무장대’가 합세해 11월 1일 0시에 공격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5중대를 비상결어 1대대를 포위하고 전원 조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시 제주도에서 창설한 1대대 병사들에게 의심이 갖고, 전기고문과 거꾸로 매다는 등의 고문을 거쳐 용의자 다수를 체포했으며, 연대 구매관도 체포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내부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날인 11월 1일 밤에 산에서 내려왔으나 군경에서 반응이 없자 외곽에서 사격만하다가 격퇴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종록 증언, 2001. 4. 30,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231) 정만교 증언, 1967. 5. 16,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면담사료 122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335.

232) 허영선, 『제주43사기 아동학살 연구-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p.30.

르면 1948년 12월 4일 구좌면 세화리에 군병력 1개 중대가 주둔해, 다음날부터 군·경·민 합동토벌작전이 벌어져 주민들이 민보단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당시 토벌작전에 참가한 민보단원은 50여명으로, 이들은 다량쉬오름 남쪽 ‘주구물’고지까지 공격해 굴 속에서 30여명의 ‘공비가족’을 죽였다.²³³⁾ ‘공비’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공비가족’을 죽였다는 것은 모든 주민들을 ‘공비’ 또는 ‘공비 협조자’로 가정하는 것이었다. 한 병사는 서귀면 중문리 지역에서 동굴 속에 숨어있던 주민 3명을 로켓포를 발사해 죽였다. 이들이 무기를 갖고 있던 유격대였는지, 산으로 피신한 주민들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신원확인과정은 없었다.²³⁴⁾ 1948년 12월 18일 군·경·민 합동작전 당시 구좌면 세화리 이른바 ‘다량쉬굴’ 속에 수류탄을 터뜨리고 입구에서 짚에 불을 지피 굴속에 그 안에 피해있던 7살된 어린이를 포함해 20대 남녀 11명을 질식사시켰다.²³⁵⁾ 미군 보고서는 9연대가 “모든 주민들이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주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량살육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²³⁶⁾

그러나 유격대는 오히려 이러한 정부군의 공세에 맞서 매복 및 강력한 기습작전을 전개하였다. 9연대 특공대장이었던 김준교는 1948년 12월 12일 ‘적’이 집결해 있는 것을 발견해 공격하면서 굴을 수색하다 집중사격을 받고 몇몇이 희생되

233) 문봉협, 지형중, 부대유 증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p.264-265. 이 증언속의 ‘공비가족 30여명’이 1948년 12월 18일 월랑봉(다량쉬오름) 부근 굴에서 9연대 2대대에 의해 있었던 9살 어린이부터 부녀자에 이르는 11명에 대한 학살사건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월랑봉 부근은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벌어졌고, 굴 속에서 학살사건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234) 박관준 증언, 1965. 8. 10,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6005-1], 위의 책, pp.300-301.

235) 다량쉬굴에서 25일 동안 피신생활을 하였던 채정옥은 “당시 다량쉬굴은 병참식량확보 등을 하는 비무장 유격대원들의 아지트였다”며 “사건 다음날 유격대가 동료 2명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라고 해 도착해 보니 굴 입구를 파헤치고 불태운 흔적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채씨는 “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 손톱으로 땅바닥을 파거나 귀·코에서 피를 흘리는가 하면 괴로운 표정으로 바위에 머리를 부딪치며 처참하게 숨겨 있는 것이 발견돼 주검을 차례로 눕혔다”며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였다. 채씨가 밝힌 다량쉬굴 유골의 신원은 다음과 같다. 고순환(27·종달리) 고순경(25·”) 고두만(21·”) 함명입(21·”) 고태원(25·”) 박봉관(27·”) 오달용(26·”) 이석순(24·여·하도리) 부성만(24·여·”) 박순녀(29·여·”) 박순녀씨의 아들(7). 주한미군 G-2는 “12월 18일 제9연대 제2대대가 민간인과 경찰의 도움으로 작전을 벌여 130명을 죽이고 50명을 체포했으며 소총 1정, 칼 40개, 창 32개를 노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채정옥(1924년생) 구술채록, 1992. 4. 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1, 24 Dec 1948.

23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이러한 사례는 일본군의 중국 동북지방을 침략하였을 때도 나타났다. 1942년 5월 일본군은 오카무라 장군의 ‘모두 죽이고, 모두 태우고, 모두 약탈하는’(삼광정책)이 이 시기 수행되었다. 삼광정책의 본질은 주어진 지역을 포위하고, 그 속의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해서 그 지역을 장래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1942년 5월 28일 안귀현 부근의 마을 에 대한 공격에서 일본군 300여명은 지역을 포위하고 독가스를 동굴에 넣어 800명의 중국인들을 살해하였다. 허베이 동부 루안현 관차타이에서는 1280명이 처형되고 모든 가옥이 전소되었다. 최대의 파괴는 신자치 국경지역 페이위구에서 일어났는데, 1만명 이상의 일본군이 1941년 8-10월 소탕작전을 전개해 4500여명을 학살하고, 15만채의 주택을 방화했으며, 1만7천여명을 만주로 추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공산주의자와 주민들 간에 존재하는 긴밀한 협력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Chalmers A. Johnson,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pp.55-56.

있고, 자신도 옆 바위로 포복하려다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고 한다. 그는 또 “고지대의 평탄한 곳에서 잠복하다가 밤에 뛰는 놈을 사살하였는데 20여명 정도 성과를 보았다. 한번은 적의 일본도에 죽을 뻔 했다. 밀림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고 있는데 적이 숨어 있다가 나를 내리쳤다. 나는 재빨리 피했고, 뒤따르던 당번 병이 그 자를 쏘았다”고 말했다.²³⁷⁾

이중호는 “1948년 12월경 7중대가 조천지역에서 공비부대와 수색대가 접전해 잔류중인 (성산포)중대장 탁 중위와 1개 분대가 3/4톤에 승차, 지원차 출동 도중에 조천 동쪽에서 적의 매복에 조우, 양면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운전수가 직사하고, 중대장 이하 전멸하고 1명이 생환하였다. 때는 저녁 7시경이었다”고 유격대의 기습공격에 대해 말하였다.²³⁸⁾ 유격대의 기습을 받은 9연대의 보복작전은 더욱 날카로워졌다.²³⁹⁾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군은 보복에 나섰는데 군은 총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검을 사용하였다. 이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12월 2연대와 교체돼 다른 지방으로 간 병사는 칼 등으로 찢러죽이는 ‘척살’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고 증언한다.

탁 중대장이 전사한 뒤 보복작전을 실시하였다. 지시에 의하여 (기도비닉을 위해)²⁴⁰⁾ 발포를 극력 삼가고 대검전인데 공비를 척살하면 인상이 오래 남았다. 그것이 싫어 자원해서 BAR(자동화기: 인용자) 사수를 원하였다.²⁴¹⁾

237) 그러나 김준교는 송요찬 연대장 시절 주민소개나 중산간 마을을 불태운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김준교 증언, 2001. 2. 13,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238) 이중호 증언, 1981. 3. 19,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p.330-333.

239) 이 사건에 대한 미군 정보보고서와 9연대 활동보고서는 이중호의 증언에서의 장소와 시간이 다르게 기록돼 있다. 미군 정보보고서는 ‘군 보고’임을 전제로, “9연대와 2연대가 교체하는 혼란기를 이용해 12월 19일 오전 7시 폭도들이 신엄리를 습격하였다”며 장소는 신엄리, 시간은 오전 7시로 적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폭도들은 주택 30채를 불태우고 경찰관 1명과 민간인 10명을 살해하였다. 작전에 투입된 9연대는 폭도들과 교전을 벌였다. 9연대는 이 작전으로 장교 1명과 사병 9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당했으며, M1 소총 3정, 경기관총 1정, 브라우닝 자동소총 1정, 카빈소총 1정을 잃는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군 보고서’인 9연대 일일 보고서는 12월 19일 신엄리 부근에서 적과 소규모 교전중 9연대 7중대장을 포함한 7중대 9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M1 소총 3정, 박격포 1문, 경기관총 1정, 카빈소총 1정, 탄약 370발을 분실했으며, 3/4톤짜리 트럭이 피해를 입었고, 2연대 2중대원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8, December 21, 1948, 9th Regiment Daily Reports.

240) 기도비닉(企圖秘匿)은 조용히 들키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241) 이중호 증언, 1981. 3. 19,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p.330-333.

유격대의 기습작전에 대한 정부군의 대응은 독일군이 그리스나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시행했던 자국 병사 1명이 죽을 경우 50명을 총살에 처하는 정책과 유사하였다. 한 병사는 보복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림에서는 우리 중대가 습격을 갔다가 공비 습격을 받아서 중대장하고 소대장 한사람 하고 대원이 한 15명 죽었다. 나는 중대장이 전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대 감시요원 1개 소대 가량을 데리고 갔는데……그 때 용의자는 200-300명 잡았다.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한 것도 한 150명 된다. 그러다가 (1949년) 3월 1일날 교대하였다. 2연대하고 교대했지. 특별중대는 2연대에 인계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전부 군인이 아니까 인계를 하였다. 그 사람들이 빨갱이를 잡는데는 참 용감하다.²⁴²⁾

체포된 용의자 200-300명 가운데 150명을 현장에서 서청 특별중대가 처형하였다는 얘기다. 그의 발언의 진실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보복작전은 무차별적 폭력이며 대량학살이었다. 이러한 대량학살은 토산리와 가시리 등 곳곳에서 이뤄졌고, 제주4·3사건의 대표적인 학살마을인 조천면 북촌리 학살사건은 2연대에 의해 저질러진 보복작전의 절정이었다.

제주도민의 대량학살을 불러일으킨 것은 군·경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학살의 제도적 기제에는 ‘빨갱이 사냥’에 나섰던 서청은 물론 민보단도 포함되었다. ‘생존’이 목표였던 민보단원들은 학살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였다. 이들 민보단원들은 군·경 진압작전에 자주 동원되었으며, 심지어 처형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또 진압작전에 참여했거나, 보초를 서다가 유격대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유격대와 내통하였다는 오해를 받거나 근무가 태만하다는 이유로 군·경의 총탄에 사살되는 일도 있었다.²⁴³⁾

서북청년단원들은 1948년 11월 말부터 비밀리에 군·경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청의 권한은 실제 제주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작용하였다.²⁴⁴⁾ 서청과 일부 군인들의 제주도민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당시 진압군인들의 증언에서도 나온다. 1948년 말 9연대 선임하사 윤태준은 서청의 행패가 사건의 확대에 결

242) 이기봉 증언, 1966. 3. 15,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200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 사건도별작전사』, pp.312-315.

243)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p.274-275.

244) 위의 보고서, p.306.

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서북청년들이 고안놈들이다. 처녀를 겁탈하고 닭도 잡아먹고 빨갱이로 몰기도 하고, 이놈들이 사건을 악화시켰다…… 주민들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갔다”고 서청들을 평가하였다.²⁴⁵⁾ 1949년 2연대 1대대장이었던 전부일도 “서북청년단이 산쪽에 협력했다고 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쏘 죽이고……그리고 한번은 연대 정보인가 그 사람이 그 뒤에 죽었는데 나보고 와보라고 해서 가서 보니 여자를 발가벗겨놓고 빙빙 돌리고 있어서 이를 중지시킨 일도 있다”고 말하였다.²⁴⁶⁾ 전쟁 시기 가장 큰 피해자의 한 부류가 어린이와 여성들이었듯이,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도 여성들은 무차별적 폭력에 노출되었다. 특별중대에 소속된 서청단원들은 민간복장을 한 채 유격대의 아지트를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6연대 2대대 인사계로 근무하다 제주도에 배치받은 이기봉은 서청 ‘특별중대’에 배치되었다.

그때 서북청년단이 해체돼 구성이 됐는데, 그것이 중문리에 있었다. 그들이 공비를 한 150명 잡았다. 그때 산간 벽지에 있는 사람을 전부 해안지대로 내려오라고 해서 안 내려오는 사람은 전부 공비로 인정을 하였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적의 아지트도 발견하였다. 서북청년단이 민간복을 입고 1개 중대쯤으로 산으로 올려보낸다. 올라가서 공비가 부르면 간다. 가서 잘못하다가 얻어맞으면 “나도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왔다” 해서 적의 아지트를 발견해 소탕을 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G-2 보고서만 보더라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상황은 경비대원 5명과 경찰관 1명의 사망을 제외한 희생자는 358명으로 하루 평균 17명이 사살되었다. 11월 13일에만 156명이 사살되었다.²⁴⁷⁾ 이 시기 이승만은 제9연대장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봉기 진압을 명령하였으며,²⁴⁸⁾ 이러한 그의 명령은 제주도 주둔 9연대로 하여금 토벌을 명분으로 한 학살을 촉진하였다. 9연대의 전투일지는 초토화작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11월 하순부터 12월 하순 사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²⁴⁹⁾ 이 ‘제9연대 전투

245) 윤태준 증언, 2001. 5. 2,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246) 전부일 증언, 2001. 2. 20, 위의 책.

2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89, 16 Nov 1948.

248) *Washington Post*, 1948. 11. 19.

249) 9연대 전투일지(9th Regiment Daily Report)는 9연대 고문관 출신 Harold S. Fischgrund가 보관해오다가 오하이오주립대 알란 밀레트 교수에게 넘겨준 것으로, 필자가 2001년 입수하였다. 그는 “전투활동과 관련해 노획된 무기수와 사망자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나는 즉답을 받은 적이 없고, 질문

일지'는 통계로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토화작전 시기 대량학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서로 평가된다. 이 문서에는 194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만 한달 동안의 9연대 작전활동을 담고 있다. 문서에 나오지 않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의 작전활동을 제외한 이 기간 군의 사상자를 제외한 사살자수는 25일 동안에 1,292명으로 하루 평균 51.68명에 이른다. 이 기간 체포된 도민은 498명이며, 군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8명이다. 제9연대가 노획한 무기를 보면, M1소총 2정을 제외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일제 99식 소총이 27정 밖에 되지 않았고, 38식 소총 3정, 44식 소총 1정, 창 141개, 총검 8개, 일본도 7개, 일반 칼 51개 등으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11월 22일 9연대 3대대가 대정 부근의 보급창고를 공격해 88명을 사살했으나 이들의 노획품은 일본도 3개, 수류탄 1개, 다이ना마이트 2개, 옛 일본군 99식 탄약 250발이 전부였다. 11월 25일에는 2대대가 성산포 부근에서 70명을 사살했으나 노획품은 일본군 99식 소총 2정과 탄약 37발, 다이나마이트 12개가 전부였으며, 함덕리 부근에서는 50명을 사살했으나 노획품조차 없었다. 11월 27일에는 선흘리 부근에서 43명을 사살했으나 창 12개와 일본군 총검 3개가 전부였다. 12월 6일 제9연대 제3대대가 서귀포 북쪽에서 51명을 사살했지만 노획품은 창 1개뿐이었다.

그러나 이 9연대의 전투일지가 당시 학살의 전체상을 모두 담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온 희생자 신고내용을 월별로 보면 1948년 11월 2,205명, 12월 2,974명, 1949년 1월 2,240명으로 나왔다.²⁵⁰⁾

발렌티노는 대게릴라전의 대량학살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를 첫째, 가해자들이 주요 이익에 대한 게릴라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낄 때 둘째, 가해자들이 게릴라들에 대한 민간인의 지지를 심각하게 느낄 때 셋째, 가해자들이 덜 폭력적인 방법으로 게릴라들을 격퇴하기가 어려울 때 넷째, 게릴라 활동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때 다섯째, 가해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대량학살의 물리적 능력이 클 때 여섯째, 희생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선택 능력이 제약을 받을 때라고 말한다.²⁵¹⁾ 제주4·3사건에서의 민간인 대량학살은 발렌티노의 가설이 상당부분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민들이 학살되는 가운데 1948년 12월 17일자 미군 보고서는 “최근 제9연

이후 사망자수와 무기수간의 보다 근사치를 반영한 보고서를 받았다. 이것이 송요찬과 부딪혔던 까다로운 점이었다”고 말하였다.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250)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371

251) Benjamin A. Valentino,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p.153.

대의 진압작전이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수준 높은 작전을 전개하려는 열의와 2연대 성공자들의 훌륭한 업적에 부응하려는 열의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²⁵²⁾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처럼 중산간 지역에 피신한 도민들은 무차별 학살되었다. 초토화작전 시기의 제주섬은 ‘죽음의 섬’이었고, ‘킬링필드’였다.

주한미군사령부 G-2는 1948년 한해동안 1만4천-1만5천여명의 제주도민이 죽은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들 가운데 최소한 80%가 정부군에 의해 희생됐으며,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됐고, 전체 제주도민의 4분의 1의 마을이 해안마을로 강제이주되었다고 보고하였다.²⁵³⁾ 이러한 무리한 소개작전은 정부군과 제주도민의 관계를 더욱 악화 분열시켜 민심이 정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1948년 12월 12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48대 6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되었고, 미-소 양군 철수 및 통일 달성 임무를 위해 향후 1년 동안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²⁵⁴⁾ 제주도의 5·10선거 실패로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우려했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공산주의 세력의 제거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다.

2) 제2국면(1949. 1-1954. 9): 마지막 군사적 동원과 절멸

9연대와 교체한 2연대 연대장 함병선도 제주도 토벌작전을 전개한 전임 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며 낙하산부대에 근무한 경험을 가진 일본군 준위 출신이다.²⁵⁵⁾ 함병선은 백선엽의 회고록에서 “제주도에 부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무공작이었다. 전임부대들이 중산간 부락을 초토화한 때문이었다. 국내전에서는 초토화를 금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웠다.”²⁵⁶⁾면서 함병선 스스로가 국내전에서의 초토화작전 금지를 언급하고는, 9연대와는 달리 자신은 선무공작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2연대는 제주도로 이동하자마자 연일 소탕작전에 나섰다. 2연대 상사 최갑석은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에 들어온 함병선은 본부와 2대대를 제주시에, 1대대를 서귀포에, 3대대를

25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5, 17 Dec, 1948.

25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254) 『서울신문』, 1948. 12. 14.

255) 2연대 상사 출신 최갑석에 따르면, “함 연대장은 국내 전투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참가한 군인이었다. 그는 국군에 들어와서는 여순사건, 제주43사건, 웅진지구 전투, 홍천 전투, 춘천 수복 전투, 6·25전쟁 등 한국군의 전장에는 반드시 그 복판에 있었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일본군 준위와 상사 출신은 사관학교 출신보다 실전 경험이 많고, 그래서 전쟁의 난국에는 머리 좋은 장교들보다 이들의 용맹성·효용성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 연대장이 그 대표적 인물인 것이다” 이계홍 정리, 『최갑석 장군 이야기-장군이 된 이등병』 (서울: 화남, 2005), p.114.

256) 백선엽, 『실록 지리산』, p.126.

한라산 북쪽 오등리에 배치해 초기 소탕작전을 벌였으나 쌍방의 희생이 컸다”고 말한다.²⁵⁷⁾

1948년 7월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였다가 12월 28일 제주도 출동명령을 받아 다음날 다시 제주도에 온 유영국은 “연대본부는 농업학교에 들어가 있었고, 1대대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출동을 계속하였다”며 “그때 당시에는 해안선 4km 한라산을 중심해서부터는 작전지역으로 있어서 작전이 매일 있었는데, 3시경에 나가면 9시경에 들어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²⁵⁸⁾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진 지역의 내륙지역을 ‘적지’로 간주해 작전을 벌인 것은 9연대로부터 이어진 것으로서 초토화작전의 근거가 된 것이었다. 최갑석은 “산으로 숨어든 빨치산들이 게릴라 전술을 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거리에 출몰할지 모르고, 또 누가 적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두 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라고 볼 수도 없었다. 내전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말한다.²⁵⁹⁾ 그는 상관과 함께 제주도 국회의원 홍순녕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홍순녕은 이들에게 군·경에 의한 일방적 학살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군·경이 폭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제주도 양민과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요. 양민과 폭도가 모두 삼촌이나 형이고 아주방(아저씨)으로 통하는데 이들 중 겁먹은 채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부지기수고, 또 멋모르고 삼촌이나 아주방 일을 돕다가 폭도로 몰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군경은 편리한대로 이분법적으로 피아구분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으니 답답해요. 제주도의 독특한 가족관계나 혈연관계를 모르고 진압하고 있으니 골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요. 정부가 모든 사람을 폭도나 공비로 몰아붙여 적으로 만들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소. 아버지가 산에 들어가면 아들이 아버지를 숨기고 옹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또 아들이 산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이것을 흑백논리식으로, 서로 이간질하고 반목하도록 몰아붙이면 제주도민 고유의 공동체 정신인 상부상조 풍속이 허물어지고 민심이 더 흉흉해질 거

257) 여순사건 진압에 동원됐던 대전의 2연대 상사 최갑석은 1948년 12월 29일 선발대로 목포 해군기지에서 LST를 타고 제주도에 상륙해 1949년 8월 13일 제주를 떠날 때까지 제주에서 근무하였다. 이계홍 정리, 『최갑석 장군 이야기-장군이 된 이등병』, p.114.

258) 유영국 증언, 1966. 4. 2,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400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p.306-311.

259) 이계홍 정리, 『최갑석 장군 이야기-장군이 된 이등병』, p.99.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 직접 군에 호소하였지만 살상은 계속되었다. 2연대 2대대 6중대 1소대장으로 근무한 이동준은 “제주도에서 1주일 있다가 수색전을 나가기도 하였다”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지방민들 때문에 토벌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민군으로 위장해서 한라산 내륙지역으로 소대원들과 함께 작전을 나가 중산간 주민들을 체포하기도 하였다.²⁶¹⁾

대계릴라전에서 대량학살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유격대와 주민을 분리하는 강제이주와 견벽청야(축성) 정책은 2연대에서도 계속되었다. 2연대 소대장 이주홍은 “공비하고 민간인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산간에 있는 마을 사람을 전부 철수시켜서 도시에 집결시켰다. 그래가지고 마을 단위로 성을 쌓았다. 그러자 잔비하고 민간인하고 완전히 떨어졌다. 공비가 식량을 구할 수가 없게 되고 한 1년 있으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고 회고하였다.²⁶²⁾

제주읍 월평리에서는 유격대와 2연대 2대대 6중대간의 전투가 밤새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6중대장 전동식은 대퇴부에 부상을 입어 후송되었고, 소대장 이동준은 처음에는 가슴에 총탄을 맞았으나 다행히 가슴에 두르고 있던 기관총탄 연결고리에 맞았고, 두 번째는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 탄창에 맞아서 목숨을 건졌다. 이 전투에서 2연대 6중대장이 부상을 당했고, 병사 2-3명이 희생되었다. 한라산관음사 주변에서도 관음사 외곽지역에 있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유격대와 2연대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 2연대가 수류탄을 던지며 공격해 유격대를 격퇴시켰다.²⁶³⁾

제주4·3사건 시기 제주도에 부임한 지휘관들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일본군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일본군에서의 경험은 제주도에 부임받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육사8기 특별-3반 출신으로 2연대 1중대 소대장 출신 문병태는 1949년 3월 5일 졸업 및 임관과 함께 제주도로 부임한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원래 갈 곳이 아니었는데 일본군 경력이 있어서 임관 직후 바로 작전에 투입될 수 밖에 없었

260) 최갑석은 2연대 병사들이 제주도에서 30쌍 정도 결혼했다고 한다. 그는 이에 대해 “그만큼 우리 2연대는 제주도민과 동고동락해 온 부대로 제주도민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고, 그 징표가 바로 현지 결혼이라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계홍 정리, 『최갑석 장군 이야기-장군이 된 이등병』, pp.104-106, 114. 그러나 이처럼 많은 수의 2연대 병사들이 제주여성들과 결혼했다는 자료는 없다.

261) 이동준 증언, 1966. 5. 20,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129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p.316-318.

262) 이주홍 증언, 1965. 12. 9,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면담사료 110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토벌작전사』, p.334.

263) 이동준 증언, 2001. 3. 27,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다”고 말하였다. 일제 강점기 시절 지원병으로 태평양전쟁 등에 참전했던 일본군 경력은 제주도 진압에서 주요하게 활용되었던 것이다.²⁶⁴⁾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와 작전참모부(G-3)의 보고서를 토대로 1949년 1월 5일부터 5·10재선거가 끝난 5월 13일까지 ‘유격대’나 ‘폭도’로 분류된 사살자만 1,262명이고, 포로로 붙잡힌 제주도민도 2,523명에 이른다. 1월 17일에는 제주 4·3사건 최대의 비극인 이른바 ‘북촌리 학살사건’²⁶⁵⁾이 일어났다. 2월 20일에는 제주읍 도두리에서 민보단에 의해 ‘반도’라고 규정된 76명이 집단학살됐는데, 이 가운데는 중학생 나이의 소년들과 여성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 한 미군사고문단은 이를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민보단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라고만 논평하였다.²⁶⁶⁾

이승만은 1월 2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시하지만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²⁶⁷⁾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전남지방에서 ‘가혹한’ 방법으로 ‘빨갱이’들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호로위츠가 말한 “국가기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제노사이드라고 정의하면, 이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제노사이드’라 할 것이다.

2연대의 공격은 2월 4일²⁶⁸⁾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나타났는데, 해군 함정은 37

264) 문병태 증언, 2001. 11. 9.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265) 북촌리 학살사건은 1949년 1월 17일 제2연대 일부 병력이 유격대의 기습으로 2명의 군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군인들이 북촌리 마을을 덮쳐 이날 하루동안 300여명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300여채의 주택을 방화한 사건이다. 당시 대대장 차량 운전원으로 차출돼 현장에서 참모회의를 목격한 김병석은 “한 장교가 ‘군인들 대반이 적을 사살한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니 각 부대별로 주민들을 끌고가 처형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뒤 집단학살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였다. 김병석(1930년생) 구술채록, 2005. 11. 5, 2006. 8. 10, 2006. 12. 20; 북촌리 학살사건에서는 남녀노소가 모두 피해자였으나, 특히 아동들의 피해는 주목할 하다. 북촌리의 희생자 462명 가운데 15살 이하 아동 희생자는 전체 희생자의 18.4%인 85명이다. 북촌초등학교 재학생 200여명 가운데 졸업 2개월을 앞둔 6학년생 60여명은 졸업을 할 수 없었고, 70여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해 졸업했으며, 150여명은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재학생 10여명이 학살사건 당시 희생되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갑장들 그때 돌아가신 분 많지요. 완전히 대가 끊어진 집안은 친족들이 제사를 하지요. 정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남의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6학년까지 해봐야 50명도 안 됐을 거예요.”(고윤진(1940년생)구술채록, 2006. 8. 31). 허영선, 『제주43시기 아동학살 연구-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6, pp.25-29.

26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3 March 1949.

267) 제12회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4, p.17에서 재인용)

2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는 이 날짜에 대해 1월 4일이라고 하고 있으나, 제주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는 이 날짜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2월 4일의 육해공 합동작전과 혼동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 또한 이승만의 제주도 토벌과 관련한 각종 지시사항이 있었던 시점과 비교할 때 2월 4일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312.

mm포로 사격을 가했고, 공군은 L-4, L-5기로 수류탄과 폭탄을 투하하였다.²⁶⁹⁾ 이에 앞서 공군은 1월 24일 제주도 사태 진압차 출동해 지상부대간의 긴급연락, 뼈라살포, 적정 정찰, 지휘관 운송 등을 담당하면서 4월 14일까지 활동하였다.²⁷⁰⁾

군사고문단 보급고문관 우스터스(P.C. Woosters) 중령은 로버츠 준장에게 2월 10일 2연대에 대한 시찰보고를 하면서 “연락기가 전단살포와 함께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무차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⁷¹⁾ 우스터스 중령은 또 군·경의 주민에 대한 우월적 태도는 주민들을 자극해 폭도활동에 가담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이고, 재판없이 주민들을 처형함으로써 주민들을 자극한다고 보고하였다.

1949년 3월 2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창설돼 사령관에 유재홍 대령이, 참모장에는 2연대장 함병선 중령이 각각 임명되었다. 유재홍은 기존 제주도에 주둔하던 2연대와 유격대대 병력 외에 제주도 경찰과 응원경찰, 우익청년단 등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유재홍의 작전 개념은 ‘완전포위개념’이었다. 그는 직접 연락기를 타고 한라산 상공을 비행하면서 작전명령을 하달하다가 추락했으나 비행기가 나무에 걸린 덕분에 조종사와 함께 탈출해 귀환하기도 하였다.²⁷²⁾

이 시기 ‘폭도’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제주도민은 공식집계만 보더라도 3월의 경우 500여명에 이르렀다. 2연대의 토벌작전은 학살면에서 제9연대에 뒤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승만은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은 제주도와 전남 등지를 철저히 소탕하라고 또다시 지시하였다.²⁷³⁾ 이범석은 1949년 3월 국회에서 1단계 지형지물 숙지와 비민분리, 2단계 내륙지역으로부터의 축출, 3단계 추격 섬멸전이라는 대게릴라전의 정책을 설명하였다.²⁷⁴⁾

『뉴욕타임즈』는 3월 15일자 ‘한국에서 반란군 추적 개시돼’라는 존스톤(Richard J. H. Johnston)의 기사를 통해 한국군의 제주도 토벌 상황을 전하였다.

2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해방과 건군』, p.445.

270) 공군본부 정훈감실, 『공군사 제1집 - 自1949년 10월 1일 至1953년 7월 27일』 (서울: 동실, 1962), pp.64, 444.

271) 군사고문단 보급고문관 우스터스 중령이 군사고문단장에게, 보급고문관의 제주도 제2연대 시찰보고, 1949년 2월 10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8, pp.109-110에서 재인용).

272) 전부일(2연대 1대대장) 증언, 2001. 2. 20,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유재홍은 물장오리에 있던 2연대 3대대 10중대에 작전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추락하였다. 경비행기가 추락하자 2연대 2대대 소대장 이동준은 구출명령을 받고 출동해 유 사령관과 조종사가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고 구출했다가 말하였다. 하상도(2연대 3대대 10중대장) 증언, 2001. 9. 25; 이동준(2연대 2대대 소대장) 증언, 2001. 3. 27,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273) 제26회 국무회의록, 1949년 3월 8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4, p.23.

274) 『국회속기록』 제2회 제56호, 1949. 3. 7.

이승만 대통령은 13일 육군 지휘관들에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명령에 따라 마을을 방화하고, 시골에서 식량을 약탈하는 반란군들을 체포하거나 소탕하라고 명령하였다.……정부 소식통은 14일 반란행위로 제주도가 마비됐고, 25만여명 대부분을 내륙지방에서 해안마을로 강제이주시켰다고 말하였다. 정부 대변인은 지난해 여름 이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은 제주도민 숫자가 1만5,000여명이라고 말하였다. 1만여채의 가옥은 방화로 파괴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골롬반 수도회의 스위니(Austin Sweeney) 신부는 13일 서울에 도착한 서한을 통해 제주도 인구 대다수가 기아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하루에 감자 1개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격대 소탕을 지도하기 위해 3월 10일 내무장관 신성모와 함께 제주도에 파견됐던 국무총리 이범석은 “제주도의 식량문제가 그렇게 긴박하지 않은 것을 느꼈다”며 굶주림에 허덕이는 제주도 현지 실정과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였다.²⁷⁵⁾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중앙의 고위관리들과 제주도민들간의 물리적 거리감만큼이나 상황인식에 대한 거리감의 차이였다. 제주도민들에 대한 고난과 약탈은 군·경의 과잉진압으로 증가돼왔다.²⁷⁶⁾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의 창설 이후 3월 25일 무렵까지 유격대에 대한 사면계획을 실시한 사령부는 3월 25일 이후 강도 높은 소탕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²⁷⁷⁾ 이미 그 이전부터 강력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곳곳에서 유격대와 토벌부대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1948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선무공작과 사면계획으로 귀순한 주민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미군 고문관들의 지적처럼 적법한 절차가 없거나 형식적 재판절차만을 거친 채 다른 지방 형무소로 이송돼 가혹한 수형생활을 겪어야 하였다.²⁷⁸⁾ 1949년 독립대대 소속으로 제주에 왔던 한 소대장은 “제주경찰서 유치장을 들여다보니 비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인지 수용된 사람들의 얼굴이 뿌옇게 뒤틀렸다”며 “움직이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먹지도 못한 것 같았다. 빨갱이란게 무엇인지, 이들 중에는 주모자도 있겠지만 아마 양민이 대부분일 것이다. 경찰서 유치장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275) 『동광신문』, 1949. 3. 15.

276) WEEKA No. 64, 19 March 1949.

27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092, 21 March 1949.

278) 적법한 재판절차 없거나 형식적 재판을 통해 수형자들의 생활상은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인들』 (서울: 역사비평, 2002).

간혀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하였다.²⁷⁹⁾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각 형무소별로 분산 수감되어 있던 이들은 대부분 학살되거나 타의에 의해 석방됐는가 하면 행방불명되었다.²⁸⁰⁾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는 민보단과 함께 제주섬을 완전히 횡단하는 선을 형성하고, 산을 빗질하듯 쓸어내려 반도들을 섬의 반대 쪽에 주둔하는 경찰 쪽으로 몰아가는 계획²⁸¹⁾인 이른바 ‘토끼몰이식’ 작전을 구사했으며, 이는 지리산지구 토벌작전에서도 사용되었다.²⁸²⁾

이승만의 제주도 방문을 8일 앞둔 1949년 4월 1일 현재 제주도내의 군·경 토벌대 숫자는 군 2,622명, 경찰 1,700명, 민보단 5만여명이었다.²⁸³⁾ 인구 28만여명의 땅에 5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토벌활동에 나섰던 것이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벌어진 9연대와 2연대의 토벌에 이어 1949년 3월 설치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산악소탕전’과 ‘귀순공작’의 결과 유격대 세력은 거의 궤멸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4월 7일에는 사회부장관 이윤영과 국방장관 신성모가 이승만의 특명으로 제주도의 민심을 수습과 ‘잔존 폭도를 섬멸’하기 위해 내려왔다.²⁸⁴⁾ 이들의 잇단 방문은 5·10선거를 목전에 둔 이승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제주도를 진압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의 방문을 앞두고 소탕작전은 막바지 절정에 이르렀다. 주한미대사관은 “3월에 시작된 전면적인 소탕작전은 4월 말 사실상 막을 내렸고 대부분의 반란군과 동조자들이 죽거나 체포됐고 사상을 전향하였다”고 국무성에 보고하였다.²⁸⁵⁾

4월 9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이승만은 “게릴라에 대한 정력적이고 성공적인 진압”을 한 유재홍 대령과 경찰, 민간기관을 격려하였다. 이승만은 이날 제주도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정부와 미국인은 항상 제주도에 대해 근심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협조처(ECA)의 원조는 한국의 다른 지역뿐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훨씬 발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⁶⁾

279) 허균(제1독립대대 소대장) 증언, 2001. 9. 27,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280) 이들 수형인 가운데는 실제로 유격대 활동을 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중산간 지대에서 피신생활을 하다가 귀순한 사람으로서, 이들 수형인 학살도 민간인 학살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p.226.

28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282) 공국진, 『선곡 공국진 회고록 - 한 노병의 애환』.

28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284) 『국도신문』, 1949. 4. 8; 『자유신문』, 1949. 4. 10.

285) Airgram-60, Everett F. Drumright,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2, 1949.

286) Despatch No. 211, Inclosure No. 1,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 President Rhee's visit to Cheju and military aid for Korea, Participants: President Rhee, Mr. Muccio, April 11, 1949,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9 April, 1949; 『자유신문』, 1949. 4. 12.*

선거를 6일 앞둔 5월 4일에는 주한미대사관 참사관 드럼라이트와 대사관 해군 무관 가블러(Paul Garbler) 중위가 3일 일정으로 제주도 방문하였다. 드럼라이트의 방문목적은 한국군과 폭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의 장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드럼라이트는 3일 동안 머물면서 고문단, 제주도 주둔 한국군 지휘관, 제주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²⁸⁷⁾

4월 9일 후보자 등록 및 유권자 등록을 마감한 제주도 북제주군 5·10재선거에 갑 선거구가 전체 유권자 3만8230명 가운데 3만6387명이 등록해 95%의 등록율을 보였고, 을 선거구는 유권자 2만6649명 가운데 2만5847명이 등록해 96.5%의 등록율을 보였다.²⁸⁸⁾ 5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친정부’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됐는데, 갑구는 독축 소속의 홍순녕, 을구는 대한청년단 소속의 양병직이 당선되었다.²⁸⁹⁾

제주도의 5·10 재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국회 의석수 200석을 모두 채우고, 남한 내부의 소요를 종식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뿐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제주도 5·10재선거의 성공으로 5·10선거가 실시된 지 만 1년 만에 완전한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될 수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공산주의자나 폭도로 몰린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학살이 수반되었다.²⁹⁰⁾

유엔한국대표 조병옥은 5월 1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극동의 민주주의 보루로서 투쟁하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제주도 사건을 예

287) 드럼라이트, 제목: 제주도 방문, 1949년 5월 1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p.111.

288) 『경향신문』, 1949. 4. 28.

289) 북제주군 갑구에서는 홍순녕 9664표, 함상훈 8700표, 김인선 7840표, 김시학 3752표, 양기진 2208표, 문대유 2048표를 얻었다. 『동광신문』, 1949. 5. 14; 북제주군 을구에서는 양병직 5766표, 양제박 4764표 『국도신문』, 1949. 5. 14; Despatch No. 346, *Subj: Political Summary for May, 1949*,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13, 1949.

290)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5·10재선거를 시찰한 UNCOK는 5월 17일 시찰 결과에 대한 공보 제16호 발표하였다. UNCOK의 보고서에는 제주도 소요의 원인을 첫째, 제주도가 원거리에 있고, 전략적 요충지여서 남로당이 해방후 활동거점으로 선택한 점, 둘째, 제주도의 궁핍한 경제상황이 극단주의자들의 정치적 활동에 번식장소를 제공한 점, 셋째, 강한 지방색과 정부와의 불화조성으로 인한 소요를 야기한 점, 넷째, 당국이 자발적이거나 강요에 의해 ‘반도’들과 도피한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취한 조치는 ‘반도’ 지도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보다 큰 세력을 규합하는 기회를 제공한 점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처음에는 반도들과 경찰간의 싸움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주민뿐 아니라 군대도 휩쓸려 들어갔다”며 “양쪽이 파괴했고, 잔인성을 노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어디에도 토벌대의 무차별적인 작전의 오류와 이에 따른 제주도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언급한 대목은 없다. 정부가 제주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Despatch No. 358, Inclosure No. 1, U.N. Document, A/AC.26/SC.2/15, (Extract) UNCOK, Sub-Committee II, *Subj: Report on Trips to the Provinces Affected by Recent Disturbances*, 9 June 1949, *Subj: Transmitting Excerpt from UNCOK Report on Visit to Cheju Island*,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17, 1949.

로 들며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였다.²⁹¹⁾

국방부는 6월 9일 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6월 7일 사살돼 제주도 소탕전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발표하였다.²⁹²⁾ 5·10재선거가 끝나고 제주4·3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탄압은 가혹하였다. 10월 2일에는 이승만의 승인에 따라 제주도에서 249명이 군법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집단처형되었다.²⁹³⁾ 이와 함께 군·경의 제주도민에 대한 불법행위도 1949년 11월 하순이 되어서도 여전하였다. 제주도의 경찰력 1300여명 가운데 서북청년회원 300여명이 경찰에 있으며, 200여명은 사업을 하거나 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했는데 제주도민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부지사와 군사령관 또한 북한 출신으로 이들에게 동정적이었다. 2연대는 어민들이 잡는 어획고 가운데 일정량을 강제징수하였다.²⁹⁴⁾

제주도를 시찰한 군사고문단 소속 작전참모부 부고문관 피쉬그룬드 대위는 군사고문단장에게 한-미 경제협조처팀의 제주도 감찰, 서청의 철수, 군·경 고문관의 정기 방문, 특무대와 헌병인원의 축소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초순에는 김용하 지사가 미대사관 관리들에게 서청단원들이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군 장교들이 소나 말들을 육지로 수출하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군 요원들이 어획량의 3분의 1을 사적 용도로 징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²⁹⁵⁾ 11월 15일 비리혐의로 경질돼 김충희로 교체되었다.²⁹⁶⁾

중산간 마을이 황폐화돼 제주도민들이 당면한 큰 문제는 굶주림이었다. 제주도 지사 김충희는 “보릿고개를 앞둔 도민의 생활은 극도로 곤란하여 10만 가까운

291) 『연합신문』, 1949. 5. 18.

292) 『동아일보』, 1949. 6. 10; 이덕구의 시신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덕구의 외조카 강실은 당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덕구의 사체가 하루동안 제주경찰서 정문 앞에 전시하였다가 화장되었다고 말하였다.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334; 그러나 당시 이덕구의 시체는 ‘민란의 두목’이 어떠한 최후를 맞는지 알리기 위해 며칠 동안 전시되었고, 나중에는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한 할머니가 동료 2명과 함께 불려나가 그의 효수된 머리를 며칠 동안 전봇대에 매달고 내리는 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겨레』, 1990. 4. 6.

293) JOINT WEEKA No. 17, 7 Oct 1949; 제1독립대대장 소대장이었던 허균은 “우리 중대가 제주비행장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나는 어느날 제주비행장의 별관에 호를 크게 2개를 파고 반도들을 사형 집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한 200-300여명 정도가 눈을 가린 채 총살되었는데, 이들을 묻었던 무덤이 나중에 얼마쯤 내려앉았던 기억이 난다. 현장지휘는 헌병장교 7기 후반인 윤기열이다. 그때는 참으로 옥석을 가리기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허균 증언, 2001. 9. 27, 제주4·3위원회, 『군관계자 증언채록-1』.

294) 2연대 1대대장이었던 진부일은 “서북청년단과 우리 군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육지에서 간 사람들이라 해산물 등을 육지로 빼내고, 공연히 전과를 부풀려서 보고도 하고 말이야!”고 하고 말하였다. 진부일 증언, 2001. 2. 20, 위의 책.

295) Despatch No. 749, Enclosure No. 1, Subj: Tour of Chejudo by Capt. Fischgrund, 22 Nov, 1949, Subj: Transmitting report by Captain Fischgrund(KMAG) on trip to Cheju Island,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28, 1949.

296) A-376,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18, 1949.

기아자는 의식주가 전부 없다”고 하소연하였다.²⁹⁷⁾

컬럼니스트 설리번(Walter Sullivan)은 남한내 게릴라 작전과 관련해 “남한의 많은 지역이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대미문의 테러 공포로 어두워졌다. 경찰, 농민, 게릴라들의 생명에 똑같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경찰은 게릴라들의 습격으로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 정부군에 체포된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로 끌려가 재판없이 총살되고, 반면교사(object lesson)용으로 나무에 묶인다. 농민이 어느 한쪽과 협력하면, 그는 그 반대쪽의 손으로 폭력적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다. 협력하지 않으면, 그는 혐의자로 간주되고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보도하였다.²⁹⁸⁾

주한미대사관은 1950년 8월 13일 제주도의 신부가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날뛰기 시작하였다고 보고²⁹⁹⁾하자 제주도 상황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해군무관 세이퍼트(John P. Seifert), 3등 서기관 맥도날드(Donald S. Macdonald), 부영사로우(Philip C. Rowe) 등으로 팀을 구성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국장, 해병대 지휘관, 경찰 간부들을 면담해 파악한 제주도 상황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³⁰⁰⁾ 미대사관은 향후 제주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면서 제주도에 있는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한 미고문관의 파견과 전투경찰대의 창설, 해병대의 육지 철수 등을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건의가 있는지 며칠 뒤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는 8월 24일 한라산 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전투신선대를 만들어 작전에 나섰으며,³⁰¹⁾ 해병대 사령부도 1950년 8월 31일 육지로 철수하였다.³⁰²⁾ 그 뒤 1951년 1월 14일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부대가 제주로 파견돼 경찰 1개 소대를 지원받아 4개 소대로 혼합편성해 토벌작전을 벌였다. 이들의 제주도 방문 때 제주도경찰국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8월 중순까지 보도연맹원 700여명을 검거하였다고 대사관 관리들에게 밝혔다. 경찰은 또 잠재적인 파괴분자들로 보도연맹원 2만7천여명과 4·3 당시 공산주의자로 죽은 친척 5만여명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³⁰³⁾

297) 『한성일보』, 1950. 4. 18.

298) *New York Times*, 1950. 3. 6.

299) Everett F. Drumright to John M. Allison, Department of State, Aug 29, 1950.

300)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P. Seifert, Naval Attache, Donald S. Macdonald, Second Secretary of Embassy, Philip C. Rowe, Vice Consul, Aug 17, 1950 (이하 John P. Seifert Report); 이 보고서는 한국 당국에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해 국무총리 서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냈고, 워커(Walker) 장군에게도 보냈다. Everett F. Drumright to John M. Allison, Department of State, Aug 29, 1950.

301) 『제주신보』, 1950. 8. 26.

302) 『제주신보』, 1950. 9. 6.

303) John P. Seifert Report;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정부는 1953년 1월 29일 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를 투입해 막바지 토벌 작전을 벌였다. 제주도경찰국이 한라산 금족령(禁足令)을 해제한 것은 1954년 9월 21일이었다.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전체 희생자는 2만5천-3만여명으로 추정되며,³⁰⁴⁾ 제주4·3사건의 영향은 사건 이후 제주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³⁰⁵⁾

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최소 4934명 이상의 국민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소집·연행·구금된 뒤 집단학살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경찰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각지에서 소집해 연행한 뒤 2일-3개월씩 유치장과 창고 등에 구금했고, 좌익 활동 경력이 많아 '갑(A)등급'으로 분류된 이들은 대부분 같은해 7월 초 집단학살됐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각 군 단위에서 100-1000여명이 살해된 것에 비춰 10만-20만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겨레』, 2009. 11. 27.

304)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30일까지 제주4·3위원회가 집계한 희생자는 1만4028명으로, 사망자 1만 715명,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으로 분류된다.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p.366-371; 그러나 희생자 추가 접수를 받은 결과 2006년 11월 현재 남자 1만1280명, 여자 3093명 등 모두 1만437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사망 1만663명(74.2%), 행방불명 3534명(24.6%), 후유장애자 176명(1.3%)로 나타났고, 10살 이하는 813명(5.8%)였다. 허영선, 『제주4·3시기 아동학살연구』, p.18;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이재민의 발생은 공식기관인 제주도청의 조사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피해세대수 1만5023세대 6만8532명¹⁾-3만9285가구 이재민수 9만1732명으로 다양하며, 제주4·3사건이 일어난지 15년이 지난 1962년까지 원주지로 복귀하지 않은 이재민은 7704세대 4만 419명이었다. 제주도, 『제주도세요람』(1953);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517.

305) 제주도 주재 미공보원은 제주도의 행정과 경제, 문화면에 끼친 제주4·3사건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 행정면: 1948년의 4·3사건에 앞서 1947년의 3·1사건, 또 1948년의 2·7사건의 좌익적 폭동 사건으로 말미암아 4·3사건이 군경의 대량입대로 인한 진압이 완료된 1949년 4월까지 약 2개년간 동기의 선악을 불문하고 폭도의 토벌을 최고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객관적 상태와 이를 호소해서라도 강요하게 된 군경의 행동들이 완전히 지방행정을 마비케 했으며, 더욱이 도청의 소실 및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부로 하여금 제주도는 빨갱이 소굴이라는 선입관을 갖게 한 것이 제주도의 여론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따라서 행정부문 담당자들의 건설적인 의견도 상실했음은 물론 결과로는 유위유능한 인사들이 행정면의 담당자이거나의 협력자이길 원치 않게까지 되었음…….

(2) 경제면: 1947년 3월부터 1949년 4월까지의 약 2개년간, 산간에 숨은 폭도와 의 교통을 끊기 위해 해안선으로 4킬로미터 이외의 지점의 농민들은 강제로 집과 밭을 버려 해안지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폭도 발견에 도움하고자 수목은 거의 밀림지대를 제외하고, 벌채되었고 폭도의 선박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절 대소 어선의 출어는 금지되었었다. 이것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재원인 농업과 어업을 완전히 봉쇄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제주도민의 81%가 농원(農原)에서 식량을 얻고 임업 및 어업으로써 현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들의 약 2개년간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그 위의 군경의 군림하는 무보수적 노동 내지 임무를 완수하였는가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기적이라 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제주도민의 강인한 생활력과 제주도 유사 이해 약 2천년 동안의 의지와 의 교통없이 자연과 싸우며 자급자족을 강요된 자주적 단결력을 알아야 한다…….

(3) 문화면: 군경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대건물로서는 학교 밖에 없으므로 학교는 1947년 3월부터 1949년 4월까지의 2개년 동안 폐쇄에 가까우리만치 수업을 못하였다.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제주도의 지식층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교원 중에 좌익적인 사상을 가진 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정은 앞으로도 건물없는 피난민 또는 군대 주둔 때문에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교육활동의 현황은 교사의 부족으로 부족한 자격의 교사의 출현과 대량의 교원 양성으로 인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으나 현재 초등학교 교사는 계속하여 대량 양성되어 있으므로 자연도태가 행하여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것을 막는 애로로서 시국에 따른 전선에 동원되어 출정하는 사실이 있다. 또 문맹 타파를 위한 성인 교육이 있으나 이것 역시 그 담당자에 적임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Eugene Irving Knez papers 1940s-1970s, Anthropological Archives, Smithsonian Institution, USA.

제3절 소결

1. 두 사건에서 군사적 동원과정과 민간인 학살의 일치점

1944년 12월 2일 EAM 출신 장관들이 ELAS의 해산 조치에 대한 발발로 사퇴한 상태에서 파판드레우 망명정부는 ELAS의 무장해제 및 해산에 관한 포고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 항의로 KKE를 비롯한 그리스의 좌파세력은 다음날인 12월 3일 평화집회를 열었고 이어 총파업에 들어갔다. 12월 3일 수천여명의 그리스인들은 아테네 중심지이며 그리스 정치의 심장부인 헌법광장에 모여 추축국에 맞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ELAS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려는 파판드레우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파판드레우의 하야, 친독협력자 기소, 국왕 하야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의 갑작스런 발포로 시위대 12명이 희생되었다. 다음날부터 좌파는 총파업과 함께 아테네 거리에서 사실상의 시가전에 들어갔다. 영국군은 ELAS와의 전투에 과거 친독협력부대였던 국가경비대를 보조부대로 활용하면서 ELAS를 압박해갔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비대는 12월 말 1만5천여명에서 1945년 1월 말에는 2만3천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아테네 이외의 지역에서는 EDES 등 극우단체들도 ELAS와의 전투에 합류하였다.

해방 이후 제주사회를 뒤흔들어놓은 최초의 결정적 사건은 1947년 '3·1사건'이었다. 민전 제주도위원회의 주도로 1947년 '제28주년 3·1절 제주도 기념대회'가 제주도의 정치·행정·경제의 중심부인 관덕정 광장 주변 북초등학교에서 3만여명의 제주도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관덕정 광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비이성적' 발포³⁰⁶⁾로 시위를 구경하던 초등학생 등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3월 10일부터는 남로당이 주도한 민·관 총파업이 벌어지는 등 발포 경찰관에 대한 처벌요구가 잇따랐으나 미군정은 발포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였다.

'12·3 발포사건'이 내전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3·1절 발포사건'은 4·3무장투

306) 관덕정 앞 광장에서 기마경관이 관덕정 옆에 있었던 제1구경찰서(제주경찰서)로 가려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6세 가량의 어린이가 말굽에 채였으나 이 기마경관이 그대로 가려하자 시위대를 구경하던 관람군중들이 야유를 하며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일부 군중들은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갔다. 당황한 기마경관은 군중들에 쫓기며 동료들이 있던 경찰서 쪽으로 말을 몰았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당시 관덕정 앞에는 육지에서 내려온 응원경찰이 무장을 한 채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기마경관을 쫓아 군중들이 몰려오자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제히 발포한 것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p.108-109.

쟁의 한 도화선이 되었다. 집회와 발포, 총파업은 유럽의 그리스와 동아시아의 제주도에서 2년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그리스에서 영국군의 직접 개입으로 상당한 사상자를 낸 ELAS는 결국 타협을 모색하게 되었고 1945년 2월 15일 ELAS의 무장해제와 해산, 국가건설을 위한 총선거와 국민투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르키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바르키자협정 체결은 사실상의 백색테러를 가져왔다. 협정 체결 이후 그리스 정부는 ELAS 출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에 들어갔다. 반공주의자들로 구성된 국가 경비대는 도시지역에서, 경찰은 농촌지역에서 KKE와 EAM/ELAS의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좌익인사들을 가혹하게 처리하였다. 유치장과 형무소는 이들의 수감으로 가득찼으며, 우익단체들은 테러의 선봉에 섰다.

제주에서 미군정은 총파업 이틀만인 3월 12일 미군정 경무부가 전남북 지역 경찰 300명을 제주도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제주도내 청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들어갔다. 3·1절 발포사건 이후 4월 10일까지 500여명을 검거하였다.³⁰⁷⁾ 이와 함께 제주 출신 박경훈 도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1947년 4월 7일 한독당 농림부장 출신의 극우인사인 유해진의 임명은 3·1절 발포사건으로 인한 이반되어가고 있는 제주도민의 민심에 불을 붙였다. 유해진은 4·3무장 발발 이전까지 극단적인 우익 편향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제주도민들을 좌익으로 기울게 하는 구실을 하였다.

그리스에서 극단적인 우익의 테러는 평범한 그리스인들을 좌익진영으로 몰아갔다. EAM/ELAS는 이를 바탕으로 1946년 3월 31일 총선거 직전 올림푸스산 동쪽 기슭의 리토히로 마을을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인 내전의 총성을 울렸다.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도에서 일어난 4·3무장봉기는 해방 이후 생존상황에 내몰렸던 사회경제적 상황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벌어진 좌익 탄압을 구실로 한 제주도민에 대한 경찰과 우익청년 단체원들의 고문치사사건 발생 등 가혹행위, 미군정의 실정과 극우파 유해진의 독재적 행위 등이 중층적으로 쌓여 폭발한 것이다. 4월 3일 제주도내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 12개 지서에 대한 습격을 시작으로 무장투쟁을 일으킨 유격대의 초기 공세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격대의 전술을 파악하고 경험을 쌓아간 경비대는 공세에 나섰고 이는 초토화작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토화작전은 일본군 출신의 지휘관들이 미군의 작전 자문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초토화작전의 특징은 이른바 ‘비민분리’를 위한 전략촌정책과 강제소개

307) 『제주신보』, 1947. 3. 20.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게릴라들을 대중적 지지의 근거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대게릴라전의 주요 전략이다.

그리스에서도 산간마을에 대한 미군의 요구에 따라 강제소개가 이루어졌다. 강제소개가 이루어진 그리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10%가 고향을 떠나 도시 주변으로 몰려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강제소개 뒤의 산간지역은 무인지대가 되었으며 무차별 포격이 이루어졌다.

제주에서도 초토화작전 시기 강제소개가 이루어졌다. 그리스와 제주에서 강제소개된 마을은 게릴라들이 은신하는 '적지'로 간주돼 초토화작전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민간인 대량학살을 야기하였다.

그리스와 제주도에서는 '반란군' 또는 그 지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군사법원이 설치되었고 계엄령이 실시되었다. 그리스에서는 1948년 5월 1일 법무장관 라다스의 암살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아테네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948년 10월 29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계엄령 하에서 작전을 벌인 그리스 정부군 및 경찰 보안군은 수천여명의 게릴라 동조자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정보원 혐의자들을 강제 격리하였다. 그리스의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20여일도 안된 11월 17일 이번에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대통령령 제31호로 선포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은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함위(合圍)지경으로 정하고 본령(本令)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계엄령의 선포는 제주도의 초토화작전과 이에 따른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 계엄령은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되었다. 그리스의 좌익 또는 좌익 혐의자들이 섬의 형무소에 수감돼 가혹한 생활을 견뎌야 했듯이 제주에서도 유격대 연루자 또는 동조자들이 군법회의를 통해 다른 지방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끌려간 수형자들은 상당수가 농민들이었거나 유격대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에서는 1947년 7월 1일부터 1949년 8월 1일까지 1년 동안 군법회의를 받은 사람만(일반법이나 재판 없이 추방된 사람을 제외한) 3만6920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일단 체포되기만 하면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군법회의를 받은 3만6920명 가운데 2만78명이 무혐의로 풀려난 것은 이런 체포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³⁰⁸⁾ 영장이나 명령, 재판을 받지 않은 채 수만명의 그리스인들이 섬의 수용소로 추방되었다. 제주4·3사건 당시 1948년 12월 제1차

308) Lawrence S. Wittner,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p.141

군법회의에서 871명이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이 가운데 징역 15년 이상은 464명으로 53.2%)받았고, 1949년 6월 제2차 군법회의에서는 1659명이 사형이나 징역형(이 가운데 징역 15년 이상은 891명으로 53.7%)을 받았다.³⁰⁹⁾ 또 같은 해 10월 2일 1949년 10월 2일에는 이승만의 승인에 따라 제주도에서 249명이 군법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집단학살되었다. 그러나 재판절차가 없었거나 100명 단위로 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법처리가 없었다. 양 지역에서 사건의 결과는 민간인 학살과 총체적 파괴를 수반하였다. 그리스와 남한/제주도에서의 학살은 쿠퍼의 주장처럼 이데올로기에 의한 순응을 강요하는 신생국가 체제에서 일어났으며, 로저 스미스가 언급하는 바 희생자들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비인간적 존재로 규정되었고, 이는 민간인 대량학살로 귀결되었다.

<표 5-1> 두 사건에서 군사적 동원과 민간인 학살의 일치점

| | 비교 요소 | 그리스 | 남한/제주 |
|------------|---|-------------------|-------------------|
| 군사적 동원 | A: 군사적 동원과정 a1: 비무장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표 및 총과업 a2: 백색테러 a3: 좌익의 초기 공세와 군경 및 우익단체의 무차별 보복 a4: 미군의 지원과 정부군의 공세 | A: a1, a2, a3, a4 | A: a1, a2, a3, a4 |
| 초토화 작전의 전개 | B: 초토화작전 b1: 비민분리 명목의 주민 강제소개 b2: 무인지대의 설정과 무차별 포격 b3: 계엄령 선포와 민간인 학살 | B: b1, b2, b3 | B: b1, b2, b3 |
| 결과 | C: 민간인 학살과 총체적 파괴 | C | C |

2. 두 사건에서 군사적 동원과정과 민간인 학살 차이점

그리스와 제주도의 군사적 동원과정에서 많은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점 또한 크다. 그리스의 무장투쟁 주체세력인 ELAS는 이미 독일 점령 당시부터 추축국 군대를 상대로 민족해방투쟁을 벌였으며, 영국군의 지원으로 많은 무기가 있었다. 이들은 점령 시기부터 전투 경험과 영국군의 도움으로 게릴라 전술을 습득하였다. 또 점령 당시부터 그리스 산간지대에 '자유 그리스'라는 해방구를 만들어 추축국 군대가 접근을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무장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 해방 직후 이들은 아테네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강고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1944년 12월 봉기 이후 각종 중화기를 동원해 영국군과 시가전 형태의 전투를 벌일 정도로

309)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pp.449-461.

EAM/ELAS의 무장력과 조직력은 강하였다.

반면 제주4·3 무장봉기 당시 제주도 인민유격대의 무장력은 절대적으로 빈약하였으며, 기술도 상대적으로 낮았고 규모 또한 적었다.

그리스의 EAM/ELAS, 그리고 훗날 민주군대는 인근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지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훈련기지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그리스내전에서 민주군대가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군대에 지원을 하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스탈린과 불화를 빚으면서 1949년 7월 국경선을 폐쇄하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치료를 받던 4천여명의 게릴라들을 고립시키자 민주군대의 전쟁수행 능력은 크게 떨어졌다.

제주도의 경우 미국 관리들과 남한 관리들이 북한 및 소련과의 연계설을 되풀이해서 주장했으나 북한이나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사건이 발발한 제주도는 미군과 해안경비대가 제주도 연안을 봉쇄하면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무장투쟁세력이 험준한 산악지역을 근거지로 확보하고 물자를 보급받아 지속적인 투쟁이 가능했으나 제주에서는 유격대가 산간지대의 근거지 확보가 어려웠다. 지역이 상대적으로 작고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근거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군에 쫓겨 이동해야 하였다.

정부군의 동원도 양 지역에서는 달랐다. 그리스에서는 사실상의 전쟁이나 다름없는 전투에서 민주군대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군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육·해·공군만이 아니라 자위대 등도 동원되었다. 제주도에서는 4·3무장투쟁 초기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유격대가 초도화작전을 거치면서 크게 약화되었으며 정부는 일부 병력의 지속적인 파견을 통해 제주도 사태를 진압하였다.

작전의 전개과정을 보면 그리스의 경우는 민주군대가 강력한 무장력과 함께 게릴라 전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군은 민주군대가 게릴라전에서 재래전으로 전술을 바꾸기전까지 수많은 포격을 퍼부었으나 좀처럼 승리의 전망이 밝지 못하였다. 그러나 민주군대를 이끌던 마르코스가 자카리아디스로 바뀌면서 민주군대는 재래전으로 전술을 바꾸었고 유고슬라비아의 국경선 폐쇄와 함께 치명타를 입었다. 반면 제주도는 정부군의 일방적 공세 속에서 유격대는 기습과 매복작전을 반복하였으나 절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빈약한 무기와 조직력은 정부군의 그것과는 달랐다. 유격대는 애초 게릴라전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훈련도 부족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게릴라전 전술을 습득하였고 정부군을 괴롭혔지만 그 숫자는 미미하였다. 유격대의 세력이 이미 와해된 상태에서 1949년 6월

7일 유격대 사령관 이덕구의 사살은 사실상 무장투쟁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스에서 좌익 및 좌익 혐의자들은 마크로니소스섬 등 섬으로 유배되었었다. 그들은 그곳의 수용소에서 고문과 강제 노동 등 가혹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하였다. 제주에서는 좌익이건 좌익으로 분류된 민간인이건 군법으로 다른 지방 형무소로 간 수형인들이 가혹한 조건에 처해졌다. 한 수형인은 당시 동료가 죽어도 죽은 수형인의 식사를 배급받기 위해서 즉시 보고를 하지 않고 시신과 함께 지냈다고 말하였다.³¹⁰⁾

<표 5-2> 두 사건에서 군사적 동원과정과 민간인 학살의 차이점

| | 비교 요소 | 그리스 | 남한/제주도 |
|------------|-------------|-------------------------|------------------------------|
| 군사적 동원 | 무장투쟁세력의 무장력 | 무장투쟁세력의 강력한 조직력과 무장력 | 무장투쟁세력의 빈약한 조직력과 무장력 |
| | 외부세력의 지원 | 인근 국가의 무장투쟁세력에 대한 지원 | 무장투쟁세력에 대한 비지원 |
| | 무장투쟁세력의 근거지 | 무장투쟁세력의 강력한 산악지역 근거지 확보 | 무장투쟁세력의 산간지대 근거지 빈약 |
| 초토화 작전의 전개 | 정부군 동원수준 | 정부군의 전면적 동원과 총공세 | 정부군의 부분 동원 |
| | 정부군 공세 | 민주군대의 상대적 강함과 정부군과의 공방 | 유격대의 상대적 취약과 정부군의 일방적 공세 |
| | 유형과 형무소 | 좌익 및 좌익혐의자들에 대한 섬으로의 유형 | 좌익 및 좌익혐의자들에 대한 다른 지방 형무소 수감 |

310) 양경찬 증언,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pp.169-170.

제6장 결론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체제 형성기 국가건설과정에서 촉발된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이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논리와 구조 속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의 인구의 10%에 가까운 2만5천-3만여명이 희생된 이유를 국제적 맥락에서 규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체제 형성기 신생 독립 국가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국가건설이었다. 종전 이후 세계는 이전과 다른 국제질서를 요구하였고, 국가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은 미-소의 대결 구도 속에서 미국의 대소봉쇄전략이 구현된 사건들이었다.

양 지역에서는 우익의 백색테러와 이에 반발한 좌익의 무장봉기, 무장투쟁 발발 이후 초기 정부군의 실패와 함께 미군의 직간접 지원을 받은 정부군의 군사작전까지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이미 제주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기지화를 두고 미-소 대표들의 설전이 벌어졌으며, 미국 의회에서 제주4·3사건의 거론, 상원의 원과 트루먼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트루먼이 “제주도에서의 공산반란으로 1만 5천여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살육되었다”는 내용의 제주4·3사건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고립주의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개입주의 대외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트루먼 독트린의 최초의 적용지역은 그리스였다. 트루먼 독트린은 그리스와 터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응한 전 세계적인 봉쇄정책이었다.¹⁾ 그리스내전은 종전 이후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봉쇄정책의 시험무대로서 미국의 개입이 있었던 국제적 사건이었다. 또한 그리스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외세의 개입과 함께 반공-우익 정치세력에 의한 테러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해방 직후 ‘점화하기만 하면 즉각 폭발할 화약통’과 같았던 남한사회에서 미국의 대한정책 목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19세기 말부터 전략적 요충지로서 열강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1) Alex P. Schmid, 『1945년 이후의 소련의 군사개입』, p.110.

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은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라고 인식한 주한미군의 시각이나 제주4·3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미국 관리들이 국무부에 보낸 문서들은 제주도를 소련의 전초기지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태도는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구도로서 공산주의자들의 거점인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이승만 정권과 반공-우익세력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제주도민들은 국가건설과정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냉전체제 형성기의 그리스와 남한/제주도의 국가건설은 툴리의 말처럼 “특정 영토내에서 경쟁자와 도전자들을 공격하고 제압하는 과정”이었다. 툴리의 동원모델에 따르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은 외부(외세나 극우단체)의 억압에 대한 공동의 불이익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정체의식이 형성되고, 공동의 정체성과 이들을 통일시키기 위한 조직이 형성되었다. 이어 외세나 극우단체에 대한 반발의 역작용으로 동원이 이뤄졌으며 공동의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총파업과 무장투쟁이라는 집단행동을 가져왔다. 결국 폭력은 집단행동을 만들었다. 무장봉기를 감행해야 할 시기를 식민지 민중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억압이 자행되는 시기로 인식하였으며, 억압이 민족의식을 촉진한다는 파농의 주장처럼,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은 억압이 공동의 정체성을 촉진시켰고 폭력은 대항폭력을 불러일으켰다.

제노사이드를 “국가기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호로위츠의 정의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거나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쿠퍼의 분류처럼, 양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국가기구에 의해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으면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동조자 또는 혐의자 등의 이름으로 학살되었다.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에서 정부군은 게릴라들을 진압하기 위해 대게릴라 정책을 취하였다. 그리스에서는 미군의 자문에 따른 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한 강제소개가 이루어졌다. 대게릴라 전략을 사용한 그리스 정부군은 강제소개정책을 통해 산간지역을 무인지대나 자유발포지대로 만들었고 국가간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네이팜탄 등 미군의 지원을 받아 각종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개되지 못한 그리스인들은 정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하였으며, 많은 민간인들은 좌익이나 좌익 동조자, 혐의자라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민간인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는 오히려 민간인들을 게릴라 근거지인 산간지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스에서의 게엄령 선포는 정보검열과 이동제한 등

무제한적인 시민권의 박탈을 가져왔다. 군사법원과 계엄령, 산간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포격은 게릴라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학살을 가져왔다. 그리스내전에서 게릴라들을 토벌했던 정부군과 우익단체의 주류는 점령 당시 추축국을 상대로 민족해방투쟁세력을 탄압했던 친독협력부대와 우익단체 출신들이었다.

제주도에서의 대게릴라전은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의 도구로서 남한을 반공보루로 내세우려는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함께 미군의 개입, 그리고 외부세계와의 격리가 가능했던 ‘섬’이라는 특수성이 합쳐져 민간인 대량학살이 증폭되었다. 제주 4·3사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진압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모두 일본군 출신이었다. 제주 4·3사건의 토벌작전을 지휘하였던 박진경, 최경록, 송요찬, 함병선, 유재홍 등은 일본군 지원병 또는 장교 출신들이었다. 제주도의 토벌작전의 특징은 대게릴라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철저한 섬멸전이었고 제주도는 ‘폭력의 시험무대’였으며, 이는 민간인 학살로 귀결되었다.

이들은 마오쩌둥의 유격전의 원칙인 물과 물고기 관계에서 물을 빼는 배수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비민분리’라는 구호 아래 대량학살이 자행되었다. 더욱이 제주도에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한 9연대의 정책은 배수작전만이 아니라 ‘독약 풀어내기’라는 논리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제주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일어난 4·3사건과 그리스라는 국가적 차원의 내전은 공간적,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차원의 연구와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준다. 제주 4·3사건과 그리스내전은 여러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논리와 구조 속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개입은 냉전체제 형성기 대소봉쇄정책을 위한 개입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제주 4·3사건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그리스내전과 제주 4·3사건은 양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남한과 그리스에서는 사건 이후 수십년 동안 좌파와 우파가 공식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은 사라졌다. 사건 뒤 남한과 그리스는 반공국가화 하였으며 내전 개입 이후 미국은 1974년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그리스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왜곡시켰고 이의 피해는 그리스인들에게 돌아갔다. 제주 4·3사건은 한국전쟁 연구자들에게 한국전쟁의 한 기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한국전쟁은 분단의 고착화와 군부독재를 가져왔다. 연좌제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 및 사회구조의 부정적 변형은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갔다. 1962년 12월 제주도에서 주한미대사관 관리들

과 면담한 제주도지사 김영관의 발언에서도 연좌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건이 남긴 유산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식민·점령 시기보다 더욱 가공할 공포를 체험을 통해 체득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내면화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에서는 경찰과 보안기관에 의해 범주화되고 분류된 시민들의 파일은 평생 뒤따랐다. 어떤 사람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심지어 가내수공업식의 일에도 취업할 수 없었으며 이주도 금지되었다. 1974년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이주는 경찰로부터 시각 교정 증명서를 얻은 뒤에만 가능하였다. 이 증명서가 없이는 취직뿐만 아니라 결혼, 자녀들의 세례, 교회 공동묘지 매장 등도 ‘정치적 교정’ 증서를 만들지 않는 한 거부되었다.²⁾

양 지역에서 내전 이후 군부 독재정권의 집권도 비슷한 궤적을 밟았다. 그리스의 우익 준장교들은 1967년 8월 21일 오랜 기간의 정치적 불안정과 긴장을 명분으로 쿠데타를 감행해 정권을 잡았으며, ‘대령들의 정권’으로 불린 군사정권의 통치는 1974년까지 계속되었다. 중도좌파정권인 그리스 사회당(PASOK) 정부는 1981년 공산국가로 망명한 민주군대 출신자들의 그리스 귀국을 허용하였고, 항독저항 게릴라들에게 국가연금을 제공하였다. 1989년 그리스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신민주당과 좌파진보연맹간의 연립정부의 법률은 1946-1949년이 전쟁을 단순히 ‘공산반란’이 아니라 내전으로 그리스 국가가 최종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법률에 따라 그리스의 각종 법률에 명문화된 ‘공산 도적들’(Communist Bandits)은 ‘민주군대의 전사들’(fighters of the DSE)로 바뀌었다.³⁾

제주도에서도 4·3사건의 영향은 그 이전의 모든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뒤덮고도 남을 만큼 컸다.

제주4·3사건 유적지들이 기행지가 되듯듯이 그리스 플로리나의 국경선 마을로 인구 150여명의 자그마한 마을 필리(Pyli)는 자카리아디스가 은신했던 동굴에 꽃밭을 세우고 그리스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는 곳으로 변하였다.⁴⁾

‘폭동’이나 ‘내전’ 등의 용어는 집단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극단적 충돌과 야만성의 표현이다.⁵⁾ 그리스내전과 제주4·3사건에서도 유사하다. 그리스내전에서는 정부군에 의해 좌익 게릴라들을 ‘비

2) André Gerolymatos, *Red Acropolis, Black Terror*, pp.199-201.

3) http://en.wikipedia.org/wiki/Greek_Civil_War (검색일 2009. 9. 9).

4) Stavros Tzimas, "Memories of civil War offer future hope for tourists", *Kathimerini*, English ed. 2001. 9. 1, http://www.ekathimerini.com/4dcgi/_w_articles_politics_1_01/09/2001_12048 (검색일 2008. 6. 13).

5) 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p.17.

적’(bandit), ‘도당’(band), ‘불한당’(thug), ‘불랑배’(gang) 등으로 불렸고, 제주4·3 사건에서는 ‘산엿놈’, ‘산도적’, ‘폭도’, ‘빨갱이’ 등으로 불렸다. 양 지역에서 사건이 끝난 뒤 이러한 용어들은 패자를 배제하려는 승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왔다. 권귀숙은 국가가 침묵을 강요한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가 표명한 공식 역사 외에는 말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의 기억과 말로 표현하는 기억 간의 괴리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전제주의 국가에서 공식 역사 외의 발언은 처벌되며, 일부 체험자와 그 가족에게는 ‘빨갱이’ ‘반동’ 등의 낙인이 찍힌다. 기억한다는 자체가 공포인 것이다”고 말하였다.⁶⁾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전개과정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체제 형성기 국가건설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통한 대소봉쇄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이뤄졌음을 규명함으로써 국제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주요 원인이 정부군이 채택한 대게릴라 전략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차원의 내전적 상황과 그리스라는 국가적 차원의 내전을 비교해 미시 및 거시적 비교연구가 서로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비교연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제주도와 그리스에서 민간인 학살로 나타나는 폭력의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연구로서 향후 두 국가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대만 2·28사건 및 오키나와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 다양한 주제의 비교연구를 활성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한계도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보편적 역사의 맥락에 초점을 맞춰 냉전체제 형성기 국가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에서 민간인 대량학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전개과정을 미국의 개입이라는 변수를 통해 분석을 시도했지만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제주4·3사건은 제주도의 민중항쟁의 전통, 공동체적 전통과 같은 특수성과 함께 해방공간 한반도의 혁명적 상황에 노출된 좌우 대결구도의 보편성 등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북수의 사례분석을 통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미시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6) 권귀숙,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pp.20-21.

그리스는 탈점령 이후 외세의 개입에 의한 반공·우익 정부를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좌·우익의 치열한 내전이 전개됐고, 내전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민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폭력 사례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참고문헌

1. 국내 신문 및 공간 자료

- 『경향신문』; 『국도신문』; 『국제신문』; 『대동신문』; 『독립신보』; 『동광신문』; 『동아일보』; 『로동신문』; 『메일신보』; 『서울신문』; 『연합신문』; 『우리신문』; 『자유신문』; 『제주신문』; 『제주신보』; 『조선인민보』; 『조선일보』; 『중외신보』; 『한겨레』; 『한성일보』; 『현대일보』
- 공군본부 정훈감실. 『공군사 제1집-自 1949年 10월 1日 至 1953年 7月 27日』. 서울: 공군교재창. 196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특별작성사』. 서울: 동연구소. 2002.
-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I-해방과 건군』. 서울: 동위원회. 1967.
- _____. 『대비정규전사 1945-1960』. 서울: 동위원회. 198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서울: 동위원회. 1981.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UN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I, II. 1987.
- _____. 『대한민국사자료집』 제18-44권(제18-27권: 정치고문관 문서, 제28-37권: 이승만 관계 서한 자료집, 제38-44권: 유엔한국위원단 활동문서). 1994-1999.
- 육군본부. 『공비특별사』. 서울: 육군본부. 1954.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동위원회. 2003.
- _____. 『제주4·3사건자료집』 전12권. 서울: 동위원회. 2001-2002.
- _____. 『군관계자 증언채록-1』. 서울: 동위원회. 미간행.
-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 제주도의회. 2000.
- _____. 『제주4·3자료집II-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제주: 각. 2001.
- 제주도경찰국. 『제주도경찰사』. 제주: 동국. 1990.
-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경성: 조선인쇄주식회사. 1939.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 『자료집·일본신문이 보도한 제주도:1878~1910년』. 제주: 동청. 2006.
-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서울: 동회. 1968.

2. 구술·서한 자료

Charles L. Wesolowsky(미국 플로리다주·1948년 제주도 주둔 제11연대 대대 및 9연대 고문관) 인터뷰. 2001년 10월 22-23일.

Harold S. Fischgrund(미국 버지니아주·1948년 제주도 주둔 제9연대 고문관) 인터뷰. 2001년 10월 18일.

James Leach 인터뷰 기사(1948년 제9연대 및 11연대 고문관). 'Back in the Day: Col. Jimmie Leach, a former US Army Officer recalls the Jeju-Do Insurrection of 1948'(January 10, 2006),

http://dwb.beaufortgazett.com/local_news/military/story/5443010p-4914264c.html

(검색일 2008. 11. 20)

Konstantinos Halbatzakis(그리스 테살로니키·한국전쟁 참전 신부) 전화인터뷰. 2008년 6월 22일.

Letter, Charles L.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t, 16 Sept. 1996; 6 March, 1996.

고창욱(1924년생) 구술채록. 2005년 10월 22일.

김병석(1930년생) 구술채록. 2006년 12월 20일.

남인희(1924년생) 구술채록. 2005년 10월 20일.

채정옥(1924년생) 구술채록. 1992년 4월 4일.

허찬부(1924년생) 구술채록. 2006년 4월 29일.

3. 단행본

강기천. 『강기천 회고록-나의 인생 여로』. 서울: 계몽사. 1996.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김일수. 『적화전술: 조국을 쪼먹는 그들의 흉계』. 서울: 경찰교양협조회. 1949.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어느 혁명가의 수기』. 서울: 사계절. 1987.

공국진. 『선곡 공국진 회고록 - 한 노병의 애환』. 서울: 원민 Publishing House. 2001.

권귀숙. 『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음.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3. 서울: 돌베개. 1986.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

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대판: 문우사. 1963.

- 김용학·임현진. 『비교사회학-쟁점, 방법 및 실제』. 서울: 나남출판. 2000.
-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서울: 박영사. 1992.
- 김점곤. 『한국전쟁과 남로당 전략』. 서울: 박영사. 1973.
- 김진균 외 지음. 『제3세계와 한국의 사회학: 현대한국사회론』. 서울: 돌베개. 1986.
- 문창송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995.
- 미디어제주. 『제주민주화운동사-타는 목마름으로』. 제주: 미디어제주. 2007.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 1996.
-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서울: 나남. 1992.
-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해방 후 권력과 민중의 충돌』.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1.
-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 제도화』. 서울: 고려대 출판부. 1997.
-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 함께. 2005.
- 백선엽. 『군과 나 - 백선엽 6·25 한국전쟁 회고록』. 서울: 대륙연구소. 1989.
- _____. 『실록 지리산』. 서울: 고려원. 1992.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서울: 역사비평사. 1991.
-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서울: 금문사. 1973.
- 송광성. 『미군점령4년사』. 서울: 평민사. 1993.
- 신명순. 『제3세계정치론』. 서울: 범문사. 1993.
-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서울: 한울. 2001.
- 양정심. 『제주4·3항쟁 -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서울: 선인. 2007.
-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서울: 한구해양전략연구소. 2006.
- 유엔조선위원회 지음, 임명삼 옮김. 『UN조선위원회 보고서』. 서울: 돌베개. 1984.
- 이계홍 정리. 『최갑석 장군 이야기-장군이 된 이등병』. 서울: 화남. 2005.
- 이동현. 『한국신탁통치연구』. 서울: 평민사. 1990.
- 이삼성.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서울: 한길사. 2001.
-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2001.
- 이용우.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서울: 역사비평사. 2008.
- 이치업. 『번개장군』. 서울: 원민 Publishing House. 2001.
- 장창국. 『육사졸업생』. 서울: 중앙일보. 1984.

- 전두열. 『삶과 사랑, 자유의 초상-정암 전두열 자서전』. 서울: 예진문화. 2006.
- 전상인. 『고개숙인 수정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2001.
- 정용욱.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서울: 중심. 2003.
- _____. 『해방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3.
- 정일권·예관수. 『공산군의 유격전법과 경비와 토벌』. 서울: 병학연구사. 1948.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전5권. 서울: 전예원. 1994-1998.
-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 1999.
-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3-8호. 제주: 각. 2003-2008.
- _____. 『4·3장정』 1. 제주: 동연구소. 1990.
- _____. 『4·3장정』 5. 제주: 동연구소. 1992.
- _____. 『4·3장정』 6. 제주: 나라출판. 1993.
- _____.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인들』. 서울: 역사비평. 2002.
- _____. 『이제사 말해주세요』 1. 서울: 한울. 1989.
- _____. 『이제사 말해주세요』 2. 서울: 한울. 1989.
- 조남수. 『4·3진상』. 제주: 관광제주. 1988.
- 조선사연구회 엮음, 조성을 옮김. 『한국의 역사』. 서울: 한울. 1985.
-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서울: 함께 읽는 책. 2002.
- 진덕규. 『한국 현대정치사 서설』. 서울: 지식산업사. 2000.
- 채명신. 『채명신 회고록-사선을 넘고 넘어』.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4.
-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서울: 나남. 1988.
- 최호근. 『제노사이드-학살과 은폐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5.
- 하경근. 『아프리카정치론』. 서울: 일조각. 1974.
- _____. 『제3세계정치론』. 서울: 한길사. 1982.
- 황인성. 『나의 짧은 한국 기행 - 회곡 황인성 회고록』. 서울: 황씨중앙중친회. 2002.

4. 논문 및 기고

- 곽재성. “중미의 정치변동-정치적 폭력에 대한 기원을 중심으로”, 서울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이베로아메리카연구』 8. 1997.
- 권문술. “과테말라의 정치와 사회”, 한국외대 중남미문제연구소, 『중남미문제연구』 9. 1992.
- 그-쥘꼬바述. “회랍 빨찌산지역에서”, 순간통신사, 『旬間通信』 No. 26(7월 상순호). 1949.
- 김득중. 『제헌국회의 구성과정과 성격』,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상기. 『폭력 메커니즘과 기독교 담론윤리 구상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연세대 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전남대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3집 제2호. 2003.
- 김일평. “김일평 교수 회고록(1)-미국 유학 50년 비화”, 『월간조선』. 2003년 4월호.
- 김종성·박옥임. “국가체제형성기의 민간인 학살과 국가폭력 -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제9집. 2003.
- 김희재. 『미군정기 민중의 꿈과 좌절-인민위원회 운동을 중심으로』, 부산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 무라카미 나오코(村上尚子). “4·3 당시 일본 에히메로 건너간 사람들에 관한 영연방 일본점령군자료”,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7호. 제주: 각. 2007.
-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 박명립. “한국의 국가형성, 1945-48: 시각과 해석”,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1995.
- _____. “전쟁과 인민: 통합과 분화와 학살”,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제16호. 2000.
- 박찬식. “제주해녀의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1995.
- _____. “북한의 ‘제주4·3사건’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 2005.
- _____. “제주4·3사건 관련 목포형무소 재소자 연구: 행방불명자 규명을 중심으로”,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제30집. 2007.
-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 반공체제 수립과 자유민주주의 제도화, 1945-45』,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 북조선노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강연자료 제13집, 『戰後の希臘』(세계정치와 경제 제8호에서). 평양: 북조선노동당 중앙본부. 1948.
- 송광성. “그리스와 미국의 전쟁: 냉전정책의 선언”,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제10권. 2000.
- _____. “그리스와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싸운 전쟁: 독립과 혁명을 위한 긴 전쟁”, 한서대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 제7권. 2003.
- 신용중. 『미·소의 대한반도정책, 1943-1948』,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1987.
- 아키라 이리예. “알타체제의 붕괴와 냉전의 출현”, 부르스 커밍스 외, 『분단전후의 현대사』. 서울: 일월서각. 1983.
-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 안청시. “정치폭력의 개념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 1997.
- 양영조. “타이거장군 - 송요찬”, 『국방저널』 12월호. 2000.
- 양정심. 『제주4·3항쟁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 오재완.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의 국내정치적 역할: 1945-1948』,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 윤충로. “미국의 지배전략과 베트남의 분단”, 한국산업사회학회, 『미국의 세계패권』, 2003년 비판사회학대회(제6회) 자료집. 2003.
- 윤희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 이삼성. “한국전쟁이 냉전과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마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1946”,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서울: 한길사. 1989.
- 임현진·백운선. “한국에서의 국가자율성-도구적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7.
- 장윤식.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 조덕송. “流血의 濟州島”, 『新天地』 7월호. 1948.
- 조성권. “콜롬비아에서 정치폭력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양당주의, 후견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중남미문제연구소, 『중남미문제연구』 14. 1995.
- 조세프 S. 루섹(Joseph S. Roueck). “希臘의 政治情勢”(Government and Politics Abroad 1947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1949.
- 차경미. “끝나지 않는 전쟁: 콜롬비아의 내전”,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10권 제2호. 2006.
- 최장집. “미군정하 국가다원주의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역사적 기원”,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 1989.
- 최장집·정해구.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서울:

- 한길사. 1989.
- 퀸틴 레이놀드 슘, 전성철 역. “내란에 신음하는 희랍인민들”(『콜리어-스』 1948년 9월 21일호에서).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1949.
- 편집실. “희랍의 게릴라전선”,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제5권 제6호(1947. 9). 1947.
- 하영선. “냉전체제·제3세계·한국”, 김진균 외 지음, 『제3세계와 한국의 사회학: 현대한 국사회론』. 서울: 돌베개. 1986.
- 하형주.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관한 연구: 1948~1997』,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 하영선. 『제주4·3시기 아동학살 연구-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제주대 한국학협 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6.
- 허중. “1945~1946년 대구지역 좌파세력의 국가건설운동과 ‘10월 인민항쟁’”, 『대구사학』 제75집. 2004.
- 허호준.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72. 2006.
- _____.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홍원표.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기리는 혁명송”, Han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enguin)/홍원표 옮김. 『혁명론』. 서울: 한길사. 2004.
- 황진식. “희랍의 최근 정세”, 『旬間通信』 No. 27(7월 중순호). 1949.
- 휴 세튼 왓트슨(Hugh Seton Watson) 씀, 안종목 역. “希臘의 近情”(『맨체스터 가디언』 지 번역). 서울신문사, 『신천지』 제4집 제3호(1949. 3). 1949.
- 희랍공산당 총비서 니코·파하리아지스. “찌또 도배는 인민 민주 희랍의 배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로동신문사, 『근로자』 제18호. 평양: 로동신문사. 1949. 9.

5. 외국 신문 및 공간 자료

Chicago Tribune
Los Angeles Times
New York Herald Tribune
New York Times
Nippon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Stars and Stripes (Pacific)

Washington News

Washington Post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FM 31-21: Department of the Army*

Filed Manual Guerrilla Warfare and Special Forces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61.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Counterguerrilla Operations Handbook.*

Conn.: The Lyons Press. 2004.

Departmental Despatch No. 23/1949. Australian Mission in Japan to Australia, *Subj:*

United States Commission on Korea, 25th February 1949, A 1838, Australia
National Archives.

Eugene Irving Knez papers 1940s-1970s, Anthropological Archives, Smithsonian
Institution, USA.

FRUS 1945, Vol. VI; *FRUS* 1945, Vol. II; *FRUS* 1945, Vol. VIII ; *FRUS* 1946, Vol. VII;

FRUS 1946, Vol. VIII; *FRUS* 1947, Vol. V; *FRUS* 1947, Vol. VI; *FRUS* 1948, Vol. I

(Part 2); *FRUS* 1948, Vol. VI; *FRUS* 1949, Vol. VII (Part 2)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Human Rights Watch. *Slaughter Among Neighbors: The Political Origins of*
Communal Viol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Human Rights Watch/Americas. *Human Rights in Guatemala During President de*
León Carpio's First Year. New York/Washington/Los Angeles/London:
Human Rights Watch/Americas. 1994.

References PCPS D/13. Australia. National Archives.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Legislative Origins of the Truman*
Doctrine. Washington, D.C.: U.S.G.P.O. 1973.

Economic Assistance to China and
Korea: 1949-1950: Hearings held in executive session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81st Congress, 1st and 2nd
sessions on S. 1063, S. 2319, S. 2845. Washington, D.C.: U.S.G.P.O. 1974.

Soviet News.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Question(Documents).* London:
Farleigh Press. 1950.

U.S. House of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Far East Part 2, Selected*
Executive Session Hearings of the Committee, 1943-50, Vol. VIII. Washington:

U.S.G.P.O. 1976.

U.S. House of Representatives. *United States Policy in the Far East Part 2, Selected Executive Session Hearings of the Committee, 1943-50*, Vol. VIII: *Korea Assistance Acts, Far East Portion of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of 1950*. Washington, D.C.: U.S. G.P.O. 1976.

『미국무성 한국관계문서』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전23권 .서울: 아름출판사. 1995.

『미군사고문단 정보일지』 (*G-2 Periodic Report*) 전7권. 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89.

『미군정청 관보』 (*Official Gazette*) 전4권. 서울: 원주문화사. 1993.

『미군정활동보고서』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전 6권 (이길상편, 서울: 원주문화사, 1990)

『주한미국대사관 주간보고서』 (*JOINT WEEKKA*) 전8권. 서울: 영진. 1997.

『주한미군사』 (*HUSAFIK*) 전4권. 서울: 돌베개. 1988.

『주한미군정보요약』 (*G-2 Weekly Summary*) 전5권. 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0.

『주한미군정보일지』 (*G-2 Periodic Report*) 전7권. 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88-1989.

『지방미군정자료사』 전3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서울: 경인문화사. 198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 電報綴.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

6. 외국 단행본

A. Biniaris & Henry Bassis. *L'armée démocratique grecque*. Paris: France d'Abord. 1947/호·빠씨 스, 아·삐니아리스 공저, 야·우쉐렌꼬 露文譯. 『희랍민주군』 (과리: 프랑스 다보르출판소, 1947). 모스끄바: 쏘련 무력성 군사출판소. 1948.

Acheson, Dea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Norton. 1969.

Afflitto, Frank M, and Paul Jesilow. *The Quiet Revolutionaries: Seeking Justice in Guatemala*.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7.

Arendt, Hannah. *On Violence*/김정한 옮김. 『폭력의 세기』. 서울: 이후. 1999.

_____. *Crises of the Re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김동식 옮김. 『공화국의 위기』. 서울: 두레. 1997.

- _____.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enguin/홍원표 옮김. 『혁명론』. 서울: 한길사. 2004.
- Asprey, Robert B. *War in the Shadows: The Guerrilla in History*, revised.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4.
- Bærentzen, Lars, John O. Iatrides, and Ole L. Smith.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Greek Civil War 1945-1949*.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1987.
- Bærentzen, Lars. ed. *British Reports on Greece 1943-1944*.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1982.
- Barnet, Richard J. *Intervention & Revolution*. New York and Scarborough: A Mentor Book. 1968.
- Baylis, John &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Berlow, Alan. *Dead Season: A Story of Murder and Revenge*. New York: Vintage. 1996.
- Birtle, Andréw J. *U.S. Army Counterinsurgency and Contingency Operations Doctrine 1942-1976*.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2006.
- Burnett, Scott S. ed.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III, The Period of Diminishing Influence, 1896-1905*.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2.
- Byford-Jones. W. *Greek Trilogy: Resistance, Liberation, Revolution*. London: Hutchinson. 1945.
- Carabott, Philip, and Thanasis D. Sfikas. eds. *The Greek Civil War: Essays on a Conflict of Exceptionalism and Silences*. Hampshire: Ashgate. 2004.
- Clifford, Clark. *Counsel to the President: A Memoir*. New York: Random House. 1991.
- Close, David H.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 London: Longman. 1995.
- Colovas, Anthone C. *A Quick History of Modern Greece*. Baltimore: Publish America. 2007.
- Connally, Tom. *My Name is Tom Connally*.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54.
- Contech-Morgan, Earl. *Collective Political Violence: An Introduction to the Theories and Cases of Violent Conflict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4.
- Coser, Lewis A.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Free Press. 1956/박재환 옮김. 『갈등

- 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1980.
- Couloumbis, Theodore A., and John O. Iatrides. *Greek American Relations: A Critical Review*. New York: Pella. 1980.
- Cranston, Maurice. ed, *Ideology and Politics*/이재석 옮김. 『이데올로기의 이해』. 서울: 민족문화사. 1985.
-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Dean, William F. *General Dean's Story*.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4.
- Djilas, Milovan. *Conversations with Stali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 Etzold, Thomas H., and John L. Gaddis. eds. *Containment: Documents of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 Eudes, Dominique. *Les Kapetanos*.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John Howe, translated from the French, *The Kapetanos: Partisans and Civil War in Greece, 1943-1949*. London: NLB. 1972.
- Fanon, Franz. *Les damnés de la terre*/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서울: 그린비. 2007.
- Fein, Helen. *Accounting for Genocide*.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 Fleck, Dieter. ed. *The Handbook of 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Foerster, Schuyler, and Edward N. Wright. eds. *American Defense Policy*, 6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 Fremont-Barnes, Gregory. *The Boer War 1899-1902*.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 Gaddis, John L.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박건영 옮김.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서울: 사회평론. 2002.
- Gardam, Judith Gail. *Non-combatant Immunity as a Norm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ordrecht, Boston and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 Gardner, Hugh H. *Guerrilla and Counter guerrilla Warfare in Greece, 1941-1945*.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2.
- Gerolymatos, André. *Red Acropolis, Black Terror: The Greek Civil War and the*

- Origins of Soviet-American Rivalry, 1943-1949*. New York: Basic Books. 2004.
- Giddens, Anthony.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삼지원. 1991.
- Gilbert, Martin. *The Second World War: A Complete History*. New York: Henry Holt. 2007.
- Go, Julian, and Anne L. Foster. eds. *The American Colonial State in the Philippines: Global Perspectiv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3.
- Gottfried, Ted. *Heros of the Holocaust*. Connecticut: Twenty-First Century Books. 2001.
- Grotelueschen, Mark E. *Doctrine Under Trial: American Artillery Employment in World War I*. C.T.: Greenwood Press. 2000.
- Gurr, Ted R.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He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박행웅 · 이종삼 옮김.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한울. 2000.
- Henderson, Mary. *Xenia-A Memoir: Greece 1919-1949*. Leicestershire: Thrope. 1991.
- Hironaka, Ann. *Neverending W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ak States, and the Perpetuation of Civil War*.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Holsti, Kalevi J. *The State, War, and the State of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Hondros, John L. *Occupation and Resistance: The Greek Agony 1941-44*. New York: Pella. 1983.
- Horowitz, David. ed. *Containment and Revolution*. Boston: Beacon Press. 1967.
- Horowitz, Irving Louis. *Foundations of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1972.
- _____. *Taking Lives: Genocide and State Power*, 4th 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7.
-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민준기 · 배성동 역. 『정치발전론』. 서울: 을유문화사. 1971.
- Iatrides, John O. *Revolt in Athens: The Greek Communist "Second Round," 1944-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 Joes, Anthony James. *Resisting Rebellion: The History and Politics of Counterinsurgency*. Kentuc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4.
- _____. *America and Guerrilla Warfare*. Kentuc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7.
- Johnson, Chalmers A.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 _____. *Revolutionary Chang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6.
- _____.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0.
- Johnson, Edgar A. *American Imperialism In the Image of Peer Gy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1.
- Jones, Howard. *A New Kind of War: America's Global Strategy and the Truman Doctrine in Gree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Jones, Joseph Marion. *The Fifteen Weeks: February 21-June 5, 1947*. New York · Chicago · Burlingame: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5.
- Kalyvas, Stathis N.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Karabell, Zachary. *Architects of Intervention*. Louisiana: Louisiana University Press. 1999.
- Karnow, Stanley. *In Our Image: America's Empire in the Philippines*. New York: Ballentine Books. 1989.
- Kennan, George F. *Memoirs: 1925-1950*. Boston: Little Brown. 1967.
- _____. *American Diplomacy*, expande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Kofas, Jon V. *Intervention and Underdevelopment: Greece During the Cold War*. University Park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9.
- Kolko, Joice,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New York: Harper & Row. 1972/김주환 옮김,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김주환 엮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서울: 청사. 1989.
- Kourvetaris, George A. *Political Sociology: Structure and Process*/박형신 · 정현주 옮김. 『정치사회학』. 서울: 일신사. 1998.

- Kousoulas, D. George. *Revolution and Defeat: The Story of the Greek Communist Par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Krock, Arthur. *Memoirs*.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68.
- Kuper, Leo.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 Leffler, Melvin P.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 Leites, Nathan and Charles Wolf Jr. *Rebellion and Authority: An Analytic Essay on Insurgent Conflicts*, Chicago: Markham. 1970.
- Linn, Brian McAllister. *The U.S. Army and Counterinsurgency in the Philippine War, 1899-1902*.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9.
- Malkasian, Carter. *A History of Modern Wars of Attrition*. C.T.: Praeger Publishers. 2002.
- Manz, Beatriz. *Refugees of a Hidden War: The Aftermath of Counterinsurgency in Guatemala*.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 Mao Tse-Tung. *On Guerrilla Warfare*. trans. Samuel B. Griffith. New York: Praeger. 1961.
- Mark Gayn 지음, 까치 편집부 옮김. 『해방과 미군정』. 서울: 까치. 1986.
- Mason, Thomas David. *Caught in the Crossfire: Revolution, Repression, and the Rational Peasa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4.
- Matray, James I.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구대열 옮김.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서울: 을유문화사. 1988.
- Matthews, Kenneth. *Memories of a Mountain War: Greece, 1944-1949*. New York: Longman. 1972.
- Mayer, Arno J. *The Furies: Violence and Terror in the French and Russian Revolu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Mazower, Mark. *Inside Hitler's Greece: The Experience of the Occupation, 1941-1944*.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ed. *After the War was Ove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McClintock, Michael. *The American Connection: State Terror and Popular Resistance*

- in Guatemala*, Vol. 2. London: Zed. 1985.
- McCuen, John J. *The Art of Counter-Revolutionary War*. Florida: Hailer Publishing. 2005.
- McNeill, William H. *The Greek Dilemma: War and Aftermath*.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47.
- Meade, E. Grant.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King's Crown Press. 1952.
- Merrill, John.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 Millis, Walter. ed. *The Forrestal Diarie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1.
- Nachmani, Amikam.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the Greek Civil War: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the Balkans, 1947-1952*. New York: Praeger. 1990.
- Nye, Jr., Joseph 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4th ed. New York: Longman. 2003.
- O'ballance, Edgar. *The Greek Civil War 1944-1949*. London: Faber and Faber. 1966.
- O'Neil, Bard E. *Insurgency and Terrorism: Inside Modern Revolutionary Warfare*. Washington: Brassey's. 1990.
- Osanka, Franklin M. ed.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41-1961*. New York: The Free Press. 1962.
- Page, Melvin, Penny Sonnenberg, and James Climent. eds. *Colonialism: An International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Encyclopedia*. C.A.: ABC-CLIO. 2003.
- Pakenham, Thomas. *The Boer War*. New York: Random House. 1979.
- _____. *The Scramble for Africa: White Man's Conquest of the Dark Continent from 1876 to 1912*. New York: Avon Books. 1991.
- Paterson, Thomas G.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2nd ed. Lexington: Health and Company. 1974.
- Payne, Stanley G. *The Franco Regime, 1936-1975*.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 Raphael Lemkin.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Laws of Occupation, Analysis of Government, Proposals for Redress*, 2nd ed. Introduction to the Second

- Edition by William A. Schabas. New Jersey: The Lawbook Exchange. Ltd. 2008.
- Rentsch, Hellmuth. *Partisanenkampf: Erfahrungen und Lehren*. Frankfurt: Bernard & Graefe Verlag für Wehrwesen. 1961/민병돈 역. 『공산유격전과 대유격전』. 서울: 육군대학. 1968.
- Rose, Lisle A. *Roots of Tragedy: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uggle for Asia 1945-1953*.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6.
- Roubatis, Yiannis P. *Tangled Webs: The U.S. in Greece 1947-1967*. New York: Pella. 1987.
- Schirmer, Daniel B., and Stephen Roskamm Shalom. *The Philippines Reader: A History of Colonialism, Neocolonialism, Dictatorship, and Resistance*. Boston, MA: South End Press. 1987.
- Schirmer, Jennifer. *Guatemalan Military Project: A Violence Called Democrac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8.
- Schlesinger, Jr, Arthur, ed. M. *The Dynamics of World Power: A Documentary History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73*, Vol. II.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73.
- Schmid, Alex P. *Soviet Military Intervention Since 1945 With Case Studies by Ellen Berends*. N.J.: Transactions Publishers 1985/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옮김. 『1945년 이후의 소련의 군사개입』. 서울: 동연구소. 1989.
- Sheehan, Neil. *A Bright Shining Lie: John Paul Vann and America in Vietnam*. New York: Random House. 1988.
- Skates, John R. *The Invasion of Japan: Alternative to the bomb*.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4.
-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Small, Melvin, and David J. Singer. *Resort to Arms: International and Civil War, 1816-1980*. Beverly Hills, C.A.: Sage. 1982.
- Smothers, Frank Albert, and William H. McNeill. *Report on the Greeks: Findings of a Twentieth Century Fund Team with surveyed conditions in Greece in 1947*.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1948.
- Sorel, Georges. *Réflexions sur la violence*. Paris: Seuil. 1990/이용재 옮김. 『폭력에 대

- 한 성찰』. 파주: 나남. 2007.
- Spanier, John.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8th rev.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80.
- Stavrianos, L.S. *Greece: American Dilemma and Opportunity*.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52.
- Stueck, William W. Jr.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 Stueck, William W. Jr.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y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서은경 역. 『한국전쟁과 미국외교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5.
- Stoll, David. *Between Two Armies: In the Ixil Towns of Guatemal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Stubb, Richard. *Hearts and Minds in Guerrilla Warfare: The Malayan Emergency, 1948-1960*.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Tilly, Charles.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Oxford: Basil Blackwell. 1990/이향순 옮김.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강압, 자본과 유럽국가의 발전』.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4.
- _____.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 _____.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양길현 외 공역. 『동원에서 혁명으로』. 서울: 서울프레스. 1995.
- Trinquier, Roger. *Modern Warfare: A French View of Counterinsurgency*. New York: Praeger. 1964.
- Truman, Harry S. *Memoirs of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Vol. II. New York: Da Capo Press. 1956.
- Valentino, Benjamin A.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Twentieth Centur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장원석·허호준 옮김.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 제주대 출판부. 2006.
- Vlavianos, Haris. *Greece, 1941-49: From Resistance to Civil War- he Strategy of the Greek Communist Par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1.
- Voglis, Polymeris. *Becoming a Subject: Political Prisoners during the Greek Civil*

- War*. New York & Oxford. 2002.
- Wallimann, Isidor, Michael N. Dobkowski. *Genocide and the Modern Age*. Conn.: Greenwood Press. 1987/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제주: 각. 2005.
- Weber, Max.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 H. H. Gerth & C. W. Mills, 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Weigley, Russell F.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 Wickham-Crawley, Timothy P. *Guerrillas and Revolution in Latin America: A Comparative Study of Insurgents and Regimes since 195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Wittner, Lawrence S.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3-194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 Wolff, Leon. *Little Brown Brother: How the United States Purchased and Pacified the Philippine Island at the Century's Turn*. New York: History Book Club. 2006.
- Woodhouse, C.M. *Apple of Discord: A Survey of Recent Greek Politics in Their International Setting*. London: Hutchinson. 1948.
- _____. *The Struggle for Greece 1941-1949*. Chicago: Ivan R. Dee. 1976.
- Yergin, Daniel. *Shattered Peac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8.
- 藤原 彰. 『日本軍事史』. 동경: 동양경제신보사. 1987/엄수현 역. 『일본군사사』. 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7. 외국 논문

- Alavi, Hamza.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Pakistan and Bangladesh", *New Left Review*, No. 74. 1972. /임영일 · 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서울: 까치. 1985.
- Bernstein, Barton J.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War", Michael J. Lacey, ed., *The Truman Presiden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Carmack, Robert M. "The Story of Santa Cruz Quiché", Robert M. Carmack, ed.,

- Harvest of Violence: The Maya Indians and the Guatemalan Crisi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8.
- Close, David H. "The reconstruction of a right-wing state", David H. Close, ed., *The Greek Civil War, 1943-50. Studies of Polarization*. New York: Routledge. 1993.
- Cummings, Bruce.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the Chejudo Uprising",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April 3rd, 1948 Chejudo Rebellion, Tokyo, March 14, 1998.
- Downes, Alexander B. Desperate Times, "Desperate Measures: The Causes of Civilian Victimization in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4(Spring 2006).
- Gerolymatos, André. "The Role of the Greek Officer Corps in the Resistance", *Journal of the Hellenic Diaspora*, Vol. II, No. 3(Fall 1984).
- _____. "Greek Democracy on Trial: From Insurgency to Civil War, 1943-1949", *Th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Center for Eurasian Studies*, Vol. 2, No. 3(Spring 2003).
- Harbom, Lotta, and Peter Wallensteen. "Armed Conflict and Its International Dimensions, 1946-2004",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2, No. 5. 2005.
- Harff, Barbara. "제노사이드의 발생원인",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Genocide and the Modern Age/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제주: 각. 2005.
- Holsti, Kalevi J. "International Theory and War in the Third World", Brian L. Job, ed., *The Insecurity Dilemma: National Security in Third World States*. Boulder: Lynne Rienner. 1992.
- Horowitz, Irving Louis. "제노사이드와 사회이론의 구축: 집단적 희생의 배타성에 관한 고찰",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Genocide and the Modern Ag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7)/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제주: 각. 2005.
- Jonassohn, Kurt, and Frank Chalk. "제노사이드의 유형과 인권의제", Isidor Wallimann and Michael N. Dobkowski eds., *Genocide and the Modern Age/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제주: 각. 2005.
- Jones, Joseph Marion. "Curbing Communist Expansion: The Truman Doctrine", Thomas G. Paterson,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2nd ed. Lexington:

- Health and Company. 1974.
- Leffler, Melvyn P. "Inside Enemy Archives: The Cold War Reopened", *Foreign Affairs*, Vol. 75, No. 4. 1996.
- Markusen, Eric. "제노사이드와 총력전: 예비적 비교",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Genocide and the Modern Age*/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제주: 각. 2005.
- Masao, Okonogi. "The Domestic Roots of the Korean War", Yonosuke Nagai and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 Mazower, Mark.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Review Essa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7, No. 4. 2002.
- McClintock, Michael. "American Doctrine and Counter-Insurgency State Terror", Alexander George, ed., *Western State Terrorism*. Cambridge: Routledge. 1991.
- Merrill, John R. The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 1980.
 _____. The American Occupation of Korea. 서대숙 외. 『한국현대사와 미군정』. 강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1.
- Mill, John Stuart. *A System of Logic*/차종천 옮김, '비교의 두방법.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 서울: 열음사, 1990.
- Paul, Benjamin D. and William J. Demarest. "The Operation of a Death Squad in San Pedro la Laguna", Robert M. Carmack, ed., *Harvest of Violence: The Maya Indians and the Guatemalan Crisi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8.
- Sánchez, Gonzalo G. "The Violence: An Interpretative Synthesis", Charles Bergquist, ed, *Violence in Columbia: The Contemporary Crisis in Historical Perspective*. Wilmington, Delaware: S.R. Books. 1992.
- Schmidt-Hauer, "Christian. Genocide in 20th Century",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3호. 제주: 각. 2003.
- Skocpol, Theda. "Explaining Revolutions: In Quest of a Social Structural Approach", Lewis A. Coser and Otto N. Larsen, eds., *The Uses of Controversy in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6/김진균·정근식 역, 혁명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 김웅진 외 편역, 『비교정치론 강의 2-제3세계의 정치변동과 정치경제』. 서울: 한울. 1992.

- Smith, Roger. "인간의 파괴와 정치: 제노사이드의 시대로서 20세기",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s., *Genocide and the Modern Age*/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제주: 각. 2005.
- Spruyt, Hendrick. "War, Trade, and State Formation", Carles Boix and Susan C. Stoke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Takayuki, Ito. "The Genesis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 over Poland 1941-1944", Yonosuke Nagai and Akira Iriye, eds.,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7.
- Thies, Cameron G, "Public Violence and State Building in Central Ame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9, No. 10. 2006.
- Thomadakis, Stavros B. "Black Markets, Inflation, and Force in the Economy of Occupied Greece", John O. Iatrides, ed., *Greece in the 1940s: A Nation in Crisis*. Hanover, N.H.: University of New England Press. 1981.
- Tilly, Charles. Collective Violence in European Perspective. In Hugh Davis Graham and Ted Robert Gurr, eds., *The History of Violence in America*. New York: Bantam. 1969.
- _____.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Peter Evans, D. Rueschemeyer &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Toft, Ivan Arreguin.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2001.
- Valentino, Benjamin A., Paul Huth, and Dylan Balch-Lindsay, "'Draining the Sea': Mass Killing and Guerrilla Warfar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Spring 2004)
- Voglis, Polymeris. "Becoming Communist: Political Prisoners as a Subject during the Greek Civil War", Philip Carabott, Thanasis D. Sfikas, eds., *The Greek Civil War: Essays on a Conflict of Exceptionalism and Silences*. Hampshire, VT: Ashgate. 2004.
- Weathersby, Kathryn.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rking Paper No. 8, Washington, D.C. 1993.

8. 인터넷 웹사이트

http://dwb.beaufortgazette.com/local_news/military/story/5443010p-4914264c.html

(미국 *Beaufortgazette* 홈페이지-James Leach 인터뷰 기사)

http://en.wikipedia.org/wiki/Greek_Civil_War

(Wikipedia)

<http://news.bbc.co.uk/2/hi/europe/1818256.stm>

(영국 BBC 방송 뉴스)

<http://news.bbc.co.uk/2/hi/europe/6255235.stm>

(영국 BBC 방송 뉴스)

<http://news.bbc.co.uk/2/hi/europe/6255235.stm>

(영국 BBC 방송 뉴스)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625420/Eleutherios-Venizelos>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www.ekathimerini.com/4dcgi/_w_articles_politics_1_01/09/2001_12048

(그리스 신문 *Kathimerini* 영문판 기사)

<http://www.genocide-convention2008.de/Genocide-Conference-Reader.pdf>

(제노사이드 국제대회 홈페이지)

<http://www.hawaii.edu/powerkills/NAZIS.CHAP1.HTM>

(Rudolph J. Rummel 홈페이지)

<http://www.ndl.go.jp/constitution/e/shiryu/01/036/036tx.html>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실 홈페이지)

<http://www.ndl.go.jp/constitution/shiryu/01/022/022tx.html>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실 홈페이지)

<http://www.nytimes.com/2005/03/18/politics/18kennan.html>

(『뉴욕타임즈』 기사)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717746-1,00.html>

(『타임』 기사)

<http://www.trumanlibrary.org/oralhist/cliford6.htm>

(미국 트루먼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trumanlibrary.org/publicpapers/index.php?pid=2145&st=&st1=>

(미국 트루먼 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12.shtml>

(유엔 홈페이지)

<http://www.un.org/millennium/law/iv-1.htm>

(유엔 홈페이지)

<http://www.visitgreece.gr/pages.php?langID=2&pageID=254>

(그리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